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7 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7호(543)

차 례

〔경제건설론설〕

〔과학문화론설〕

〔경험론설〕

〔조국통일문제〕

〔국제문제〕

김 정 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우리 당에 있어서 사활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는 주체사상교양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입니다. 조선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

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거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상의 혁명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확립하시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면 마치도 그것이 객관세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주관적욕망이나 념원을 일방적으로 내세우는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는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지 사람만을 보라고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기때문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유구한 진화발전과정에 발생한 생명을 가진 물질적존재라는 점에서는 다른 생명물질과 공통적인 기초를 가지고있지만 그 발전수준에서는 질적인 차이를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다른 물질적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질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것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물질세계에서 인간은 유일한 자주적존재입니다. 동물은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으로만 생존할수 있기때문에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동물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에 의하여 그 운명이 규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연을 자기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세계의 힘있는 주인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에 복종되여 자연과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인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고유한 사회적운동법칙에 따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존재입니다. 자연을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역할이 커질수록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인간밖에 있는 물질세계는 더욱더 인간에게 복무하는 세계로 개변되여가는것입니다.

인간은 세계를 자기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유일한 창조적존재인것만큼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할뿐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입니다. 세계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겠는가 하는것은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와 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역할을 떠나서는 리해할수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규정되기때문에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됩니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습니다. 철학의 목적과 사명도 여기에서 례외로 될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알기 위한데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인간은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자신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알수 없기때문에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인식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진보성과 생활력은 결국 그것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도 바로 그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있습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자면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가지가운데서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고서는 물질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힐수 없습니다.

종래의 철학적세계관에서는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다는 유물론의 원리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변증법의 원리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철학적원

리만으로써는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은 밝힐수 있어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해명할수 없습니다.

원래 세계관의 기본사명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데 있는것만큼 유물론과 변증법이 세계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을 해명하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인 인간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까지 밝혀주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유물변증법의 일반적원리만으로써는 인간의 본질적특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밝힐수 없지만 그러나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떠나서는 이 문제를 옳게 해명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주체철학은 사람중심의 철학이기때문에 마치 유물변증법의 일반적원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것처럼 잘못 생각하고있습니다. 주체철학은 인간을 물질세계와 분리시켜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덜 발전된 물질적존재와의 관계에서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특성이 무엇이며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것을 밝혀줍니다.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인간이 그보다 덜 발전된 물질적존재에 대하여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세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고급한 물질의 운동인 인간의 운동이 저급한 물질의 운동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것이 유물론과 변증법의 기본원리에 맞는다는것은 명백합니다. 주체철학은 유물론과 변증법의 원리를 버린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질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유물변증법도 더욱 완성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은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과 인간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철학적해명에 기초하여서만 밝혀질수 있는것만큼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은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을 밝혀주는 원리와 인간의 본질적특성을 밝혀주는 원리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원리를 다같이 포괄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주체의 세계관은 지난 시기의 철학적세계관이 가지고있던 일면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세계관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것을 요구합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으로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수 있습니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사회적재부와 사회적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하는것입니다. 그런것만큼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관계가 개선되여나갑니다.

사회적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입니다.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 원인도 인간에게 있고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운동을 벌려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떠밀고나갑니다. 물론 인간은 객관적조건을 무시하고 력사를 창조할수는 없지만 객관적조건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인간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변될수 있는것입니다.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사업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은 주체에서 찾고 일감은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계십니다.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기본원인은 그 주인인 사람에게 있는것이지 객관적조건에 있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혁명과 건설은 인간이 객관적대상을 자기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활동인것만큼 객관적대상의 특성과 운동법칙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워진 옳은 방법에 의거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객관적대상과 조건에 맞는 옳바른 전략전술과 결부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줄뿐아니라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됩니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의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으며 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라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일부 일군들은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라는것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와 대치시키는가 하면 또 계급교양이나 혁명전통교양은 주체사상교양과 별개의 교양인것처럼 리해하고있습니다.

내가 이미 여러번 강조한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모든 혁명적원

칙을 다 계승하고있습니다. 맑스-레닌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이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입니다.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며 혁명을 끝까지 할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이 무엇때문에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버리겠습니까.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재부를 버리는것이 아니라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있습니다.

원래 사물의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두면을 가지고있습니다. 계승과 혁신의 어느 한면만을 보는것은 형이상학적관점입니다. 혁명사상이 발전하는 경우에도 계승과 혁신의 두면을 가지게 됩니다.

혁명사상의 기본사명은 혁명운동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실현하는 방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데 있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인 맑스-레닌주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을 혁명투쟁의 종국적목적으로 내세우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발전의 객관적법칙에 기초한 옳바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습니다. 혁명사상의 사명의 견지에서 볼 때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는 다같은 과학적공산주의사상으로서 공통성을 가집니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전반을 일관하고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과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원리와 과학적인 리론을 계승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맑스-레닌주의창시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에 비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사회발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로부터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혁명의 리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의 새로운 력사적환경에서 공산주의는 쏘베트정권에 전기화를 더한것이라고 한 레닌의 명제를 공산주의는 인민정권에 3대혁명을 더한것이라는 명제로 리해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레닌이 전기화에 대하여 지적한것은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높은 수준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필요하다는것을 강조한것이라고 리해할수 있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적요새와 함께 반드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며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을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습니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이 자연을 공산주의적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이라면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이 사회의 주인인 인간을 공산주의적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도 사람이며 또 사람을 위한 사업입니다.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주인인 사람부터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물질

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지만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다그쳐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사람들의 사상문화수준이 높아지는데 따라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실현될수 있도록 사회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것은 사회생활을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인민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나감으로써만 사회적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습니다.

착취계급이 청산되고 정권이 인민대중의 수중에 장악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가 점령되여나가는데 상응하게 사회적관계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문제가 인민정권에 의하여 얼마든지 순조롭게 풀려나갈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인민정권을 강화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규정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어떻게 창조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것을 보여준 산 모범으로 됩니다.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합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이라면 어느 민족, 어느 인민이 창조하였는가에 관계없이 그 가치를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자체의 사상체계안에 포섭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전일군들이 주체사상교양을 몇프로 하고 계급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몇프로 하겠다는 식으로 당사상교양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있는것을 보면 아직도 그들이 주체사상교양밖에 또 무슨 다른 사상교양이 있는것처럼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물론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이 주체사상원리교양의 내용과 꼭같은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은 다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충실성교양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급의식문제, 사회주의애국주의문제도 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다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사상, 리론, 방법이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로 일관되여있기때문에 우리 당의 혁명사상을 주체사상이라고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의 리치입니다.

일부 선전일군들은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하면 주체사상원리교양만을 념두에 두고있는것 같은데 물론 다른 형태의 사상교양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좁은 의미로 쓸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것만큼 주체사상교양이라고 할 때에는 거기에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을 다 포괄시켜보아야 합니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입니다. 로동계급은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인 력량입니다. 로동계급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할수 없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은 로동계급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하는 과정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아를 옳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롯한 계급적원쑤들과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교양에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시하고있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입니다.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 내세우라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수

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 내가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할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없습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서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환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로부터 출발하여야 합니다. 큰 나라나 발전된 나라라고 하여 언제나 옳은 길을 걷는것도 아니며 또 그러한 나라들의 경험이라고 하여 다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나라들의 역할을 응당하게 평가하고 그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주성을 줴버리고 큰 나라들이 하는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됩니다. 친선도 자주성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또 자주적인 립장에서만 참다운 친선을 보장할수 있습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무엇보다 그 민족의 지도사상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데 따라 규정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심으로써 룡성번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끝없이 존경하며 우리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높이 찬양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응당한 민족적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하겠다는 확고한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주체는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됩니다. 이런 점에서 혁명의 주체는 자기의 력사적뿌리를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재부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극진한 사랑과 배려,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은 오늘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자면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그이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빛나는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할수 있으며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투쟁을 멈출줄 모르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도 결국은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도록 하자는데 있습니다. 당정책집행과정이자 곧 혁명투쟁과정입니다. 우리는 당정책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선전일군들은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다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2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착취계급사회에서도 력사를 발전시킨것은 인민대중

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사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짊머지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민대중은 아직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였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선진적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됨으로써 비로소 력사무대에 널리 등장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력사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으로 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인민대중은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었습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합니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개인의 육체적생명과 구별되는 사회정치적생명이 있다는것을 밝혀주시였습니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사회정치적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닐수 있습니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 수령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라고 하는것은 수령이 바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기때문입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입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

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기때문에 그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와 평등의 귀중성에 대하여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여왔습니다. 주체사상도 자유와 평등이 귀중하다는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자주적인 존재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와 같은 차원의 원리가 아닙니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도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하지만 자유와 평등의 관계가 있다고 하여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은 평등한 관계에 있다고는 할수 있어도 반드시 그들이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와 대립시키는것도 옳지 않지만 그 어느 하나를 다른것에 용해시키려고 하는것도 잘못입니다.

하나의 사회적집단을 단위로 하여볼 때 평등의 원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한다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적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힘있는 작용을 합니다. 평등의 원리가 개인의 생명을 가장 귀중한것으로 여기는 개인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을 비할바없이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습니다.

물론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도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뿐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여기서 개인들사이의 평등은 그들사이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근절되고 사람들사이의 평등이 보장된 조건에서만 참다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억제하는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더욱 믿음직하게 보장하여줍니다.

만일 사회적집단의 통일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억제한다면 집단안에 참다운 통일이 보장될수 없으며 반대로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집단의 통일을 파괴한다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인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약화되여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 자체가 보장될수 없게 됩니다. 사회적집단의 통일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룩

어져야 하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안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저절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적집단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지휘가 필요하다는것을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됩니다.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안에서는 개인들사이에서도 혁명적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하지만 그 어느 개별적인 성원도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그들사이의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것으로는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있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됩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여서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는것만큼 그것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시켜서는 안됩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는것처럼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도 력사를 창조하는 정치적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습니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며 대중과 떨어진 당은 당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인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수령, 당, 대중을 분리시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는데 대하여 늘 강조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옳바른 리해를 가져야 합니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수령은 어디까지나 당의 수령, 인민대중의 수령인것만큼 수령의 역할을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과 분리시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수령의 역할,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여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하나로 통일되여있습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없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을 가진다는것은 있을수 없으며 또 그러한 충실성은 참다운 충실성이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별개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

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이 개인의 생명의 모체이라는 집단주의적생명관에 기초하고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것은 생명입니다. 생명가운데서도 육체적생명보다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더 귀중합니다. 사회적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생명이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이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에게 충성다하는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자신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생명의 근본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것이 아니라 자기자신을 위한것입니다. 주체사상은 육체적생명의 요구나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없으며 수령, 당, 대중과 떨어져 고립적으로 사는 생활은 인간의 사회적본성과 배치되는 값없는 생활이라고 봅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로 굳게 뭉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혁명적수령관은 혁명적인생관의 핵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생활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분석해보면 아직도 우리 일군들에게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리해가 부족하며 특히는 수령을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이 확고하지 못하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려는 혁명적신념이 확고하지 못한데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하여 신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있으며 난관에 부닥치게 되면 패배주의에 빠져 동요하고 요령주의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합니다.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패배주의는 당과 수령의 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만들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지 않는데로부터 나옵니다. 패배주의자들은 당과 수령, 인민대중을 믿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소총명이나 우연적인 요행수에 기대를 거는것입니

다. 혁명적수령관이 서고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은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기때문에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패배주의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부리는것도 결국은 혁명적수령관이 서있지 않은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고용살이근성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자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형식주의나 요령주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남의것을 쳐다보면서 사대주의나 교조주의를 하는것도 혁명적수령관이 서지 않은 표현입니다. 원래 혁명적의리와 동지적사랑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나 저렇게 달라질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것은 자기 부모가 반드시 다른 부모들보다 낫거나 그들로부터 어떤 덕을 입을수 있기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낳아키워준 생명의 은인이기때문입니다. 혁명적의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자기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갑니다. 만일 그 누가 자기 나라가 뒤떨어졌다고 하여 실망하고 자기 조국에 대하여 다른 마음을 먹거나 조국이 위험에 처하였을 때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배반하고 자기 한몸만을 건지려고 한다면 그 어느 나라 인민도 그러한 인간을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것입니다. 혁명적의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일이 없을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일제통치의 암담한 시기에 모든 간난신고를 다 이겨내면서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이 땅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주시였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제국주의와 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떨치도록 우리 인민을 이끌어주신분도 우리의 수령님이시며 오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분도 다름아닌 우리의 수령님이십니다. 조선의 모든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받아안았으며 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의 손길아래서 자라났습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우리모두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정치적생명의 어버이이십니다. 그러기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며 전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입니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풍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조직들에서 수령님의 덕성 교양을 많이 하고있는데 덕성교양만 하여가지고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킬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수령님은 가장 숭고한 인민적풍모와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고계십니다. 그러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켜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십니다. 지금 세계 수많은 나라 진보적인민들이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고있으며 그이를 위대한 스승으로 높이 존경하고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로작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습니다. 수령님의 로작에는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모든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총화되여있으며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진리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총서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이야말로 우리가 연구학습하여야 할 가장 귀중한 고전입니다. 그러므로 수령님의 로작 학습은 어디까지나 로작원문을 놓고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작학습이 형식주의적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일부 일군들은 로작원문을 가지고 학습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설한 제강이나 참고자료 같은것만 보고있습니다. 로작원문을 읽어보면 잘 리해되지만 그것을 해설한 제강을 읽어보면 까다롭고 중심이 명백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일군들은 이런 제강이나 만들어 아래에 내려보내고 출석이나 장악하는것으로 로작학습을 대치하고있습니다.

로작을 학습하는 목적은 수령의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된

로작부터 잘 학습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는데 주되는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하자면 학습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론쟁의 방법으로 하는것은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학습을 론쟁을 하면서 집체적으로 하는것은 학습기풍을 세우는데도 좋고 내용을 깊이 인식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나는 학습을 서로 물어보면서 문답식으로 하는것이 학습에 대한 열의를 자극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진리를 깊이 체득하는데서 효과적이라는데 대하여 일찌기 강조한바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실정에 맞게 교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론쟁의 방법으로 널리 조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로작연구토론회에서는 로작에 담겨진 사상리론적내용을 깊이 파악하는데 힘을 넣을뿐아니라 거기에서 제시된 원칙과 방법을 현실에 구현하는데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풀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토론하여야 합니다. 로작연구토론회가 실지사업과 동떨어진 빈말공부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교양을 깊이있게 하여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세우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7개년(1987—1993)계획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진군에로 힘있게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 근로자들은 승리의 신심도 드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매일과 같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들을 창조하고있으며 주체조선의 위력을 빛내이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당은 제2차7개년계획과 조정기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데 기초하여 방대한 제3차7개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놓았다.

제3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6페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혁명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주되는 투쟁과업이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전략적목표이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단계에서는 이미 수립된 선진적인 사회제도에 비하여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근로자들의 물질문화생활이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건설을 잘하여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자주적인 정치사상생활과 함께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사회주의제도가 참으로 위력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경제건설분야에서 실현하여야 할 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고도로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것이다. 이러한 경제는 농업을 공업화하고 인민경제의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훨씬 높여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려면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다그쳐 나라와 인민의 물질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도록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더한층 튼튼히 다져야 한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

바로 새 전망계획 기간에 경제건설분야에서 해결하여야 할 기본과업이다.

이렇듯 제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이 사회주의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인민들의 지향,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경제발전전망에 대한 심오한 통찰에 기초하여 정확히 제시된것은 언제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명확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수행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해나가는 당과 수령의 과학적예지와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구현으로 된다.

제3차7개년계획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웅장한 설계도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결국 전체 인민의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인민들의 생활이 끊임없이 높아지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 인민의 물질생활에서 기본을 이루는 식의주문제를 해결한지 이미 오래며 지금 우리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은 지난날에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은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상응한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하는것이다. 이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들의 전반적생활수준을 한계단 높이 올려세워야 한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예견하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에는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인민들의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구현되여있다.

제3차7개년계획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고 우리 나라를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기 위한 웅대한 계획이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은 해마다 평균 10%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여 1.9배로, 농업생산은 1.4배이상으로 늘어날것이 예견되고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간공업과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자체의 동력자원에 의거하여 전력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고 전력생산을 다른 부문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워 총발전량을 1,000억키로와트시에 이르게 하며 석탄공업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 1억 2,000만톤의 석탄고지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다그치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계속 강화하여 1,000만톤의 강철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 유색금속생산을 한해에 170만톤이상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그 생산을 2.5배로 늘이며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을 중심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철도운수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다그쳐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더욱 높이고 강하천수송과 무역화물수송, 자동차화물수송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은 경공업발전에서 전변을 가져올것을 예견하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천생산량은 한해에 15억메터에 이르게 되며 신발공업과 식료가공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일용품생산이 결정적으로 늘어날것이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화학비료생산이 720만톤, 화학섬유생산이 22만 5,000톤, 합성수지와 가소제 생산이 50만톤이상에 이르게 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수산업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여 한해 수산물생산량을 1,1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도시와 농촌에서 살림집건설

을 적극 다그쳐 해마다 15만~20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새로 일떠세워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농촌건설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을 공업화하고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이 기본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새 전망계획 기간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가 점령되고 고기생산이 170만톤, 알생산이 70억개, 과일생산이 200만톤이상에 이르게 될것이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이 빨리 장성하는데 기초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사회총생산액은 1.8배로, 국민소득은 1.7배로 늘어나며 로동자, 사무원의 실질소득은 1.6배, 농민의 실질소득은 1.7배로 높아질것이 예견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에는 교육, 문화, 보건 분야의 모든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주의문화건설을 계속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밝혀져있다. 이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참으로 새 전망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원대한 목표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이 위대한 리정표를 점령하게 될 때 그것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반부인민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을 더욱 크게 고무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게 되며 자주성을 지향해나가는 혁명적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것이다.

제3차7개년계획은 류례없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지만 그 성과적수행은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그것을 승리에로 이끌어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위대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힘있게 이끌어주신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헌신하고있는 영웅적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고 우리 당이 키워낸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와 능숙한 조직적수완을 가진 경제지휘성원들이 있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한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드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투지를 가지고 총진군한다면 제3차7개년계획의 높은 봉우리는 반드시 점령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지도일군들과 전체 근로자들은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6페지)

오늘 우리 당은 전당, 전국, 전민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장엄한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을 호소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투쟁 정신과 기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진군

길에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는 영예롭고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심장은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받아안은 감격과 흥분으로 하여 높뛰고있다. 해방후 첫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기간에 걸쳐 우리 인민의 가슴속깊이에 자리잡은것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오직 당의 로선과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간다면 능히 해결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신념을 확고히 간직하며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의도를 관철하고야말겠다는 튼튼한 사상관점을 세울 때 그들속에서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고상한 투쟁 정신과 기풍이 높이 발휘되게 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시대를 지향시켜나가기 위한 사상사업, 특히 주체사상교양, 당정책교양을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지고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계속혁신, 계속전진해오는 과정에 이룩된 투쟁업적을 빛나게 고수하는것은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이다.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되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서 확고히 이어지고있는 불굴의 투쟁정신과 혁명적기세는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귀중한 재부로, 영원히 간직하여야 할 사상정신적밑천으로 되고있다.

현시기 당이 안겨준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투쟁기풍을 더욱더 빛내이는 참다운 길은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를 드팀없이 관철하는데 있다. 서해갑문 건설자들은 당의 요구라면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는 투철한 자세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니였기에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허용하지 않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수 있었으며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서해갑문건설자들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혁명실천과정에서 빛나게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의 전망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전반적기술개조를 힘있게 추진하는것이다.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근본요구이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이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오늘 과학기술은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인간의 창조적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의 발전에는 한계가 없으며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세계를 지배할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은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대담하고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없이는 우리 나라 경제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없다.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고도의 기술적진보를 이룩하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쳐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

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새 전망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본담보의 하나이다.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법칙이 작용하고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가 높이 발휘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동원리용할수 있는 내부예비가 끊임없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어떻게 잘 리용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조직자적기능에 달려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엄격한 절약제도를 세워 나라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끊임없이 보장할수 있다.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력을 절약하는것이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로동생산능률을 공업부문에서는 1.6배, 기본건설부문에서는 1.5배로 높이며 공업총생산액 증가의 80%이상을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생산능률의 이러한 높은 장성속도를 이룩하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제품생산에 지출된 산 로동의 몫을 훨씬 줄여야 한다.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로력예비를 탐구하기 위하여서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여 로력랑비현상을 없애며 있는 로력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옳게 리용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있는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자재와 자금을 극력 절약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공정의 기술장비가 끊임없이 현대화되는데 맞게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하고 작업조건을 원만히 지어주어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며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있는 생산능력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기와 석탄을 비롯한 연료, 동력과 원료, 자재를 최대한으로 절약하기 위한 대중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생산을 발전시키며 경제절약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생산물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생산에서 기술공정의 요구와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의 규격화와 표준화 사업을 잘하여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그 질이 세계의 선진적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데서 경제지도일군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은 그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할것을 요구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규모가 큰 현대적인 사회주의경제를 훌륭히 관리운영하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을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정치사업을 앞세워 생산자대중의 창조적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며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지휘하고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련합기업소들을 옳게 관리운영하며 그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련합기업소들에서는 계획화사업과 협동생산조직, 자재보장, 수송조직을 비롯한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모든 경영활동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며 경제지도기관들에서는 련합기업소들에 대한 생산지도와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려면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은 책임적이고도 능력있는 지휘관을 요구한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두터운 신임과 인민들의 기대를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며 헌신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실력이 없이는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벅찬 투쟁을 감당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능숙한 조직지휘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실천적성과로써 당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진군을 옳게 조직하는것은 경제건설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치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우리의 경제건설투쟁이 우리 당이 진두에서 이끄는 보람찬 투쟁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돌리며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들의 키잡이를 잘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고 이 운동을 더욱 조직화, 적극화함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쉼없이 심화발전시키며 온 나라가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총진군의 분위기로 들끓게 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는것은 제3차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당조직들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이며 우리 당의 높은 영예와 잇닿아있는 책임적인 사업이다.

우리 당이 펼쳐준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는 휘황찬란하며 그것은 우리 인민을 새로운 빛나는 영웅적위훈에로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의 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김 기 선

인류의 휘황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은 가장 숭고한 리념과 풍모를 지닌 혁명가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한 위업에 한몸바쳐 투쟁하는것을 삶의 참다운 보람으로, 영예로 여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당과 함께 혁명의 붉은 기발을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의 길을 억세게 걸어나간다.

공산주의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위투사, 로동계급과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며 혁명가의 영예를 영원히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혁명성은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혁명의 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며 어떤 환경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지키며 난관과 시련을 헤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혁명정신이다.

당성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당성은 당에 자기의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로동계급성은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으로서 그것은 로동계급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로동계급의 주권을 보위하며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는 견결한 혁명정신이다.

그리고 인민성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이다. 그것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히 여기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숭고한 정신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사람들의 혁명적풍모의 유기적구성부분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완성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는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혁명성과 당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혁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당에 충실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혁명성은 그들이 지니는 당성에 의하여 발현된다.

한편 로동계급성과 인민성도 서로 떼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은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로동계급은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으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리해관계는 바로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를 대표한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한 투쟁은 곧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한 투쟁으로 된다.

또한 혁명성, 당성과 로동계급성, 인민성 역시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당과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고상한 혁명정신은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높은 자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적 및 조직적 부대이다. 당과 혁명의 리익의 기초를 이루는것은 바로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이다.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만큼 당과 혁명의 리익과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

은 일치한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의 혁명정신이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이며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입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유한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니고있는 숭고한 사명과 관련되여있다.

공산주의혁명가는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며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투사들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을 자기의 혁명적본분으로, 더없는 영예로 여긴다. 그들은 또한 수령의 혁명사상을 투쟁과 생활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당의 령도밑에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의 전위투사이다.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의 리익,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바쳐 투쟁한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는 사상정신적특질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공산주의위업을 완수해나갈수 있게 하는 혁명정신으로 되는것과 관련되여있다.

공산주의위업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력사적위업은 공산주의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님으로써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철저히 짓부시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뚫고 공산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자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닐 때만이 광범한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조직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품성인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과 당, 인민대중은 하나의 통일체로서 사회적생명체를 이룬다. 이 사회적생명체에서 수령은 그 중심, 최고뇌수이다.

수령은 절대적지위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 당과 대중을 령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길로 이끌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을 가장 빛나게 실현해나간다. 따라서 혁명가들이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에 충실하자면 혁명적수령관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따라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고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높이 발양된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에 기초한 혁명정신이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은 인민

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혁명정신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을 어느 정도 확고히 지니였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관이 투철한 사람만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사람들에게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당과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옳은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해나갈수 있게 하며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은 또한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바로 밝혀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근본리익과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게 한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도일군들은 당의 기본핵심력량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그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소유하여야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손색없는 풍모를 지니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수행에서 승리를 이룩해나갈수 있다.

빨리 발전하는 우리 혁명과 조성된 정세는 일군들에게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서 빨리 전진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력사적과업을 앞당겨완수하여야 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인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우리는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이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미친듯이 벌리며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는 환경속에서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온갖 난관을 대담하게 뚫고나가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견지히 구현하여야 하며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어야 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높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높은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특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끝까지 옹호관철하는데서 나타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이 튼튼히 틀어쥐고나

가야 할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근본리익과 념원이 전면적으로 반영되여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의도와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빛나게 구현하여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투철한 일군들과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접수하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최대의 신임으로, 가상 큰 영광으로 여기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하여 완강히 투쟁한다. 그러한 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혁명전사의 숭고한 본분으로 여기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며 거기에서 혁명전사로서의 보람과 영예를 느낀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유일하게 정당하다는 확고한 신념과 그에 대한 남다른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으며 당의 결정지시를 높이 받들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서해갑문을 세계 1등급의 대갑문으로 일떠세운 영웅건설자들이 발휘한 위훈들과 오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태천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장 그리고 광복거리 건설장 등에서 창조되고있는 위대한 번혁직성과들은 당의 위업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인민들과 일군들의 정신세계와 그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높이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당의 통일과 단결을 수호하며 당의 혁명사상을 고수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리익과 관련되는 근본문제로서 그것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중요한 발현으로 된다.

단결은 로동계급의 당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로동계급과 공산주의자들은 단결의 힘에 의하여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으며 오직 단결함으로써 자기의 숭고한 리념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혁명은 곧 단결이며 단결해야 승리할수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통일과 단결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좀먹는 온갖 반당적현상을 견결히 반대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수호하는것을 혁명적의무로 간주한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며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고 당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간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옹호고수하는데서 주체형의 혁명가의 높은 혁명성, 당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또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며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은 대중의 조직자, 교양자이며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의 충복입니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조건과 로동조

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들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일군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변을 일으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의 충복다운 풍모가 없고 인민생활에 무관심한것은 대중과 동떨어진 귀족화되고 관료화된 표현이다. 간부는 결코 타고난 벼슬자리가 아니다. 일군들이 맡고있는 높은 직책은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할것을 바라고 당이 맡겨준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을 고수하고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인민을 위한 당의 일군은 반드시 인민적인 풍모를 지녀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성심성의로 복무하여야 한다. 간부가 되였다고 하여 인민들의 우에 군림하여 특세를 쓰고 특혜를 요구하는것과 같은것은 다 착취사회에 고유한 반인민적인 관료풍이다. 특세를 쓰며 특수화하는 현상을 없애는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방침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일군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요구를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하며 위법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자각과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고상한 인민적품성을 지니기 위하여 노력하며 나라의 재부를 늘이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품성에서 소박하고 생활에서 검소하여야 하며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제때에 원만히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로동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의 중요한 임무이다. 로동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로동자들이 마음놓고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이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보장하여주어야 할 로동조건은 보장하여주지 않으면서 그저 내리먹이는 식으로 일해서는 일을 착실하게 추진시킬수 없다. 일군들이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잘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에 대한 그들의 립장과 관점에 관한 문제이다.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지 않는것은 다 당성이 없고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없는 표현이다.

우리 당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이다. 로동계급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기본계급이며 우리 혁명의 령도계급으로서 혁명투쟁과 건설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우리 일군들은 로동계급이 령도계급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모든 조건을 잘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특히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을 보장하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그들이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새 문화도 창조할수 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의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모든 사업에서 로동계급적 립장과 원칙을 튼튼히 견지하고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는 날카로운 투쟁에서 표현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요구와 지향을 구현하기 위

한것으로서 계급적원쑤들과 온갖 반동적사상조류를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진행된다.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을 튼튼히 고수하며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계급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처리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이며 기풍이다.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님으로써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를 단호히 막으며 수정주의, 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사상들이 우리의 내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진진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이처럼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의 본분을 다해나가며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영예와 보람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일군들이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이고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옳은 군중관점을 가지고 대중이 생활하고 투쟁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며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군중을 알수 있고 그들에게서 배울수 있으며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제때에 풀어줄수 있다. 일군들은 항상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적극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자신을 혁명적으로 수양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군중속에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깊이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생산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래의 구체적실정을 잘 알수 없고 군중이 아파하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줄수 없다. 그렇게 되면 결국 대중과 리탈하게 되며 사업에서 심한 주관주의를 범할수 있다.

일군들은 혁명적학습을 강화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당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닌 참다운 혁명가의 고결한 품격을 완성해나가야 한다. 완성된 혁명가가 없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서는 결코 도달할수 없는 높이를 말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도덕적수양에서 만족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의 높은 요구와 겸허한 품격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군들은 당조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고 수양할 때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의 풍모를 완성해나갈수 있는것이다.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혁명대오를 백전백승의 대오로 강화하고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가장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이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풍모를 그대로 체현하며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일데 대한 당의 요구를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김 재 성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은 오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면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 발휘하고있는 무비의 위력과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거두고있는 자랑찬 성과들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와 같이 굳게 통일단결된데 기초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에 기초하여 수령, 당, 대중이 오직 하나로 통일될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있다는 진리를 밝혀주시였다.

이것은 주체사상을 전개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마련한것으로 되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강유력한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리론실천적무기를 안겨준것으로 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보고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옳바른 지도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은 오직 하나로 통일될 때에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있습니다.》

력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력사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은 사회력사적운동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떠밀고나가는 힘을 가진 직접적담당자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인류력사에 계급이 생겨나고 사회가 리해관계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적대계급들로 분렬된 이래 인류사회는 하나의 통일된 사회적집단을 이루지 못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사회적집단과 그것을 구속하는 사회적집단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사회적집단은 력사를 전진시키려 하였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사회적집단은 언제나 력사의 전진을 멈춰세우고 되돌려세우려고 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력사의 주체로 되는 사회적집단은 바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 혁명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는것은 아니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고 력사를 떠미는데서 주동적역할을 다할수 없다.

지난날 인민대중은 오랜 기간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지 못하고 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착취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자기의 사회계급적처지와 근본요구

를 자각하지 못하였고 사회의 주인으로 될수 있는 정치적힘을 가지지 못하였던것과 관련되여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근본조건에 대하여 새로운 과학적해명을 주고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지도와 대중이 결합되고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혼연일체로 통일단결되여야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옳은 지도와 결합되지 못한 대중의 투쟁은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력사를 목적의식적으로 떠밀고나가는 추동력으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옳은 지도를 받을 때에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는것이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이며 그것은 곧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시키는 과정이다.

통일단결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인민대중이 통일단결되려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을 굳게 통일단결시키는 유일사상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이며 통일단결의 유일한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사상적기초로 삼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굳게 결속될 때 인민대중은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통일단결시키는 사업은 당이 한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령도기관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당의 정치적령도의 본질은 인민대중을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단결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된다. 그러므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란 인민대중이 당을 통하여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됨으로써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것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자면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한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 것과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는것은 밀접히 통일되여있다.

위대한 수령은 아무때나 출현하는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단결과 통일의 중심에 대한 요구가 력사적으로 성숙되였을 때 인민대중가운데서 출현한다.

지난 시기 력사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은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여왔다. 노예사회에서 노예나 봉건사회의 농노, 농민들은 자주성과 창조성이 매우 미약하였으므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될수 없었다. 그러나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출현함으로써 그 사정은 달라졌다. 로동계급은 자기의 힘으로 자신을 해방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며 자기자신뿐아니라 모든 근로인민대중을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력사적사명으로 하는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이 력사무대에 등장함으로써 력사의 주체를 이루는 인민대중의 구성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높아지고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이 벌어짐에 따라 그들을 하나로 더욱 굳게 통일단결시켜야 할 력사적필연성이 제기되며 인민대중

을 통일시키고 단결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사회적요구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인민대중가운데서 인류가 이룩한 모든 진보적 사상과 문화에 정통하고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집대성한 혁명사상을 창시할수 있는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한 위대한 정치가,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 출현하며 인민대중은 자기의 수령을 모시게 된다.

위대한 수령은 혁명적인 당을 창건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당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이끌어나간다. 당은 인민대중을 단결과 령도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그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대한 수령이 당을 건설하고 위대한 인민을 키워낸다고 말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은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통일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정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은 피의 교훈을 통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줄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을 갈망하였다. 우리 인민의 이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꾸리시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적전위조직에 묶어세워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조국광복위업을 이룩하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당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하나로 튼튼히 묶어세우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이 높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영웅적인 민으로 되고 우리 당이 불패의 힘을 가진 백전백승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것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을 중심으로 전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통일체로서 굳게 뭉쳐있기때문이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라는 주체사상의 명제는 참으로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적수령관을 하나로 통일시켜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적인 생명체로 되며 그 중심이 수령이라는 새로운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적생명체라고 말할수 있으며 바로 이 사회적생명체의 중심이 인민의 수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사상은 사회적생명체에 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기 위한 열쇠로 된다.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이루어지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적생명체가 마련된다.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생명체이다. 다시말하여 사람은 사회적존재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힘을 가진 생명체이다.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생명의 특징이 자주성과 창조성인것만큼 그들로 이루

어지는 인민대중이 가지는 사회적생명체의 특징도 자주성과 창조성이다.

인민대중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생명력은 철저히 사회적인 성격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생명체가 형성되고 자기의 생명활동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를 구성하고있는 매개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사회적으로 통일시키고 발양시키는 중심이 있어야 하며 인민대중의 생명활동을 지휘하는 최고뇌수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중심, 최고뇌수가 바로 위대한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대표한다.

수령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통일시키고 발양시킨다. 자주성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다.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개척해나간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은 다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다 같은것이 아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생명체로 결합되자면 그들이 하나의 통일적인 자주적요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람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자기의 자주성을 혼자서는 옹호하고 실현해나갈수 없으며 그것은 사회적집단의 생활적요구로 통일될 때 비로소 옹호되고 실현될수 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요구는 인민대중의 사회적생명체의 중심이며 최고뇌수인 수령에게 집중되고 종합분석되여 하나의 통일적인 자주적요구로 제기되고 높이 발양될수 있다. 그러므로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바로 인민대중의 요구를 통일적으로 반영한 혁명의 자주적인 지도사상이며 사람들은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 자주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는것이다.

수령은 또한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통일시키고 발양시킨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생명체를 이루자면 창조적위력을 지닌 력량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이것은 개별적사람들의 창조성, 창조적힘이 하나로 합쳐질 때 이루어지게 된다. 수령은 이러한 창조적힘을 결합시키고 통일적지휘밑에 작용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자주적인 주체의 창조력으로 되게 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우며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혁명투쟁의 가장 옳바른 전략과 전술을 제시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통일시키고 높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준다. 그러므로 수령은 인민대중의 창조성을 대표한다고 말하는것이다.

사람의 뇌수는 온몸에 뻗쳐있는 신경계통을 통하여 사람의 모든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한다. 수령은 당조직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통일시키며 인민대중이라는 사회적생명체의 활동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수령은 당을 통하여 사람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통일시키고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며 이 사회적생명체의 중심은 수령이라고 말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생명체를 대표한다. 수령은 언제나 사회적생명체에 대한 령도에서 항상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으며 그들의 리익실현을 최고목적으로 삼는다. 이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이 인민대중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작성되고 그 실현을 최고목적으로 삼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위대한 수령은 사회적생명체를 대표하므로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적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생명선이다. 수령에 대한 태도,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생명체에

대한 태도, 자세, 립장에 관한 문제이며 사회적생명체를 이루는 매 성원들이 생명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적생명체의 모든 성원들은 인민의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과 의리로 받들어나갈 때 개별적인 사람들은 력사의 주체로서의 자주적인 생명을 빛내일수 있고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될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생명체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사이의 관계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에 기초한 혁명적동지관계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적생명체를 형성하게 되는 근본조건, 사회적생명체의 특징, 그 구성부분들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혀주신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사상,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적생명체의 중심이 바로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는 사상은 주체사상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는데서 참으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지만 그 참다운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또한 그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통일단결되여야 한다는것을 해명해주고있다. 다음으로 그것은 사회적생명체의 중심이며 그 생명선인 수령에게 충성다할 때만이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받아안을수 있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참으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사상과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적생명체의 중심이 바로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라는 사상이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주체의 세계관, 주체의 인생관, 주체의 혁명적수령관이 하나의 원리에 기초하여 통일되고 혁명적수령관을 핵으로 하는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의 내용이 전일적인 체계로 밝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긍지높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강화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여 약동하는 위대한 사회적생명체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현실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력을 비상히 강화할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을 모심으로써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지니고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인민대중이 통일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생명체의 위력을 떨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더욱 튼튼히 꾸려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위업이 주체의 역할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완성되여나가며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

담보이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더욱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문제는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것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게 하는 근본담보이며 수령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의 핵이다. 그러므로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모셔야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모시며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굳건히 다져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야 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는 당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령도는 본질에 있어서 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수령의 두리에 통일단결시키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에로 이끄는것이다. 그러므로 당을 어떻게 강화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우리 당을 계속 위력한 당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길은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이다. 그러자면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하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정치적부대로 만드는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는 혁명적수령관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우리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는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단결을 떠나서 수령, 당, 대중의 사회적생명체의 실현에 대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의 위력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일심단결함으로써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위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며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이 밝혀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는 사상의 심오한 내용과 그 진리성을 깊이 인식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닌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철옹성같이 고수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리 성 준

사람들은 력사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쌓고 창조적힘을 키워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왔다. 지식이 축적되고 창조적힘이 장성하는데 따라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데서 사람의 주동적작용이 강화되였으며 그들의 창조적힘이 장성할수록 자주성이 더욱더 실현되였다.

지난 시기 진보적사상가들은 인류력사발전과정을 반영하여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힘으로서의 지식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지식이 사람의 창조적힘가운데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노는 역할에 대한 과학적리해를 확립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히시면서 사람이 더욱 힘있는 존재로 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는 귀중한 진리를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지식은 광명이고 무식은 암흑이며 아는것은 힘이라는 사상, 근로하는 인민은 열심히 배워야 옳바른 사회적의식을 가지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준 고전적명작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학습을 혁명하는 사람의 첫째가는 임무로 규정하시고 항일유격대원들과 혁명적군중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크나큰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해방후에는 시종일관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면서 지식이 사람의 창조적힘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노는 역할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해명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를 시대적요구에 맞게 각색한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에 대한 창작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밝히신것은 그 하나의 실례로 된다.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는것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근본요구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 존재,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요구를 가지고있으며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연의 구속을 극복하고 사회의 온갖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간다. 자주성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을 이룬다. 사람이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잃으면 남에게 예속되여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비록 목숨은 붙어있어도 사회적으로 자주성을 가지지 못하면 사회적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절대적인 요구이며 빼앗길수 없는 기본권리이다.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유지되고 빛나게 된다. 그런데 자주성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

기 위한 사람들의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은 자주적요구를 자기의 창조적힘으로 실현해나간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자각한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창조적능력을 가져야 하며 그러자면 알아야 한다. 아는것, 지식은 사람이 자주적요구를 자각하게 하고 창조적힘을 높이 발휘하게 한다.

안다는것은 사물현상의 본질과 운동법칙 및 그 인식과 개조방도에 관한 지식을 가진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사유를 표현하는 글을 읽고 쓸줄 알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과 혁명의 전략전술을 터득한다는것이다.

사람이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지식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소유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76페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는것은 사람이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자주적인 요구를 반영한것으로서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져야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활동을 할수 있고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사람의 본능적요구가 아니라 사회적존재로서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의식이므로 자연과 사회 및 사람에 대한 옳바른 리해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특히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자주적사상의식으로서의 공산주의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의 필연성과 그 완성의 합법칙성,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사상이므로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과학적인 견해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대한 옳바른 지식을 전제로 한다.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을 가져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필연성과 그 실현의 합법칙성을 파악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할 때까지 견결히 싸우려는 혁명적각오와 투지를 가질수 있다.

사람이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는것은 다음으로 지식이 사람의 창조적능력으로 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창조적능력은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기 위한 사람의 창조적활동을 담보해준다.

창조적능력은 자연과 사회 및 자기자신을 인식하고 개조할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함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짐으로써만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되는것이다. 사람은 창조적능력이 없이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없다.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은 꾸준히 배워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지식을 소유할 때 창조적능력을 지니게 된다. 지식은 곧 사람의 창조적능력이다. 과학적지식과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행정에서 이룩된 기능과 숙련 그리고 건장한 체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이룬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이루는 이러한 구성요소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과학적지식이다.

지식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행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일반화한것으

로서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를 변혁하는데서 의거하여야 할 지침으로 된다. 지식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사람들은 객관세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동물과 달리 자연과 사회를 자기에게 더욱더 쓸모있고 유리한것으로 개조해나가는 힘있는 존재로 되는것이다.

지식은 인식의 가일층의 심화발전을 위한 기초로 됨으로써 사람들의 창조적능력을 더욱 배양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영화예술론》, 354페지)

사물현상의 본질과 속성은 사람들에게 단번에 완전히 인식되는것이 아니다. 인식과정은 객관적현실이 거울에 반영되는것처럼 수동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인식은 객관적현실의 주관적반영과정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가 하는것은 기성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의 주동적활동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기성지식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더욱 심화되며 사람들이 소유한 과학적지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실을 정확하고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하게 된다. 사람의 인식은 능동적인 사유과정이므로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인다. 례를 들어 자본주의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대한 지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실시하는 정책의 반동적본질과 자본주의사회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사건들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지식은 이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사물현상의 본질과 속성을 더욱더 깨뚫어보게 함으로써 현실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하게 한다.

과학적지식은 또한 생산도구로 객관화되여 물질적힘으로 전변됨으로써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더욱더 증대시킨다.

유치한 타제석기로부터 현대의 로보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도구는 사물현상에 대한 과학적지식이 물체로 전화된것이다. 사람은 이와 같은 물질적힘으로써 자기의 육체적 및 정신적 힘을 보충하고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창조적능력을 수백, 수천배로 증대시키며 자기를 더욱더 힘있는 존재로 만들어나간다.

사람은 참으로 아는것, 과학적지식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과 사회를 길들여나가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나가고있는것이다.

아는것, 지식이 창조적힘으로 된다고 하여 모든 지식이 다 인식과 실천에서 힘으로 되는것은 아니다. 실천에서 써먹을수 없는 지식은 사실상 지식을 위한 지식에 지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쓸모가 없는것이다.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글뒤주에 지나지 않는다. 인식과 실천에 리용되는 산 지식만이 힘으로 된다. 지식의 참다운 의의는 그것이 자연과 사회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실천에서 얼마나 큰 힘을 나타내는가에 따라서 규정된다. 자연과 사회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정확히 반영하고 실천에 적용되는 지식만이 참다운 지식으로, 사람의 힘으로 된다.

사람은 과학지식을 가질 때 실지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리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하여서만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투쟁이 없는 인간의 삶이란 무의미한것이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투쟁속에서만 빛나게 된다.

아는것, 과학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사람은 알아야 우선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자연과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

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76페지)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는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회를 개조하여 계급적 및 민족적 예속관계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회정치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을 개조하여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물질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사상문화적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이와 같이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 인간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개조변혁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개조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목표를 옳바로 정하며 합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따라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성과적수행은 그에 대한 과학적지식을 전제로 한다.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과학적지식이 없이는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조해야 하는가 하는것을 옳바로 정하고 풀어나갈수 없다. 깊고 폭넓은 과학적지식을 가져야 주객관적조건에 맞게 개조의 대상과 방향, 도달할 목표를 옳바로 규정하고 대상의 특성에 맞는 개조 수단과 방법을 찾아낼수 있다. 그리하여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자주성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사람은 알아야 또한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은 혁명과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의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은 마땅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심에 따라 자기의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할것을 요구하는 자주적립장은 사회발전, 혁명발전의 근본원리와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과학지식을 전제로 한다. 사회발전, 혁명발전의 근본원리를 알아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주적립장을 지킬수 있다. 뿐만아니라 자연과 사회에 대한 과학적지식을 가져야 모든 문제해결에서 독자성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은 창조적방법을 구현할것을 중요한 요구로 제기한다.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는 새로운 물질문화적재부를 만들고 새 제도, 새생활을 창조하는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이다. 그것은 또한 다양하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구체적현실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자연개조, 사회개조, 인간개조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창조적 지혜와 힘을 높이 발휘하여 모든 문제를 구체적인 조건에 맞게 풀어나가는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야 한다.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것을 요구하는 창조적방법은 사회발전, 혁명발전의 근본원리와 자연과 사회, 사람에 대한 과학지

식을 전제로 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라는 사회력사원리를 알아야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의 창조적적극성을 발양시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구현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 사람, 특히는 발전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도식적인 관점과 교조적인 사고방식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다. 이와같이 과학적지식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방법을 확고히 견지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보장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이렇듯 사람은 알아야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게 되며 따라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천명하신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는 인류의 철학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는 사상리론적재부이다.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지식이 단순히 자연을 지배하는 힘이나 생산력인것이 아니라 사람의 창조적능력을 이루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과학적인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되는 중요한 근거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조건이 밝혀지고 사람에 대한 주체철학의 독창적인 견해가 더욱 완성되게 되였다.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가 밝혀짐으로써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자각적인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과학적지식수준을 높이며 창조적힘을 키우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진리의 정당성과 위력은 이미 반세기가 넘는 우리 혁명의 실천에서 남김없이 확증되였다. 낫놓고 기윽자도 모르던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에 안기여 혁명의 진리를 알고 투쟁의 각오를 다짐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혁명가로 자라났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히시고 인민대중을 각성시켜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망국노의 설음을 안고 몸부림치던 우리 인민이 항일대전에 떨쳐나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지난날 빛마저 잃었던 조선이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고 우리 민족이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세계만방에 자랑떨칠수 있게 된것은 그 진리의 정당성과 위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식이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이는데서 차지하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체의 정치사상리론수준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정치사상리론수준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정력적으로 학습하는 독학가가 되는것이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과학기술문화지식은 굽임없이 발전하고 풍부화된다. 그러므로 정치사상리론수준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그리고 온갖 조건과 기회를 다 리용하여 쉬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는 정력적인 독학가가 되여야 한다.

독학가가 되여 정치사상리론수준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학습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는것이다. 학습은 혁명사상과

리론, 전략전술로 무장하고 과학적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혁명투쟁의 진리를 체득할수 없고 높은 계급적안목과 혁명적식견을 가질수 없으며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일수 없다.

독학가가 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책읽기를 생활화, 습성화하는것이다. 사람들은 책에서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군사, 도덕 등 사회와 자연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책을 보지 않고서는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는 그 어떤 창조적활동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책은 일생동안 놓지 말아야 할 생활과 투쟁의 길동무이며 훌륭한 스승이라고 말하는것이다.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학습에서 기본교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정치, 경제, 군사, 과학, 문화 등에 대한 지식과 전략전술적원칙과 방도들이 사상리론적으로 심오히 집대성되여있다.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원문을 파고들어 학습함으로써 기본 사상과 내용은 물론 매 문장과 문구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담겨진 참뜻을 깊이 새기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과 사회의 여러 분야에 대한, 특히는 전공분야에 대한 과학기술도서들 그리고 문학예술작품을 탐독하는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은 여러 분야의 책들을 빠짐없이 정력적으로 읽을 때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게 된다.

지식수준을 높이고 창조적힘을 키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지식을 혁명적세계관과 결합시켜 습득하는것이다.

세계관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견해의 총체로서 현실을 대하는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규정하며 그들의 인식과 실천 활동을 제약한다. 그러므로 옳바른 세계관에 기초하여 지식을 쌓아야 혁명과 건설에 실지로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되게 할수 있다.

우리 시대의 참다운 세계관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지식을 습득하여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필요한 리론과 전략전술,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할수 있으며 자주위업의 승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지식수준을 높이고 창조적힘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혁명실천속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지식의 과학성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된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쌓으며 습득한 지식의 과학성을 검증하게 되고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창조적능력을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산 지식을 습득하고 창조적능력을 키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실천과 결부시켜 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습득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을 하자면 배워야 하고 알아야 자주적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여나갈수 있다는 혁명의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고 《전당이 학습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자신을 더욱더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준비하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동지애는 통일단결의 중요한 기초

차 상 준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적동지애는 단결의 중요한 기초이며 대오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보장하는것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에서 승리하려면 혁명투쟁에 많은 사람이 참가하여야 하며 그들사이에 통일과 단결이 보장되여야 합니다. 혁명사업에 참가하고있는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통일과 단결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28권, 529페지)

단결과 협력은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고유한 생존방식이며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사람들이 사회적예속과 자연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단결하고 협력하여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고 사람을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자면 혁명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사람들을 단결시켜야 한다. 단결은 혁명이며 혁명은 단결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하여 승리한다. 아무리 혁명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웠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혁명을 할수 없다. 오직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가들과 인민대중이 단결된 힘, 단결의 무기를 가지고 맞서야 온갖 원수들을 때려부시고 혁명을 종국적승리에로 전진시킬수 있다. 결국 혁명의 승패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혁명가들과 인민대중이 얼마나 튼튼히 결속되는가 하는데 달리게 된다.

혁명가들이 혁명대오의 가장 공고한 단결을 이룩하자면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야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이 개척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투쟁에 떨쳐나선 혁명동지들사이의 진정한 사랑이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귀중한것은 동지적관계이며 여러가지 사랑가운데서 가장 귀중하고 값높은 사랑은 동지적사랑이다. 사람은 생활과정에 많은 사람들과 련계를 맺게 되는것만큼 사랑에는 인간이 맺는 관계에 따라 부부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친우들간의 사랑, 동지적사랑 등 여러가지가 있게 된다. 부부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벗, 친우들의 사랑이 혈육이나 친분관계에 의하여 맺어지는 사랑이라면 동지적사랑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혁명가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랑도 귀중하지만 운명을 같이하는 동지들사이의 사랑은 더없이 귀중하다. 사람들은 어려서는 부모들의 사랑속에서 성장하지만 혁명의 길에 나선 다음에는 혁명동지들의 사랑속에서 투쟁하며 운명을 개척해나가게 된다. 사실상 어려울 때 혁명가들은 부모나 친우들보다 동지들을 먼저 찾게 되며 동지들과 함께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게 된다. 혁명가들은 동지를 위해서는 자

기의 모든것, 지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친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동지들의 사랑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값높은 사랑이다. 사람들이 동지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혁명가로 살수 없으며 인간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혁명가들은 바로 이러한 동지적 사랑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만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으며 가장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가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게 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은 본질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인 통일단결이다.

혁명대오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을 가지고 딴 생각을 하며 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그러한 대오는 결국 분렬을 면치 못하게 된다. 혁명대오는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을 끝까지 고수하고 공고히 하며 딴 사상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을 굳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는 문제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참다운 동지적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혁명적동지애는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의 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 혁명가들사이에 있게 되는 사랑이다. 혁명가들은 혁명투쟁과정에 수령의 한없는 동지적 사랑과 동지들의 믿음속에서 혁명의 진리를 하나하나 배우게 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게 된다. 그리하여 동지들과 혁명대오안에 수령의 혁명사상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하며 수령의 혁명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단결을 더욱 공고히 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동지들사이에 맺어지는 원칙적인 사랑이다. 동지들을 진정으로 믿고 사랑하는 혁명가들은 동지들속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사상적 결함과도 타협하는것이 아니라 제때에 비판하여 고쳐준다. 혁명대오에서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라고 하여 그들의 사상의식수준과 준비정도가 같은것은 아니며 그들속에서 결함이 나타날수 있다. 동지를 사랑한다고 하여 동지들속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동지적사랑으로 될수 없다. 혁명동지가 범한 결함을 비판하여 고쳐주지 않을 때 그는 사상적으로 변질되게 되며 나중에는 혁명대오에 합께 설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과 조직적단결을 강화해나갈수 없다. 동지들속에서 나타나는 잘못을 제때에 고쳐주어 그들이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하는 동지적사랑이 대오안에 차고넘쳐야 혁명대오는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된다.

이처럼 혁명적동지애는 혁명가들을 하나의 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굳게 뭉치게 하는 통일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된다.

혁명적동지애는 혁명가들을 사상의지적으로뿐아니라 도덕의리적으로 결합하게 함으로써 혁명대오의 공고한 단결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

대오의 통일과 단결이 참말로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도덕의리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상과 목적이 같아도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덕의리적인 감정이 없이는 사람들이 하나로 결합될수 없으며 그러한 사람들로 무어진 집단은 불패성과 공고성을 가진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의리라고 할 때 그것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말한다. 사람들사이에 리행되는 도덕적의무로서의 의리는 가장 고상한 인간관계, 동지적관계에 기초할 때 높이 발휘되게 된다.

동지적의리는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하나의 사상과 목적을 가지고 한 혁명대오에서 투쟁하는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인간관계, 동지적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맺어진 더없이 아름답고 숭고한 혁명적의리, 공산주의적의리이다. 이러한 공산주의적의리에 기초한 단결이라야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단결로 된다.

공산주의적의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있게 되는 의리이며 이러한 의리는 동지적 사랑과 믿음에 그 뿌리를 두고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를 지니고 혁명전사들에게 참다운 정치적생명을 주고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은인이며 자애로운 스승이고 어버이이다. 혁명가들은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의 크나큰 배려와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마땅한 본분으로, 도리로 가장 귀중한 의리로 여긴다. 그렇기때문에 혁명전사들은 수령의 한없는 동지적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며 수령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뭉치게 되는것이다. 또한 혁명가들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의 길에서 동지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동지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들의 사랑에 혁명적의리로 보답하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자랑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령의 혁명전사로서 굳게 단결하여 혁명의 길을 힘있게 걸어나간다.

이 모든것은 혁명적동지애야말로 혁명대오를 사상의지적으로, 조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는 단결의 중요한 기초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여야 혁명적단결을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통일단결이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로 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끌어오신 우리 혁명의 전력사가 실증하여주는 엄연한 진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님의 혁명력사, 빛나는 인생행로는 참다운 동지애의 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걸어온 혁명의 길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통일과 단결이 이룩되고 공고화되여온 자랑찬 행로였다. 이 전로정은 위대한 령도자와 전사들이 하나로 련결되여있는 동지적사랑은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고 굽을래야 굽을수 없는 가장 공고한 단합을 이룩할수 있게 한다는것을 보여준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이 오늘에로 전진해오는 장구한 나날에 혁명대오안에는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고결하고 뜨거운 동지애가 꽃펴나고 이어져왔다. 이것으로 하여 우리 혁명대오안에는 공고한 사상의지적, 도덕의리적 단합이 이룩되였다.

참다운 동지적사랑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단결은 위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풍모와 령도자를 끝까지 옹호보위하고 받들어나가려는 혁명전사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길을 몰라 헤매이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에게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였

으며 참다운 투쟁의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전사들에게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으며 숭고한 동지애를 지니시고 혁명전사들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동지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혁명투쟁에 떨쳐나 참다운 삶, 영생의 길을 찾은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가들은 일제식민지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도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장군님은 곧 조선혁명이시며 조국의 운명이시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을 지키고 안녕을 바라는 하나의 절절한 념원과 혁명적동지애로 장군님과 잇닿아있었다. 그들은 한순간을 살아도 오직 위대한 장군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끝없는 충성심과 혁명적의리로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존함을 심장깊이 새기고 억세게 살며 싸워나갔다.

이러한 동지적사랑으로 결합되여있었기에 김혁동지는 장군님의 사상과 안녕을 지켜 고층로대에서 몸을 던져 장렬한 최후를 빛나게 마칠수 있었으며 차광수동지는 한몸이 그대로 폭탄이 되여 장군님의 한없는 동지적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었다. 확고한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령도자에 대한 이와 같은 충실성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들사이의 진실하고 공고한 동지적단결을 강화할수 있게 한 정신도덕적원천으로 되였다.

혁명적단결이 참말로 공고한것으로 되자면 그것이 령도자와 전사들사이만이 아니라 혁명전사들 호상간에도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참다운 동지적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찌기 조선의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의 첫걸음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 충성다하려는 하나의 지향에서 가장 깨끗하고 숭고한 동지적관계로 단결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는 신념을 가지고 동지를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워나간것이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동지애였으며 단결이였다.

이처럼 한없는 동지적사랑과 충성심에 기초하여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으로 하여 항일혁명대오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있었다.

해방후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통일단결의 전통을 계승하여 혁명대오를 파괴해보려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고 대오의 통일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혁명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혁명에서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그리하여 세기적으로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도 력사적으로 가장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되였으며 식민지노예의 운명에 처했던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다.

간고한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어진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인 진군길에서 더욱 억세게 이어지고있으며 공고해지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통일단결되여 혁명위업을 억세게 전진시켜온

것처럼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혁명위업을 전진시켜오는 과정에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되는 여기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가 있다는것을 확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려는 하나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항일의 로투사들로부터 오늘의 새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통일단결되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사회적생명체를 이루고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이 생명체의 강력한 힘에 의거하여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이 우리 인민모두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억세게 통일단결되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혁명대오의 통일과 단결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적수령관으로 무장하고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는것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수령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한데로부터 형성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기본핵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김혁, 차광수동지들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의 모범을 본받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끝까지 혁명하겠다는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단결하여야 한다.

혁명동지를 굳게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동지에 대한 믿음은 동지에 대한 사랑의 전제이다. 동지를 자기자신처럼 믿지 않는다면 참다운 단결을 이룩할수 없으며 따라서 혁명위업을 전진시켜나갈수 없다. 동지를 굳게 믿고 동지들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해나가며 동지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는 립장에서 동지를 사랑하며 적극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만이 참다운 동지애를 지녔다고 말할수 있으며 여기에 기초하여 뭉쳐야 참다운 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혁명동지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동지를 굳게 믿고 동지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칠줄 알아야 한다. 특히 지도일군들은 동지들을 외교적으로 대하지 말고 동지들에게 어려운 과업도 맡기면서 사업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동지들사이에 원칙적으로 도와주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것이다.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동지의 결함에 대한 원칙적인 비판을 통하여 공고한것으로 된다. 비판속에 동지적사랑과 믿음이 있다. 비판을 강화해야 동지들의 결함을 제때에 고쳐주어 참다운 동지적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우리는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는 동지들의 결함에 대하여 싸고돌거나 융화하지 말고 내놓고 원칙적으로 비판하여 고쳐주어야 하며 비판을 받으면 그것을 동지적사랑으로 알고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아가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일군들은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남 학 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여부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사업기풍을 확립하여야만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이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일단 하자고 결심한 일에 대하여서는 끝까지 해내고야마는 혁명가적기풍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간다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빛나는 결실을 볼 때까지 그것을 철저히 수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계속하려는 드팀없는 신념과 당정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고결한 풍모이다.

일군들이 당이 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일군들은 당과 혁명 앞에 해당 부문의 사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지도일군들에 의하여 집행되고 실현되게 된다. 당이 맡겨준 초소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끝까지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사명이며 혁명적본분이다.

일군들이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혁명적본분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모든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많이 관련되여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근기있는 투쟁을 떠나서 일군들의 활동과 기풍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의 핵심력량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의 활동은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다같이 틀어쥐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이 련이어 나서게 되며 중요한 사업들이 수시로 제기되게 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빛나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이 바로 당과 혁명에 충실하고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충실한 혁명가들의 일본새이다. 어떤 혁명과업을 맡으면 처음에는 《5분열도》식으로 한동안 끓다가 시간이 흐르면 열이 식고 맥이 진하여 주저앉거나 이것을 하라면 저것을 줴버리는 식으로 일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일본새가 아니다. 혁명가는 원래 모든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강의한 맛이 있어야 하며 지구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에서 인내성이 없이 시작할 때에는 요란하게 떠들고 도중에서 주저앉거나 일관성이 없이 일하는 일군들은 어떤 일에서나 성공할수 없다.

오늘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일관성을 가지는것만큼 그것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업이 나섰다고 하여 이미 수행하던 과업을 소홀히 해도 안되며 그렇다고 당면과업을 수행하는데 관심을 적게 돌려도 안된다. 새로운 당정책이 제기되면 그것을 이미 제시된 당정책과 밀접히 결부시켜 다같이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 수시로 제기되는 당정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사상리론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농촌테제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 등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그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이러한 로선과 정책들은 지난날뿐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고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위력한 투쟁의 무기이다. 우리 일군들은 혁명이 멀리 전진하여도 이미 제시된 당의 로선과 정책들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이 사소한 편향도 범하지 않고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무엇보다도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주인다운 자각은 자기 운명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는 사람들의 사상적각오이며 결심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자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상적자각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주인다운 자각을 가질 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 꾸준한 인내성을 발휘하게 된다. 주인다운 자각을 떠나서 모든 일을 책임지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일군들의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참다운 인본새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인다운 자각은 근기있는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높이 발휘하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근기있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일군들은 례외없이 주인다운 자각이 높고 사상적으로 견실하다. 이러한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시되면 뜨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관철하겠는가 하는 고심어린 탐구와 투쟁 과정으로 일관되여있으며 그들이 일하는곳에서는 언제나 혁신이 일어나고 당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모든 일이 근기있게 진척되고있다.

통천군과 안변군 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기풍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통천군과 안변군은 다른 군보다 국가에서 투자를 더하여주는것도 없고 그 조건에서도 다른 군과 별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조건은 불리하다고도 말할수 있다. 그러나 이곳 일군들은 자기가 사는 군은 자신들이 주인이 되여 책임적으로 더 잘 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것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설계하고 작전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끝장을 볼 때까지 적극적으로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였다. 그들은 군안의 당조직들과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자체로 건재생산기지를 꾸리고 수많은 살림집들을 건설하였으며 인민소

비품생산기지를 튼튼히 마련해놓음으로써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고 문명하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훌륭히 관철해나가고있다. 현실은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며 왕성한 사업의욕과 정열을 가지고 당의 의도를 근기있게 훌륭히 수행해나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일군들의 일본새는 또한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강의한 혁명적의지는 자기가 목적하고 지향하는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관철하는 투쟁정신이다.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일군들의 근기있는 일본새는 의지적행동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진 일군만이 그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치거나 난관이 제기되여도 그것을 극복하게 되며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근기있게 관철해나가게 된다.

일군들이 일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애로와 불리한 조건이 제기될수 있다. 조건이 어렵고 난관이 클수록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맞받아 뚫고나가는것은 일군들이 모든 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질이며 투쟁기풍이다. 이러한 혁명적투쟁기풍을 지닌 일군들은 제기된 과업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도 도중에 물러서거나 과업이 방대하다고 하여 하던 일을 중도에서 줴버리는것과 같은 현상을 절대로 배격한다. 그들은 전진도상에서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앞에서 주저하거나 동요하는것이 아니라 불타는 강을 건느고 진펄길을 걷는 정신으로 그것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며 일단 시작한 일은 10년이건 20년이건 끝장을 볼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한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사들이 맨주먹으로 적의 무기를 빼앗아 무장하고 강도 일제를 쳐부신것이나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시기에 락원의 10명 당원들이 당앞에 다진 맹세를 관철하기 위하여 자체의 힘으로 양수기를 만들어낸것도 그리고 우리 시대 숨은 공로자들이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케 하는 자랑찬 위훈을 세울수 있은것도 다 그들이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자기 맡은 혁명과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근기있게 벌려나간데 있다.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일군들의 투쟁기풍은 또한 혁명적전개력을 가지고 일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혁명적전개력은 일군들의 사업전개방식이며 능력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일군들의 전개력에 의하여 관철되고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된다. 혁명적전개력을 가진 일군들은 당이 준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능숙하게 조직하고 지휘하며 끝까지 잘 관철해나간다. 이런 일군들은 혁명과업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에서도 언제나 진취적이며 적극적이다. 그들은 당에서 열가지, 스무가지 과업을 준다고 해도 조건을 탓하거나 주저하지 않으며 모든 과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능숙한 솜씨로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지만 전개력이 약하고 수준이 어린 일군들은 련이어 제기되는 혁명과업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며 설사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근기있게 밀고나가지 못한다. 그러나 전개력이 있는 일군들은 어떤 과업이 제기되면 혁신적안목으로 대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묘술을 가지고 대중을 지휘하며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간다. 이런 일군들은 비록 오늘은 자기 임무를 불가피하게 다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래일은 꼭 완성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꾸준한 인내성으로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해나간다.

초무연탄을 적극 개발하여 광범히 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군안의 학교와 병원, 기관, 기업소의 난방은 물론 사회급양망과 편의봉사망들 그리고 지방산업공장들과 개별적세대들에 이르기까지 초무연탄으로 연료문제를 훌륭히 해결한 회양군 일군들의 사업경험과 당의 축산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고기생산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있는 금강군일군들의 투쟁경험은 지도일군들이 무슨 일에서나 신심을 가지고 혁명적전개력을 높이 발휘할 때 모든 일이 근기있게 잘되여나가며 당정책관철에서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된다는것을 실증하여주고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자기의 혁명적본분을 다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당에서 맡겨준 혁명과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있으며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방대한 새 전망목표는 일군들이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될 위대한 목표이다. 점령하여야 할 투쟁목표가 방대하고 수행하여야 할 혁명과업이 복잡하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다그치자면 해당 부문, 해당 단위의 사업을 담당하고있는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군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업들을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같이 틀어쥐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지니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려면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 당의 방침은 우리 일군들의 사고와 행동의 출발점이며 모든 사업의 기준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당정책적선에서 모든 문제를 보고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광범한 군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여 모든 혁명과업을 당의 의도대로 끝까지 수행할수 있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자기 부문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당의 방침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할수 있으며 그것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집행대책을 옳게 세우고 조직지도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 때만이 일군들이 뚜렷한 목표와 방도를 가지고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벌려나갈수 있다.

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가 제시되면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정확한 집행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람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분공조직을 잘하고 누구나 다 움직이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을 한번 포치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당정책집행정형을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총화하며 재포치하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그래야 당정책관철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고 편향과 부족점을 바로잡을수 있으며 당정책을 끝까지 실속있게 관철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이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또한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씩 모가 나게 해제끼는 사업방법으로 일하는것이 필요하다.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업들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며 거기에는 반드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심고리가 있게 된다. 지도일군들은 이것저것 사업을 벌려놓을것이 아니라 해당 시기 당의 요구와 주어진 조건, 자기의 력량을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중심고리를 옳게 찾아내고 그것을 풀어나가는데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포치한 사업은 속도전을 벌려 제때에 수행하고 끝을 맺어야 한다.

일군들은 중심고리에 힘을 넣으면서도 언제나 전반사업이 다 잘되도록 세심히 돌봐야 한다. 연가지, 스무가지 과업이 제기되여도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최상의 수준에서 일을 잘해나갈줄 아는 일군, 바로 이런 일군이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모든 일을 높은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참다운 일군이다.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 투쟁기풍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그 전진을 가로막는 낡은 사상과 그릇된 사업기풍을 반대하는 심각한 투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근기있는 사업기풍은 그것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 잔재와 그릇된 현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확립될수 없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 《5분열도》식으로 대하는 현상이 근절되지 않고있는것은 대체로 그들속에서 형식주의, 요령주의, 공명주의 등 낡은 사업태도가 없어지지 않고있는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여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은 사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걸치레만 하며 일을 되는대로 하는 형식주의와 사업을 실속있게 하지 않고 발라맞추기를 좋아하는 요령주의, 눈에 잘 띄이고 평가를 받을만한 일이나 하려 하고 눈에 띄이지 않는 일은 잘하려고 하지 않으며 일을 적게 하고도 많이 한것처럼 하고 일을 잘 못하고도 잘한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공명주의적인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속에서 누가 알아주건 말건 무슨 일이든지 실속있게 꾸준히 벌려나가는 근기있는 사업기풍을 확립할수 있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업하려는 혁명적립장이 튼튼히 서있는가 서있지 않는가 하는 세계관적문제이며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충실성에 관한 문제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는 근기있는 일본새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할 것이다.

현시기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과 방도

김 덕 건

연료, 동력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방도를 옳게 규정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연료와 동력은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연료,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지 않고서는 현대적산업을 제대로 움직일수 없으며 확대재생산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현대적생산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연료와 동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특히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경제발전속도가 계속 높아지고있는 오늘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는 반면에 쉽게 얻을수 있는 연료, 동력 자원이 일정하게 제한되여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더욱더 절실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연료와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연료, 동력 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방도를 정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과 방도를 잘 규정하여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목적지향성있게 벌려나갈수 있으며 나아가서 매 시기 제시되는 경제건설의 기본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일찌기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것을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왔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과 방도를 다시금 뚜렷이 밝혀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원료, 연료, 동력 문제를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여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24페지)

우리 당이 제시한 현시기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연료, 동력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원래 우리 당이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견지하고있는 확고한 원칙이다. 우리 당은 우리 나라에 풍부한 석탄과 수력 자원으로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탄광들을 더욱 개건하고 새로운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 건설을 병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경제는 연료, 동력 문제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자원으로 해결하면서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주체적인 경제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물질적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로서 그 위용을 떨치게 되였다.

우리앞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할 제3차7개년계획

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요구에 맞게 연료, 동력 문제를 자체의 자원으로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을 일관한 원칙으로 제시하였다.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이다.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여야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여 근로인민대중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충분히 마련해줄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정치적자주성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다.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자면 원료와 함께 연료, 동력 문제를 옳게 해결하여야 한다. 연료, 동력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경제의 자립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연료, 동력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의 자립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없다. 자체의 자원으로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기본적으로 보장하여야만 자기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경제를 건설하고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끄떡없이 그것을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다.

당이 제시한 현시기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연료, 동력에 대한 늘어나는 인민경제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풍부한 여러가지 석탄자원과 수력자원을 비롯한 모든 연료, 동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러므로 당이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라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면 우리 나라의 자원으로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다.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연료, 동력 기지가 꾸려지고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가 원만히 충족될 때 세계적인 경제 파동이나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경제건설을 계속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이것은 현시기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방향대로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당면한 요구뿐아니라 전망적요구도 충족시키면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계속 강화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또한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으며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를 원만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인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생산기술적조건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기술적조건을 보장하는데서 연료, 동력 문제를 잘 해결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연료, 동력공업과 가공공업사이의 균형이 옳게 보장되여야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는것만큼 해당 시기 제기되는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경제발전속도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연료, 동력의 보장은 현대적생산의 첫공정으로 된다. 연료, 동력이 있어야 최신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전기화된 철도와 기본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사회적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있다.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도록 연료, 동력을 원만히 보장하자면 자기 나라의 자원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리용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당이 제시한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바로 사회적생산의 첫공정인 연료, 동력을 기본적으로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충족시킬수 있게 함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고 생산을 빨리 장성시킬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원료채취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생산순환의 모든 고리들을 유기적으로 련결시키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에 생산소비적련계를 정확히 맞물릴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 인민경제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맞추어나갈수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 생산공정들 사이에 연료, 동력을 보장하는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경제적련계가 강화되고 경제의 전반적 균형이 정확히 보장될 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정상화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와 현실적가능성에 기초하고있다.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인민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지고있다. 특히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강철, 유색금속 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기본건설을 진행하고 현대적인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조업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석탄과 전력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서나 기본건설을 적극 다그치며 신설확장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연료, 동력을 원만히 해결하는것이다. 빨리 늘어나는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데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확고한 경제기술적토대에 의거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여 현대적인 채취설비, 발전설비를 비롯한 석탄공업과 전력공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자체의 기술로 생산하고있으며 우리의 힘으로 대규모 탄광들과 발전소들을 짧은 기간에 건설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경제발전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도 성과적으로 풀수 있는 여러 분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의 대부대가 있다. 우리 당이 마련해놓은 위력한 경제토대와 과학기술력량은 나라의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더없이 큰 밑천으로 된다.

참으로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더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우리 나라 경제건설의 현 실태와 전망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연료, 동력 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기본방향뿐아니라 그 기본방도까지 명확히 제시하였다.

연료, 동력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연료, 동력 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연료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215페지)

연료, 동력 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공업발전의 법칙이며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연료, 동력 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운다는것은 석탄공업과 전력공업에 대한 투자를 가공공업보다 시간상으로 앞세워 석탄, 전력 공업의 생산능력, 생산조건을 먼저 마련하고 가공공업에 석탄과 전력을 앞세워 보장하며 연료, 동력의 당면한 소비를 충족시킬뿐아니라 일정한 예비를 조성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연료, 동력 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당면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으며 가공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부문들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연료, 동력의 예비를 예견성있게 조성할수 있다.

연료, 동력 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석탄공업과 전력공업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는것이 중요하다. 이 부문들에서는 생산전망이 크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지대들에 새로운 대규모 탄광들과 발전소들을 건설할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면서 중소규모 탄광과 발전소들을 더 건설하며 현존 탄광들과 발전소들을 개건확장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칠수 있게 투자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석탄은 주체공업의 식량이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탄광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갱도의 영구화와 조명화를 실현하고 능률높은 수송수단들을 마련하여 운반을 다양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탐사를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탐사를 앞세워야 확보탄량을 정확히 장악할수 있으며 헛굴진을 없애고 석탄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일수 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새로운 대규모의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효률이 낮은 발전설비들을 새로운 현대적인것으로 바꾸고 열설비들과 전력설비들을 철저히 보수정비하여 그 생산성을 높이며 중요도시들의 열난방을 위한 화력발전소들과 여열 및 폐열을 리용하는 공장화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규모수력발전소와 저열탄을 때는 화력발전소건설,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지대, 고산지대들에서의 풍력발전소건설을 적극 벌리며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연료, 동력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오늘 연료, 동력 문제를 더 잘 풀기 위하여 연구해명하여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들은 대단히 많다. 연료, 동력 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지질조건에 맞는 능률높은 채굴설비와 채탄설비의 생산, 선진적인 채탄법과 선탄법의 도입을 비롯한 석탄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여러가지 수력자원개발방식, 저열탄을 때는 화력발전소건설, 수차효률과 발전기효률을 높이는것과 같은 동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빨리 연구해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제품 단위당 연료, 동력의 소비기준을 낮추며 화학공업과 금속공업 부문에서 전기를 많이 쓰는 기술공정을 적게 쓰거나 전혀 쓰지 않는 기술공정으로 적극 개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연료, 동력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이면서 그것을 극력 절약하여 날로 늘어나는 연료, 동력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수 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과학과 기술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연료, 동력 문제를 해결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연료와 동력을 리용하여 생산을 진행하는 사람은 다름아닌 생산자대중이다. 모든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널리 참가하여 합리적인 기술혁신안들을 많이 창안해냄으로써 연료, 동력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연료, 동력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석탄공업과 전력공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석탄과 전력 생산과정은 많은 설비와 자재, 자금을 들여 자연과 투쟁하는 복잡한 과정이며 끊임없이 부닥치는 새로운 정황을 제때에 처리해야 하는 창조적과정이다. 그러므로 이 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을 주동적으로 처리하여 석탄과 전력 생산을 늘일수 있다.

연료, 동력 문제해결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고리는 지금 있는 탄광들과 발전소들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하는것이다. 현존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은 큰 투자없이 빠른 시일안에 석탄과 전력 생산을 늘일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도이다. 특히 탄광, 발전소들의 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석탄채굴능력과 발전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더 증대되는 조건에서 석탄과 전력을 얼마나 많이 생산해내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이 부문 일군들의 경제조직사업수준과 책임성에 달려있다. 일군들이 탄광, 발전소들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을 더 잘 마련해준다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지금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고도 석탄과 전력 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부문의 일군들은 나라의 연료, 동력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경제조직사업과 로동행정사업을 적극 개선하며 이신작칙으로 생산자대중을 새로운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연료, 동력 생산의 높은 성과로 자신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탄공업과 전력공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이다.

연료, 동력 공업부문에서의 기술장비와 생산조건의 개선은 대부분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되는 기계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생산의 정상화도 많은 경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자재보장, 운수부문의 수송보장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이것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서는 석탄공업과 전력공업부문자체에서 적극 투쟁할뿐아니라 인민경제 다른 부문들에서 이 부문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석탄공업과 전력공업의 장비를 현대화하는데 요구되는 기계설비들과 자재, 부속품과 공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며 탄광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연료, 동력 공업은 기간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큰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부문이며 그것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이다.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주인다운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연료, 동력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며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김 성 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근에 하신 여러차례의 강령적교시들에서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화학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전투적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오늘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더욱 다그치고 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고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29권, 129페지)

화학공업은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원료와 자재를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기간적인 공업부문이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화학공업에서는 자연원료들을 화학적방법으로 처리하여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원료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화학공업의 발전은 건설, 운수, 체신, 기계제작, 경공업, 농업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화학자재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게 하며 인민들의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의 해결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하여서는 화학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적극 추진됨에 따라 화학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요구는 보다 더 절실하게 제기되며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야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고 경제건설속도를 더욱 높일수 있다.

그것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경공업의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일수 있게 한다는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끊임없이 증진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는 우리 당은 오늘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경공업혁명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공업혁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경공업혁명을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서 중요한것은 경공업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다.

화학공업은 각종 물질들을 결합, 분해시켜 여러가지 새로운 원료들을 생산해냄으로써 경공업부문에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를 대주어 경공업혁명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경공업의 생산규모가 커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화학공업에 큰 힘을 넣어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생산보장해줄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경공업공장들에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대주자면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산, 알카리를 비롯한 기초화학제품들과 화학섬유, 합성수지, 물감 등 화학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그래야 경공업공장들에 조성되여있는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서는것은 또한 그것이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농촌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의 하나이다. 농촌기술혁명의 목적은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그 중요한 실현방도는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적극 다그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면 논밭을 걸게 하고 농작물이 빨리 자라도록 자극하며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을 화학적방법으로 할수 있게 된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여러가지 화학비료와 농약, 성장촉진제를 넉넉히 생산보장하여야 농업생산의 집약화를 실현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으며 농민들을 농사일의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다.

뿐만아니라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중공업발전을 다그치며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오늘 중공업의 여러 분야가 화학공업과의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중공업부문에서는 화학시약에 의한 광물의 선별, 야금로를 비롯한 각종 공업로들에서 산소, 가스의 취입 등 생산과정에 화학적방법을 받아들이고있으며 강도가 높은 합성수지와 같은 화학재료들을 원료, 자재로 널리 리용하고있다. 이것은 화학공업의 발전이 중공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화학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공업의 여러 분야에서 화학공업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이 모든것은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며 농업과 공업 발전을 적극 추동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을 건설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화학공업발전의 기본방향이며 그것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요구되는 화학제품을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 화학공업정책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의 모든 부문들을 다 갖춘 완비된 생산구조를 가진 그리고 국내 원료원천에 튼튼히 의거하며 대규모화학공업과 중소규모화학공업이 적절히 배합되고 높은 과학기술적토대우에 올라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화학공업으로 전변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화학공업은 중공업의 기간적부문의 하나로서 튼튼한 자립적토대우에서 다방면적이며 현대적인 공업으로 발전하여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고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만도 인민경제의 주체화의 요구에 맞게 화학공업에서는 새로운 부문들이 창설되여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화학제품생산이 결정적으로 늘어나게 되였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화학공업부문에서는 5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가 성과적으로 점령되였으며 화학섬유생산은 1.8배, 합성수지생산은 2.4배로 늘어나게 되였다. 우리 나라 자원에 기초한 유기합성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은 결과 주체섬유인 비날론생산이 확대되고 모빌론공업이 새로 창설되였으며 아닐론공업, 폴리에틸렌수지공업 등 새로운 부문들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나라 화학공업이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할수 있게 되였다.

화학공업발전에서 이룩된 위대한 전변과 빛나는 성과들은 우리 당 화학공업정책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킬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농촌경리와 수산업,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15억메터의 천고지를 점령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제3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알곡고지와 천고지를 비롯한 중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데 있다.

우리 당은 새 전망계획 기간에 화학비료생산량을 당 제6차대회가 제시한 전망목표보다 더 많은 720만톤 수준에 이르게 하며 화학섬유생산은 22만 5천톤, 합성수지와 가소제 생산은 50만톤이상에 이르게 할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화학공장들을 새로운 기술로 개건하고 확장하는 한편 우리 나라 자원에 의거하는 새 화학공업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화학섬유, 합성수지, 기초화학제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4권, 5～6페지)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경공업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것이다.

경공업원료기지를 꾸리는것은 경공업혁명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며 현시기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경공업원료기지, 특히 화학섬유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화학섬유문제를 풀기 위하여 우리 당은 오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발기하고 그것을 적극 다그쳐나가고 있다.

당의 구상과 지도밑에 진행되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대담한 설계도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보람찬 사업이다. 정무원 위원회, 부와 련관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들은 모든 힘을 집중하여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며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 계획된 설비와 자재들을 정확히 생산보장함으로써 1988년까지 10만톤의 비날론생

산능력을 조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서해갑문 건설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그들처럼 적극 투쟁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건설계획들을 철저히 수행하며 조업기일을 최대한으로 앞당겨야 한다.

화학섬유문제를 풀자면 화학섬유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에 힘을 집중하는 한편 이미 있는 화학섬유공장들의 능력확장공사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경공업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수지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수지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세계적추세이다. 수지재료들은 경공업원료로 쓰일뿐아니라 중공업, 특히 기계제작공업과 자동차공업에서 철대신 널리 리용되여 원가를 낮추며 제품의 수명을 늘이는데 커다란 작용을 한다.

특히 수지공업은 인민생활향상과 떼여놓을수 없는 중요한 부문이다. 수지공업을 발전시키면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다양하게 생산보장하고 포장문제도 원만히 해결할수 있으며 여러가지 가정용품과 가구, 놀이감도 많이 만들어 인민들의 늘어나는 물질문화적수요를 넉넉히 충족시킬수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남흥지구에 폴리프로필렌수지를 비롯한 합성수지생산기지를 더 마련하고 그밖에 여러가지 합성수지생산과 가소제생산 기지를 건설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종이공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경공업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학공업부문과 지방공업부문에서는 중앙공업종이공장들과 지방공업종이공장들을 더 잘 돌릴수 있게 가성소다를 비롯한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대주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종이공장들의 기계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종이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함께 소금생산에서 기계제염법을 받아들여 그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특히 중요한 기초화학공업기지인 순천탄산소다공장을 빨리 건설하여 탄산소다, 가성소다, 류산을 비롯한 기초화학제품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합성고무생산을 늘이는것은 경공업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하고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합성고무생산기지를 새로 일떠세워 주체적인 합성고무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새로운 대규모화학공업기지들의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여 우리 나라 화학공업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고 여러가지 화학제품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함으로써 인민경제의 화학화를 다그치고 인민생활향상의 넓은 전망을 확고히 열어놓아야 한다.

중소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화학제품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중소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물감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여 경공업공장들을 돌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원료와 자재를 더욱 원만히 대줄수 있으며 인민소비품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다. 화학공업부문과 도, 시, 군들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중소화학공장을 더욱 늘이고 이미 있는 공장들을 정비보강하며 자재보장체계를 철저히 세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칠감과 물감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화학비료생산에 힘을 집중하

는것이다.

우리 당은 지금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이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간석지를 개간하여 부침땅면적을 늘이며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 알곡생산에서 일대 전변을 가져와야 한다.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화학비료시비량을 늘이는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학공업에 큰 힘을 넣어 더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는 화학비료공장들에 원료, 연료, 동력을 충분히 대주어 생산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고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함으로써 더 많은 화학비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화학비료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여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2.5톤이상에 이르게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화학비료공장들을 개건확장하는 한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에 비료생산공정을 꾸리고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건설함으로써 화학비료생산을 빨리 늘이고 그 질적구성을 현저히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당의 화학공업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화학공업부문의 모든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불굴의 의지와 강의한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한다. 특히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나라의 화학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풍모이다. 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언제나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그들로 하여금 생산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내부예비를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지금 있는 설비로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적극 이끌어줄 때 화학공업발전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우리 일군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조건들을 자체로 마련하며 걸린 고리를 능숙하게 풀면서 맡겨진 경제과업을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특히 생산과 경영 단위들이 커진 현실적조건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하며 련합기업소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지금은 과학의 시대인것만큼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이 화학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화학공업부문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려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연구과제를 똑똑히 주고 잘 도와주어 그들이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그들을 내세워주고 새로운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널리 도입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화학공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웅대한 설계도인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화학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화학공업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오며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 기술교육수준을 더욱 높이자

한 기 환

오늘 우리앞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떤 나라와 민족도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밝은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인간개조사업이며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을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에 의하여 수행된다.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은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을 이룬다.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는데서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과학기술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류가 이룩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사람을 키운다는것은 그들의 본질적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인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하에서 교육의 참된 목적은 바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적우월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높이 발양시켜 그들을 더욱더 힘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있다.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에 의하여 표현된다. 정치사상교육이 주로 사람들의 자주적사상의식을 키운다면 과학기술교육은 그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에는 지식의 힘과 육체적힘 그리고 기계설비를 비롯한 로동수단의 힘이 포함된다. 사람이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활동을 벌리려면 사물현상의 본질과 그 발전법칙에 대한 지식과 객관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객관세계를 개조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적수단들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것들은 과학과 기술이 준다.

과학은 바로 사물현상의 본질적속성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지식의 체계이며 기술은 객관세계를 인간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구체적방법을 밝힌 지식과 사람의 기능, 로동수단들의 체계이다. 사람의 창조적능력에서 기본은 과학기술이다. 인간의 육체적힘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식, 과학기술적힘에는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창조적능력을 무한히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천은 과학기술에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교육의 질적수준도 과학기술교육수준에 의하여 중요하게 좌우된다. 이것은 대학들에서 자라나는 후대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데 기초하여 과학기술교육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것은 무엇보다도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시대는 과학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생산과 건설에서

현대적인 과학과 기술이 널리 도입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207페지)

우리는 지금 인류를 경탄시키는 전례없는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의 시대에 살고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것이 사회의 물질적정신적생활에 더욱더 큰 작용을 한다는데 있다. 과학기술의 큰 역할에 대하여 지금처럼 사회적으로 수많이 론의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지금 과학과 기술이 비상히 높은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레이자, 플라즈마를 비롯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계속 개척되고 그 응용분야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그리고 생산에서 자동화, 로보트화가 널리 보급되고 경영활동에서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이 많이 리용되고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세계경제발전의 기본추세이다.

과학기술이 빨리 발전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날로 커지고있는 우리 시대는 현대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한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낼것을 요구하고있다.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과학기술인재양성기지를 더욱 확대하는것과 함께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어제의 새 기술이 오늘에는 낡은것으로 되고 지난날에 공상으로만 여기던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가 현실화되고있는 조건에서 대학의 과학기술교육내용을 끊임없이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로 보충하고 풍부화할 때만이 학생들을 전자, 자동화 시대,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시대에 상응한 능력있는 기술인재로 키워낼수 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서 매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는것이다.

제3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새 전망계획수행의 기본고리는 과학과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이다.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칠수 없고 1980년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도 제3차7개년계획의 목표도 점령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높일수 없다. 최단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성과들을 깊이 파악하고 최신과학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줄 아는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과학기술인재는 핵심적역할을 한다. 우리는 1993년에 가서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200만명이상에 이르게 하며 특히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화학, 생물공학 부문의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더 잘 양성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양성의 기지는 대학들이다. 대학은 교육과 과학연구의 종합적기지이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과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은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며 과학기술핵심들을

더 많이, 더 빨리 키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의 길을 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 대학들에서는 과학기술교육이 끊임없이 강화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절실히 요구되는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수많이 양성되였다.

특히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교육부문 일군들과 대학교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지금 우리 나라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였다.

그러나 비상히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과학기술발전의 현실적요구는 그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내용을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보충하고 풍부히 해나감으로써 과학과 기술의 높은 발전단계에 상응하게 과학기술인재를 더 잘 양성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는 현대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을 개선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과학기술인재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빠른 시일안에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할것이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고등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기술교육을 잘하는것입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17페지)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개선하는데서 기술교육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기술교육은 발전된 기술로 장비된 사회주의적현대생산에 상응한 인간육성사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기술교육을 강화하여야 학생들을 과학기술의 최신성과로 든든히 무장시킬수 있다.

기술교육은 기술기초교육과 전문기술교육을 통하여 진행된다.

기술기초교육수준을 높이는것은 전문기술교육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술기초교육수준을 높여 학생들에게 현대 과학과 기술의 기초원리를 깊이있게 습득시켜야 그들이 대학기간에 전문기술지식을 폭넓고 깊이있게 소유할수 있으며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기본은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대학들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가 끊임없이 개척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여 전문기술교육의 수준을 빨리 높여야 한다. 특히 기술대학들에서 전자, 자동화공업부문의 최신과학기술과 현대적인 자동화 요소들과 수단들에 대한 교육, 용접과 유압 기술에 대한 교육은 비롯하여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설계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볼줄 모르고 기계설비를 창안설계할줄 모른다면 아무리 전문기술지식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술자, 전문가로서의 임무를 옳게 수행할수 없다. 기술대학들에서는 설계교육

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이 어떤 설계도 자유롭게 볼수 있고 여러가지 현대화된 기재설비들을 자체로 훌륭히 창안설계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과학과 기초과학 부문의 교육을 강화하며 외국어교육에 힘을 넣는것이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주체의 사회과학리론을 폭넓고 깊이있게 가르쳐주어 그들이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과학부문 전문가를 키워내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유능한 사회과학자로 튼튼히 준비되게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회과학부문 학생들에게 경제활동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지식을 깊이있게 소유하게 하며 경제관리에서 전자계산기와 같은 기술수단들을 널리 리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는것이다.

현대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은 기초과학의 성과에 토대하고있으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자립성은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리적인식은 과학기술습득의 선결조건이다.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여야 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일수 있고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으며 과학기술을 주체성있게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대학들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을 비롯하여 기초과학분야에서 이룩된 최신성과들을 학생들에게 깊이 체득시켜 이 부문 전문가양성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여 다른 나라 과학기술시적들을 보고 세계적인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섭취할수 있도록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의도대로 학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쳐주는것이다.

학생들에게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옳게 결합하는 사회주의교육방법을 비롯하여 실천교육의 여러 형태들을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시키는것은 교육에서 순수 지식을 주입하던 낡은 방법을 없애고 사람들을 깊고 풍부한 지식과 함께 실천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람들의 실천능력은 지식, 육체적힘의 발현으로서 그것은 이미 배운 지식을 응용, 활용하는 과정에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준비정도와 교수내용의 특성에 맞게 직관교육, 실물교육, 강의와 과학실험, 생산실습을 밀접히 결합하는 등 여러가지 교육방법을 옳게 적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들의 원리와 발전법칙들을 배워주고 그 응용, 활용 능력을 키워주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대학들에서 강의의 과학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필요한 실험과 실습을 빠짐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전공실습을 생산현장의 기술혁신과제수행과 밀접히 결합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천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실험실과 실습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것이다. 대학들에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쓸모있는 실험

기구들을 많이 만들어 학생들이 개별실험은 물론 과학실험까지 할수 있도록 실험실을 현대적인 공학실험실로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실습공장도 생산실습과 전공실습까지 충분히 할수 있도록 종합실습공장으로 완비하여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공고화하며 그 응용능력을 원만히 키워나갈수 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대학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대학교원들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의 주인이며 직접적담당자이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내용을 개선하는 사업은 대학교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교육사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조적사업으로서 다른 사업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인간개조를 위한 교육사업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그것은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것처럼 그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교원들이 그 어떤 명예와 공명을 바람이 없이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후대교육을 책임적으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교원들에게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키우는 직업적혁명가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안겨주시였다. 교원들이 이 영예로운 칭호를 받아안은 크나큰 긍지를 깊이 자각하고 누가 보건 말건, 평가해주건 안해주건 오직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창발성있게 일해나갈 때 과학기술교육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대학교원들은 언제나 직업적혁명가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교육자적인 량심을 가지고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에 정력을 다 바쳐야 하며 교수교양사업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더욱 더 혁명화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받아안은 값높은 정치적생명을 굽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교수사업이며 교수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대학교원들의 첫째가는 임무이다.

대학교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들을 깊이 연구한데 기초하여 강의와 학과토론, 실험실습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과학기술교육내용을 철저히 당정책화하고 학생들에게 하나를 가르쳐도 우리 혁명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특히 대학교원들은 새로운 과학기술원리와 법칙들이 굽임없이 발견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에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제때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자연과학과 기술공학 강좌들에서는 전공분야에서 이룩되고있는 최신과학기술성과들을 교육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회, 토론회 등 집체적인 협의를 광범히 벌림으로써 과학기술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교원들의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동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 로보트화, 전자계산기화하는데 필요한 전문기술부문의 최신과학기술적내용들이 빨리 교수내용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공학, 전자공학, 자동화공학 교육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기계공업과 극소형전자공업, 로보트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과학기술교육이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인민경제의 기술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전자, 자동화 요소와 장치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데 적극 도움을 주어야 한다.

교수방법을 개선하여 교수를 철저히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은 과

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인식의 주체는 학생들자신이므로 그들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하여야 과학기술지식을 그들자신의것으로 체득하게 할수 있다.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방법, 기계적으로 외워바치게 하는 방법은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주의교육방법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그것은 착취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저들의 리해관계를 옹호하는 반동사상을 신성화하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들이먹이며 사람들을 몽매화하고 착취계급에게 순종하는 노복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반동적교육방법의 잔재이다. 대학교원들은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 매우 유해로운 방법인 들이먹이는 방법, 베껴주는 방법, 기계적으로 외워바치게 하는 방법을 없애고 모든 과학기술교육과목의 교수들이 철저히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의 성과와 질은 그 직접적담당자들인 대학교원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교수교양사업이 잘되자면 교원들속에서 실력가가 많이 나와야 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말하며 표현한다. 교원도 자기가 아는것만큼 학생들에게 언어와 행동 등 표현수단을 통하여 과학기술지식을 가르쳐준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며 그것은 곧 학생들의 학과실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대학교원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열렬한 독학가, 정열가가 되여 과학리론수준과 교육실무적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대학교원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며 전공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며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강의를 능숙하게 할수 있는 높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들에서의 과학연구사업은 과학기술교육의 질과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교수내용에 새로운 과학기술지식을 끊임없이 보충해나가기 위해서는 대학교원들자신이 최신과학기술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일수 없다. 대학교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통하여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고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교수내용에 끊임없이 보충하여 학생들을 최신과학기술로 무장시키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때 자기앞에 맡겨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비상한 탐구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공분야의 과학기술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교수사업과 과학연구실천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대학교원들은 누구나 학위학직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의 강좌들에 현대과학기술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가지고 새로운 발명을 할수 있는 교수, 박사급의 학자들이 적어도 몇명씩은 있게 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 학생들을 적극 참가시키는것은 그들에게 창조적능력을 키워주고 과학연구방법론을 체득시켜 전망성있는 과학후비를 빨리 키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대학들에서는 교원들속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대학생들을 이 사업에 적극 참가시켜 그들이 대학기간에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우고 과학연구방법들을 깊이 체득하며 자신들이 가지고있는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대학들에서 연구원, 박사원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나라의 교육자, 과학자 후비들인 20대, 30대의 젊은 준박사, 박사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며 현직교원들을 재교육하여 그들의 자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시켜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과학기술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의 교수교양사업과 교직원, 학생들의 정치사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대학의 최고지도기관이다.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이지 않고서는 과학기술교육을 비롯하여 대학의 전반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갈수 없다.

대학당위원회들은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정치사업을 교육행정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정치사업을 교육행정사업과 결합시키는데서 교수교양사업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며 당정치사업의 결과가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들은 특히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도록 하는데 심중한 당적주목을 돌림으로써 과학기술교육이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며 그것이 우리 나라 혁명에 철저히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생들이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대학들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창조하시고 몸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신 주체적인 학습방법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높이는데서 교육행정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대학의 교육행정일군들은 대학교육사업을 책임진 지도일군이라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똑바로 가지고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사업에 어깨를 들이밀어야 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교육행정일군들은 혁명적인 교육규률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틀어쥐고나감으로써 교원, 학생들속에서 교육강령집행을 한초도 어기지 않는 규률, 제정된 질서와 제도를 엄격히 지키는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한편 대학교육행정일군들은 대학들에서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할수 있는 온갖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특히 교원, 학생들의 과학연구사업과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는데 심중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교육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번영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한계단 더 높여야 한다.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은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는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우리의 교육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시대 가극 건설과 창조에 관한 불멸의 총서

리 상 태

위대한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민족문화, 끊임없이 개화발전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지도자의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의 빛나는 구현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전례없이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적문학예술은 그것을 빛나게 확증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문예리론활동으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이 땅우에 민족문화의 일대 개화기를 펼쳐놓으시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의 위대한 정화로서 우리 나라에서 성과적으로 수행된 가극혁명의 력사적승리와 그 과정에서 이룩된 다방면적인 경험을 총화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의 집대성이며 우리 시대 가극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문헌이다.

력사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가극혁명의 필연성과 현대가극발전의 기본방향, 새형의 가극의 창작 원칙과 방도 등 우리 시대 가극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밝히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다. 실로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그 전체계와 내용의 완벽성과 풍부성에 있어서, 거기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의 과학적진리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문헌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고전적문헌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에서의 영화혁명을 총화하시면서 1973년에 불멸의 리론총서 《영화예술론》을 발표하신데 이어 가극혁명을 총화하시면서 1974년에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내놓으신것은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 획기적사변으로,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1)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가극혁명의 필연성과 가극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가극혁명의 불길속에서 창조된 새로운 가극방식으로서의 《피바다》식가극의 성격과 본질적특성을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 가극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에 해답을 준 탁월한 문헌이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본성에 맞는 가극을 어떤 립장에서 어떻게 건설하며 그러한 가극의 창작 원칙과 방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것은 가극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본성에 맞는 가극을 건설하고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착취사회가 가극분야에 남겨놓은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기 위한 혁명을 하여야 한다.

로작은 무엇보다도 가극혁명이 우리 시대와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라는것을 밝히고있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력사를 창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에게 복무할 새로운 가극을 요구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창작된 가극들은 거의 모

두가 착취계급의 심심풀이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제왕과 신, 권력과 황금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는 도구로 되여있었으며 예술적면에서도 우리 시대 인민대중의 비위와 정서에 맞지 않는것이 적지 않았다. 지난날의 가극의 낡은 틀을 마스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가극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혁명을 하여야 한다.

가극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그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필요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자면 사람들을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것과 함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1960년대말~1970년대초의 가극예술은 내용에서 혁명적인것, 사회주의적인것이 주도적자리를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형식에서는 의연히 낡은 틀이 지배하고있었다. 이것으로 하여 가극예술은 인민대중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데 훌륭히 이바지할수 없었을뿐아니라 내용과 형식의 불일치로 말미암아 가극자체의 발전도 억제당하였다. 가극예술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자면 가극혁명을 일으켜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없애고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가극예술을 창조하여야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시대의 요구와 문학예술의 실태를 깊이 헤아리시고 영화혁명에 이어 지체없이 가극혁명을 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예술의 사회력사적제약성과 사상예술적제한성을 극복하고 주체시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새형의 가극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가극예술에 대하여》, 단행본, 4페지)

우리 당이 제시한 가극혁명방침은 기존가극의 테두리안에서 부분적인 개조나 개변을 제창한 지난날의 모든 가극리론과는 달리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쓸어버리기 위한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하는 가장 철저하고 가장 혁명적인 방침이다.

가극혁명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내용과 형식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변혁하는것이다.

가극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하는데서 기본은 내용이다. 가극은 내용이 건전하고 고상하여야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될수 있으며 그들을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다.

우리의 가극예술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있다. 가극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이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을 비롯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인민들의 리해관계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가극에서는 전설이나 력사적사건을 취급할수도 있다. 그러나 가극이 어느 시기의 어떤 생활을 취급하든지 오늘 우리 시대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한다.

우리는 가극의 내용에서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온갖 낡은것을 철저히 없애고 혁명적이고 인민적인것으로 일관시킴으로써 가극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주체의 인간학으로서의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가극의 형식도 인민의 미감에 맞게

변혁하여야 한다. 혁명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민족적형식과 결합된 가극이라야 참말로 인민을 위한 가극으로 될수 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예술을 창조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우리 시대 가극예술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세워야 한다.

내용과 형식,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의 모든 령역에서 낡은것을 없애고 시대와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는 주체의 가극예술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을 밝힌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제시한 가극혁명방침의 독창성과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가극혁명을 하자면 옳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가극혁명이 시대의 성숙된 요구로 나선다고 하여도 옳은 원칙이 없으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로작은 가극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기본방도들을 새롭게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의 가극예술을 사소한 편향도 없이 잘 건설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주고있다.

가극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가극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것은 가극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자기 인민의 민족적정서에 맞게 풀어나간다는 것을 말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가극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이 가극혁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되는것은 주체가 우리 가극예술의 생명으로 되기때문이다. 주체가 확고히 선 가극만이 참다운 생명과 가치를 가질수 있으며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로 추동하는 강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

가극혁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은 또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이다. 가극에서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고 로동계급적선을 확고히 세우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생활을 그들이 쉽게 리해하고 즐겨 받아들일수 있는 형식에 담아 진실하게 그리는 원칙을 튼튼히 지켜야 가극예술을 철두철미 당과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예술로 만들수 있다.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할데 대한 원칙, 집체성의 원칙, 속도전의 원칙을 지키는것은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혁명적가극창작의 필수적요구이며 집단의 단합된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가극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 나라에서 1년 남짓한 기간에 빛나게 수행된 가극혁명의 승리는 가극혁명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시위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한 가극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세련된 령도로 가극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시대와 인민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새형의 가극, 《피바다》식가극의 새 력사를 펼쳐놓으시였다.

고전적로작은 가극혁명과정에 창조된 새로운 가극방식으로서의 《피바다》식가극의 본질과 그 형상적특징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히고있다.

《피바다》식가극의 본질적특징은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을 이루는 모든 노래들을 절가화하고 새로운 음악형식인 방창을 받아들여 가극형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쓰고있는것이며 지난날 가극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던 무용을 필수적인 형상수단으로 되게 하고 무대를 변화무쌍한 흐름식립체무대미술로 전환시킨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

와 같이 절가가 기둥이 되여 관현악과 무용, 무대장치가 통일되고 절가의 흐름에 따라 춤도 추고 무대가 바뀌면서 극이 전개되는 방식, 바로 이것이 《피바다》식가극방식이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날의 모든 가극방식과 다른 《피바다》식가극방식이 창조됨으로써 오랜 세월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참다운 인민의 가극, 공산주의가극이 태여나게 되였으며 우리의 가극예술은 현대가극의 본보기로 될수 있었다.

실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가극혁명에 관한 사상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 가극예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한것으로서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극건설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탁월한 방침일뿐아니라 문학예술전반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혁명적원칙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2)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주체가 튼튼히 서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된 새 가극 창조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과 형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백과전서적총서이다.

로작에서 밝힌바와 같이 가극은 시와 음악이 있고 무용과 미술도 있는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사상예술적특성을 살리고 인식교양적역할을 다할수 있게 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가극의 모든 형상수단들을 어떤 원칙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있다.

력사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가극대본으로부터 가극음악, 가극무용, 가극미술, 가극무대 형상에 이르기까지의 가극창작의 모든 단계와 모든 분야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제시함으로써 주체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창조의 옳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다.

로작은 무엇보다먼저 주체의 인간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가극창작에서 가극대본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가극대본창작의 원칙들을 심오히 밝히고있다.

로작에서 밝힌바와 같이 대본은 가극의 사상예술적기초이다. 가극의 종자와 주제사상, 인물의 성격과 이야기줄거리는 모두 대본에서 제시되며 음악과 무용, 무대미술도 대본에서 규정된다. 대본에서 가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가극의 특성에 맞게 잘 그려야 그에 기초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가극을 만들수 있다.

로작은 또한 작품의 종자를 잘 골라잡고 주인공을 비롯한 인물의 성격을 깊이있게 그리며 가극의 특성에 맞게 이야기줄거리를 굵고 간결하게 엮고 가극의 모든 형상수단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놀수 있도록 쓰는것을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대본을 창작하기 위한 기본방도로 제시하고있다. 로작이 밝힌 이러한 요구들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대본은 가극의 사상예술적기초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가극을 주체의 인간학, 공산주의인간학으로 만들수 있다.

가사는 노래의 사상예술적기초로서 가극의 사상적내용과 예술적풍격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이다. 가극의 생명이 노래에 있다면 그 생명을 담보하는 문학적기초는 가사에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명가사가 있어야 명곡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명가사란 뜻이 깊고 형상이 잘되여 새길수록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며 읊으면 저절로 노래가 되는 가사를 말한다고 가르치시고 가사에 깊은 사상적내용을 담고 높은 시형상을 창조할데 대한 문제, 가사를 시화하고 운률성과 서정성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가사창작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형상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밝혀주심으로써 명가사창작의 열쇠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실천적문제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는 로작은 우리의 가극대본

이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세련되고 완성된 문학으로 되여야 하며 《피바다》식가극의 특성에 맞는 대본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당에 의하여 새롭게 제시된 가극대본창작리론의 창조성과 혁신적의의가 있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가극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고 가극음악창작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제시하고있다.

가극은 노래로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그려내며 극을 엮어나가는 예술이다. 노래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가극에서는 어떤 노래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어느 시대의 가극도 이 문제를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오직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주체적문예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절가를 가극의 기본형상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가극의 모든 노래를 절가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노래를 절가화하는것은 가극창작의 기본원칙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40페지)

모든 노래를 절가화하는것이 가극창작의 기본원칙으로 되는것은 절가가 인민에 의하여 창조되고 다듬어져온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으로서 알기 쉽고 부르기 헐하며 인민들에게 친숙해진 노래일뿐아니라 형식이 간결하면서도 표현능력이 풍부하고 서술기능이 다양하기때문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가극노래의 절가화방침은 종래의 가극에서 기본으로 되고있던 아리아와 대화창을 없애고 인물의 노래는 물론 방창도 절가로 만들며 관현악도 절가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편곡하고 연주한다는데 그 본질이 있다.

가극의 노래를 절가화하는것은 가극의 노래를 명곡으로 만들어 누구나 다 쉽게 리해하고 즐겨부를수 있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로작에서 밝힌바와 같이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을 창작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음악건설에서 우리 당이 확고히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노래의 선률을 유순하고 아름답게, 특색있게 짓는것은 《피바다》식가극음악창작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우리는 가극의 모든 노래를 절가화하고 민족적선률을 바탕으로 하여 음악을 창작할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가극의 종자와 주제사상,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섬세하게 밝힐수 있게 되였을뿐아니라 가극의 기초로 되는 성악형식에서 인민성, 민족적특성, 통속성을 더욱 철저히 구현할수 있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극의 모든 노래를 절가화한것은 수백년동안을 내려오며 굳어져버린 종래 가극의 성악형식을 근본적으로 변혁하고 가극사의 년대기우에 절가식가극의 새로운 리정표를 아로새긴 특출한 사변으로 된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피바다》식가극에 새롭게 받아들인 방창의 형상적본질과 역할, 그것을 구사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사상리론이다.

방창이란 무대밖에서 불리워지면서 극의 세계를 그려내는 노래이다. 가극에 방창을 받아들인것은 완전히 우리식이며 새롭고 독창적인것이다.

종래의 가극리론은 인물의 노래와 관현악만을 가극의 음악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우리 당은 주체의 관점과 립장에 튼튼히 서서 무대노래와 관현악으로 이루

어진 종래의 가극음악형식으로는 도저히 우리 시대 인민의 정신적풍모와 생활을 충분히 그릴수 없다는것을 간과하고 《피바다》식가극을 만들면서 방창이라는 전혀 새로운 음악형상수단을 받아들였던것이다. 이것은 가극분야에서의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며 혁명으로 된다.

방창을 받아들임으로써 무대노래와 관현악이라는 음악형상수단밖에 없었던 가극에는 방창이라는 제3의 새로운 음악형식이 생기게 되였으며 그것으로 하여 인간과 생활을 자연스럽고 진실하게, 깊이있고 섬세하게 그리는 새로운 가극방식이 태여나고 음악극작술에서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으며 가극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

로작은 방창이 인물의 내면세계를 각이한 시점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그려내며 객관적립장에서 부정인물을 조소하거나 규탄하는 힘있는 수단일뿐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대한 일반화를 통하여 그 본질을 밝혀내며 극발전을 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이라는데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고 방창의 다양한 형식들을 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천명함으로써 가극에서 방창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비상히 강화하게 하였다.

가극에서 관현악은 노래를 살리고 극을 하나의 음악적흐름에로 련결시키며 무대형상의 통일적인 조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형상수단이다. 그러나 모든 가극관현악이 자기의 이러한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온것은 아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지난날의 가극관현악이 가지고 있던 약점과 제한성을 꿰뚫어보시고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로운 가극관현악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극을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되게 하자면 어렵고 까다롭던 종래의 가극관현악을 버리고 인민의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는 새로운 가극관현악을 창조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가극관현악을 창조하는 옳은 길은 관현악을 절가로 된 노래에 기초하여 발전시키는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70페지)

절가로 된 노래에 기초하는 가극관현악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은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가극관현악을 인민을 위한 예술로 되게 하자면 가극에서 노래를 절가화한것과 마찬가지로 관현악도 절가로 된 노래에 기초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절가로 된 노래에 기초한 새 가극관현악의 우월성은 그것이 가극의 주제와 사상,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그리는데서나 성악과의 형상적통일을 실현하며 극을 발전시키는데서는 물론 음악의 일관성을 보장하는데서도 종래의 가극관현악보다 비할바없이 큰 힘을 발휘한다는데 있다.

우리 당은 가극혁명을 령도하면서 가극관현악을 절가로 된 노래에 기초한 인민적인 관현악으로 되게 하였을뿐아니라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새로운 관현악으로 전환시켰다.

로작에는 《피바다》식가극창조과정에 새롭게 태여난 주체적인 배합관현악에 관한 사상리론이 전면적으로 심오하게 제시되여있다.

우리 식의 배합관현악의 특징은 민족악기에 특수한 양악기를 배합하는것과 같은 부분적인 배합관현악이 아니라 민족악기군과 양악기군을 전면적으로 배합한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관현악이라는데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독창적인 음악리론과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는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전면적으로 배합한 주체의 관현악을 창조함으로써 오래동안 미해결문제로 남아있던 민족악기와 양악기와의 호상관계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으며 우리의 관현악이 지난날의 그 어느 관현악에서도 들을수 없었던 독특한 음색과 풍부한 음향을 가진 민족적

이며 인민적이며 현대적인 새형의 관현악으로 되였다. 실로 우리 식의 주체적배합관현악의 창조는 가극혁명과정에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이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세계관현악발전에 기여한 특출한 공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음악극조직의 본질적내용과 의의, 음악극조직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고 특히 가극에는 주제가가 있어야 하며 주제가와 기둥노래로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그리고 극을 발전시켜야 하며 음악극조직에서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음악극작술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무용이 가극의 중요한 형상수단의 하나로 되여야 한다는 사상을 새롭게 밝히고 가극무용창작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고있다.

가극에 무용이 있어야 한다는 사상은 지난날의 가극에서와 같이 무용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형상수단으로서가 아니라 필수불가결의 형상수단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며 무용이 극과 결합되여 인물의 내면세계와 성격장성과정을 그리고 극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작용하여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가극에 무용이 있어야 종합예술로서의 가극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되며 그 인식교양적기능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용창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특색있는 춤가락을 찾아내는것입니다. 춤가락이 없으면 무용이 이루어질수 없고 춤가락을 잘못 고르면 무용이 빛이 날수 없습니다. 춤가락은 무용의 생명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114페지)

《피바다》식가극에는 성격무용, 환상무용, 꿈장면무용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무용이 들어가는것만큼 매 무용마다 특색있는 춤가락이 있어야 무용이 살고 가극이 빛난다.

로작은 무용에서 춤가락은 어디까지나 조선춤가락이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특색있는 춤가락을 고른다고 하여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에 맞지 않는 이색적인 춤가락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가극에서 무대미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장치, 배경, 분장, 의상, 소도구를 비롯하여 무대형상수단들의 역할을 심오히 밝히고 특히 가극혁명과정에 창조된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의 본질적특징과 우리 식의 무대미술을 창조하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무대미술에서 기본을 이루는 장치와 배경은 인물의 성격과 생활을 생동하게 보여주며 시대와 사회제도의 특징을 밝히고 무대의 조형미를 살리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난날의 가극에서는 격식화된 몇개의 막과 장으로 이루어진 장치와 배경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데 복종되여왔기때문에 자기의 응당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우리 인민의 미감에도 맞지 않았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날의 가극무대미술의 제한성을 꿰뚫어보시고 혁명과 건설로 들끓는 우리 시대와 우리 인민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형식으로 담을수 있는 우리 식의 새로운 가극무대미술을 창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종래의 가극무대미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을 만들어내도록 하시였다.

우리 당의 지도밑에 창조된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은 단순히 인물의 생활환경과 행동의 시공간을 조성해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의 내면세계와 세계관형성과정을 조형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냄으로써 인물의 성격해명에 힘있게 이바

지하는 미술이며 장치와 배경이 생활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변하면서 인물의 성장과정을 안받침해주고 극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무대미술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이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이다. 바로 여기에 《피바다》식가극무대미술의 본질적특성이 있고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배우, 지휘자, 연출가를 비롯한 가극창조에 참가하는 창작가, 예술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고 가극무대형상창조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에 대하여서도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로작은 이처럼 주체가 튼튼히 서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이 철저히 구현된 우리 시대 새형의 가극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빈틈없는 정연한 체계와 론리, 독창적인 심오한 사상과 진리를 담고있는 고전적인 정식화로 일관되여있다. 실로 력사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모든 창작가, 예술인들이 가극창작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초석이며 현대가극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이다.

(3)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가극예술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발전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진다.

력사적로작의 거대한 의의는 무엇보다먼저 우리 시대 가극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새롭게 밝히고 전면적으로 체계화, 집대성화한 가극리론의 총서라는데 있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모든 사상리론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으며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다.

로작에서 제시된 가극혁명에 관한 사상을 비롯하여 대본창작에서 주체의 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할데 대한 사상, 가극노래를 절가화하고 방창을 받아들일데 대한 사상, 배합관현악을 창조할데 대한 사상,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을 받아들일데 대한 사상 등 모든 사상리론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게 하는 관점과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것이란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에서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가극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들을 전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복무하는 새로운 가극 건설과 창조의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사상, 지도리론을 마련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바로 여기에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가 가지는 커다란 리론실천적의의가 있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적가극리론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 있는것이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의 거대한 의의는 또한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 가극 건설과 창조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일뿐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사상미학적문제들에 폭넓고 심오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문헌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사상리론의 깊이와 가치는 하나의 진리를 통하여 열, 백의 진리를 헤아리게 하며 실천투쟁속에서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확증되는데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단순한 가극 건설과 창조에 관한 리론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 주체의 문학예술 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미학실천적문제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멸의 리론총서이다. 여기에는 혁명적문학예술창조에서 핵을 이루

는 주체의 인간학에 관한 문제, 문학예술작품의 생명을 담보하는 종자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는 미학상 문제들이 깊이있게 밝혀져있으며 복고주의, 형식주의, 자연주의에 대한 보다 새롭고 심오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로작은 또한 문학예술작품에서 철학적깊이에 관한 문제,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에 관한 문제, 도식과 모방에 관한 문제 등에 심오하고도 독창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실로 력사적로작은 가극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창작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심오하게 밝힌 주체의 문예리론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적기치이며 강령이다.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에서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새형의 가극건설의 방향과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고 창조원칙과 형상방도들이 완벽하게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은 자기의 본성에 맞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가극 건설과 창조를 위한 완성된 혁명리론을 가지게 되였으며 수백년의 력사를 가진 가극예술은 새로운 혁명적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의 거대한 의의는 또한 로작에서 밝혀진 모든 사상리론이 그 어느 서재나 상아탑속에서 만들어낸것이 아니라 주체의 문학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창시되고 가극혁명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문예 사상과 리론이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리론을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과 실정에 맞게 적용할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창조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던 첫시기부터 일관하게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였으며 문학예술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시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가극리론을 완성하시고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시는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새롭게 제시하신 혁명가극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문예사상과 리론은 혁명가극 《피바다》를 비롯한 5대혁명가극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 진리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피바다》식가극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진실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이며 현대적인 가극, 공산주의가극의 빛나는 본보기로 칭송되고있다.

실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주체의 가극예술, 참다운 공산주의가극예술을 창조하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며 승리의 기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주체적문학예술론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받아안게 된것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예이며 기쁨이며 행복이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혁명적가극건설의 참된 교과서이며 주체적문예리론총서인 고전적로작 《가극예술에 대하여》를 깊이 연구학습하여 우리 당의 불멸의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혁명가극을 비롯한 혁명적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고리는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이는데 있다

최 영 길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이는가 못움직이는가 하는것은 당사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이 잘되였는가 잘 안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은 결국 당조직들이 어떻게 꾸려졌는가,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잘 움직이며 자기 맡은 당적과업을 옳게 수행하는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145페지)

우리 당은 나라의 전반사업을 완전히 책임지고있으며 온 나라의 모든곳에 자기의 당적력량을 포치하고있다. 군중이 있는곳에는 당원이 있고 당원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당조직이 있다. 그러므로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여 당세포와 당위원회들이 자기의 기능을 충분히 놀게 되면 모든 혁명초소들에서 당원들과 군중이 잘 움직이게 되고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게 된다. 원래 당의 의도와 방침은 당조직을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당사업,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에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반드시 당조직을 움직이고 당원들과 군중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당의 말단 집행단위이며 지도단위인 군당위원회들은 제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여야 하는 조건에서 기층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군당위원회들의 활동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지난 기간 우리 연안군당위원회는 당조직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기층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 군앞에 나서는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여러차례 찾아주신 영광의 땅인 우리 군을 살기좋은 사회주의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지난 기간 군내 인민들과 함께 벅찬 투쟁을 벌리였다.

우리는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논면적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한편 많은 새땅을 찾아내고 저수지도 새로 여러개 건설함으로써 알곡생산을 훨씬 늘이였다. 그리고 군중적운동으로 축산토대를 튼튼히 꾸려놓았으며 지방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원료기지를 조성함으로써 그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다.

우리는 인민들이 생활을 보다 문화적으로 윤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체로 건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군소재지에는 고층살림집을 규모있게 건설하고있으며 농촌들에서는 밭가운데 널려있던 집들을 산기슭에 아담한 문화주택으로 옮겨짓고있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면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답게 군소재지를 꾸리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결과 오늘 군소재지에는 행정경제기관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비롯하여 교육, 문화, 보건 기관들이 새 모습으로 일떠서고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망들이 그쯘

히 구려져 도시를 방불케 그 면모가 일신되여가고있다.

우리가 지난 기간 이룩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언제나 군당위원회의 사업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이와 함께 그 성과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데 있다. 우리는 실지사업과정을 통하여 옳바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이고 당원들과 군중을 적극 발동하기만 한다면 그 어떤 어려운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되였으며 일정한 경험도 얻게 되였다.

아래를 철저히 장악통제하는것은 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래당조직들의 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고 통제하여야 그 움직임과 실태를 환히 꿰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게 할수 있으며 당의 의도와 어긋나게 나가지 않도록 할수 있습니다.》

아래당조직들을 철저히 장악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는것은 하부지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이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실속있는 지도를 줄수 있으며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하여 포치된 사업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도록 할수 있다. 군당위원회가 집체적으로 토의결정된 문제들을 아래에 포치하는데 그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통제하지 않으면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게 할수 없으며 당정책을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도록 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는 일단 사업을 아래에 포치한 다음에는 그 집행정형을 료해장악하고 총화, 재포치하였으며 이러한 아래당조직들에 대한 장악통제사업을 포치된 사업이 끝까지 집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끊임없이 심화시켰다. 결과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당조직들의 활동을 적극화할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축산토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군당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사업과정에서 실지 체험하였다.

군내 인민들의 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고기생산을 늘이는것이였다. 우리는 군내 축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종축장들을 잘 꾸리는 동시에 돼지우리를 밀폐식으로 개조하고 사료가공설비들을 완비하는 문제와 자연먹이를 기본으로 하여 집짐승먹이를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군당집행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군의 축산업을 일대 개변하기 위한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였다. 그가운데서 돼지우리를 모두 밀폐식으로 개조하는 문제만 놓고보아도 숱한 자재와 로력이 요구되였으며 또 그것은 단시일내에 해제껴야 하는 과업이였다.

이 사업이 포치되였을 때 처음에는 활기를 띠고 진행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 주되는 원인은 당조직들이 면밀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고있는데 있었다.

우리는 사업을 포치하고는 인차 그 집행정형에 대한 장악통제사업을 따라세웠다.

아래실태는 당조직들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담당지도원들을 통하여 료해할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군당의 책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아래실태를 료해장악하도록 하였다. 그것은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아

주고 걸린 문제를 보다 실속있게 풀어 줄수 있을뿐아니라 아래일군들의 광범한 창발적의견에 기초하여 실정에 맞는 구체적방법론을 찾아냄으로써 사업을 힘있게 내밀도록 당조직들을 적극 추동할수 있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아래단위에 내려가 며칠씩 묵으면서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였으며 일군들과 함께 제기된 문제를 풀 방도도 연구하였다. 이렇게 아래당조직들의 활동을 틀어쥐고 지도하니 사업에서는 확실히 성과가 나타났다. 일군들이 우에서 자재를 대줄것만 바라던 그릇된 사상관점을 버리고 자체로 예비를 탐구하게 되였다. 칠봉리의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군중의 지혜를 발동하고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든 결과 리에 흔한 돌을 채석하여 돼지우리건설에 필요한 자재문제를 풀었으며 사회적로동으로 축산반과 비육분조의 돼지우리를 밀폐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짧은 기간안에 성과적으로 끝냈다.

아래실태를 료해장악하는데서는 지도검열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지도검열사업은 포치된 사업이 실속있게 집행되도록 장악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우리는 군당의 책임일군들과 해당 부문의 전문일군, 관계부문 일군들이 망라된 성원으로 지도검열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군당의 결정이 실속있게 집행되고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형식주의적사업태도를 철저히 극복하도록 당적통제를 강화하였다. 우리는 호박굴, 호박산을 조성할데 대한 사업을 포치하였을 때도 계획된 포기수를 보장한것뿐아니라 매포기를 질적으로 심었는가를 철저히 검열확인한 다음 그 사업의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는 아래실태를 철저히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나타난 편향을 놓고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 재포치하군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군당위원회가 포치한 사업이 끝까지 수행된 때까지 반복하여 심화시켰다. 이것은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데 커다란 작용을 하였으며 당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인 결과 축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고기생산을 늘일데 대한 군당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성과적으로 집행되게 되였다.

우리는 지난 한두해사이에 종축장들을 튼튼히 꾸렸으며 군안의 협동농장들의 돼지우리를 밀폐식으로 완전히 개조하고 축산반과 비육분조들에 공기식분쇄기를 비롯한 필요한 사료가공설비들을 갖추어놓았다. 그리고 군의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호박산, 호박굴, 뚝감자밭, 칡산 등 먹이기지를 조성하는 한편 자연먹이를 채취하여 저장, 가공하는 방법을 찾아내여 자연먹이를 기본으로 하는 돼지먹이문제도 원만히 풀었다. 그리하여 협동농장들의 모든 비육분조들에서는 지난해에 고기생산량을 그 전해에 비하여 2배이상이나 늘이였다. 이 과정에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이 《모범축산농장》칭호를 받게 되였다.

경험은 군당위원회가 포치된 사업이 끝까지 집행될 때까지 아래에 대한 장악통제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킬 때 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일수 있으며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당초급일군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당초급일군들은 기층당조직을 책임지고 지도하고있다. 당조직이 활발히 움직이는가 못움직이는가 하는것은 당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적지 않게 달려있다. 특히 당초급일군들은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전투단위를 책임지고 지도하고있는것만큼 당조직을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

진다.

이로부터 우리는 당초급일군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으며 그들에 대한 당생활지도에 큰 힘을 넣었다.

당초급일군들의 당생활지도를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당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정형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당정책집행과 관련되는 문제를 놓고는 언제나 그들에게 높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군안의 모든 당초급일군들속에서는 군당에서 포치하는 과업을 제때에 수행하여야 한다는 관점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렵고 힘든 과업이든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고 군중을 발동하여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게 되였으며 여기에서 그들자신이 앞장서는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초급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또한 당정책침투, 학습에 대한 통제, 회의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그들을 교양하였으며 그 교양형식들을 정황에 맞게 옳게 적용하였다.

군이 총동원되여 군소재지와 린접군을 련결하는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가 한창 벌어지고있을 때 일부 당초급일군들속에서는 이러저러한 조건타발을 하면서 난관앞에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척되지 못하고있었다. 우리는 그들속에서 발로되고있는 그릇된 사상관점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 당초급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였다. 이날 협의회는 예술영화 《한 당일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준 다음 실효모임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이것은 당초급일군들을 교양하고 제기된 문제를 푸는데서 성과가 컸다. 영화의 주인공에 비추어 자신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뉘우치게 된 당초급일군들은 공사에 앞장서서 당원들과 군중을 이끌어나갔다. 그리하여 힘겨운 도로포장공사를 예정대로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었다.

당초급일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워주는것도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데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것을 우리는 체험하였다.

당책임일군들은 아래일군들에게 과업만 줄것이 아니라 늘 데리고 다니면서 배워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의 수준을 높여줄수 있으며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우리는 우선 한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당초급일군들을 시범단위에 데리고 나가 배워주었다. 축산토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문제가 제기되였을 때도 우리는 장운리와 송죽리에 나가 도와주어 시범을 창조한 다음 리당비서들과 관리위원장들을 데리고가서 보게 하고 방법론을 배우게 하였다.

우리는 또한 앞선 단위뿐아니라 뒤떨어진 단위들에도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교훈도 찾고 자극도 받게 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사업을 포치하고는 당초급일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우게도 하고 자극을 받아 분발하게도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임으로써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제기되였던 여러가지 어려운 과업들을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당조직들이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늘 활발히 움직이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전망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설계해나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투쟁은 한자리에 머물러있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할것을 요구한다. 여기에서 당원들과 군중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당조직이라야 활발히 움직이는 산 조직으로 될수 있다.

당조직들을 당원들과 군중을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이끄는 선봉적이며 전투적인 산 조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단위에서 당면하게 수행하여야 할 과업뿐만아니라 전망적인 과업까지도 뚜렷이 제시해주어야 한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당정책집행을 위한 사업을 조치하고 수행해나가면서 농촌테제에서 밝혀준 사회주의농촌건설과업에 따라 군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망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내세웠다. 특히 우리는 맹산군의 경험을 따라배울데 대한 당의 지시와 제3차7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과업에 근거하여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여 총적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자기들이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으며 군안의 당조직들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사업을 설계하고 전망적인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당원들과 군중을 적극 발동하고있다.

당조직들의 이러한 자립적이며 창발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는 도처에서 새로운 혁신들이 일어나고있다.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공장의 능력을 늘여 생산건설을 다그치는 한편 군소재지와 농촌마을들을 보다 더 훌륭히 꾸리고있으며 탄광을 새로 개발하여 군에 매장되여있는 초무연탄으로 석탄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논밭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하천제방공사를 비롯하여 토지정리사업과 논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지방산업공장마다에서는 기술장비를 현대화하며 품종을 확대하고 생산량을 부쩍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그리고 군의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군중적운동으로 원료기지와 경제림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이미 수백정보의 원료기지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기름밤나무림을 조성하고 협동농장마다 왜싸리를 많이 심어 필요한 기름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구렀다. 교육 및 보건 부문에서도 학교와 병원들을 더 잘 꾸려 모범교육군, 모범보건군 칭호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부문에서도 업종을 늘이고 군내 주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더 잘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들에서 이미 건설하여놓은 양어장과 남새온실들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전망적으로 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이렇듯 군안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자신들의 힘으로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 쉬임없이 사고하며 투쟁하고있다.

우리는 여기서 군당위원회가 당면한 과업수행에만 매달리지 않고 군안의 전반부문의 사업을 빠짐없이 틀어쥐고 통이 크게, 세밀하게 작전하여 매개 부문과 단위들에 전망적인 뚜렷한 사업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주고 옳게 이끌어나간다면 당조직들의 창조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강화할수 있다는것과 그 선봉적역할에 의하여 이르는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게 된다는것을 깊이 체험하였다.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당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옳바른 지도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것이다.

지도작풍문제는 당정책관철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옳바른 지도작풍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당조직을 움직여 제기된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책임일군들이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인민적인 사업작풍을 가지고 아래를 지도하여야 당원들과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으며 당조직들이 자기의 전투적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옳바로 이끌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무실식사업작풍을 철저히 없애고 늘 아래에,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하부지도에서 철칙으로 삼고 일하였다.

당원들과 군중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을 벌리고있는 아래에,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그들을 발동할수 없으며 당정책집행을 직접 조직지도하는 전투단위인 기층당조직들을 활발히 움직일수 없다. 우리는 당이 세워준 하부지도체계를 바로 움직이는 한편 군당의 모든 일군들이 늘 아래단위에 나가 사업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중요한 과업이 제기된 단위와 군적으로 빨리 추켜세워야 할 단위들에는 군당의 책임일군들이 담당하여가지고 계획적으로 내려가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당의 의도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군당의 결정이 보다 더 잘 아래에 침투되고 당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게 되였으며 모든 부문과 단위들의 사업이 당정책적요구대로 성과적으로 수행되여나가게 되였다. 우리는 여기서 군중속에 들어가야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하여 대중의 심장속에 당의 사상과 의도를 깊이 심어줄수 있으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깊이 체득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신작칙으로 아래일군들을 교양하고 이끌었다. 우리는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준 다음 그것을 집행하도록 강하게 요구만 하지 않고 그들속에 몸을 푹 잠그고 제기된 과업을 함께 풀어나갔다. 특히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군중적운동으로 풀어야 할 과업이 적지 않게 제기되는 조건에서 여기에 군당의 책임일군들이 늘 앞장서도록 하였다.

군소재지를 꾸리기 위하여 군급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이 사회적로동으로 고층살림집을 한동씩 맡아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을 때도 군당의 책임일군들이 새벽마다 남먼저 질통을 지고 나섰으며 군당이 맡은 살림집을 제일 선참으로 일떠세웠다. 이것은 군의 기관, 기업소의 일군들을 크게 자극도 하고 그들에게 신심도 안겨주었다. 그리하여 기관, 기업소마다 책임일군들이 동원되고 당조직들이 적극 밀어준 결과 살림집건설이 군중적으로,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되여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군중적운동으로 풀어야 할 과업을 군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하나씩하나씩 해제쳤다.

지방원료기지와 집짐승먹이기지 조성사업이 제기되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당 기관이나 단위들에만 맡기지 않고 군적인 력량으로 단시일내에 해결하였다.

야산들의 잡관목을 찍어내고 기름밤나무림을 조성하는 아름찬 과업도 바로 그렇게 와닥닥 해제쳤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군을 꾸리는 사업에 군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네일내일을 가리지 않고 합심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위력한 력량으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리는 이 단합된 힘으로 승리의 신심에 넘쳐 우리 군을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을 전개해나가고있다.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이며 그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군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초보적인것이며 이 사업에서는 아직 부족점이 허다하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할 일이 더 많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었다. 우리는 이미 얻은 경험을 살려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군당위원회의 전투적기능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당과 수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겠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

류 호 준

온 민족앞에 통일의 려명을 밝게 비쳐주고 세계를 진감시킨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의 제원칙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고있으며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할 불같은 결의에 차넘치고있다.

7.4공동성명은 오래동안 격페되였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북과 남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통일열망이 비상히 높아가고있던 때에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1년 8월 6일에 하신 유명한 연설을 통하여 대세의 흐름에 맞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대 구국대책으로서 폭넓은 북남협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령활하고 신축성있는 새로운 통일방침은 남조선을 이른바 《닉슨주의의 시험장》으로 만들어 조선사람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곳을 저들의 식민지군사기지로 영구히 틀어쥐려는 미제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으며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와 접촉하는것을 《범죄》시하던 남조선통치배들로 하여금 북남대화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2년 5월 3일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 대표를 몸소 접견하시고 조국통일의 공동위업수행에서 쌍방이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으로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을 남조선측 대표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합의되게 되였으며 그후 7.4공동성명의 기본내용으로 세상에 발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6페지)

7.4공동성명에서 북과 남은 조국통일의 민족적리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외세에 의거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 조국을 통일할것을 온 민족앞에 엄숙히 확약하였다.

7.4공동성명의 기본내용을 이루고있는 조국통일 3대원칙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결의의 구현으로서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나라의 통일문제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를 기본핵으로 삼고있는데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핵을 이루고있는 자주의 원칙은 자주냐 예속이냐 하

는 근본문제에서 자주를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서로 다른 민족들사이의 결합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국제적분쟁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한 강토안에서 함께 살아온 단일민족인 우리 민족 내부문제이다. 민족내부문제는 그 내용과 성격 여하를 막론하고 해당 민족의 자주권에 속한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고 민족자결의 원칙에서 조선사람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민족의 내부적요인에 의하여 발생된것이 아니라 외부적요인,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의하여 초래된 문제이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 의하여 나라가 강점당한 인민은 민족해방투쟁의 주인으로 되여야 하며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되여 고통을 겪고있는 인민은 응당 민족통일을 위한 투쟁의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국통일문제는 마땅히 우리 인민이 주인이 되여 풀어나가야 하는것이다.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족내부문제의 해결에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민족의 의사에 맞게 해결될수 없을뿐아니라 예속을 면치 못한다는것은 력사의 교훈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통일문제해결에서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은 통일문제해결의 권리를 가지고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공화국북반부에 강력한 혁명기지를 꾸려놓았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이룩하였다. 남조선인민들도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북과 남에서 날을 따라 장성강화되고있는 민족주체적력량은 조국통일문제의 자주적해결을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민족주체적력량에 의거하여 어떤 정세하에서도 사대와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확고부동한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북과 남이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 방도를 제시하고있는데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평화통일원칙은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에서 평화를 바라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고있다.

북과 남은 같은 민족으로서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을 바라는 조선사람치고 끊어진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는 통일문제를 나라의 전강토를 황폐화시키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줄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바라는 사람은 북과 남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여야 할 그 어떤 근거도 있을수 없다.

더우기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핵전쟁으로 번져질것이며 지역전쟁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될수 있기때문에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도 조선의 통일문제가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될것을 바라고있다.

우리 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악랄하게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북과 남이 통일문제해결

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데 대하여 담보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 미제의 전쟁책동을 저지시키고 얼마든지 평화적방법으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과 인민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방법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것을 시종일관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올바른 길을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서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은 단합이냐 대결이냐 하는 민족의 사활적문제에서 단합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고 누가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도 아니며 누가 누구에게 이기는가 지는가 하는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외세에 의하여 갈라진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민족전체의 리익을 위한 사업이며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만 이룩될수 있는 거족적위업이다.

민족의 단합은 통일이고 대결은 분렬이다. 이로부터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단합을 요구하며 대결을 배격한다.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이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지 못할 조건으로는 될수 없다. 민족은 각이한 사상과 제도우에 존재할수 있지만 사상과 제도는 민족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으며 민족안에 존재한다.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할수 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론하기에 앞서 민족적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 당은 북과 남사이의 대결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력량과 단결하며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렇듯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할수 있는 공동의 기초, 공동의 통일원칙으로 된다.

참으로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을 지향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민족적의사와 자주를 지향하는 시대적추세에 전적으로 맞는 가장 정당한 통일강령이며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한 통일원칙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된것은 외세의존로선에 대한 민족자주로선의 승리였고 무력통일로선에 대한 평화통일로선의 승리였으며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승리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7.4공동성명이 발표되자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인민들속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함께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인민들은 이를 《민족에지의 결단》이며 《민족사적대전환의 서광》이라고 하면서 적극 지지찬동하였다. 남조선의 정계와 사회계에서는 반공일변도정책을 통일국시로 바꿀것을 요구하여나섰으며 괴뢰국회에서까지 남북대화의 폭을 넓히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게 되였다. 세계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과 각계인사들이 또한 7.4공동성명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며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에 거대한 기여》로 된다고 하면서 적극 지지환영하였다. 이리하여 온 민족은 통일열망으로 들끓게 되였으며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쏠리게 되였다.

우리 당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 3대원칙을 실현함으로써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된 북남대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일관하게 노력하여왔다.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통일방도이다. 우리 나라의 현 실정에서 나라가 영원히 《두개조선》으로 갈라지는것을 막고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으려거든 어차피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오며 민족통일촉진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를 열데 대한 방안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문제는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나라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주동적으로 벌려나갔다.

우리 당은 1984년에 조선의 평화보장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다. 우리 당은 1986년에 들어와서는 일련의 중대한 평화조치들을 취한데 이어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열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계속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 당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맞게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얼마나 진지하고 성의있게 노력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우리 당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제안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어느 하나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통치배들은 처음부터 온 민족앞에 서약한 조국통일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자주가 아니라 외세의존의 길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길로, 민족대단결이 아니라 대결의 길로 나갔다.

남조선통치배들은 7.4공동성명에 도장을 찍은지 석달만인 1972년 10월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파쑈체제이고 전쟁체제이며 분렬체제인 《유신체제》를 만들어놓고 통일을 지향하는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청년학생들, 민주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여왔다.

그자들은 또한 1973년 6월에는 이른바 《특별성명》으로 《두개 조선》 조작을 저들의 《정책》으로 선포하고 분렬을 고정화하기 위하여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에 대하여 떠들어왔다.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은 7.4공동성명

의 원칙들을 배반한 선행자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대결과 분렬, 전쟁의 길로 더 멀리 나가고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거듭되는 평화와 대화 제안에 매번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도발적인 전쟁책동으로 대답해나섰으며 최근에는 북과 남사이의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우리의 평화제의를 끝끝내 거부하였을뿐만아니라 저들자신이 들고나온 총리회담마저 당치않은 전제조건을 내세워 회피함으로써 북남대화를 전면적으로 거부해나섰다.

남조선통치배들은 7.4공동성명의 원칙들을 란폭하게 유린할뿐만아니라 그것을 전면거부하는 반역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지난 5월 남조선당국자들은 새로 결성된 통일민주당의 통일부분 정강정책과 관련하여 발표한 이른바 《정부의 공식견해》라는데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하며 민족공동의 통일선언인 7.4공동성명은 《통일의 론리》가 아니라 《대화와 공존의 론리》라고 떠벌였다.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들을 전면거부한 남조선통치배들의 이러한 주장은 본질에 있어서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쟁의 방법으로 남조선의 식민지군사파쑈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연장하겠다는것이며 대화자체도 공식적으로 전면부정한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이야말로 통일문제에서 선행통치배들보다 멀리 후퇴하고있는 가장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민족반역집단이며 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나라에서 대화와 평화와 통일의 길이 열릴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등지고 외세에 의거하여 민족반역의 길을 걷는자들은 력사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통치배들의 가혹한 파쑈탄압에도 굴함없이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그 어느때보다도 격렬히 벌리고있으며 7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광범한 해외동포들이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도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이제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하며 인민의 버림을 받은 주구들을 교체해가면서 그들을 파쑈와 전쟁, 분렬에로 부추길것이 아니라 자기의 침략군대와 핵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외세에 의거하여 동족을 배반하는 사대매국행위를 그만두어야 하며 인민의 의사에 역행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기만적인 《정권》교체놀음을 걷어치우고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모든 동포들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함으로써 력사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일떠선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다.

날로 강화되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

리 몽 호

올해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해》이다.

지난 1월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는 올해를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해》로 선포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을 각국의 정부, 국회, 정당, 사회단체들과 국제기구들에 호소하였다. 이 호소에 따라 지금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세계적판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으며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전세계적범위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384페지)

오늘 조선문제는 국제무대에서 절박하게 해결을 요구하는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있다.

우리 나라는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40여년이나 분렬되여있다. 나라의 분렬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하나의 민족으로 한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고있다.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온 겨레가 민족의 분렬로 인한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나라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한시도 미룰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일뿐아니라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조선은 세계에서 정세가 매우 긴장하고 새 세계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를 실현하는데서 아세아의 주요군사적요충지인 조선반도에 큰 전략적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조선반도는 지리적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잇닿아있고 남조선은 아세아대륙에 남아있는 미국의 유일한 식민지군사기지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발판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와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전아세아대륙을 제패하려 하고있으며 그곳을 아세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발원지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사태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우리의 주변나라들과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엄중한 위험을 주고있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쉽사리 세계적인 전쟁, 열핵전쟁으로 확대될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세계인민들은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겪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결되여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떠나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조선의 평화적통

일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리익의 견지에서 보나 세계인민들의 반제자주와 평화 위업의 견지에서 보나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중요한 국제정치문제로 나서고있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저지파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국제적범위에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청산하고 전쟁이 없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새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의 구성부분으로 되고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평화애호적인 세계인민들은 조선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에는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참가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현시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이 세계적규모에서 조직화되고있는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일찌기 미제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시작되였으며 그것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비상히 앙양되였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리 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지지하여 형제적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벌어진 국제적련대성운동은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조선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일정에 제기한 당시 국제정세와 세계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과 련대성조직들이 련이어 창설되였다.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의 활동이 적극화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나라와 민족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는 과정에 지역별, 대륙별 련대성기구들이 나오고 세계적인 련대성기구도 창설되게 되였다. 1977년 알제리의 수도 알쥐자이르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제1차회의는 련대성기구의 창립을 선포하고 정치선언과 규약, 행동강령을 채택함으로써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세계적인 규모에서 조직화된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였다.

지금 세계의 80여개 나라들에 300여개의 조선통일지지 및 련대성위원회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이 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 및 련대성위원회들은 집권당과 정부의 고위인사들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법조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층 인사들을 광범히 망라하고있으며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전국적범위에서 활동하는 영향력있는 대중적조직으로 되고있다.

세계의 5대륙에는 또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 태평양지역련락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조선통일지지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위원회,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북구라파협조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기구들이 조직되여 활동하고있다.

조선통일지지운동에 대한 국제적조정기구인 국제련락위원회는 창립후 지난 10여년동안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 조직된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과 각국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련계를 가지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였다. 국제련락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에 의하여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안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조작과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급격히 확대되였다. 국제련락위원회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폭넓은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조직으로 장성강화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고있다.

현시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세계의 절대다수 나라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을 망라하고있는 광범한 대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세계에는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으며 또한 나라와 민족마다 제도와 정견, 사상과 신앙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일관하게 적극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계급적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굳게 결합된 계급적형제이며 혁명적전우이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어려운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의 지원을 주었을뿐아니라 오늘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의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은 계급적련대성과 혁명적의리로부터 출발하여 조선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것을 중요한 대외정책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 당대회보고와 정책연설, 공동성명들에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안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다.

형제적사회주의나라들의 확고한 지지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으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제3세계나라들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와 굳게 손잡고나가고있으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련대성운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쁠럭불가담 및 제3세계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있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있다. 최근년간에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와 조정위원회회의들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결의들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쁠럭불가담운동대렬안에 끼여들려는 남조선괴뢰들을 폭로규탄하고 배격하였다.

세계의 100여개 나라와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을 망라하고있는 쁠럭불가담운동이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힘있는 고무로 되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광범한 대중적토대우에서 계속 확고히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된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광범히 벌어지고있다. 프랑스와 이딸리아, 일

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각 당파 소속 국회의원들과 시장들, 정계, 사회계 인사들이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고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와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여 성명과 호소문을 발표하고 시위와 집회를 벌리고있다.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얼마나 폭넓은 대중적운동으로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은 1981년에 진행된 국제적인 서명운동이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지지하여 벌어진 국제적서명운동에는 100여개 나라와 21개의 국제기구들에서 16억이상의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이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으며 세계의 절대다수 나라와 인민들이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에 합류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현시기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이 운동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줄기차게 전개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확대심화되고있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회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에서 위력한 형태의 하나이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통일지지 제3차 세계대회,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언론인대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기자대회,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아메리카지역 정당들의 회의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이 련이어 진행되였다.

세계인민들의 반신, 반핵 평화운동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에는 세계 5대륙의 80개 나라의 93개 당, 국가, 정부 대표단과 대표들, 32개의 국제기구 및 민족단체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비핵, 평화를 보장하는것이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고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회의선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대창설을 위한 투쟁을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비핵지대창설을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고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지난해말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아메리카지역 정당들의 회의는 미제국주의자들이 도사리고있는 아메리카대륙에서도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얼마나 강력히 전개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준 의의깊은 회의였다. 이 회의에는 아메리카지역의 32개 나라에서 온 76개의 정당, 사회단체와 9개의 국제 및 지역 기구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두개 조선》조작음모와 새 전쟁 도발책동을 폭로규탄하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국제적인 서명운동은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에서 위력한 형태의 다른 하나이다.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서명운동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이미 1979년과 1981년에 전개되였으며 올해 1월부터 또다시 세계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적

인 해》언 올해에 전개되고있는 이 서명운동은 처음부터 세계 여러 나라 당, 국가 지도부의 커다란 관심속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이 운동에 당과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많이 참가하고있다. 잠비아, 마다가스까르, 말따 등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인도공산당, 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 단마르크사회인민당, 아일랜드로동당, 오스트랄리아사회당 등 여러 나라 당지도자들이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서명운동은 특히 전례없이 큰 규모의 조직적성격을 띠고 급속히 파급되고있다. 수단에서는 수단로동자직업총련맹 총서기와 수단농민총동맹 부서기 그리고 수단전국사무원직업련맹 총서기가 수백만명의 맹원들을 대표하여 서명문에 수표하였으며 인도에서는 인도민주청년련맹을 비롯한 3개 사회단체에서 401만여명이 서명운동에 참가하였다. 서명운동이 시작되여 3개월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만도 세계 많은 나라에서 2억 1,596만여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 운동에 광범히 참가하였다.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은 세계적범위에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가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을 설정하고 정부와 국회,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들에서 련대성 전문과 편지를 보내오고있으며 군중집회, 시위, 강연회, 사진전람회 및 영화감상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있다. 각국의 신문, 방송, 통신들은 조선문제를 집중적으로 취급하면서 매일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있다. 지금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 대양주와 아메리카주에 이르는 세계의 모든 대륙과 나라들에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참으로 오늘과 같이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이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세계적범위에서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는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방안들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민족과 세계평화위업 앞에 지닌 중대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근본방침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평화제안들을 수많이 내놓았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정세와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북과 남이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으며 온 민족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기 위하여서는 서로 먹고 먹히우지 않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하는외에 다른 길이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는것은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공화국정부는 1984년초에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우리와 미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거

기에서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공화국정부는 1986년에 들어와서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이어 우리 당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대결상태를 풀고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조국통일방안과 그 실천을 위한 제안들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담보하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며 그것은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평화를 유지공고화할것을 바라는 세계인민들의 념원에도 부합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정부와 인민들이 우리의 조국통일제안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뿐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서 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는것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혁명의 한 부분이며 그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늘어나고 국제적련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질수록 우리 혁명에는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마련되게 된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을 일관한 혁명로선으로 내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사회주의나라와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려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대외정책과 그를 관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는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전례없이 늘어났다. 우리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동지들과 벗들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날을 따라 강화발전되고있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으며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일어선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은 정당하며 전반적국제정세는 우리 혁명위업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조선》 조작음모를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7호(루계 543호)

편 집 위 원 회

번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7년 7월 1일 발 행• 1987년 7월 3일

ㄱ—75185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 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8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제 8 호(544)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편집국론설〕

〔정치사상론설〕

〔혁명전통 및 당건설 론설〕

〔경제건설론설〕

〔남조선문제〕

〔국제문제〕

〔방문기〕

당일군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당일군, 이것은 로동당시대 직업적혁명가들이 지닌 고귀한 칭호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투쟁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언제나 당의 드팀없는 주추돌이 되고 당정책의 견결한 옹호자, 그 관철의 능숙한 조직자가 되여 당과 수령의 위업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일군들의 고귀한 투쟁업적이 깃들어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당일군들은 주체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의 기수로서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게 되며 만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는것이다.

당일군들은 언제나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신의 당적, 사회적, 공민적 의무와 책임의 중대성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직업적혁명가로서의 고귀한 칭호를 빛내여야 한다.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의 당일군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다.》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8페지)

당일군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당의 위업에 한생을 바쳐 투쟁하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그것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다. 당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향도자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혁명적군중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과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이 실시하고있는 모든 정책은 다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한것이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의 당일군에게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대중의 참다운 행복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찬 일은 없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것은 직업적혁명가인 당일군의 근본사명으로, 혁명적본분으로 된다. 이것은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당일군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는 대중속에서 나왔고 대중을 위해 투쟁하는 우리 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당일군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혁명의 군중적 지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광범한 군중은 당의 계급적 및 사회

적 지반이다. 군중을 떠난 당이란 있을수 없으며 군중을 묶어세우지 못한 당은 위력할수 없다.

혁명의 군중적지반을 공고히 다지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당과 인민대중이 같이 숨쉬고 움직이며 운명을 같이하는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이다. 이 문제는 당이 대중을 자기 두리에 묶어세우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해결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야 한다. 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가 저절로, 자연발생적으로 실현되는것은 아니다. 집권당은 권력을 가지고있는데로부터 잘못하면 일군들속에서 대중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권력에 의거하여 명령하고 지시하는 관료주의적 방법으로 사업하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따라서 집권당인 경우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이룩하자면 그것을 당건설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의 군중로선의 직접적집행자는 당일군이다. 당일군들이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존중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면 당은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그들과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당과 대중의 련계는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로동계급의 당은 온 사회의 령도적정치조직으로서 인민대중의 리익을 구현한 정치적강령과 인민을 위한 정책을 내세운다. 그러나 당의 정치, 당의 정책이 아무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의 행복을 위한것이라 하여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의 직접적 조직자이며 담당자인 당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과 어긋나게 활동하면 당과 대중의 련계에 금이 생기게 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외면하고 인민들과 동떨어지면 일군들자신이 군중으로부터 버림받을뿐아니라 당의 인민적정책들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대중이 당을 멀리하는 엄중한 후과가 빚어질수 있다.

예술영화 《보증》의 주인공 박신혁은 일부 편협한 일군들이 멀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니고있는 아름다운 정신세계, 오직 위대한 당의 품만을 어머니품으로 믿고 조국의 위용을 떨치기 위한 건설사업에 한몸바치려는 숭고한 지향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을 영웅적위훈에로 손잡아이끌어줌으로써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혁명적풍모가 온 사회에 차넘치게 하는데 남다른 기여를 한다. 우리 당 사업의 현실적경험은 영화의 주인공처럼 대중을 참답게 믿고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귀중히 여기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성심성의껏 이끌어주는 일군들이 일하는곳에서는 당과 대중이 끊을래야 끊을수 없는 혈연적뉴대로 이어지고 당의 군중적지반은 가장 공고한것으로 다져진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일군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수령, 당, 대중은 통일되여 하나의 사회적생명체를 이룬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은 당과 수령에 의하여 담보된다. 당과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하나로 일치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자주적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하며 력사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 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지니고 빛내여나가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생명체의 불패의 위력을 보장하는데서 당일군들에게 부과된 임무는

매우 무겁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보좌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의 밀접한 결합을 확고히 담보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당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때 매우 높은 수준에서 보장될수 있다. 사람들은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일군들의 활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 높이 받들어나갈 각오를 굳게 다지게 된다. 그리고 대중은 인민의 충복답게 사업하는 당일군들의 모습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믿음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고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심을 굳건히 간직하게 된다.

결국 당일군들이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힘있게 벌릴 때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가장 밀접한것으로 되고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수 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당일군만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참다운 직업적혁명가, 정치활동가로서의 고귀한 칭호를 간직할수 있는것이다.

당일군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보위하고 빛내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적권위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규정된다.

당과 수령의 권위의 높이는 인민대중의 위대성을 규제하는 척도로 된다. 수령이 위대하고 당이 위대하면 인민대중이 위대한것이다.

절대적인 령도적권위를 지닌 혁명의 수령을 모신 인민대중은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 될수 있다. 우리 인민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높은 덕성을 지니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위대한 혁명업적을 쌓아올리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있음으로 하여 력사의 위대한 창조자로서 그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절대적권위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영원히 운명을 같이할 혁명적각오를 다지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투쟁정신을 지닐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과정에 쌓은 혁명업적으로 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투쟁자체가 당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구현하고있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드팀없이 관철해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령도적권위를 철저히 옹호하고 더욱 더 빛내여나간다. 특히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에게 베푸는 당과 수령의 믿음과 배려가 고스란히 그들에게 가닿도록 사업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는데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있다.

이렇듯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직업적혁명가로서의 첫째가는 임무이며 당과 수령의 참다운 혁명전위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조성된 정세와 발전하는 현실은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근로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

되지 않고서는 방대한 제3차7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보장할수 없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을 힘있게 추진시킬수 없다. 우리 당일군들은 인민적품성을 지니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당의 호소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앞에 제기되는 혁명과업이 어렵고 방대할수록 당일군들의 책임성은 더욱더 무거워진다. 모든 당일군들은 자기 임무의 중대성을 깊이 자각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어머니당이다.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 된다는것은 인민들을 끝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인민적품성을 지닌 혁명가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혁명가로 준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는것은 열렬한 혁명투사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일군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 그리고 혁명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게 된다.

당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우는 혁명투사인것만큼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혁명적세계관은 날 때부터 서는것도 아니며 혁명을 오래하였다고 하여 저절로 서는것도 아니다. 혁명적세계관은 혁명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공고화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은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한시도 중단함이 없이 계속해야 하며 혁명이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당일군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자면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들을 혁명실천과 결부하여 깊이 체득하며 주체적신념을 확고히 간직하는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당은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것을 제 정신을 가지고 대하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하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보며 창조적열의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의 결정지시를 끝까지 관철하는 일군이 제 정신이 투철하고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벌림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의 품격을 확고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는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군중관점을 확고히 지니며 언제나 군중의 리익을 존중하고 군중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는 혁명적립장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이라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실천활동에서 군중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당일군이 인민대중의 리익의 진정한 옹호자로 되려면 다음으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대중은 훌륭한 선생이다. 인민대중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며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있다. 아래의 실태를 누구보다 꿰뚫고있으며 걸리고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것도 대중이다.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옳바른 대책을 세울수 있다.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당일군이 정치활동가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서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또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는 혁명적구호를 내놓으시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시련을 뚫고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해방후 새 조국 건설의 거창한 투쟁시기와 전쟁의 준엄한 나날 그리고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전후의 간고한 시기를 거쳐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계시면서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환경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워주시였으며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일군들로 하여금 대중속에서 정치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그리하여 당일군들속에서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업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이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오늘 우리 당일군들앞에 나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발동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의 위력을 깊이 체득하고 언제나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하는 혁명적기풍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맴도는 사무실적사업작풍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적극 벌려야 한다.

현시기 아래에 내려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걸린 문제를 풀어주는것이다. 아무리 군중속에 들어간다하여도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인민대중의 요구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모든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하여 실속있게 사업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당일군으로서의 고상한 풍모를 지녀야 한다.

당일군이 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가 되려면 또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당일군의 인민적풍모는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당이 요구하는 높이에 끌어올리기 위하여 투쟁하는데서 발현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인민들의 생활에 무관심하고서는 대중속에 발을 붙일수 없으며 대중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정치활동가로서의 당일군의 생명,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당일군의 사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돌려지는 당과 수령의 배려가 고스란히 대중에게 미치도록 투쟁하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구상과 대담한 작전을 련이어 펼치고있으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있다. 일군들이 당과 수령의 높은 뜻을 받들

고 인민생활을 굽임없이 높여나갈 때 우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고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될것이다.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에 의하여 당사업을 맡아수행하는 우리 당일군들이 당의 믿음에 보답하는 길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고 그들의 생활의 구석구석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며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성심성의껏 해결해주는데 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는것을 인민적풍모를 지닌 혁명가의 의무로 여기고 인민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 모든 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투쟁하며 인민의 충복답게 사업하는 길이다.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혁명적풍모를 지니기 위하여서는 또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당일군들은 직업적혁명가인것만큼 부정과의 투쟁에서 언제나 견결한 기수가 되여야 한다.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 풍모에 관한 문제는 그들의 능력이나 성격상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식에 관한 문제이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낡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다. 일군들의 인민적인 사업 태도와 작풍을 세우는것을 저애하는 온갖 현상을 극복하자면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인 당일군들속에서는 인민생활에 무관심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며 인민들의 우에 군림하여 특세를 쓰고 특혜를 요구하는것과 같은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특세를 쓰고 특혜를 요구하는것은 낡은 착취사회에 고유한 반인민적인 관료풍이다. 이것은 우리 일군들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는 결코 허용될수 없는것이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실무적인 조치만 취해가지고서는 쉽게 바로잡을수 없다.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은 깜빠니야식으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굽임없이 심화시켜나갈 때만이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일군들이 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들은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고상한 풍모를 지니고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군중의 참다운 교양자로서의 사명을 원숙하게 수행해나가도록 늘 교양하는 한편 조직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보다 더 보람찬 일은 없다. 우리 당 활동의 전과정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첫자리에 내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온 숭고한 력사이다.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그대로 받아안고 당의 혁명전사,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이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혁명적당으로 강화되고 조국땅우에 세기적변혁이 창조되고있는 그 위대한 현실은 우리 당일군들의 투쟁과 활동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일군들이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대중의 앞장에서 그들을 돕고 이끌어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의 의도가 빛나게 구현되고있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모든 당일군들은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자

리 재 일

주체사상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영예, 진보와 번영을 담보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킴으로써 조선혁명을 사대와 교조로 인한 요람기의 진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때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가 반드시 이룩된다는것은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의 실천을 통하여 깊이 간직한 드팀없는 혁명적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하여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거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은 그것이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초석을 이루는 근본사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창건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 당의 본질적특징과 위대성에 대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사상의 혁명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사회적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인간해방의 가장 완벽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고 하는것은 사람을 위주로 하여 세계에 대한 견해를 세우고 사람의 리익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에 대하는 관점과 립장을 밝혀주는 세계관이라는것을 의미

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인 사람의 본질적특성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세계의 힘있는 주인이며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유일한 창조적존재이다.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자위를 차지하고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살고있는 오늘의 세계에 대한 주체적견해이다.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기때문에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의 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된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데 대한 주체적 관점과 립장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줄뿐아니라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주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훨씬 높아졌으며 사회발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진 새로운 력사적환경에 맞게 혁명 리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을 전개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완성된 혁명리론으로 되게 하였으며 대중령도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었다.

이 모든것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에는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으며 또 있을 필요도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우리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는가 들지 않는가, 자주성을 견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혁명의 운명이 달려있다. 오늘이나 래일이나 우리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혁명적 기치는 주체사상의 기치이다. 그러므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살며 싸워나가는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나가기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게 하고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새울수 있게 하는 혁명사상이다.

혁명적수령관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인 인식이며 수령을 높이 모시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수령관을 가져야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해나가는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똑똑히 알고 수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다.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중심은 수령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라고 말할수 있으며 바로 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이 인민의 수령이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개별적사람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통일시키고 발양시킨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단결과 령도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되며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이기때문에 그 사이에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중심인 수령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데 대해서 올바로 리해할것을 요구한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수령은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대중을 의식화하고 당과 같은 혁명조직을 무어 대중을 조직화하며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으로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끈다.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이러한 결정적역할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수령은 어디까지나 당의 수령, 인민대중의 수령인것만큼 수령의 역할을 인민대중의 역할, 당의 역할과 분리시켜 생각하여서는 안된다. 수령의 역할,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의 역할이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과 통일되여있는것만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도 하나로 통일되여있다는것을 밝혀준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없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을 가진다는것은 있을수 없으며 또 그러한 충실성을 참다운 충실성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고 밝히고있으며 혁명적수령관을 지니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것이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라고 규정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

제들을 완벽하게 밝혀주고있는 혁명의 유일한 사상정신적량식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수령의 지위와 역할,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혁명적수령관을 사상적으로 신념화할수 있으며 수령을 높이 받들고 당과 수령의 위업에 영원히 충성다하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수령관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것은 주체사상이 가리키는대로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 보람차고 영예로운 혁명과업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계속되는 침략책동과 사상문화적공세를 물리치고 우리 식대로 해나가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가자면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책동이 강화되고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는 환경에서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해나갈수 있다. 만약 우리가 주체사상학습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다면 부르죠아사상과 수정주의사상,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침습과 부식을 막아낼수 없게 되며 혁명과 건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이 심화되고 정세가 복잡할수록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필생의 사명이고 혁명적본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을 받아안고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주체위업을 전진시켜나가고있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로작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있는 더없이 귀중한 고전이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진리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총서이다. 여기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

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는 우리 당과 인민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모든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총화되여있으며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그러므로 로작학습을 강화하여야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을뿐아니라 주체사상이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과 혁명실천에서 이룩한 업적과 변혁적의의를 똑똑히 인식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다.

로작학습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로작원문을 력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로작 원문은 어느 시기에 발표된것이나 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다. 그러므로 로작원문학습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있게 하여야 거기에 담겨진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와 내용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파악하여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그 관철을 위한 방도를 옳게 찾아낼수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발표하신 로작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여 그 매 문장, 매 구절에 담겨져있는 심오한 사상과 뜻을 깊이 파악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을 깊이 학습하는것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한 로작과 문헌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자기 부문의 전망과업과 당면과업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찾도록 하여야 한다.

로작학습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는것은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사람마다 사상의식수준과 지식수준이 서로 다르고 처하고있는 환경과 조건이 같지 않는만큼 일률적인 방법이나 격식화된 틀에 맞추어 학습하여서는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옳게 파악할수 없다. 우리는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론쟁의 방법으로 하는것과 함께 문답식학습방법과 강의, 강연회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학습을 심화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우리 당의 투쟁경험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투쟁 경험과 업적은 어느것이나 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된 자랑찬 결실이며 고귀한 혁명적전취물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과 경험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을 생동한 사실과 자료를 통하여 깊이 인식하고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업적들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귀중한 경험과 자랑찬 성과들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공고히 해나가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충실성교양을 비롯하여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

행하는것이다.

우리 당이 진행하고있는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교양사업은 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충실성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할수 있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한 형태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아를 옳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립장을 견결히 옹호고수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할수 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의 주체는 그 나라 인민이며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위업에도 충실할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는것은 결코 다른 민족을 깔보고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라는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간다는것이다.

민족의 위대성은 인구수나 령토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가지고있는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높이 찬양하고있는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일떠세우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승리에로 령도하고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이러한 혁명적재부를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수 없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주체사상과 그것을 구현하는 과정에 이룩한 고귀한 투쟁 업적과 경험, 사업 방법과 작풍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 특히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따라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주체의 요구대로 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당정책교양을 더욱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리론을 위한 리론인것이 아니라 창조와 변혁을 위한 실천의 무기이며 행동의 지침이다. 우리가 주체사상학습을 하는 목적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를 체득할뿐아니라 그것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자는데 있다. 오늘 우리 당이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할데 대하여 그처럼 강조하고있는것도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언제나 주체적립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해나가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활동과정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심오한 원리들을 리론적으로 깊이 인식할수 있을뿐아니라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깊이 확신함으로써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학습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주체사상의 원리를 깊이 인식할뿐아니라 현실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사회적현상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분석판단하고 처리하며 주인다운 립장과 자세에서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해나가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열렬한 독학가가 되여 언제 어디서나 정열적으로 학습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는것은 주체사상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하고 그것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원래 학습은 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으로서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시간이 제한되여있는 집체학습이나 한두번의 강의를 받는것으로써는 주체사상의 심오한 사상리론적내용을 전면적으로 리해할수 없으며 오직 꾸준하고도 정력적인 탐구와 반복학습을 통해서만 깊이 인식할수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집체학습에 참가하는것으로 학습을 대치하거나 통제에 못이겨 제목수나 채우고 외워바치는 식의 형식적인 학습방법을 버리고 학습을 언제나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학습을 하루 한시간이라도 미루면 그만큼 사상적으로 뒤떨어지고 혁명가로서의 량식을 가질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 어디서나 손에서 책을 놓지 말고 꾸준하고도 정열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일군들과 당원들 속에서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도록 조직하고 교양하며 지도하고 통제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학습을 확고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학습을 자각적으로 하도록 교양사업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것과 함께 학습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긇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학습은 자각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당조직들의 지도와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은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과 조건에 맞게 일군들과 당원들에게 학습과제를 똑똑히 주고 계획을 바로 세우게 하며 학습결과에 대한 총화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고 평가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습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일군들과 당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사상학습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주체사상을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침으로써 우리 혁명대오를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더욱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불멸의 사상

리 성 림

오늘 우리 조국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에 놓여있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있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에서 지금처럼 우리 나라가 높은 권위를 지니고 민족의 존엄이 빛난적은 일찌기 없었다.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처지에서 일어난 이러한 근본적인 전변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혁명투쟁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라는것을 밝혀줌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는 확고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하여주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입니다.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입니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나라와 민족은 력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단위이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것은 바로 그 나라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추동력이라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은 무엇보다도 계급적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하게 된다.

매개 나라는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적인 지향과 사회발전단계에 상응하는 혁명과업을 제기하고 자기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력량관계에 따르는 전략전술을 적용하면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게 되며 자기 나라의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계급적해방위업을 수행하게 된다.

인민대중은 또한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민족적인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한다.

나라와 민족의 계선이 있는 조건에서 계급해방, 민족해방 위업을 수행한 인민들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생활수단을 마련하고 자기 나라의 부강발전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물질적재부를 늘이는 투쟁을 벌리게 되며 민족적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게 된다.

이처럼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기때문에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활적인 요구로 나선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하며 로동계급의 국제적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 민족적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로동계급의 민족적임무와 국제적임무는 밀접히 결부되여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자인 동시에 국제주의자이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하는것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자부심을 가질 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굽힘없이 빛내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수 있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들이라는것을 뚜렷이 밝혀줌으로써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끝없이 빛내여나갈수 있는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을 마련해주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적자주성을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실현하는 문제이다. 자주성이 없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부강한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매개 나라와 민족은 그 어떤 예속과 간섭도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수호하며 민족자결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그 어떤 지배와 구속도 허용하지 않고 자기 운명을 독자적으로 개척하며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민족적자주성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빼앗길수 없는 기본권리이며 근본속성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동물과 다름없고 죽은 몸이나 다름없게 되는것처럼 나라와 민족이 자주성을 잃으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없고 민족의 존엄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주성은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존엄을 고수하고 민족으로서의 존재를 계속 유지할수 있게 하는 담보이다. 만일 어떤 민족이 자주성을 잃어버리면 나라의 독립을 지켜낼수 없게 되며 이러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게 된다. 자주성을 잃고 남에게 예속되여 독자적인 민족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그 어떤 존엄과 영예도 있을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고수하고 빛내이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게 하는 불멸의 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자주성을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규정하고 민족적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가장 옳바른 원칙과 방도를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와 민족이 자기의 자주적인 정권을 가지고 민족의 자주권, 민족자결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여나갈수 있게 한다.

존엄있는 민족인가 아닌가 하는것은 그 나라와 민족이 자주적인 정권을 가지고 자기 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자기의 신념과 인민의 리익에 맞게 독자적으로 풀어나가는 민족자결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서 표현된다.

민족자결의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행사하는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존엄있는 민족으로 되며 민족자결의 권리를 빼앗기고 남의 의사와 강요에 따라 움직이는 민족은 아무런 가치와 존엄도 없는 가련한 민족으로 된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는것만큼 나라와 민족이 민족자결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의 자주적인 정권을 가져야 한다. 자주적인 정권이 없이는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칠수 없으며 자기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를 실시할수 없다.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자기의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고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자기의 자주적인 정권을 세우고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결정할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제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나라와 민족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민족적권리를 행사하는 높은 존엄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영예를 빛내여나가게 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자주적인 정권에 의거하여 민족의 리익에 맞는 독자적인 정책을 실시할뿐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은 결국 대외관계에서 나타난다. 대외관계에서 다른 나라에 굴종하고 맹종맹동하는것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이 없는 집중적인 표현으로 된다.

세계에는 령토와 인구로 보아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문화적으로 발전된 나라와 뒤떨어진 나라는 있으나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주체사상은 남에게 자주권을 유린당하는것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는것도 다같이 반대하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이다. 주체사상은 나라들간의 관계에서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게 함으로써 민족의 존엄을 옹호고수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불멸의 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륭성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나라와 민족이 다른 나라에게 지배와 예속,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고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위력이 강해야 하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국력이 강하고 정치적자주성과 경제적자립성이 있어야 자기 나라 문제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으며 자기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할수 있다. 나라의 힘이 약하고 경제문화적으로 뒤떨어지면 남에게 의존하고 빌붙지 않을수 없게 되며 결국 남의 의사와 요구에 순종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문화적인 락후성을 리용하여 그들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순종시키려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국제경제질서밑에서 경제적으로나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뒤떨어진 나라는 앞선 나라에게 착취와 수탈을 당하지 않을수 없다. 이리하여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는 더욱더 불리하고 곤난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앞선 나라는 더욱 부유해지고 유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것이 국제관계의 현실로 되고있다. 남을 지배하고 예속시키려는 제국주의가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이 뒤떨어지고 약해지면 큰 나라, 발전된 나라에게 얻어맞고 뜯기우며 결국 자주권을 잃고 예속의 올가미를 쓰게 된다.

남에게 예속과 착취를 당하지 않고 나은 나라와 실제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차지하며 민족적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와 민족을 륭성발전시켜 자기 나라를 세계적수준에 끌어

올려야 한다.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빨리 발전시켜 국력을 강화하지 않고 자주권과 평등권을 요구하며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불평등의 실제적근원인 경제문화적락후성을 청산하지 않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에 대하여 생각하는것은 허황하고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실제적기초는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보장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급속한 륭성번영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는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관철해나가는것이다.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관철하는데서 독자적인 주견이 없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지 않으면 자기 민족의 참다운 륭성과 번영을 이룩하는 옳바른 길로 나갈수 없으며 온갖 편향을 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혁명과 건설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경제문화건설에서는 실패와 혼란을 면할수 없게 된다.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주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자기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는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있으며 그를 관철하는데서도 원칙성과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편향없이 빨리 전진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나라와 민족의 참다운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나라마다 처한 력사적조건과 자연지리적조건이 다르고 혁명력량의 준비정도와 대중의 의식수준이 각이한 조건에서 실정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데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창조적방법을 구현하여 모든 문제를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원리와 방도들을 적극 찾아내도록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륭성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나라와 민족을 륭성발전시키는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기때문에 그의 성과여부는 결국 그 나라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얼마나 높이 발양시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사상에서 주체를 세울 때 매개 나라 인민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자기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애국적헌신성과 혁명적열정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발휘되는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은 나라와 민족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담보하는 원동력이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충분히 행사하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그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일수 있게 하는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랑찬 로정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불멸의 혁명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전진함으로써 우리 혁명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가장 곧바른 길을 헤쳐올수 있었으며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번영을 이룩할수 있었다.

불멸의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으며 해방후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힘있고 존엄있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주체사상은 국제관계분야에서도 공화국의 자주권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게 한 자랑찬 력사를 펼쳐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완전한 평등과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국가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가고있다. 오늘 내외정세가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80년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것은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고있는데 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세기적인 전변들과 기적적인 성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열매인것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투쟁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주는 유일한 생명선이며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계속혁명의 기치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끝까지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로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끝까지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여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입니다.》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의 다른 사상체계란 있을수 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수 없다.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도 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을 보장하면서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켜야 무엇보다도 그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

에 완성되는 혁명위업이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과 령도가 없이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한걸음도 전진시킬수 없다. 수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첫째가는 요구로 된다.

주체사상은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적생명체를 이루며 그 중심이 수령이라는것을 원리적으로 밝혀줌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게 한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최대한으로 다그쳐 조국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이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가는 과정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해나가는 어렵고 창조적인 투쟁과정이다. 이 과정은 순탄하게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수많은 애로와 난관을 동반하게 된다. 간고하고 어려운 투쟁이 없이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않고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전진도상에 부닥치게 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수 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동요없이 혁명과 건설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고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킬수 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착취제도와 그 유물을 청산하고 그 어떤 형태의 억압과 불평등도 없는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는 력사적위업으로서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은 제국주의부르조아지들을 비롯한 온갖 반동세력과의 굴임없는 투쟁과정으로 된다. 제국주의부르조아지들 비롯한 반동세력과의 치렬한 투쟁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대렬안에는 부르조아사상의 반영인 수정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경향이 나타나 혁명과 건설에 해독적영향을 미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진수를 거세한 우경투항주의사상인 수정주의의 해독적영향의 침습을 철저히 막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시킴으로써 수정주의, 자본주의 사상의 침습을 막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다그쳐나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억세게 전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해나갈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수령관

리　동　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은혜롭고 따사로운 손길밑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난 우리는 일심단결하여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혁명대오는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되여있는것으로 하여 가장 순결하고 공고하며 백전백승하는 우리 혁명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가시덤불길을 헤쳐온 조선혁명은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조선혁명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력사의 전로정은 우리들에게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으며 당과 수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참된 길이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　　　*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과 관련된 문제로서 그것은 혁명운동에서 필연적으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운동은 수령의 령도밑에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다. 이 투쟁은 인민대중에게 옳바른 혁명사상을 주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직동원하는 수령의 령도와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가는 혁명전사들,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수령을 떠나서는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수령의 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없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 여기로부터 혁명투쟁에서 혁명전사들이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며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 즉 수령관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을 대하는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을 밝혀준다.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이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최고뇌수,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들어나가는 자세와 립장이다. 수령을 인민대중과 혁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위대한분으로 무조건 절대화하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는것이 혁명적수령관에 관통되여있는 근본사상이다.

혁명적수령관을 지니는것은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전사,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공산주의혁명가가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면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혁명적수령관은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니고있는 모든 사상정신적특질의 근본바탕으로 되

고있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이러한 사상정신적특질은 혁명적수령관을 근본핵으로 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게 된다.

수령을 대하는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자세와 립장을 밝혀주는 혁명적수령관은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수령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지니게 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가장 철저하게 간직하게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 없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을 가진다는것은 있을수 없으며 또 그러한 충실성은 참다운 충실성이라고 말할수 없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과 별개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이라고 말하는것이다.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것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이라고 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혁명적수령관은 참다운 혁명가와 우연분자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여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혁명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만 혁명적수령관이 서지 못한 사람은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여도 동요하며 혁명의 준엄한 시기에 변절자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혁명가의 신념과 지조는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할 때 확고히 간직되게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대세에 따라 그것이 흔들리게 된다. 혁명적수령관은 참다운 혁명가와 우연분자를 식별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사람만이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고귀한 칭호를 지닌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로 될수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다.

당과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들인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수령관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형성된 수령관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장구한 력사적로정과 더불어 공고발전되여온 참다운 수령관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혁명적수령관의 빛나는 모범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몸소 교양육성하신 청년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조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들의 심장은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으로 불탔으며 그들의 모든 활동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한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나가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였다. 초기혁명활동시기로 말하면 민족의 운명이 암담하던 시기였다. 그때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혁명이 성공하겠는지 실패하겠는지 그 전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있지 못하였지만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오직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하고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항일혁명투쟁초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향도

성으로 맞이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를 절절하게 담아 부른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이 수령님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나갔는가 하는 것이 뚜렷이 반영되여있다. 참으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수령관은 수령을 대하는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의 참다운 본보기를 보여준 혁명적수령관이다.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형성된 혁명적수령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과정에서 더욱 심화발전되였으며 그것이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 튼튼히 확립됨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신념으로 깊이 간직한 혁명적수령관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조선혁명의 사령부를 견결히 옹호보위하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현되였다.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확립된 혁명적수령관의 전통은 해방후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을 벌리는 행정에서 빛나게 계승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새 조국 건설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상감정은 우리 인민모두의 사상감정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대오안에 확립되였던 혁명적수령관은 전당과 전체 인민의 확고한 신념으로 확대발전되였다. 혁명적수령관의 전통은 특히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수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로선과 정책대로만 해결해나가는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 과정을 통하여 빛나게 이어지게 되였다.

장구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우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온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수령관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을 심오히 분석총화하신데 기초하여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사상리론을 완벽하게 밝혀주시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제원칙을 새롭게 제시하시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도록 하시였다. 이것은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온 획기적사변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시였으며 모든 사업과 생활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충실성으로 일관시키며 충실성에 귀착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특히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시였으며 그와 함께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시여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일찌기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확립된 혁명적수령관은 오늘 가장 높은 수준의 수령관으로 심화발전되였다.

참으로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니고있는 혁명적수령관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향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투쟁과정에서 형성되고 계승발전되여왔으며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수령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완벽하게 담고있는 참다운 수령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혁명적수령관은 무엇보다먼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가장 순결한 수령관이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의 근본요구이며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 충성심은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을 깊이 체험한데 기초하여서만 생겨난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해방투쟁력사에 영원히 빛날 고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한평생 혁명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일찌기 그 누구도 지닌적이 없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체현하시고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지위와 결정적역할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여주신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수령관은 우리 나라의 력사적현실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우리 인민을 크나큰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절절하게 체험한데 기초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수령관이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수령에 대한 가장 열렬한 존경과 흠모의 정신으로 일관되고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전사의 마땅한 본분으로, 혁명적의리로 여기는 참다운 수령관으로 되는것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수령관은 다음으로 주체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가는데서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는 영원불변의 수령관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 참다운 충실성인것과 같이 대를 이어 계승되는 수령관만이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으로 될수 있다. 수령의 위업은 그 위업을 계승해나가는 후계자에 의하여 대를 이어 계승완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후계자를 모시고 받들어나가는데서도 변함없이 계승되여야 한다.

우리 인민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의 계승자로 모신것을 최고의 영예,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고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불타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여기에 조국의 륭성번영과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는것을 확신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성심은 위대한 사상리론가, 탁월한 령도예술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의 완벽한 체현자이신 그이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체험에 기초하고있는 확고한 신념이며 당의 전사된 높은 영예와 긍지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혁명적의지이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수령관은 이와 같은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기초하여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고 변함없이 계승되는 수령관인것으로 하여 혁명적수령관의 참다운 모범으로 된다. 바로 여기에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혁명적수령관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가 있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수령관은 또한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공고한 수령관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의 길은 간고하고 준엄하다. 혁명투쟁과정에는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책동과 혁명대오안에 기여든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악랄한 음모책동에 부닥치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수령관이 참다운 혁명적수령관으로 되자면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변심이 없이 수령만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수령관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수령관은 바로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 온갖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켜낸 가장 견결하고 굳센 수령관이다.

우리 혁명의 길은 류례없이 간고하고 험난한 투쟁로정이였다. 우리는 두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준엄한 혁명전쟁과 두 단계의 심각한 사회혁명 그리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준동을 짓부시는 어렵고도 힘겨운 투쟁을 벌려야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안팎의 원쑤들의 책동이 우심하고 혁명정세가 아무리 엄혹하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만을 믿고 따랐으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였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니고있는 수령관이야말로 간고한 우리 혁명의 시련속에서 그 순결성과 공고성이 남김없이 과시된 가장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길에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심장속에 사상적신념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혁명적수령관을 견결히 고수하고 더욱 공고반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다그쳐나가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수령의 혁명전사들인 우리 모두의 숭고한 의무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며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런것만큼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의 길은 아직 멀고도 험난하다.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라는것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할것을 요구한다. 인민대중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단결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간다.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적생명체이며 수령은 그 중심을 이룬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굳게 결속되여야 자기 운

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결국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최고뇌수는 바로 수령이다.

사람들이 력사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에 관한 주체사상의 이 심원한 원리의 참뜻을 새기게 될때 혁명적수령관을 자기의 신념으로 더욱 확고히 간직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체사상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누구나 다 주체의 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적수령관을 사상적으로 신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깊이 간직하도록 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혁명적수령관을 확립하는 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혁명적수령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과 은덕에 대한 교양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충실성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당과 수령께 자신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혁명의 한길에서 충직하게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은 수령의 높은 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표현된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할뿐아니라 그것을 실천활동에서 실지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권위와 위신을 절대화하며 신변안전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최대의 관심을 돌리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의 철저한 옹호자, 관철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로선,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대안의 사업체계,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3대혁명로선 등 우리 당의 독창적인 로선과 정책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가장 옳바른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다. 우리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과 현명성, 생활력이 실생활을 통하여 남김없이 과시되게 하며 그 과정에 혁명적수령관을 확고히 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드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심장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혁명적수령관은 영원불변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집단주의교양

김 두 호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된다.

농민은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이며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이다. 농민은 로동계급이 완성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할 마지막계급이며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계급적차이는 다름아닌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근본원인은 로동계급에 비하여 농민이 사상, 기술, 문화적으로 뒤떨어져있는것과 관련된다. 농민은 자주성과 창조성의 체현정도가 로동계급보다 낮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완전승리가 이룩될 때까지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농민들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을 로동계급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문제를 로동계급의 당이 옳바로 해결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농민문제를 완전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모든 농민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5권, 316~317페지)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무계급사회건설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농민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되게 하기때문이다.

농민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차이는 로동계급에 비한 농민의 사상, 기술, 문화적 락후성에 기인하는것만큼 그것을 없애는 문제는 농민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과정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농민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서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농민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 문제는 본질상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집단주의로 무장시키는 사업이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한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집단주의의 본질이 있다.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농민들속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뿌리뽑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되게 할수 있다.

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그들의 준비정도와 농촌의 구체적특성으로부터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농민들은 지난날 오래동안 사적소유의 울타리속에서 살아왔기때문에 그들이 가지고있던 소소유자적근성은 매우 뿌리깊으며 리기주의, 개인주의의 낡은 사상 잔재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농민들의 머리속에 오래동안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농민은 자연지리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산되여 일하는 로동조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민들을 혁명성, 조직성이 강한 선진적인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야만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고 무계급사회를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농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이 무계급사회건설의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려면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는 문제를 중심과업으로 제기하고 그것을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가 계급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으로 되는것만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농민의 로동계급화가 실현되며 따라서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본방도는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며 농업을 공업화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을 집단주의사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화하는것이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은 소유관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농민들이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만일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홀시하고 농민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과 배치되게 경리를 운영하여 농민들속에서 리기주의, 개인주의를 조장시킨다면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없다. 협동적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인 경제형태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관리방법은 마땅히 집단주의적원칙에 기초한 관리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집단주의적방법으로 협동경리를 관리운영하여야 협동적소유를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그것을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농민들속에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 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촌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농민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고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이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농민들을 사회주의농업근로자로 개조한 다음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여 그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데 기본을 두고 농민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각급 당조직들이 농촌의 구체적특성과 농민들의 준비정도에 맞게 농민들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67~68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농업협동화시기에 벌써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그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경리형태의 개조와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하심으로써 갓 조직된 협동경리가 자기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시였다.

농업협동조합은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잘사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동경리형태이며 따라서 협동경리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조합원들을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일하는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농민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리익도 있으며 공동재부속에 개인의 몫도 있다는 옳은 인식을 가지고 조합의 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는데 큰 힘을 넣었다. 이것은 농촌에서 경리형태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놀았다.

우리 당은 농업협동화가 실현된 다음 근로농민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우리 당은 농민들을 공산주의적집단주의정신을 소유한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의 수준과 농촌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 한편 가장 과학적인 생산 및 로동 조직형태이며 집단생활의 세포인 분조관리제를 실시하고 그들이 공동경리를 진심으로 자기의 경리로 여기고 성실히 일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농촌에서 집단생활의 규모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것은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는데서나 농민들의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집단생활의 세포를 옳게 정하지 못하면 모든 농민들이 집단경리가 곧 자기의 경리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창발성을 내여 일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작업반이 집단생활의 세포로 되여 농촌경리를 촉진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놀았으나 집단생활의 세포로서는 적합치 않았다. 작업반을 단위로 하여 생산을 조직할 때에는 큰 집단이 움직이기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집단생활이 잘되는것 같이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경리의 실태와 그 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분조관리제를 창조하심으로써 농촌에서 집단생활의 세포문제를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다. 그리하여 분조관리제는 협동농장원들을 사회주의적집단경리의 관리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게 하는 훌륭한 생산 및 로력 조직형태일뿐아니라 그들이 공동경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하는 집단생활의 가장 합리적인 세포로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분조관리제를 통하여 집단경리의 강화발전을 위한 농민들의 공동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사회주의적농업근로자들의 대중적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새로 내오고 그것을 거점으로 하여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혁명과업수행에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우리 당은 농민들속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실천적요구에 맞게 협동농장원들은 물론 국영농목장과 농촌경리에 직접 복무하는 로동자, 사무원들까지 망라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을 창립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맹원들이 혁명적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고 농근맹조직을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한편 농근맹안에 새로운 동맹생활총화제도를 마련해주시고 그들의 조직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농업근로자동맹은 농업근로자들의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의 훌륭한 학교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조직의 위임과 분공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직과 집단,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농민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농민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우리의 농민들속에서는 여러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소소유자적근성이 점차 없어지고 사회와 국가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정신이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집단의 리익속에 개인의 몫도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우리의 협동농민들은 오늘 당이 제시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집단경리를 성과적으로 운영해나가고있으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혁명은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계선에 가까이 접근하고있으며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농촌테제가 밝혀준 휘황한 길을 따라 전진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집단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농민들을 공동로동과 집단생활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시킴으로써 그들이 개인의 리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1페지)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도록 하는것이다.

집단주의는 동지를 믿고 사랑하는데 기초하고있다. 오직 집단과 조직을 열렬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 때 조직과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하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지니게 된다. 그러므로 농민들을 집단주의로 튼튼히 무장시키자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리 농민들속에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미풍,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며 화목하게 살아나가는 전통적미풍을 꽃피워나가며 조직과 혁명동지를 위하여서는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는것이다. 또한 집단생활을 통해서만 사회적인간으로서의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빛내일수 있다는 관점을 바로세워주는것이 중요하다.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협동농장의 모든 재산은 어느 개인을 위한 재산이 아니라 집단의 전체 성원들을 잘살게 하는 귀중한 밑천이다. 농민들이 기본생산수단인 땅을 비롯하여 농기구와 특히 나라와 인민의 소유인 자동차와 뜨락또르, 문화시설들과 관개시설들을 더욱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정성껏 다루도록 할 때 협동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공고화되고 농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게 된다. 농민들이 공동재산을 알뜰히 거두고 관리하며 그것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만 협동경리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로 빨리 나갈수 있으며 농민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과정을 다그칠수 있다.

집단주의교양에서 농민들을 집단과 사회의 공동재산을 사랑할뿐아니라 농장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릴줄 알도록 교양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농민들이 협동농장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꾸리며 한가지 일을 해도 실속있게 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할 때 그들의 머리속에는 집단주의정신이 더욱 튼튼히 자리잡게 된다.

농민들에 대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그들이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하는것은 농업로동의 특성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업로동은 공업로동에 비하여 기계화수준이 낮고 로동의 결과가 즉시에 나타나지 않는 조건에서 농민들이 철따라 제기되는 농사일을 자기 일처럼 깐지고 알뜰하게 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그러므로 농민들이 언제나 공동로동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는 성실한 기풍을 가지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집단주의교양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인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의 사상사업에는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도 있을수 없다. 집단주의교양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사업으로 되여야 한다. 그래야 집단주의교양을 비롯한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될수 있다.

우리는 농민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서의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킴으로써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사상혁명의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며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60돐에 즈음하여—

강 응 길

주체의 혁명위업의 개척과 더불어 시원이 열린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행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조선청년들이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온 자랑찬 로정이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온 영광스러운 투쟁행로였다.

오늘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장엄한 진군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무으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6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것은 우리나라 청년운동과 조선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고 60성상에 걸쳐 조선청년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심으로써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 전체 청년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청년운동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당의 령도따라 조선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우리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앞길을 새롭게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닌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청년단체들과 소년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입니다.**》(《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에 즈음하여》, 단행본, 3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신데 뒤이어 그를 계승한 혁명적전위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조선청년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청년문제, 청년운동에 관한 문제는 혁명의 전도, 나라와 민족의 장래와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운동에서 청년들은 중요한 역할을 놀게 된다. 청년들이 사회발전에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자면 위대한 수령의 령도를 받는 혁명조직에 튼튼히 결속되여야 한다.

혁명적전위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당시 조선혁명과 우리나라 청년운동발전의 절실한 요구였다.

1920년대 후반기 일본제국주의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조선인민

의 투쟁은 여러가지 형태로 광범히 전개되였다.

특히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한 학생청년들과 로동청년들의 혁명적진출이 도처에서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청년학생들과 인민대중의 투쟁은 고조되였으나 그것은 옳은 로선과 방침에 의하여 조직지도되지 못한탓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인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앞에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적극 밀고나가며 각계각층의 대중조직들을 옳게 이끌어나가는 전위적역할을 수행하는 혁명조직을 내와야 할 과업이 절박하게 나서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본질적약점과 제한성, 사회혁명에서 청년학생들이 노는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에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맑스-레닌주의의 진수를 우리 나라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 체득하도록 하시는 한편 타도제국주의동맹과 반제청년동맹,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새형의 혁명조직을 내오시고 거기에 그들을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여러 혁명조직들이 결성되고 그것이 광활한 지역에 확대되여갔으며 도처에서 혁명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혁명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환경은 모든 혁명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는 전위적인 조직을 결성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927년 8월 28일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로동청년, 농민청년, 학생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청년조직이였으며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청년학생단체들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조직지도하는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ㅌ.ㄷ》에 이어 우리 나라에서 진정한 혁명적청년전위조직의 탄생이였으며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 반일민족해방투쟁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짧은 기간에 조선혁명의 승리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전위적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는 강력한 전투부대로 자라나게 되였으며 자기의 조직선전활동을 통하여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전반적조선혁명수행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단순한 청년조직이 아니였다. 그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에서 새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던 당시의 조건에서 조선혁명의 앞길을 개척해나갈 사명을 지니고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한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3페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본질에 있어서 수령의 위업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에 의하여 개척되고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수령의 령도밑에 완성된다. 수령에 의하여 개척된 혁명위업

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종국적으로 완성되자면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당과 같은 정치조직에 의하여 실현된다.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혁명적정치조직을 내오는것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한탓으로 하여 우여곡절을 겪고있던 조선혁명에서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던 이러한 요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혁명적전위조직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통하여 조선혁명과 청년운동에 대한 조직적인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당이 나오기전까지는 조선혁명 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1930년 7월 첫 당조직이 나오고 당조직지도체계가 확립된 시기에도 당조직의 지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였다.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매 시기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옳바른 로선과 정책, 전략전술을 제시하여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것이다. 혁명은 과학적인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승리할수 있다.

혁명의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은 수령에 의하여 제시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지도간부회의와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매 시기 조선혁명수행을 위한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들에서 제시하신 로선과 전략전술들은 청년들과 인민대중이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굴의 신념을 안고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게 한 명확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및 행동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대중과의 혈연적련계를 강화하며 그들을 혁명로선과 투쟁방침 관철에로 조직동원하는것은 혁명운동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탁월한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은 혁명운동에 대한 옳바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할뿐아니라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옳게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자기 대오를 더욱 확대공고히 하고 반일대중단체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과 인민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 한편 그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을 해설침투하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보장하였다.

공청은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하는 교양자, 조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공청이 이바지한것은 그처럼 류례없이 간고한 조건에서도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 그 종국적승리를 앞당길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이기에 바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의 하나가 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또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것이다.

로동계급이 자기의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당의 령도가 없이는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은 준엄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창건하려면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대대적으로 키워내야 하며 공산주의대렬의 통일단결을 확고히 실현하고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려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내오심으로써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분렬책동을 극복하고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선진적인 청년들을 묶어세우고 단련시켜 당창건의 골간을 키웠으며 광범한 반일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여 당창건의 공고한 대중적지반을 꾸리는데 이바지하였다.

공청은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그 어떤 난관과 역경에 처하더라도 동요하지 않으며 제기된 혁명과업을 자립적으로 훌륭히 수행할줄 아는 공산주의 핵심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당시 공산주의핵심, 당의 조직적골간 육성문제는 낡은 사상에 오염된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 결별한 새세대청년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해야 할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공청은 새세대의 청년들을 견결한 혁명가,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워내는 혁명적단련의 학교였다.

공청은 혁명적인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자기 대렬에 받아들여 꾸준한 사상교양과 강한 조직생활 그리고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혁명적으로 단련시켜 공산주의혁명정신을 소유한 견결한 혁명투사로,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된 공산주의핵심으로 키워냈다.

공청을 통하여 수많은 공산주의핵심들이 키워짐으로써 우리 당창건을 위한 튼튼한 골간부대가 마련될수 있었다.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은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그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참다운 혁명적당이 창건될수 있으며 그것이 혁명운동을 옳바로 이끌어나가는 위력한 전위부대로 될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공산주의대렬의 순결성과 사상의지적통일단결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공청은 청년들과 인민들 속에서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은 종파분자들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그들이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였다.

공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높이 받들고 종파주의를 청산하며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타난 좌경적오유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였으며 종파주의를 비롯한 반혁명적사상경향의 사소한 요소도 침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전략전술로 무장시켜 공산주의대렬의 사상적일치성과 행동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공청은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꾸리는데서도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중적지반을 꾸리는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 뿌리박은 위력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당만이 불패의 당으로 될수 있다.

당창건의 대중적지반을 꾸리자면 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야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지반으로 될수 있다.

공청조직과 일군들은 로동자, 농민, 청년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고 혁명화하였으며 반일대중단체들에 광범한 청년군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을 혁명투쟁을 통하여 단련시켰다. 그리하여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이 계급적으로 각성되여 힘있는 정치적력량으로 자라났으며 당창건을 위한 대중적지반이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이처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림으로써 새형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활동을 통하여 준엄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청년조직건설의 튼튼한 토대와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광복을 위한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정에 공산주의적청년운동이 발생발전하였으며 준엄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루어졌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81페지)

공산주의청년운동의 고귀한 전통은 혁명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며 그것은 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영원한 생명력으로, 결정적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신 때로부터 우리 나라 전반적혁명운동, 조선공산주의운동과 함께 참다운 길을 걷게 되였으며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진행되는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혁명운동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이 과정에 혁명적청년조직건설의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고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령도밑에 항일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청년조직건설의 기본원칙이 확립되였으며 공산주의청년핵심대렬이 튼튼히 꾸려지고 조직사상적으로 각성되고 단련된 강력한 청년대오가 마련되였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청년운동안에 확립된 충실성에 기초한 주체의 사상체계와 공산주의적혁명정신, 혁명적청년조직건설과 청년사업의 풍부한 업적과 경험, 혁명적사업 방법과 작풍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공청을 비롯한 청년조직들을 령도하시는 과정에 이룩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전통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다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전통은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이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야 할 귀중한 재부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였기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지체없이 가장 공고한 토대우에서 대중적이며 통일적인 강력한 청년조직을 건설할수 있었으며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그것을 피줄기로 하여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로정을 걸

어울수 있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당의 령도밑에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혁명적전환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운동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우리 당은 청소년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청년운동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새롭게 발전풍부화하여 우리 시대 청년운동이 나갈 길을 뚜렷이 명시해주었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로청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청년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과 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주었으며 사회주의건설과 조국보위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영예롭게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대오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져 오늘 사로청은 당의 정치적후비대로 튼튼히 꾸려지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청년문제는 빛나게 해결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 청년들의 정신상태는 매우 좋다. 모든 청년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있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가장 깨끗한 충성의 마음으로 받들어나가며 당과 수령의 명령, 지시 관철에서 근위대, 결사대로 되고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 나라 젊은 새세대들의 자랑스러운 풍모이다.

이것은 세월이 흐르고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지만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첫 세대들인 1920년대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 불굴의 혁명정신이 대를 이어가며 빛나게 계승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며 그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고있다.

참으로 타도제국주의동맹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반세기가 넘는 빛나는 로정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주체위업 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모든 청년들이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고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도록 하는것, 이것이 오늘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앞에 나선 력사적사명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는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이 높이 들었던 《ㅌ. ㄷ》의 기치,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은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전통교양과 혁명실천의 밀접한 결합

정 봉 학

혁명전통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며 그들을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이러한 혁명적재부를 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켜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수 있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거기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으며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견결한 혁명정신, 풍부한 경험과 업적들 그리고 사업 방법과 작풍이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모든 귀중한 재부들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힘의 원천으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빛나는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할수 있다. 또한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투쟁을 멈출줄 모르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

이처럼 혁명전통교양은 우리 당의 주체의 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이어나가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사상교양사업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은 그것이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8페지)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은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일관한 원칙이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은 실천투쟁을 떠나서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단련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단련되며 혁명가의 자질과 품격을 높여나간다. 사람들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혁명사상의 심오한 진리와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며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키운다.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혁명전통을 단순한 지식으로 리해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로 삼아 끊임없이 혁명적으로 수양하게 하며 실천투쟁에 구현해나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혁명전통교양이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당

과 혁명의 영광스러운 혈통은 견결히 고수하고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본성적요구로부터 제기된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해방,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준엄한 실천투쟁속에서 발전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도 남달리 복잡하고 간고하였다. 강대한 일제를 반대하여 진행한 항일혁명투쟁은 류례없이 엄혹한 시련이 겹쌓인 투쟁행로였다. 걸음마다 사선을 헤쳐나가야 하는 헤아릴수 없이 간고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되는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이 마련되였다. 불패의 위력과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이 혁명적재부들은 엄혹한 환경속에서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하는 실천적요구를 반영하여 형성되였으며 그것은 항일혁명의 승리를 담보한 힘의 원천이였다. 이것은 항일의 혁명전통이 단순한 력사적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혁명실천을 위한 백전백승의 위력을 지닌 혁명의 무기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혁명전통으로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사업은 그 본성적요구에 맞게 철저히 실천활동과 결부되여야 하며 실천투쟁에 구현하기 위한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진행해야 하는것은 또한 그 목적자체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요구이다.

혁명전통교양의 목적은 지나간 력사적사실을 단순한 지식으로 알려주는데 있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혁명전통에 담겨지있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게 하자는데 있다.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에게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 혁명의 근본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사업이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 바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하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견결히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 혁명위업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깊이 체득하게 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게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위하여 자기의 창조적적극성과 혁명적열의를 적극 발휘하게 할수 있다.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 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는것만큼 철저히 실천활동과 결부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문제는 특히 혁명투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기본력량으로 끊임없이 등장하고 우리앞에 류례없이 방대하고 복잡한 혁명과업들이 수많이 나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절실하게 제기된다.

세월이 흐르고 혁명이 멀리 전진함에 따라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고생을 모르고 고스란히 행복하게 자라났으며 혁명투쟁의 엄혹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젊은 세대들이 혁명대오의 중요한 력량으로 등장하고있다. 그들은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을 직접 받아보지 못하였고 엄혹한 시련을 헤쳐나가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단련될 기회도 별로 없었다.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견결한 혁명의 전위투사로 준비시켜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힘있게 진행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그 어떤 간고한 시련도 용감히 이겨내고 끝까지 싸워나가는 혁명가로 준비시킬수 있으며 세대에 세대를 이어 혁명의 기치를 들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또한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오늘 우리앞에 나선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완수해나갈수 있다.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비상히 빨리 전진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경제건설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높이 발양되였던 고귀한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우고 실천투쟁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에서 80년대의 력사적진군을 다그치고 제3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항일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옳게 구현하는데 있다.

당조직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깊이있게 진행할 때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전투적 기상과 기백이 더욱 높이 발양될것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며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끊임없는 새로운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될것이다.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하여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 사업은 사회성원들의 사상정신적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 올려세우고 그들의 투쟁기풍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서 그것은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서만 빛나게 실현된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항일의 혁명전통을 옳게 계승하고 그것을 사업과 생활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는것을 주체혁명위업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과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에는 온 사회에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고 주체위업을 드팀없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여있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튼튼한 터전으로 하고 그것을 실천투쟁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감으로써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이 담고있는 모든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은 바로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되며 혁명투쟁의 위력한 추동력으로 된다.

우리 혁명의 유일한 혈맥으로,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혁명전통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것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갈 때에만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고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으로, 사람들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며 온 사회에 혁명적 기상과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귀중한

혁명적방식으로,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내세우고 혁명전통의 고귀한 재부들을 사업과 생활에 적극 구현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함으로써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하며 실천을 통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끊임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빛내이며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차넘치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와 확고한 혁명적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혁명적구호는 영광스러운 항일의 혁명전통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우리 당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지 만경대와 백두산, 왕재산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과 혁명사적관들을 정중히 꾸리고 실속있게 관리운영하도록 세심히 이끎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실천투쟁에 훌륭히 구현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최근 특히 항일혁명의 나날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신 백두산밀영이 원상대로 꾸려진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백두산밀영이 원상대로 정중히 꾸려져 개영되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전통교양의 또하나의 위력한 거점을 가지게 되였으며 주체혁명위업의 명맥을 더욱 빛나게 이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책원지이며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밀영을 찾아 거기에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위대성을 더욱 가슴깊이 체득하고있으며 자신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준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항일의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혁명영화를 비롯한 문학예술작품들과 출판보도물들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도록 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실효투쟁을 깊이있게 벌리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있다.

그리하여 류례없이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 혁명선렬들의 고결한 풍모가 훌륭히 재현되여 사람들을 무한히 감동시키고있다.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고 사선을 헤치며 용감히 투쟁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모범과 높은 정신세계는 만사람들이 따라배워야 할 참다운 거울로 되고있으며 그들을 위대한 번혁과 창조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방침과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혁명전통교양이 실천활동과 결부되여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와 일본새, 사업태도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우리 인민은 항일혁명의 나날 백두밀림에 차넘치였던 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거울로 삼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으며 조국과 인민, 혁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다. 서해갑문을 세계적인 대갑문으로 일떠세운 영웅건설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혁명적풍모와 투쟁기풍,

오늘 사회주의대건설장마다에서 창조되고있는 영웅적위훈들은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힘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준 우리 당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전통교양이 강화되고 그것이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됨으로써 우리 회령군당위원회의 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우리 회령군당위원회는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혁명전통학습은 물론 혁명사적지, 혁명사적관 참관사업을 조직하는데서 언제나 교양사업의 결과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나타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시키는 사업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며 당과 혁명대오의 위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 모를 박고 진행하였다.

우리의 실천활동이란 바로 자신을 혁명적수령관이 투철한 혁명전사로 준비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혁명전통교양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교양사업의 결과가 사람들의 활동과 사업성과에서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와 함께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하는데서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며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였다.

우리는 특히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생가와 혁명사적관이 있는 우리 군의 유리한 특성을 리용하여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켜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생활과 실천투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회령곡산공장과 탄광기계공장을 비롯한 군안의 많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풍모를 본받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이 높이 발양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고있는 커다란 혁신적성과들을 통하여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깊이 체득할수 있었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비록 귀중한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군이 처한 특성에 맞게 혁명전통교양을 틀어쥐고 그것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전사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군앞에 나서고있는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이다.

우리는 군안의 혁명사적지들과 혁명사적관을 더 잘 꾸리고 그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 훌륭히 이바지할것이다.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는 최대의 금물이다. 우리는 나타날수 있는 형식주의적경향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혁명전통교양을 실천활동과 결부시키는 사업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깊이있고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그 실효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혁명전통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적극 다그치며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갈것이다.

아래에 내려가야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수 있다

리 태 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은 끊임없이 심화발전하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일관한 구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밑에 아래에 내려가 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중속에 들어간다는것은 당일군들이 언제나 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바로세우며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조직동원한다는것을 말한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안다는것은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사람들의 충실성정도와 사상적준비상태, 지향과 요구를 료해파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아는것은 당사업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요구이다.

당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당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이며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사업이다.

당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을 떠난 당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사업을 떠난 당사업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사업은 그 어느것이나 다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며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이루어진다.

당일군은 당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사람과의 사업을 본신임무로 하고있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할 사명과 임무가 바로 당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당일군들이 사람을 교양하고 묶어세우기 위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옳게 수행하려면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료해는 사람과의 사업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기 위한 사업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사상에 대하여 모르면서 교양한다는것은 사실상 똑똑한 진단과 처방도 없이 치료를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막연한 진단, 떨떨한 처방이 환자의 병을 고칠수 없듯이 사람들의 사상을 똑똑히 모르고 진행하는 사상교양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것은 명백한 일이며 이러한 사상교양사업은 한갖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사람과 그의 사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파악할 때에만 그에 맞는 교양대책을 바로세우고 실속있게 교양할수 있으며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다.

사람과 그의 사상상태를 료해하는데서 기본은 실천행동이다. 당일군들이 통계를 받고 수자나 장악하거나 문건만 보아가지고서는 사람을 바로 평가할수 없고 정확히 알수 없다. 문건은 사람을 료해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문건에 씌여있는 성분을 가지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갈라보고 믿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판단하는것은 결국 비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고방식이다. 혁명은 성분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한다. 물론 성분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사상의식발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가 사상은 아니다. 사람들의 사상은 성분이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표현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서 나타나게 된다.

혁명실천은 사상개조의 힘있는 수단인 동시에 사람들의 사상을 검증하는 척도이다. 실천과 행동을 떠나서는 사람들의 사상을 평가하고 검증할수 없다. 사람은 생활속에서 료해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하여야 그에 대한 옳은 평가를 내릴수 있으며 사람을 정확히 알수 있다.

사람을 생활속에서 료해하고 실천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아래에 내려가는것이며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늘 접촉하는것이다. 당사업은 책상머리나 종이장우에서가 아니라 군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서 벌어진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는 말과 같이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떤 립장과 자세로 일하고있는가를 직접 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과업을 주고 그것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검열하여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 있으며 그의 사상적준비정도에 대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이와 같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게 함으로써 당사업의 본질적요구를 가장 원만히 실현할수 있게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아는것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산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광범한 령역에 걸쳐 각이한 실정에서 진행된다. 혁명과 건설로 들끓는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며 당정책을 관철하는 과정에는 복잡하고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된다. 현실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다양하며 비반복적이다. 현실에서 일하고있는 사람들도 그 수준과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그들이 일하고있는 환경도 각이하며 맡고있는 혁명과업도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구체적인 실정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것도 타산할수 없고 대책을 세운다고 하여도 명중할수 없으며 지도에서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할수 없다. 현실을 모르고 아래의 실정에 맞지 않는것을 덮어놓고 내리먹이거나 군중의 지향과 요구, 준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조직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아래실정을 환히 꿰들고 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고있어야 새로운 과업이 나서거나 무슨 문제가 제기되여도 그것을 제때에 분석판단하고 옳게 처리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와 혁명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혁명적인 지도대책을 세워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산 지도를 줄수 있다.

지도의 과학성과 현실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이러한 요구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갈 때 원만히 실현된다.

원래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그들과 의논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는것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

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전제로 된다.

인민대중은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며 풍부한 실천적경험을 가지고있다. 아래의 실태를 누구보다도 잘 알며 걸리고있는 문제와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것도 인민대중이며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합리적이며 건설적인 의견을 제기하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그런것만큼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군중의 힘을 알수 없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옳바른 지도대책도 세울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도 잘 알수 없다. 당정책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고있는 현실에 침투하고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투쟁하는 군중속에 들어가야 당의 로선과 정책이 어떻게 침투되고 어떻게 관철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으며 무슨 일을 어떻게 조직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궁리도 생기고 제기된 과업을 옳게 수행하기 위한 방도도 찾을수 있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도 알수 있다. 또한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과 접촉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상하합심이 이루어지고 대중과의 련계가 강화되여 지도에서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가 극복되고 실속있는 산 지도가 보장된다.

이것은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를 보장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도와주고 이끌어주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시키고 구현해나가시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당의 운명, 혁명의 승리와 성과를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우리 혁명을 령도하여온 전기간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을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고하였던 항일혁명투쟁시기로부터 어렵고 복잡하였던 민주혁명시기와 전쟁의 준엄한 나날, 전후 시련의 시기를 거쳐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발전단계에 이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활동의 전력사적기간에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시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도 나라의 크고작은 일을 다 돌보시는 바쁘신 틈을 내여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시며 공장과 농촌에 나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일군들을 가르쳐주시며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고 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의 기본요구의 하나로 규정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과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우리 당은 내부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세워졌던 각급 당위원회 기구와 사업체계, 사업직능을 아래에 내려가는것이 기본으로 되게 새롭게 개편하여주었으며 새로운 하부지도체계를 세워주었다. 또한 우리 당은 아래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지도하고 도와줄데 대한 독창적인 하부지도원칙을 밝히여 지도와 대중의 결합을 원만히 실현하고 아래에 대한 지도를 실속있게 할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와 혁명적인 대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안에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도, 시, 군 당에 이르기까지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확립되였으며 모든 당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침투하여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기풍이 서게 되였다.

전당에 정연한 하부지도체계를 세우고 모든 당일군들이 정상적으로, 주기적으로 아래에 내려가게 하여 우리 당을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전투적부대로 강화발전시킨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 건설에서 이룩하신 커다란 업적의 하나로 빛나고있다.

군당은 우리 당의 말단 지도단위이며 집행단위이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순안구역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이 세워준 하부지도체계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구역안의 전반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었다.

우리는 우선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일군들이 어느 단위에 나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도록 사업방향과 과업을 명백히 주어 그들이 아래에 내려가 목적지향성있게 활동하도록 하였으며 직능에 맞게 실태를 료해하고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간 정형을 수시로 료해하며 누구나다 아래에 내려가도록 강하게 통제하였다. 또한 주, 월 사업총화때마다 아래에 내려가 활동한 정형을 사상투쟁의 분위기속에서 총화하였으며 당일군들의 사업을 평가할 때에도 아래에 얼마나 많이 내려갔으며 아래에 내려가 사람과의 사업을 얼마나 실속있게 하였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삼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구역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와 강한 장악통제에 의하여 조직부, 선전부의 지도과일군들만 아래에 내려가던 지난 시기의 편향이 극복되고 당위원회안의 모든 부서,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자기의 직능에 맞게 사업하는 기풍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아래의 실태와 사람들의 사상동향이 여러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료해장악되고 그에 기초하여 구역당위원회가 정확한 실천적방도와 적중한 교양대책을 세워 아래를 실속있게 지도하고 도와줄수 있게 되였으며 사람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더 많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일도 같이하면서 허물없이 지내야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수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게 될 제3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모든 일군들이 당의 요구대로 늘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늘 군중속에 들어가 아래의 실태를 깊이 료해하며 군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사업을 전개하여나가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철저히 제도화, 습성화하는것이다.

무슨 사업이든지 제도에 의하여 고착되고 질서에 의하여 유지되여야만 성과적으로 조직진행될수 있다.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는것은 아래단위의 사업을 도와주며 이끌어주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며 지도의 체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이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여야 실태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줄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면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거나 한두번 유람식으로 내려가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당이 세워준 하부지도체계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일군들이 당에서 강조할 때에는 부지런히 내려가다가도 일정하게 시일이 지나면 사무실에 틀고앉아 내려가지 않는 5분열도식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버리고 매달 정규적으로 아래에 내려가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과 뚜렷한 설계를 가지고 현실에 침투하는것은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당일군들이 구체적인 계획과 뚜렷한 설계를 가지고 아래에 내려가야 확고한 주견을 가지고 사업을 의도적으로 전개해나갈수 있으며 아래를 착실히 도와줄수 있고 사람을 더 잘 알고 실속있게 교양할수 있다.

원래 목적이 없는 하부지도는 유람식지도를 면할수 없으며 이러한 형식적인 현실침투는 아무리 많이 하여도 소용이 없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간다 해도 일정한 목적이 없이 여기저기 무사분주하게 돌아다니기만 하여서는 현실을 바로 볼수 없고 사람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 없다. 아래에 내려가라는것은 결코 바람이나 쏘이고 머리쉽이나 하라는것이 아니다.

어떤 사업에서나 성과의 중요한 비결은 사전준비를 잘 갖추는데 있다.

당일군들은 사전에 해당 부문, 해당 단위에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자기가 내려가는 단위의 일반적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아래에 내려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명백한 계획과 설계를 가지고 아래에 목적지향성있게 내려가야 한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 일반적인 강조와 호소로 그치지 말고 아래일군들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며 책임일군들이 직접 어깨를 들이밀고 실천적모범을 보이면서 걸린 문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아래에 내려간 당일군들은 통계나 자료가 요구되면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거나 확인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직접 만나보고 알아보아야 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갈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을 보장하는것은 군중속에 들어가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람들의 활동은 다 일정한 조건과 환경의 제약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환경을 잘 조성하고 조건을 옳게 보장하는것은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나서는 절실한 문제로 된다.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갈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잡다한 회의와 번잡한 문서를 없애는것이다.

회의나 문서놀음이 많으면 일군들이 발목이 매워서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맴돌게 된다.

사무실에 앉아서 문서놀음을 하는것은 일을 쉽게 하자는것이다. 아래에 내려가서 실태료해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 담화도 하고 교양도 하자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머리를 써서 방법론도 찾아내야 하지만 통계나 요구하고 문서나 받아내자면 전화로 한마디 지시하면 되는것이다. 결국 뼈심을 들이지 않고 현상유지를 하려는 사람들이 문서놀음을 하기마련이다. 문서놀음은 건달풍의 집중적인 표현이며 또 건달풍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이라고 말할수 있다.

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가, 아니면 문건이나 뒤지며 사무실에서 세월을 보내는가 하는것은 당의 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이다.

당조직들은 회의를 대담하게 줄이며 필요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준비를 잘하고 격식과 틀을 없앰으로써 짧은 시간에 실속있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일군들이 개별적으로 포치하여도 될 문제를 회의를 열어놓고 포치하는것과 같은 현상과 모든 사업을 회의와 문건놀음으로 대치하는 낡은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이와 함께 쓸데없는 통계놀음을 없애고 문건을 극력 간소화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일군들이 아래에 대담하게 내려가고 군중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사람을 정확히 료해파악하고 실속있게 교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래에 내려가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일군들이 직접 군중속에 들어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것이다.

우리 당일군들이 진정으로 군중속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헤쳐보지 못하고서는 참말로 군중속에 들어갔다고 말할수 없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어가 군중과 한데 어울리고 서로 진정을 주고받아야 당일군들이 군중과 마음이 통하게 되고 서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수 있으며 마음속 깊은 생각과 가슴속 깊은 사연까지 다 알아낼수 있다. 이렇게 되여야 잘 파악하지 못하고있었거나 피상적으로 알고있던 많은 간부들과 당원들, 군중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으며 그에 맞게 그들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면 회의주석단에나 앉았다 올라오거나 늘 만나는 지도일군 몇사람의 말만 듣고 올라오지 말고 반드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호흡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의 사상상태와 준비정도는 어떠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는 무엇인가를 늘 알아보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는것은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기 위한 사업은 높은 정치사상수준과 능력을 요구하는 사업이다. 열길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을 알아낸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당일군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그것을 꿰뚫어볼만한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정확히 파악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당일군의 자질을 판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된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게 된다. 보고 들은것이 적고 지식의 축적이 없으면 그만큼 식견이 좁아질수밖에 없으며 현실을 보고 사람을 료해파악하는데서도 제한을 받지 않을수 없다. 높은 정치적 식견과 안목을 가져야 모든 문제를 당정책적선에서 보고 분석판단할수 있으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그들의 요구와 지향을 알수 있고 사람과의 사업을 능란하고 수완있게 해나갈수 있다.

당일군들의 자질과 실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학습을 정력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식은 열정의 산물이며 피타는 노력의 열매이다. 일군들의 자질과 능력은 저절로 높아질수 없으며 그것은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

당일군들은 항상 자기를 완성된 인간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전당이 학습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심장에 새기고 꾸준히 배우고 열심히 학습하여 다방면적으로 준비되고 넓은 시야와 예리한 정치적안목을 가진 실력있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서있으며 누구나 다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갈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여있다.

모든 당일군들은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당의 요구를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야 할것이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은 당생활평가의 중요척도

리 화 선

당생활에 대한 옳은 평가는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사업이며 생산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당조직을 통하여 진행되며 당조직들은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일상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당조직의 당생활지도에서 원칙적요구의 하나로 나서는것은 그 평가사업을 옳은 척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이다. 당생활평가의 중요한 척도는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평가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혁명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정형을 평가하는것은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한 당생활지도방법이며 당생활의 목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이다. 당원들의 당생활은 곧 그들이 당에서 준 혁명과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는 목적도 그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여 그들이 맡겨진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혁명가로서의 당원의 사업과 생활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활동이며 당원들에게 있어서 본신혁명임무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다. 맡겨진 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은 당원들이 당에서 주는 분공을 집행하는 조직적활동이며 당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활동이다. 이 활동을 떠나서 당원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원들의 당생활에 대한 당조직의 지도와 통제에서 나서는 모든 고리들이 혁명과업수행과 옳게 결부되여야 그들의 당생활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은 당생활평가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실제 사업과정에서 높이 발양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충성심에 기본을 두고 그들의 당생활을 평가하기때문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올바른 당생활을 하기 위한 본질적요구이며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요인이다. 당원의 모든 사업과 생활은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투쟁의 성과여부에 따라 당생활수준이 결정되게 된다. 자기의 혁명초소에서 제기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것이 바로 당생활을 성실히 하는 과정으로 되며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나게 된다. 맡은 혁명임무를 어김없이 끝까지 수행하는 당원이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당원이며 당생활을 잘하는 당원이다. 그러므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본신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높이 발휘되며 당생활에 참가하는 성실성도 여기에서 표현된다. 실지 사업수행정형을 척도로 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전면적으로 분

석해보아야 진심으로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일하는 당원인가 아닌가를 정확히 가려낼수 있다. 《만세》는 안불러도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득바득 애쓰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당생활을 잘하는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당원이라고 말하는것이다.

만일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생활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일면적으로 그릇되게 볼수 있으며 진심으로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당원인가 아닌가를 가려볼수 없다. 당원들의 당생활을 잘못평가하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경우를 놓고볼 때 그것은 례외없이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보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생활을 평가하는것은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당원들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적문제로서 그것은 진실한 당원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중요척도로, 확고한 기준으로 되는것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이 척도, 이 기준을 확고히 견지하는데 당원들의 당생활을 실지 사업과정에서 높이 발현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옳게 평가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은 당생활평가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밀착시켜나가도록 하기때문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은 모두가 당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두 사업의 밀착은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활동이 통일적과정속에서 벌어질 때 성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조직사상생활과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활동은 당생활의 서로 다른 두개 측면을 이루지만 이 두 활동은 긴밀히 련관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실천과정에서 통일적으로 작용하여야 그 성과가 뚜렷해지는것이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이 당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는것만큼 당생활의 기본활동분야로 되는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당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평가하여야 이 두 사업을 옳게 밀착시켜나갈수 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 발전에서 노는 당원들의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당생활평가는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당사업과 경제사업 발전에서 주동적역할을 놀아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다. 당원들은 당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과업수행의 직접적집행자이며 당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도 당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해서 정확히 관철된다. 결국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밀착은 당원들의 활동이 없이 옳게 이루어질수 없는것이다. 당사업이 경제사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당사업의 성과가 경제건설에서 직접 나타나게 하려면 이 두 사업수행에서 노는 당원의 활동이 정확히 평가되여야 한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생활을 평가하는것은 당원들로 하여금 언제나 본신혁명임무를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과 활동을 벌려나가게 하며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조직사상생활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게 한다. 다시말하여 당원들의 당생활, 그들의 모든 사업과 활동이 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게 한다. 사실상 혁명과업수행과 동떨어진 당생활은 아무런 의의와 가치도 가질수 없는것이다. 혁명과업수행에 철저히 복종되는 당생활만이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당사업과 경제사업이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지 못하는것은 많은 경우 이 두 사업수행에로 당원들을 추동하는 당생활평가가 정확히 되지 못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과업수행정형에 대한 당원들의 사업평가는 일시적으로 제기되는 경제문제해결보다도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밀착에서 나서는 중요한 고리를 풀어나가는 책임적인 사업으로 된다. 본신혁명과업을 놓고 당생활을 평가하는것을 순수 행정경제

적과업수행으로만 보는 관점은 당원들의 역할이 혁명가로서의 정치활동, 혁명투쟁으로 되지 못하게 하며 로동계급의 당 활동의 근본요구로 나서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옳게 밀착시킬수 없게 한다.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합된 당원의 조직사상생활정형에 대한 당적인 높은 평가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 책임적인 사업수행에로 당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한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당생활평가야말로 당원들의 주동적인 활동에 기초하여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훌륭히 밀착시켜나갈수 있게 한다. 이처럼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옳은 결합은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중요척도로 하는 당생활평가에 의해서 훌륭히 담보되게 되는것이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옳은 당생활평가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생산과 건설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요구를 정확히 해결하기때문이다.

당원은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를 맡고있다. 선봉적역할은 주체사상을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지침으로 하는 우리 당원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다. 매개 단위와 초소에서 당원들이 대중의 앞장에 서야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갈수 있다. 그런데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결코 저절로 높아지지 않는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척도로 하는 당생활평가는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 힘있는 수단이다.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이끌어야 할 당원의 임무와 역할은 경제과업수행에 대한 옳은 평가에 기초해서 훌륭히 수행되게 된다. 당원의 선봉적역할은 모든 경우에 언제나 그러하지만 경제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과업은 대중적인 사업으로서 광범한 군중의 참가없이는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없다. 대중과 같이 살며 일해나가야 하는 당원들에게 있어서 선봉적역할은 경제과업, 본신임무를 수행하는 행정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여기로부터 기본혁명과업수행을 척도로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할데 대한 요구가 흘러나온다. 당원들은 자기 맡은 혁명임무수행정형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높은 책임감과 자각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생산과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만일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경제과업을 홀시하고 부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한다면 본신혁명과업수행에 대한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일수 없으며 따라서 당원들이 언제나 대중의 모범이 되여 일하게 할수 없다. 경제과업수행에 대한 당적인 높은 평가는 곧 정치적 신임과 믿음의 표시로서 당원들로 하여금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게 한다. 우리 당원들은 물질적평가보다도 당적인 신임과 믿음을 더 귀중히 여긴다. 그것은 우리 당원들이 당의 신임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수 없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부모와 집을 떨어져서는 살수 있어도 당의 품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는것이 우리 당원들의 확고한 생활신조이다. 때문에 당생활평가는 매 당원의 조직사상생활의 성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본신혁명과업수행에 대한 평가로 되여야 한다. 혁명임무수행정형을 척도로 하여 당생활을 옳게 평가하는 바로 여기에 그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대중의 선봉투사가 되여 훌륭히 일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평가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당생활지도방법이며 당원대중과의 사업에서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혁명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대오안에 당조직을 내오시고 무장투쟁에서 단련

된 공산주의자들을 당조직에 받아들이였으며 당사업과 혁명임무수행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군사적임무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을 평가하는것을 당조직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대로 무장대오안의 각급 당조직들은 당사업을 군사활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였으며 당사업의 성과를 군사적임무수행결과를 가지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총을 잘 쏘고 적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을 당과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모든 대원들이 전투에서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혁명임무수행정형을 척도로 당생활을 평가하는 당생활지도방법은 우리 당 사업방법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였으며 당원대중과의 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틀어쥐고나아가야 할 귀중한 전통으로 되였다.

이 전통적인 당생활평가방법은 우리당 간부정책에도, 핵심당원육성사업에도, 당원들을 표창하는데서도 그리고 당내부사업의 여러 고리들에서 빛나게 구현되였다.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되는 과정에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생활을 평가하는 당생활지도방법의 정당성은 더욱 뚜렷이 확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임무수행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수준을 평가하는 당사업방법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실천에 철저히 관철되고 있으며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며 당생활지도와 그 평가에서 나서는 구체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지도하고계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개별담화와 당학습, 당적분공, 당생활총화를 비롯한 당생활지도의 모든 고리들에서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간부들과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지도하는 형식과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당생활지도의 모든 고리들에서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당생활을 본신임무수행에 중심을 두고 진행할수 있으며 실천활동을 놓고 당생활평가도 옳게 할수 있다.

우리 당은 당학습을 혁명과업수행에 맞게 진행하며 당적분공도 그에 기초하여 조직하고 당생활총화가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사상생활총화로 되게끔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있다.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고 현명하게 이끄는 하부지도체계와 새로운 당생활총화제도,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킬데 대한 방침과 당원들을 혁명의 정수분자로 키울데 대한 방침 등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당사업을 당원대중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당생활지도를 혁명과업수행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이 행정에 당원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게 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혁명적구호를 제시하여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이끌고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이 발기하고 지도하는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통하여 당조직들과 일군들속에서 소문없이 큰일을 한 당원들의 숭고한 모범을 적극 지지하고 높이 평가해주는 사업도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실로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사람의 결정적역할에 대한 주체사상의 원리에 맞게 당생활지도와 그 평가사업을 가장 정확히 할수 있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당 사업방침들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당조직들의 당생활지도에서와 당원들의 생활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경제사업을 외면하던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생활을 평가하는 관점과 립장을 더욱 철저히 가지게 되였으며 말없이 수걱수걱 일 잘하는 당원들을 적극 찾아내고 높이 평가하게 되였다. 또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제기된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게 되였으며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더욱 철저히 밀착시켜나가게 되였다.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을 진행하여온 우리 당원들 역시 혁명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데 있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당생활을 진행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은 혁명임무수행에 철저히 복종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본신임무수행에서 높이 발휘되게 되였으며 조직사상생활의 성과가 실제사업과정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되였다.

참으로 혁명임무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는 당생활평가방법은 우리 당원들이 왕성한 사업의욕과 혁명적정열을 가지고 기본혁명과업의 성과적수행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커다란 혁신과 비약을 일으키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경제건설과업은 당조직들과 당일군들로 하여금 경제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을 지도하며 그 평가사업을 옳게 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언제나 당원들이 맡겨진 혁명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중심을 두고 당생활을 조직지도하며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6페지)

지금 당조직들앞에는 혁명과업수행에 중심을 두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평가하여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더욱 높이 불러일으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당과 수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나라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80년대속도》창조에서 선구자적모범을 보이고있으며 모든 단위와 초소에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당조직들은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생활을 잘하는 당원들의 모범적활동을 적극 지지해주고 높이 평가하며 그들이 드높은 정열과 기백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서 보다 더 큰 성과와 승리를 이룩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옳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사업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평가하는 사업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생활을 평가하는 당의 방침에는 생산과 건설에서 당원들이 놀아야 할 임무와 역할로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공로와 위훈을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표창하는데 이르기까지 혁명과업과 결부된 당생활평가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이것들은 이미 당사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유일하게 정확한 당생활지도방법이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지침으로 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고 평가함으로써 그 어떤 편향도 범하지 말고 혁명과업수행에서 모범적인 당원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찬양하며 그들을 끊임없는 혁신과 위훈에로 힘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당일군들이 당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당생활을 옳게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 당원들의 생활을 알려면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당원들의 모범적인 소행과 아름다운 미풍은 많은 경우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생산현장에서 나온다. 당일군들은 전당이 아래에 내려갈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당원들이 일하는 생산현장에 깊이 침투하여 그들과 같이 살며 일하면서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당생활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토대우에서 당원들의 모범적행동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이 본신임무수행에 모를 박고 당생활을 진행할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 설수 있다.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당생활평가를 옳게 하기 위하여서는 당세포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당세포는 혁명임무, 경제과업을 당원들과 같이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직접 토의하고 집행한다. 그리고 당원들의 경제과업수행정형을 제일 잘 아는것도 세포이다. 당세포가 당원들에게 본신혁명과업수행을 위한 당적분공도 옳게 주고 그에 대한 총화사업을 바로하여야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훌륭히 밀착시킬수 있고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당원들의 당생활도 정확히 지도할수 있다.

세포조직들은 혁명과업수행에서 발휘된 당원들의 모범적인 사실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 소개하고 평가할뿐아니라 벽보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들을 리용하여 널리 선전하며 상급당에도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세포조직들은 당생활총화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된 사상생활총화로 되게 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이 당생활총화에서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자기의 조직사상생활을 총화하며 거기에서 나타난 결함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혁명과업수행을 위하여 누가 실지로 일을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예술영화 《보증》의 주인공을 따라배우는것은 당일군들속에 당원들의 당생활을 정확히 평가하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예술영화 《보증》에서 나오는 책임비서의 형상은 당일군들에게 당생활, 사람들의 정치생활을 어디에 기본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가를 생동한 사실로써 잘 보여준다. 영화의 주인공인 책임비서는 사람들의 당생활, 정치생활을 보증하고 평가하는데서 당과 수령의 뜻을 받들고 맡은 혁명임무를 꾸준히 수행하는 충성심에 기본을 두고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본신혁명과업수행에서 끝까지 충성의 한길을 따라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다. 당일군들은 예술영화 《보증》의 주인공인 책임비서의 모범을 본받아 당원대중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며 혁명과업수행정형을 놓고 사람들의 당생활, 정치생활을 보증하고 평가하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튼튼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과업수행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당원들의 당생활을 옳게 평가함으로써 그들이 언제나 실천활동을 통하여 당과 수령의 은덕과 기대에 실제적인 사업성과로 훌륭히 보답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중요담보

김 윤 철

당대렬의 정예화는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건설위업은 당을 창건할뿐아니라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며 빛나게 완성된다. 당대렬의 정예화의 성과적추진은 모든 당원들이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기 위한 옳은 생활 규범과 준칙에 따라 살며 일하는 과정에 훌륭히 실현된다.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에 따라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것입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1페지)

당대렬을 정예화한다는것은 당대렬을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린다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운다는것을 말한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의 하나는 당원들이 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다. 당규약은 당원들의 생활규범이며 행동준칙이다. 당규약에는 당의 지도사상과 함께 투쟁과업이 제시되여있을뿐아니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원들이 어떻게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당을 전위적인 혁명대오로 굳건히 다지고 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나갈수 있다. 당의 위력은 조직사상적공고성에 기초한 위력이며 모든 당원들이 규약상 요구에 따라 하나와 같이 사업하고 행동하는 강철같은 규률에 토대한 위력이다.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단결되고 강철같은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당만이 사회발전의 향도자,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모든 당원들이 당규약상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바로 여기에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당대렬의 정예화를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 당대렬의 정예화를 옳게 실현하게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원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준비시킨다는데 있다.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데서 기본은 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는것이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사상정신적특질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다.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바칠것을 굳게 다짐하고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에게 있어

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당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활동에 언제나 끝없는 활력을 부어주는 영원한 생명력이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준엄한 투쟁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며 온갖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한생을 참되게 살며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게 되는것은 그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근본원천을 두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는 그 어떤 간고한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한길에서 가장 귀중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빛내여나가게 된다.

당규약에는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기본품성이 정확히 규제되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모시고 당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당규약에 규제된 규범과 생활준칙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우리 당원들은 티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언제 어디서나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며 당과 수령의 절대적권위와 위신을 백방으로 옹호보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훌륭히 갖출수 있다.

당규약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것을 우리 당원들의 활동원칙으로,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준칙으로 규제하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활동에서 높이 발현된다. 당원들이 규약의 요구대로 살며 일함으로써만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받들고 충직하게 싸워나가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자라나게 된다. 그리하여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오직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정책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다. 이처럼 당규약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당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기본품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닌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준비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데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 확고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 당대렬의 정예화를 훌륭히 실현하게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원들을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열렬한 혁명가로 키운다는데 있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녀야 할 중요한 정치사상적풍모의 하나이다. 높은 사상성과 함께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녀야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은 혁명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는 참다운 혁명정신이며 고상한 품성이다. 조직적으로 규률있게 살며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혁명가로 될수 없으며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인 로동계급의 당의 당원은 당안에 세워진 강한 질서와 규률에 따라 움직이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고 그 질서와 규률을 지키는데서 자기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높이 발휘한다. 주체형의 당인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이 참다운 혁명가로 되기 위하여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의 하나는 조직성과 규률성이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의 숭고한 품성을 지녀야 당원들은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수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것으로 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

으며 혁명승리의 한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가는것이다.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우리 당원들이 당조직원칙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며 당규약상 의무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높이 발양되게 된다.

우리 당규약에는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전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당규약은 모든 당원들이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하부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것을 조직원칙으로 규정하고있으며 이 조직원칙에 따라 우리의 당원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데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들을 명백히 밝혀주고있다. 당원들은 규약에 밝혀진 원칙과 규범에 맞게 살며 일하여야 당의 구상과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그대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당과 함께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는 그야말로 당과 일심동체가 되여 견결히 싸워나가는 열렬한 혁명가로 될수 있다.

우리 당규약에 밝혀져있는 당규률은 또한 당원들을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혁명가로 육성할뿐아니라 그것이 당원대중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준수되는것으로 하여 그들을 자각적인 혁명투사로 훌륭히 키울수 있게 한다. 강요에 못이겨 마지못해 준수되는 규률은 사람들을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혁명투사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는것은 물론 그들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억제하며 결국 기계적인 인간으로밖에 되지 못하게 한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나선 근로인민대중의 선진투사들이 뭉친 조직인것만큼 이 조직안에서는 당원들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활동만이 허용된다. 당규률을 의식적으로,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에 당원들은 선진투사로서의 풍모를 더 잘 갖추게 된다.

우리 당규약에 밝혀진 당규률은 당원들의 높은 의식성과 자각성에 의하여 준수됨으로써 그들의 모든 활동이 조직적이고 규률있게 진행되게 하며 당원들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당에서 준 혁명임무를 수행하는데서 희생성과 헌신성을 높이 발휘하게 한다. 당규약에 밝혀진대로 사업하고 행동하여야 우리 당원들은 조직성과 규률성, 자각성의 숭고한 품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당대렬의 정예화를 훌륭히 실현해나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원들을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훌륭한 혁명투사로 키우는것으로 하여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 대렬의 정예화를 적극 추진시키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 당대렬의 정예화를 훌륭히 실현하게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는데 있다.

선봉적역할은 우리 당원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태도이며 고상한 품성의 하나이다. 이러한 태도와 품성을 지녀야 당원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인다운 립장에 서서 언제나 적극적인 활동을 벌릴수 있다. 선봉적역할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것은 당원들이 당적 분공을 책임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선봉적역할을 떠나서 혁명과업수행에서 당인의 높은 책임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비롯한 고상한 풍모가 나올수 없는것이다.

당규약에는 당원들이 선봉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데서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태도와 품성들이 전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당규약은 혁명과 건설에서 당원들이 서야 할 위치를 명확히 규제하고있으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앞장설데 대하여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우리 당원들이 생산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서야 할 위치는 대중의 앞장이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는 돌과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기수, 돌격의 나팔수가 되는것이다.

당규약에는 또한 선봉투사로서의 우리 당원들의 활동은 어떤 일에서나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어나가는 투쟁과정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여있다. 실천적모범으로 광범한 대중을 이끄는 당원의 활동은 그들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데 있다.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해야 선봉적역할을 통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이끌수 있으며 따라서 대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선봉투사로서의 우리 당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는 그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며 이 행정에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사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게 된다. 이처럼 당규약의 요구를 사업과 생활의 모든 부문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사업은 당원들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의 하나인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고상한 태도와 품성을 옳게 가지게 하며 당대렬의 정예화를 적극 다그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데 당대렬의 정예화를 정확히 그리고 빨리 실현해나가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당원들이 언제나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시켜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보람찬 사업을 힘있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은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규약을 새롭게 완성하여줌으로써 당대렬의 정예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과 혁명 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완성하신 새로운 조선로동당규약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로동계급의 당규약이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집대성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규약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혁명적당건설을 위한 높은 단계의 과업인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는 지도적지침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은 새로운 당규약을 가지게 됨으로써 그것을 지침으로 하여 당대렬의 정예화를 그 어떤 편향도 없이 가장 빠른 시일안에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당규약의 요구대로 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당대렬의 정예화를 훌륭히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는 사업은 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의 내용과 방법이 옳게 규정되여야만 훌륭히 수행될수 있다. 우리 당은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되도록 하였으며 이 사업을 폭넓고 깊이있게 벌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있다. 당의 지도밑에 사상교양사업에서 형식주의가 없어지고 사상교양의 내용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개선된 결과 당원들속에서는 주체사상교양이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안에서 핵심당원들의 대렬이 늘어나고 모든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령도의 현명성은 당원들의 당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게 한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가 하는것은 조직사상생활과 함께 혁명과업수행에서 나타나게 되며 당대렬의 정예화의 추진정도도 당의 숭고한 위업을 실현하는 실천투쟁에서 표현된다.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수행을 위한 실천활동을 떠나서 당규약상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한다고 말할수 없으며 당대렬의 정예화의 옳은 실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적분공,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당규약상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과정으로 되며 이 실천활동에서 그들이 혁명가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게 된다. 당은 당규약에 제정된 규범과 준칙을 지키는 당원의 모든 활동이 혁명과업을 잘 수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당조직사상생활과 본신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을 밀접히 결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고있다. 이리하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벅찬 투쟁속에서 우리 당 대렬을 정수분자들의 집단으로 꾸리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당원들속에서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 대렬은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전투부대로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전체 당원들이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게 되였다. 오늘 당의 통일과 단결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되고있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또한 당원들속에서 조직성과 규률성의 혁명적기풍이 높이 발휘되여 전당은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산 유기체로 전변되게 되였다. 당의 의도가 당원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당원들의 의사는 제때에 당중앙에 집중되고있으며 당안에 우아래의 기맥이 잘 통하는 하나의 혁명적규률만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이와 함께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게 되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의 실현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완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이룩된 가장 빛나는 승리로 된다.

실로 당규약의 요구를 구현하여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당을 그 어느때보다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세련된 참모부로서의 조선로동당의 위력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 중요한 담보로 되였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선 방대한 혁명과업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의 요구대로 살며 생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여 당대렬의 정예화를 적극 다그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당대렬의 정예화를 힘있게 추진시키는것은 전당의 주체사상화의 본질적요구이며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지금 우리앞에는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어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당과 혁명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열쇠의 하나는 우리 혁명의 핵심력량인 당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그러자면 당원들속에서 당규약의 요구대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은 누구나 다 당규약을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원들속에서 당규약학습을 강화하는것이다.

당규약학습은 규약의 규범과 준칙을 정확히 지키기 위한 첫공정이다. 규약에 제시된 모든 규범과 준칙을 환히 꿰들고있어야 그대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으며 당원의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수행하고 행사할수 있다. 당원들은

당규약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당적수양의 중요한 지침이라는 옳바른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당규약학습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당규약학습을 실속있게 하자면 그것을 실생활과 결부시켜 진행하는것이 필요하다. 실생활과 떨어진 학습은 아무런 의의도 없다. 당원들은 당규약학습을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신입당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당규약학습을 성실히 하며 거기에 제시된 생활 규범과 준칙대로 살며 일하는 습성을 키우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당규약의 요구대로 당생활을 지도하는것은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지도하고 통제하여야 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당조직들의 당생활지도의 모든 방법과 형식들이 당원들로 하여금 당규약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데 이바지하게 작용하여야 당대렬의 정예화를 정확히 실현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당생활총화를 규약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이 당규약에 제정된 조항을 놓고 자기가 진행한 사업과 생활을 일상적으로 총화하게 하며 거기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똑똑히 알고 부족점을 극복해나가도록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리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들은 또한 당원들이 당규약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지 않는 일체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 그것이 자전크건 관계하지 말고 문제를 세워 투쟁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비당적이며 무규률적인 현상이 당대렬에서 조금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며 강한 당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당원들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혁명가로 훌륭히 자라도록 하여야 한다.

맡겨진 본신혁명과업을 수행하는 실천투쟁속에서 당원들을 단련하는것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규약상 의무를 수행하는 당원의 활동은 본신혁명과업수행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실천투쟁과정에 그들은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의 고상한 정신도덕품성을 지니게 된다. 당원의 모든 사업과 생활이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당규약상 의무를 훌륭히 수행하게 할수 있다. 당원들은 본신혁명임무를 잘 수행하는것이 바로 당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이라는 옳은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맡겨진 혁명과업을 훌륭히 완수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침으로써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여야 한다.

우리는 당원들속에서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당대렬의 정예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리 만 조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스물다섯해가 된다.

창성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궁벽한 산골군의 하나였던 창성군을 지방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본보기단위로 꾸리신 빛나는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대한 사상을 새롭게 제시하시였으며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사상과 방침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인 군의 역할을 높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준 독창적인 사상리론이다.

지역적거점을 바로 선정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전략적문제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군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지역적거점으로 설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은 직접 농촌과 로동자구를 지도하며 농민들과 로동자구주민들의 살림에 직접 접근하고있는 행정적인 말단지도단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농촌과 로동자구의 발전은 군기관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군이 사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생활이 높아지는가 높아지지 못하는가가 크게 좌우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6권, 243～244페지)

군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커다란 역할을 한다.

군은 농촌과 로동자구를 직접 지도하는 당과 행정의 말단지도단위로, 지방의 경제문화발전의 종합적단위로 되고있다. 또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군이 자기 사업을 잘하여야 농촌과 로동자구 주민들속에 당정책을 제때에 침투시키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지방의 온갖 조건과 예비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연설에서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모든 군들에서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지대적특성에 맞게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리용하고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방침은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원칙적의의를 가지는 지역적거점에 관한 문제를 혁명실천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빛나게 해결한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이 독창적인 사상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며 공산주의에로 빨리 나갈수 있는 휘황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참으로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인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며 나라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키고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회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들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문헌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을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창성과 삭주, 벽동을 비롯한 평안북도와 전국의 여러 단위들에 대한 실무지도를 통하여 지방 당 및 경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창성군의 모범을 따라 자체의 힘과 지방의 자원에 의거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령도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온 나라의 모든 군들에서 위대한 전환을 이룩하게 한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창성련석회의가 있은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25년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사상과 방침의 정당성과 그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된 빛나는 로정이였으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이 온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서 활짝 꽃피난 자랑찬 력사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성군의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군을 꾸리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창성군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정치적거점으로서의 군의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일군들로 군급기관들이 튼튼히 꾸려지고 군의 정치적참모부로서의 군당위원회의 역할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준비되고있으며 그들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이것은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사상과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창성군의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또한 지방경제발전에서 비약적인 성과가 이룩되였다.

지방공업은 그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되였으며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에 의거하여 다방면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소비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지방자체로 충족시키고있다. 오늘 지방공업은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중앙공업과 함께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농업의 기술개조에서 이룩된 성과를 확대하고 주체농법을 관철하는 사업을 통하여 모든 지방의 농촌경리가 급속히 발전되였다. 특히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서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고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지난날 나라에서 식량을 공급받던 적지 않은 산간군들이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많은 여유량곡을 가지게 되였으며 축산토대도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다. 이 모든 성과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지방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생산을 늘여 인민생활을 빨리 높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여준다.

창성군의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통하여 또한 군소재지들이 규모있고 알뜰하게 꾸려졌으며 농촌리들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개변되였다. 농촌리들에 현대적인 문화주택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여러가지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하게 갖추어졌으며 뻐스화, 수도화, 텔레비존화가 실현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들은 도시부럽지 않게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전변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의 모든 군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지역적거점,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거점으로서의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에 전국의 다른 군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금천군에서도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

금천군은 원래 경제적토대가 미약하고 자연경제적조건이 불리하여 오래동안 자체의 힘으로 군살림살이를 꾸려나가지 못하고 국가의 방조를 받아온 군이였다. 이렇게 뒤떨어졌던 금천땅에서 전환의 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에 의하여 열리게 되였다. 창성련석회의가 있은 직후인 1963년 2월 우리 군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창성군에 비해 땅도 좋고 기후풍토도 좋은 금천군이 창성보다 잘못사는 원인을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군당위원회사업을 개선하고 지방공업과 축산업, 과수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2~3년안에 인민생활을 빨리 높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군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군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를 강화하고 중앙의 유능한 일군들을 파견하여주시는것과 같은 대책을 취해주시였다.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빈터우에서 시작된 우리 군의 지방공업은 오늘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식료공장과 직물공장, 가구공장을 비롯하여 소비품을 생산하는 여러가지 공장들을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상 수요를 기본적으로 충족시켜나가고있다. 군에서는 자체의 자연경제적조건을 옳게 리용하여 원료, 연료기지를 튼튼히 꾸려놓음으로써 지방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

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놓았다.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뜯어먹을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8,000여정보의 유지림을 비롯하여 2만 3,000여정보의 경제림과 근 1,000정보의 과수원을 조성하였으며 여기에서 해마다 여러가지 과일과 산열매들을 많이 수확하고있다. 또한 산간지대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소, 염소, 양, 토끼를 비롯한 풀먹는 짐승들을 많이 기르고 있다.

지금 군에는 자체로 자기 살림살이를 꾸려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고 군소재지와 농촌리들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졌으며 군안의 주민들의 생활도 훨씬 높아졌다.

우리는 실천적경험을 통하여 군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당의 방침대로만 하면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군의 면모를 완전히 개변시킬수 있고 인민생활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지난 25년동안 창성군의 모범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는 전적으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창성련석회의가 밝힌 길을 따라 나가는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지역적거점인 군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여야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여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앨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다.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과 방침은 오늘뿐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항구적인 지침이다. 창성련석회의가 밝힌 길을 따라 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력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군당위원회의 령도적기능을 강화하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군사업의 참모부이다. 군당위원회는 군내의 모든 당조직들을 직접 지도하며 군내의 모든 사업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한다. 지방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를 강화하여야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단위로서의 군의 역할을 높일수 있으며 지방경제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지방경제사업을 직접 지도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지도하며 키잡이 역할을 한다.

군당위원회가 키잡이역할을 잘하여야 지방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군에서 초무연탄을 개발리용한 사업이 잘 말해주고있다. 초무연탄을 개발리용하는것은 무진장한 초무연탄자원을 가지고있으면서도 먼곳에서 고열탄을 실어다가 지방산업공장들의 연료로 쓰고있는 우리 금천군에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섰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방공업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심고리를 초무연탄을 개발리용하는데서 찾고 군당확대집행위원회에서 먼저 종이공장의 열설비를 초무연탄을 쓸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개조하고 그 경험을 다른 공장들에 일반화하며 이와 함께 초무연탄탄광을 새로 개발하기로 토의결정하였다. 군당위원회가 자체의 풍부한 초무연탄을 가지고 지방산업공장들의 연료문제를 풀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두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모든 지방산업공장들의 열설비를 초무연탄을 쓸수 있게 현대적으로 개조하였으며 자체의 연료기지도 튼튼히 꾸려놓았다. 경험은 군당위원회가 선후차를 옳게 가리고 선차적인 과업부터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풀어나가면서 키잡이를 잘한다면 얼마든지 짧은 기간에 지방경제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군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군행정경제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는것이다.

지방공업과 농촌경리, 지방건설과 지방상업 등 지방경제사업은 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군안의 다른 행정경제기관들이 직접 조직하고 집행한다. 군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은 지방경제사업의 주인이며 그 직접적담당자들이다. 군행정경제기관들과 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따라 지방경제발전이 크게 좌우되게 된다.

군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책임성과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야 한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고 군살림살이를 꾸리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의 사상에 달려있다.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며 헌신적복무의 정신이다. 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조직사업과 지휘를 짜고들어야 하며 군안의 자연경제적조건과 내부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야 한다.

군행정경제일군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그들속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며 지방경제발전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은 지방의 경제적락후성을 퇴치하고 여러 경제부문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주민들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결코 헐하게 수행될수 없으며 오직 지방자체의 힘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에만 자체의 힘과 자원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으며 지방경제의 빠른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한 때 지방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된다는것은 우리 군에서 기초화학공업기지를 꾸린 과정이 잘 보여준다. 기초화학공업기지를 꾸리는 사업은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하였으나 물질기술적토대가 미약한 우리 군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였다. 그러나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은 부족한 자재는 찾아내고 없는 설비는 만들면서 군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을 가지고 기초화학공업기지를 훌륭히 꾸려놓았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서는 긴장한 원료자재문제를 풀고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었으며 지방공업전반을 빨

리 추켜세울수 있었다. 경험은 행정경제지도일군들이 무슨 일이든지 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는다면 적극성과 창발성도 나오고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풀수 있는 묘술과 방도가 나오게 되며 지방경제발전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행정경제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군안의 부원과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함으로써 지방경제의 발전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광범한 대중을 적극 발동시키는것이다.

지방경제발전의 직접적담당자는 그 지방 인민들이며 지방경제발전에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는것도 다름아닌 그들자신이다. 인민들은 자기 지방의 자연경제적조건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며 그들에게는 지방의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 풍부한 경험이 있다.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는 바로 여기에 지방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광범한 대중을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속에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대중동원의 위력한 방법이며 정치사업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다. 오늘 지방공업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문제도, 자체의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는 문제도, 지방경제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는 문제도 결국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어떻게 벌리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당조직과 일군들은 대중을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조직동원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활발히 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며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와 걸린 문제를 제때에 포착하고 거기에 정치사업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정치사업의 성과가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경험은 군책임일군들이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당면한 경제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정치사업을 벌릴 때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킬수 있고 경제과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신작칙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방법이다. 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것은 대중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는데서 백마디의 말보다 더 큰 감화력을 가진다.

지도일군들은 사업과 생활, 로동과 학습의 모든 면에서 이신작칙하여야 하며 어렵고 힘든 과업이 제기될 때마다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나가야 한다. 군지도일군들이 이신작칙하는데서 군당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군당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면 군안의 다른 일군들이 뒤따르게 되며 대중이 스스로 발동되게 된다.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것은 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같이 풍요하고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우리는 창성련석회의에서 제시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고 공산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유 시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훌륭한 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이룩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창시와 그 전면적인 확립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킨 일대 혁명이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대규모 사회주의경제를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추진시켜올수 있었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식의 독창적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빛나게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앞에 나서는 영예로운 임무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틀어쥐고나가는 여기에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계속 확고히 보장하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위력한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기 위한 곧바른 길이 있다.

* *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고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성과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어떻게 보장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와 혁명의 근본리익에 맞게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가 못하는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다그쳐나가는가 하는 문제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을 위한 경제관리, 인민대중에 의한 경제관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여야만 광범한 근로자들에게 경제활동에서의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줄수 있으며 기술을 굶임없이 혁신하고 사회적로동생산능률을 빨리 높여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집체적령도는 민주주의를 발양시키는 기본형식이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자면 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고 체계화하여 문제해결의 방도와 대책을 세우며 그것을 대중의 집체적지혜와 창조력을 발동하여 집행해나가는 형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바로 그러한 형식이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배제하는 집체적령도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

며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는 집체적령도를 통하여서만 참답게 발양될수 있으며 집체적령도는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철저히 실현될수 있다.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질로부터 제기되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이 경제관리의 주인이기때문에 기업관리권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에 널리 참가시키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 리익을 반영하여, 대중의 집체적 힘과 창의창발성에 의거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본성적요구일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하다.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집단주의와 단결과 협조의 관계이다.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실질적으로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복무하며 생산자대중은 생산을 지도하는 사람들의 지휘를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활동을 적극 협력하게 하여야 집단주의와 단결과 협력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다.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는 사회주의사회에서뿐아니라 공산주의사회에서도 확고히 보장되여야 할 경제관리의 합법칙적요구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원만히 실현하자면 경제관리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경제관리는 일정한 체계를 통하여 실현되는것만큼 경제관리체계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 문제의 성과적인 해결여부가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 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하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의 경제관리형태로서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생산자대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키는 경제관리체계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사업체계에서는 공장당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으로서 공장을 관리운영하며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관리에 참가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6권, 500페지)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기업관리에 자유롭게 참가하여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의사와 요구를 제기하며 자기들의 리익에 맞게 경제관리가 진행되도록 통제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생산자대중의 이러한 기업관리권을 충분히 행사하게 하는것이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중요내용으로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자대중의 기업관리권이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통하여 행사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기본핵을 이룬다.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이다.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정치조직이며 해당 단위에서 당경제정책의 성과적인 관철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당위원회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처리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당위원회의 지위와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그의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발양시키기 위한 전제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유화원칙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그것은 결코 계급성을 떠난 무원칙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것이지 그 어떤 다른것으로는 될수 없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적, 로동계급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옳바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해당 당조직들의 구성원칙으로 보아도 생산자대중의 기업관리권을 정확히 대표하는 훌륭한 형태이다. 경제기관, 기업소 당위원회의 구성성원들은 인민대중속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는 당원들의 민주주의적의사에 의하여 선거되며 거기에는 당일군들, 행정경제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 핵심적인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이 다 망라되게 된다. 그러므로 공장,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생산자대중과 일상적으로 직접 련결되여있으며 그들의 기업관리권을 대표하게 된다. 이로부터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광범한 생산자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제때에 받아들일수 있게 되며 그것을 구현하여 경제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옳은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된다. 이것은 바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통하여 생산자대중에게 기업관리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당위원회의 활동방식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생산자대중에게 기업관리권을 확고히 보장하는 훌륭한 형태이다.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는 집체적지도기관, 정치적지도기관이기때문에 그 활동에서 개인의 독단과 주관을 철저히 배격하고 집체성을 보장하는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으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정치적령도를 실현한다. 당위원회는 늘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고 문제해결의 방도와 대책을 군중과 토의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대중의 창발적의견들을 종합하여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역시 군중에 의거하여 장악통제하게 된다.

경제관리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는 생산자대중에게 기업관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뿐아니라 그들을 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투쟁에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킨다.

생산자대중이 생산발전과 기업관리개선을 위한 실천투쟁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정도를 가늠하는 기본척도의 하나로 된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마비시킨다면 그러한 경제관리는 관료주의적인 경제관리이며 반대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면 그러한 경제관리는 민주주의적인 경제관리로 된다.

생산자대중이 제기된 경제과업수행에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휘하게 하자면 그들에게 제기된 혁명과업의 목적과 의의, 수행방도들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 수행에로 동원하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며 경제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하에서 당위원회는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집체적으로 토의결정하고 분공을 정확히 조직함으로써 당, 근로단체, 행정경제 책임일군들이 자기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위원회에서 토의되고 분공된데 따라 당일군들은 아래 당조직들과 당원들을 발동하고 직맹,

사로청 등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은 근로단체들과 동맹원들을 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제기된 경제과업의 수행을 정치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고있다. 그리고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행정지휘성원들은 당위원회에서 분공된데 따라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열의가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훌륭한 결실을 맺게 하고있다.

이것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야말로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는 집체적령도의 가장 훌륭한 형태이라는것을 말해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관리에서의 집체적지도를 옳게 결합시킨 경제관리체계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경제를 중앙집권적으로,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것은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은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당과 국가의 통일적인 중앙집권적지도가 확고히 보장될 때에만 참답게 실현될수 있다.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고 하면서 중앙집권제를 약화시키거나 반대로 중앙집권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대중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키는것은 모두가 민주주의적원칙, 집체적지도원칙과는 인연이 없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기업관리운영에서의 집체적지도와 옳게 결합시킴으로써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에 맞게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훌륭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군중로선을 구현하고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가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에서 실현되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 그 구현인 국가의 결정과 지시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실현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계획을 세우는데서도 우에서 아래에 내려가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에 의거하여 당정책과 국가의 요구를 생산자대중에게 알려주고 그들과 널리 토의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대중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초안을 세우고 당위원회의 집체적심의를 거쳐 중앙에 올려보내게 된다. 중앙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당이 규정한 경제발전의 총적방향에 따라 전국가적인 균형을 정확히 보장할수 있고 모든 부문들과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련계를 세부분에 이르기까지 다 맞물릴수 있도록 유일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아래에 내려보내게 된다. 유일국가계획이 기업소에 내려오면 당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그 수행방도와 대책을 결정하고 다시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함으로써 생산자대중이 국가계획을 자신의것으로 접수하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서게 한다.

이것은 대안의 사업체계가 당과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기업관리에서의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와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참답게 실현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로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제관리체계라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보장하는 목적은 생산자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있다.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의 결과는 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과학

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말겨진 경제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높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생산자대중에게 행복한 로동생활과 물질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면 대중의 리해관계와 요구가 원만히 실현되여 그들이 기업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며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가 훌륭히 보장되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대중을 기업관리에 널리 참가시켜 그들의 집체적 지혜와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에 기초하여 경제조직사업을 객관적경제법칙과 생산의 과학기술적요구대로 진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경제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한다.

현대적인 사회주의적생산에서 생산과정은 곧 기술공정이며 그것은 계획적으로 조직되고 추진되게 된다. 때문에 생산지도는 반드시 기술적지도로, 계획적지도로 되여야 한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에 의하여 생산을 조직지휘함으로써 현대적인 사회주의적생산의 요구에 맞게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와 계획적지도를 강화할수 있게 한다. 통일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체계는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이 생산과 직접 관련된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틀어쥐고 지도하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한다. 또한 계획화사업과 생산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을 서로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하여 생산지도에서 계획성을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계획화사업은 생산, 기술 지도와 련관되여야 생산의 현실과 기술준비정형을 비롯한 제반 기술적요인을 정확히 반영한 현실적인 계획화사업으로 될수 있으며 생산지도, 기술지도는 계획에 의하여 빈틈없이 맞물려져야 생산과 기술지도에서 엄밀한 계획성을 보장할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생산조건과 생활조건도 우에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정연한 체계에 따라 더욱 개선해나가게 된다.

이처럼 대안의 사업체계는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한다.

이 모든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경제관리에서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빛나게 구현되여 그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는 위대한 주체사상과 군중로선을 구현한 공산주의적경제관리형태로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가장 위대한 생활력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한데서 나타나고있다.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정복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보람차고 성스러운 투쟁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적원

칙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곡절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이 근본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의 당위원회들이 당중앙위원회의 령도밑에 해당 단위의 최고지도기관으로 활동하게 되였으며 중앙으로부터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경제관리에서 당적령도의 유일성과 통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당의 정치적령도가 대중속에 깊이 침투되여 당과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루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정책들이 철저히 관철되게 되였으며 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권위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 바로 이것이 대안의 사업체계의 빛나는 위대성이며 바로 여기에 그 불패의 생활력이 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혁명적인 변혁을 일으킨데서도 나타나고있다.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옳게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이 문제가 나라의 생산력발전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공고히 하며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정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이 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경제관리분야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도 없게 된다.

대안의 사업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된 결과 지난날 지배인유일관리제에 기초하여 행정기술적지도를 기본으로 하던 관료주의적이며 수공업적인 경제관리로부터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 경제관리에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경제관리에서의 새로운 전환에 의하여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 웃사람과 아래사람, 생산자들 사이의 단결과 협조의 관계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최상의 높이에서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한 여기에 그 무엇과도 비길수 없는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력이 있으며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될수록 더욱더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되는 튼튼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당적지도가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이 일어났다.

대안체계가 열어놓은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한 결과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14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었으며 오늘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적극 추진시켜나가고있다.

참으로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며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발양시키고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경험은 대안의 사업체계야말로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에서뿐만아니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과정에 계속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대한 경제관리체계이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와 혁명의 근본리익에 맞게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해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대안의 사업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게 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다.

증산,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방도

최 원 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언제나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다.

증산과 절약은 주어진 로력과 설비, 같은 자재와 자금으로 생산을 늘이며 사회적로동은 될수록 적게 들이면서도 보다 높은 경제적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다. 증산은 생산물의 량적증대를 가져오며 절약은 생산물의 원가저하와 생산장성의 가능성을 가져온다. 증산과 절약에 의하여 사회적생산이 빠른 속도로 장성하게 되고 사회순소득도 빨리 높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이며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극력 아껴써야 한다. 아무리 풍부한 물질적원천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생산을 늘이지 않거나 인민의 피땀으로 이루어놓은 재부들을 되는대로 다루고 쓴다면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없으며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도 없게 된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있는 로력과 설비, 같은 자재와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사회적부를 끊임없이 늘일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적극 다그칠수 있다.

우리앞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야 할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오늘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시기 증산과 절약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나라의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이 방대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건설을 더욱 높은 속도로 다그쳐야 하며 그러자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

현시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적극 다그치게 한다.

오늘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제3차7개년계획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전제로 하고있는 경제건설계획이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투자를 적게 하고도 짧은 기간에 더 많이 생산할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경제건설이 심화됨에 따라 생산을 더욱 늘이려면 새로운 생산능력을 많이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생산능력만 늘이고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잘 리용하지 않는다면 구경에는 막대한 사회적 로동과 재부를 랑비하게 되며 물질적부의 절대적인 장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경제건설도 빠른 속도로 추진시키지 못하게 된다. 경제건설을 다그쳐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며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올바른 지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위력한 중공업과 현대적인 경공업,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마련해놓은 경제토대는 대단하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면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 문제는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야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같은 자원으로 생산을 늘이며 생산요소들을 극력 적게 쓰거나 아껴쓰게 되면 기계설비들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고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을 랑비하는 현상들을 적지 않게 없앨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 새 전망계획수행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증산절약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있는 로력과 설비, 같은 자재와 자금으로 생산을 늘이면서도 그것을 될수록 적게 쓰기 위한 투쟁이다. 주어진 조건에서 생산을 장성시키고 절약하기 위한 사업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며 기술혁신을 일으켜야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릴수록 생산의 장성이 이룩될뿐아니라 경제조직사업을 비롯한 경제관리운영사업이 보다 개선되게 되고 기계설비의 기술적개조, 앞선 기술공정과 생산방법의 도입과 같은 사업들이 적극 추진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더 잘 째이게 되고 마련된 경제적밑천이 끊임없이 보강되게 되며 나아가서 그 위력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이미 마련된 경제적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새로운 생산능력을 더 빨리 조성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을 적극 다그치게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기간공업부문의 중요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부문들에서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보다 능률적이고 정밀한 현대적설비로 개조하고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과 10만톤 능력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대규모의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대상들을 건설하게 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진행하게 될 새로운 생산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원천은 국민소득에 의하여 형성되는 축적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축적은 전체 근로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전망적으로 향상시키고 물자와 자금의 예비를 조성하는데 리용되게 된다. 그러므로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생산능력확장을 위한 기본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축적을 더 많이 늘여야 한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축적을

더 많이, 더 빨리 증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축적은 사회총생산물의 규모가 커지는데 따라 장성하지만 사회총생산물의 규모가 일정한 조건에서도 생산수단의 소모가 적어질수록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료, 연료, 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고 기계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리면 제품단위당 생산수단의 소모량이 적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제품의 원가가 낮아지고 사회순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계통적으로 장성시키면서도 생산적건설을 위한 축적을 더욱 증대시킬수 있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생산을 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제기되는 다양한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킬 때 개별적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물론 전사회적범위에서 사회적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이처럼 현시기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축적을 증대시키고 많은 설비와 자재,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여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생산능력확장을 더욱 원만히 진행할수 있게 한다.

이 모든것은 현시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제3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할 때 끊임없는 생산적앙양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이미 뚜렷이 확증되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은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제시된 방대한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1956년 12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증산하고 절약하여 5개년계획을 기한전에 넘쳐완수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증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2년반이나 앞당겨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인 기백으로 증산절약투쟁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우리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하였으며 련이어 제기되는 경제건설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이 심화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당이 제시한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라는 투쟁구호를 받들고 증산과 절약의 예비를 탐구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 경제건설을 끊임없는 높은 속도로 다그쳐왔으며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였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지난 기간 증산절약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증산절약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고 증산과 절약 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의 모든 자원을 사회주의건설에 동원하여야 한다.》

현시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로동생산능률을 높이며 로력을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오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초소에서 요구되는것은 로력이다. 로력의 랑비현상을 없애고 있는 로력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야 새 전망계획 수행에 요구되는 로력문제를 원만히 풀수 있으며 로동생산능률을 높일수 있다.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로동생산능률을 공업부문에서는 1.6배, 기본건설부

문에서는 1.5배로 높이며 공업총생산액 증가의 80%이상을 로동생산능률의 장성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생산로력과 비생산로력, 직접로력과 간접, 보조 로력사이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고 로동조직을 빈틈없이 하며 로동정량사업을 바로하고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로동생산능률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여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는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있는 설비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며 자재와 자금을 극력 절약하는것이다.

오늘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설비들의 생산능력은 매우 크며 따라서 소비하는 원료와 연료, 자재와 자금도 대단히 많다. 지금 있는 설비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고 자재와 자금을 1%만 절약하여도 그것은 생산과 건설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모든 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공정의 기술장비가 끊임없이 현대화되는데 맞게 설비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잘하고 작업조건을 원만히 지어주어 기계설비들을 만가동시키며 설비마다에 만부하를 걸어 있는 생산능력을 남김없이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석탄과 전기를 비롯한 연료, 동력과 원료, 자재를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모든 국가경제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설비리용방법을 개선하고 원료, 자재와 로력을 최대한 절약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비생산적지출을 극력 줄임으로써 제3차7개년계획기간에 원가를 해마다 평균 공업부문에서는 3.4%, 기본건설부문에서는 4.6%이상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생산을 발전시키며 경제절약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물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생산물의 량적장성과 같은 의의를 가지며 막대한 사회적로동을 절약하고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 제품의 질제고는 곧 증산하고 절약하는것으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고 생산에서 기술공정의 요구와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의 규격화, 표준화 사업을 잘하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정성담아 품위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생산물의 질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있는 로력과 설비, 같은 원료와 자재로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증산절약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나라의 귀중한 경제적밑천이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효과있게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의 참다운 주인입니다. 근로자들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하게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으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남의 일처럼 되는대로 하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수도 없고 자신들이 잘살수도 없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8권, 520페지)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상한 풍모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재부가 다 인민의 공동소유이며 그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

키기 위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국가와 사회의 재부를 아끼고 사랑할수 있으며 증산절약투쟁을 적극 벌려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킬수 있다.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과 증산절약투쟁은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떠나서는 증산절약투쟁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나라의 무궁번영과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철저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이 제시한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으며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노력하게 할수 있다.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인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여기며 자신들의 창조적로동으로 마련한 귀중한 재부들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함께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인 살림살이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는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인민의 생명재산을 목숨으로 지키고 부대의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나간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모범을 본받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는 근로자들의 생산 및 경영 활동에서 통일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규률과 질서가 없는곳에서는 사회적로동의 효과성을 높일수 없으며 확대재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없다. 특히 근로자들의 머리속에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남아있고 사회적생산이 날을 따라 큰 규모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모든 근로자들을 당과 국가의 의사대로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 할수 있으며 물자재산의 랑비현상을 미리 막고 증산절약투쟁을 더욱 강화할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관리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규정들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련합기업소와 아래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계획화사업을 개선하고 생산 조직과 지휘, 기술관리, 설비관리, 자재보장 사업, 로동행정사업, 재정관리사업, 기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총화와 통제 등 기업관리와 그 운영의 모든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담은 련합기업소관리운영규정과 국영기업소독립채산제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경제관리 및 기업관리운영과 관련한 규정들을 변천된 오늘의 환경에 맞게 더욱 완성하여야 한다.

경제관리규정과 기업관리운영규정들을 잘 만드는것과 함께 나라와 인민의 귀중한 공동재산을 아끼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그릇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한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라살림살이야 어떻게 되든 원료와 연료, 자재를 랑비하거나 되는대로 쓰게 되면 애써 마련해놓은 재부를 효과적으로 리

용할수 없으며 막대한 사회적로동의 랑비를 가져오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칠수 없게 된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제정된 제도와 질서대로 움직이고 경제관리규정과 기업관리운영규정들을 엄격히 지키게 함으로써 온갖 랑비를 철저히 막고 더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과학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는 오늘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야 증산하면서 절약하고 절약하면서 증산하여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인 수행을 보장할수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을 낮추고 보다 능률적인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을 받아들일수록 증산절약의 예비가 많이 나오게 된다.

기술혁명을 적극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행정사업을 잘 짜고들며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하여금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비롯한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있는 로력과 설비, 같은 자재와 자금으로 더 많이 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과학적발명들을 많이 할수 있도록 보장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증산절약의 예비를 제일 잘 알고있는 것은 광범한 근로자들이며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의 담당자도 그들자신이다.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려 근로자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높이 발양시킬 때 증산절약투쟁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 적극 참가시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지금 리용하고있는 기술을 보다 선진적인것으로 개선하고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적게 쓰면서도 생산을 늘이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들을 많이 찾아내도록 하여야 한다.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산절약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경제를 직접 지도하고 관리하는 우리 일군들에게 크게 달려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절약투쟁을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할 임무가 다름아닌 경제지도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경제조직사업과 생산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며 근로자들을 증산절약을 위한 투쟁에로 옳게 이끌어나가야 한다.

증산절약을 위한 투쟁은 많은 힘을 넣어야 하는 투쟁이며 그 과정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도 제기될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경제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제기된 문제를 솔선 앞장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최소한의 지출로 최대한의 경제적효과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게 하여야 한다.

증산하면서 절약하고 절약하면서 증산하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정책적요구이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증산절약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며 제3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남조선《반공문학》의 민족반역적정체

은 종 섭

오늘 남조선의 부르죠아반동문학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문화적수단으로 리용되면서 민족의 지향과 리익에 배치되는 반역의 길을 걸고있다.

남조선부르죠아반동문학의 민족반역적정체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분렬의 사상적무기인 반공의 구호를 문학분야에 고스란히 받아들여 반공사상을 고취하는 《작품》들을 마구 만들어내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반공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분렬하여 통치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무기입니다. 반공에 물젖으면 주체를 잃고 애국과 매국을 가려볼수 없게 되며 민족의 자주성과 리익을 지켜낼수 없습니다. 반공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평화를 거부하는 대결과 분렬의 리념이며 전쟁의 리념입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7～28페지)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반공사상에 물젖으면 애국과 매국을 가려보지 못하고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며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반대하고 대결과 분렬을 고취하며 평화를 거부하고 전쟁을 선동하는 범죄의 나락에 굴러떨어지게 된다. 반공사상을 구현한 남조선의 부르죠아반동문학은 그것을 확증하여준다.

남조선의 부르죠아반동문학은 해방직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전기간 미제와 그 앞잡이 괴뢰도당들의 반공소동에 맞추어 생활의 진실을 외곡하고 허위와 기만, 날조로 우리 공화국의 가장 우월한 인민적인 사회제도와 인민의 참다운 아들딸들인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비방중상하여왔다.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은 날을 따라 더욱 거대한 힘으로 남조선인민들속에 미치는 우리 공화국의 영향력을 막으며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는 반공의 장벽을 지탱해보려고 계속 비렬한 반공, 반공화국 소동을 벌리는 한편 공산주의를 《리념》적으로 《극복》한다는 망상밑에 반공책동을 악착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와 괴뢰도당의 반공선전의 도구로 되고있는 남조선의 반동문학은 주로 공산주의자들의 인격을 터무니없이 헐뜯는데 매달리던 지난날과는 달리 공화국의 인민적인 사회제도와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비방에 열을 올리면서 반공대결의식을 고취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오늘 남조선부르죠아반동문학에서 반공사상은 특히 《분단문학》이라고 불리우는 경향의 작품들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남조선문학에서 《분단문학》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기는 하나 대체로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생긴 문제를 다루는 작품들을 통털어 이르는 말로 쓰이고있다. 여기에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과 북남관계문제를 취급한 작품들을 비롯하여 해방후의 각이한 시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들어있다. 물론 이러한 작품들의 사상적 경향성이나 지향성은 다 같지 않다. 그중에는 외세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겪고있는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보여주는, 어느 정도 민족적량심이 엿보이는 작품들도 있으며 민족분렬의 장본인인 미제에 대한 저주와 규탄의 감정을 일정하게 반영한 애국애족적인 지향이 보다 뚜렷한 작품들도 없지 않다. 그러나 많은 작품들은 《반공리념》을 구현한것으로서 주로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의 참된 인간적면모를 제멋대로 외곡하고 악랄하게 헐뜯는데 형상의 초점을 돌리고있는 반동적인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은 조

국해방전쟁을 취급하는 경우에 흔히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인 우리 공화국의 인민적시책과 진정한 인민의 무력으로서의 우리 인민군대의 숭고한 정치도덕적풍모를 비방중상하고있으며, 조국통일문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공화국정부의 애국애족적인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제안들을 헐뜯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분렬책동을 분칠하는 내용으로 엮어져있다.

남조선의 《반공문학》은 애국과 매국을 전도하고 민족내부에 대결과 분렬, 전쟁을 고취함으로써 나라와 인민 앞에 씻을수 없는 민족반역적인 범죄를 저지르고있다.

반공사상을 고취하고있는 남조선반동문학의 민족반역적정체는 무엇보다도 애국과 매국을 가려볼수 없게 만들며 나아가서 그것을 전도하는데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일반적으로 애국과 매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외세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립장과 태도에 의하여 구별된다. 외세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고 지켜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애국이고 일신의 안락만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내맡기는것은 매국으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성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여 온갖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견결히 싸우는 투사들이며 따라서 진정한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참된 애국자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누가 진정한 애국자인가 하는것은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해 일제와 미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남김없이 증시되였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을 때 조국광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한것은 다름아닌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자,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이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해방후 첫날부터 남조선에서 미제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여왔다.

오늘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공화국북반부의 상반되는 두 현실은 우리 나라에서 누가 진실로 애국을 하고 누가 매국을 하는가를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공사상에 물젖은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저들의 《작품》이라는데서 그것을 감히 외곡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소설 《돌머리고개사람들》에서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상징화하여 취급하면서 《이쪽》(남조선을 의미)에 외국인이 틀고앉아있는것처럼 《저쪽》(공화국북반부를 의미)에도 그 어떤 외국세력이 뻗쳐있으며 그것이 분렬의 원인으로 되고있는듯이 묘사한것은 그 한 실례이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자주와 예속의 판이한 현실이 펼쳐져있으며 공화국정부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자주성을 철저히 견지하고있다는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작품》이 마구 나오는것이 작가들의 극도의 정치적암둔이나 무스의 결과가 아니라는데 있다. 그것은 미제의 식민지로 전락된 남조선사회의 반동적, 반인민적 성격을 가리우며 남조선인민들로 하여금 애국과 매국을 가려볼수 없게 하고 그들속에 미치는 공화국의 영향력을 막고 날로 높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투쟁기세와 조국통일기운을 억눌러 보려는 악랄한 책동의 일환으로 되는것이다.

애국과 매국을 뒤섞어놓고 전도하는 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취급한 작품들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은 우리 인민을 영원히 노예화하고 전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완전히 집어삼키려는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싸운 영웅적조선인민의 정의의 전쟁이였다. 조국해방전쟁의 정의적성격은 건전한 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너무나 명백한것이였으며 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제국주의의 선전에 기만당했던 사람들에게도 점차 뚜렷한것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인민들이 해방후 40여년간 피의 교훈을 통하여 침략자로서의 미제의 진면모를 똑똑히 파악하게 되고 반미자주화를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가운데 최근 남조선에서 지난 조선전쟁의 성격과 발발원인에 대한 외곡된 리해를 재검토하는 기운이 커가는것도 이러한 추이를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공장단에 춤을 추고있는 남조선의 반동적문학인들은 대양건너 수천마일 떨어진 남의 땅에 사단과 군단들을 끌고와서 무고한 우리 인민을 마구 학살한 미제침략군이 감행한 천인공노할 만행은 《방어》이고 제 나라, 제땅에서 민족의 생존과 자주권을 지켜싸운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벌린 영웅적투쟁은 《침략》이라고 하는 진도된 론리를 저들의 《작품》이라는데서 꺼리낌없이 되풀이하고있다.

또한 일부 작품들은 전쟁이 조선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상처와 그 고통을 파헤친다고 하면서 여기에 상투적인 반공의식을 끌어들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가 마치도 인민군대가 광활한 남반부지역을 해방하였을 때 자기 세상을 찾은 《머슴군들과 가난한 농군》들이 《무분별》하게 마을사람들은 《징벌》한 결과인듯이 묘사한 《설야행》과 같은 소설, 미제의 원자탄바람에 고향을 떠나 남으로 끌려간 《리산가족》의 고통을 엉뚱하게 우리와 련결시켜놓은 《겨울할미새》와 같은 소설들이 그러한 경향의 작품들이다.

전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겪게 된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전적으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기여들어 전쟁을 일으켰으며 우리 인민에게 형언할수 없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한 미제침략자들에게 있다. 털끝만한 민족적량심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도저히 외면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이런데는 눈을 감고 전쟁이 남긴 상처만을 헤집으면서 그 원인이 마치도 민족내부에서 호상 《살륙전》이 벌어진데 있는듯이 사실을 날조하여 《묘사》하고있으며 지어 미제와 그 추구들이 감행한 범죄적만행과 같은것을 해방된 남조선의 가난한 인민들도 저지른듯이 조작해내고있다. 이것은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저지른 범죄적만행을 감싸주고 비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애국과 매국을 전도하는 남조선《반공문학》의 범죄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찬란한 현실을 흑심하게 외곡묘사한 작품들에서 가장 악랄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저마다 자기의 재능과 지혜를 활짝 꽃피우면서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와 날조로 사실을 전도하는데 이골이 난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은 소설 《노을》, 영화문학 《땅울림》과 같은 《작품》들에서 우리 공화국에는 자유가 없고 남조선에는 그 무슨 《자유》가 있는듯이 꾸며내였다. 이것은 사실상 파쑈의 란무장으로, 인권의 불모지대로 화한 반인민적인 남조선사회를 미화분식하고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한것으로서 자그마한 민족적량심마저 없는 미렬한 매문가들의

민족반역행위이다.

남조선《반공문학》의 민족반역적정체는 다음으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 대신에 대결과 분렬을 고취하는데서 드러나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업이다.

조국을 통일하지 않고서는 온 겨레가 민족의 분렬로 인한 고통과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나라의 통일적발전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유구한 세월을 두고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열망이며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민족적량심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이나 해외에 살고있건 관계없이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지향해나가는가, 대결과 분렬의 길로 나가는가 하는것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되고있다.

문학도 마찬가지이다. 문학인이라는 사람의 가슴 한구석에 민족적량심이 다소나마 살아있다면 용기가 부족하여 민족의 단합과 통일에 도움되는 작품은 쓰지 못할망정 대결과 분렬에 부채질하는 고약한짓은 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의 적지 않은 부르죠아반동작가들은 자기의 글을 대결과 분렬의 리념인 반공의식의 도해장으로 만들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결의식을 집요하게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의 한 반동작가는 《조선일보》에 발표한 《글》에서 공화국북반부와의 대결에서는 체육경기이건 무엇이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남북대결을 부르짖었다. 여기에서 스쳐버릴수 없는것은 우리 나라의 북반부와 남반부를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부르고있는것이다. 북과 남을 서로 다른 《나라》라고 부르는것은 남조선부르죠아반동문학에서 드문히 찾아볼수 있는 현상으로서 반공과 민족분렬의식에 중독된 반공광신자들의 반민족적인 사상정신상태를 그대로 표현해주는것이다.

분렬과 통일에 관한 문제를 취급한 남조선의 부르죠아반동문학은 흔히 통일이 료원하고 지어 불가능한것처럼 묘사하면서 미제와 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합리화해나서고있으며 민족분렬의 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듯이 사실을 전도하고있다. 《둘머리고개사람들》이라는 소설이 바로 그러하다.

이 소설에서는 둘로 갈라진 둘머리고개사람들의 이야기에 비겨 북과 남으로 갈라진 우리 나라 현실을 상징적으로 다루고있다. 작자는 서로 련관이 없는 몇개의 토막이야기들로 엉성하게 꾸며놓은 이 작품에서 종교문제, 공화국북반부령해를 침범한 남조선의 어선과 관련된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 공화국의 정책과 현실을 터무니없이 외곡비방하면서 반공넉두리를 펼쳐놓고있다. 그중에서도 중심을 이루는것은 북과 남의 대화문제를 취급한 부분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북과 남의 대화를 주동적으로 발기하고 그것이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로, 북과 남의 불신을 제거하고 민족적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대화로 되게 하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였다. 이로부터 우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들을 거듭 제기하고 커다란 아량과 인내성을 가지고 대화를 성공에로 이끌기 위하여 온갖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만일 문학작품에서 북과 남의 대화문제, 대화에 대한 자세문제를 다룬다면 대화에 대한 우리의 립장과 방안에서 어느 한 측면만이라도 반영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대화에 대한 우리의 립장과 방안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면하면서 덮어놓고 대화파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식의 외마디말을 곱씹고있다. 그러면서 소설은 대화

의 파탄은 환경이 서로 다른것만큼 어쩔수 없는 문제이며 따라서 타협과 재결합은 묘원하다는 결론을 내리고있다. 이것은 사실 문학작품이라기보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그대로 옮겨놓은 서툴게 조작된 반공선전문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러한 실례는 이른바《리산가족》문제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꾸며내여 우리가《팀 스피리트》를 걸고 대화를 중단시켰다고 비난하는 괴뢰안전기획부의 목소리를 그대로 되뇌인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반공문학》이 고취하는 대결과 분렬의식은 민족을 등진 반동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고있는 작자들의 반인민적립장에 기초를 두고있다. 《분단문학》의 작가들이 작품의 주인공을 공화국북반부에서 청산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로 설정하고 그들의 립장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있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분단문학》에서는 이른바《리산가족》문제를 취급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신통히도 거의 해방직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청산당하고 남으로 도주한 악질적인 지주계급출신들로 설정되고있다. 《별》, 《북부의 겨울》과 같은 작품이 다 그러하다. 《북부의 겨울》에서는 평안도의 어느 한 고을에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농민들을 착취해먹다가 해방직후 월남도주한 악질지주놈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묘사하고있다.

이것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을 선동하는 남조선반동작가들의 반역적행위가 본질에 있어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계급적적대의식에 기초하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나라의 통일과 같은 민족공동의 중대한 문제를 작품에서 다루면서 그것을 민족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들에게 악행을 가하고 제 고향에서 살수 없어 도주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의 립장에서 그려나가는것은 단합과 통일이 아니라 민족내부에 불신과 대결, 나아가서 전쟁을 부추기고《승공》야망을 고취하는것으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단합과 통일을 이룩해야 할 엄숙한 민족사적요구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서는 남조선《반공문학》의 이러한 반역행위는 민족과 후대 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으로 된다.

남조선《반공문학》의 민족반역적정체는 특히 전쟁을 공공연히 선동하는데서 가장 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오늘 미제와 군사파쑈도당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남침위협》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남조선강점 미군을 증강하고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배비하며 괴뢰군의《현대화》를 다그치고있다. 미제는 핵무기의 숲으로 뒤덮인 남조선에서 해마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다. 끊임없이 감행되는 군사연습소동은 새로운 조선침략전쟁도발을 위한 위험한 전주곡으로 되고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하에서 반공에 환장한 남조선의 반동작가들이 저들의 이른바《작품》이라는데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로골적으로 부르짖고있는것은 조국강토를 황폐화하고 우리 민족을 멸족시킬 핵참화의 위험에 몰아넣는것도 서슴지 않는 천추에 용납 못할 민족반역행위로 되는것이다.

소설《북부의 겨울》에서 작자는《…휴전은 로인을 아내잃고 자식잃고 고향마저 빼앗긴채 영영 울게 하는 한마리 두견새의 신세로 만든것이였다.》라고 정전협정체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으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을 다시 일으킬것을 로골적으로 선동하고있다. 소설은 빼앗긴 땅생각에 싸다니다가 전연의 괴뢰군초소에 나타나게 된 청산된 지주 박노을이 괴뢰군중대장인《나》를 향해《대화가 안되문 살륙의 포성이래두 펑펑 울려퍼지야 돼.》라고 악의에 차서 부르짖은 다음 고향으로 간

다고 미친듯이 눈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물론 작자는 이 소설에서 정신착란자를 그리지 않았다. 작자는 소설에서 이 광기어린 인간을 각별한 동정을 기울여 묘사하고있는데 여기에는 《리산가족》과 통일문제에 대한 작자의 반민족적견해가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전쟁열을 고취하는 반공광신자들의 머리속에서는 《승공통일》야망이 꿈틀거리고있다. 반공광신자들의 그러한 심리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보인것이 소설 《백명도》, 《대륙관광렬차》따위이다. 《백명도》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후방에 침입하여 비적활동을 하던 인간쓰레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려놓고 옛 시절을 그리워하며 《회포》를 나누는 장면을 펼쳐보이면서 《승공》야망을 실현하는데로 미치광이들을 부추기고있다.

《승공》야망은 《대륙관광렬차》에서 더욱 악랄한 양상을 띠고 표현되고있다. 이 작품에서는 《승공통일》을 이룩한후의 미래상이라는것을 펼쳐보이는 어이없는 광태가 연출되고있다. 이것은 한 개별적인 작자의 어리석은 망상으로만 웃어넘길수 없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미제와 그 앞잡이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의 범죄적인 《승공통일》야망이 그대로 반영되여있는것이다.

반공의 악취가 풍기는 남조선의 반동문학작품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적극 조장되고있으나 그것은 날이 갈수록 남조선인민들과 광범한 독자대중의 배척을 받고있다. 반공을 주장한 한 반동매문가의 글이 《조선일보》에 발표되자 독자들로부터 그것이 《낡아빠진 랭전시대의 론리》라고 타매한 편지가 날아들었다는 사실 하나만을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물론 반공이 《국시》로 되고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의 자그마한 요소마저 탄압받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 반공적인 표현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있는것은 사실이나 로골적이고 의식적인 반공을 고취하는 작품은 그리 많지 않다. 그것은 남조선인민들과 독자들 속에서 랭대와 배격을 받고 쓰레기통에 구겨박혀지기때문이다.

오늘 남조선의 진보적이며 량심적인 작가들속에서는 앙양되는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미자주화와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반영하여 《반공리념》의 제창자들을 비난하면서 련공의식을 구현한 작품들을 창작하는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힘있게 자라나고있다. 반공대결은 곧 민족자멸의 길이며 그것은 미제침략자들의 립장을 대변한 행위라는것을 암시한 작품들, 공산주의자들과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하나의 겨레라는 립장에서 북과 남의 관계문제를 다룬 작품들, 공산주의운동에 나선 사람들을 슬기롭고 인정깊은 사람들로 그린 작품들이 나오고있는것이 그것을 말해준다.

이러한 기운은 아직 미약하고 적지 않은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민족적량심과 애국애족의 정신을 구현하고있으며 민족의 지향과 력사의 흐름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막을수 없는 힘으로 더욱 자라나게 될것이다. 이와 반대로 애국과 매국을 전도하고 분렬대결의식과 《승공통일》야망을 고취하는 《반공문학》의 조작자들은 인민대중의 견결한 배격과 규탄 속에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며 그 비호자들과 함께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반제반미투쟁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문헌

최　　상　　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스무해가 지나갔다.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 기관리론잡지 《뜨리꼰띠넨딸》 창간호에 발표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 로작은 반제반미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세계인민들의 반제, 자주, 평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한 불멸의 전투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미제에 공격을 집중할데 대한 세계혁명의 기본전략과 국제적인 반미공동행동과 반미통일전선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할수 없으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상,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환상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사상, 이미 승리한 혁명을 튼튼히 보위할데 대한 사상 등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밝히신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사상리론은 국제무대에서의 력량관계와 현대제국주의의 내부실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으며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위대한 사상리론이다. 이 탁월한 사상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세계인민들앞에는 미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겨나아갈수 있는 넓은 길이 환히 열려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가 발표된 때로부터 지난 20년동안 세계정치지도는 크게 변하였으며 특히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수행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반제반미투쟁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평화옹호혁명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이 더욱 장성강화되고 어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이 오늘은 시대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자신의 투쟁으로 세계의 혁명적변혁과정에 더욱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였다.

3대륙인민들의 반제자주위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하여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진지는 걷잡을수 없이 허물어지고 그 세력권은 날을 따라 좁아지고있다. 제국주의가 세계의 주인으로 행세하던 시대는 력사의 과거로 되였으며 그 어떤 힘도 내리막길을 걷는 제국주의의 운명을 건질수 없다는것이 오늘에 와서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하나의 사실로 되였다.

세계 정치와 인민들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에서 밝히신 사상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확증하였다. 3대륙인민들은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하며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자신의 투쟁으로써만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서 영원히 벗어나 민족적자주권을 쟁취할수 있으며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우리시대 인민들의 근본요구와 지향을 반영하고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히고있는것으로 하여 날과 더불어 그 생활력이 뚜렷이 나타나고있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온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반제자주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

키고있으며 그들을 반제반미투쟁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반제반미투쟁은 인민들의 자주위업 수행의 근본요구이며 선차적인 과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는 자기의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며 이미 잃어버린 진지를 도로 차지하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제국주의가 죽음에 가까와감에 따라 투쟁은 더욱 치렬하여지고있다. 그러므로 인민들은 반제국주의의 기발을 높이 들고 지구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21권, 391~392페지)

제국주의는 인민들의 자주위업실현을 저애하는 가장 횡포한 반동세력이다. 제국주의는 력사무대에 등장한 첫날부터 무자비한 반혁명적폭력과 침략전쟁으로 인류에게 막대한 희생과 재난을 강요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도 의연히 인민들의 자주위업실현을 방해하는 가장 크고 위험한 세력으로 되고있다.

제국주의발전의 전력사는 무제한한 탐욕과 야수성으로 일관되고 세계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침략과 략탈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수치스러운 죄악의 력사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어리석게도 세계의 영원한 《지배자》로 될것을 꿈꾸었지만 반제자주위업이 급격히 앙양되는 자주시대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제국주의진지는 물먹은 담벽처럼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세계지배를 참망한 그들의 강권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종전의 방법을 바꾸어 한손에는 칼을, 다른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든 교활한 《량면전술》에 매달리게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한 미제는 한편으로는 핵공갈로 세계를 위협하고 다른편으로는 평화의 너울로 저들의 정체를 가리우면서 반제혁명운동을 분렬약화시키며 무너져가는 제국주의체계를 부지하려 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더욱더 악랄하게 나타났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혁명적꾸바를 반대하며 사회주의나라들과 힘으로 대결할것을 시도한 까리브해위기를 일으켰으며 바크보만사건을 계기로 동남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갔다. 그러면서 미제는 저들의 이러한 침략정책이 마치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것인듯이 사실을 외곡하면서 자신을 《평화의 사도》로 미화분식하였다.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이 변하여 이제와서 제국주의가 《리성》적존재로 되였는가, 아닌가,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가 아니면 투쟁에서 물러서야 하는가, 작은 나라 인민들이 제국주의와 싸워 능히 이길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가 론의의 초점으로 되였다. 실로 반제반미투쟁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족적독립,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대한 문제로 나서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는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고 인민들을 반제반미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혁명의 기치로 되였다.

력사적사실은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히려 제국주의가 얻어맞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일수록 더욱 교활해지고 포악해진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조선과 꾸바, 동남아세아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감행한 미제의 침략전쟁과 간섭책동은 미제야말로 현대의 가장 야만적인 제국주의,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반제투쟁에서 기본은 반미투쟁이며 반미투쟁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반제투쟁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확증하였다. 그리고 미제와는 오직 견결한 투쟁으로 맞서야하며 인민들이 단결하여 싸울 때 능히

미제를 타승할수 있다는 진리를 확증하였다.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그의 지배와 착취, 침략이 계속되는 한 그것이 공공연한것이든, 은폐된것이든 할것없이 인민들은 단 한순간도 반제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자신의 투쟁으로 정치적자주권을 확고히 견지하고 경제적예속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오늘도 저들의 반동통치를 유지하며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힘으로 가로막기 위하여 발악하고 있다. 세계제패의 망상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미제의 책동으로 세계 이르는곳마다에는 그들의 침략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곳이 없으며 그 위협을 받지 않는 나라가 없다.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 스스로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침략과 전쟁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한사코 유지하며 경제적략탈을 강화하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의 면전에서 자주위업의 원쑤로서의 저들의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으며 이것은 반제반미투쟁의 력사적필연성을 확증하여주고있다.

반제반미투쟁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래일에도 그리고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계속되여야 한다. 이것은 력사의 합법칙성이다.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가장 긴박한 문제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국제정치분야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것입니다.》(《신년사》 1986년, 단행본, 12페지)

반제반미투쟁에서 중요한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것이다.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항시적인 동반자이며 생존수단이다. 남을 지배하고 략탈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생존법칙 그자체에 의하여 제국주의는 늘 화약내풍기는 전쟁정책을 공공연히 실시하고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크고작은 침략전쟁을 일으켜 인류에게 헤아릴수 없는 재난을 들씌웠다.

바로 인류가 수천년 력사에서 겪은 그 모든 인공적인 재난가운데서 가장 큰 재난이였던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바로 제국주의자들이 일으켰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도 제국주의와 전쟁은 결국 하나의 동의어로 되고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그 어느 제국주의보다도 대내외정책에서 전쟁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미제국주의의 발생과 발전, 이른바 《번영》의 전력사는 바로 피비린내나는 침략과 살륙 전쟁으로, 가장 포악무도한 략탈과 강도 행위로 일관되여있다.

일찌기 악명높은 제노사이드정책, 인디안사냥으로 시작하고 《포함정책》으로 세계지배의 길에 나선 미제는 지난 세기말 세계에서의 첫 제국주의전쟁이였던 미국—에스빠냐전쟁을 일으켜 새로운 식민지들을 강탈하였으며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교전쌍방에 무기를 팔고 직접 이 전쟁에 참가함으로써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다. 그때 세계가 전쟁으로 벼락부자가 된 미제를 가리켜 《남의 불행으로 돈벌이하는 관장사》와 같다고 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도 막대한 돈벌이를 하였으며 지어 수치스러운 참패로 끝난 조선전쟁과 동남아세아전쟁에서조차 피로 얼룩진 많은 재부를 긁어모았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력사적으로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은 처음부터 그들의 전쟁정책을 반대하는것을 의미하였으며 이것은 언제나 반제반미투쟁의 기본내용으로 되였다. 미제국주의에 붙어다니는 《큰몽둥이정책》, 《원자탄외교》와 같은 상서롭지 못한 이름들은 《미제는 곧

전쟁〉이라는것을 그대로 말해주는것으로 된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규탄하고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떠난 어떠한 반미투쟁도 사실상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반제반미투쟁은 어디까지나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며 그 마수를 꺾어버리기 위한것으로 될때 가장 혁명적이고 전투적인것이며 오직 그러한 투쟁만이 실제로 미제를 타격하고 그의 지위를 약화시키며 종국적인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수 있는것이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는것이 반제반미투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는것은 미제가 모험적인 전쟁정책에 매달리면서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 도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며 《강력한 미국을 재건》하려는 허황한 타산밑에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일으키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미제국주의존재의 전력사에서 오늘처럼 무분별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파렴치하고 공공연하게 전쟁준비에 열을 올리면서 우주공간까지를 포함한 《세계의 완전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날뛴 시기는 일찌기 없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위협》이라는 케케묵은 구실밑에 히스테리적인 전쟁열을 고취하며 실로 천문학적인 군사비를 책정하고 매일매시각 새로운 세계전쟁으로 인류를 위협공갈하고있다. 미국의 력대통치자들속에서도 가장 호전적인 레간행정부는 힘으로 세계를 제패해보려고 로골적으로 책동하면서 이른바 《동시다발보복전략》을 들고나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감행하려고 시도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선제핵전쟁전략》, 《장기핵전쟁전략》, 《한정핵전쟁전략》과 같은 모험적인 핵전쟁전략에 기초하여 구라파와 중근동, 극동 지역을 《3대전역지대》로 설정하고 여기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반대하는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도발하려 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미제가 핵전쟁을 우주에까지 확대할 목적밑에 무모한 《별세계전쟁》계획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는 사실이다. 《별세계전쟁》계획은 본질에 있어서 우주공간을 핵전쟁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핵우세》를 차지하며 미국만이 핵보복타격을 받음이 없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임의의 지점과 대상들에 《핵선제타격》을 가할수 있는 지위를 차지하려는것이다.

미제의 《별세계전쟁》계획이 추진되면 평화적목적에 리용되여야 할 우주가 핵기지화될것이며 그것이 어떤 후과를 가져오겠는가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이러한 핵전쟁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으며 군비를 력사상 류례없는 규모로 확대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86회계년도의 군사예산을 3,020억딸라로 책정하였다. 이것은 세계군비총액의 근 절반을 차지하는 막대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이것도 모자라 1988회계년도에는 군비를 무려 4,115억딸라로 대폭 늘이려고 책동하고있다.

전시도 아닌 때에 이처럼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전략무기생산을 다그치고있는것이 결코 미제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나 자기 방어를 위한것이 아니라 진보적인류를 반대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미제는 군비증강과 함께 세계도처에서 저들의 침략적군사기지를 신설확장하려고 발악하고있다. 미제의 군사기지화책동은 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저들의 세계전략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미제는 이미 세계 여러곳에 1,500여개의 군사기지를 설치하고 여기에 50여만명의 침략군을 배치해놓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가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작전지역에 방대한 군사력을 증

파하여 저들의 군사적존재를 더욱 보강하기 위한 신속전개무력, 특수작전부대들을 조직하고있는것은 미제가 새 세계전쟁, 핵전쟁 준비를 마감고비에서 다그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이러한 모험적인 핵전쟁전략에서 조선반도를 매우 중시하면서 여기에서 새로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호전광들은 이미 남조선을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여기에다 새로운 핵무기들과 핵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있다. 그러면서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줴치고있으며 실제적으로 대규모적인 핵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년례행사처럼 계속 벌리고있다. 미제는 서울올림픽경기를 계기로 이 핵예비전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더욱 더 큰 규모로 벌리겠다고 위협하고있다. 그리하여 조선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수 있는 매우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조선반도만이 아닌 전세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킬것이며 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전인류를 핵참화속에 몰아넣게 될것이다.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열핵전쟁의 발광적인 준비는 이제 와서 핵전쟁을 하나의 가상적인 위협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위협으로 되게 하였으며 이것은 세계 정치계와 사회계의 론의의 초점으로, 가장 큰 관심사로 되게 하였다.

미제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은 인류의 생존자체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세계인민들의 심각한 우려를 더욱더 크게 자아내고있으며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인류를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으로부터 구원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것이 현시기 반제반미투쟁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되는것은 열핵전쟁의 위험성과도 관련된다.

오늘 미제가 일으키려고 하는 열핵전쟁은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포함한 모든 전쟁들을 그 규모와 살상령역에서 수천수만배로 릉가하게 될뿐아니라 인류의 존재 그자체를 문제시할 정도로 크고 위험한것이다.

결국 열핵전쟁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 지역들과 민족들의 운명에 다같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며 인류는 이때까지 체험하지 못한 가장 심각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들것이다.

바로 인류를 이토록 큰 위험속에 몰아넣는 전쟁이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발광적으로 준비되고있다.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평화를 지향하는 총적목표밑에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높이에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반제반미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특정한 나라나 민족, 개별적계급이나 당파의 리익이 아니라 진보적인류앞에 공동으로 나서는 사활적리익이며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현시기 반제자주력량의 세계적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은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발광적으로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지만 이러한 전쟁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많지 못하며 그것은 세계도처에서 비난과 배격을 받고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침략계층은 국제적으로 련합하여 평화와 진보를 위한 인민들의 자주위업에 도전하면서 반제자주력량의 분렬을 꾀하며 그것을 각개격파하려고 발광하고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사회주의력량과 국제공산주의운동, 쁠럭불가담운동과

민족해방운동, 민주주의운동을 포함한 반제자주력량의 공고한 단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반제자주력량이 반제반전평화리념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할 때 제국주의침략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게 될것이며 미제의 새 전쟁, 열핵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게 될것이다.

모든 반제자주력량, 반전평화애호력량은 정견과 신앙, 사회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하여 반제반미통일전선을 형성하고 미제국주의에 집단적인 공격을 들이댐으로써 그들의 손발을 얽어매고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그들의 핵군비를 비롯한 모든 군비를 축소하도록 하는것은 새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사실상 제2차세계대전후 팽창된 군비를 축소하기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끊임없는 집요한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있는 군비경쟁은 인류의 지성과 재능, 물질적재부를 무모한 전쟁준비에 탕진하고 수억만 사람들을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게 하고있다. 군사적힘의 《균형》이란 미명하에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책동은 새로운 보다 엄중한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있다.

핵전쟁의 위험을 없애려면 핵무기를 완전히 철폐하여야 하며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지구우에 핵무기가 있어가지고서는 핵전쟁의 잠재적위험까지를 종국적으로 가실수 없다. 그러므로 비핵, 평화 운동을 힘있게 벌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요소를 철저히 제거하여야 한다.

새 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군사 기지와 무력을 철수시키고 침략적군사뿔럭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다른 나라들에 있는 침략적군사기지와 침략적군사뿔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이 처음부터 열핵전쟁으로만 시작되는것이 아니며 그것이 극히 사소한 군사적충돌로부터 십분 유발될수 있다는것을 념두에 둘 때 군사적 대결이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으로서 다른 나라에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와 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침략적군사뿔럭을 해체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야 한다.

오늘 세계가 미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있는 발광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새로운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엄중한 갈림길에 놓여있기는 하지만 결코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세계전쟁, 열핵전쟁이 숙명적인것은 아니다.

일찌기 반제반미투쟁의 혁명적기치밑에 반제자주위업, 반전평화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행정에 세계 진보적인류는 여러차례 미제의 무모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시켰으며 그때마다 평화와 안전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이것은 세계의 반제자주력량, 평화력량이 모든 힘과 가능성을 다 동원하여 반전평화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능히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막을수 있다는것을 확증하여주고있다.

전세계 진보적인류가 미제의 새 전쟁, 열핵전쟁 도발책동을 분쇄하는데 모를 박고 반제반미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간다면 지구우에 짙게 드리운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자주위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게 될것이다.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제국주의 특히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며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날로 꽃펴나는 전통적인 조중친선

강 광 근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은 지난 4월하순부터 5월초순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홍기사의 초청으로 중국을 친선방문하였다.

중국에 체류하는 기간 우리는 베이징과 남경, 상해와 항주를 비롯한 여러곳의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 과학문화기관들과 명승고적들을 참관하였으며 중국의 벗들과 함께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였다. 중국동지들은 우리들을 친혈육과 같이 따뜻이 맞아주고 친절하게 환대하였으며 대표단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중국방문의 나날에 우리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중국인민이 사회주의 새 중국이 수립된 다음 특히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3차전원회의 이후 전국의 안정단결을 이룩하고 중국의 특색을 가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을 직접 볼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4개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4개 현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중국공산당의 로선과 정책이 중국의 구체적인 실정에서 출발한 옳바른 로선이라는것을 실증하여주었다. 중국인민들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세련된 령도밑에 당 제12차대회결정을 훌륭히 관철하고 다가오는 당 제13차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과 물질문명건설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었다.

중국방문기간 우리 대표단이 특별히 가슴뜨겁게 느낀것은 전통적인 조중친선이 날로 꽃펴나고있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오랜 력사적기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자기들의 운명을 하나로 련결시키고 간고한 투쟁의 한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온 친근한 전우이고 진정한 계급적형제이며 믿음직한 동맹자입니다.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에 존재하는 동지적친분관계와 혁명적의리로 하여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습니다.》(《조중친선은 영구불멸할것이다》, 단행본, 1~2페지)

조선과 중국은 산과 강이 하나로 잇닿아있는 이웃이며 두 나라 인민들은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한대오에서 함께 싸워온 친근한 전우이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은 피로써 맺어진 혁명적전우로서의 우정과 계급적형제로서의 의리를 언제나 소중히 간직하여왔으며 그 어떤 시련과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친선관계를 굽임없이 공고발전시켜왔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왕성한 생활력을 가지고 끗끗이 성장하여온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을 하나의 운명으로 결합시킨 혈연적인 뉴대의 근저에는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의 두터운 동지적신뢰와 혁명적의리가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 존경하는 주은래동지와 동지적친분관계를 맺으시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마련하여오시였다.

깊고 억센 뿌리를 가진 조중친선은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와 존경하는 등소평동지, 조자양동지, 리선념동지들 사이의 친분관계에 의하여 더욱 활짝 꽃피고있다.

오늘 형제적중국인민들은 조중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그것을 계속 꽃피워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우리는 중국방문의 첫날부터 이것을 깊이 느낄수 있었으며 거기에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우리 대표단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하였을 때였다. 맑게 개인 화창한 봄날의 베이징역은 몹시 붐비였다. 그속에서도 홍기사의 동지들은 렬차에서 내리는 우리를 마치 헤여졌던 친혈육을 만나는 심정에서 따뜻이 맞이하는것이였다. 우리도 기쁨에 넘쳐 인사를 나누었다. 친선의 정 넘치는 이야기들이 오간 다음 그들은 우리를 안내하면서 이미 준비한 우리 대표단의 참관 로정과 일정을 소개하는것이였다.

남경, 상해, 항주…아직 가보지는 못한곳들이지만 친근하게 들리는 지방들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 도시들은 모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방문하시였던 곳인것이다.

생각해보니 홍기사의 동지들은 바로 이러한 뜻깊은 로정을 따라 우리 대표단의 지방참관을 준비한것이였다.

조국에서 떠날 때부터 이곳들을 참관하고싶었던 우리는 홍기사동지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시하였다.

베이징에 도착한 날 홍기사동지들에게서 받은 우리들의 인상은 지방참관의 나날에도 계속 가슴뜨겁게 새겨졌다. 우리가 들린 숙소와 참관지마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기들을 찾아주신 사적부터 먼저 소개하였으며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에 수놓아진 거룩한 발자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 대표단의 첫 지방참관지는 우리 인민들에게 잘 알려져있는 중국의 오랜 도시 남경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다녀가신곳인것으로 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길우에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는 남경이 중국에서의 첫 지방참관지로 된것은 우리 대표단성원들모두를 기쁘게 하였다.

남경공항에서 우리를 맞이한 중국공산당 강소성위원회의 한 일군은 대표단의 남경방문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이번에 남경에서 제일 좋은 곳에 근로자사대표단의 숙소를 정하였습니다. 그곳은 1983년 6월에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남경에 오시였을 때 드시였던 금릉호텔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금릉호텔은 조선동지들에게 잘 알려져있는곳이고 우리모두에게 뜻깊은곳인것입니다.》

참으로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말이였다.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는 중국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잘 알수 있었으며 남경에서 의의있는 나날을 보낼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져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적을 소개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서교빈관으로 우리를 안내한 상해시당의 동지들과 서호국빈관으로 우리와 함께 간 절강성당의 동지들에게서도 가슴후덥게 들을수 있었다.

우리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준것은 비단 숙소로 안내하는 일군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였다. 장강대교와 중국공산당 제1차대표대회회의장기념관, 남경약전기계공장과 보산제철소를 비롯한 참관지마다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

남경에서 우리는 중국로동계급이 자력갱생하여 건설한 자랑찬 창조물인 장강대교부터 참관하였다. 우리 대표단을 반갑게 맞이하고 안내한 대교관리처의 한 일군은 장강대교의 연혁을 구체적으로 해설하여주었다.

장강대교는 중국에서 제일 큰 철교인 동시에 제일 큰 자동차다리이다.

서장고원에서 발원하여 중국동해로 흘러드는 길이 6천여키로메터의 장강우에 다리를 놓는것은 중국인민의 오랜 숙망이였다. 다리가 없던 해방전에 장강은 국경아닌 《국경》이였다. 대교가 건설되기전에는 강북과 강남 지방을 나

루배로만 건너다니였다. 기차도 장강에 와서는 기관차로부터 모든 차량을 떼여 하나씩 배에 실어 강을 건는 다음 다시 편성해가지고 다니였는데 이렇게 강을 건느는데만도 2시간나마 걸리였다.

1960년에 착공하여 1968년에 준공한 장강대교는 인도교의 길이가 4,589메터, 폭이 19.5메터이며 철교의 길이는 6,772메터이다. 2층으로 된 다리의 아래층에는 기차가 다니는 복선철길이 있고 웃층으로는 자동차가 다니게 되여있다. 오늘 대교를 통하여 하루평균 자동차는 2만대, 기차는 180개의 렬차가 다닌다.

장강대교의 연혁과 의의를 이와 같이 해설한 그 일군은 우리가 이곳을 참관하는 4월 23일이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교를 찾아주신지 12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수령님께서 남기신 뜻깊은 축기를 보여주었다. 이어 그는 몇해전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대교를 참관하고 기념품을 남기시던 때를 감회깊이 회고하면서 자기들이 소중히 보관하고있는 이 기념품은 중조친선의 상징으로 된다고 가슴뜨겁게 말하는것이였다.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조중친선의 력사에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사적을 깊은 감회에 잠겨 다시금 되새겨보았다.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적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 중국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은 중국공산당 제1차대표대회회의장기념관을 찾았을 때에도 우리들의 심장에 절절히 안겨왔다.

이 기념관은 1921년 7월 1일에 창건된 중국공산당의 창립대회가 진행된 뜻깊은곳이다. 전국적으로 57명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13명의 대표들이 당창립대회를 진행한 이곳은 오늘 중국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훌륭한 교양장소로 되고있다.

력사적인 중국공산당창립대회를 진행한 집치고는 너무도 소박한 집이였다. 회의가 진행된 크지 않은 방 한가운데는 네모난 탁자가 있고 그 둘레에는 등받이가 없는 둥근나무의자들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탁자우에는 흰 사기로 된 차주전자와 차잔들이 놓여있을뿐이였다.

회의가 진행된 장소와 사적물들이 진렬되여있는 여러 방들로 우리 일행을 안내한 기념관 부관장은 응접실에 이르자 정중하게 보관하고있던 두권의 감상록을 보여주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기념관을 참관하시였을 때 남기신 글이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감상록을 보는 우리들의 가슴은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우리들의 눈앞에는 1958년 12월 5일 이곳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공산당의 창립은 비단 중국인민들에게 빛나는 길을 열어놓았을뿐더러 동방인민들의 해방운동에서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쓰신 친필과 1983년 6월 8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곳을 방문하시고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는 중국공산당에 영광과 승리가 있으라고 쓰신 글발이 뜨겁게 안겨오는것이였다.

격정에 넘쳐있는 우리들의 심정을 헤아린듯 기념관 부관장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쓰신 글의 색이 날가봐 우리는 원본을 따로 보관하고 일반참관자들에게는 복사본만 보여주고있습니다. 이 력사적인 글발들을 보관하고있는것은 우리들의 커다란 영광으로 됩니다.》라고 절절하게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조중친선이 대를 이어 영원함을 상징하는 이 력사적인 글발들을 바라보면서 기념관 부관장의 이야기까지 듣고보니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 전통적인 친선을 마련하는데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또다시 감회깊이 되새겨보았으며 우리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뜨거운 흠모의 정을 절절히 느끼였다.

우리 대표단이 만난 중국동지들가운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중국을 방문하시였을 때 직접 만나뵈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력사에 아로새겨진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발자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상하였으며 위대한 조중친선을 계속 꽃피워나가려는 중국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에 대하여 강조하는것이였다.

소학생시절인 1958년에 중국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맞이하는 연도행사에 참가하였던 상해시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상해시가 생긴 이래 그때처럼 수십만의 시민들이 떨쳐나서 외국국가수반을 환영한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온 시가 환영일색으로 들끓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들은 모두가 목청껏 환영구호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영원히 잊을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의 력사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말하였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그 한사람에게서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방문하시였던 남경약전기계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참관지들에서 들을수 있었다. 자신들의 체험에 기초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마련하는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소중히 여기는 중국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잘 알수 있었으며 조중친선이 앞으로도 계속 강화발전하리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질수 있었다.

중국동지들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적극 지지하였다.

우리 대표단과 만난 중국동지들은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천지개벽을 일으켜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웠다고 하면서 이것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라고 말하였다. 보산제철소의 한 일군은 《김일성주석께서 당과 국가의 옳은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실뿐아니라 그것이 정확히 관철되도록 직접 현지지도까지 계속하시기에 조선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현실을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며 생활력이 크다는것을 잘 알고있습니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였다. 중국동지들은 특히 우리 당이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는것이였다.

우리 대표단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중국인민의 굳은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중국동지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면서 미제와 그 주구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의 조선만을 인정하는 중국당의 원칙적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이러한 지지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려는 중국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직접 느낄수 있었다.

오늘날로 꽃펴나고있는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중국동지들이 우리 대표단을 친혈육의 정으로 환영하고 성심성의로 환대하여주는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가슴에 절절히 안겨왔다.

중국동지들은 계급적형제로서, 혁명전우로서 우리들을 열정적으로 환영하였다. 그들의 친절한 환대는 우리모두에게 조선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뜨거

운 친선의 감정을 심장으로 느끼게 하였으며 중국에서의 우리들의 참관사업을 더욱 즐겁고 유익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가 상해 제2손목시계공장과 상해시 문화용품총도매공사를 참관할 때였다. 상해 제2손목시계공장에서는 로동자취주악단이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를 연주하면서 우리를 맞이하고 환송하였다. 만리 이국땅에서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 모두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으며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중국인민의 뜨거운 흠모의 정을 가슴깊이 느끼였다. 한편 상해시 문화용품총도매공사에서도 조선노래들을 방송하면서 전체 종업원들이 떨쳐나서 우리를 환영하며 조중친선에 대한 뜨거운 정을 표시하였다. 이처럼 중국동지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을뿐아니라 우리모두에게 잊을수 없는 수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상해시 문화용품총도매공사 판공실주임은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저의 형제들은 총을 잡고 조선전선에 나가 싸웠으며 저는 상해에서 〈항미원조보가위국〉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습니다. 그러한 제가 오늘 이렇게 혁명전우이며 계급적형제인 조선동지들을 만나고보니 그 기쁨을 이루다 말할수 없습니다. 중조친선의 감정은 저와 같은 나이의 세대들의 심장속에 깊이 간직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중조친선이 어떻게 형성되고 공고발전되여왔는가를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이러한 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은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발전시켜나가야 할 우리모두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참으로 옳은 말이였다. 이 말을 통하여 우리는 두 나라 령도자들에 의하여 마련된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대를 이어 공고발전시켜나가려는 중국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절절히 느끼였다.

참으로 우리 근로자사대표단의 중국방문기간은 위대한 조중친선의 력사를 현실속에서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새겨본 의의있는 나날이였으며 중국동지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면서 즐겁게 보낸 유익한 나날이였다.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불패의 것으로 다져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날로 더욱 꽃펴날것이며 두 나라의 강산과 더불어 대를 이어 영원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8호(루계 544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 1987년 8월 1일 발행 • 1987년 8월 3일

ㄱ—7519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9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제 9 호(545)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경제건설론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자—

〔경험론설〕

〔남조선문제〕

〔국제문제〕

공화국정권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

오늘 우리 인민은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사스러운 국경절을 맞이하고있다.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우리 혁명발전과 인민들의 생활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장구하고도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혁명정권건설의 력사적 뿌리에 토대하여 해방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고 우리 공화국을 창건하는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시였다.

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고있는 새형의 혁명정권이 출현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자유와 독립의 기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우리 공화국정권이 얼마나 우월하고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다.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정권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

우리 공화국정권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적인 혁명정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주체적인 혁명정권입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1페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근본사명이다. 주체혁명위업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이 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을 무기로 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완수될수 있다. 공화국정권은 주체사상을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간다.

주체사상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위대한 사상이다.

사상의 혁명성은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바로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드는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지위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을 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주체사상은 이러한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자주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간이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와 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이 해명됨으로써 인간운명개척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길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명시하고있는데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특징과 그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주고있다.

공화국정권은 바로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 무기로서의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고 있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정치에서 자주적이고 경제에서 자립적이며 국방에서 자위적인 강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공화국정권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 권리와 창조적 활동을 참답게 보장하여주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주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호하여주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다. 공화국정권하에서 오늘 우리 인민은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정권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는것을 자기 활동의 근본사명으로 삼고 투쟁함으로써 참으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전로정은 준엄한 난관과 시련을 헤치며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끝없이 빛내고 민족의 지위와 처지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자랑스러운 력사이며 조국땅우에 륭성과 번영의 시대를 펼치고 주체조선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여온 세기적 변혁의 력사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번영과 륭성의 일대 전성기에 놓여있으며 우리 조국은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자주적인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실현한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가장 공고한 정치적 지반을 가지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결속되여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공고한 정치사상적 통일은 로동계급의 국가정권의 생명이며 그 위력의 원천이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인민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는

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은 그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대표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령도적 권위를 가진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통일단결만이 가장 공고하며 불패의 생활력을 가진다.

인민대중은 오직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굳게 뭉쳐야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주동적으로 헤치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끊임없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조선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투쟁함으로써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여올수 있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사람같이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투쟁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굳게 뭉쳐나가는데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륭성의 길이 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그 종국적 승리가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깊이 확신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의 불패성과 우리 공화국의 위력의 근본담보가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전체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숭고한 높이에서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투적 강령을 관철하는 진군길에서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과 우리 공화국 정권의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참으로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인민의 불패의 위대한 통일단결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위력을 담보하는 귀중한 재부로 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힘의 원천으로 된다.

우리 공화국이 주체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은 또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땅우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확립하고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혁신과 비약의 한길로 이끌어 륭성번영의 전성기를 마련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세우고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로동계급의 국가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다.

사회주의제도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가장 빛나게 구현하여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여주는 우월한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여있다. 사람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고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불패의 위력은 사회주의제도가 지어주는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끊임없는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서 표현된다.

우리 공화국정권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놀라운 위훈을 창조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힘있게 전진시켜올수 있었으며 조국땅우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일대 전성기를 펼쳐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과업이 실현되고 여러차례의 인민경제계획이 훌륭히 수행됨으로써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특히 제2차 7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완수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이 많이 창설되고 공업의 부문구조가 더욱 완비되였다. 실로 우리의 공업은 모든 부문이 현대화되고 부문구조가 완비된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는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당은 이미 이룩한 물질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방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를 빛나게 장식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놓았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확고히 앞당기기 위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자랑찬 현실은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생활력과 견인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공화국정권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정권기관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의 근본원칙, 자주, 자립, 자위의 국가건설로선과 그 실현방도 등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의 건설과 공고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명을 주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확립문제를 혁명승리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모든것을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우리식대로 풀어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요구하고 인민대중이 지향하는것이라면 그 어떤 기성관례나 경험에도 구애됨이 없이 대담하게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해나가시였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철두철미 주체적 립장에서 출발하고있으며 독창성과 창조성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 립장에서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정권은 간고하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을 가장 빛나게 완수하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일신시켜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철저히 관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생활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나라에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름으로써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우리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여온 자랑스러운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우리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을 관철하는 여기에 공화국정권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불패의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며 주체의 혁명위업

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보람찬 투쟁에서 실로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영광스러운 우리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은 비상히 높은 단계에 이르렀으며 공화국정권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당면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실현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공화국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의 성과는 당의 전투적 위력과 그 령도적 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당의 위업이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공화국정권의 강화발전도, 혁명위업의 완성에 대해서도 생각할수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며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규률과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관점과 립장이 투철하여야 남을 쳐다보거나 넘겨다보는것과 같은 그릇된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우리의 정권기관 일군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진군운동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은 우리 인민의 자주적 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인민정권은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데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인민정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임으로써만 사회관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회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으며 광범한 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하에서의 혁명의 계속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13페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단계의 혁명이며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사상과 기술, 문화로 일색화하는 심각하고 거창한 사회적 변혁과정이며 그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통하여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수 있으며 온갖 계급적 차이와 로동조건의 차이, 물질문화생활수준의 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의 완전한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다.

인민정권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

자이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모든 활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데로 지향시켜야 하며 3대혁명수행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앙양된 열의와 기세에 맞게 행정조직사업과 물질기술적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의 계급로선과 함께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정권기관이 자기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중요한 원칙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전체 인민을 위한 사회이며 그것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수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력을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군중로선의 기본요구이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특히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생활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려는 당과 수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인민들의 애로와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하여주기 위하여 머리를 쓰고 애써 노력하여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 때 인민정권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더욱 높아지며 인민들은 우리 공화국을 받들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게 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또한 대중이 생활하고 일하는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있으며 풍부한 실천적 경험을 가지고있다. 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적극 발동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속에 들어가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침투하고 대중과 의논하여 그 수행방도를 찾으며 인민들로 하여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창조적 위훈을 이룩하도록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정권기관들과 일군들은 또한 국가사회생활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나라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운영하여야 한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나라의 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운영하는것은 조직화된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나라살림살이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운영하여야 사람들의 조직적인 공동행동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고 온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요구를 지키는데서 모범이 되며 국가와 인민의 리익에 저촉되는 사소한 위법현상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행정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나라의 모든 자원과 잠재력을 합리적으로 동원리용하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시켜나가야 한다.

정권기관 일군들은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며 사회주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결정적으로 앞당겨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우리 사회의 위대한 혁명적 풍모

양 형 섭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면모와 발전수준을 특징짓는 본질적 징표로 되고있으며 승승장구하는 조선혁명의 생명력으로,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의 바탕에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심이 놓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는 당과 수령과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조선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주되는 원천, 주되는 요인의 하나이다.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 자주와 창조의 한길을 따라 전진하여온 조선혁명의 력사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혁명의 주체는 언제나 무비의 힘을 지니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백전백승한다는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심과 충성심을 급임없이 두터이하고 높여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주체를 힘있고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이 있다.

* *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는 공산주의운동의 발생발전과 더불어 형성되고 굳어져온 숭고한 사상감정이며 혁명정신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처음부터 단결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왔다. 단결과 협력의 관계는 원래 사람들사이에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신뢰의 감정은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 되면서부터 생겨났다. 그렇지만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공산주의운동이 발생하기전까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와 같은 숭고한 사상감정이 생겨날수 없었다.

력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사이의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공산주의운동의 발생발전과 함께 질적으로 새로운 단결과 협력의 관계로 되게 된것은 바로 그 바탕에 당과 수령에 대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신뢰가 놓여있기때문이다.

공산주의운동은 그 개척기부터 당과 수령에 대한 공산주의자들과 근로대중의 신뢰에 기초하여 자기 대오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강화발전하여왔으며 그 힘에 의거하여 피어린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왔다. 이 력사적 과정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혁명정신으로 되였으며 공산주의운동의 존재와 발전의 사상정신적 기초로 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는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새로운 높은 수준에 이른 절대적인것으로 승화되였으며 그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위대한 혁명적 풍모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이 굳게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고 전체 인민이 당과 정부를 끝없이 신뢰하고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공고성의 튼튼한 담보가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요인이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7페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는 그 사회정치적 및 도덕적 내용에 있어서나 그 높이와 깊이에 있어서 새로운 경지에 이른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이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를 규정하는 주되는 내용의 하나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동시에 자기 운명의 주인이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것은 사람이 다른 물질적 존재들도 가질수 없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회적 존재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지니는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사회정치적 집단에서 개별적 사람들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는것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비로소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당과 수령에게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생사를 같이해나가는것은 사람들이 지니고있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한 근본요구로 되며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자기의 운명을 누구에게 어떻게 맡기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생존, 발전과 관련되는 사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을 당과 수령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생사를 같이해나가는것은 결국 당과 수령에 대한 신뢰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절대적인 신뢰에 기초하지 않는 운명의 의탁이란 결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에 맡기고있으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르며 우리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우리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주고 끝없이 빛내여주는 은인이시다. 수령과 자기 당을 충성으로 받들고 변함없이 따르는 여기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있다는것은 우리 인민모두가 간직하고있는 혁명적 신념이며 불변의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이 신념과 의지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것을 자신의 모든 활동의 사활적인 요구로,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다. 그 누구나 경애하는 수령님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우리 당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치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참다운 모습이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를 규정하는 다른 하나의 주되는 내용은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고있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옹호보위하는것이며 그것은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옹호보위하는것으로 된다.

사람들은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여야 자기 생명의 모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자신도 지켜낼수 있다.

당과 수령이 있고서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있을수 있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이 있고서야 개인의 사회정

치적 생명이 있을수 있다는것은 하나의 객관적 법칙이다. 그런것만큼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사회적 인간의 본성적 요구로, 마땅한 혁명적 의리로 된다.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실천적 표현이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을 옹호하고 당을 보위할줄 아는 사람, 자신의 모든것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바치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당과 수령을 신뢰하는 참다운 인간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삶의 요구로 내세우고있으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자기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있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수령을 옹호하고 자기 당을 지키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그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우리 수령님께서 의도하시고 우리 당이 바라는것이라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쳐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풍모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을 확고히 실현해나가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를 규정하는 또하나의 주되는 내용이다.

원래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주는 사회정치적 집단은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뭉친 조직사상적 통일체이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뭉치는것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인간의 생존방식이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치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집단과 자기자신을 결합시킴으로써 집단의 운명을 개척하는것을 통하여 자기의 운명도 개척해나가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는것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회적 풍모를 보여주는 또하나의 실천적 표현으로 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뭉친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통일단결이며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뭉친 가장 혁명적인 통일단결이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하나와 같이 사고하고 행동하며 당과 수령의 유일적령도밑에 한사람같이 움직이는 일심단결을 이룩한 여기에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의 위대성이 있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이렇듯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당과 수령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는데서 나타나는 가장 웅심깊고 가장 숭고하며 가장 위대한 풍모이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의 근본특징은 그것이 주체사상에 대한 혁명적 신념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구현하고있는데 있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주체사상에 대한 혁명적 신념으로 일관되여있다.

인간의 운명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재와

발전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유일한 지도 사상이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모진 바람이 불어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우리 인민의 이러한 신념은 곧 그 어떤 다른 나라의 위인이나 당이 아니라 바로 이 위대한 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발전풍부화시키고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절대적 신뢰로 된다.

이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을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풍모는 그 사상적 높이에서 특출한것이며 불변의것으로 특징지어지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뜨거운 사랑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출발점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시고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혁명도 건설도 다 인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시고 모든것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나가신다. 인민에 대한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의 믿음과 사랑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수령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최고발현이다.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은 당과 수령에 대한 인민대중의 충성심을 낳는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과 혁명적 동지애는 절대적인것이며 무조건적인것이다.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우리 인민은 오직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만을 믿고 따르며 당과 수령에게 충성다해나가는것을 혁명전사로서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 의리로 여기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언제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며 우리 당의 령도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을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싸워나가는것이 다름아닌 우리 인민의 본심이며 풍모이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이처럼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구현하고있다. 이것으로 하여 그것은 도덕적 높이에서 특출하고 순결한것으로 특징지어지는것이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한 풍모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혁명적 풍모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특히 수령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굳어진것이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개별적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19폐지)

사람들이 지니는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 풍모가 다 그러한바와 같이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혁명적 풍모도 당과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원리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된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풍모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안에서 수령과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굳어진것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은 다름아닌 수령이며 인민대중을 수령과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중추가 곧 당이다. 따라서 당과 수령을 떠나서는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될수 없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다.

혁명의 주체에 관한 이 원리는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된 과학적인 원리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들을 체득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력사적인 투쟁과정에서 혁명의 주체에 관한 이 과학적인 원리를 리론적으로 깊이 인식하였으며 사상적으로 신념화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풍모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공고한 혁명적 풍모로 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의 공고성의 원천은 또한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당과 수령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풍모가 공고한것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원리적 인식에 기초한것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에 기초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자신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절절하게 느낀 사람들일수록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는 신념과 의지를 그 무엇으로써도 굽힐수 없는것으로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된다.

우리 인민은 자신의 력사적인 생활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을 심장으로 체득한 인민이며 우리 수령님과 우리 당을 떠나서는 살수도 없고 발전할수도 없다는것을 진심으로 느낀 인민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륭성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새 력사를 창조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로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민들에게 끝없는 행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은 우리 당과 인민을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으로 키우신데 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생명선인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고있는 위대한 당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당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유구한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존엄있고 힘있는 인민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운동을 가장 옳바른 길을 따라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가는 긍지높고 자랑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바로 이러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인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위한 요구와 뗄수없이 련결되여있는 가장 공고한 혁명적 풍모로 되게 되였다.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이룩된 수령에 대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전통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또하나의 주되는 원천이다.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및 도덕적 풍모는 일정한 력사적 계승성을 가지며 그것은 선행세대에 이룩된 전통에 토대하여 이루어지고 공고발전된다. 그런것만큼 어떤 전통에 토대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풍모의 성격과 공고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의 하나로 된다.

당과 수령을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풍모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개척해나가던 력사적 시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절대적으로 믿고 따른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풍모를 력사적 뿌리로 하여 이루어지고 굳어진 혁명적 풍모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믿고 따른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의 신뢰의 전통은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라와 혁명의 운명을 오직 수령님과만 결부시킨데로부터 흘러나온 절대적인것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혁명선렬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계시는 한 어떤 어려운 조건이 앞을 막는다 하여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드팀없는 신념을 가지고 그처럼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오직 장군님만을 믿고 따랐다. 이것은 그 무엇에도 비길데 없이 귀중한 우리 혁명의 전통으로 되였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는 이 위대한 전통을 력사적뿌리로 하여 이루어지고 굳세여진것으로 하여 그 사상정신적 높이에 있어서뿐아니라 그 공고성에 있어서도 특출한 풍모로 되고있는것이다.

참으로 혁명의 주체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 수령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전통은 당과 수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의 공고성의 근본원천을 이루고있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를 견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혁명의 주체의 중심을 대를 이어 확고히 보장하고 수령, 당, 대중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순결성을 세대에 세대를 이어 철저히 고수해나가는것은 혁명위업완성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를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주체를 수령, 당, 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결속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준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혁명의 주체를 수령의 후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로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혁명의 주체의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를 대를 이어 고수하고 계승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우리 사회의 위대한 혁명적 풍모를 대를 이어 고수하고 순결하게 계승해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대중지도방법

김 병 률

오늘 우리 혁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더욱 휘황한 전망이 펼쳐지고있다.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원칙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으며 우리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건설의 현단계뿐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거대한 의의와 위력을 가지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대중령도 사상과 방법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이 사업방법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도는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계속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으며 이외에 그 어떤 다른 방도는 있을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히 틀어쥐고 관철하여야 한다.

*　　　*

대중지도의 옳바른 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투쟁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옳바른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옳은 령도방법이 보장되여야 승리할수 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자신의 사업으로서 그들자신이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따라서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 그들자신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령도방법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되게 된다.

특히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며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거창한 투쟁이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자면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과 함께 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지도방법, 사업방법을 가져야 한다. 옳은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워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수 있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대중지도방법은 객관적 현실이 발전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며 혁명과 건설이 심화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개

선되고 완성되여야 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하신 전통적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구체화하고 발전풍부화시킨 것이다.

청산리정신은 대중지도에 관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며 청산리방법은 대중지도에서 의거하여야 할 공산주의적 사업방법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청산리정신은 청산리방법에 일관된 근본사상이며 청산리방법은 청산리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사업방법에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조직전개하는 방법으로부터 사람들과 만나 담화하고 깨우쳐주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당사업과 대중지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가는 방법들이 다 밝혀져있다. 다시말하여 청산리방법에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 군중로선의 요구들,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 방법,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는 방법,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는 원칙 등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힘을 높이 발양하여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지도방법과 사업전개원칙들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여있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일군들이 당사업과 국가사업,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지도에서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력한 무기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우리 식의 우월한 대중령도방법이다.

사업방법의 과학성과 혁명성은 그것이 어떤 사상, 어떤 철학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는가에 따라 규정된다. 옳바른 지도사상, 세계관에 기초한 사업방법만이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으로 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대중지도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사업방법이다.

주체사상이 밝힌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추동력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되지 못한 인민대중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없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동적 역할을 다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자기의 참다운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여야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옳은 지도와 결합되지 못한 대중의 투쟁은 실패를 면할수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력사를 목적의식적으로 떠밀어나가는 추동력으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옳은 지도를 받을 때에만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혁명의 주체로 될수 있다.

청산리방법은 대중지도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지도와 대중을 결

합시키기 위한 가장 혁명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우가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모든 사업에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는 자주적 립장에 의하여 담보되며 주인으로서의 역할은 창조적 립장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므로 대중지도는 반드시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이끌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청산리방법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며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청산리방법은 대중을 다스리거나 명령, 지시하는 방법과는 달리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는 참다운 대중령도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활동방식에 맞는 참다운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여야 할 영예로운 사명을 지닌 혁명가들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써는 수행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대중에 의거하고 대중을 발동하여야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수 있으며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에 의거하고 그들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 요구이며 활동방식으로 된다.

청산리방법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며 모든 문제를 군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그것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으로 된다.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옳게 반영한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대중령도 방법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은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일뿐아니라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하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이 생소한 사업은 기성리론이나 낡은 사업방법에 매달려서는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으며 모든것을 객관적 현실과 구체적 실정에 맞게 과학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구체적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성리론이나 낡은 경험에만 매달려 일하게 되면 무슨 일에서나 성과를 거둘수 없다.

청산리방법은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격식과 틀에 맞추어 천편일률식으로 진행하는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없애고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생동하고 창조적인 사업방법이다. 다시말하여 이 방법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현실을 깊이 료해분석하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굽임없이 창조해나가며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게 하는 사업방법이다. 따라서 청산리

방법은 대중과의 사업에서 주관주의를 없애고 언제나 창조성과 과학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대중령도를 가장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참다운 사업방법으로 된다.

참으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본질적 특성과 우월성이 있으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　　　*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대중지도 사상이며 방법이다.

위대한 대중지도사상과 대중지도방법은 위대한 전변을 가져오게 하며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발휘하게 한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기간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난 보람찬 시기로 빛나고있다.

이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위업도 빛나게 수행되였으며 당이 펼쳐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강령에 따라 자연과 사회, 인간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유구한 반만년의 오랜 민족사에서 처음보는 일대 륭성과 번영의 전성기에 놓여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래를 향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후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와 사람들의 활동방식과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는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후 그것을 당 및 국가, 경제 기관 사업의 전반분야에서 사업 체계와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시기에 더욱 빛나게 구현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여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으로 정식화하고 전당이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완전히 없애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현명한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이 방침은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관료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행정식 사업방법 등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마스고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탁월한 방침이며 모든 당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전투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한 획기적인 계기로 되게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에는 주체사상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 청산리방법밖에 그 어떤 다른 사업방법이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하지도 덜지도 말고 그대로 따라배우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그리고 항일유격대식 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전당이 아래에 내려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끊임없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또한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을 방해하는 온갖 그릇된 현상을 반대하여 강하게 투쟁하며 허공에 떠서 사업하거나 번잡한 회의와 쓸데없는 문서놀음으로 사업을 대치하는것을 철저히 경계하도

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아래를 장악하고 통제하는 조건에서 도와줄데 대한 문제, 당사업을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등 당사업에서 나서는 일련의 원칙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철저히 관철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대중지도 사상과 방법인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전당에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는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창조한 대중령도방법을 어떻게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하는가 하는 빛나는 모범을 보여준것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혁명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오게 하고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더욱 강화한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였으며 당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룩되였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9~30페지)

전당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게 되였으며 일군들속에서 항일유격대의 지휘원들처럼 군중속에 들어가 대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혁명적 사업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당조직이 있는 모든곳에서는 사람과의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는 더욱 강화되고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통일단결이 확고히 실현되게 되였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을 이룩하는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며 혁명승리의 중요담보이다. 수령, 당, 대중이 통일단결되여야만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위력을 강화하여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일심단결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살며 싸워나가는 긍지높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통일단결되여 위대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다.

최근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숨은 공로자들과 애국자들이 많이 나오고 전당과 온 사회가 그들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나온 고귀한 열매이다.

참으로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더욱 강화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한길로 억세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로 된다.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은 또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세기적인

변혁과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고있는데서도 높이 발휘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은 로동계급의 당이 어떤 방법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키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력사는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수놓아져있다. 특히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이후 우리 나라에서는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도 이룩할수 없었던 위대한 사회경제적 변혁이 이룩되였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천리마대진군에 박차를 가하여 이 땅우에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를 거연히 일떠세우고 인민의 락원을 펼쳐놓은 위대한 추동력이였다.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비롯한 주체적인 경제관리체계가 확립되여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구현되는 행정에서 이룩된 커다란 성과이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에 의하여 전당, 전국, 전민이 당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 여러차례에 걸쳐 어렵고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는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가까이 접근해가고있다.

최근년간에 우리 인민이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련이어 일떠세우고 리상으로 여기던 대자연개조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훌륭히 전변시키고있는것도 그리고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웅대한 새 전망목표인 제3차 7개년계획을 1년반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총진군운동을 다그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대중령도방법이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위대한 생활력은 또한 일군들의 지도수준이 높아지고 그들속에서 혁명적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이 튼튼히 서고있는데서도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약동하는 현실을 체험하고 생산자대중에게서 배움으로써 그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다그쳐지고있다.

아래일군들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이 보다 세련되여가고있으며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 서서 왕성한 투지와 정열에 넘쳐 사업을 통이 크게 포치하고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것이 우리 일군들의 일본새이다.

우리 당 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과시로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생활력과 견인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의도대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일군들이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일해나가는것은 자기들을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은덕에 보답하며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사명을 다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이것을 깊이 인식하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앞당겨점령하여야 할것이다.

광복거리 건설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도 거창한 사업

채 형 식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온 나라 인민들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지원 속에서 광복거리 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또다시 광복거리 건설에 력량을 총집중하여 그것을 힘있게 내밀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광복거리 건설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거기에 력량을 총집중하여야 합니다.》

광복거리 건설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도 거창한 대건설전투이다. 광복거리 건설이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사업으로 되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그 의의가 매우 크고 건설속도와 규모에서 력사상 류례없는 위대한 건설물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향도밑에 혁명하는 우리 시대에 일떠세운다는것과 관련된다. 광복거리 건설은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만경대와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꾸리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축미학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는데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지는 영예로운 사업이며 그 건설 속도와 규모에서 일찌기 력사상 류례없는 위대한 건설물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대건설전투이다.

유구한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매개 시대는 그 시대의 대표적인 창조물들로 자기 면모를 후세에 남겨놓는 경우가 적지 않다. 광복거리 건설은 바로 우리 시대의 면모를 길이 빛내일 로동당시대의 또하나의 위대한 력사적 창조물이다.

광복거리 건설은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를 더욱 화려하게 꾸리고 혁명의 수도 평양을 보다 웅장하게 건설함으로써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게 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다.

혁명전사에게 있어서 수령의 위대한 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전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도 보람찬 사업은 없다. 수령의 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전하는데서 수령의 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경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이며 광복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큰 뜻을 품으시고 이어가신 빛나는 자욱이 력력히 어려있고 해방후 만경대고향집을 지척에 두시고도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간직하고있는 유서깊은곳이다. 매일과 같이 이곳을 찾아오는 우리 근로자들과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참관하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의 위대성을 더욱더 가슴깊이 체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혁명의 성지 만경대일대를 더 잘 꾸리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인것이다.

광복거리에 넓은 중심도로와 2만 5천세대의 고층살림집들 그리고 학생소년궁전과 교예극장 등 여러가지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안골에 9개의 실내경기관들과 큰 규모의 야외경기장을 가진 종합적인 체육촌이 형성되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를 더욱 화려하게 꾸리려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 더 잘 실현되게 될것이다. 그리고 광복거리 중심도

로를 비롯하여 총연장 100여리의 기본도로와 간선도로, 릉라다리를 비롯한 크고작은 30여개의 다리, 평양시에 새로 일떠서는 기타 중요대상건설물들이 완공되면 혁명의 수도 평양은 주체조국의 수도로,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웅장화려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한 평양시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살림집을 마련해주고 인민들로 하여금 더욱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더 잘 실현되게 될것이다.

광복거리 건설은 또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건축미학사상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로동당시대를 더욱 빛내여나가는 영예로운 사업이다.

70년대와 80년대초에 비파거리와 창광거리,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운데 이어 이번에 광복거리에 전개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대건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건축사상을 빛나게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건축미학사상을 더욱 찬란히 꽃피우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다.

광복거리에 건설되는 건축물들은 그 인민적 내용과 건축형식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 종합체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로동당시대에 일떠세우는 모든 건설물이 인민대중중심의 기념비적 건축물로 되게 하고 인민대중의 리익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창조물로 되게 할데 대한 건축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주체적인 건설사상이다.

이번에 광복거리에 일떠서는 모든 건설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인민의 리익과 생활상 편의를 가장 높은 경지에서 보장하는데 중심을 두고 건설된다. 팔골다리와 만경대갈림길사이에 100메터나 되는 넓은 폭을 가진 중심도로를 놓고보아도 그것은 자동차들의 운행조건만을 먼저 타산하여 설계된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 당은 중심도로를 따라 살림집을 앉히는 문제도 인민의 리익과 행복, 건강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우리 식으로 해결하도록 하였다. 기본차도를 축으로 하여 량쪽에 아름다운 록지와 보조차도, 인도와 록지, 가로수 등의 순서로 길을 뽑도록 광복거리 중심도로가 설계된것은 사람들이 사는 주택지구에는 언제나 맑은 공기만이 차넘치게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것이다. 건설력사를 놓고보면 살림집들을 큰길을 따라 한줄로 나란히 배치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여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살림집을 길옆에 한줄로 앉히면 인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수 있다는것을 고려하는것과 함께 인민들이 록지도 있고 수림도 있으며 과수원도 있는 공원속에서 살도록 깊이 타산하여 만경대지구의 아름다운 풍치와 자연기복, 산릉선형태에 어울리게 살림집들을 들쑹날쑹하게 배치하도록 하였다.

거리형성안뿐아니라 건물내부구조도 우리 당은 기성관례에 구애됨이 없이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인민의 생활에 편리하게 하면서도 먼 앞날까지 내다보고 세대당 면적을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설계하도록 하였다.

광복거리 건설은 이러한 인민적 내용과 함께 우리 식의 독특한 건축 형식과 공법을 구현함으로써 로동당시대의 건설의 빛나는 장을 열어놓고있다.

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건축물의 가치는 그 독특한 건축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건축물형성방식에서 기존형식을 반복하거나 모방하지 않고 독특하고 새맛이 나게 하는것은 우리 당 건축미학사상의 일관한 요구이다. 건설에서 모방과 류

사성, 반복을 없앨데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심원한 건축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일떠서는 광복거리는 수백개의 개개의 건물과 수백 수천만개의 매개 건축요소들이 다 특색이 있어 천태만상을 이루고 무한히 다양하면서도 균형이 조화로운것이 특징적이다. 9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건설하고있는 광복거리에는 탑식형식과 직선으로 여러번 꺾어서 이어놓은 꺾임형의 덩지큰 살림집들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곡선미를 가진 류선형과 원통묶음형의 건물도 있고 다각형으로 된것이나 계단식으로 된 살림집들도 있어 그 어느것이나 다 자기의 독특한 형식을 가진 비반복적인 건물들이다. 안골체육촌에 건설되는 각종 현대적인 경기관들도 그 매개의 건축물이 다 자기의 고유하고 독특한 양상을 가지고 건설되고있으며 그 어느것을 살펴보아도 다 특색이 있다. 그러므로 독특하고 웅장화려한 새형의 현대적인 광복거리를 건설하는것은 끝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건축사상을 빛나게 구현하며 우리 당의 위대성과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기위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으로 되는것이다.

광복거리 건설은 또한 세계굴지의 방대한 건설규모로 우리 당과 인민, 주체조국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게 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광복거리 건설은 그 규모와 폭, 속도와 질에서 건설력사에 일찌기 전례가 없는 거창한 대건설사업이다. 그것은 그 규모에서 세계적인것이며 그 속도에서 전줄데 없고 질적 수준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손색이 없을 만년대계의 대건설사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수도건설구상에 의하여 펼쳐진 광복거리를 비롯하여 평양시안에서 건설되고있는 중요대상은 큼직큼직한것만 해도 260여개나 되며 그 연 건축면적은 5백 50여만평방메터, 총 건설령역면적은 무려 수천만평방메터에 이른다. 이것은 인민문화궁전만한 것은 90여개, 인민대학습당과 같은것은 50여개를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방대한 규모의 건설대상이다. 수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뿐아니라 단번에 도합 근 25만석의 관람석을 가진 10여개의 현대적인 경기장과 실내경기관들을 일떠세우고 교예극장과 학생소년궁전, 청년극장 그리고 그밖에 수많은 공공건물들과 최신식 편의봉사망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2년동안에 완공해놓아야 하는 이런 거창하고 빠른 속도의 건설은 도시건설력사에 류례가 없다. 그러므로 수도의 면모를 다시 한번 일신시켜나가는 평양의 대건설은 우리 당과 인민의 힘, 주체조국의 위력이 얼마나 강하며 위대한가를 뚜렷이 보여주는것으로 되는것이다.

당과 인민, 나라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데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다. 그가운데서도 인민의 복리를 위한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어떤 규모와 수준에서 얼마나 빨리 완공하는가 하는 것은 당과 인민, 나라의 힘이 얼마나 위력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의 하나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1970년대와 1980년대초에 왕재산대기념비와 삼지연대기념비,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인민대학습당과 김일성경기장, 빙상관과 청류관, 평양산원과 창광원, 문수거리와 창광거리를 비롯하여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웅장하게 건설되였다. 그리고 단 5년동안에 20리 날바다를 가로막는 세계적인 서해갑문이 일떠섰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력과 우리 인민의 힘, 주체조국의 위력이 거창한 건설사업을 통하여 뚜렷이 과시되였다.

광복거리 건설은 이미 우리 나라에서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수많은 대기념비적 건설을 매우 빠른 속도로 높은 질적 수준에서 해제껴온 경험을 집대성하고있는 건설전투이

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에 없는 광복거리 건설과 같은 거창한 규모의 건설을 완공한다는것은 곧 언제나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의 위대성과 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휘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힘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떨쳐나가는 것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나라가 분렬되고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평양시의 중요대상건설과 함께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 태천발전소 건설 등 전례없는 규모의 건설대상들을 동시에 우리 설계와 기술, 우리 자재와 힘으로 자신있게 밀고나가는 우리 인민의 위력과 강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가진 주체조선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더욱 힘있게 시위하는것으로 된다.

참으로 광복거리 건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성지를 더 잘 꾸리고 주체조선의 수도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일떠세우며 당의 건축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우리 당과 인민, 주체조국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도 거창한 사업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금 광복거리를 비롯한 평양시의 중요대상건설장들에서는 력사에서 아직 류례가 없는 거창한 규모의 건설공사가 빨리 추진되고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

광복거리를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기 위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롭게 일떠세울 광복거리의 규모와 부지를 몸소 정해주시고 건물형성안까지 여러차례 보아주시면서 모든 건설대상들을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로 건설하도록 거리의 조성과 살림집들의 크기, 그 형태와 배치, 부엌세간과 가구에 이르기까지 광복거리 건설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세심히 가르쳐주시였으며 건설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기 위한 방향과 방도, 구체적인 과업들을 다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하여 평양시의 중요대상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8월 15일에는 《로동당시대의 새 건축물을 창조하자!》라는 전투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그 관철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이 전투적 구호는 건설에서 속도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 가장 빠른 기간에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로동당시대의 새로운 건축물들을 일떠세워 이 땅우에 인민을 위한 건축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찬란히 빛내이며 주체건축력사에 또하나의 비약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강령적 지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광복거리 건설투쟁에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을 뿐아니라 건설공사형편을 수시로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광복거리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최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대주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광복거리 건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국적 범위에서 더 잘 보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의 생활형편을 세심히 보살펴주시면서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생활상의 사소한 애로조건도 다 풀어주시며 그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보람찬 대건설전투에 전심전력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다 돌려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비상한 조직력과 현명한 령도,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음으로 하여 오늘 광복거리 건설장들에서는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공사장에 달려온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세계적 규모의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떠세워 우리 나라 건설의 대전성기를 마련해준 우리 당이 또다시 이번의 대건설작전을 펼치였고 현명하게 이끌고 있기에 공사가 아무리 방대해도 제기일안에 능히 해제낄수 있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도처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를 발휘하여 비상히 빠른 건설속도를 창조하고있다. 그리하여 그전같으면 몇년이 걸려야 수행할수 있을 방대한 계획인 올해 상반년도 광복거리 건설계획을 빛나게 초과수행함으로써 올해안으로 모든 건설대상들의 기본틀거리를 다 형성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중심으로 웅장화려하게 일떠서는 광복거리 건설장들에서 창조되는 전례없는 건설속도, 이것은 우리 당이 일단 작전을 펼치면 그것은 비상한 견인력을 가지고 대중을 분발시켜 거창한 현실을 창조해나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광복거리 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는 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은 자연을 개조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며 이 사업은 우리 당의 건설집중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광복거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은 우리 당의 건설집중화방침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대건설투쟁이다. 우리는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하여 중요대상건설에 로력과 자재, 자금을 집중하여 속도전의 요구에 맞게 당이 펼치고있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하루빨리 일떠세워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광복거리 건설을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호소하고있다.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는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광복거리 건설을 힘있게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철저히 세우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광복거리 건설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데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광복거리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들은 여기에 동원된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다. 다른 부문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도 주인이 주인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옳게 수행할 때 그 은이 나타나게 된다. 광복거리 건설에 동원된 모든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광복거리 건설구상을 구현해나가는 높은 긍지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맡은 공사기일을 일별, 순별, 월별로 어김없이 수행해나가야 한다.

당에서 정해준 공사기일을 무조건 지키는것은 의무로 되지만 공사기일을 앞당기는것은 혁명가의 량심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에서 한가지 과업을 주면 두가지 세가지를 하기 위해 애를 쓰고 한달동안의 기일을 주면 열흘, 보름 앞당기기 위해 애쓰는 바로 그런 량심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광복거리 건설은 우리 나라 건설력사에서 찾아볼수 없었던 전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대상건설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이 있으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그것은 빛나는 현실로 될것이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

박 관 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해나가는 장엄한 진군길에서 우리 인민은 세기에 길이 빛날 기적과 전변을 이룩하였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온 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결과이다. 3대혁명을 떠나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세기적인 기적과 전변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우리 혁명의 휘황한 미래에 대하여서도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인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 *

혁명방식을 옳게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되는 계속혁명의 과정이다. 이 력사적 과정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혁명의 내용과 함께 그 수행방식을 옳게 규정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진행되는 혁명의 방식을 정확히 세워야 편향없이 혁명과 건설을 곧바로 전진시켜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혁명의 내용을 아무리 잘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혁명방식을 바로세우지 못하면 이미 이룩한 혁명의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 혁명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빨리 완성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운명과 관련되는 이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3대혁명을 사회주의사회의 혁명방식으로 규정하심으로써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단행본, 8폐지)

혁명방식은 혁명투쟁의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다. 혁명방식은 혁명의 내용, 대상에 의하여 규정되며 혁명의 내용, 대상과 방식은 총체적으로 사회제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착취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극소수 지배계급에 의하여 무권리를 강요당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으며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응당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처지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절실한 요구는 착취계급을 때려부시고 사회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것

이다.

착취계급은 자기들의 지배적 지위를 순순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며 착취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반항하게 된다.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기 위하여서는 폭력적 방법으로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낡은 사회제도를 새로운 선진적인 사회제도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면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 그들의 자주성실현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그에 따라 혁명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사회주의제도가 서면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적 예속에서는 해방되지만 아직 자연과 낡은 사상, 문화의 구속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 남아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계급적 차이와 로동의 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새로운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혁명의 내용뿐아니라 혁명의 대상과 임무도 달라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신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나가는 사업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대상으로 하여 자기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반드시 달라진 혁명의 내용, 혁명의 대상과 임무에 맞게 착취사회에서 하던 혁명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혁명방식,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3대혁명의 방식으로 혁명을 한다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는 투쟁을 어디까지나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는 방법으로,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는 방법,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낡은 사회의 유물을 종국적으로 없애나가는 바로 이것이 종래의 혁명방식과 다른 3대혁명방식의 고유한 특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낡은것을 개조하고 새것을 창조하는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8페지)

혁명방식은 혁명투쟁을 진행하는 방법,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인것만큼 그것은 어디까지나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혁명력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혁명투쟁은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과의 힘의 대결이다. 혁명력량이 강해야 반혁명력량을 때려부실수 있으며 반혁명력량을 없애버려야 혁명이 승리할수 있다. 혁명력량은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적으로 각성되고 단결될 때 더욱더 위력해진다.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묶어세우고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는것은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혁명방식의 요구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방식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

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방식이 이렇게 위력한것으로 되자면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아야 한다.

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활동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해당 사회제도의 본성에 맞게 혁명방식을 옳게 규정하여야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계급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하는 혁명방식은 착취사회제도의 본성에 맞는 혁명방식이다. 때문에 그러한 혁명방식은 대중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요인으로 된다.

착취사회는 극소수 착취계급이 정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고 주인행세를 하면서 근로대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 사회제도이다. 그것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며 착취계급과 피착취근로대중사이의 계급적 대립과 투쟁이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제도하에서는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근로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킬수 있으며 그들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만일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는 길로 나간다면 근로인민대중을 각성시킬수 없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할수 없다.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서만 더욱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될수 있으며 자기의 창조적 능력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그러므로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동원할수 있는 위력한 방식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달리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이며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이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의 생명이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원칙밑에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다같이 발전해나간다.

이러한 조건에서 비록 낡은 사상을 가지고있고 문화기술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반대하거나 떼여버려서는 안되며 더우기 그들을 반대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런 방법으로 혁명을 하게 되면 혁명력량을 분산시켜 그것을 튼튼히 꾸릴수 없으며 구경에는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지장을 주는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어디까지나 서로 일깨워주고 도와주는 방법으로 혁명을 하여야 사람들사이의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고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을 이룩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을 교양하여 개조하는 혁명방식, 3대혁명방식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과학적인 혁명방식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혁명방식이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힘있는것으로 되자면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을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의사에도 맞아야 한다.

혁명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인것만큼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아야 하며 그들의 리익을 정확히 실현할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지 않는 혁명방식으로는 혁명을 제대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자주

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려는 인민대중의 숙망을 원만히 해결할수 없다. 오직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고 그들의 리익을 정확히 반영한 혁명방식이라야만 근로인민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광범한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착취사회에서 낡은 사회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계급을 청산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하는것이 가장 우월한 방법으로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철저하게, 빨리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방식이며 그들의 의사에 전적으로 맞는 혁명방식이기때문이다. 만일 착취사회에서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 그것을 개량하거나 타협하고 양보하는 방법으로 혁명을 하려고 한다면 근로인민대중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의 요구는 자연과 낡은 사상,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벗어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착취와 억압의 멍에를 벗어던진 다음에도 그들의 자주성을 저애하는 주되는 요인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 기술, 문화의 락후성에 있다. 이 락후성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 이후시기에도 자연과 낡은 사상,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낡은 사상과 기술, 문화의 구속에서까지 종국적으로 벗어나려는것은 그들의 요구이며 의사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이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은 바로 3대혁명의 방식이다.

3대혁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으로 만들며 새것을 창조하여 낡은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공산주의적 사상과 기술, 문화를 건설해나가는 혁명방식이다. 이 혁명방식은 낡은 사회의 유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는 힘있는 존재로 되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요구와 의사에 맞는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으로 된다.

이처럼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다.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사회의 혁명방식으로서의 3대혁명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라는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사상이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라는 사상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 기간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의 방식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진행하는가 아니면 중도에서 포기하는가 하는 관건적인 문제로 된다.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정을 단순히 개량의 과정에만 국한시키고 계속혁명을 포기하는것은 이미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말아먹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중도에서 그만두는것으로 된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 계속혁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종래와 같은 방식으로 혁명을 수행할것을 주장하는것은 변화된 혁명의 내용을 외면하고 광범한 대중을 혁명의 편에서 떼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혼란을 조성하는 그릇된 경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개량의 방법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계속혁명을 하여야 하며 계속혁명을 하되 종전과 같은 방식

으로가 아니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새로운 방식, 3대혁명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그리하여 로동계급의 당이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대중을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혁명방식문제가 정확히 해결되게 되였다.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라는 사상에 의하여 또한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다할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야 할 무거운 사명을 지니고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인민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마련해주는것보다 더 중대한 임무는 없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을 실현해주는것보다 더 보람찬 사업은 없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앞장에 서서 간고한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는 궁극적인 목적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 3대혁명방식이 천명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자기의 모든 활동을 철저히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종시켜나갈수 있는 밝은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3대혁명방식은 오랜 세월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려던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을 성과적으로 실현해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었다.

이렇듯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으로서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 기간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혁명의 방식이 밝혀지고 로동계급의 력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바로 여기에 3대혁명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이라는 사상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인 3대혁명은 우리 나라 혁명실천에서 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은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5권, 295페지)

3대혁명로선의 불패의 생활력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라나고 우리 혁명의 정치적 력량이 비할바없이 강화된데서 나타나고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혁명의 정치적 력량을 강화하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지 않고 그들을 강력한 혁명력량으로 결속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없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지금 우리 사회에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뒤떨어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는 극히 부분적인 요소로 되고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훌륭히 준비되고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사람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높고 전체 인민이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당과 수령에 대

한 충성심을 혁명적 의리로,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살며 일해온 때는 일찌기 없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고있다. 이것은 3대혁명을 벌려 이룩한 가장 큰 성과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3대혁명의 불패의 생활력은 또한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다져지고 나라의 경제적 위력이 비상히 강화된데서 나타나고있다.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3대혁명을 벌리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바로 물질생활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과업이 빛나게 수행되고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오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해나가는 새로운 발전단계에서 그 위력이 더욱더 높이 발휘되고있다.

실로 우리 나라에서 매우 짧은 기간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천지개벽이 이룩된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 틀어쥐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기때문이다.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이야말로 사회주의제도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가장 정확한 혁명방식이며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원만히 풀고 우리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지난날 뒤떨어진 상태에 있었거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락후한 처지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3대혁명을 하면 능히 자체의 힘으로 민족적 번영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안겨주고있다. 우리 나라의 실천적 경험은 3대혁명을 수행하여야 아무리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이며 창조와 변혁의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의 3대혁명로선과 같은 명확한 기치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큰 자랑이며 긍지이다. 3대혁명로선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이 오늘과 같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이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과시할수 있었다.

오늘 3대혁명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3대혁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심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고있다.

우리 혁명의 자랑찬 과거가 3대혁명로선의 빛나는 관철에 의하여 있을수 있었던것처럼 앞날의 밝은 미래도 바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 있다.

우리는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로선은 오직 3대혁명로선이며 당의 령도따라 이 로선을 계속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온 사회가 주체사상화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원히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할것이다.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의 본성적 방법

장　경　복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원리에 기초하여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원칙,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을 새롭게 밝히고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일뿐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 방법입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36페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간다는것은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가장 위력한 방법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활동에서 튼튼히 의거하여야 할 원칙이다.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데는 행정실무적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이 모든 방법들은 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거쳐서 그들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기본방법은 그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것이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숭고한 사명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어떤 활동 원칙과 방법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가 하는것은 그 성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옳바른 활동원칙과 활동방법에 의거할 때에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원리에 기초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대중지도원칙으로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공산주의운동은 의식적인 투쟁이다. 다시말하여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혁명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에 의하여 일어나며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에서 기본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도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사상의식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요구, 리해관계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들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고 조

절통제하는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상으로 무장할 때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투쟁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이 노는 역할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비할바없이 커지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됨에 따라 더욱더 높아진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군중은 착취와 억압을 받아도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으며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개조해나갈수 없다.

인민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혁명운동을 일으키고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것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된다. 사회경제적, 물질적 조건도 혁명과 건설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그러나 물질적 조건은 저절로 마련되지 못하며 또 그것이 마련되였다고 하여 혁명이 저절로 일어나는것이 아니다. 물질적 조건은 오직 사람들의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서만 마련되고 혁명운동발전에 작용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혁명운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며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또한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적 본성에 맞는 가장 적극적인 활동방법으로 된다.

사람들의 활동방법은 그들의 계급적 본성에 의하여 규제되며 사람들의 계급적 본성은 그들의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로 표현된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생활상 요구와 리해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 다른 계급과 서로 관계를 맺는다.

착취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함으로써만 살아나가는 흡혈귀이다. 착취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피착취계급인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 리해관계와 근본적으로 대립된다. 그러므로 착취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을 저들의 생존을 유지하며 치부를 늘이는데 복종시키기 위하여 기아와 몽둥이 규률을 비롯한 강압적인 방법,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방법에 매달린다.

공산주의자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며 인민대중을 온갖 형태의 착취와 압박,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참으로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을 모든 활동의 출발점으로 삼는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며 혁명투사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려면 혁명을 하여야 하며 혁명에서 승리하자면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힘만으로는 결코 혁명을 할수 없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을 적극 조직동원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동원하자면 옳은 활동원칙, 활동방법에 의거해야 한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유린하는 강압적인 방법, 관료주의적인 방법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과는 어긋나며 따라서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조금도 허용될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자신이 스스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적극 벌려나가도록 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인민대중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가장 위력한 방법이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에 맞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다음으로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 인민대중을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질적 특성을 발양시킬수 있게 한다.

전체 인민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할수 있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를 가지고있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본질적 특성의 하나이다.

일정한 사상이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하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 되자면 그들의 지향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대변하고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어야 한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대변하고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만이 그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는데 적극 복무할수 있다.

자본가계급들은 반혁명적 폭력에 의거하여 근로인민대중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방법에 매달리면서 다른 한편 반동적인 사상에 의거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에게 노예적 굴종을 설교하기 위하여 애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사상은 인민대중의 리익과 근본적으로 배치되기때문에 대중의 사상으로 접수될수 없다.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반동적이며 반혁명적인 사상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좀먹는데서 커다란 해독적 작용을 하며 따라서 그것을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계급적으로 각성된 인민대중은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하여 온갖 반동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뿐아니라 단호히 배격한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익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 투쟁의 앞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있다.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하여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을 창시하여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대중에게 안겨준다.

로동계급은 가장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계급이며 사회발전에 대한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로동계급은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을 짓밟는 마지막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제도인 자본주의제도를 매장하고 근로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로동계급은 온갖 계급적 착취와 민족적 예속을 없애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령도계급이다. 로동계급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대표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길을 밝혀준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자주적으로 살아나가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전체 인민을 각성시키고 발동하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강유력한 사상적 무기로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을 대중령도의 위력한 무기로 삼고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확고히 구현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밀고나간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이 밝혀진것은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원칙은 혁명의 원리가 실천활동에 전면적으로 구현될수 있도록 구성되고 체계화되여야 한다.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공산주의적 원칙이 밝

혀짐으로써 주체사상의 지도적 원칙은 주체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력사원리를 철저히 구현할수 있도록 구성되고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공산주의적 원칙이 제시됨으로써 그 의의는 또한 사상혁명의 위치와 역할을 더욱 뚜렷이 밝혀주고있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힘있는 무기를 마련하여주었다는데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무엇에 결정적 의의를 부여하고 그 위력을 어떻게 발양시키는가 하는것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을 정확히 밝히고 그 위력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키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만일 혁명발전의 기본추동력을 옳게 찾지 못하고 그 위력을 발양시키지 못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게 되며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게 된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본성과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원칙을 철저히 구현할 때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앙양을 이룩할수 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이 밝혀짐으로써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은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귀중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 원쑤들이 살판치는 엄혹한 환경속에서 한몸의 위험을 무릅쓰시고 몸소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실현함으로써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당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을 훌륭히 구현하여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첫시기에 벌써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을 발기하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부강한 새 조국 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정치사상적 위력으로 강대한 미제국주의를 타승하였다. 전후의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천리마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 위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한것도 그리고 오늘 서해갑문과 같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와 광복거리 건설장을 비롯한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이어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는것도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적 방법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관철해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있는 우리 당의 정력적인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 경험은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을 발동할 때 그들의 역할을 비상히 높일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능히 훌륭히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열쇠이며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가장 혁명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서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풍모와 자질을 갖추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몸바쳐 싸워나갈수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페지)

주체사상교양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다.

주체사상교양의 목적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은 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의 다른 사상체계란 있을수 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수 없다.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도 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다. 우리는 당의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다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수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이다.

혁명은 남이 시켜서 하거나 그 무슨 보수를 바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성과여부는 결국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

정치사업을 앞세운다는것은 행정실무사업이나 물질적 자극을 홀시하거나 무시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행정실무사업이나 물질적 자극을 옳게 결합시켜나가는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하여 정치도덕적 자극을 차요시하고 특히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여기는것과 같은 현상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리기주의를 조장하고 그들을 돈이나 물질에만 매달리게 하며 결국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매우 위험하고 유해로운 편향이다. 정치도덕적 자극을 위주로 하여야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높일수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높이는데서 주체사상교양과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이 가지는 의의를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 수령관

리 두 익

항일혁명선렬들은 주체위업의 개척기와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빛나는 력사에 길이 전하여질 위훈을 세우고 수많은 공적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처음으로 맞이하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령도자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다함없는 신뢰와 열렬한 흠모, 그들이 지닌 수령관은 대를 이어 계승되면서 찬연히 빛나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닌 혁명적 수령관은 투철하고 진실하였기에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에서 혁명전사의 정치사상적 풍모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 이르게 하고 우리 혁명의 각이한 년대들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을 수많이 배출하는 정신적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불굴의 혁명전사들에 의하여 혁명적 수령관의 빛나는 전통은 혁명의 전진과 더불어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왔으며 우리 인민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의 모범을 본받아 철석같은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왔다.

항일의 로혁명가들로부터 새로 자라난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가려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혁명적 대풍모이며 우리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 *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적 수령관을 숭고한 높이에서 지닌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전형이다.

공산주의혁명가의 참다운 정치사상적 풍모는 혁명적 수령관에 의하여 규정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입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가장 올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그것은 혁명가들이 지닌 모든 정치사상적 특징을 가장 높이 발양시키는 근본바탕이며 그들에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도록 하는 기본요인이다.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 지니게 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사회적 집단의 생명을 대표한다. 따라서 수령을 떠나서 사회적 집단의 생명이 유지될수 없으며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이 있을수 없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집단의 생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끝없이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드는데서 영원히 빛난다. 사람들이 정치적 생명을 지닌 사회적 인간으로 참답게 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것은 곧 수령을 높이 모시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데 있다. 수령을 옳바로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에서 사람들의 영원한 삶과 행복이 확고히 담보되기때문에 그것은 혁명적 인생관의 핵으로 된다. 한생을 보람있게 살며 싸

워나가려는 혁명가의 인생관은 수령에 의하여 마련되며 따라서 사람들은 혁명적 수령관을 지녀야 인민대중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가로 될수 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수령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혁명적 수령관을 지님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혁명가들이였다.

신념이 없고 의리가 없는 사람은 대세와 추세에 따라 변하고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데 따라 흔들리며 결국 옳은 수령관을 세울수 없다. 확고한 신념과 순결한 의리로부터 세워진 수령관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가는 견결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관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한데 기초하여 세워진 것이였다.

신념은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혁명가의 마음의 기둥,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신조이다. 이러한 신념은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가장 강렬해진다.

신념으로 체득된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옳은 인식은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원리적으로뿐아니라 생활과정에서 깊이 간직하게 한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에서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하여야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수령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관은 수령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한 토대우에서 세워진 혁명적 수령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천리혜안의 심오한 통찰력으로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를 누구보다도 환히 꿰뚫어보시고 시대를 대표하는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세련된 령도예술로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하나의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우시여 그들의 투쟁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였다.

지난날 남에게 짓눌리고 천대와 멸시만을 받아온 우리 인민들, 특히 새세대의 열혈청년들은 투쟁하려고 하여도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있을 때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그들에게 투쟁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혁명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들은 진정을 모아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세기의 어둠을 밀어내고 자주의 새시대를 안아오신 혁명의 향도성으로, 짓밟히고 천대받던 인민들에게 광명한 미래를 밝혀주시는 태양으로 우러러모시였다. 항일혁명렬사 김혁동지가 지은 불멸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혁명의 향도성으로 맞이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진실하게 반영되여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열렬한 지향과 의지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고 싸워나가는 첫시기부터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것을 실지체험을 통하여 확신한 항일혁명선렬들은 수령님께 나라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으며 수령님을 해방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갔던것이다. 항일혁명선렬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은 절대적이였으며 그들이 수령님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은 신념으로 간직된 충실성에서 나온 것이였다.

실로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닌 혁명적

수령관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신념으로 체득한데 기초하여 세워졌기에 그것은 변심을 모르고 험난한 혁명의 길에서 수령님을 충성으로 모시고 받들어나가게 한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 수령관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은덕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혁명적 량심과 의리에 기초하여 세워진것이였다.

혁명적 의리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된다.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운명을 같이하는 사람들사이에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것으로는 될수 없다. 그러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기에 수령에 대한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된다.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의 의리는 수령의 은덕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을 전사의 마땅한 도리로, 본분으로 여기는데 있다. 그것은 수령과 전사와의 관계를 혈연적으로 련결시키며 혁명전사가 수령에게 다진 맹세를 그 어떤 의무감에서 보다도 인간으로서의 의리를 지키는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충실히 집행하게 한다. 그러므로 수령관은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여 세워져야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선 우리들에게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고 그것을 끝없이 빛내여나가도록 손잡아이끌어주시였다.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음으로써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었으며 이 길에서 혁명가로서의 참된 보람을 마음껏 누릴수 있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던 그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갖은 천대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을 나라찾는 성스러운 투쟁에 내세워주시였으며 맨주먹으로 싸워야 했던 그 간고한 조건에서도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한홉의 미시가루》, 《선개의 가루봉지에 깃든 사랑》, 《산삼에 깃든 이야기》 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신 은정깊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높은 정치적 신임을 주고 삶의 참다운 보람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흠모하고 따랐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드는것을 혁명적 의리로, 혁명가의 본분으로 간직하였다.

혁명의 령도자, 자기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은 이처럼 확고한 신뢰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티없이 순결한 혁명적량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혁명적 의리의 정화로 이루어진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과 맑고 깨끗한 충성심으로 일관된 항일혁명선렬들의 수령관은 주체위업의 개척기로부터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공고발전되였으며 그것은 조선혁명을 옹호보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게 한 귀중한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항일혁명선렬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는 우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데서 높이 발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나 수령님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고 따랐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습니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자기의 목숨으로 지키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고 수령님의 전사된 도리라고 생각하였으

며 그것을 실지행동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의 승리가 있고 광복된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자기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혁명적 의리로부터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다.

항일혁명투사 오중흡동지는 고난의 행군시기 집요하게 달려드는 적들의 추격과 포위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사령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신이 지휘하는 련대를 사령부로 가장하고 적들을 유인하였으며 적들이 사령부의 행방을 종시 알아내고 사령부가 있는 방향으로 공격을 집중하자 부대를 끌고 따라가서 적들을 치고 끌고 오면서 답새겨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철저히 보위하였다. 혀를 끊으면서 사령부의 비밀을 보장하고 안전을 철저히 지킨 항일혁명투사 마동희동지를 비롯한 항일유격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목숨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 방패가 되고 성새가 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였다. 사령부를 목숨바쳐 지킨 항일유격대원들의 투쟁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받드는 자세와 립장이 그야말로 투철하였다는것을 확증해준다.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항일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데서도 높이 발휘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받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자세와 립장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그에 기초하여 제시된 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뚜렷이 나타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은 우리 혁명을 옳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였다. 따라서 항일혁명선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였다.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1939년 초 청봉밀영에서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혁명로선과 방침들을 음으로양으로 헐뜯는 엄광호놈의 반혁명적 발언의 본질을 낱낱이 발가놓고 그놈에게 호된 타격을 가하시였다. 엄가놈과의 대결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심각한 투쟁이였으나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모범을 그대로 보여준다.

항일혁명투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명령지시를 집행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그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맡은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조선혁명에 관한 모든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들을 어김없이 관철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관철하는 자세와 립장이 이처럼 진실하고 철저하였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은 맨주먹으로 무기와 폭탄을 만들어낼수 있었으며 몇명 되지 않는 녀대원들이 겹쌓인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면서 수많은 군복을 며칠사이에 보장할수 있었고 청춘의 가슴으로 적의 화점을 막아 부대의 진격로를 열어놓고 전투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세계전쟁사에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조선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의 그 엄혹한 시련속에서 종파사대주의분자들의 책동으로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빛나게 고수될수 있은것도, 적은 력량으로 침략적인 군사장비로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을 걸음마다 때려부실수 있은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면서 전

투승리를 보장한것도 모두다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항일혁명선렬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선과 방침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이룩한 고귀한 결실이였다.

참으로 항일혁명선렬들의 혁명적 수령관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게 함으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위업을 빛나게 이룩할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

혁명전사들이 혁명의 령도자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바로 이것이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창조된 혁명적 수령관의 전통이다.

이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인민들은 새 사회 건설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당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따라 우리 혁명을 끊임없이 전진시킴으로써 여러 단계의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웠다.

혁명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실현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령도자를 높이 모시는 우리 인민의 올바른 자세와 립장, 령도자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은 지금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신뢰하고 받드는데서 그대로 계승되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보다 더 뜨거워지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되는 과정을 통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업적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들은 혁명을 오래한 사람이거나 적게 한 사람이나 할것없이 전체 인민이 혁명의 령도자를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나아갈 때 어떤 시련도 뚫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적 신념을 가지고 싸운것처럼 지금 당에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을 따라 굴함없이 싸워나갈 굳은 결의를 안고 살며 일하고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혁명의 세대는 바뀌여지고있으나 령도자를 받드는 충성심에는 지난날이나 오늘이나 조금도 다른것이 없다.

우리 사회에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는 고상한 풍모가 차넘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세워진 혁명적 수령관이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나가고 있다는것을 실증해주며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개척된 주체위업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지난날의 영웅적인 투쟁이나 공로도 계속 빛나게 된다.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을 계속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모두가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여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받드는데서 충성의 일편단심을 지닌 투철하고 성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되여야 할것이다.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

리 석 조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당의 전투적 위력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얼마나 강한가에 의하여 그 전투적 위력의 높이가 규정되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가 좌우된다. 당은 오직 혁명적인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닐 때만이 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할수 있으며 정치적 부대로서의 자기의 력사적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유일한 조직원칙에 의하여 수령의 두리에 하나의 전일체로 굳게 뭉치며 하나의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일것을 요구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질적 특성이다.

당이 자기의 본성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이루는 모든 당원들이 당의 유일사상, 수령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통일을 이룩하여야 하며 하나의 조직원칙에 따라 수령을 중심으로 튼튼한 조직적 결속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래야 전당이 수령의 령도밑에 숨을 쉬여도 같은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같은 말을 하며 걸음을 걸어도 같은 걸음을 걷는 하나의 유기체로, 전일적인 전투부대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뭉치고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으로 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로동계급의 당이 가져야 할 조직성과 규률성의 혁명적 본질이 있으며 그 근본요구가 있다.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최고조직이며 계급투쟁의 무기, 혁명과 건설의 무기인 당의 생명이다. 당안에 강철같은 조직성과 규률성이 보장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참말로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당으로 될수 있으며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단행본, 25페지)

조직성과 규률성이 당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당의 전투적 위력은 중요하게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에서 표현된다. 대렬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행동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로동계급의 당은 불패의 위력과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 당으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혁명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전당이 수령의 유일적 지도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는 전일체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이며 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 무기이다. 때문에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은 철저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로 되여야 한다. 만일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어긋나는 딴 사상이 조금이라도 허용되

거나 행동상 통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전투력있는 당이라고 볼수 없다.

당의 전투적 위력의 결정적 조건인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담보된다.

당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공고화되기 위하여서는 그 단결의 중심과 사상적 기초가 있어야 할뿐아니라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게 하는 정연한 행동질서와 혁명적 규률이 있어야 한다.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단결과 행동의 일치성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과 함께 전당이 제정된 질서와 행동규범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이 튼튼히 서있어야만 이루어질수 있다. 당안에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 기풍과 규률이 서있지 못한 당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실현할수 없으며 이러한 당은 자기의 존재자체도 제대로 유지할수 없게 된다. 오직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당안에 혁명적 규률과 질서가 서고 전당이 하나의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당만이 당대렬의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통일을 실현할수 있으며 필승불패의 위력을 가진 혁명적 당으로 될수 있다.

이처럼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대렬의 사상의지적 단결과 행동의 일치성을 이룩하게 함으로써 당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게 한다.

조직성과 규률성이 당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는데 있다.

당의 전투적 위력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에서 표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무기이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하는 당만이 강유력하고 전투적인 혁명적 당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당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결정을 채택하며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전당을 움직이고 혁명과 건설을 통일적으로 령도해나간다. 당의 령도를 실현하는 목적도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떠나서 당의 령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따라서 당이 혁명의 참모부로서의 령도적 역할을 옳게 수행하자면 전당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당의 령도적 권위를 높이고 당을 하나의 구령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고 투쟁하는 강철같은 전투부대로 만들수 있다.

수령의 사상과 교시, 당의 방침과 결정지시를 무조건 집행관철하는 혁명적 규률을 세우고 조직적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모든 당 사업과 활동은 일정한 행동규범과 질서를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조직들의 철저한 장악과 통제에 의하여 그 집행이 담보된다. 그런것만큼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가 철저히 관철되자면 그것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거침없이 내려가게 하고 무조건 집행되게 하는 혁명적 제도와 질서가 있어야 하며 조직적 지도와 통제가 안받침되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의도와 행동규범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당이라야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강철의 전투부대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는 혁명적 당으로 될수 있다.

이와 같이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당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령도하시였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전면에 나선 1970년대에 와서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새로운 높은 차원에서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당은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세우는것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하고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이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것으로 되게 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에 따라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나가며 전당이 하나의 구령에 따라 일치하게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사업체계를 확립한것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의 하나로 된다.

당사업체계는 당사업과 당활동을 조직전개하는 질서와 제도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사업 질서와 제도를 철저히 세워야 당이 통일적인 규범과 규률에 따라 한결같이 움직이는 전일적인 전투대오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성격과 사명에 비추어볼 때 당사업체계는 마땅히 당의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철저히 보장하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사업체계로 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러한 원칙적 요구를 구현하시여 혁명적인 당사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조직령도하시였으며 당안에 정연한 당사업체계를 세워놓으시였다.

당안에 세워진 수령의 유일적 령도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체계,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 정연한 하부지도체계 등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독창적으로 마련된 혁명적인 당사업체계이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위력한 당사업체계이다.

당안에 정연한 사업체계가 서고 그것이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매개 당원들은 당조직에, 아래당조직은 웃당조직에 철저히 복종하며 전당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유일적 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규률이 확고히 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당안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제때에 침투시키는 정연한 사업체계와 혁명적 질서가 튼튼히 서게 되였으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원칙적 문제들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집중시키고 그이의 유일적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혁명적 규률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고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 질서와 규률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새로운 정연한 당사업체계와 중앙집권적 규률의 확립, 이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공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시고 간

부들과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의 조직관념이 더욱 높아지고 모두가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였다. 참으로 당대렬이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되고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이 비상히 강화된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실현하기 위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당원들의 끝없는 충성심과 높은 정치적 자각성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것으로 되고있다. 전당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굳게 뭉쳐있고 당의 유일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단합되여있으며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에 의하여 백전백승하는 불패의 위력을 지니고있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당의 자랑찬 면모이다.

현시기 당앞에는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당조직들은 당안에 혁명적인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을 전투력있는 강위력한 혁명적 당으로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조직원칙과 규범대로 활동하며 전당이 당중앙위원회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률을 세워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43페지)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하는것은 당안에 혁명적 조직규률을 세우기 위한 선차적 요구이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당에 모든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추호의 동요도 없이 오직 당의 의도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철저히 확립할수 있다.

당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당을 따라 혁명을 끝까지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은 당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형성되고 실천투쟁속에서 더욱 공고해진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할 숭고한 사명을 지니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우리 당의 위대성과 높은 령도적 권위, 당의 력사적 사명과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면 스스로 당을 받들고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게 된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우리 당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을 깊이 깨우쳐주어 그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의리로 깊이 간직하게 하고 당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도록 하여야 하며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질서를 세우는것은 당안에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세우기 위한 원칙적 요구이다.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주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며 중앙집권적 규률이다.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주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당의 결론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자의대로 망탕 처리하면 당

안에 혼란과 무규률이 조성되여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할수 없으며 당의 의도대로 당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론과 지시에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당의 요구가 담겨져있으며 수행하여야 할 정책적 과업과 그 실현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여있다. 때문에 모든 문제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해나가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있으며 그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일수 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주요한 원칙적 문제들을 반드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고 집행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움으로써 우리 당을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혁명적 전투부대로 굳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며 당내부생활 규범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것은 당원들을 혁명화하고 그들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높여 당을 강한 전투력을 가진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위력한 방도이다.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은 전당에 혁명적인 당생활체계를 세우고 당원들속에서 당생활을 강화할 때 더욱 높아진다. 당생활은 그자체의 교양통제적 기능을 통하여 당원들속에서 높은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닐수 있게 한다.

우리는 당이 세워준 당생활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당원들의 당생활을 더욱 강화해나감으로써 그들을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단련하고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굳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철저히 관철할 때 우리 당의 높은 령도적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당을 하나의 조직적 의사와 규률에 의하여 움직이는 강철같은 전투적 부대로 만들수 있다.

우리는 당의 결정과 지시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으로,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이 전당을 지배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굳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의 조직성과 규률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백전백승의 위력을 가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굳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농업생산장성의 중요담보

전 성 환

지금 온 나라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완전승리의 휘황한 설계도를 높이 받들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기 위한 대중적 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될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더욱 늘임으로써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은 농업을 공업화하여 농촌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당면하게는 제3차 7개년계획의 1,500만톤 알곡고지를 점령하여 인민들의 먹는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보람찬 과업이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여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농업을 공업화할수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한다는것은 관개수리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농업생산의 전과정이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를 더욱 다그치고 농업과학의 성과와 선진영농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농업생산을 더 빨리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3권, 268페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무엇보다도 위력한 물질기술적 수단으로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농업생산에서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한다.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고있으며 생산과정이 생물체를 자래우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되여있다. 생물체인 농작물은 자라는 과정에 많은 물과 영양물질을 요구하며 토지의 비옥도와 날씨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연조건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농업에서는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주고 불리한 자연조건을 얼마나 극복하는가에 따라 생산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자연기후조건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결코 불가항력적인것이 아니다. 농업생산에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면 능히 극복할수 있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실현하여 관개

와 배수, 치산치수를 잘하면 큰물과 가물의 피해로부터 토지와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물학적 요구에 맞게 물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다. 또한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여 구색에 맞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극 리용하면 토지를 개량하여 그 비옥도를 높이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킬수 있으며 여러가지 병충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와 화학화는 농작물이 요구하는 물과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을수 있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이겨내는데서 기본고리로 된다.

농촌경리의 전기화, 기계화는 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일들을 헐하고 능률적으로 할수 있게 함으로써 농작물의 생장과 결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화학화에서의 성과는 전기화, 기계화를 다그칠 때 더욱 확고히 담보된다.

이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 여기에 여러가지 불리한 자연조건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농업생산에서 언제나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또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업을 고도로 집약화하여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농업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주체농법의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위대한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농업을 고도로 집약화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농촌경리의 집약화는 단위면적에서 농업생산을 최대로 늘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농업생산의 장성은 중요하게 경지면적의 확대와 단위당 수확고의 증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농업에서 기본생산수단인 토지는 량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되여있으나 잘 리용하기만 하면 그 생산성을 얼마든지 높일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경지면적을 늘이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토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농업의 집약화는 바로 이미 있는 토지를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의 집약화는 높은 기술장비수준과 농업과학의 성과를 전제로 하고있다. 농업에 현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토지를 합리적으로, 집약적으로 리용할수 있으며 단위당 수확고를 끊임없이 높일수 있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토지의 단위면적에 관개시설들과 전기동력설비, 뜨락또르를 비롯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여러가지 화학수단들을 더 많이 투하할수 있게 한다. 단위면적에 투하되는 물질기술적 수단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농업의 기술장비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이 높아질 때 토지의 지력을 높이고 김과 병충해를 미리 막을수 있으며 집약농법인 포기농사의 우월성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그리하여 이미 있는 토지의 생산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단위당 수확고를 더욱 증대시킬수 있게 된다.

이처럼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업을 고도로 집약화함으로써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또한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빨리 늘일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사회주의농촌경리는 본질에 있어서 대규모경리이다. 대규모농촌경리는 소농경리에 비하여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소규모적인 개인농경리로는 생산력을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나 대규모농촌경리는 농업생산의 전과정에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공업적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여준다. 소농경리와는 달리 대규모의 사회주의농촌경리는 토지의 리용률과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선진영농기술을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게 하며 공업로동과 농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농사일에서 해방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고리로 된다.

농촌경리를 현대적 기계기술에 기초한 대규모경리로 발전시켜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공업에 비한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에서의 락후성을 없애고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계와 기술에 기초한 선진적인 기술공정으로 전환시켜 농업을 공업화할수 있게 한다. 농업이 공업화되면 농업생산이 비록 생물학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전과정을 기계와 전기, 화학의 힘에 의하여 진행할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더욱 완성될수록 대규모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튼튼히 다져지게 되며 농업생산에서 노는 물질기술수단들의 역할이 비상히 높아져 농업생산이 빨리 발전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는 여기에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농촌경리를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하여야 농업생산을 빨리 늘여나갈수 있다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확증된 고귀한 진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농업생산을 늘이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농촌기술혁명의 기본과업으로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오래전에 실현되였으며 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특히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부문에서 일하는 뜨락또르대수는 1.5배, 자동차대수는 1.3배, 련결차대수는 1.7배로 장성하였으며 모뜨는 기계와 모내는 기계, 김매는 기계, 가을하는 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들도 빨리 늘어났다. 농촌경리에 대한 화학비료공급량이 1.6배로 장성하여 논밭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은 2톤이상에 이르렀으며 여러가지 농약공급량도 훨씬 늘어났다. 또한 이 기간에 200여개의 저수지와 3,000여개의 양수장 그리고 수많은 지하수리용시설들이 새로 건설되여 수리화의 성과가 더욱 확대되였으며 농촌경리의 전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서도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처럼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 올려세움으로써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력의 빠른 발전을 이룩하여 보다 높은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가 마련되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가 힘있게 추진된 결과 우리 나라 농업생산은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지난날 낡은 사회로부터 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농업을 물려받은 우리 나라

에서 1979년에는 9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였으며 제2차 7개년계획의 마지막해인 1984년에는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농업생산에서 이룩된 이 모든 자랑찬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나라 농촌의 구체적 실태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농촌기술혁명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야말로 농촌기술혁명의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는 지도적 지침이며 앞으로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한 가장 곧바른 길은 바로 당의 이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또한 농업생산을 계속 늘이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당이 가리키는대로만 하면 농촌문제해결에서 더 높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여주고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하신 농촌기술혁명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농업을 공업화하고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을 공업화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농업생산을 현대적인 기술공정으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완성하며 이미 실현된 수리화와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발전시켜 농업을 고도로 공업화하고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인 과업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빨리 완성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성능이 높은 뜨락또르를 더 많이 보내주어 부침땅 100정보당 뜨락또르대수를 10～12대에 이르게 하며 모내는 기계, 모뜨는 기계, 가을하는 기계, 이동식탈곡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논밭갈이로부터 씨뿌리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이르는 모든 농사일을 완전히 기계화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는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며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보다 화학비료공급량을 훨씬 더 늘여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2.5톤이상에 이르게 하며 미량원소비료와 함께 유기질비료도 공업적 방법으로 넉넉히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살초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들의 공급량을 결정적으로 늘여 기계로 할수 없는 농사일은 모두 화학의 힘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을 공업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다.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우리는 지금 있는 관개시설들을 정비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보다 현대적인 관개체계를 세우며 통수능력을 높여 논밭에 관개수를 넉넉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위력

한 수리화체계가 더 큰 은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촌경리부문에 전력도 더 많이 보내주어 농업생산에서 전력의 리용분야를 지금보다 훨씬 넓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이나 그 주인이 제구실을 하여야 잘되는것처럼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도 주인인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기풍을 가지고 노력하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촌기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특히 이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고 기계화,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주인다운 기풍은 중요하게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타난다.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기계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토지정리를 잘하며 과학적 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능률적인 중소농기계들을 만들어내며 지금 있는 농기계들을 더 쓸모있게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는 과학기술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고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담당자는 다름아닌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다.

농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언제나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다 성능이 높고 다루기 편리한 현대적인 농기계들과 효능높은 화학비료, 농약들을 더 많이 연구해내야 한다. 특히 현실에 깊이 들어가 농업근로자들과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하며 이미 연구도입된 농기계들이 자기의 능력을 다 나타내도록 성의껏 도와주어야 한다.

농업과 련관되여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성을 높이는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그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생산보장하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힘있는 지원과 방조 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서는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고 우선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여러가지 농기계들과 화학비료, 농약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종합적 기계화와 화학화를 빨리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 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를 철저히 실현하여 농업을 공업화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

박 근 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될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치시여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수산부문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한해 수산물생산량을 1,100만톤에 이르게 하며 그가운데서 물고기는 300만톤이상 생산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새 전망계획의 수산물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수산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에 바다를 끼고있으며 바다속에는 무진장한 자원이 있습니다. 이 자원을 개발하고 리용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며 생활을 높이는데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13권, 334페지)

수산업은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길러내며 가공하는 중요한 물질적 생산부문이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 물고기기르기, 수산물가공업과 같은 여러 부문으로 이루어진 수산업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수산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향과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바로 이끌어주시였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의 수산업은 수공업적인 기술에 기초하고 기형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있던 지난날의 락후성을 짧은 기간에 털어버리고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수산업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최신 과학과 기술에 기초하여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기본생산수단인 배, 어구, 가공설비들이 현대화되였다. 그리하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게 되였으며 수산물생산이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서 진행되게 되였다. 오늘 수산부문에는 최신기술로 장비된 대형어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선들과 현대적인 어구들, 대규모의 랭동, 랭장설비와 같은 갖가지 가공설비들, 기계화, 자동화된 부림설비들과 운반설비들이 튼튼히 갖추어져있다.

우리 나라 수산업은 물고기잡이, 바다가양식, 가공을 비롯한 기본생산부문들을 다 갖추고있으며 대형어업과 중소어업, 먼바다물고기잡이와 가까운바다물고기잡이를 다같이 발전시켜 수산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수산업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특히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배들의 현대화, 만능화가 다그쳐지고 수산물가공기지들이 대대적으로 확장됨으로써 그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제2차 7개년계획기간에 한해에 360만톤의 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더 많은 물고

기와 가공품을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

수산부문의 다른 단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양화수산사업소에서도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 기간 우리 수산사업소에서는 물고기잡이배 척수를 거의 2배나 늘이고 현대적인 어구를 갖추었으며 대규모의 랭동공장을 일떠세우고 대형어선들을 댈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여 물고기잡이를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았다. 제2차 7개년계획기간 우리 수산사업소의 공업총생산액은 3.7배, 수산물생산은 1.9배로 장성하였으며 얼굼제품과 절임제품, 젓갈품, 말린 제품, 물고기기름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수산물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은 언제나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끝바른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사업을 언제나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양화수산사업소에도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사업소건설과 물고기잡이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우리 양화수산사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로공 한사람당 물고기생산량을 늘이며 물고기가공을 기계화하는 사업, 물고기가공실 건설과 부두안벽공사, 수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수산부문의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며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생활조건을 더욱 개선하는것을 비롯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여 수산업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수산정책은 수산부문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으로,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수산업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리는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수산물생산을 더욱 높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 수산물가공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려 수산물생산을 끊임없이 높일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것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부식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여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개선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업의 하나로 제시하고 근로자들의 먹고입고 쓰고사는데서 나서는 다양한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식의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것은 먹는 문제를 푸는것이다.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를 발전시켜 알곡과 고기, 남새 생산을 늘이는 한편 근로자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여러가지 부식물들을 넉넉히 공급할수 있도록 수산동식물을 채취하거나 길러내며 가공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농업이 급속히 발전하여 알곡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근로자들의 식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수산물을 많이 생산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수산물생산을 늘이는것은 단백질부식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부식물을 근로자들에게 많이 공급하여 그들의 식생활을 빨리 개선할수 있게 한다. 예로부터 수산물을 많이 생산해온 오랜 력사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있으며 오늘 수산업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수산업발전에 더 큰 힘을 넣는다면 짧은 기간에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수산업을 발전시킬수록 현대적 방법으로 수산물을 생산, 가공하여 랭동품과 통졸임, 병졸임, 절임품, 젓갈품, 말린 제품을 더 많이 보장할수 있다.

수산물은 원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양물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원천으로 되는것만큼 그것을 많이 공급하면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훨씬 더 개선해나갈수 있다.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원료와 자재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게 한다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오늘 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높아짐에 따라 수산 원료와 자재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현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물고기와 바다나물, 조개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종합적으로 가공하여 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여주고있다.

수산 원료와 자재에 대한 인민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는 수산업에 큰 힘을 넣어 수산물생산을 늘여야 해결되게 된다.

수산업은 식료가공공업, 화학공업, 제약공업의 원료와 축산업에 단백질, 광물질 먹이를 생산공급하며 대외무역에 많이 요구되는 수출상품을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수산업의 발전은 또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최신기술로 장비된 기술수단들과 능률적인 어구들에 대한 수요를 끊임없이 제기함으로써 련관된 공업부문들의 발전을 자극하고 추동하게 된다. 뿐만아니라 수산업의 발전은 소비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더 잘 보장하며 인민경제의 부문구조와 그 기술장비수준을 개선하도록 영향을 줌으로써 전반적인 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고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대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 수산물가공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현시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물고기잡이에 힘을 넣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집단적으로도 잡고 분산적으로도 잡으며 먼바다에서도 잡고 가까운 바다에서도 잡으며 큰 배로도 잡고 작은 배로도 잡으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식으로 쉴새없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323～324페지)

물고기잡이는 수산업의 중요한 1차 생산부문의 하나이다. 물고기잡이가 발전하여야 수산물가공업이 따라설수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단백질부식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짐승먹이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우리 나라 바다에 물고기자원이 풍부하고 우리에게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출어일수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출어일수를 늘이는것은 출어회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물고기생산을 높이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물고기잡이를 위하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 날자가 많아야 물고기생산량을 늘일수 있다.

우리 당은 수산부문에서 1년에 300일 이상 출어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출어일수를 한해에 300일이상 보장하는것은 명태를 비롯하여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물고기때만 바라보고 다른것을 내버리는 낡은 투기적 현상을 없애고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여러가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출어일수를 늘이는데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큰 고기배로 물고기잡이를 적극 벌리는것이다. 불리한 자연의 영향을 이겨내면서 물고기를 잡는데는 작은 고기배보다 큰 고기배들이 결정적으로 우월하다. 큰 고기배는 가까운 바다와 먼바다, 여름철과 겨울철 할것 없이 그 어느때, 어느곳에서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3,750톤짜리 고기배는 해양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이 없이 사철 물고기잡이를 하여 한해에 수만톤씩 잡을수 있다.

지난 기간 우리 수산사업소에서 물고기생산을 크게 늘이게 된것은 3,750톤짜리 고기배를 비롯한 대형고기배들의 척수가 늘어나고 대형고기배 척당 생산량이 장성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 있다.

3,750톤짜리 대형고기배는 450톤짜리 중형뜨랄선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3,750톤짜리, 2,000톤짜리 고기배들을 많이 만들며 거기에 바다밑층과 가운데층, 웃층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을수 있는 여러가지 현대적인 어구들을 잘 갖춘다면 물고기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출어일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대형화, 만능화된 여러가지 고기배들을 많이 갖추는것과 함께 고기배들을 제때에 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기배를 제때에 수리하는것은 이미 마련된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물고기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수산사업소들에 고기배들이 많아도 고장난 배들을 제때에 수리하지 않으면 출어일수를 늘일수 없으며 물고기를 많이 잡을수 없게 된다. 물고기생산을 늘이자면 배수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고장난 고기배를 제때에 수리하여 모든 배들이 계속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소들에 배수리직장을 꾸리고 거기에서 큰 고기배들을 수리해주며 수산사업소들에 있는 배수리기지도 잘 꾸려 작은 배들을 제때에 수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배수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도 영농물자를 보장하여주는것과 같이 우선적으로 대줄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배수리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원만히 대주며 조선소의 배수리직장과 수산사업소의 배수리기지들에서 고장난 배를 제때에 수리하여 출어일수를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

배들이 계속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활발히 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잡은 물고기를 빨리 부릴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는것이다.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부릴수 있는 조건을 잘 갖추는것은 고기배들의 출어일수와 출어회수를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잡은 물고기를 빨리 부리기 위해서는 크고작은 고기배들을 많이 댈수 있도록 부두를 크게 건설하여 계류능력을 높이고 거기에 현대적인 부림시설을 갖추며 고기받이장을 잘 꾸려야 한다.

이와 함께 항들에서 고기배들의 소속에 관계없이 잡은 물고기를 제때에 부리워주는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고기배들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들어오면 어느 수산사업소 고기배든지 관계하지 말고 부리우며 다시 바다에 나가 물고기잡이를 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중요한 방침이다. 이것은 고기배들이 멀리 가서 잡은 물고기를 자기 수산사업소에 가져다 부리우는 과정에 있게 되는 시간과 기름의 랑비를 없애고 보다 적극적으로 물고기잡이를 할수 있게 하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고기배들은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가까운 항에 들어가며 항들에서는 그것을 제때에 부리워줌으로써 계절적으로 밀려드는 고기떼들을 놓치지 말고 다 잡도록 하여야 한다.

물고기생산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어일수를 늘이는 한편 물고기잡이에 대한 조직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지휘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물고기잡이에서는 회유서식방법을 끊임없이 달리하는 물고기를 대상으로 하여 어로전을 벌리는것만큼 그 자원량과 회유서식상태를 알아내고 그에 맞게 생산을 과학적으로, 기동적으로 조직진행하는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물고기잡이에 대한 조직체계를 바로세우고 조직지휘를 잘하여 명태잡이철과 정어리잡이철을 비롯하여 사철 고기배들이 물고기잡이전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하는것이다.

바다가양식은 수산자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계획적으로 생산하는 수산업의 중요한 부문의 하나이다.

얕은 바다가 많고 여러가지 수산자원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바다가양식을 널리 벌려 바다나물과 조개류 등을 많이 길러야 짧은 기간에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다.

특히 바다나물양식을 잘하는것이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다시마, 미역과 같은 바다나물을 많이 양식하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고 식료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다시마에 대한 요구는 우리 인민들속에서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이 제기되고있다.

다시마를 비롯한 바다나물은 양식하기도 쉽고 정보당 수확고도 높다. 우리나라 바다물온도는 어디서나 바다나물을 양식하는데 적당하며 바다가양식을 할수 있는 적지가 또한 많다. 우리는 바다나물생산을 늘이고 그 가공을 잘하여 인민들이 맛있고 분한있게 먹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자면 다시마가공공장을 잘 꾸려야 한다.

바다가양식을 널리 벌려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그것을 위한 기지를 많이 조성하는것이다.

바다가양식기지를 통이 크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조성한다면 짧은 기간에 큰 자원을 마련할수 있다.

우리는 바다가양식적지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이르는곳마다에 양식기지를 꾸려야 한다.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를 충분히 대주며 자그마한 배들을 많이 무어 양식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바다가양식면적을 확장하고 다시마, 미역, 김을 비롯한 바다나물생산과 여러가지 조개, 전복, 해삼, 큰새우 등의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그 생산량을 모두 800만톤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현시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당의 수산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 인민들에게 공급하는것은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맡은 혁명과업이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을

비롯하여 수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모든 과업들의 성과적인 수행여부는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수산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어떻게 벌려나가는가에 달려있다.

더우기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것이 변화무쌍한 자연과의 투쟁인것만큼 높은 혁명정신을 가지고 적극 투쟁하여 불리한 조건을 성과적으로 극복하여야 수산물생산을 훨씬 더 늘일수 있다.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는 수산자원이 적어질수도 있고 파도가 심할 때도 있으며 간혹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을수도 있다. 어떤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여도 적극적으로 투쟁하여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물고기잡이를 힘있게 벌리는것이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며 일본새이다.

수산부문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여기에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일군들은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지금 수산부문에 마련된 물질기술적 토대가 위력하며 커다란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것만큼 일군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투쟁정신을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직지휘사업을 짜고든다면 물고기생산을 훨씬 늘일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과 창발성을 발휘하여 수산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사업과 물고기잡이, 물고기가공, 양식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함으로써 수산물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특히 우리 일군들은 수공업적 기술과 낡은 경험에 매달려 투기적으로 물고기잡이를 하는 그릇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수산업을 확고한 과학기술적 토대우에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 수산물가공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에 필요한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달라붙어 물고기잡이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어황조건에 맞게 기동적으로 물고기잡이전투를 벌리며 바다가양식을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수산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맡고있는 책임과 임무는 무거우며 우리들에 대한 당의 신임과 기대는 대단히 크다.

우리는 수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여 수산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임으로써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강령

류 재 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10돐이 된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성과와 경험의 자랑찬 총화이며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과학적인 해답을 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의 불멸의 총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민족문화건설과 교육발전 력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 사회주의교육건설의 찬란한 발전과 더불어 교육테제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더욱더 힘있게 과시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계속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교육사업을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유일하게 옳바른 길을 밝혀준 불멸의 교육총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참다운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며 우리 시대 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준 력사적문헌입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1페지)

사회주의교육테제는 그 전체계와 내용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위한 독창적인 사상리론 및 방법론으로 일관되여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들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지도적 지침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그를 구현하기 위한 원칙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로동계급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교육교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명시되며 그 방도가 규정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게 혁명적으로 제시하여야 봉건유교사상, 자본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비로동계급적인 사상의 침습을 막아내고 사회주의교육을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로 정식화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

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울수 있게 하시였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한다는것은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든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자주적인 존재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 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휘할수 있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는것과 함께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지식은 곧 사람의 창조적 능력이며 과학적 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건장한 체력은 인간의 정신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 담보이다. 건장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의 련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 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는 확고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와 함께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며 주체를 세우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밝히신 사회주의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주체를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교육사업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 지침이다.

교육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 선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벅교육을 한다면 사람들이 범벅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범벅사회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자기 나라 실정과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고 국제적 위업에도 충실히 복무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또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람들의 지적 발전의 특성에 맞게 가장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확고히 담보해주고있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혁명성으로 일관되고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게 구성되고 정해져야 사람들을 혁명적인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을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다같이 잘해나갈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사람의 지적 발전과 사유활동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밝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은 사람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밝힌 지도적 지침이다.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의거하여 주체사상으로 일관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을 다같이 잘하여야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원칙, 내용과 방법뿐아니라 사회주의교육제도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에 관한 사상에 이르기까지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명을 줌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육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교육강령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새세대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 투철하게 서고 창조적 능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혁명적인 교육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길을 밝힌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교육강령인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소유한 열렬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지닌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다. 력사적 경험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적인 교육 리론과 방법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교육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울수 없으며 사회에 건전한 혁명적 기풍을 확립할수 없고 간고한 시련을 동반하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위대한 교육테제의 기치따라 사회주의교육사업이 발전함으로써 전체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이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을 지닌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튼튼히 준비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이 성과적으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우리 시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 문헌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교육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사회주의교육의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교육테제가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교육사업에 언제나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습니다. 우리는 특히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5권, 304페지)

교육사업을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혁명사업으로 여기시고 여기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오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실 원대한 구상밑에 위대한 교육테제를 내놓으시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연설《〈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와 결론《〈사회주의교육

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를 하시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교육테제를 발표하게 된 취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교육실천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국교육일군대회를 여시고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전국교육일군대회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였으며 모든 교육일군들을 새로운 승리와 위훈에로 고무한 투쟁의 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테제관철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중요하게 상정시키시였으며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학교를 찾으시여 교육테제가 어떻게 관철되고있는가를 일일이 알아보시고 걸린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더욱더 빛나게 관철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을 다그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할 우리 혁명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인민교육사업과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교육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시였다. 여기에서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1984년 7월에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를 마련하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서한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보내주신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서한에서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밝힌 주체의 교육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론증하시고 교육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는 길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교육사업은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교육테제의 빛발아래 우리 나라 교육사업에서 일어난 전변은 무엇보다도 이미 수립된 사회주의교육제도가 끊임없이 공고발전됨으로써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더 잘 키워나갈수 있게 된것이다.

교육제도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실제적인 담보이다.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나라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가장 선진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제도로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가장 우월한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고있으며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가 확고히 실현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학교교육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빛발아래 또한 정규교육과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우월한 교육제도가 더욱 발전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들이 일떠서고 통신교육망 등이 발전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있으며 그 누구에게나 배움의 길이 활짝 열려져있다.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변은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위대한 생활력이 낳은 또하나의 자랑찬 성과이다.

지난날 일제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

과로 말미암아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고 고등교육을 받은 기술자, 전문가도 불과 몇명밖에 안되였던 공화국북반부에 오늘은 230여개의 대학이 일떠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기술공학을 전공하는 기술자, 전문가들의 양성기지가 튼튼히 꾸려졌으며 125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났다. 해방후 령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나라 교육사업이 오늘 고등의무교육을 당면과업으로 내세우고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 매우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길에서 이룩한 가장 큰 승리의 하나이며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이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빛발아래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당과 대중의 정치사상적 통일이 강화되였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할 불타는 충성의 결의에 가득차있다.

또한 오늘 우리 나라에는 새세대 어린이들로부터 백발의 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혁명적으로 배우며 생활하는 건전한 기풍이 차넘치고있다.

모든 근로자들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밑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10년, 20년 자기 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혁명적 풍모이며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교육사업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또한 나라의 과학기술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주체문학예술의 화원이 더욱 만발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이 빛나게 해결되고있으며 문학, 영화, 가극, 연극, 음악, 무용, 미술, 교예 등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민족문화건설사업,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게 한 사상적 힘의 원천이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한 사회주의교육의 대전서이다.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강령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을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끊임없이 계속되게 된다. 따라서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직접적 담당자인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계속해야 한다. 공산주의사회가 건설되면 인간해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은 완전히 실현되지만 그때가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는 끊임없이 높아진다. 공산주의사회에서 끊임없이 높아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맞게 사회관계를 개선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을

교육교양하고 사회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며 자연을 개조하고 물질적 부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도 보다 거창한 범위에서 진행된다. 이것은 공산주의사회에 가서도 자연과 사회개조의 직접적 담당자인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이러한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교육을 건설하고 발전시킬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고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게 될 인간이 갖추어야 할 품격, 다시말하여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과학기술적 자질과 체력을 다같이 소유한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사상리론 및 방법론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여있다.

우리는 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집》 제32권, 438페지)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교육의 질 특히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현대적 기술로 장비되고 생산이 고도로 기계화, 자동화되는 조건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과 정치일군들을 많이 키워내야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학자체에서 교육사업을 잘하는 한편 고등중학교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생들이 고등중학교과정에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할수 있다. 고등중학교에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형성되고 과학기술의 기초를 쌓은 쓸모있는 사람들로 키우며 우수한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주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은 학생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교원들의 자질과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 교육의 질적 상태가 규정되게 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범교육을 강화하고 현직교원들에 대한 재교육사업을 끊임없이 벌려 그들이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실험실습교육을 강화하는것은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리론을 실천을 통하여 공고히 하고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만들게 하며 창조적 능력을 키우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는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널리 써먹을줄 알도록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학생들을 최신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오늘 교육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인간의 창조적 지혜의 산물인 과학기술은 오늘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으며 경제발전에서 과학과 기술이 노는 역할이 지금처럼 높아진 례는 일찌기 없다. 과학과 기술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세포공학, 유전자공학, 초고압물리학, 극저온물리학, 레이자, 플라즈마를 비롯한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들이 계속 개척되고 그 응용분야가 더욱더 늘어나고있다. 그리고 생산에서 자동화, 로보트화가 널리 도입되고 경영활동에서 전자계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과학기술수단들이 많이 리

용되고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추세이다.

우리는 현대적 과학기술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최신과학기술의 첨단을 개척해나가는 훌륭한 기술인재들을 하루빨리 더 많이 길러내야 하며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기술자, 전문가의 대오를 200만이상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높이고 학교들의 물질적 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회적 지원운동을 한층더 힘있게 벌리는것은 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교육사업은 교원과 학생이 있으면 다 되는것이 아니다. 교육에 필요한 교사와 교구비품, 실험실습기자재 등 모든 물질적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교육의 질을 높일수 있으며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은 또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이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로동생활에서 자주성이 실현되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한편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과 같은 고등교육기관들을 늘이며 교육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여기에 바로 온 사회의 인테리화의 가장 빠른 길이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사회주의교육의 로동계급적 성격을 고수하고 테제의 요구대로 교육사업을 굽임없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교원들이 학생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현대적인 과학기술적 자질을 훌륭히 갖춘 혁명인재로 키우도록 하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교원들과 학생들이 당정책을 얼마나 알고있는가, 학교교육의 질이 어떠한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높은 질적 수준에서 진행되도록 늘 낮을 돌리고 당적 지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경험은 각급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이 학교에 자주 나가 강연도 하고 교수교양사업에서 걸린 문제들도 제때에 풀어주며 학교 소년단 및 사로청 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늘 당적 관심을 가지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곳에서는 교육테제가 빛나게 관철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당조직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교육테제관철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며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의무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교육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육성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며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리 영 복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근본원칙이며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길을 걸어온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력사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지난 10년간의 투쟁로정은 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 바로 여기에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우는 비결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당은 조성된 정세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는 원칙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관철해나감으로써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을 위한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마련해가고있다.

우리는 당의 령도밑에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조선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나가야 할것이다.

* *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문제는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의 혁명위업에 철저히 복무시키기 위한 인간육성의 근본방향과 교육건설의 근본방도를 밝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에 의하여 민족국가를 단위로 혁명과 건설이 진행된다는 사정으로부터 출발할 때 교육이 어떤 인간을 키워내야 하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어떤 립장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해답을 주는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근본문제이다.

교육에서 주체확립문제를 정확히 풀어야 교육사업이 자기 나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다.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인 발전의 길을 걷고있으며 교육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교육에서 주체를 확립하는 문제는 더욱 절박한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육성과 우리 시대 교육발전에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시여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을 제시하심으로써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79페지)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문제와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는 문제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두 측면으로서 교육에서의 주체확립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 여기에는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본 인간육성의 목표와 함께 교육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방도가 명시되여있다.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것은 주체적인 교육이 해결하여야 할 인간육성의 목표이며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는것은 주체적인 교육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근본방도로 된다.

교육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는것은 바로 자기 나라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인재를 키워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교양육성하려면 반드시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모든 사고와 혁명실천에서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을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다. 여기에는 교육에서의 주체는 곧 자기 나라 혁명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관통되여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사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인간의 구체적인 산 모습을 새롭게 밝혀주고 우리 시대 교육건설의 근본 립장과 방법을 뚜렷이 명시해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무엇보다도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지금과 같이 나라와 민족이 구별되여있으며 사람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살아나가고있는 조건에서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떠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란 있을수 없으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주인을 대신하여 혁명과 건설을 해줄수도 없다. 그리고 앞으로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된 다음에도 사람들은 자기 조국과 민족을 떠나 구태여 낯선 다른 나라에 가서 살 필요는 없을것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그 나라 인민이 책임지고 수행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혁명과 건설의 직접적 담당자, 그 계승자들을 키워내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철저히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 당이 제시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이러한 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한것으로서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고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내는 기본열쇠를 준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

이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원칙은 또한 사회주의교육의 본성적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은 구체적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키우는 창조적 사업이다.》(우와 같은 문헌, 379폐지)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을 그 본성적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교육사업은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산 사람을 키우는 창조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이 사람들을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만들려면 그들에게 높은 자주적 사상의식과 함께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오랜 세월 민족을 이루고 살면서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주위세계, 매개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자연지리적 조건도 서로 같지 않다.

이러한 조건에서 모든 인민의 민족적 특성과 매개 나라의 구체적 환경에 다 들어맞는 교육 리론이나 경험이란 있을수 없다.

만일 그 어떤 기성리론이나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본따서 가르친다면 그러한 교육은 사람들에게 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하는 힘있는 무기를 안겨줄수 없을것이며 결국 사람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되게 할것이다.

이로부터 사회주의교육이 명실공히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를 능동적으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힘있는 존재, 산 인간으로 키우는 창조적 사업으로 되게 하자면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기성리론이나 종래의 판례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나라의 현실과 자기 인민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은 바로 교육사업을 자주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그 본성에 맞게 구체적 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키우는 창조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고있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 원칙은 우리 나라 교육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발휘된 사회주의교육사업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는 전기간 교육에서의 주체는 곧 조선혁명이라는 립장에 철저히 서서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왔으며 교육내용을 새로 편성하고 교육방법을 하나 세우는데서도 그것이 다 사람들을 조선의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데 복종되도록 하였다.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제시하시고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심으로써 항일혁명대오의 골간을 튼튼히 꾸리고 조선혁명의 후비력량을 믿음직하게 마련하시였다.

해방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적 락후성》과 《문화적 후진성》을 떠들면서 나라의 교육발전을 저애하고있던 온갖 계급적 원쑤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집요한 방해책동을 물리치시고 우리 나라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뒤떨어진 처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자체의 민족간부를 빨리 키워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식의 교육, 주체적 교육을 건설할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

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온 나라가 힘을 모아 종합대학부터 먼저 일떠세우고 그를 모체로 하여 대학이 대학을 낳는 방법으로 고등교육기관을 급속히 늘여 지방마다에 종합적 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력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단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빈터전우에 자체의 힘으로 민족간부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그처럼 어려웠던 민족간부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교육교양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고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독창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그리하여 교육사업에서 낡은 사회의 잔재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당의 정책적 요구가 드팀없이 관철되게 되였으며 우리의 새세대들은 혁명적 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지식을 가진 유능한 혁명인재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앞장서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전위로 자라게 되였다.

오랜 세월 민족자주의식을 좀먹던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구속으로부터 우리 인민의 완전한 정신적 해방을 이룩하고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놓을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체사상교양방침과 교육에서의 주체확립원칙이 빛나게 실현된 자랑찬 결실이다.

오늘 우리 혁명의 환경과 조성된 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드팀없이 관철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 혁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섰으며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는 새로운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이며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가장 심각하고 거창한 혁명투쟁이다.

오늘 조성된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고 착잡하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의연히 여러가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있다. 지금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군사파쑈도당은 《두개 조선》 조작음모와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도처에서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경제적 침투를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끊임없이 심화되는 우리 혁명과 조성된 내외정세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어떤 모진 바람이 불어와도 끄떡함이 없이 우리 식대로 살아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그러자면 사람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교육사업에서부터 주체를 철저히 세워 그 어떤 잡사상이나 이색적 요소도 우리 내부에 조금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며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새세대들을 조선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더 잘 키워내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확립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다.》(우와 같은 문헌, 379페지)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 립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은 교수교양활동과 교육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주체적 교육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교육정책에 기초하여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식대로 풀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교육정책이 집대성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교육사업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민족간부양성사업과 후대교육사업을 우리 식대로 진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교육혁명을 일으켜 나라의 현실적 및 전망적 요구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맞게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계단 높이고 기술자, 전문가 양성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온 사회를 인테리화할데 대한 강령적 과업을 제시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사회주의교육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뚜렷한 진로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어려운 시기에 당의 교육 로선과 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우리의 교육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온것처럼 우리 당의 교육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간개조, 교육문제를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주체교육의 대화원을 더욱 찬연히 빛내여가야 할것이다.

자기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을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는것은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자기의것에 대하여 잘 아는것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며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필수적 자질이다.

자기 나라와 자기 인민, 자기 당과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은 당과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질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진행할수도 없다.

자기 나라의것에 대하여 잘 알아야만 혁명의 보편적 진리와 자연과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구체적인 산 현실과 결부된 쓸모있는 지식으로 체득할수 있으며 그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힘있는 무기로 전환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한마디로 말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수교양의 전과정을 주체사상교양과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킴으로써 모든 새세대들이 위대한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정신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교육사업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강하게 내세우며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에 대하여 잘 알려주는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혁명하는 무한한 긍지와

민족적 자부심,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된다.

최근 당에서는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학생들을 우리 혁명에 충실히 복무하는 쓸모있는 기술인재로 키울것을 강조하고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대학들에서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의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며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을 많이 가르치는것이 중요하다.

공과대학들에서는 원료, 연료, 동력문제를 우리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여 풀며 철생산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유색금속 생산과 가공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잘 가르쳐주며 농업대학들에서는 주체농법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고있는 주체적인 농업과학기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는 대학에서는 물론 보통교육부문의 모든 학교들에서도 교수교양의 전과정이 우리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조선의 혁명가, 조선의 애국자를 키우는데 철저히 복종되게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학기술교육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판적으로 대하며 그것이 아무리 앞선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개작하여 받아들이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것은 교육에서 주체확립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혁명의 직접적 담당자, 그 계승자를 키우는 교육사업에서 그것은 추호도 허용할수 없는 절대금물이다.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조금이라도 허용되면 후대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게 될뿐아니라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교육리론과 사상조류가 흘러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교육사업에서 주체성을 잃고 범벅교육을 하게 되며 사람들을 범벅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람이 범벅사람이 되면 사회도 점차 변질되여 혁명과 건설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미치게 한다.

우리는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미치는 해독성과 그 후과를 똑똑히 알고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과 지도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의 사소한 요소와 경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견결히 투쟁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교육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온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을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교육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모든 교육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혁명과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교육에서 주체를 세울데 대한 원칙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여 후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냄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앞당겨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빛나는 관철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신 흥 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빛나게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교육사업에서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고 교육사업을 테제의 요구대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43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 등 교육사업전반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워야 하는 참으로 어렵고 방대한 혁명사업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한바와 같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교육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훌륭히 키워낼수 있다.

사회주의교육테제의 관철을 위한 당적 지도를 실현하는데서 군당위원회의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군당위원회는 군앞에 나서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사업을 책임지고 지도하는 최고지도기관이다. 나라의 200분의 1을 차지하는 군의 최고지도기관인 군당위원회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잘하여야 전국의 교육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옳바로 진행될수 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할수 있다.

우리 안변군당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사회주의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군에서는 교육테제가 발표된 이후 짧은 기간안에 《모범교육군》칭호를 쟁취하였으며 교육교양사업의 질을 더욱 높이고 교육조건을 일신하였다. 군에서는 그사이 수많은 교실들과 실험실습실들을 새로 건설하고 투영기, 환등기를 비롯한 670여종에 9만 6천여점의 실험기구와 교육설비, 17만 5천여점의 교편물을 만들어 교육사업에 널리 리용하고있다. 군에서는 특히 최근년간에 20여개에 달하는 모든 고등중학교들에 전자기계실습실, 외국어시청실을 비롯한 실험실습실들을 잘 갖추고 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다. 이 과정에 교원들의 자질과 학생들의 실력이 훨씬 높아졌다.

교육사업이 발전함에 따라 군안의 교직원,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사상문화수준이 훨씬 높아지고 그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뭉치게 되였다. 군안에서는 《3대혁명붉은기학교》, 《영예의 붉은기학교》, 《영예의 붉은기학급》의 대렬이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지난 기간 우리 군당위원회는 교육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지도하여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에 일정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해나가자면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계속 여기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이다.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이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교육사업에서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테제가 발표된 초기에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그리하여 불과 3년만에 우리 안변군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배려로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받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군안의 전체 교직원들과 학생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실로 큰 경사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로 된것은 날이 감에 따라 일부 당 및 행정경제 기관 책임일군들속에서 경제사업일면에만 치중하면서 교육사업에 낯을 돌리려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난것이였다. 그들은 우리 군이 모범교육군으로 되였는데 이제부터는 교육사업을 담당한 부서나 교육행정기관들의 힘만으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군당위원회에서 고정분공받은 학교들에 대한 지도를 등한히 하거나 지어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관련하여 절박하게 제기되는 문제들도 이악하게 달라붙어 해결하지 못하고있었다.

군당위원회는 《모범교육군》칭호를 수여받은 이후 군안의 일부 책임일군들속에서 발로되고있는 그릇된 현상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교육테제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더욱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없다는것을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도취하지 말고 교육사업에서 계속 새로운 전환을 이룩해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우선 일군들속에서 발로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그릇된 사상관점과 립장을 바로잡기 위하여 투쟁의 불을 걸었다. 우리는 사전에 료해장악한 자료에 기초하여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한 그릇된 현상을 단순한 실무적인 문제로가 아니라 위대한 교육테제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다 성과적으로 관철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사상관점문제로 제기하고 심각하게 분석비판하였다.

사상관점을 바로잡는 문제는 몇차례의 학습이나 사상투쟁으로써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끊임없는 사상전을 통해서만 해결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집행위원들을 비롯한 군안의 책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배화고등중학교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강령적인 교시와 우리 당의 교육방침과 결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심화시켰다. 이와 함께 군당위원회는 교육사업을 소홀히 하는 그릇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을 안받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그릇된 사상관점과 태도를 바로잡을수 있었으며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교육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계속 틀어쥐고나가기 위하여 조직부와 선전부, 교육부의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잘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직접 다루는 부서들인 조직부와 선전부, 교육부가 3위1체가 되여 지도하여야 당조직정치사업과 교육사업을 밀착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조직부와 선전부, 교육부가 합심하여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잘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매 시기 제시되는 당의 교육방침을 토의할 때마다 매개 부서들에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들을 직능에 맞게 구체화하고 그것을 짜고들어 집행하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조직부는 교육부문 당원들의 당생활을 지도하게 하고 선전부는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게 하였으며 교육부는 교육교양의 질을 높이는데 모를 박고 교육사업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조직부와 선전부, 교육부가 합심하여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강화함으로써 학교교육사업을 한단계 높이 추켜세울수 있었으며 교직원, 학생들을 교육테제관철에로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었다.

우리는 한편 군안의 당 및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모두가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군당위원회 부장이상 간부들과 집행위원들,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에게 학교를 하나씩 고정분담시키고 일상적으로 지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군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하거나 주간사업을 총화할 때마다 반드시 책임일군들의 학교지도사업정형도 함께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것을 제도화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군안의 책임일군들이 학교에 자주 나가 강연도 하고 교원들과 담화도 하며 교수참관도 하면서 학교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는 혁명적 기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또한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교육실태를 늘 정확히 료해장악하고 제때에 해당한 대책을 세울수 있게 되였으며 당조직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적극 발동하여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경험의 다른 하나는 군당위원회가 모든 학교들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옳게 지도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입니다.》(《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단행본, 33페지)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교육테제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군당위원회는 모든 학교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강령을 제대로 어김없이 집행하게 하는것과 함께 교수의 당정책적 수준과 과학리론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그러나 우리가 압강고등중학교와 중평고등중학교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료해하는 과정에 두 학교의 교육조건은 다같이 잘 갖추어져있었으나 교원들의 자질과 교수사업 그리고 학생들의 학과실력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압강고등중학교에서는 교장을 비롯한 그 학교 일군들이 교육강령을 틀어쥐고 정상적으로 교수참관을 하면서 모든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쓸모있는 산 지식과 응용능력을 키워줄수 있는 방향에서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도록 지도를 참신하게 하고있었다. 또한 이 학교의 일군들은 매개 분과의 기능과 교원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교수의 당정책화수준을 높이고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도록 하는데 모든 사색과 정열을 쏟아붓고있었다.

그러나 중평고등중학교 일군들은 교

육환경을 더 잘 꾸리고 관리하는데 많은 힘을 넣으면서 응당 틀어쥐고나가야 할 교수교양사업에는 낯을 적게 돌리고있었다.

두 학교의 이러한 대조적인 교육실태는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은 우리는 학교들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적 지도를 심화시켜나갔다.

한때 우리 군안의 일부 책임일군들은 분공받은 학교에 자주 나가기는 하였으나 거기에서 제기된 의견이나 듣고 교육조건 같은것을 풀어주는데만 머리를 썼지 교수교양사업에는 거의나 침투하지 못하고있었다. 그것은 교수교양사업에 대한 깊은 파악이 없는데로부터 생긴 부족점이였다. 교수교양사업에 깊이 침투하자면 일군들자신이 교육내용을 알아야 하고 교육방법도 일정하게 체득하여야 한다. 우리는 일군들이 교종 및 학년별 교과서와 참고자료들을 사무실에 갖추어놓고 짬짬이 보면서 교육학적 요구를 파악하기에 힘쓰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그들이 안변남자고등중학교를 비롯한 읍안의 학교들에 나가 교수를 참관하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익히게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일군들을 학교들에서 진행되는 방식상학에도 자주 참가시켜 그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할수 있도록 준비시켰다. 이렇게 한 결과 그들이 학교사업의 기본인 교수교양사업에 깊이 침투하여 지도를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중평고등중학교를 맡은 군당의 한 책임일군의 실례는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는 중평고등중학교에 내려가 후원단체들을 발동하여 교원들의 생활조건, 교육환경을 꾸리는 사업 등 학교에서 제기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는 한편 교수교양사업에 대한 내용적 지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군교원재교육강습소 지도교원들이 학교일군들과 힘을 합쳐 교원들의 교수교양사업을 책임적으로 도와주게 하였다.

한편 그는 군당의 해당 부서일군들이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 교육과 일군들과 군교원재교육강습소 일군들과 함께 해마다 10여일씩 군안의 모든 학교들에 내려가 교원들의 자질향상과 교수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군의 교육행정일군들이 자립적으로 교장, 부교장, 분과장들의 교수지도와 관련한 강습, 방식상학, 교육과학연구토론회, 교수경연, 교수방법토론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여주고 교수교양사업을 심화시킬수 있게 되였다. 오늘 군안의 국어문학과목교원들은 글작품집을 갖추고 다양한 형식의 글짓기를 하면서 교수의 질을 높여나가고있으며 다른 사회과학과목교원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 교양에 대한 자료집, 정치용어자료집, 예능부문의 교원들은 작곡집, 그림자료집, 수학교원들은 수학보충문제풀이집을 갖추고 경쟁적으로 교수교양의 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군안의 학생들모두의 학과실력이 더욱 높아지고 그들이 글짓기도 잘하고 한가지이상의 악기도 다룰수 있게 되였다. 특히 압강고등중학교를 비롯한 군안의 여러 학교의 교원, 학생들은 몇해사이에 10여권의 충성의 글작품집을 정성껏 마련함으로써 4차례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평가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경험은 군당위원회가 교수교양의 내용에 침투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데 기본을 두고 학교사업에 대한 지도를 착실히 할 때 교육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사회주의교육테제를 빛나게 관철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교육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할수 있다는것은 우리가 얻은 또하나의 경험이다.

방대한 물질적 수단과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하는 사회주의교육은 교육

사업에 대한 국가적 보장과 함께 사회적 지원과 관심 속에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학부형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적 지원을 힘있게 벌려 학교들의 물질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도록 하였다. 군안의 모든 학교들의 교육조건을 몇해사이에 일신시킨 과정만 보아도 그러하다.

우리가 몇해전에 삼성고등중학교에 나가 학교사업을 료해하던 때였다. 이 학교는 읍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지대에 자리잡고있었지만 비교적 잘 꾸려져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후대교육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배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 이 학교를 더 훌륭히 꾸려주기로 결심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산한 분공조직과 진공적인 정치사업은 학교의 교육조건을 갱신하기 위한 투쟁에로 모든 학부형들과 농장원들을 떨쳐나서게 하였다. 그들은 교사보수와 교구비품생산, 교원합숙건설과 운동장확장공사 등 교육 조건과 환경을 더 좋게 마련하는 일을 본때있게 해제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부족한 세멘트는 건재공장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증산한것으로 보장하게 하였으며 한편 군당선전부 일군들로 하여금 많은 교양도서와 텔레비죤수상기를 비롯한 문화용품들을 보장하여주게 하였다. 그리고 군 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서는 교원합숙비품을 새로 일식으로 보장하여주게 하였으며 3대혁명소조원들도 학교사업을 적극 도와나서게 하였다. 그리하여 삼성고등중학교는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모든 교육조건이 다 훌륭하게 갖추어진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새로 꾸려지게 되였다. 우리는 곧 이 학교에 나가 군당위원회 이동집행위원회 확대회의를 가지였으며 방식상학을 조직하였다.

오늘 우리 군안의 모든 학교들의 교사와 교구비품, 실험실습실 등 모든 교육조건이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되고있는것은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된 성과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데서 군당위원회가 주목을 돌린것은 또한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더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도록 한것이였다.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조국의 미래인 새세대들을 위하여 남모르는 수고와 정열을 바치고있는 숨은 로력가, 직업적 혁명가이다. 그렇기때문에 교원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도록 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 기풍으로 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교원들을 사회적으로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을 사회적 기풍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책임일군들자신이 남먼저 후대교육에 모든 재능과 정열을 다 바쳐 일하는 교원들을 보다 더 례절있게 대하며 그들의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보장하고 교권을 세워주도록 잘 안받침해주었다.

우리는 특히 교육사업에서 공로있는 교원들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시킴으로써 그들이 교육자된 영예와 긍지를 안고 교수교양사업에 전심전력하게 하였다.

우리가 이룩한 성과는 당의 높은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볼 때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족점들도 적지 않다. 우리 군당위원회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교육사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교육테제관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김 덕 지

당조직정치사업을 잘 짜고들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철저히 관철해나가는것은 모든 당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한다는 것은 당이 내놓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끝장을 볼 때까지 철저히 집행해나간다는것이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승리의 길을 걷게 되며 따라서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것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수령의 령도는 바로 수령이 제시하는 당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게 되며 따라서 그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때 확고히 보장되게 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만일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그 어느 하나라도 놓치거나 중도반단하게 되면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할수 없게 되고 혁명과 건설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해당 단위에서 수령의 령도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지닌 각급 당조직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야 한다.

우리 보통강구역당위원회는 당정책을 관철하는것을 언제나 당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 그 집행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듦으로써 구역앞에 제기된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으며 그 과정에 귀중한 경험도 얻게 되였다.

당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그 위력과 생활력이 나타날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곧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이며 그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난관과 애로가 앞을 가로막아나서도 당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완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5분열도》식으로 한동안 끓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열이 식고 난관앞에 맥이 진하여 하던 일을 도중에 줴버린다면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할수 없으며 혁명과 건설을 한걸음도 전진시

킬수 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우리 구역당위원회는 당정책이 실생활에서 커다란 은이 나타날때까지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중도반단함이 없이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당정책을 되받아넘기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포치하며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성과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것이다.

구체적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하는것은 사업에서 높은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담보이며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아무런 타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한다면 사업에서 성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은 물론 사업과정에 자그마한 난관이 제기되여도 신심을 잃고 도중에 주저앉게 된다. 정확한 묘술을 찾아가지고 일하여야 뚜렷한 목표와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아무리 조건이 불리하다 하여도 그것을 완강하게 뚫고나갈수 있으며 설정된 목표를 향하여 사업을 줄기차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구역안의 예비를 동원하여 고기생산기지를 꾸린 경험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군들에서 자체로 집짐승을 많이 길러 고기문제를 풀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는 구역이 처한 실정이 농촌군과 다르기는 하지만 식당과 상점, 주민세대들에서 버리는 부산물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구역자체로 집짐승을 기를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이 사업을 확신성있게 내밀기 위하여 우선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방법론을 찾아내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구역당위원회적으로 도와주어 종합식당과 신원동에서 먼저 가까운 주변농촌구역의 부지를 얻어 목장을 꾸리고 여러가지의 집짐승을 기르게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구역안의 모든 단위들에서도 예비를 동원하고 군중을 발동하기만 한다면 품을 많이 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집짐승을 길러 고기를 생산할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보통강유원지를 끼고있는 구역의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있는 풍옥란을 대대적으로 재배함으로써 짐승먹이를 더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도 찾아냈다.

우리는 종합식당과 신원동의 경험에서 구체적 방법론을 찾은데 기초하여 자신심을 가지고 그것을 상점과 동, 공장, 기업소 등 구역안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포치하였다. 그리고 장악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면서 그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갔다. 이렇게 지난 6년동안 꾸준히 투쟁을 벌린 결과 우리 구역에는 자체의 고기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그 생산이 해마다 늘어나게 되였다. 지금 우리는 자체의 예비를 동원하여 해마다 100톤이상의 고기를 생산하고있으며 그것을 국가에서 받는 외에 추가적으로 급양망들에 내보냄으로써 구역주민들의 식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데서 우리가 얻은 경험의 하나는 또한 구역안의 모든 지도일군들이 누구보다도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도록 교양하는데 언제나 큰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간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간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도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직접 조직집행하는 혁명의 지휘성원들이며 대중의 교양자이다. 당정책관철의 성과여부는 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되며 따라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문제도 결국은 그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는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작전하고 포치한 다음에는 그들과의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였으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제기된 과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포치하였을 때도 먼저 지도일군들이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부터 짜고들었으며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벌리는 과정을 통하여 당의 방침 관철을 심화시켜나갔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사업을 포치하였을 때 구역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이 사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있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구역에는 공장이 많지 못하고 게다가 큰 공장이 적기때문에 다른 구역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하다는것이였다. 또 일부 공장책임일군들속에서는 당면한 생산과제에 치중하면서 그에 대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고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일군들자신이 당의 방침 관철에 사상적으로 동원되지 않고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였으며 문제를 푸는 고리는 그들과의 사업부터 잘하는데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되였다.

구역당위원회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군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와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 그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경험을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결정하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평양어린이편직공장에 내려가 먼저 공장책임일군들속에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해설해주는 한편 당생활지도와 학습지도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문제와 결부시켜 진행하면서 그들의 사상을 발동하였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속에 당의 방침을 깊이 인식시킨 다음 구역당일군들에게 사전에 과업을 주어 부산물로 만든 소비품견본들을 보여주면서 공장적인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를 조직하고 매 직장들에서 출품하게 하였으며 여기에서 지배인, 당비서, 직장장들을 비롯한 공장의 간부들이 솔선 모범을 보이게 하였다. 이렇게 한 결과 일군들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에 사상적으로 동원되게 되였으며 이 사업에 군중을 적극 발동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전시회에는 단번에 천여종이나 되는 소비품견본들이 출품되게 되였다.

우리는 구역안의 책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 당비서 그리고 동일군들을 데리고나가 이 전시회를 보게 하고 경험을 소개해준 다음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그리하여 한두해사이에 《8월3일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판매액이 각각 20배이상이나 늘어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5월 13일 평양시 《8월3일인민소비품》직매점사업을 실무지도하시면서 이 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8월3일인민소비품》의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때에도 우리는 간부들과의 사업에 보다 큰 힘을 넣었으며 여기에 구역당의 책임일군들과 조직부, 선전부를 비롯한 위원회 부서들의 력량을 총동원하였다.

구역안의 일부 공장의 책임일군들속에서는 여러가지 조건타발을 하면서 《8월3일인민소비품》의 가지수와 량을 더 이상 늘이려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그 질을 높이는데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그들을 계

속 교양하고 각성시키지 않고서는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갈수 없었다.

우리는 월생산총화때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정형을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총화함으로써 일군들을 교양하였다. 또한 방송정론, 통보강연, 해설담화 등을 통하여 그리고 직매점에 내놓은 소비품을 공장별로 환등으로 보여주어 일군들이 자극을 받게 하였다. 한편 지도검열요강을 만들어가지고 구역안의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료해장악한 다음 일군들속에서 사상투쟁을 벌려 그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바로잡아주었다. 결과 일군들속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보다 더 책임적으로 짜고들게 되였으며 그 량은 물론 가지수가 훨씬 늘어나고 질도 한계단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직매점에서의 월평균 판매액이 당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뛰여오르게 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과정을 통하여 간부사업이 당사업의 출발점으로, 기본으로 된다는 주체의 당건설 사상과 리론의 정당성을 똑똑히 체득하게 되였으며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참으로 간부들을 교양하여 움직여야 하며 그리하여 그들이 군중을 적극 발동하도록 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체험하게 되였다.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또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책적 과업들을 다같이 튼튼히 틀어쥐고 수행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로선과 정책들을 제시하고있다. 당이 제시하는 이 모든 로선과 정책들을 틀어쥐고 다같이 일관하게 관철해나가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구역의 전반사업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과업들은 물론 련이어 나서는 새로운 과업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밀고나가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한 문제의 하나는 당정책을 그 어느것을 물론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당이 제시하는 정책적 과업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는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외면하거나 새로운 정책적 과업들이 제시되면 이미 하던것을 줴버리는 식으로 일하는것은 당정책을 대하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이 아니며 그렇게 한다면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당이 제시하는 정책적 과업들은 어느것을 물론하고 무조건 관철하여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그것을 구역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밀고나갔다.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에는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릴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여있다. 이 결정을 받들고 우리 구역에는 발전설비를 만드는 공장이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철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러던 우리는 보통강전기공장에 나가 당결정을 전달침투하고 기술자들과 집행방도를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기술자들속에서는 풍력발전기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였다. 이것은 혁신적인 제기였다.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는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새로운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였다. 우리는 공장기술자들의 창발적 제기를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풍력발전기제작을 위한 기술집단을 뭇게 하고 힘있게 밀어주었다. 우리는 공장에 자주 나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술자들의 협의회도 조직해주고 걸린 문제도 제때에 풀어주었으며 일시적 실패에 손맥을 놓고 주저앉았을 때는 신심을 안겨주면서 그들을 고무하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제힘을 민

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요소들로 그리고 부족되는 요소와 기구들은 자체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식의 풍력발전기를 제작하도록 정치사업을 들이대였다. 결과 일부 기술자들속에서 다른 나라의 것을 신비화하던 그릇된 경향이 극복되고 10여가지의 발명권에 해당되는 새로운 방법과 기구들이 창안되게 되였으며 1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대량생산되고있는 요소를 가지고 간편하고도 믿음성있는 풍력발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게 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10여대나 만들어 다른데 보내주었다. 그리하여 도처에 풍력발전기를 대대적으로 도입할수 있는 기술적 밑천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게 되였다.

당의 정책적 과업들가운데는 단시일내에 수행해야 할 과업들과 함께 항구적으로 또는 일정한 기간 힘을 넣어 밀고나가야 할 과업들이 있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제기되는 정책적 과업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벌려야 구역앞에 나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과업들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있다.

우리는 학교들에 수영장을 건설해주는것과 같은 그때그때 수행해야 할 과업들은 구역적인 력량을 동원하여 섬멸전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일을 하나씩하나씩 해제꼈다. 그러나 철도지원사업을 잘할데 대한 정책적 과업과 같이 구역당위원회가 일상적인 관심을 돌리고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철도를 적극 도울데 대한 당정책은 한두번의 깜빠니야적인 지원사업으로 그쳐서는 철저히 관철하였다고 말할수 없으며 그것은 끈기있게 밀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우리 구역에는 보통강역과 같은 중요역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갈래의 철길이 구역안을 꿰질러 지나가고있다. 그러므로 철도를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구역앞에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는 구역당일군들이 솔선 모범이 되여 보통강역을 꾸려주게 하는 한편 구역적으로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철도에 보내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매달 마지막주를 철도지원의 주간으로 정하고 균등적으로 근 10리 구간의 철길로반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리하여주게 하고 있다.

당정책관철에서의 일관성을 견지하는데서 구역당의 책임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구역당책임일군들은 구역안의 전반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당정책이 철저히 끝까지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구역당의 책임일군들의 역할에 크게 달려있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떻게 하면 당정책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같이 잘 관철하겠는가 하는데 사색을 모으고 모든 정력을 바치고있으며 구역의 살림살이를 보다 알뜰하게 꾸려나가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우리는 특히 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공명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의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해도 실속있고 깐지게 하며 일단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는 혁명적 사업기풍을 소유하도록 일군들을 교양하고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기대와 요구에 비추어볼 때 우리가 거둔 성과는 아직 초보적인것에 불과하며 우리의 사업에서는 부족점들도 허다하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이 제시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하루빨리 이룩하여야 할 보람차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구역당위원회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한층 높여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 당의 위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모든 힘과 지혜를 다 바치겠다.

군중속에 들어가야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수 있다

김 호 진

당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요구이다.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고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모든 당일군들이 당의 요구대로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며 그들에게 의거하고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는데 있다.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야 인민대중에게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겨주고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할수 있으며 상하가 합심하고 협력하여 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열쇠를 찾아낼수 있다.

당일군들의 모든 활동은 인민대중과의 관계속에서 진행되며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사람, 군중을 떠난 당일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광범한 대중을 발동하고 조직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떠난 당일군의 활동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당은 당일군들을 통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광범한 군중을 움직여나가며 당사업과 당활동을 벌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령도를 실현해나간다. 따라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으면서 광범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야 그 어디에서나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으며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는다는것은 당일군들이 대중이 살며 일하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광범한 군중과 의논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기 위한 방도를 찾고 대책을 세우며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적극성을 조직동원하여 제기된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간다는것이다.

군당위원회는 리와 공장, 기업소의 초급당조직들을 지도하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단위이며 당정책관철을 직접 조작집행하는 집행단위이다. 군당위원회는 도나 중앙과는 달리 하부지도사업을 철저하게 집행단위의 립장에서 하여야 하며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군당위원회의 이러한 기능상 특성과 위치의 중요성으로부터 군당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고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지난 기간 양덕군당위원회는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갈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모든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일정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광범한 군중의 창발적 의견과 지혜에 의거하여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기 위한 방도를 세우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대중의 집체적지혜에 기초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포치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군중에 의거하여 실태를 료해하고 그들과 의논하여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세워나가는것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바로 찾

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은 우리 일군들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다. 인민대중보다 더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는 없으며 그들의 의견보다 더 정확한것은 없다. 해당 단위의 실태를 제일 잘 아는것도 인민대중이고 걸린 문제와 그것을 풀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제일 잘 아는것도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근로인민대중의 창발적 의견을 종합하여 구체화하여야 문제해결의 가장 옳바른 방도를 찾을수 있고 정확한 대책을 세울수 있다.

양덕군당위원회는 온하리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 40돐을 더욱 뜻깊게 맞이하기 위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새로 수백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며 1년 남짓한 기간에 250여세대의 고층살림집을 건설할 목표를 세웠다.

이것은 아름찬 과업이였으며 방대한 목표였다. 군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도와 실천적 대책을 바로세우는것이 중요하였다.

방도는 과학적이여야 하며 대책은 실천적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도를 찾고 대책을 세우자면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창발적 의견에 의거하여야 한다. 독불장군이라고 당일군 혼자서는 용빼는 재간이 없다. 광범한 대중의 지혜와 의견에 기초하고 집체적 협의를 강화할 때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수 있고 정확한 방도를 찾을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우리는 군중속에 들어갔다.

군중속에 들어간 우리는 군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과 군의 휘황한 전망, 그것을 실현해나가는데서 걸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그 해결방도를 함께 찾아나가도록 하였다. 우리는 초급일군들과 협의도 하고 기술자들도 만났으며 로인들과 이야기도 나누었다. 협의를 계속하고 토론을 거듭하면서 일군들과 기술자들, 광범한 군중의 창발성을 적극 계발시켰다. 아침일찍 가두인민반원들속에 들어가 담화도 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대로 군을 더 잘 꾸리고 군내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과 지혜를 바치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자고 호소도 하였다. 방도를 찾고 예비를 동원하며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뛰고 또 뛰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을 훌륭히 실현하여 당과 수령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려는 불타는 충성심과 비상한 결심을 가지고 아글타글 애쓰며 뛰여다니는 당일군의 진심이 사람들의 심장의 벽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 군당일군들의 자세와 뜨거운 호소에서 당조직의 결심과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를 자각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저마다 결의를 다지며 나섰다. 도처에서 혁신적 발기가 나왔고 창발적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산턱을 깎아내고 거기에 3~4층짜리 살림집을 지으면 긴장한 건설부지문제를 풀수 있을것 같다는 건설기술자도 있었고 군에 꾸려진 세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석탄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적 의견을 제기하는 로동자도 있었다. 매일 한탕 더 뛰는 방법으로 세멘트공장 원석운반을 보장하겠다는 운전수들의 결의도 나왔고 건설자들의 후방공급사업을 맡겠다고 자진해나서는 보건일군과 봉사일군, 가정부인도 있었다. 군중속에 들어가 호흡을 같이하는 과정에 사무실에 앉아서는 며칠을 두고도 알수 없는 많은것을 포착할수 있었으며 수많은 방도와 대책들을 찾을수 있게 되였다. 실로 문제해결의 열쇠는 대중의 지혜에 있었으며 방도는 사람들의 심장속에 있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옳바른 방도와 정확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미 작전하고 계획한 여러가지 방대한 사업들을 확신성있게 내밀수 있었다.

실천적 경험은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지혜를 계발시키고 창발적 의견을 광범히 듣는 여기에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낼수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이 있으며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을 발동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조직동원하여 걸린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한것이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어떻게 발동하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적극성을 어떻게 조직동원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인민대중은 혁명의 주인이며 생산과 건설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생산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그 주인인 사람부터 움직이고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일은 사람이 하며 혁명은 대중이 한다. 사람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수 없으며 사상을 발동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성과도 기대할수 없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사람들의 사상이 기본이며 모든것은 사상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상이 힘을 낳고 기적을 창조한다.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발동되면 혁명적열의와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게 되고 집단적 혁신과 거대한 생산적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야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수 있다.

우리 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로 30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건설되여있다. 이 공장들이 은을 내게 하자면 튼튼한 원료기지를 조성하며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군당위원회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들어가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거듭 해설침투하면서 그들을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더 잘 관철하기 위하여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간부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은하혁명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다시 하도록 조직하였다. 한편 우리는 군급 기관 일군들이 해마다 9월 30일이면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47년 9월 30일 새벽, 구지골로부터 치마대에 이르는 15리 험한 산길을 걸으신 바로 그 로정을 따라 답사하면서 인민들을 하루빨리 잘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이슬도 차야하고 덤불길도 먼저 걸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였다. 로정답사에 이어 군당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사적비앞에서 결의모임을 조직하였다.

결의모임에서 일군들은 한결같이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심혈과 로고는 한없이 숭고하고 위대한것이라고 말하면서 산골사람들도 별방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는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구상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참으로 현지지도사적을 통한 교양은 실효도 컸으며 반영도 좋았다. 모든 일군들이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분발해나섰다. 일군들이 앞장서고 군중이 따라나섰다. 이리하여 우리는 군내 인민들의 앙양된 열의속에 수백정보의 황금산과 재배원료기지를 새로 더 조성하였으며 거기에서 나오는 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을 더욱 많이 생산할수 있게 되였다.

최근년간 군당위원회는 방대한 사업을 포치하고 그것을 한해 남짓한 기간에 해제낄 대담한 결심을 가지고 힘있게 내밀었다. 군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

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애로도 많았고 난관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일군들은 조건타발을 하면서 난관앞에서 주저하고 있었다.

조건은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된다. 사람들의 활동은 항상 구체적인 조건의 제약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활동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가려면 조건타발을 함이 없이 유리한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하고 능동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고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해나간다는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일반적 강조와 호소로써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었다. 요진통을 찌르고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불이대는것이 필요하였으며 불타는 강을 건느고 험한 진펄길을 걷는 정신을 가지고 살며 투쟁하도록 하는것이 절실하였다.

군당위원회는 락동강전투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운 전시공로자들을 준비시켜 불타는 락동강을 넘나들며 원쑤놈과 치렬한 격전을 벌리던 당시의 체험담을 가지고 이야기모임을 조직하였다. 이야기모임은 회의실에서도 진행되였고 공장의 기대옆과 농장의 포전, 림산작업소의 산판에서도 벌어졌다. 그것은 인민반주민들속에서도 계속되였으며 학교의 강당에도 이어졌다. 격식과 틀이 없이 진행된 이야기모임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그들에게 가렬한 전화의 나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처럼 불타는 강도 건느고 험한 진펄길도 헤치면서 투쟁하며 전진할 비상한 각오와 굳은 결심을 안겨주는데서 효과적인 계기로 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정치사업이 그들의 준비정도와 구체적 실정, 조성된 정황과 계기에 맞게 진행되여야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줄수 있으며 그들이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극복하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는것을 체험하게 되였다.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답이라는 의리심을 지니게 한다. 안겨지는 믿음이 크고 사랑이 뜨거울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지향과 열정도 그만큼 뜨겁고 강렬해진다.

인간에 대한 가장 큰 믿음은 정치적 생명에 대한 보증이다. 정치적 생명을 주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수령과 당의 신임은 인간으로서 가질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큰 믿음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의 정치적 신임보다 더 큰 기쁨을 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며 힘을 주는것은 없다. 사랑과 믿음은 보답의 길우에 충성을 꽃피우는 원천으로 되며 정치적 신임에는 충성심이 따르게 된다.

당일군들은 사람들에게 당적 신임을 안겨주어야 하며 믿음을 통하여 교양하여야 한다. 당일군들이 사람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책임적으로 돌봐주게 될 때 당일군들에 의하여 어머니당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사람들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지게 할수 있으며 그들모두가 당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수행에서 높은 헌신성과 고도의 창발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는것이다.

어느 한 기술자와의 사업과정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한번 절감하게 되였다. 우리는 그에게 당적 신임과 믿음을 안겨주고 필요한 조건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면서 군에 꾸려진 세멘트공장의 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와 살림집시공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를 풀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그리고 지난 시기 그가 이룩한 성과도 공정하게 평가해주었으며 당원의 영예를 지닐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다. 군당위원회가 믿어주고 군당책임일군들이 이끌어주는데서 고무를 받고 힘을 얻은 그는 고심어린 탐구와 이악한 노력으로 지방건재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훌륭히 풀었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도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살림

집시공에서 나서는 기술적 대책도 훌륭히 세워놓았다.

이렇게 군당위원회는 기술자들에게 정치적 신임을 안겨주는 한편 그들에게 과학연구와 기술습득에 필요한 실재적인 조건을 보장해주는데도 깊은 당적 관심을 돌리였다. 우리는 군안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위하여 훌륭한 고층살림집을 따로 잘 건설하여주도록 하였다. 군당위원회가 당적 신임을 안겨주고 생활조건과 사업조건을 보장해주면서 믿어주고 이끌어주자 기술자들은 지방산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실현하고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이리하여 우리는 화학공장에 물비누생산공정을 새로 꾸렸으며 목재의 종합적 리용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고 가구의 질도 훨씬 높일수 있었고 직물공장의 생산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었다.

경험은 당일군들이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제기된 사업의 중요성과 목적을 옳게 인식시키고 사람들에게 정치적 신임을 안겨주면서 광범한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고 열의를 불러일으킬 때 어떤 방대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해제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대담하게 작전하고 능숙하게 지휘하며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바로 여기에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군중속에 들어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는데서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군중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도록 한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줄 알아야 하며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발벗고나서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서서 이신작칙하는것은 투쟁하며 전진하는 우리 당의 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며 혁명적인 지도작풍이다.

자신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당일군의 이신작칙은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이나 공명, 영웅심에 의한것이 되여서는 안되며 그것은 오직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려는 뜨거운 마음의 발현으로, 자각된 혁명가의 사업과 생활에 일관된 지도작풍으로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은 앉아서 빈말이나 하고 남들을 보고 하라고 요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일군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고 지시나 하고 요구만 하여서는 사업권위를 세울수 없고 발언권도 가질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당일군의 말이 씨가 먹지 않고 날이 서지 않아 광범한 대중은 고사하고 한사람도 불러일으킬수 없게 된다. 전개력이 있고 실천력이 있는 당일군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으로 당정책을 관철해나가며 실지행동으로 혁명임무를 수행해나간다. 옛날부터 일이 곱다는 말이 있듯이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서 투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사람들의 신임과 존경을 받을수 있으며 당일군의 호소에 광범한 군중이 높은 열의와 강한 분발심을 가지고 떨쳐나서게 할수 있다.

군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군당일군들이 보여준 실천적 모범이 이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것은 우리 군의 실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었다. 이것이 중요하며 또 해야 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조건이 걸리고 경험이 부족하다는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고있었다. 일반적인 강조나 호소, 한두번의 조직사업만 하여가지고서는 군앞에 제기된 어렵고 방대한 과업

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었다.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였으며 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군당일군들로 전설력량을 묶고 책임일군들의 지도밑에 사회적 사업으로 5층살림집 한동을 먼저 건설하기로 하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아침저녁으로 현장에 나가 불로크도 만들었으며 총막치기도 하고 미장작업도 하였다. 군당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새벽이면 새벽대로, 밤이면 밤대로 군중이 있고 생산과 건설이 벌어지는 전투장에는 어디에나 책임일군들이 나와있었다. 아호비령의 험준한 산발을 오르내리며 원료기지개간적지를 조사하는 앞장에도, 거차령의 허리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탄맥을 찾는 탐사대의 선두에도 책임일군이 서있었다. 뼈를 에이는 대소한의 혹한속에서 언땅을 까내는 돌격대원들속에도 책임일군들은 언제나 함께 있었다.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은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사람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었으며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그들을 고무추동하였다. 군당일군들의 실천적 모범에 고무되여 군급기관 일군모두가 따라나섰고 기관, 기업소 종업원전체가 떨쳐나섰다. 사로청원들이 궐기하였고 가두인민반원들이 분발해나섰다. 온 군이 군내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방대한 건설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이리하여 우리는 1년 남짓한 짧은 기간에 20여동에 250여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군내 석탄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자체탄광을 개발하였고 군내 전력수요의 70%이상을 보장할수 있는 10여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였으며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기지도 튼튼히 꾸려놓았다. 산중부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군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에 의거하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도 정상화할수 있게 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모든 산에서 황금을 따내여 벌방부럽지 않게 잘살게 하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교시를 더 잘, 더 훌륭히 관철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으며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실로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군당일군들이 걸린 문제를 푸는데 발벗고나서서 이신작칙한것은 사람들이 당일군을 따르게 하고 그들의 호소에 높은 열의를 가지고 떨쳐나서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였다.

생활은 당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이신작칙하는것이 곧 힘있는 선동이며 위력한 정치사업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 있으며 당일군들이 어렵고 힘든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곳에서는 언제나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된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휘황한 전망이 펼쳐져있다. 우리가 점령해야 할 목표는 명백하며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도 뚜렷이 밝혀져있다. 문제는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수령의 구상과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충성심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당과 수령에 대한 불타는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바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우리 군을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갈것이다.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

김 태 화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청산하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고있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광주인민봉기이후부터 지난 시기의 심중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습니다.》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9페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뚜렷한 투쟁리념과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지난 기간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명확한 투쟁리념을 내세우지 못하고 주로 매 시기 제기되는 당면한 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 그쳤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그들은 지난 시기의 투쟁경험을 사상리론적으로 심각히 총화한 기초우에서 자주와 민주, 통일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리념을 내놓았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최근년간에 들고나온 《민족통일》, 《민중해방》, 《민주쟁취》의 《삼민리념》에 기초한 《민족민주혁명》이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제기한 《삼민리념》에서 《민족통일》은 외세를 배격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성취하기 위한것으로서 강대국의 지배를 반대하고 민족자주국가를 세워야 한다는것이며 《민중해방》은 《부익부, 빈익빈》의 불공평한 사회현실에서 근로인민대중을 구원한다는것이며 《민주쟁취》는 자유, 정의,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사회건설을 위한것으로서 현 군사파쑈정권의 청산을 전제로 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그들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지배와 군사파쑈독재를 끝장내고 《민중민주련합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남조선에서 《민족민주혁명》을 수행한다는것이다.

《삼민리념》은 비단 청년학생들의 투쟁리념에만 머물지 않고 로동자들의 투쟁조직과 나아가서는 재야민주세력의 투쟁리념으로까지 확산되였다.

1984년 3월 남조선 《로동자복지협의회》는 《민생, 민주, 민족통일》을 강령으로 내세웠으며 재야민주인사들로 조직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민족자주통일, 민주주의, 민중의 생존권보장》을 투쟁강령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주목되는것은 최근에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보다 선진적인 사상을 자기들의 지도리념으로

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출판물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대학제적학생들이 주체사상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인천지구 로동자들속에서 의식화운동과 반미반파쑈투쟁을 벌려오다가 놈들에게 체포된 《반제동맹당사건》이 있었으며 올해에 들어와서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반미반파쑈투쟁을 주도해온 령남대학교 《반외세, 반독재 청년학생투쟁위원회》 성원들에 대한 구속사건과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반미반독재투쟁을 벌려오다가 체포된 《서울남부지역 로동자련맹사건》 등이 있었다. 이것은 종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들이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남조선사회의 현실을 옳게 반영한 리념밑에 높은 수준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은 또한 그들이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반미자주화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기본요인으로, 그들이 겪고있는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를 그대로 두고 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것만으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쟁취할수 없으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절대로 이룩할수 없다. 이것은 40여년동안 남조선에서 여러번 파쑈독재자들이 제거되였지만 인민들의 처지에서 달라진것은 하나도 없고 조국통일념원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실증해주고있다. 때문에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간섭을 결정적으로 끝장내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은 오래동안 미제의 강점으로 인하여 숭미, 공미 사상이 지배해온데로부터 이곳은 세계적으로 《반미무풍지대》로 알려져있었다.

그러나 1980년 5월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감행된 광주대학살만행을 계기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및 계급적 각성은 급격히 높아졌으며 그 이후부터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는 반미구호들이 전면에 제기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영구분렬을 획책하는 미제를 타도하자》, 《로동자, 농민 피짜내는 미국놈 몰아내라》, 《핵무기를 철수하라》,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미국을 몰아내라》는 등 당면투쟁과업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구호들을 제기하고 반미투쟁을 벌리였다. 이와 같은 구호들은 보다 광범한 대중을 각성시키고 미제의 침략책동에 타격을 가하며 나아가서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남조선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이 《직선제개헌》과 《호헌반대》의 구호를 들고 전두환군사파쑈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릴 때에도 그들은 반미구호들을 동시에 제기하고 투쟁하였다.

지난해 5월에 있은 인천대시위참가자들은 《친미파쑈독재 타도하고 민족민주정부 수립하자》, 《개헌의 진정한 주인은 로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이여야 한다》는 반파쑈민주화구호와 함께 《미제국주의자들은 물러가라》, 《양키고용병교육을 철폐하라》는 반미구호를 들고 놈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특히 지난 6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남조선인민들의 격렬한 대시위투쟁은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을 밀접히 결합시킨 력사상 최대규모의 인민항쟁이였다. 항쟁참가자들은 《군사독재 타도》, 《호헌반대》 구호와 《미제를 몰아내라》, 《미국의 군사독재지원을 반대한다》는 구호들을 제기하고 강력한

투쟁을 벌렸으며 미제의 우두머리 레간과 전두환, 로태우 역도놈들의 허수아비를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그들은 사태수습을 위해 서울에 기여든 미국무성차관보와 미국대사놈이 탄 승용차를 거리에서 포위하고 항의투쟁을 벌렸다.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대중투쟁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확고히 올라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근거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은 또한 남조선괴뢰들의 《반공국시》를 반대하고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견결히 벌리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며 북남대결과 동족상쟁을 고취하는 등 괴뢰도당의 파쑈폭압정책과 전쟁정책, 민족분렬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무기로 되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반공국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고 민족적 단합을 가로막으며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불신을 고취하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지난 시기 남조선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반공선전에 속아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오해와 불신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70년대이후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호상 왕래하는 과정에 우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오래동안 내려오던 숭미, 공미 사상이 깨여지고있으며 이른바 《반공국시》의 악랄한 반민족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괴뢰통치배들의 악랄한 반공선전의 허황성이 폭로되면서 북의 공산주의자들도 같은 혈육이라는 동족의식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였으며 사상이나 제제보다 민족을 우위에 놓고 서로 굳게 단합하여 하루빨리 분렬된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기 시작하였다.

최근년간에 와서 진보적인 청년학생들과 지식인들은 《반공국시》를 반대하고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련합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있다.

지난해 10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2만여명의 청년학생들은 《공산주의 북조선과의 민족통일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시위를 벌렸으며 전국대학통성투쟁때에도 전남조선지역에서 모여온 대학생들이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련합》의 명의로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식민지분단 어데올로기, 반공이데올로기분쇄투쟁선언문》을 발표하고 《반공리념은 식민지리념, 분단리념, 독재리념》이라고 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의 《반공국시》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반공국시》를 철폐할데 대한 목소리는 비단 청년학생들속에서뿐아니라 지식인, 언론인들은 물론 지어 괴뢰국회의원들속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한 야당출신 《국회의원》은 《국회회의》에서 《우리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여야 하고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는 사람은 이 야당출신 《국회의원》만이 아니다. 남조선괴뢰들이 이 《국회의원》의 발언을 문제시하고 악랄한 《국가보안법》에 걸어 그를 체포해가자 많은 사람들은 《국회의원》이 반공이 《국시》가 아니라고 주장한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하면서 그를 옹호하여나섰다. 이처럼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 구축해놓은 악명높은 반공보루는 드디여 걷잡을수 없이 무너져가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의거하고있는 지탱점이 허물어져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 동시에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벌어지고있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은 또한 그것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여기에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대중투쟁은 국부적인 투쟁으로부터 포괄적인 투쟁으로, 소극적인 투쟁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쟁으로,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조직적인 투쟁으로 심화발전되며 궁극에는 최후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도 이와 같은 대중투쟁의 발전법칙에 따라 오늘과 같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다.

우선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방대한 규모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지난 6월 남조선에서 일어난 대중적인 인민항쟁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는 인천대시위와 건국대학교 롱성투쟁과 같은 격렬한 시위투쟁이 수많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6월인민항쟁은 이 모든 투쟁의 규모를 훨씬 벗어난 현재까지의 남조선대중투쟁사상 최대규모의 인민항쟁이였다.

6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의 40여개 도시에서 일어났으며 여기에는 무려 300만명을 헤아리는 각계각층의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이 투쟁은 처음부터 핵심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벌어졌다. 그들은 집회와 시위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교회당과 절간에서 종을 치면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운전수들이 경적을 울리고 살림집들에서는 일제히 전기불을 끄며 그것을 신호로 시위자들이 초불을 들고 가두시위를 벌리도록 하였다. 또한 항쟁참가자들은 시내 중심거리 몇군데를 동시에 거점으로 정하고 시위투쟁을 벌려 괴뢰기동경찰대놈들을 분산시켰으며 공격했다가는 일시에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다시 모여들어 공격하는 파도식전술로 놈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서울명동에 있는 천주교성당과 부산천주교성당을 거점으로 한 서울과 부산의 롱성시위투쟁은 6월인민항쟁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 투쟁이였다.

항쟁참가자들은 로마법왕청의 보호와 천주교자체의 영향력때문에 경찰이 감히 다칠수 없는 《성당》을 투쟁거점으로 정하였다. 때문에 남조선괴뢰경찰놈들은 엿새동안이나 명동성당을 포위하고 있었으나 거기에 한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하였다.

참으로 6월인민항쟁은 종전의 인민봉기들과는 질적으로 구별되는 목적의식적이며 조직적인 반미반파쑈인민항쟁이였다.

최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미반독재투쟁에서 주목되는것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여기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반미반파쑈투쟁에서 주류를 이룬것은 청년학생들이였다. 그러나 오늘은 지난날 투쟁에 무관심하던 수많은 군중이 반미반파쑈민주화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이것은 지난 6월인민항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6월인민항쟁에는 청년학생, 야당인사, 로동자, 천주교신부, 기독교목사, 불교승려, 대학교수, 사무원, 상인, 기업가 등 각계층 군중, 특히 광범한 중산층이 참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남조선에서 벌어진 반미반파쑈투쟁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었던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혁명투쟁에서 중산층이 어느편에 서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승리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도 중산층이 인민의 편에 서는 것은 그 승리를 위한 필수적 요구로 제기된다.

오늘 남조선에서 외세와 자주세력, 파쑈와 민주와의 대결에서 중산층이 자

주와 민주세력의 편에 서고있다는것은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이 극도로 고립되고있으며 놈들의 식민지통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모든것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민족의 사활적인 요구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우선 외세에 의한 민족의 예속과 억압을 청산하고 민족적 불평등을 없앰으로써 민족의 모든 성원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무엇에도 구속됨이 없이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권을 행사하는것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매개 민족의 신성불가침의 권리이다. 따라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반미구호를 높이 웨치며 미제를 남조선에서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사회의 자주화를 위하여 대중적으로 투쟁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애국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이 벌리고있는 투쟁은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반동적이며 야만적인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뒤집어엎고 사회정치생활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의 민주주의를 여지없이 유린말살하는 가혹한 군사파쑈통치가 실시되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는것은 물론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현 군사파쑈정권을 민주주의적인 정권으로 교체하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공국시》에 기초한 파쑈악법들을 모두 페지하며 정당, 사회단체들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인민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유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결국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약화시키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정의의 애국투쟁으로 된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또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조선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며 북과 남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이로부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한편으로는 외래제국주의침략자와 민족자주세력사이의 투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매국자와 애국자간의 투쟁이다. 이것은 곧 남조선에서 통일의 기본장애로 되고있는 미제를 몰아내고 친미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조국통일은 나라와 민족의 의사를 거역하는 외세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수 있는것만큼 민족적 자주권의 확립과 민족의 단합을 가로막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은 곧 조국통일을 촉진하는 투쟁으로 되며 정의의 애국투쟁으로 되는것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은 광범한 대중적 지반을 가진 사회정치운동으로서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요구를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전도는 밝으며 그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경제적 해방과 자주권을 위한 국제적 운동

정 동 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87년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상급특별회의에서 하신 축하연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에서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귀중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은 남남협조의 필연성과 본질, 남남협조실현에서 견지할 원칙과 방법, 과업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불후의 고전적 로작이다. 이 로작은 그에 일관된 사상의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그들을 경제적 해방과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 로작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에서 제시하신 남남협조에 관한 사상리론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주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위력한 국제적 운동으로서의 남남협조의 본질을 새롭게 해명하신것이다.

남남협조의 본질을 옳바로 밝히는것은 남남협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이다. 남남협조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야 그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질수 있고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원칙과 과업 및 방도들을 정확히 규정할수 있으며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깊이 통찰하고 현 국제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남남협조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남협조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운동입니다.》(《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 단행본, 4페지)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서로 협조하고 유무상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며 이 나라들사이의 새로운 국제경제관계이다. 경제적 해방과 자주권을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국제적 운동이라는 바로 여기에 남남협조의 본질이 있다.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사회력사적 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인것만큼 남남협조의 직접적 담당자, 결정적 력량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다. 남남협조를 요구하는것도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며 그것을 직접 실현하는것도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높아질수록 남남협조는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중심에 놓고 남남협조를 고찰하여야 그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을 국제경제관계분야에 빛나게 구현하여 남남협조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독립을 쟁취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이라는것을 밝히시였다.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남남

협조의 주체인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근본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앞에는 경제적 자립을 이룩해야 할 절박한 요구가 나서고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기반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는것은 인민들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리정표로 된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의 쟁취는 아직 민족해방위업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여야 하며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한다.

경제적 자립은 나라의 자주독립을 담보하는 물질적 기초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여야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지킬수 있고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할수 있다. 나라가 독립하여 자주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예속되면 정치적으로도 예속되게 된다. 경제적 의존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의존을 가져오며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을 낳는다. 력사적 경험은 경제적으로 남에게 의존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의 추종국가로 전락되지 않을수 없으며 남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쟁은 경제적 락후와 빈궁을 청산하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2의 해방투쟁이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남남협조를 힘있게 밀고나갈 때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수 있으며 따라서 경제적 해방을 성취하고 자주권을 실현할데 대한 그들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 성격을 띤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독립과 자주권을 짓밟히고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여온 어제날의 력사적 처지의 공통성과 오늘의 투쟁목적과 리해관계의 공통성으로 하여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에 결합되여있으며 서로 지지하고 협조하는 관계에 있다. 지난날 민족해방투쟁이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국제적 운동이였다면 오늘의 남남협조는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경제적 해방과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으로 된다.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또한 현 국제경제관계의 실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다.

제2차 세계대전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고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나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아직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다수나라들을 저들의 상품판매시장으로, 원료원천지로, 자본투하지대로 전변시키고 이 나라들의 경제를 자본주의경제의 완전한 부속물로 만들었다.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이 나라들에서 민족공업의 발전을 극력 억제하였으며 농촌경리를 종주국에 대한 식량 및 원료 조달에 복무하는 단작경리로 전락시켰다.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로 말미암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경제는 심한 기형성과 편파성을 띠게 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책동에 의하여 발

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난관이 날로 더욱 증대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자들은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인 붕괴과정에 들어서게 된 조건에서 지난 시기처럼 로골적인 지배와 략탈을 감행할수 없게 되자 교활하고 음흉한 신식민주의적 수법에 매달리면서 발전도상나라, 제3세계나라들의 경제발전을 억제하고 이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이 나라 근로인민들의 생산물을 마구 략탈해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와 신식민주의적 책동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은 자주적 발전을 억제당하고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과 병마에 시달리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오늘의 이러한 처지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경제적 예속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 경제적 자립을 선사하지 않는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자체의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는것과 함께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방대한 인적 자원과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옳게 리용하여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널리 진행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자립적 민족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인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로 된다.

남남협조는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현 국제경제체계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공동의 국제적 위업이다.

현 국제경제체계는 식민주의제도의 산물이며 서방의 자본주의독점체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수단이다. 현 국제경제질서는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나라들을 제멋대로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하여 저들의 리익에 맞게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경제체계이며 예속적이고 략탈적인 경제질서이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저들이 차지하고있는 독점적, 지배적 지위를 리용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의 리익을 희생시켜 저들의 리속만 채우려고 책동하고있다.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질서로 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원과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는 헐값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수중에 흘러들어가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는 오늘 1조딸라를 넘는 천문학적 수자에 이르고있다. 최근 30년동안에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총액은 약 100배로 늘어났으며 그것은 끊임없이 불어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오늘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빈부의 차이는 날을 따라 커가고있으며 세계적인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한층더 심해지고있다.

현실은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의 공간인 현 국제경제질서를 그대로 두고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수 없을뿐아니라 이미 쟁취한 정치적 독립도 공고히 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은 국제경제관계분야에서 지배와 예속, 불평등에 기초한 낡은 제도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등과 호혜, 자주성에 기초한 새 제도와 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이다. 현 국제경제질서를 없애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야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국제적 착취와 략탈에서 벗어나고 국제경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할수 있으며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

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한사코 방해하고있으며 국제경제관계에서 차지하고있는 독점적 지위를 순순히 내놓으려 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은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자들에게 요구조건을 강하게 들이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현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남협조를 실현하면 발전도상나라들이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대항력과 협상력을 키워 현 국제경제체계를 무력하게 만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을수 있다. 남남협조는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워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로 된다.

현 국제경제관계의 실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며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질서를 마스고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남남협조를 실현하여야 하며 그래야 이 나라 인민들이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 독창적인 사상이며 현 국제경제관계의 실태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사상이다. 이 사상은 발전도상나라들의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이 나라 인민들의 자주적 발전의 요구와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정당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남남협조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밝혀진것은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남남협조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에 대한 공통된 견해와 립장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남남협조는 공동의 리익을 도모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 자신의 사업이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남남협조에 대한 공통된 견해와 립장을 가지는것은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선차적인 문제로 나선다.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요구, 그들의 근본리익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속에서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하기에 이 사상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남남협조를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견해와 립장을 같이하고 서로 정치적 지지를 강화하며 공동보조를 취해나갈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기초를 마련해주고있다.

남남협조의 본질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또한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는 전략전술을 작성할수 있게 되였다.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위한 사업이며 그들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남남협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된것으로 하여 그들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는 전략전술을 옳바로 세울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남협조의 본질을 해명하신데 기초하여

뿔럭불가담나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과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을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견지하여야 할 원칙으로 규정하시였다.

집단적 자력갱생은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투쟁원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적자력갱생은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념이며 투쟁원칙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6페지)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새로운 국제경제관계로서의 남남협조의 중요한 특징이다.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켜야 뿔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에서 일방적이며 불평등한 관계를 허용하지 않게 되며 뿔럭불가담나라들이 독자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남남협조의 본질에 관한 사상이 과학적으로 밝혀짐으로써 뿔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전략전술을 올바로 작성할수 있게 되였으며 남남협조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는 남남협조를 힘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환히 밝혀준 강령적 문헌이며 뿔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그 실현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 전투적 기치이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이다.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며 뿔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숭고한 사업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고전적 로작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에서 제시하신 사상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남남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9호(루계 545호)

편 집 위 원 회

번곳•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7년 9월 1일 발 행•1987년 9월 3일

ㄱ—75199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0 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第10호 (546)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당의 령도는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은 오늘 인민의 운명과 조국의 미래를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향도적 력량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항일혁명투쟁에 그 력사적 뿌리를 두고있는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국과 민족, 혁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세기에 빛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였으며 그 과정에 백전백승의 위력과 절대적인 령도적 권위를 가진 존엄있고 권위있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향도따라 전진하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심장깊이 새기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결의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 *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 주체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전진하고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위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령도자입니다. 인민대중이 어떻게 혁명적으로 의식화, 조직화되는가, 어떻게 자기의 혁명임무와 력사적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주체사상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위대한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인민대중은 모든 사회적 운동의 중심에 서있지만 언제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옳바른 지도를 받을 때에만 력사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으며 사회력사발전에서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할수 있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문제는 특히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그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이 위업은 결코 순탄하게 완성될수 없으며 그 과정에는 간고한 시련과 난관이 있을수 있다. 류례없이 복잡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옳바른 령도가 보장되여야 한다.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에서 지도문제는 다름아닌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문제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아무런 편향도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그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혁명의 참모부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수령, 당,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서로 다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며 혁명의 최고령도자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속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당은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 광범한 대중을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련결시키며 수령의 령도를 실현해나간다.

따라서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 자기 운명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자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심각하고 복잡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으며 그것을 옳게 운영하여나갈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의 주체위업의 개척과 그 발전과정은 오직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밑에서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으로서 그것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위대한 변혁과 창조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그 종국적 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길을 따라 힘있게 전진하고있다. 당의 령도, 그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근본원천이며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령도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옹호하고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승리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옹호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수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옹호하고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의 계승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만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있으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혁명의 대가 바뀔 때 당의 혁명적 성격과 투쟁업적을 고수할수 없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보장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없게 된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혁명의 운명, 그 계승완성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을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보시고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령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 당은 당과 혁명 발전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우리 당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당사업과 당활동의 총적 임무로 틀어쥐고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은 전당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중심을 두며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며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키

우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제반 원칙과 방도들을 새롭게 밝히였다. 당의 령도밑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안에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의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 주체사상교양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차넘치게 되였으며 당의 유일적 령도밑에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한결같이 움직이고 당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옹호관철하는 정연한 체계가 확립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조류도 없고 오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고있으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움직이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이처럼 우리 당의 세련된 령도는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수령님의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가 주체위업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우리 당과 혁명의 근본초석이며 력사적 뿌리인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게 하는데 있다.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이며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승리적으로 전진하도록 그 명맥을 이어주는 력사적 원천이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로서 그것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킬 때만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계승성과 일관성을 보장할수 있다.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지 않고서는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수 없으며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당의 혁명전통계승문제를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시고 혁명전통의 정치사상적 순결성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을 순결하게 이어받아 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도록 하시는 동시에 혁명전통계승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은 혁명전통교양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현명하게 이끎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로 튼튼히 꾸리였으며 온 사회에 항일의 혁명정신이 차넘치게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이 튼튼히 고수되고 빛나게 계승발전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 주체의 혁명위업은 만년초석에 토대하여 더욱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항일의 혁명전통이 순결하게 옹호고수되고 당과 혁명의 초석으로 찬연한 빛을 뿌리며 가장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의 하나이며 그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더없이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당의 령도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되는것은 또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공고발전시킴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게 한다는데 있다.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면 혁명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튼튼히 꾸려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단결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굳게 결속되여야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인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혁명의 주체를 확고히 꾸리는것을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근본문제로 보고 그에 선차적 주목을 돌려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되고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는 조직사상적 기초를 확고히 쌓은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 당 대렬은 혁명의 정수분자들의 대오로 전례없이 튼튼히 다져졌다.

우리 당은 또한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적극 교양하고 포섭함으로써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튼튼히 꾸리였다.

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가장 고귀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으며 자기의 불패의 위력을 높이 떨치고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며 인민들은 당과 수령에게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충성다하는 불패의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통일단결의 자랑스러운 모습이다.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 영생하는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힘있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가장 위대한 성과이며 그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확고한 밑천으로 된다.

참으로 당의 령도는 조선혁명의 명맥을 튼튼히 고수하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위대한 세기적 변혁이 이룩되고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창조적 위훈의 력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우리 당은 창조적인 사상리론활동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조선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령도자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위업은 당의 령도밑에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력사적 위업이다. 주체위업을 끝까지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혁명이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로동계급의 전위조직인 당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며 그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주체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당의 위업이다. 우리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 주체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그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있다.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영원히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인민만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으며 자기의 운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되여있음으로 하여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혁명과 건설에서 영웅적 위훈과 세기적 기적을 창조하여올수 있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치며 혁명의 어떤 험난한 가시덤불길도 뚫고나갈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책임적인 사업입니다.》

당의 령도는 그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통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당의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워야 당이 령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니고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이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가 확고히 보장되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이 철저히 서게 되였다. 오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혁명이 전진할수록 더욱 심화발전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혁명이 심화발전하는데 맞게 당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는 우리 당의 조직적 의사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당의 령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실현되며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 목적도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당의 결정과 지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당의 령도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의 결정과 지시를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혁명가의 높은 기상과 기백을 발휘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

을 당중앙에 보고하고 유일적인 결론과 지시에 따라 처리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사업이 당의 의도대로 정확히 조직진행되도록 책임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당조직들은 자기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높은 수준에서 실속있게 보장하고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을 소유하는것은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의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나가는 당의 활동방식이며 령도적 수단이다. 일군들은 옳은 령도예술을 가져야 광범한 군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당의 령도체계를 바로 세울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인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 대중지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예술을 적극 따라배워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함께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전당이 군중속으로 들어갈데 대한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중에게서 배우고 언제나 그들을 겸손하게 대하며 군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제기된 과업들을 힘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 능력을 높이는것은 당의 령도를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은 높은 자질을 소유하여야 당과 수령의 의도를 깊이 체득하고 당의 령도를 성과적으로 구현해나갈수 있다.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풀어나갈수 없다.

당의 령도를 옳게 구현해나가자면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더우기 우리 당 사업이 심화되고 혁명과 건설이 빨리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일군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자신을 능력있는 일군으로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이 맡겨주는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도 능숙하게 해제끼는 실력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원문학습을 깊이있고 폭넓게 하여 그에 정통하며 주체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을 신념으로 간직할수 있고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깊이 체득하고 모든 사업을 당이 의도하는데로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갈수 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방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80년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한 당의 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며 방대한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데서 끊임없는 영웅적 위훈을 창조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시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닌 더없이 영예로운 사명이며 혁명적 본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향도따라 전진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최 태 복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령적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교양을 당의 유일사상교양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는데서 근본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해명을 주시였다. 이 문헌은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끝없이 풍부히 하고 주체위업수행에서 특출한 공적을 쌓은 혁명적 문헌이다. 문헌이 발표됨으로써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였으며 우리 당은 보다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이 문헌에서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증하심으로써 위대한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틀어쥐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리론적 기초를 마련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됩니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의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으며 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라고 하는것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8페지)

조선로동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삼고 투쟁하며 활동하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이다. 원래 로동계급의 당안에는 오직 하나의 사상만이 있어야 하며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되여야 한다. 우리 당안에는 주체사상밖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 있을수 없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 활동의 진로를 밝혀주는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우리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에 대하여, 당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주체사상이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이라는것은 우리 당의 모든 사상, 리론, 방법이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이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당 건설과 활동이 전개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되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며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으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되며 그것으로 하여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되는것이다.

주체사상이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는데 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사상적 기초이다.

사람들은 세계속에서 살면서 자기 운

명을 개척해나가는것만큼 옳은 세계관을 가지는것이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투쟁도 세계속에서 진행되므로 당이 옳은 철학적인 세계관을 사상적 기초로 삼고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며 그것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당활동을 벌려야만 인간해방투쟁의 길을 정확히 밝힐수 있으며 이 투쟁을 옳게 이끌어나갈수 있다.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 인간의 운명을 개척한다는것은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간다는것을 말하며 이것이 또한 인간해방투쟁, 혁명투쟁의 근본목적으로 된다.

사람들의 자주성을 실현해나가는 인간해방을 위한 이러한 투쟁은 곧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이며 세계관의 기본사명은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는데 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자면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옳은 견해와 관점을 세울수 있다. 유물변증법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을 력사상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해명하였지만 인간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밝힐수 없었다.

주체사상은 세가지 원리,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밝혀주는 원리와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밝혀주는 원리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원리를 다같이 포괄함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을 마련해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확립됨으로써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가장 옳은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당의 모든 활동을 해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이 모든 활동에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주동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것을 요구한다. 바로 이로부터 우리 당은 언제나 자주적 립장, 창조적 립장을 모든 인식과 실천 활동에서 근본립장, 근본방법으로 견지하도록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힌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옳게 파악할수 있게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하는것이다. 그런것만큼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 사회적 운동이란 바로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인것이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한 주체의 사회력사적 원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 운동을 벌려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적 운동을 더욱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준다. 그리고 그것은 력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옳은 견해를 세우게 하며 모든 사업에서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주체에서

찾고 일감을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는 옳은 관점과 립장을 가질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당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 활동의 리론적 기초, 우리 당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마련해주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을 밝혀준다.

모든 혁명투쟁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만큼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하며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전략전술을 규정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의 본성에 맞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모든 혁명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혀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의 특성에 따라 모든 류형의 혁명, 모든 발전단계의 혁명투쟁에 대한 가장 정확한 리론을 전개할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안겨주고있다. 혁명투쟁의 본질이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있다면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어떠한 질곡을 없애는가에 따라 매개 류형의 혁명투쟁, 모든 발전단계의 혁명투쟁의 기본내용이 규정되고 그에 대한 리론이 전개되게 될것이다.

민족해방혁명의 기본내용은 민족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요인을 없애고 매개 나라 인민이 자기 민족의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는데 있으며 계급해방혁명의 기본내용은 착취계급의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없애고 근로인민의 자주성을 실현하게 하는데 있다. 그리고 민족적 및 계급적 착취와 압박이 청산된 다음 사회주의하에서 진행하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본내용은 사상생활, 로동생활, 문화생활 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요인을 완전히 없애는데 있으며 이것이 또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이 이룩된 이후 시기의 인간해방의 기본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혁명투쟁의 본질, 그 기본내용이 있으며 혁명발전의 추동력은 그들의 창조적 힘에 있다는것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혁명발전의 추진력을 사람의 본질적 속성에 기초하여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혁명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당의 전략전술을 세울데 대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해준다.

혁명의 동력인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당의 전략전술을 세울데 대한 이러한 지도적 지침은 우리 당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 창조적 힘을 정확히 타산하여 옳은 투쟁목표와 주타격방향을 똑바로 세우고 혁명투쟁에서 그들의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다 발휘할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각오정도, 창조적 힘을 정확히 타산하여 혁명의 력량편성을 과학적으로 하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도록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혁명의 시기를 선택하며 여러가지 합리적인 투쟁 방법과 형태를 찾아내고 능숙하게 적용할수 있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은 가장 완성

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이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과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전술적 원칙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가장 정확히 이끌어나갈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안겨준다.

주체사상이 조선로동당의 유일사상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가장 정확한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 활동의 방법론적 기초를 마련해주는데 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세울뿐아니라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기 위한 옳은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져야 한다. 주체사상은 당의 혁명적 령도의 근본방향과 본질, 원칙과 방법 등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며 특히 수령과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주체적 립장에서 고찰하고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와 당의 령도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지도적 지침을 안겨준다.

주체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당은 수령의 유일적 령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철저히 세울수 있었고 언제나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최대한으로 발동시킬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을 가질수 있었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기의 독창적인 체계와 내용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이바지할수 있는 사상이라면 다 자체의 사상체계안에 포섭해나가는 가장 완성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상분야에서 편협한 배타주의를 결정적으로 배격한다.

원래 사물의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두면을 가지고있다. 계승과 혁신의 어느 한면만 보는것은 형이상학적 관점이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가 이룩하여놓은 사상리론적 업적을 옹호하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창시된 사상이다. 따라서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는 다같은 과학적 공산주의사상으로서 공통성을 가진다. 주체사상은 맑스-레닌주의의 전반을 관통하고있는 모든 혁명적 원칙들을 다 계승하고있다. 그러면서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훨씬 높아지고 사회발전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크게 달라진 오늘의 시대적 조건에 맞게 로동계급의 혁명리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이 맑스-레닌주의의 사상리론적 재부를 력사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킴으로써 현시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주는 혁명사상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당을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켰고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로정만을 걸어왔다.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삼는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당 창건과 그 강화발전의 모든 로정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면서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온 과정이였다.

우리 당이 세상에 태여난 첫날부터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삼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될수 있은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당창건의 조직사상적 준비를 철저히 갖추기 위하여 공산주의운동안에 주체의 사상

체계를 수립하고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적 핵심을 육성하며 주체형의 당의 튼튼한 력사적 뿌리를 마련해주셨기때문이다. 그리고 조국이 광복된 이후 매우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제때에 당을 창건하고 그것을 근로인민대중의 대중적 정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은것도, 종파주의자, 사대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음모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을 튼튼히 지키고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올수 있은것도 우리 당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갔기때문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부동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극히 짧은 기간에 전당, 전국, 전군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할수 있었으며 해방후 짧은 기간에 민주개혁을 가장 철저히 실현하고 동방에서 제일먼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세울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주체적립장에서 어려운 전후의 난국을 타개하고 자력갱생하여 우리 조국을 오늘과 같은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영원히 당의 유일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데서 1970년대는 새로운 위대한 전환을 이룩한 시기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그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여기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 1970년대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선포하고 그 선결조건으로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전당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주체사상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끝까지 틀어쥐고나가며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당을 건설하고 당활동을 벌려나가기 위한 총적 방향을 명시한 탁월한 방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게 됨으로써 당건설과 당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이 심화되고 당안에는 오직 주체사상만이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되였으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오직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만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고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는 반석같이 다져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의 가장 공고한 통일이 이룩됨으로써 우리 당은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사상조류들에 물들지 않고 그 어떠한 모진 풍파속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강철의 대오로, 언제나 주체형의 피만이 차넘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되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빛나는 결실이 맺어지고있는것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서 그 생활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오늘 당조직들과 일군들 앞에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켜야 할 숭고한 임무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수 없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1～12페지)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키는것은 곧 우리 당사상교양사업을 그 본연의 목적과 요구에 맞게 진행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은 다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우리 당의 모든 사상교양사업은 결국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지향되고있다. 이것은 주체사상교양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된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바로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당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형태의 사상교양도 곧 주체사상교양으로 되는것이다.

우리는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이 다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해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며 그것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야만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다는것은 우리 당이 혁명투쟁속에서 확증한 진리이며 주체사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드팀없는 혁명적 의지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지만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나서고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옹호하는것이 곧 주체혁명위업을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어데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하며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야 할것이다.

특히 혁명과업수행에서 언제나 주체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주체사상의 요구,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해제끼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주체사상으로 전당과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굽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전진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필승불패이며 그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의 전략전술

림 형 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현 실태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문헌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깊이있게 해명하고 그 원리들을 발전풍부화함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혁명과 건설이 높은 단계에서 심화발전하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주체사상교양의 본질과 중요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우리 당이 진행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은 주체사상교양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밝히고 당정책교양을 주체사상의 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이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6페지)

혁명의 옳바른 전략전술을 제시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그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사람과 사회,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매우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에 의거하여야만 승리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과 건설의 전략전술이며 투쟁의 지침이다. 인민대중은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가져야 신심과 락관에 넘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확신성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이 혁명과 건설을 옳바로 이끌어나가는 전략전술로, 참다운 지도적 지침으로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당의 지도사상에 의하여 규정된다. 당의 지도사상은 당의 로선과 정책, 혁명의 전략전술 작성의 기초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지도사상이 당활동의 지침으로, 로선과 정책 작성의 기초로 되자면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옳바른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당의 로선과 정책도 혁명승리의 길을 정확히 밝혀주는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

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인간해방의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당과 혁명의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 작성의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철두철미 그것으로 일관되여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주며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지향과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며 그것이 주체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되게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의 대표자이며 그것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령도적 정치조직이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지닌 숭고한 사명이며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된다. 따라서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이러한 로선과 정책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참다운 지도적 지침으로, 전략전술로 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힌데 기초하여 혁명투쟁은 그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라는데 대하여 해명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투쟁의 본질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지향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로 되여야 한다는 혁명적인 립장이 확고히 세워질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은 이 혁명적인 립장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전략전술로 되게 하고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사회정치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수 있도록 되여있다. 또한 국가가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전적으로 보장하여주며 식의주에 대한 걱정,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도록 하기 위한것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다. 그리고 어떤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에도 공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 나라의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호하는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여야 한다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야말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념원을 실현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기 위한 전략전술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또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전술이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옳게 세우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전략전술작성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해나가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력량이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지 못하면 혁명을 해나갈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통일될 때에만 이루어진다.

원래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인민대중자체만으로서는 혁명과 건설을 떠밀어나가는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투쟁에서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는것이 근본문제로 나선다.

이 어렵고 중대한 문제해결의 열쇠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당의 로선과 정책에 있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며 수령을 중심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시키기 위한 당의 제반 로선과 정책들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실현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결속될 때 이루어진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바로 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온 유기체가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질 때 완전한 생명체를 이룰수 있듯이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자면 그를 련결시키는 강력한 뉴대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다름아닌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사상이다. 수령의 사상만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하는 강력한 사상적 뉴대로 되게 한다.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며 개별적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을 신념화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 사람들은 당의 령도와 혁명적 조직생활을 떠나서 사회정치적 생명에 대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는 문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사람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

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혁명적 조직생활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 방침이야말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마련하기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다음으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지도적 지침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을 통해서만 완전히 실현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혁명단계의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이 옳은 로선과 정책, 과학적인 전략전술을 작성하는데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로정과 여러 혁명단계의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방도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밝혀줌으로써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우리 혁명의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되게 하고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사회주의혁명로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제반 로선과 정책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혁명단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로 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인민을 제국주의적, 봉건적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하는 거창한 력사적 위업을 극히 짧은 기간에 빛나게 수행할수 있게 한 전략적인 로선으로 되였다.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착취와 억압을 없애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룬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그들의 역할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생산관계의 사회주의개조방도를 밝혀줌으로써 착취와 압박의 근원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근로인민대중의 계급적 해방을 실현할수 있는 참다운 길을 열어주었다.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다음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옳바른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박한 문제이다. 주체의 혁명리론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시기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략전술이 담겨져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과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방침, 인민경제를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로선과 방침들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사상적 요새와 물질적 요새를 다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가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고있다. 또한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뚜렷한 목표와 과학적인 방도를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발전단계에 따르는 과업을 밝혀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지도적 지침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이 사상은 혁명과 건설을 수

행하는데서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자기 나라 혁명의 참된 주인이 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언제나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에서 풀어나갈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의 이 요구는 로동계급의 당이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관철하는데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혀주고있다.

우리 당이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 제시하고있는 로선과 정책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것으로 되여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는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를 자기의 독자적인 주견과 결심에 따라 인민의 리익과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데 대한 원칙적 립장이 반영되여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할뿐아니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전략적인 로선으로 되고있다.

참으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우리 시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적 원리와 인민대중을 주체로 하는 사회력사원리,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가장 정확한 전략전술이다.

로동계급의 당의 위대한 로선과 정책, 과학적인 전략전술의 위력은 혁명실천에서 나타난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힘있게 확증된 백전백승의 혁명적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창적으로 세우고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그것을 관철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언제나 정확하였으며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631페지)

우리 당이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올수 있은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결과이다.

우리 당은 새 사회 건설을 령도하는 첫시기부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가장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그 어떤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리익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갔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혁명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당은 해방후 제때에 자주적인 정권건설로선과 제반 민주개혁로선을 제시하고 관철함으로써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력사적 과업을 짧은 기간에 완수하고 사회주의혁명의 길에 곧바로 들어설수 있었다.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정확한 로선과 정책이 있음으로 하여 복잡하게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고 불과 4～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고 우리 나라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세워놓을수 있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생소하고 어려운 혁명과업이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선 때로부터 그리 길지 않은 력사적

기간에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완전승리의 전환적인 계선에 접근할수 있게 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은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사고방식에서도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사상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이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마비시키고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쳐온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의 사상적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고 투쟁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것이 오늘 우리 인민의 가장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로 되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일어난 근본적인 전환은 인간개조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사람들을 힘있는 사회적 존재로 키울데 대한 우리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된다.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 락후성을 청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는것은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화혁명에 관한 로선과 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준비되고있으며 문학과 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되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이 전면적으로 확립되고있다.

수천년에 걸치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오늘처럼 우리 조국이 륭성번영하고 우리 인민이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누린 때는 일찌기 없었다.

주체적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그 진리성과 과학성으로 하여 그리고 간고하고 복잡한 조선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것으로 하여 세계 혁명적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나타내고있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참으로 혁명실천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 혁명의 전략전술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 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당의 주체적인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제기되고있다. 안팎의 조성된 정세도 매우 복잡하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높이 받들고 투쟁해나가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할수 있다.

강원도당위원회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하신 사상을 높이 받들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원도에 주신 경제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하여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갈것이다.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도앞에 나선 경제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며 특히 원산시를 비롯한 도안의 중요한 지역들을 문화휴양지로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훌륭히 꾸릴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높은 혁명성과 주인다운 태도를 발휘하도록 할것이다.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

김 화 종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주체사상이 차지하는 력사적 지위를 명백히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특출한 기여를 한 기념비적 문헌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문헌이 이룩한 큰 공적의 하나는 주체의 세계관이 가장 완성된 로동계급의 철학적 세계관이라는것을 심오히 밝힌것이다.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의 전일적인 체계로서의 세계관을 완성하는것은 혁명사상을 확립하고 전개하며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관건적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리론들과 심원한 원리들로 주체의 세계관의 내용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그것이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이라는것을 론증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주체의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이다.

세계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운동발전하는가 하는 문제,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문제는 철학적 세계관이 풀어야 할 기본내용을 이룬다.

력대로 철학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제나름의 견해들을 내놓고 론의를 거듭하였다. 시대가 전진하고 철학적 사유가 발전함에 따라 인류는 점차 세계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변화발전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해명에 접근하여왔으나 오래동안 그 과학적 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문제는 유물변증법적 세계관에 의하여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끊임없이 운동발전한다는 원리가 밝혀짐으로써 해결되게 되였다.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를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 해답을 준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확립한것은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문제의 해결에서 혁명적 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하나의 철학사적 사변이였다.

유물변증법적 원리는 사람이 살아나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먼저 자기를 둘러싸고있는 세계를 알아야 할 생활과 실천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로 세계를 그 시원의 측면에서 고찰한 견해였다.

새로운 시대는 그에 맞는 과학적인 세계관의 확립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다. 과학적인 세계관은 시대를 대표하고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오는것만큼 전진하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

로동계급의 출현과 함께 개시된 혁명

의 끊임없는 확대발전은 이제까지 력사의 대상으로 되여온 근로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의 탄생을 가져왔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력량으로 등장한 주체시대는 그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세계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조하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의 출현을 요구하였다. 이 력사적 과제는 주체의 세계관이 창시됨으로써 빛나게 해결되였다.

주체의 세계관은 인간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다.

주체의 세계관은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여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문제,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밝혔다.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정확히 해명하는것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고 세계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확립하기 위하여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히자면 물질세계의 일반적특징과 함께 인간의 본질적특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5페지)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옳바른 리해는 물질세계에 대한 과학적 리해와 함께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히기 위한 리론적 전제이다.

물질세계에 대한 옳바른 리해와 함께 사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옳은 리해를 가지지 않고서는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명할수 없으며 또 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리해도 완전한것으로 확립할수 없다.

주체의 세계관은 유물변증법에 의하여 세계의 물질성과 그 일반적 운동법칙이 해명된 조건에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혔다.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며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것이 주체의 세계관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며 사람의 사회적 본질에 대한 과학적 리해이다.

사람의 본질적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세계관의 근본문제인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해명할수 있는 리론적 기초가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독창적인 해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독창적인 철학적 원리를 확립하였다.

주체의 세계관에 의하여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였으며 사람을 위주로 하여 과학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전개하고 확립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주체의 세계관의 기초이며 그 본질적 내용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그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해명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밝혀주고있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고있는 주인의 지위와 세계의 발전에서 노는 인간의 결정적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세계가 어느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하겠는가 하는것을 새롭게 해명함으로써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리해를 확립하였다.

이처럼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리해에서 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원리와 인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원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원리를 자체안에 다 포괄하고 있는 완성된 철학적 세계관으로 되였다. 여기에 주체의 세계관이 세계의 본질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으로 되는 주되는 근거의 하나가 있다.

참으로 주체의 세계관의 확립은 인류의 철학사상과 로동계급의 세계관 발전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주체의 세계관은 또한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 철학적 세계관이다. 여기에 주체의 세계관이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주는 완성된 철학적 세계관으로 되는 또하나의 주되는 근거가 있다.

주체사상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문제해결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을 벌린다.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은 인간에게 있어서 고유한 생존방식이다.

인간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다. 철학의 목적과 사명도 여기에서 례외로 될수 없다. 철학은 사람들에게 세계관을 줌으로써 그들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한다. 세계관을 주는 학문인 철학자체가 운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아득히 먼 옛날부터 사람들속에서 육체와 령혼에 대한 론의가 진행되여왔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이러한 론의도 운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에 뿌리를 두고있다.

정치적, 법률적 견해, 도덕, 예술, 과학 등 사회적 의식의 다른 형태들도 마찬가지이다. 그것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모두 사람의 운명에 대한 관심에 그 뿌리를 두고있으며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수학과 천문학, 물리학과 생물학 등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연을 개조하는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얻자는데 목적이 있다.

철학이 다른 사회적 의식형태들과 구별되는 점은 그것이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근저로부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밝혀준다는데 있다.

인간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알기 위한데 있다. 인간은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서는 인간자신의 운명에 대하여서도 알수 없기때문에 세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인식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세계관의 진보성과 생활력

은 결국 그것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 철학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객관세계를 해석하고 인식하는데 목적과 사명을 두었으며 그것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에 이바지하였다.

주체철학은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데 있다는 것을 독창적으로 명백히 천명함으로써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을 확립할수 있는 출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주체철학은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데 있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혔을뿐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옳바로 해결함으로써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통일시키고 새롭게 확립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도 바로 그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페지)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어야 할 철학적 세계관의 사명에 맞는 세계관의 기초적 원리이다.

사람은 세계속에서 살며 활동한다. 세계를 떠나서 사람은 한순간도 살수 없다.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람의 활동은 외부세계와의 호상작용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람의 운명 개척과정은 곧 사람이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철학이 세계의 본질과 그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과학적 학설로 되는 동시에 사람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밝혀주는 힘있는 무기로 되려면 마땅히 세계와 사람의 호상관계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어야 한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과 세계와의 관계를 고찰하면 그것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가 아니면 세계에 의하여 사람이 지배당하게 되는가, 사람이 세계의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노는가 하는 문제, 다시말하여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에 귀결된다.

세계관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가지는 것이며 사람을 위한것이다.

사람이 세계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요구,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요구로부터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것만큼 그것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그렇게 될 때라야 세계관이 참말로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밝혀주는 힘있는 무기로 될수 있다.

인간의 운명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것만큼 인간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곧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로 된다.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 개척에 복무하여야할 세계관의 본래의 사명과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근본요구와 리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또 그것을

직접 표현하고있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이다.

여기에 바로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가 세계의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히기 위한 문제로 되는 동시에 인간의 운명개척의 방도를 밝히기 위한 근본문제로 되며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를 통일적으로 완벽하게 밝힐수 있는 세계관의 기초적 문제로 되는 주요한 근거가 있다.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철학적 원리는 또한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어야 할 철학적 세계관의 사명으로부터, 인류사상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선행한 인류철학유산들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세계관에서의 혁신을 이룩하게 하는 기초적 원리이다.

계승과 혁신은 사상리론발전의 필수적인 두 계기이다. 원래 사물의 발전은 계승과 혁신의 두면을 가지고있다. 사물현상은 끊임없이 발전하며 이 과정에 앞선 단계와 다음단계 사이에 계승과 혁신의 두 계기가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는 사상리론의 발전과정에도 계승과 혁신이 있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로동계급의 철학적 세계관이 인간의 운명개척에 복무하여야 할 사명에 맞게 발전하려면 한편으로는 선행한 인류의 과학적 철학유산을 계승하여야 하며 다른편으로 그것을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상리론, 원리들로 혁신하여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언제나 보편적인 진리성을 가지며 새시대의 요구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 과학적인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발전완성될수 있다. 만일 철학적 세계관의 발전에서 계승만을 보고 혁신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을 시대의 요구에 해답을 주는 세계관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반대로 혁신만을 보고 계승을 보지 않는다면 혁신자체가 과학적인것으로, 보편적 진리성을 가지는것으로 되지 못한다. 따라서 세계관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게 된다.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옳바로 해결함으로써 세계관의 근본사명과 인류사상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선행한 인류의 철학유산들을 계승하는 동시에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리론들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혁신할수 있었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는 그자체가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문제로서 그것은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만 알거나 반대로 인간의 본질적 특성만을 알아가지고서는 해명할수 없다.

선행한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계승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사람의 본질적 특성도 해명할수 있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도 옳게 해명할수 있다.

주체철학은 선행한 유물변증법적 원리를 계승하고 인간을 물질세계와 분리시켜 고립적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덜 발전된 물질적 존재와의 관계에서 고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무엇이며 인간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어떠한가 하는것을 밝히고 철학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였다. 주체의 세계관이 새롭게 혁신한 원리인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보다 덜 발전된 물질적 존재에 대하여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를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고급한 물질의 운동인 인간의 운동이 저급한 물질의 운동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것이 유물론과 변증법에 맞는다는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주체철학은 유물론과 변증법의 원리를 버린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질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특출한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철학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였을뿐아니라 유물변증법도

더욱 완성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철학은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계승하고있지만 주체의 유물론, 주체의 변증법으로 발생발전한것이 아니라 인간을 철학적 고찰의 중심에 놓고 세계를 보고 대하는 사람위주의 철학으로 발생발전하였다. 주체철학의 근본성격은 어디까지나 사람위주의 철학이라는데 있으며 유물변증법적 성격은 이 근본성격에 체현되여있다.

주체의 세계관은 유물변증법을 계승하였을뿐아니라 근본적으로 혁신한 철학적 세계관이다. 유물변증법은 새로운 로동계급의 세계관의 확립을 위한 전제로 된다.

주체의 세계관이 유물변증법을 혁신하게 된것은 그 원리, 다시말하여 유물변증법의 원리만으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옳게 해명할수 없기때문이다.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으며 끊임없이 운동발전한다는 유물변증법의 원리로부터는 사람에게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과 같은 본질적 특성이 있으며 사람이 물질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리해가 흘러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세계관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다하자면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새롭게 밝혀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해명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에 주체의 세계관이 유물변증법의 원리를 계승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와 그것을 근거지어주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독창적으로 밝힌 세계관으로, 철학적 세계관을 그 기초로부터 근본적으로 혁신한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되게 된 근거가 있다.

이리하여 주체의 세계관은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만을 밝혀주던 지난 시기의 철학적 세계관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다같이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으로 발전완성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세계관이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대한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이라는것을 밝히신것은 인류철학사상발전에서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주체의 세계관이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이라는것이 깊이있게 론증됨으로써 인류철학사상사에서와 세계관발전에서 차지하는 주체철학의 력사적 지위가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철학은 인류의 모든 진보적 철학유산들을 총화하고 집대성하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완성시킨 철학으로, 인간의 운명 개척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는 풍부하고 다방면적인 사상리론적 재부를 담고있는 완벽한 철학적 세계관으로 되였다. 또한 주체의 세계관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정확한 길을 따라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오늘 주체의 세계관의 보편성과 진리성은 우리 인민의 혁명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으며 그 비상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화되고있다.

우리는 독창적인 사상리론으로 주체의 세계관을 심화발전시키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을 심오히 연구학습하여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완성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세계관의 위대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정 준 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철학적 해명을 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를 새롭게 밝히신것은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더욱 심화발전시킨 위대한 사상리론적 공적으로 된다. 동시에 그것은 사람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며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 ❀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의 사회력사관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전일적이고도 체계화된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는 주체의 사회력사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이다. 주체사상은 사회력사적 운동을 직접 일으키고 그 전과정을 규제하고 지배하는 담당자,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독창적으로 제기하였다. 이것이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이다.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밝히는것은 사회력사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 요인을 밝히는 문제로서 사회력사적 과정을 주체의 주동적인 활동과정으로 깊이있게 파악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비롯한 여러 문헌들에서 력사의 주체에 관한 문제를 사회력사관의 기초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과학적 해답을 주시였으며 이번 문헌에서 그것을 심화발전시키시여 혁명의 주체에 대한 독창적인 원리를 밝히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라는것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할것을 요구한다. 이번 문헌에는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과학적으로 심오히 해명되여있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라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8페지)

인민대중은 원래 력사의 주체이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부터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력량을 이루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게 되는것은 아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소수 지배계급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그들은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

대상으로만 되여왔다. 물론 착취계급사회에서도 력사를 발전시킨것은 인민대중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의사대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지배계급의 의사에 따라 력사를 창조하는 무거운 부담을 걸머지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인민대중은 아직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였다고 말할수 없다. 인민대중이 착취계급사회에서 력사를 창조하고 혁명운동을 담당하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의사대로 이끌어나갈수 없었던것은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데로부터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된 혁명력량을 이룰수 없었기때문이다.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는 선진적 로동계급이 출현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혁명사상에 의하여 근로인민대중이 의식화되고 조직화됨으로써 비로소 력사무대에 널리 등장할수 있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 하나의 혁명력량을 이루어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런데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통일과 단결은 당과 수령의 령도에 의해서 실현되게 된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가 바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문헌에서 천명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라는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합법칙성이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이 자기 수령, 자기 당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 살며 활동할수 있게 된다는것이 밝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력사의 주체에 대한 사회력사원리를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가장 정확히 리해할수 있게 하는 과학리론적 초석이 마련되게 되였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며 그 중심이 수령이라는것이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것은 그것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리는 산 사회정치적 집단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의 제일생명인 사회정치적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결속된 사회정치적 집단이다. 바로 그것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것이다.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은 수령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 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은 이러한 생명의 중심의 역할에 의해서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력사의 참다운 주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되는것은 우선 수령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본성이다. 그러나 매 사람의 요구가 꼭 같은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들의 본성이 사회적 규모에서 실현되여야 하는것만큼 그것들은 하나로 종합되고 통일되여야 한다. 수령은 바로 대중의 이러한 요구와 지향을 하나로 종합하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되는것은 또한 수령이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는데 있다. 인민대중의 힘은 조직되고 단결된 집단의 힘인것만큼 통

일적 지휘가 없이는 그것이 높이 발휘될수 없다. 수령은 바로 인민대중을 단결의 거점인 혁명조직에 결속함으로써 창조적 력량으로 묶어세우고 이끌어나간다.

수령은 이와 같이 사람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통일시키고 발양시키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중심이며 최고뇌수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그 중추를 이루고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게 된다.

문헌에서 밝혀진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며 여기에서 수령은 그 중심을 이루고 당은 그 중추를 이룬다는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의 존재방식과 결합방식이 새롭게 해명되게 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이라는것과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의 수령의 지위와 역할 문제가 심오하게 론증되게 되였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것은 그 공고성을 과학리론적으로 해명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그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은 개별적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지금까지 개인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여 사람들사이에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은 이미 많이 론의되여왔다. 주체사상도 자유와 평등이 귀중하다는것을 인정한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자주적인 존재이기때문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으면서도 이 두 원리의 차원은 같지 않다.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단위로 하여 볼 때 평등의 원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한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힘있는 작용을 한다. 물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뿐아니라 평등의 원리가 작용한다. 여기서 개인들사이의 평등은 그들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모순되지 않는다. 참다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의 근절과 사람들사이의 평등을 전제로 하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의하여 믿음직하게 보장된다.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가자면 반드시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하는것이다.

사회정치적 집단안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그것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때문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마땅히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문헌에 의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

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노는 작용이 천명됨으로써 혁명의 주체의 공고성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에 관한 문제에 옳바른 해답이 주어지게 되였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수령, 당, 대중은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할수 없는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다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로 결합되여서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은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할수 없는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수 없는것처럼 대중과 떨어진 당과 수령도 력사를 향도하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수령은 어디까지나 당의 수령, 인민대중의 수령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노는 결정적 역할은 언제나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과 통일되여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도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문헌에서 밝혀진 수령, 당, 대중은 서로 뗄수 없이 련결된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다는 사상에 의하여 수령, 당, 대중이 사상의지 및 행동의 완전무결한 통일체를 이루게 된다는것이 과학리론적으로 근거지어지게 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를 새롭게 밝혀주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이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에 대한 문제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과학리론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그에 전일적이고도 체계화된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력사의 주체에 관한 원리 특히 지도와 대중의 결합에 관한 주체의 사회력사원리가 새로운 경지에서 가일층 심화발전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보다 풍부화하는데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혀주신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를 깊이 체득하고 그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7페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람들이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게 함으로써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할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그 위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에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려면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은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에 기초하여

확립되게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문제는 혁명적 수령관 확립의 출발적인 문제로서 그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에 의하여 천명된 인민대중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는 사상은 사회력사적 운동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리해할 때 가장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는것을 해명한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혁명적 수령관문제를 전개하기 위한 출발적 원리가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다. 특히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가 수령, 당, 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이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바로 인민의 수령이라는것을 밝혀준것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결정적 역할에 관한 문제를 인민대중의 생명의 존재와 발전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해명한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적 수령관을 지니는것이 의무감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요구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게 한다. 이로부터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게 될 때 혁명적 수령관을 사상적으로 신념화할수 있게 되며 따라서 그것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수령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할수 있게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또한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게 함으로써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게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하여 시작되고 전진하며 승리하게 된다. 이것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야 한다.

통일단결은 하나의 중심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세상만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존재하고 운동발전하는것처럼 통일단결을 이룩하는데서도 핵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한다. 중심이 없는 통일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통일단결의 중심은 바로 혁명의 령도자, 수령이다. 통일단결은 또한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이루어진 통일단결은 공고한 통일단결로 될수 없으며 오래가지 못하게 된다. 통일단결의 사상적 기초는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사상인 수령의 혁명사상이다. 통일단결은 또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하나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혁명동지들을 결합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통일단결이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때 힘있는것으로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에 의하여 밝혀진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는 사상은 혁명의 주체의 결합방식과 그 존재와 발전의 근본조건을 해명한것으로 된다. 그리하여 통일단결의 중심과 사상적 기초문제를 원리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사상리론이 확립되게 되였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는 또한 수령, 당, 대중을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노는 작용문제를 밝히고 그것이 동지들사이에서뿐아니라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 가장 숭고하게 발현되게 되며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충성의 관계가 단순히 사업상의 실무적 관계가 아니라 인민대중의 생명자체의 요구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가장 공고한 관계라는것을 해명하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질 때 사람들이 단결과 령도의 중심

인 수령의 두리에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뭉치게 되며 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가게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또한 사람들이 자기의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기 위하여 투쟁하게 함으로써 혁명위업에 한생을 변함없이 충성다해나갈수 있게 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만이 가지는 생명이며 그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지니게 되는 영생하는 생명이다. 자주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적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생명이 더 귀중하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녀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몸바쳐 투쟁할수 있으며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수 있다. 사람들이 혁명위업에 충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그것을 빛내여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문제에 귀착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혁명위업에 몸바쳐 투쟁하기 위해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육체적 생명은 타고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지니게 되며 그것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받아안게 된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는 개별적 사람들이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한 성원으로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닐수 있게 된다는것과 그러자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는 당조직을 통하여 그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여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것은 특히 사람들이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야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는것을 해명하고있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질 때 사람들이 력사의 참다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품에서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아야 한다는것과 그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는 길에서만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참된 삶을 누릴수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된다.

이렇듯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며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도록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게 한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원리를 심오히 밝혀주심으로써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결합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문헌에서 천명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사상리론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주체위업에 끝없이 충직한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며 당의 령도를 대를 이어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혁명전사들이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당과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보답하기 위한 참된 길이 있다.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혁명정신

최 장 룡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민족적 긍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면서 자기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의 새로운 사상을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혁명의 민족적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입니다. 자기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4페지)

자기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고상한 사상감정에서 흘러나오는 혁명정신이다.

이 정신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에 충실하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정신이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공고한 친선과 단결을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정신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우리 시대의 혁명투쟁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형성되는 민족부대들에 의하여 나라별로 추진되고있다. 한편 국제혁명위업은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이러한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은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혁명정신을 가질것을 요구한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바로 이러한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집중적으로 구현한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무엇보다도 매개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게 함으로써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에 충실하게 하는 혁명정신이다.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하는것은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세계혁명앞에 지닌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원래 혁명은 자주적인 투쟁이며 인민대중을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다.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본성적 요구는 자주성의 기치밑에 벌어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해서만 옳게 실현된다. 남의 풍에 놀거나 제 주견이 없이는 도대체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을 원만히 실현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지향은 나라와 민족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 원만히 실현된다.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가게 한다.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한다.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당과 인민에게 충실할수 없으며 자기 나라 혁명에 대하여 주인다운 태도를 가질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매개 나라, 매개 민족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하는 결정적 담보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야만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다. 만일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지 못한다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과 독자성을 잃고 교조주의와 사대주의를 범할수 있으며 민족의 리익을 줴버리고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적 생명체로서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어야 혁명과 건설은 독자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다.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게 한다.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게 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게 한다.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이처럼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힘있게 추진시키게 하는 사상정신적 힘의 원천으로 된다. 여기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가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혁명정신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민족제일주의는 또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하게 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친선도 자주성을 위하여 필요한것이며 또 자주적인 립장에서만 참다운 친선을 보장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4~15페지)

친선과 단결은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나라들과 계급적 형제들간의 뉴대를 공고히 하고 세계혁명의 승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공고한 친선과 단결이 없이는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없고 자주성을 유린하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과의 투쟁에서 공동보조를 이룩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에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되며 그것이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설 때에만 참답게 이룩될수 있으며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다.

자기 민족제일주의는 매개 나라와 민

족들의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자주적 립장에서 친선과 단결을 강화할수 있게 한다. 다시말하여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특성, 민족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한다.

지금과 같이 국경이 있고 나라와 민족별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조건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지 않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갈수 없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쌓은 경험을 참작하는것이 중요하다. 좋은 경험은 섭취해야 하는것이며 이것은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험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것이라 하더라도 자주적 립장에서 대하여야 하며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환상은 현실이 아니며 모든 일을 망치게 하는 기본원인의 하나이다. 오직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자기 나라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할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거나 다른 민족을 깔보는 민족배타주의와는 전혀 인연이 없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민족제일주의는 우리 시대 공산주의자들이 참다운 애국자, 진정한 국제주의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다.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는 매개 민족들이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게 함으로써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놓는다.

자기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을 깔보고 민족의 우수한것들을 보지 않는 민족허무주의와도 량립될수 없다.

민족제일주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을 철저히 반대한다.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고 자기 민족의 우수한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할수 없다.

자기 민족제일주의는 민족허무주의와 민족배타주의를 다같이 반대하고 자주적 립장에서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공고히 하게 한다.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민족제일주의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사람들은 큰 나라, 발전된 나라에 대하여 그 어떤 환상을 가지거나 남을 깔보는것과 같은 일이 없이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공고한 친선과 단결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자기 민족제일주의는 이처럼 민족의 자주성을 좀먹는 온갖 그릇된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친선단결의 뉴대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는 힘있는 사상적 무기로 된다.

우리 인민은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에 다같이 충실해온 인민으로 자랑떨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건설하심으로써 륭성번영하는 우리 인민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곧바른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5페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륭성번영하는 조국의 새 력사를 창조하였으며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자기 민족과 인류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자기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위한 투쟁의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이다. 사람들은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만 자기자신과 자기 민족을 해방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류를 온갖 예속과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력사적 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강도 일제를 패망시키고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시였으며 인류를 파시즘의 위험으로부터 구원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손에 무장을 들고 항일대전에 떨쳐나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전세계의 무산계급의 조국이였던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할데 대한 구호를 높이 들고 일본제국주의의 후방을 끊임없이 공격함으로써 쏘련에 대한 일제의 침략책동을 저지시키고 놈들에게 타격을 준것은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는데 불멸의 기여를 한 빛나는 모범의 하나로 된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이러한 고귀한 전통은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빛나게 계승되고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인민은 새로운 세계대전을 일으킬 야망을 품고 조선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킨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어 놈들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하게 함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고수하였으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싸우는 나라 인민들을 반제, 반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또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빛나게 수행하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동방에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한 튼튼한 보루를 다져놓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승리적으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있으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참으로 자주위업수행에서 세기적인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였으며 온갖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독립과 자주, 평등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나가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인민으로 되였다.

하기에 오늘 세계 혁명적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 우리 인민을 한없이 부러워하고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우리 수령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끝없이 존경하며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의 모범의 나라》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 인민이 우리 나라 혁명을 자주적으로 전진시켜 혁명의 민족적 임무와 국제적 임무에 다같이 충실해온 인민으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다같이 충실하는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정신을 집중적으로 구현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자기 민족의 생명으로 삼고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통일단결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이며 백전백승의 투쟁의 기치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주체적 력량이 마련되여 있었기때문에 혈전만리, 피바다를 헤치고 민족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인미답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올수 있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 모시고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는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 강력한 혁명의 주체를 이루고있는 바로 여기에 우리 인민의 비길데 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조국의 륭성번영과 세계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는것으로 하여 위대한 인민으로서의 자부심을 지닌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와 인민의 모든 영예와 위대성의 상징이다.

참으로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힘차게 전진함으로써 자기의 력사적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고 조국의 끝없는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가는 힘있는 인민으로, 인류해방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였다.

이 모든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제시된 자기 민족제일주의에 대한 사상이 자기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혁명에도 참답게 이바지하게 하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라는것을 확증해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자기 민족제일주의에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사변이다.

자기 민족제일주의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는 확고한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또한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다운 애국자, 진정한 국제주의자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가장 옳게 수행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켜 나가는데서 이룩한 또하나의 빛나는 업적이다.

우리는 문헌에서 밝혀진 자기 민족제일주의에 대한 사상의 혁명적 본질을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며 우리 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세계혁명에 더 잘 이바지할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

심 형 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옳게 인식시키는것은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며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인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우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이 마련하여준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깊이 간직한 열렬한 애국자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투사로 키워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수 있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혁명적 열의를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현시기 우리 혁명의 이 절실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명철하게 통찰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그리고 우리 인민의 자랑찬 투쟁경험과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과 그것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새롭고도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이것은 공산주의혁명리론, 사회주의정치리론 발전에서 또하나의 커다란 사상리론적 공적으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주체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옳바로 해명하기 위한 방법론적 원칙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관한 문제도 옳게 해명하려면 어디까지나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보아야 합니다.》

사회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여 보는가 하는것은 이 문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관점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문제로서 그것은 해당 사회제도에 대한 리해와 인식에서 출발적 기초로, 옳고그른것을 가르는 방법론적 기준으로 된다. 이에 따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정확한 결론과 옳은 실천이 나올수도 있고 부정확하거나 일면적인 결론과 그릇된 실천이 나올수도 있다.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금까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여왔지만 내용이 빈약하며 깊이 있게 해설하지 못하였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사회주의제도라고 하면 그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형태에만 그 우월성이 있는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형태에 기초해서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것만큼 그것이 자본주의적 소유형태보다 우월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인 우월성을 어느 제도가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더 유리한가 하는 관점에서만 보는것은 매우 단순하고 일면적인것이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관한 문제는 오직 사람중심의 과학적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고찰하여야만 편향없이 옳바로 해명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사람을 중심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은 그것이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의 어떤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결국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철저히 계급적 립장에서 원칙적으로 보

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근원적으로 보아야 한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고찰할데 대한 이 새로운 방법론적 원칙은 사람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제도자체의 구성원리와 근본모습에 완전히 맞는 가장 정당하고 과학적인 원칙이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바와 같이 사회제도는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질서의 공고한 체계이다. 원래 사회적 현상의 하나인 사회제도는 사람과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다. 사회제도는 사회관계의 담당자인 사람을 주체로 하여 이루어진다. 사람을 떠나서는 어떠한 사회제도도 존재할수 없으며 그 발전에 대해서 생각할수 없다.

사회제도가 바로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에게 복무하여야 하는것만큼 그 본질적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느 계급, 어느 사회적 집단의 어떤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가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적 기준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 차이,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심오히 해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직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사람들은 영생하는 사회정치적생명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참다운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란 계급적 측면에서 보면 로동계급의 리익을 구현한 생활을 말하며 내용상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인 요구와 창조적인 활동을 마음껏 실현해나가는 생활을 의미한다.

로동계급은 가장 자주적인 계급이고 창조적인 계급이며 가장 선진적이고 조직적인 계급이다. 로동계급은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내세우며 높은 조직력과 령도력을 지니고 있는것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것을 요구한다. 로동계급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한 사회가 다름아닌 사회주의사회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사람들을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참다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한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주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창조적인 역할을 다하면서 보람있게 살자면 그들모두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되여야 하며 거기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녀야 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사는데 있으며 사회가 동물의 무리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우월한 점도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는데 있다. 사람들이 자주적인 사회적 집단의 정치생활을 떠나서 그저 호의호식하는것만으로 사는 생활은 참다운 사회적 인간의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으며 사람들이 하나의 중심에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지 못하고 끊임없는 갈등과 분렬 속에 집합되여있는 사회를 진정한 인간사회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한 인간생활과 사회는 순전히 생물학적인

법칙이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고 사람의 품위를 떨군다는 의미에서 한갖 동물적인 생활, 동물적인 무리와 다를것이 없다.

자본가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진 백만장자, 억만장자라 하더라도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보람차게 살수 없는것처럼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수 없기때문에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누릴수 없다.

이와는 정반대로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상적 순결체, 하나의 조직체로 결합되여있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제도가 사람들에게 자주적인 인간의 본성에 맞는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주되는 리유의 하나가 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근거짓는 중요내용의 하나가 있다.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이란 또한 사회관계, 사회생활원칙의 측면에서 보면 집단주의에 기초한 생활을 말한다.

집단주의는 인간생활의 고유한 본성에 맞는 사회생활원칙이며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원래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의 생활의 특성은 그것이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이라는데 있다.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은 사람의 본질적 특징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현이며 또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을 통하여 실현된다. 집단주의는 바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으며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집단생활과 공동활동을 높은 수준에서 조직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한다.

집단주의는 개인주의와 정면으로 대치되며 그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개인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반동적인 사상이며 자본가의 리익이 구현된 자본주의사회의 생활원칙이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개인의 육체적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착취와 억압을 조성하며 사람들사이에서 자주성을 유린하고 유린당하는 관계를 낳게 한다.

사람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옹호보장하는 사회주의제도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고 사람의 자주성을 여지없이 짓밟는 자본주의제도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제도의 본질적 차이는 결국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차이,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개인의 육체적 생명의 차이에 귀착된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사회주의제도는 로동계급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한 사회제도로서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집단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의 자주적 본성에 맞는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하기때문에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로 되며 반대로 자본주의제도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구현한 사회제도로서 사람들이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개인의 육체적 생명과 향락만을 추구하게 하기때문에 가장 저속하고 부패한 사회제도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측면인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심오히 해명하시였다.

지금까지 민주주의에 관한 론의에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정의하여왔다.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두 유형의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밝힌것만큼 물론 옳은 주장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차이를 완전히 해

명하였다고 볼수 없다.

민주주의는 일반적으로 정치 또는 정치리념이기때문에 언제나 계급적 성격을 가질뿐아니라 일정한 목적과 리상을 내세우게 된다.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실시하는가에 대답을 준다면 민주주의의 목적과 리상은 무엇을 실현하는 정치를 실시하는가에 대답을 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서로 다른 형태들사이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명하려면 반드시 그것들의 계급적 성격뿐아니라 추구하는 목적과 리상에서의 차이까지 밝혀야 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부르죠아민주주의는 리상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리상으로 내세우고있다. 그러나 착취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있을수 없으며 진정한 자유가 보장될수 없다. 그것은 착취사회가 적대적인 계급으로 갈라져있고 착취와 억압이 지배하고있기때문이다. 설사 부르죠아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써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는 생활을 보장해줄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물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귀중히 여긴다. 그러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을 최고리상으로 삼고있다. 이러한 리상은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적 집단전체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로 지향시키기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의 리상에 비하여 높은 차원의 리상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목적에서도 부르죠아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목적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의 관계에서 언제나 갈등과 호상견제를 동반하며 약육강식의 법칙을 사상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때문에 철두철미 반인도적인것으로 되며 사회에 대한 개인의 관계에서 개인을 사회에 대립시키고 사회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에 복종시킬것을 요구하기때문에 철저히 반사회적인것으로 된다.

이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목적으로 되고있다. 이러한 목적은 인간의 사회적 속성으로부터 출발한 가장 숭고한것으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높은 존엄과 참다운 영예를 간직하고 인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도록 하여주며 사람들사이에서의 자유와 평등도 동지적 사랑과 호상방조에 기초하여 보다 원활히 실현되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요란스럽게 떠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 문제를 놓고보더라도 부르죠아민주주의보다 비할바없이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목적과 리상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와 이처럼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것은 부르죠아민주주의가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반면에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결국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 개인의 육체적 생명에 비한 사회적 집단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절대적 우월성에 귀결된다.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높이 발현되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되여있으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존중되고있을뿐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사

회정치적 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리익이 철저히 옹호되고있으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은 이 땅우에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꽃피워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이며 절대적인 우월성에 대한 일대 과시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 관점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그 제도자체와만 관련되여있는것이 아니라 해당 사회의 물질기술적토대 특히는 사회제도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수준과 밀접히 련관되여있습니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그 제도자체를 구성하고있는 제 요소들을 계속 발전시키며 사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것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만 여기에서 특별히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질적 상태를 개선하는것이다.

사람들의 질적 상태는 해당 사회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며 그것을 개선하는것은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기본요인으로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질적 상태란 바로 인민대중의 정치적 및 사회문화적 수준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제도는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 사회제도, 다시말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제도인것만큼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높은 기술문화수준을 가져야만 그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할수 있다. 사회주의제도가 아무리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 주인인 사람들이 그에 상응한 선진사상과 그것을 능숙하게 관리운영할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있지 못할 때에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지 못할수 있다. 그것은 마치 서투른 기대공이 새 기계의 우월한 성능을 제대로 다 내게 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의 리치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는 항상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틀어쥐고 해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또한 이 제도의 관리운영에서 집단주의적 방법을 관철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구조를 변경시키면 그 물질의 기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물질의 기능에 일정한 영향을 주어 그 작용을 변경시켜도 점차 구조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데서는 어디까지나 그 본성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집단주의적 방법은 개인의 리익과 창발성을 무시하거나 억제하는것이 아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관철하는 집단주의는 집단의 공동의 리익을 존중할뿐아니라 집단에 속한 매 성원들의 개별적 리익까지도 다 존중히 여긴다. 그것은 집단을 이루는 매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더 잘 옹호되고 높이 발양되여야 집단전체의 생활력도 강화될수 있기때문이다.

집단주의는 무원칙한 평등을 주장하는 평균주의나 부분은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전체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전체주의》와 아무런 인연도

없다. 집단주의는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몫이 차례지게 하며 더 높은 사회적 평가를 줄것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주의분배원칙은 집단주의원칙과 모순되지 않는다. 집단주의가 반대하는것은 집단의 리익보다도 개인의 리익을 더 기본으로 내세우는것이다.

개인주의적 방법은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서 한계를 가지며 집단의 단결과 협력도 제대로 보장할수 없게 하지만 집단주의적 방법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하며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협력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고 분산된 개인들로써는 생각할수 없는 큰 위력을 발휘하게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함께 사회주의경제를 국가적 범위에서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이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매개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의 소집단도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이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주체를 이루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조건에서 사회주의 생산과 분배도 매개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국가적 범위에서 계획적으로, 통일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번것만큼 분배한다고 하면서 공장, 기업소별로 국가적 지도를 배제하고 생산과 분배를 진행하여가지고서는 인민경제를 통일적으로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없으며 기관본위주의를 조장시켜 사회의 통일적 발전을 저애하는 후과를 가져올수 있다.

경제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밑에 관리운영하는것은 결코 매개 공장, 기업소들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다. 국가의 계획을 수행하는데서 일을 더 잘하여 국가에 더 많은 리익을 준 기업소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더 높은 평가를 해주는것이 응당하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독립채산제와 같은 합리적인 관리운영방법을 널리 실시하면서 국가를 단위로 하는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경제관리 체계와 원칙을 관철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는데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오늘 혁명과 건설은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으며 또 나라마다 발전수준과 구체적 조건이 다르다. 더구나 우리 나라는 하나로 통일되여있고 평화적 건설만을 위주로 해나가는 다른 사회주의나라들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아직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지상의 과업으로 남아있고 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군사정치정세가 수시로 변동되는 우리 나라에서는 반드시 자립적인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문제는 단순한 경제건설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주성과 국방에서의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며 남조선인민들을 각성시키고 고무하며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지지와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우리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주적인 로선을 계속 튼튼히 견지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새롭게 밝혀주신것은 실로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관한 혁명리론을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을 과학적으로 해명한

에 있다.

주체의 혁명리론은 이미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한다는것을 밝히고 그것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근거지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의 견지에서 사회주의제도의 근본특징과 그 정치경제적 근원을 과학적으로 천명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이 주체적 명제를 방법론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더욱 심오히 전개하심으로써 주체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기여를 하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중심의 관점에서서 사람의 자주적 본성을 출발점으로,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 사회정치적 생명과 집단주의생활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면모가 뚜렷이 밝혀지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계선이 선명하게 그어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관한 주체의 혁명리론이 옹호고수되고 새로운 명제들과 정식화들로 더욱 발전풍부화되였으며 그 과학적인 리론체계가 완벽하게 확립되게 되였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관한 새로운 주체적 해명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실천에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관한 새로운 주체적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구체적인 방도들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을 따라 더욱 확신성있게 나아갈수 있는 지침이 뚜렷이 마련되였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높은 정치적 자존심과 혁명적 긍지를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깊이 간직하고 이 제도를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관한 심오한 리론이 명시된것은 사회주의제도의 관리운영에서 온갖 그릇된 견해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의 견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를 마련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된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수백년의 오랜 세월 침략전쟁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로 살쪄왔기때문에 불과 수십년의 력사를 가지고 빈터우에서 제국주의의 침략위험을 견제하면서 자력으로 새 사회를 건설해오는 사회주의나라들보다 경제적으로 일시 앞설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회제도자체의 본성으로 하여 반드시 멸망의 길로 굴러떨어지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제도와의 대조를 통하여 바로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성과 취약성, 부패성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심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질수 있는 편향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헐뜯기 위해 미쳐날뛰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며 혁명적 인민들에게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줄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마련하시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리론은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제기하고있는 중대한 문제의 하나에 명철한 해답을 준 위대한 사상리론이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적 역할과 청년돌격대운동

리 형 섭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는것은 청년들의 크나큰 영예이며 자랑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며 사회주의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위력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으며 공산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청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기발랄하고 혈기왕성하며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것은 청년들의 특징이다. 청년들은 새것에 민감하며 진취성이 강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운다. 청년들은 그들이 가지고있는 훌륭한 자질과 특징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력량으로, 로력전선의 주력부대로 되며 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대중운동은 청년돌격대운동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롭게 나서는 중요한 대상들을 직접 맡아 건설하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8권, 488페지)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청년들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에서 그들을 단련하고 혁명화하는 대중적 운동이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이 운동의 혁명적 본질이 있다.

청년돌격대운동은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긴요한 대상들을 맡아 그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청년들의 대중적 혁신운동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자연을 인민대중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개조해나가는 방대하고 거창한 사업이며 어렵고도 간고한 투쟁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적과의 싸움에서 사선을 헤치고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돌격대가 있어야 하는것처럼 경제건설에서도 가장 어려운 모퉁이를 말아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돌격부대가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이 영예로운 임무를 담당수행하는 부대가 청년돌격대이다. 청년돌격대가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모퉁이를 말아 곤난을 이겨내면서 용감하고 대담하게 돌파구를 뚫고나가야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된다. 청년돌격대운동의 위력은 바로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중요한 대상들을 말아 청춘의 불타는 정열과 무궁무진한 힘으로 그것을 최단기간내에 불이 번쩍나게 해제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이고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다그쳐나가는데 있다.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는 사상개조운동이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부대이

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계승자이다.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야 사회주의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우자면 사상교양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그들을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단련시켜야 한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고생을 겪으면서 단련되여야 강의한 의지와 고상한 품격을 갖출수 있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젊었을 때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겪는 고생은 혁명가로 자라나는데서 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매우 귀중한것이다.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 훌륭한 학교이다. 청년돌격대활동에 참가하여 경제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모퉁이를 맡아 그것을 뚫고나가자면 여러가지 난관과 시련에도 부닥치게 되고 남보다 고생도 더 겪게 된다. 고생을 이겨내고 시련과 난관을 헤치면서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과정에 청년들은 확고한 혁명적 신념과 강의한 의지를 지닌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떠메고 나갈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자라나게 된다.

청년돌격대운동은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다 바쳐 당과 조국에 이바지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빛내여나가는 청년들의 영광스러운 운동이며 젊어서 한번 해볼만한 보람찬 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청년돌격대운동의 빛나는 전통에 기초하여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 피끓는 청년들을 웅대한 대자연개조투쟁의 앞장에 내세워주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청년돌격대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청년돌격대운동은 새 조국 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부문의 앞장에서 그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청년들의 집단적 혁신운동으로 힘차게 벌어졌으며 그것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청년들을 교양개조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혁명이 전진하는데 맞게 청년돌격대운동을 심화발전시키는것은 이 운동의 위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우리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돌격대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새로운 형태의 청년돌격대인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무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당정책을 관철하는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나가는 돌격부대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우는 학교입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해나가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정규화된 새형의 청년돌격대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근본목표로 제기하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가장 위력한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을 철저히 구현하고있으며 사업과 생활을 정규화, 규범화하고있는 바로 여기에 속도전청년돌격대활동의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그 위력의 원천이 있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결성, 이것은 혁명발전의 요구와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 청년들의 지향을 깊이 통찰하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더 큰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청년돌격대를 발기하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결성됨으로써 청년돌격대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돌격대운동을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세련된 령도로 이 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청년돌격대운동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무엇보다도 청년돌격대의 활동에서 정치사업, 인간개조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는데 있다.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는것과 청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여기에서 어느것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청년돌격대운동을 벌려나가는가 하는것은 돌격대운동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중대한 원칙적 문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에서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 역할로부터 출발하여 청년돌격대운동에서 정치사업, 인간개조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고 속도전청년돌격대의 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체계와 조직생활체계, 초급일군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주시였으며 그것을 실속있게 운영해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정치사업, 인간개조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그것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감으로써 청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불러일으켜 당정책관철에서 나서는 어렵고 힘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보통이면 몇년 걸려야 할 방대한 건설대상들을 몇달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성하는것과 같은 기적적인 성과를 끊임없이 창조하고있는것은 언제나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의 결과이다.

청년돌격대운동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고있는데 있다.

청년돌격대운동은 청년사업의 한 부분이다. 청년돌격대운동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벌려나가는것은 이 운동의 본성적 요구이며 그 성과를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청년들은 원대한 리상과 포부를 가지고있으며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큼직한것을 말아하며 사업을 팡팡 내미는것을 좋아한다. 청년돌격대운동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야 청년들이 가지고있는 훌륭한 자질을 충분히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할수 있고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

일찍부터 청년운동에 대한 령도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대담하고 통이 크게 구상하고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목표를 높이 내세우는것은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며 령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다. 언제나 청년들에게 사업을 대담하게 맡겨 그들이 높은 목표를 내걸고 투쟁하게 하는것은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중요한 령도풍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규모의 북부철길공사를 통채로 청년들에게 맡겨주시였으며 이 공사의 중요구간을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담당하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파일군을 세계일등급의 공산주의의 무릉도원으로 더 잘 꾸리기 위한 웅대한 사업도, 광복거리에 학생소년궁전과 청년려관을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는 거창한 건설사업도 속도전청년돌격대에 맡겨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중요 건설대상과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건설사업을 대담하게 맡겨주심으로써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언제나 높은 목표를 내걸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하나의 과업을 해결하면 련이어 다른 새로운 과업을 주어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게 하는것은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풍모의 중요한 특징의 다른 하나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맞으면서 새로 조직된 속도전청년돌격대에 평양—마동사이철도전기화공사를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고 련이어 수많은 구간의 철도전기화공사를 수행할데 대한 과업을 맡겨주심으로써 속도전청년돌격대는 패기와 정열에 넘쳐 계속 전진할수 있었으며 나라의 전반적 철도전기화를 실현하는 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오늘 거창한 광복거리 건설장과 500리 북부철길건설장 그리고 100리 청춘과원에서 청년돌격대원들이 온 나라가 들썩하게 일판을 크게 벌리고 매일과 같이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것은 청년돌격대의 활동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산 현실로써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청년돌격대운동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은 또한 당정책관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돌격부대인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튼튼히 꾸려준데 있다.

청년돌격대는 청년돌격대운동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그 결정적 력량이다. 청년돌격대운동에 관한 당의 령도도 청년돌격대를 통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청년돌격대운동의 성과여부는 결국 청년돌격대를 어떻게 꾸리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돌격대를 강화하는데서 특히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당의 돌격부대인 속도전청년돌격대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정치사상적으로뿐아니라 물질기술적으로도 속도전청년돌격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결속된 젊은 혁명전사들의 전투대오로, 당이 맡겨주는 어떤 어려운 과업도 수행할수 있는 전투력있는 부대로 강화되였다. 이 믿음직한 대오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의 크나큰 자랑이며 청년돌격대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로 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령도는 청년돌격대운동을 강화발전시킨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청년돌격대운동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은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결성된후 지난 10여년동안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으며 당과 조국 앞에 커다란 업적과 위훈을 세웠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당과 조국 앞에 쌓아올린 업적은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고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에 크게 이바지한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하는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이며 확고한 결심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우리 당의 후비대,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청년들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혁명 전적지와 사적지들을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으로 꾸리며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건설강령을 실현하는 투쟁에 청춘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지혜를 다 바쳤다. 이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국제친선전람관, 인민대학습당, 평양제1백화점, 창광거리, 검덕광업종합기업소 제3선광장과 같은 대기념비적 창조물들과 연 1, 300여키로메터 구간의 철도전기화와 240여키로메터의 새 철길건설을 비롯하여 총 140여개 대상건설을 완공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으며 건설로 당을 보위하고 받들어나가는 근위대, 돌격대로서의 사명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속도전청년돌격대가 당과 조국 앞에 쌓아올린 업적은 또한 수많은 청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운것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경제건설의 위력한 돌격부대일뿐아니라 청년들을 교양하는 혁명화의 학교이다. 이 혁명화의 학교를 통하여 청년들이 혁명적으로 단련되고있으며 우리 당의 청년전위로 억세게 자라나고있다.

오늘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의 사상정신적 상태는 매우 훌륭하다. 청년돌격대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있으며 당과 수령의 명령지시라면 물과 불 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여들어 그것을 관철해나가고있다.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인생의 제일 귀중한 청춘시절을 기꺼이 바쳐나가고있는것이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다.

속도전청년돌격대의 활동을 통하여 지난 10여년동안 여러명의 로력영웅과 45명의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를 비롯하여 1만 4천여명의 국가수훈자들이 배출되였다. 또한 1만여명의 청년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되였고 9천 5백여명의 청년들이 금성정치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에 입학하였으며 수많은 청년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실무적으로 준비된 능력있는 일군들로 자라났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돌격대운동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이 운동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청년돌격대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이것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청년운동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이바지하신 특출한 기여로 되며 청년돌격대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재부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청년돌격대운동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 당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은 청년돌격대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 청년돌격대원들은 앞으로도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당의 원대한 사회주의건설구상을 실현하는 보람찬 사업에 청춘의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며 자신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청년돌격대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겠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

리 능 훈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하나의 명맥으로 꿋꿋하게 이어주는 피줄기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끊임없이 승승장구해나갈수 있게 떠밀어주는 귀중한 재부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전통의 본질과 지위,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혁명의 주체와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새롭게 밝히시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혁명전통교양을 벌려나갈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문헌에서 밝혀진 혁명전통에 대한 주체적 리해를 확립하고 그것을 순결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사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 완성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주체는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과 당, 대중으로 구성되여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조직사상적 통일체로 결합되여있다. 이로부터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생명으로 련결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며 수령의 역할, 당의 역할, 대중의 역할은 언제나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는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강화발전된다.

혁명의 주체가 력사무대에 등장하게 되자면 반드시 수령이 출현하여야 하며 혁명적 당이 조직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은 비로소 정치적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는 인민대중으로 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가 참답게 이루어질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대중에 대한 수령과 당의 령도가 보장되고 대중이 수령과 당의 위대성을 체득하게 되는 일정한 력사적 시기를 거쳐 강화발전된다. 이것은 혁명의 주체가 자체발전의 합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의 주체가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되는것만큼 그것은 자기의 력사적 뿌리를 가지게 된다. 식물이 뿌리에서 영양소를 받아 자라나고 열매를 맺듯이 혁명의 주체도 자기의 뿌리를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강화발전된다.

혁명의 주체가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력사적 뿌리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 혁명위업이 개척되는 시기에 마련된다. 혁명의 수령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위업을 개척하기 위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그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전위조직을 결성하며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운다. 수령의 이러한 역할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수령과 당, 대중의 통일체의 력사적 뿌리가 마련되게 된다. 이 력사적 뿌리는 혁명의 주체가 자라나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게 하는 원천으로, 그 원형으로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재부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5페지)

혁명전통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하나의 명맥으로 이어지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도록 담보해주는 귀중한 재부로서 혁명의 주체가 강화발전되는 과정에 이룩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우선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의해서만 창시될수 있다.

혁명전통의 창시와 그 발전풍부화는 혁명의 주체가 그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과 일치한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는 과정에서 창시되며 그것은 혁명의 주체의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혁명전통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 주체로 되기 이전에는 이루어질수 없다. 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볼 때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기 이전시기에도 여러가지 류형의 투쟁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 이러저러한 유산들이 창조되였다. 더우기 력사무대에 로동계급이 등장하면서 혁명투쟁은 더욱 고조되고 창조된 유산도 보다 혁명적인 성격을 띠게 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산들은 나라와 민족의 영예와 슬기를 보여주는 애국전통으로는 되지만 혁명의 명맥을 이어주는 혁명전통으로는 될수 없다. 그것은 이 전통에 혁명투쟁의 앞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의 지도사상이 없을뿐아니라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풍부한 투쟁경험과 투쟁방법이 없기때문이다. 애국전통의 이러한 제한성은 당시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혁명의 탁월한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함으로 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된다. 이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에서 옳은 투쟁목적을 내세울수 없었으며 과학적이고도 혁명적인 전략전술과 투쟁방법에 의거해서 자기 활동을 벌려나갈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 교훈이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시기에는 혁명의 탁월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였던 탓으로 옳은 전략전술을 제시할수 없었을뿐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에 묶어세워 투쟁에 조직동원하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혁명운동에서는 실패와 우여곡절을 면할수 없었으며 혁명을 옳바른 길로 이끌어갈 그 어떤 유산이나 재부도 마련될수 없었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된 이후시기부터 비로소 형성될수 있었다. 인민대중이 수령과 당의 령도를 받아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자라나는것은 혁명전통의 형성을 위한 결정적인 조건으로 된다.

혁명전통은 인민대중이 과학적인 혁명사상과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벌릴 때 이루어지게 된다. 인민대중을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할데 대한 요구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실현되게 된다.

혁명의 수령은 시대와 혁명운동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의 지도사상과 전략전술을 창시하며 대중을 의식화하고 각성시켜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에 묶어세운다.

수령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그들의 계급적 처지를 깨우쳐주고 그들자신이 혁명의 참다운 주인이라는것을 가르쳐준다. 그뿐아니라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혁명의 목적과 투쟁목표를 제시해주며 그 수행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이 혁명의 길에 떨쳐나서게 되며 준엄한 투쟁의 시련속에서 혁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혁명의 자주

적인 주체로 자라나게 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지도사상이 창시되고 그것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정치적 력량이 마련될 때 비로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위업이 개척되게 된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진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개척되고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과정에서 혁명전통이 이룩되게 된다.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자라난 인민대중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속에서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게 되며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게 된다. 또한 혁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귀중한 업적들과 경험, 혁명적 사업 방법과 작풍들이 마련되게 된다. 이것은 바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그를 받들어나가는 인민대중의 활동에 의하여 혁명전통의 사상정신적 재부들이 마련되게 된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또한 혁명의 주체가 강화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발전풍부화되게 된다.

혁명이 전진하는 력사적 과정은 곧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혁명적 재부들이 구현되고 발전풍부화되는 과정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에는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사상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승리를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고귀한 혁명정신, 혁명발전의 귀중한 밑천으로 되는 업적과 경험을 비롯하여 혁명투쟁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게 하는 혁명적 재부들이 풍부히 담겨져있다.

혁명투쟁의 력사적 행정, 혁명의 전진은 바로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혁명의 지도사상이 혁명실천에 구현되고 발전풍부화되는 과정이며 혁명전통에 담겨져있는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이 혁명투쟁의 실천과정에서 높이 발휘되고 모든 사회성원들이 공산주의적 혁명가로 자라나는 과정이다. 또한 혁명승리의 길이 개척되는 시기에 이룩된 고귀한 업적이 구현되고 더욱 확대발전되는 과정이며 투쟁경험이 풍부화되는 과정이다.

혁명전통이 발전풍부화되는 과정은 혁명의 고귀한 재부들이 창조되고 풍부화되는 과정으로서 그것은 오직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혁명전통을 창조해나가는 담당자는 바로 혁명의 주체이다.

혁명의 주체는 그가 지닌 력사적 사명과 임무로부터 혁명적 재부를 창조하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그에 대한 요구를 혁명앞에 내세우며 자체의 투쟁으로 그를 실현해나간다. 혁명의 주체의 활동과 역할을 떠나서는 그 어떤 재부도 창조될수 없다.

혁명의 주체의 활동과 역할에 의해서만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혁명전통이 발전풍부화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투쟁이 심화발전되여나가는 행정은 곧 고귀한 혁명적 재부들이 창조되여 풍부화되어나가는 과정이며 이 투쟁을 담당수행하는 당사자가 바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이다.

혁명투쟁의 승리적 전진과정에 혁명의 주체는 더욱 강화되고 혁명전통이 발전풍부화되여나간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은 인민대중이 하나의 중심에 단합되고 움직이는데 있다. 인민대중이 하나와 같이 단합되고 행동에서 조직성과 일치성을 보장하자면 그 중심이 있어야 한다. 혁명투쟁에서 단결과 통일적 지휘의 중심은 로동계급의 수령이다. 수령은 대중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수 있게 하는 중심일뿐아니라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단합되고 수령의 유일적인 지휘밑에 움직이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

체로 되는것은 모든 투쟁을 단합된 력량으로, 조직성있게 벌려나가며 나아가서 혁명적 재부들을 창조하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한마디로 말하여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통일단결되였을 때 혁명투쟁에서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으며 혁명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이 창조되여 혁명전통을 발전풍부화한다. 이것은 백수십년의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력사적 경험이 그대로 말하여준다.

이처럼 로동계급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력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수령과 당, 대중의 통일체의 활동과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쟁취된 귀중한 혁명적 재부인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혁명전통의 본질과 그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전통을 확고히 계승발전시키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 *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 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혁명적 재부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이룩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인민의 커다란 자랑입니다.》 (우와 같은 문헌, 15～16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그 창시과정과 그가 담고있는 내용의 풍부성과 심오성에 있어서 그리고 생활력의 크기와 영원불변성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혁명전통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위대성은 곧 우리 혁명의 주체의 위대성이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주체에 의하여 쟁취된 고귀한 혁명적 재부이다.

우리 혁명의 주체가 이룩한 혁명적 재부에는 지도사상과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부터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계에서 구현해야 할 귀중한 경험과 업적들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다.

우리 혁명의 주체가 마련한 혁명적 재부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혁명대오의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통일단결을 실현한것이다.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의 중심에 인류가 낳은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모신것으로 하여 그리고 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 첫시기부터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유일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속된것으로 하여 그처럼 위대한 전통으로 빛날수 있었다.

통일단결의 불패성은 그 중심에 모신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령도자가 지녀야 할 풍모와 자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시고 조선혁명을 그 첫시기부터 승리의 한길로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제시하시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의 힘으로 혁명전사들을 굳게 묶어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공산주의적 인간애,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는 혁명전사들모두가 불보다 더 뜨

거운 충성의 마음을 안고 령도자를 받들어 모실수 있게 한 원천이였으며 수천수만의 공산주의자들과 대중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단합될수 있게 한 끝없는 인력이였다. 혁명가, 공산주의자이기에 앞서 참된 인간이시고 령도자이기에 앞서 참된 동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에 완전히 매혹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어떤 직분이나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심장속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탄복과 흠모의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을 혁명의 수위, 단결의 중심에 높이 모시였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탄한 시기나 어려운 시기나를 가리지 않고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랐으며 고락을 같이하였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굳게 결합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통일단결의 불패성과 공고성의 위력이 있는것이며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전통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항일의 그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유격대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일편단심 충성다한것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통일단결의 중심에 모시고 그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추호도 동요없이 꿋꿋이 싸워나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밑에 혁명전통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령도함으로써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하였던 혁명적이고도 전투적인 사업기풍과 학습기풍,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그대로 차넘치게 하고있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정신, 생활기풍 그대로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도록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전통교양도 마땅히 당의 의도에 맞게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당이 진행하는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다 주체사상교양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혁명전통의 본질과 형성발전의 합법칙성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혁명전통교양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일관성과 계승성을 보장하고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는 보람차고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 혁명의 혁명기에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워야 한다. 그래야 혁명선렬들이 피로써 쟁취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빛나는 전통을 순결하게 고수할수 있으며 깊고도 억센 뿌리에서 자라난 우리 당을 영원히 혁명하는 당, 투쟁을 멈출줄 모르는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주체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수 있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창시하시고 끝없이 발전풍부화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뿌리내리기 시작한 우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의 빛나는 전통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당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

홍 시 학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담당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바로 규정하고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어떻게 련결되고 결합되는가 하는것을 정확히 밝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지위와 함께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서도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당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라는것을 천명하심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련결되고 결합되며 존재하고 활동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옳바른 해명이 주어지게 되였다.

우리는 문헌에서 밝혀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 방침들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 *

당은 인민대중의 핵심부대이며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9페지)

문헌에 제시된 이 명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밝혀준것이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라는 사상이 당과 인민대중사이의 호상관계측면에서 당의 령도적 지위를 밝혀준것이라면 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라는 사상은 수령과 대중과의 조직사상적 결합과 혈연적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당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의 측면에서 당의 령도적 지위를 밝혀준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생명유기체의 매개 요소들의 기능과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일치시켜나가는 뇌수가 있어야 하고 뇌수의 지휘와 조절을 실현하는 중추가 있어야 한다. 생명유기체에서 중추는 뇌수의 지휘와 조절을 실현하고 외부의 자극을 뇌수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뇌수의 지휘와 조절이 중추를 통하여 실현되고 전달되여야 유기체의 기관과 계통이 움직이고 조직과 세포들이 작용하여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원만히 진행되려면 이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지휘를 실현하는 중추로서의 당이 있어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을 통하여 수령의 지휘를 받고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여야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라는것은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 지휘를 보장하고 수령과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결합과 혈연적 련계를 실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말한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로 통일되여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원래 모든 생명유기체는 자기의 유기체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생명활동을 하게 된다. 생명유기체의 생명활동은 자기의 생활적 요구를 자기의 생활능력을 동원하여 실현해나가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의 유구한 진화발전과정에 발생한 가장 고급한 생명체인 사람도 결코 여기서 례외로 되지 않는다.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을 가지고 사회적 집단을 이루고 살며 활동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활적 요구와 리해관계, 생활능력과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적 집단으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사람들의 요구와 리해관계, 능력을 집단의 공동의 요구와 리해관계, 능력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통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결합된 인민대중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바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자기의 최고뇌수인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고 수령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대한 뇌수의 지휘와 조절을 실현하는 중추가 있어야 한다.

당은 인민대중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수령과 인민대중이 당을 중추로 하여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지고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환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수령의 통일적 지휘와 당의 중추적 역할을 떠나서는 결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고 활동할수 없으며 수령과 당은 또한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 될수 없고 이 생명체의 생명활동을 지휘하고 조절할수 없다. 당의 중추적 역할에 의하여 수령과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고 혈연적으로 련결되여야 수령, 당, 대중이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수령, 당, 인민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련결되고 결합되는 방식인것이다.

련계와 결합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련계는 결합의 전제이며 결합은 련계가 공고화된 상태이다. 련계가 없이는 결합이 이루어질수 없으며 결합이 없이는 공고한 련계가 맺어질수 없다. 련계와 결합은 대상과 대상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련계가 실현되고 결합이 이루어져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통일체로,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다. 이러한 결합과 련계가 바로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은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게 하고 혈연적으로 련결되게 하는 이 생명체의 중추이다.

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당이 인민대중을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합시켜준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18페지)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합하는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존재와 그 건전한 발전은 공고한 조직사상적 결합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된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

나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여야 하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수준은 그들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되며 조직사상적 결합의 높이와 공고성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된다.

인민대중의 의식화, 조직화는 수령의 령도밑에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당의 올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의식화될수 있으며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결속되여 조직화될수 있다.

수령의 혁명사상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사상적 기초이며 수령과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결합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한 사상의지적 결합이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결합되기 위해서는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의식화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의식화수준은 사람들이 혁명사상을 체득한 깊이에 의해서와 얼마나 광범한 대중이 혁명사상으로 무장하였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전사회적 규모에서 모든 사람들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 때 인민대중의 의식화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는 사업은 당에 의하여 실현된다.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보급하고 전파하며 그 순결성을 보장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이 전사회에 유일적으로 지배하게 함으로써 수령과 인민대중의 조직사상적 결합을 위한 사상적 기초를 마련한다. 당은 수령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을 자기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전체 인민이 수령의 사상과 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게 한다. 당은 자기의 교양자적 기능과 선전선동수단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결합시켜나간다.

조직사상적 결합은 하나의 중심을 전제로 하며 조직사상적 결합의 공고성은 이 중심의 확고부동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조직사상적 결합의 중심은 인민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수령이다. 개별적 사람들이 자기 생명의 중심인 뇌수의 지휘에 의하여 결합되고 생명활동을 유지하는것처럼 인민대중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에 의하여 결합되고 수령의 통일적 지휘에 의하여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인민대중이 자기 생명의 중심인 수령의 두리에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하나의 생명유기체와 같이 전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업은 강한 조직력을 가진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의 령도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힘을 자각하고 하나의 사회정치적 력량으로 굳게 뭉치며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적으로 결속된다.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 또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수령의 통일적 지휘밑에 일치하게 움직이게 됨으로써 광범한 인민대중의 완전하고도 무조건적인 행동통일이 보장된다. 이처럼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 광범한 인민대중은 하나의 중심에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하나의 지휘에 따라 유일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따라서 인민대중의 조직화는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사상적 기초로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인민대중이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되게 함으로써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 된다.

당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 되는것은 또한 당이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공고히 한다는데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습니다.》
(우와 같은 문헌, 19페지)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공고히 하는것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광범한 인민대중은 수령이 의거하고 있는 계급적 및 사회적 지반이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력사를 향도하는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며 하나의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수령만이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 될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자기의 생리로, 생존방식으로 삼고있다.

당을 비롯한 사회정치조직은 수령과 인민대중을 련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탁월한 수령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하고 인민대중을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묶어세우면서 혁명적인 전위조직과 대중단체들을 창건한다.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혈맥처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혁명조직들이며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보장하는 기본방식은 조직사상생활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적 단련을 끊임없이 하여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 련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당은 인민대중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교양하며 학습과 조직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가도록 이끌어준다. 당은 정연한 당 및 근로단체 조직사상생활체계를 세우고 사람들이 조직사상생활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해나가도록 한다.

일상생활과 사업을 통하여 군중과 련결되여있고 군중속에서 움직이고있는 당조직을 비롯한 사회정치조직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은 수령의 사상을 받아안게 되고 수령의 의지를 체현하게 된다. 사람들은 조직사상생활과정에 사상을 주고 단결을 주고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는 수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보답하려는 굳은 각오와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된다.

수령은 당과 혁명조직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알게 되며 이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켜나간다. 이처럼 인민대중은 당을 비롯한 사회정치조직들을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받아안게 되고 수령은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리하여 수령과 인민대중사이에는 확고한 정치사상적 련계가 맺어지게 되며 정치사상적 뉴대로 이어진 가장 공고한 혈연적 련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지도와 대중을 결합하며 인민대중이 수령의 령도를 자기 생명활동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구현해나가도록 하는것은 수령과 인민대중사이의 련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수령이 령도하고 인민대중이 담당수행한다. 수령은 혁명의 령도자이며 인민대중은 혁명의 담당자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서 령도자와 인민

대중은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다. 수령의 령도가 인민대중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인민대중이 수령의 령도를 어떻게 받들어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수령과 인민대중사이의 련계의 공고성정도가 좌우된다.

수령의 령도는 당의 활동과 역할에 의하여 보장되며 수령의 령도는 당의 령도와 하나로 련결되여있다.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다. 당이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는것은 수령의 령도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당의 모든 활동은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수령은 당을 통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의 전략전술적 구상을 실현해나가며 근로인민대중의 모든 혁명조직들과 기구들을 하나의 목적실현에로 이끌어나간다. 당의 령도가 없이는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존재하고 활동할수 없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자기 생명활동의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수령의 령도가 인민대중속에서 철저히 실현될수 없고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확고한 령도적 련계가 이루어질수 없다.

당이 인민대중을 령도하는것과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은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고 수령과 인민대중의 령도적 련계를 실현하는데서 뗄수 없는 두 측면을 이루고있다.

당의 령도가 대중에게 접근되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위력과 결합되여야 그것이 참다운 령도로 될수 있으며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를 진심으로 받들어나갈 때 수령과 인민대중의 령도적 련계가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결국 당의 령도적 역할에 의하여 인민대중에 대한 수령의 령도가 철저히 보장되며 지도와 대중의 결합이 이룩되고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련계가 실현되는것이다.

이처럼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수령의 혁명사상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게 하며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것을 자기 존재와 생명활동의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구현해나가게 함으로써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인 련계를 공고하게 한다.

이것은 당이 정치사상적 련계와 령도적 련계를 보장하고 그것을 통하여 수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공고히 하게 하는것으로 하여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밝히신것은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그 의의는 무엇보다도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였다는데 있다.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당을 건설하고 당활동을 벌려나가는 중요한 목적은 결국 당의 지위를 강화하고 령도적 역할을 높여나가려는데 있다. 때문에 당의 지위와 역할을 바로 규정하여야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당을 그 지위에 맞게 건설하고 당의 역할에 맞게 당활동을 벌려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새롭게 밝혀주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중추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주체의 당건설리론이 새로운 높이에서 더욱 심화발전되였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을 이 생명체의 중추로서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방향에서 벌려나갈수 있는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새롭게 전개하고 체계화

할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였다는데 바로 문헌에서 천명된 당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사상의 독창성이 있으며 그 거대한 의의가 있다.

그 의의는 또한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뚜렷한 방도를 밝혀주었다는데 있다.

문헌에 밝혀져있는바와 같이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혁명의 주체로 된다. 여기에서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최고뇌수로 되며 당은 이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혁명의 주체에 대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러한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과 함께 당의 지위와 역할이 심오하게 론증되고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된다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또한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어떻게 결합되고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였으며 이 생명체를 이루는 담당자들의 기능과 역할, 생명활동의 합법칙성이 심오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이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발전에 이바지한 불멸의 공적으로 되며 인민대중을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전환시키고 혁명의 주체를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끊임없이 강화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당의 지위와 역할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당의 령도적 기능을 높여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는 위력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적 지침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인민의 탁월한 령도자로 더 잘 모시고 받들어나가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고 모든 사상교양사업이 주체사상교양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 철저히 이바지하는것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의 세계관적 및 인생관적 기초를 똑똑히 인식시켜 그들모두를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로서의 당의 지위에 맞게 각급 당조직들의 역할과 기능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해나가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하고 주체사상교양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준 문헌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우리는 문헌에서 천명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

탁 상 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혁명의 주체는 주체사상교양의 한 형태인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릴 때 더욱 강화되게 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3페지)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원만히 진행해나가자면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조직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주체의 원리와 함께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그들을 이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안에서 차지하는 자기의 지위와 계급적 사명을 자각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여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만드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되며 그것은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적아를 똑똑히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철저히 고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다.

오늘 주체의 혁명위업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주체위업을 떠메고나갈 임무를 지니고있는 조건에서 주체사상교양의 한 형태인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는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판문군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당의 의도와 요구에 맞게 적극 벌림으로써 이 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와 일정한 경험을 얻을수 있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의 하나는 이 사업을 군당위원회가 틀어쥐고 자체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무슨 일에서나 성과를 거두자면 자기 단위의 구체적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업을 조직하고 그에 맞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도 례외로 될수 없다.

우리 판문군은 지리적으로 볼 때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과 직접 대치하고있는 최전연지대에 위치하고있다. 우리 군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하고있는 새 전쟁 도발책동과 방송을 비롯한 여러가지 추악한 선전수단을 통하여 악랄하게 벌리는 반동적인 사상공세를 직접 목격하면서

살며 투쟁하고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군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는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내세우고 각급 당조직들이 이 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정상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계급교양사업도 군당위원회가 틀어쥐고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으로서 당사상사업을 당의 의도와 군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직접 조직하고 집행할 임무를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군당위원회가 계급교양사업을 어떻게 틀어쥐고 조직하며 집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이 사업의 성과가 중요하게 좌우되게 된다.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사업을 틀어쥐고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조직적 대책으로서 군당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기간 이 사업에서 나타난 우결함을 정확히 분석총화하였으며 계급교양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토의하였다. 우리는 군당위원회 전원회의결정에 따라 매해 군당집행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계급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분기마다 군당책임일군들의 모임에서 시기별 계급교양사업방향과 그 집행대책을 세웠으며 매월 군당위원회사업계획에 계급교양사업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분공을 세밀히 조직하였다. 특히 우리는 군당과 군급 기관 책임일군들에게 한개 단위씩 고정분공을 조직하고 그들이 해당 단위의 당조직들과 토론하여 계급교양사업을 틀어쥐고 조직집행해나가도록 하였으며 매월, 매 분기마다 그 집행정형을 엄격하게 총화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것을 제도화하였다.

군당위원회가 이렇게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분공을 똑똑히 주며 총화를 실속있게 하고 새로운 대책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계급교양사업은 어느 단위에서나 정상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부서들간의 배합 및 협동작전을 잘하는것은 계급교양사업을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계급교양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로 하여금 적아를 똑똑히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함으로써 《누가 누구를》하는 치렬한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이다. 그런것만큼 이 사업을 선전부일군들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다. 이로부터 우리 군당위원회는 주관부서인 선전부의 역할을 높이는것과 함께 조직부와의 배합작전을 강화하며 다른 부서들과의 협동작전을 실속있게 하도록 짜고들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일군들이 계급교양사업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제기된 자료와 건설적인 의견들을 선전부에 집중시켜 선전부로 하여금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초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군당위원회 일군들이 계급교양사업을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밑에 조직집행해나가도록 하는 한편 매 기관, 기업소와 협동농장, 학교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이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장악지도하는 사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당위원회가 이렇듯 군의 실정에 맞게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책임일군들과 초급일군들 모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급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게 한 결과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경험은 군당위원회가 계급교양사업을 틀어쥐고 실정에 맞게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을 발동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해나갈 때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이 사업을 제기되는 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래 사상사업은 서로 다른 준비정도와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또 각이한 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는것만큼 그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여야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계급교양사업을 구체적 정황과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벌리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끝없이 증오하며 압박받고 천대받던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사람마다 수준과 준비정도가 다르고 단위와 집단마다 특성이 있는만큼 계급교양사업도 격식화된 일률적인 방법으로 진행하여가지고서는 성과를 거둘수 없다.

계급교양사업을 제기되는 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기동성있게 벌려나가자면 이 사업을 담당하고있는 당일군들과 초급정치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일군들의 수준이 높아야 그들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 정황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능동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여기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세포비서들과 선동원들을 비롯한 초급정치일군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전개력이 강한 사람들로 꾸리는 한편 그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군당위원회는 초급정치일군들속에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는 동시에 군당위원회 일군들을 준비시켜 아래에 내려가 실속있게 도와주도록 하였다.

일군들의 수준을 높이는데서 군당위원회가 특별히 힘을 넣은것은 방식상학을 통하여 그들에게 대상의 특성과 정황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다양하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방법론을 배워주는것이였다.

방식상학은 모범적인 사실을 직관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줌으로써 일군들에게 계급교양사업을 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벌리는 방법론을 배워주는 힘있는 수단으로 된다.

우리는 계급교양사업에서 모범인 림한리당위원회의 사업을 도와주어 분계연선지대 협동농장들에서 정황과 농장원들의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특별한 격식이 없이 아무때나 할수 있는 방법론을 배워주기 위한 군적인 방식상학을 면밀한 준비밑에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군적인 방식상학에 뒤이어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매개 단위에서 자체의 특성에 맞게 방식상학을 다시 조직하게 하고 거기에는 모든 초급정치일군들과 초급일군들이 참가하여 진행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상학을 매해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을뿐아니라 매 월, 매 분기 사상사업방향을 주기 위한 당일군들의 모임과 초급정치일군들의 실무강습을 조직할 때마다 계급교양사업 경험을 한두가지씩 준비하여 발표하는 사업을 정상화하였다.

군당위원회는 이렇게 방식상학과 경험발표모임을 통하여 방법론을 배워준 다음 계급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도와주고 장악지도하는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갔다.

열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것이 낫다고 방식상학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일군들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높여주고 방법론을 배워주니 계급교양사업은

도처에서 격식과 틀이 없이 제기된 정황에 맞게 적극 벌어지게 되였다.

그것은 림한리와 판문점리의 경험이 잘 보여주고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이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박종철학생을 야수적으로 살해하였다는 소식에 접한 림한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이 사실을 지난 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과 반동놈들이 림한땅에서 감행한 야수적 만행자료와 결부하여 적들이 건너다보이는 분계선표말옆에서 기동성있는 이야기모임을 조직하였다. 그는 지난 전쟁시기 림한리의 림진강가에서 창고에 가두었던 애국적 인민들을 쇠줄로 묶은 다음 끌어내여 가장 야수적이며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하였으며 수많은 녀성들을 릉욕하고는 림진강의 깊은 물에 처넣어 학살한 비인간적인 만행을 직접 목격한 농장원을 준비시켜 사실을 폭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일군은 그 원쑤놈들이 오늘도 저 분계선너머에서 박종철이와 같은 수많은 겨레들을 학살하고있을뿐아니라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책동과 반공선전을 미친듯이 감행하고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계급적 각성을 늦추어서는 안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가지고 살며 일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호소하였다. 지난날 자기고장에서 감행하였으며 오늘도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놈들의 치떨리는 만행에 격분하고 리당일군의 호소에 격동된 농장원들은 학살된 애국적 인민들과 남녘의 겨레들의 원쑤를 갚는 심정으로 살며 일할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판문점리의 한 선동원은 지난 봄에 적들이 《팀스피리트—87》 전쟁연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을 때 이 전쟁연습소동의 침략적 목적을 생동한 자료와 결부하여 폭로하였다. 그런 다음 몇해전에 놈들이 판문점 회의장구역안에서 백주에 총을 쏘아 우리측 경무원을 살해한 야수적 만행에 대하여 되새겨주면서 원쑤들의 침략적 본성과 야수적 본성은 강산이 열백번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데 대하여 똑똑히 알게 하고 원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우리 군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일군들이 자체의 실정과 정황, 놈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계급교양사업을 도처에서 격식없이 기동성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군당위원회는 근로단체조직들 특히 사로청조직을 발동하여 새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새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는것은 그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착취받고 압박받던 피눈물나는 부모들의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사로청조직들이 청소년들속에서 신천박물관 견학과 복수결의모임, 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과 영화실효모임, 웅변모임과 시랑송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그들의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동창리사로청위원회에서는 적들이 바라보이는 분계선옆에서 복수결의모임을 진행하였으며 림한리사로청위원회에서는 지주놈의 머슴살이로 등뼈가 휘고 손이 불구로 된 한 로인과 이야기모임을, 선적리사로청위원회에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한 혁명영화 《꽃파는 처녀》를 가지고 영화실효모임을 조직하는 등 모든 사로청조직들이 계급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그리고 학교들에서는 계급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지은글발표모임, 그림전시회를 벌리는 한편 교수교양의 공간과 계기도 계급교양사업과 옳게 결부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새세대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을 똑똑히 알게 하는 동시에 착취받고 압박받던 부모들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며 혁명의 선행세대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어

떠운 나날에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불굴의 투쟁정신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계급교양사업을 이렇게 구체적 정황과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은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들, 지주, 자본가놈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고있다.

경험은 일군들의 수준을 높여 그들이 제기된 정황과 대상의 특성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진행하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는것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계급교양사업을 한번을 하여도 깊이 연구하고 잘 준비하여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는것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우리가 얻은 또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의 중요한 비결의 하나는 이 사업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준비하여 실속있게 진행하는가 하는데 있다. 연구와 준비가 없이 회수나 채우는 식으로 하는 교양사업은 아무리 많이 하여도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줄수 없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계급교양사업을 아래에 포치할 때에도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연구하여 제시해주면서 포치하였으며 총화할 때에도 회수나 통계자료를 가지고 총화한것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여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를 료해하고 총화하였다. 이렇게 군당위원회가 계급교양사업을 한번 하여도 깊이 연구하고 잘 준비하여 실속있게 하도록 한것은 실효가 컸다.

지난 6월 영예군인제약공장에서 진행한 이야기모임을 잘하도록 도와준 군당일군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여준다.

군당선전부의 한 일군은 영예군인제약공장에서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계기로 조직하고있는 이야기모임정형을 료해하여보았다. 그런데 지난 기간에 진행한 이야기모임때와 내용도 형식도 출연자도 별로 새로운것이 없었다. 군당일군은 그곳 당조직과 토론하여 준비를 심화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는 우선 출연자를 말재간이 있는 사람을 위주로 선정한것이 아니라 판문땅에서 놈들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영예군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신문과 도서들에서 미제의 침략적이며 야수적인 만행자료들을 종합하여 그가 체험한 사실과 결부해서 이야기하도록 도와주고 준비시켰다. 이야기모임에서 출연자는 사실과 자료, 체험에 기초하여 원쑤들의 침략적, 야수적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육체의 한 부분을 빼앗아갔으며 수많은 우리 판문군사람들의 부모와 처자들을 생리별하게 만들고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반동들에 대한 복수의 일념을 가지고 생산과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고 격조높이 호소하였다.

준비를 실속있게 하여 진행한 이야기모임은 내용도 새롭고 출연자도 새 사람이여서 응당한 실효를 나타냈다.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자본주의제도 특히 남조선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사업도 실감있게 진행하였다.

착취제도 특히 남조선사회의 반동적 본질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과 대비하여 인식시키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착취사회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옳게 리해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특히 이것은 놈들이 분계선 너머에서 방송과 각종 수단을 가지고 남조선사회가 《자유의 세상》이라고 하면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

게 헐뜯고있는 실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군당위원회는 당일군들과 초급정치일군들로 하여금 자본주의제도의 부패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말로만 강조할것이 아니라 깊이 연구하여 구체적인 수자와 사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실속있게 교양하도록 하였다.

지난 여름 군당위원회의 한 일군이 평화리에서 보여준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였다. 그는 아래에 내려가기전에 남조선사회의 부패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사실과 자료들을 품을 들여 하나하나 연구하고 준비하였다. 아래에 내려간 군당일군은 대중이 모인 기회에 준비된 자료에 기초하여 놈들이 벌리는 악랄한 선전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교양사업을 벌리였다. 그는 남조선사회는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과 지주, 자본가놈들은 잘살고 《자유》가 있지만 절대다수의 인민대중은 빈궁과 무권리 속에서 허덕이는 인간생지옥이라는것을 구체적인 수자와 매일같이 빚어지는 자살참극, 놈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과 결부하여 폭로하였다.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완전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실례를 들어 이야기하였다. 특히 그는 당과 국가로부터 무료교육과 무상치료제, 유급휴가제와 사회보험제, 살림집보장과 거저나 다름없는 쌀공급제, 각종 세금의 면제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받는 혜택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실지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준 다음 매 농장원들이 자기자신과 자기 가정에서 받는 혜택의 량을 직접 계산하게 하고 그것을 대중앞에서 발표하게 하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수자와 사실 앞에서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으며 놈들이 떠드는 《자유의 세상》이란 얼마나 개같은 세상인가를 똑똑히 깨닫게 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살려 군소재지를 비롯한 모든 단위들에서 자본주의사회의 표면현상이 아니라 썩고 병든 이 사회의 내부를 파헤쳐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사업을 깊이 연구하여 구체적 수자와 사실을 가지고 실속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군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은 적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과 선전공세에도 끄떡하지 않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이와 같이 지난 기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군당위원회가 튼튼히 틀어쥐고 군의 실정에 맞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벌림으로써 이 사업에서 일정한 성과와 경험을 얻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발전하는 현실과 당의 요구, 우리 군의 실정에 비추어보면 초보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계급교양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 속에서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을 끝없이 증오하게 하는 동시에 착취사회의 반동적 본질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주신대로 계급교양사업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다.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

서 재 영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사회주의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와 근로자들의 자각적 로동, 그들사이의 동지적 단결과 협력에 기초하여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경제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경제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그 성격과 사명에 맞게 옳게 관리운영하여야 사회주의경제제도를 굽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요구와 혁명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고수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바로 관리운영하지 못하면 자본주의제도에 비한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없게 되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할수 없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집단주의적 방법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를 관리운영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되여야 합니다.》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관리운영은 응당 사회주의경제제도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되여야 한다.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경리운영에서 집단의 리익,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기본으로 한다는것, 다시말하여 개인의 요구와 리익을 존중하면서도 집단에 속한 모든 성원들의 요구와 리익을 더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며 매개 경제단위의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고 첫자리에 놓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적 경리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생산수단의 소유관계는 경리의 계급적 성격을 규정하며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와 그 변화발전의 경제적 기초를 이룬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조직지휘하는 방법인 경리운영방법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달라지게 된다.

생산수단이 착취계급과 소상품생산자들의 사적소유로 되여있는 경리는 전적으로 그들의 계급적 목적과 리익에 맞게 개인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된다. 자본가들의 사적소유와 소상품생산자들의 사적소유에 기초한 경리들은 계급적 성격에서는 다르지만 다같이 개인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관리운영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때문에 사적경리에

대한 관리운영방법은 개인주의적 방법이라는 공통성을 가지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맞는 경리운영방법은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방법이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는 사회주의근로자들의 공동소유를 의미하며 그것은 어느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망라된 전체 근로자들의 공통적인 의사와 요구, 전국가적인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소유형태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에서는 생산과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국가와 집단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국가와 집단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처리하며 풀어나가게 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경리는 사적경리와는 달리 당과 국가의 통일적 지도밑에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는것이다.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의 경우에도 농민들의 사상의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로동계급보다 낮고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공업보다 약한것과 관련하여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가 있으며 이에 따라 두 사회주의경리형태에 망라되는 집단의 범위는 같지 않다.

사회주의농촌에 지배적인 협동적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일정한 집단의 공동소유이다. 이 소유는 그 집단을 이루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과 기술문화수준, 그들의 경제활동의 물질적 조건에 맞는 소유이므로 생산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킨다. 이것은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농업협동경리에 대한 관리운영방법은 마땅히 집단주의적 원칙으로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협동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공고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된다. 만약 협동경리에 대한 관리운영을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성격이 점차 변화될수 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사회화수준과 집단의 크기로 보아 전사회적 범위에서의 가장 포괄적인 집단적 소유이다. 생산수단의 사회화수준이 가장 높은 전인민적 소유에서는 생산의 목적과 경제발전 방향, 방도, 생산 및 로동조직을 비롯한 생산과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처리되며 나라의 전반적 경제가 전체 인민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에서는 국가를 단위로 하는 전사회적 범위에서의 집단주의적 경리운영방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가 공고발전되여 전인민적 소유에로 접근해가고 전인민적 소유가 끊임없이 확대발전될수록 생산수단의 사회화수준은 높아지고 생산의 사회적 성격은 강화되므로 그에 맞게 경리운영에서 집단주의적 방법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이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적 경리가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협력에 기초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생산활동을 비롯한 사회생활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사이의 호상관계와 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경리의 성격은 거기에 망라되여있는 사람들사이의 호상관계에 의해서도 규정되는것만큼 사람들이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는가 아니면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경리운영방법에서 차이가 있게 된다.

사람들의 계급적 요구와 리해관계가 같지 않은 착취사회에서 착취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서로 적대적 관계,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 있다. 착취자들 호상간에도 리해관계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들사이에도 모순이 있고 약육강식의 생존원리가 작용하므로 경리운영방법은 전적으로 착취자들 각자의 리익에 맞게

진행되는 개인주의적 원칙에 기초한다.

소상품생산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상품생산자들은 다같이 착취를 당하면서도 령락과 파산의 위험앞에서 서로 유리한 생산조건을 마련하여 경리운영을 지속하고 더 많은 리득을 얻으려는 경쟁을 벌리며 서로 견제하는 관계에 있다. 때문에 소상품생산자들사이에도 진정한 단결과 협력이란 있을수 없으며 각자는 자기의 리해관계에 따라 경리를 운영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결국 개인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관리운영방법이 지배하게 된다.

개인주의적 방법은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의 열성과 창발성을 발양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경리의 운영에서 사람들은 오직 개인에게 리익이 되는 한에서만 창발성을 발휘한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다같은 하나의 목적과 리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한다. 뿐만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은 다같이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며 국가와 사회로부터 안정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받는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재부가 늘어날수록 그들에게 차례지는 소득도 많아진다. 리해관계의 공통성과 사회생활처지의 근본적인 변화로 하여 근로자들사이에서는 생산과 관리에서 동지적으로 굳게 단결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수적으로 맺어지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도 협동경리와 국영경리에 따라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범위와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어떤 경리에서나 근로대중은 개인의 리익이 아니라 집단의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서로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한다.

모든 근로자들이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에 맞는 관리운영방법은 바로 집단주의적 방법이다. 집단주의적 방법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무한한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게 할수 있다. 개인주의적 방법으로써는 집단의 단결과 협력도 제대로 보장할수 없다. 집단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과 협력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으며 분산된 개인들로서는 생각할수 없는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다.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이야말로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사회의 가장 정확한 경리운영방법으로 된다.

이 모든것은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이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 사회 건설의 첫 시기부터 인민경제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는 공업부문의 국영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큰 힘을 넣었으며 여러가지 형태의 생산협동조합들을 널리 조직하여 소상품생산자들을 거기에 적극 참가시켰다.

전후에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비롯한 도시와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전면적으로 완성하여 모든 근로자들을 집단경리에 망라시켰다.

우리 당은 나라의 전반적인 경리가 사회주의적 경리로 전환된 새로운 환경에 맞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혁명적 구호밑에 근로자들속에서 집단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집단의 리익,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보장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경리를 관리운영해나가도록 하였다.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우리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사소한 편향도 없이 성과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여러차례의 방대한 인민경제계획을 훌륭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이야말로 사회주의적 경리를 로동계급의 요구와 혁명의 근본리익에 맞게 관리운영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으며 이 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적 경리를 관리운영하는 옳은 방법은 우리 당이 제시한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이 방법을 계속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방법이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방법에 의거하여야 합니다.》

현시기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 경리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 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사회주의적 경리운영에서 집단주의적 방법은 국가와 사회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매개 경제단위의 리익을 다 보장하는 방법으로 경리를 운영하는데서 나타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은 사회적 소유로 되여있고 경제건설은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경리운영이 국가를 단위로 하는 통일적이며 계획적인것으로 되여야 매개 경제단위의 힘을 집단의 힘, 전사회적 힘으로 전환시키고 나라의 생산자원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만일 경제단위들이 제각기 자기 단위의 요구와 리익만을 추구한다면 경리운영은 개별적인 사업으로 되여 나라의 경제적 힘을 통일적으로 옳게 발양시킬수 없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매개 경제단위의 리익도 다같이 보장하여야 집단주의적 관리의 요구가 옳게 실현될수 있다. 나라의 경제를 이루는 매개 경제단위의 리익이 실현될수 있도록 창발성이 충분히 발양될 때 집단의 힘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경제가 옳게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소의 창발성을 충분히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그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가 매우 밀접해진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도 바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독립채산제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정확히 실시하는데 있다.

현시기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사회주의적 로동

보수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 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생산자대중이 주인다운 높은 자각을 가지고 집단과 사회의 리익을 위하여 일을 더 잘하도록 하는데 있다.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의 우월성은 경제기술적 대책 하나만으로는 충분히 발양될수 없다. 사회주의적 경리는 생산과 관리의 주인인 근로자들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워야 그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게 된다.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일을 더 잘하도록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집단주의교양이다.

집단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근로자들에게 개인의 리익보다 집단과 사회의 리익, 국가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집단경리가 발전하여야 사회의 재부가 빨리 늘어나고 자신들에게 차례지는 로동보수와 사회적 혜택이 많아지며 나아가서 전체 인민이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칠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교양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된 집단주의교양은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적 경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가지게 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일수 있게 한다.

근로자들이 집단을 위하여 주인답게 일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면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에 맞게 로동보수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로동보수제를 집단주의적 관리원칙의 요구에 맞게 실시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은 국가에 들여놓는 몫을 체계적으로 늘이면서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분배를 잘하는것이다. 국가에 들여놓는 몫은 확대재생산과 사회의 공동소비를 위하여 쓰이는것만큼 이 몫을 체계적으로 늘여야 나라의 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고 사회주의적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양시킬수 있다.

로동보수를 매개 근로자들이 집단과 사회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기여한것만큼 지불하는것은 집단주의적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의 하나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실지 기여한것만큼 보수가 차례지도록 하자면 로동정량을 바로 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비를 옳게 적용하며 장려금과 상금 공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의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적 경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더 잘 관리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경제관리에 능력이 있는 지도일군을 요구한다. 집단주의적 관리운영방법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 있는 관리운영방법, 하나의 생산유기체를 이루는 현대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리를 관리운영하는 방법인것만큼 경제지도일군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경제관리능력을 소유하여야 그 위력이 충분히 발휘되게 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독창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리론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과 능숙한 경제관리능력을 소유함으로써 그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며 련합기업소의 생활력을 충분히 발양시키고 농업협동경리에서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추진되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운영에서 집단주의적 방법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련대수송은 수송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

황 삼 린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1년반이상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고있다. 이 장엄한 투쟁을 계속 추동하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련대수송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수송은 생산의 련속공정이다. 현대적인 대규모생산은 수송의 발전을 전제로 하며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경제 부문들사이, 나라의 여러 지역들사이의 련계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수송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생산과 소비사이의 련계를 밀접히 보장하여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련대수송을 강화하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철도에서의 집중수송방침을 관철하며 전반적인 수송문제를 원만히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157페지)

련대수송은 철도와 자동차, 배 수송등 여러가지 수송형태들을 서로 맞물려 짐을 나르는 우월한 수송방법이다. 다시말하여 련대수송이란 둘이상의 운수형태들이 참가하여 통일적인 수송계획과 맞물려진 수송공정에 따라 짐을 나르는 수송방법을 의미한다.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철도의 부담을 덜고 수송의 긴장성을 미리 막을수 있게 한다.

철도는 우리 나라의 여러 운수형태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운수부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철도는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화물수송에서 철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철도는 자연조건의 영향을 거의나 받지 않고 수송을 하는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철도운수는 비교적 수송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많은 짐을 먼거리까지 쉽게, 높은 속도로 나를수 있다. 이러한 우월성으로 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요구되는 원료와 자재, 설비의 대부분은 철도에 의하여 운반되며 공장, 기업소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도 주로 철도에 의하여 실현된다.

철도가 기술경제적으로 커다란 우월성을 가지고있고 나라의 동맥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모든 수송수요를 철도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면 철도의 부담을 증대시키고 나아가서 수송의 긴장성을 초래할수 있다. 철도의 부담이 늘어나 수송의 긴장성이 조성되면 원료와 연료, 자재를 제때에 운반해주지 못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게 되

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생활에 지장을 주게 된다.

철도의 부담을 덜고 수송의 긴장성을 미리 막기 위한 사업은 련대수송을 강화하여야 원만히 진행할수 있다.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서로 다른 운수형태들이 맞물리는 철도역이나 항들에서 량적으로 적고 가까운 거리에 날라야 할 짐들은 자동차나 배로 나르고 량적으로 많은 짐인 경우에도 큰 배로 나르면 철도의 부담을 훨씬 덜어줄수 있다. 철도의 부담이 적어질수록 석탄과 광석을 비롯하여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물자들과 먼거리로 날라야 할 짐들은 철도에서 지역별, 방향별로 더 많이, 더 빨리 집중수송할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수송수요를 철도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과 그로 인하여 생길수 있는 전반적인 수송의 긴장성을 미리 막을수 있다.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나라의 모든 지역들사이의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 수송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수 있게 한다.

인민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강화하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려면 지역들사이의 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은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고르롭게 분포되여있으며 서로 협동하여 사회적 생산을 진행한다. 사회주의경제에서는 지역적으로 떨어져있고 부문별로 세분화된 경제단위들이 국가의 유일적인 지도밑에 통일적인 경제체계를 이루고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이러한 경제단위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서 생산의 끊임없는 높은 발전속도를 이룩하자면 모든 지역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지역, 모든 기업소들 사이의 합리적이며 규칙적인 생산소비적 련계는 련대수송을 강화하여야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련대수송을 강화하면 어느 한 수송형태만으로는 실현할수 없는 지역들사이의 수송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산간오지로부터 외진섬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전반적인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만일 수송을 어느 한 형태에만 의존할 때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원료와 자재, 설비들을 제때에 날라다줄수 없으며 따라서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 고르롭게 마련된 생산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없다.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철도와 자동차, 배들의 협동을 잘하여야 지역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밀접히 맞물려주어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한다.

수송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것이다.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는 새로운 수송능력을 조성하는 방법과 이미 있는 륜전기재들을 더 잘 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충족된다. 그가운데서도 현존운수수단을 더 잘 리용하는 방법으로 수송수요를 충족시키는것은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보다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그것은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이는것이 많은 투자와 오랜 시일을 요하는 새로운 수송능력의 조성과는 달리 주로 수송조직사업을 개선하는 방법에 의하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비교적 쉽게 충족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은 수송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비한 효과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좌우되게 된다.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이 높을수록 수송을 위한 사회적 로동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물동량을 나를수 있다.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려면 련대수송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은 수송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수송기간을 줄여 수송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일반적으로 운수망의 배치상태와 수송 방향과 구간,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수송형태를 옳게 결합리용하여야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 철도로 수송하면 거리가 멀지만 배로 수송하면 그 수송거리가 훨씬 줄어드는 지역들도 있으며 자동차수송은 철도나 배에 비하여 기동성이 높은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련대수송을 잘 조직하면 수송구간을 짧게 하고 수송의 기동성을 보장하여 그 경제적 효과성을 높일수 있으며 나아가서 수송문제를 보다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련대수송을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제3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이미 마련된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농업생산은 1.4배이상으로 장성시켜야 한다. 우리앞에 나선 이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켜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더 잘 충족시켜야 한다. 교통운수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수송능력을 높이는 한편 배수송과 자동차수송을 더욱 발전시키고 철도와 자동차, 배 사이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여야 새 전망계획기간에 늘어나는 방대한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수송문제를 더 잘 해결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여있다.

철도운수를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오늘 우리나라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비할바없이 강화되였으며 철도운수망은 나라의 모든 지방들과 공업지구들을 밀접히 련결하고있다. 도로와 강하천배길의 기술상태가 개선되고 항만들이 많이 신설, 확장되였으며 대형자동차와 대형짐배들이 늘어나 자동차운수와 배운수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특히 우리 당의 원대한 자연개조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최근 시기 우리 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서해갑문을 비롯하여 대동강, 청천강들에 많은 갑문들이 건설되였으며 평양으로부터 중요도시들사이에 고속도도로가 건설되였다. 그리하여 련대수송을 더욱 강화할수 있는 밝은 전망이 열려지게 되였다.

우리는 이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련대수송을 강화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수송과 함께 자동차수송과 배수송을 강화하며 철도와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장들에 물자와 설비들을 제때에 날라주어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3권, 5페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련대수송을 강화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련대수송계획을 잘 맞물려 세우는것이다.

나라의 경제생활이 계획적으로 조직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수송사업도 철저히 계획에 의하여 조직되고 진행된다. 빈틈없는 수송계획을 떠나서는 수송의 원만한 보장과 그 빠른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련대수송은 서로 다른 수송형태들사이에 진행하는 사업인것만큼 계획부터 잘 맞물려 세우는것은 그 성과적인 보장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철도와 자동차, 배수송기관들사이의 품종별 련대수송규모와 련대수송구간, 집임자기관들을 정확히 밝힌 빈틈없는 수송계획이라야 련대수송사업을 고도로 조직화하고 실속있게 진행해나갈수 있으며 수송기간을 단축하고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여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

할수 있다.

련대수송계획을 잘 세우기 위하여서는 련대수송 대상과 형태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은 철도와 자동차, 배 수송기관들의 긴밀한 협동작전에 의하여 실현되기때문에 그 수송대상과 수송형태를 옳게 선정하는것은 련대수송계획을 바로세우고 수송수단들의 리용률을 높여 수송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련대수송대상은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고 수송의 경제적 효과성을 증대시킬수 있게 짐을 옮겨싣는 공정이 적고 자동차와 배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는것으로 선정해야 한다.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철도와 배사이의 련대수송인 경우에는 동북부지구에서 서부지구에로 실어날라야 할 통나무와 강재, 서부지구에서 동북부지구에로 수송해야 할 무연탄이 바로 련대수송의 적합한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철도수송과 자동차수송사이에는 일부 경공업제품과 식료품을 그 특성에 맞게 련대수송대상으로 정하는것이 합리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련대수송형태는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의 기계화수준이 높고 운수수단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는것으로 선정하는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철도와 배, 철도와 자동차, 배와 자동차들의 형식으로 련대수송형태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면 짐을 싣고부리는 시간을 훨씬 줄이고 수송의 효과성을 더욱 높일수 있다.

련대수송계획을 바로세우기 위하여서는 련대수송 대상과 형태를 잘 정하는것과 함께 계획을 세부적으로 정확히 맞물리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련대수송계획을 작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요구의 하나는 운수망의 배치상태, 짐의 품종과 량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품종별로 수송구간과 수송기간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는것이다. 이 원칙적 요구를 지켜야 운수형태들사이의 수송공정을 합리적으로 맞물릴수 있으며 나아가서 련대수송의 목적을 원만히 달성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련대수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련대수송에 대한 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다.

련대수송은 여러 수송기관들과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의 협동작전에 의하여 진행되는 복잡한 사업인것만큼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통일적인 지휘와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떠나서는 세부적으로 작성된 련대수송계획의 정확한 집행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철도와 배, 자동차 운수부문에서는 웃기관의 부서로부터 아래의 역, 항, 자동차수송대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운수기관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면서 교통위원회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련대수송을 잘 조직하고 협동작전을 벌려나가야 한다.

통일적인 련대수송지휘체계는 모든 수송 부문들과 단위들에서 강철같은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그 은을 충분히 나타낼수 있다. 규률과 질서가 강하지 못하면 운수형태들, 운수기관들사이의 협동작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나아가서 맡겨진 수송과제를 제대로 수행할수 없다. 교통운수부문에서는 군대와 같은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 질서를 세우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제정된 규률과 질서대로 일하도록 하며 련대수송의 전공정에서 사업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에 대한 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강화하는 한편 수송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련대수송은 인민경제의 전반적인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한 수송정책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우월한 수송방법이다. 교통운수부문의

일군들은 련대수송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수송정책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며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 수송에서 련대적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수송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늘 아래에 내려가 수송실태를 깊이 료해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어깨를 들이밀고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맡겨진 련대수송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 련대수송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련대수송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방대한 화물을 제때에 련대수송하려면 수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련대수송은 차량과 선박, 짐을 신고부리는 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 수단들을 요구하며 그것들을 원만히 보장할 때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수송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100톤짜리 화차와 견인력이 센 새형의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고 철도전기화를 완성하며 북부철길을 비롯한 새 철길건설을 다그치고 통과능력이 긴장한 일부 구간들을 중량화, 복선화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빨리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현대적인 대형선박과 끌배, 끌림배들을 많이 만들고 부두들을 확장하며 새로운 항과 부두를 건설하고 수로개척과 준첩사업을 강화하여 선박수송능력을 늘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자동차생산을 늘이고 먼거리수송대와 단거리수송대를 잘 조직, 배치하여 자동차수송능력을 높여야 한다.

련대수송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짐을 신고부리는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짐을 신고부리는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여야 짧은 시간에 많은 짐을 신고부리워 차량들과 배들의 머무름시간을 줄이고 그 리용률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운수부문에서는 련대수송에 대형운수수단들이 광범히 도입되고 화물수송량이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에 맞게 짐을 신고부리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지금 있는 기계설비들을 더욱 능률적인것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운수수단들을 제때에 수리하여 그 가동률을 높일수 있도록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계획적 예방보수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들과 수송부문의 근로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운수수단들과 운수 시설 및 설비들의 현대화, 대형화, 고속도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며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오늘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들을 실현하는데서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서고있는 과업은 실로 무겁고도 보람차다.

교통운수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련대수송을 강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더욱 철저히 옹호관철하여 나라의 수송사업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공산주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방법

김 기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는것을 사회주의교육사업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제시하시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주체적인 교육방법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교육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위한 숭고한 사명과 목적을 다할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이 교육방법은 일찌기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시기 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을 투쟁속에서 불굴의 혁명가로 키우며 유격근거지 학교들에서 학생들을 혁명실천속에서 단련하고 산 지식을 배우게 한 고귀한 경험에 토대한것으로서 그것은 사람중심의 심원한 주체의 원리를 그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로 하고있는 독창적인 교육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392페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한다는것은 론리적 사고를 통한 개념, 법칙, 원리를 인식시키는 교육과정과 생동한 직관과 실천적 경험을 통한 지식, 기능, 기량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긴밀히 통일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수 없는 독자적인 분야이면서도 뗄수 없이 련관되여있으며 호상작용한다. 실천은 리론에 의하여 지도되여야 하는것만큼 리론교육은 실천교육을 잘하기 위한 전제로 되며 리론은 실천에서 나오는것만큼 실천교육은 리론교육의 성과를 담보하는 기초로 된다. 이로부터 교육에서는 반드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옳게 결합하여야 할 요구가 나서게 되는것이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질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주체의 교육방법이다.

사람은 자기의 고유한 본성에 맞게 활동한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고있는 사람의 활동은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기 위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이다.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활동은 창조적 능력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람의 자주적 요구는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실현되며 창조적 활동은 창조적 능력이 허용하는 한계내에서만 진행될수 있다.

사람의 창조적 능력은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인식능력에 의하여 사물현상

의 본질과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파악하게 되며 실천능력에 의하여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하게 된다.

사람은 오직 높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겸비하여야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창조적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것은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이 인간의 창조력의 기본구성요소이며 사람을 힘있는 창조적 존재로 되게 하는 기본요인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의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은 저절로 형성되거나 높아지지 않으며 체계적인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통해서 성과적으로 이루어지고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높은 창조적 능력을 가진 힘있는 존재로 키워내야 할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옳게 결합하여 그들을 리론실천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또한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합법칙적 요구에 전적으로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다.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하는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되기 위한 필수적 자질로 된다.

원래 리론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나왔으며 실천에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책에서 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될 때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되게 된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할 때에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다양한 실천을 통하여 학생들을 현실과 접촉시킴으로써 사물현상에 대한 생동하고 정확한 표상을 주며 리론과 지식을 쉽게 체득할수 있게 한다. 리론자체가 실천적 경험의 일반화인것만큼 현실과 떨어지고 실천과 유리된 리론은 리해하기도 어렵고 흥미도 없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또한 책에서 배운 리론의 정당성을 실천을 통하여 검증하고 공고화할수 있게 하며 그것을 여러가지의 혁명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응용능력과 기능을 키울수 있게 한다.

혁명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리론은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으로서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아무 쓸모도 없다. 리론은 실천과 결부되고 실천에 써먹을수 있는것으로 되여야 산 리론으로 되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죽은 리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리론, 지식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무기력한 《글뒤주》로 되게 할뿐이며 지어 혁명사업에서 방해물로 되기까지 한다.

이 모든 사실들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교육방침이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위력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원리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합법칙적 요구에 기초하여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교육방법을 내놓으심으로써 사람들을 무기력한 존재로 만드는 낡은 교육의 치명적 약점이 극복되고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새형의 힘있는 창조적 인간으로 키우는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들에서 강의의 과학리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기초우에서 필요한 실험과 실습을 빠짐없이 진

행하고 그 질을 높이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들에 실험실습기지를 튼튼히 꾸려주시기 위하여 나라의 정세가 긴장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현대적인 귀중한 실험설비들을 대학들에 보내주시는 한편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기계설비들을 도서납본체계와도 같이 우선적으로 대학들에 보내주도록 하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들에 실험실습설비들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을뿐아니라 학교들에 실습공장을 많이 건설하여주었으며 공장, 기업소들에 대학생들을 위한 실습장을 꾸려주도록 하시고 농업대학과 농업전문학교들에 학생들을 위한 실습포전을 마련하여주도록 하시였다.

후대교육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 기업소에 배치된 첫날부터 설계기사로서의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설계부문 교원, 학생들을 현실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대상설계사업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여주시였다. 또한 교원들을 설계교원으로 배치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 설계기관에 나가 실습을 하고 경험을 쌓게 하며 현직 기술교원들을 3~4년에 한번씩 반년내지 1년간 설계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학교원들이 자기의 본신임무인 교수교양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질향상을 위한 온갖 조건을 다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빛나게 관철됨으로써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현대과학발전의 추세와 발전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맞게 대학교육의 과학리론수준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우리의 대학들은 현대적인 실험설비와 실습기지를 가진 민족기술간부양성의 믿음직한 기지로 튼튼히 꾸려졌으며 실천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였다. 우리의 교육은 사회주의건설의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있으며 모든 학생들이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기술인재로 자신을 더욱 튼튼히 준비해가고있다. 수많은 상급학년 학생들이 대학기간에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연구제목으로 삼고 정열적인 탐구와 피타는 노력으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가치있는 과학기술적 성과들로 나라에 보탬을 주고 후보준박사로 어엿이 자라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교육방침은 평양기계대학의 교육사업에서도 성과적으로 구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82년 5월 5일 몸소 우리 대학을 찾으시고 현지지도를 주신것을 비롯하여 여러 교시들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여 학생들을 리론실천적으로 준비된 쓸모있는 설계기사로 키울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이것은 우리 대학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기쁨이다.

우리 대학을 몸소 세워주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대학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대학에 전자계산기실과 자동제도기실을 꾸려주신것을 비롯하여 대학의 실험실습토대를 현대화할수 있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으며 학생들의 생산실습

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훌륭히 마련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우리 대학에 50명 규모의 공업응용수학연구집단을 꾸리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처럼 기초과학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정력적인 지도를 주심으로써 대학에는 현대적인 과학기술설비들로 실습토대가 굳건히 꾸려지게 되였으며 유능한 설계기술자양성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기초과학이 세계선진수준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설수 있다는 자부를 가질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대학의 모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은 그 어느것이나 다 당이 요구하는 견실하고 유능한 설계기사들을 키우는 하나의 목적에로 지향하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복무하고있다.

실험교육의 내용이 현대과학발전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문제들로 보충완성되였으며 실험제목과 설비에 따라 실험교원들이 고착되고 해당 실험에 정통함으로써 실험교육의 질적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최근 2~3년간만 하여도 대학적으로 여러 대의 극소형전자계산기와 광선모사절단기를 비롯하여 백수십종에 달하는 현대적인 실험설비와 기구들이 만들어져 학생들의 실험교육에 효과적으로 리용되고있으며 실험실이 보다 현대화되고있다.

실험뿐아니라 실천교육의 중요한 형태의 하나인 실습교육이 더욱 개선강화되였다. 낮은 학년에서 진행하는 교내 생산실습이 정규화, 규범화되고 그 질적 수준이 훨씬 높아지고있을뿐아니라 상급학년에서 진행하는 전공실습의 방법이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개선됨으로써 학생들의 설계능력과 창조력을 빨리 높일수 있게 되였다.

대학당위원회는 공장, 기업소의 당면한 생산과제수행과 분리되여 진행되고 있던 종래의 전공실습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실습내용과 공장, 기업소의 생산기술혁신과제를 일치시키며 대학생들을 대상설계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 그들의 설계능력을 급속히 높이고 실천교육을 현실에 가까이 접근시키며 국가에 보탬을 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여기고 이 방향에서 전공실습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실습교원들의 책임적인 지도밑에 공장기술혁신과제와 대상설계를 직접 맡아 전공실습을 하게 됨으로써 학생들은 현실료해와 문헌작업을 빈틈없이 하게 되였으며 도면을 하나 그리고 선을 하나 그어도 당과 조국 앞에 책임진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교원의 보충강의와 유능한 현장기술자들의 현장강의, 경험있는 고급기능공들과의 경험교환 등 모든 사업에 빠짐없이 성실히 참가하게 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푸는데 이바지하고 실천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여 졸업후 인차 대상설계를 할수 있는 자신심과 힘을 키울수 있게 되였다.

학생들의 설계능력은 전공실습을 통해서뿐만아니라 제도 및 학과설계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을 교원들의 과학연구사업에 널리 인입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더욱 높아졌다.

특히 대학에서는 새로운 《기계기초설계교육기준과제》를 만들고 학생들이 대학기간에 반드시 그려보아야 할 가장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기계부속품의 종수를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새로 늘임으로써 도달해야 할 목표와 수준을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설계교육과 관련된 학과목들간의 계승적 련관과 지속성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새로 만든 기준과제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해마다 설계경연과 설계발표회, 설계도면전시회 등을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고 좋은 경험들을 널리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지난

해 전국대학생설계경연에서 우리 대학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설계교육의 질이 더욱 개선되고 학생들의 설계능력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였다.

우리는 또한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사업에 학생들을 적극 참가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이 과정에 학생들의 설계능력을 높이였다.

우리 대학에서 연구제작한 명태밸따는 기계와 내장선별기, 밸세척기들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최근에 우리 대학에서는 시간당 80～100톤의 물고기를 허실이 없이 빠른 속도로 부리우는 정어리진공뽐프를 설계제작함으로써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치하를 받는 영광을 지니였다.

이밖에 개간된 서해간석지에서 새로운 벼재배법에 맞는 파종기의 연구제작과 까나리전조기, 전기기관차의 실동률을 높일수 있게 하는 개방흡전동기의 제작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우리 대학에서 이룩한 중요한 연구성과들에는 어느것에나 다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학생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지혜가 깃들어있다.

교원, 연구사들의 과학연구사업과 대학의 실험설비를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학생들을 널리 인입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과학리론적 자질과 실천능력이 급속히 높아지고 올해에는 수십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후보준박사론문을 내놓을수 있었으며 과학교육후비들을 많이 키워낼수 있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대학들에서 키워낸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민족간부들에 의하여 나라의 모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문화교육기관들이 훌륭히 관리운영되고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우리 당이 키워낸 기술자들에 의하여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날에 날을 이어 새로 일떠서고있으며 대자연개조사업이 힘차게 벌어짐으로써 나라의 면모는 몰라보게 달라져가고있다.

세계갑문건설력사에서 류례를 볼수 없는 빠른 속도로 건설된 서해갑문 그리고 만톤프레스와 대형산소분리기생산, 태천발전소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을 비롯하여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에서 빛을 뿌리고있는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인 창조물들에는 우리의 기술자들의 숨은 노력과 창조적 능력이 깃들어있다.

그것은 어느것이나 다 우리 당이 키워낸 전문가, 기술자들에 의하여 설계되고 우리의 기술과 자재, 근로인민대중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훌륭히 건설되였으며 또 건설되고있다. 이것은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우리 당 교육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웅변적으로 확증해준다.

우리는 이미 얻은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사회주의완전승리에 상응하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이룩하며 제3차 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할 현실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설계능력을 가진 능력있는 기계기사로 키우기 위하여 힘쓸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을 나오는 모든 학생들을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설계기사로 준비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주체위업의 종국적 완성을 위한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6월인민항쟁은 반미반파쑈민주화를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

림 동 옥

지난 6월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전두환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거족적인 인민항쟁이 전개되였다.

항쟁에 일떠선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괴뢰경찰의 발악적인 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워 미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전두환, 로태우 일당을 굴복시켰다.

6월인민항쟁은 그의 대중적 성격과 격렬성에 있어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파쑈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한다.

* *

남조선인민들의 6월항쟁은 지난 6월 10일 미제의 조종하에 전두환일당이 《민정당 전당대회》를 열고 《대통령후보》지명놀음을 강행하여 민주발전에 전면도전하여나선것이 그 직접적인 동기로 되였다.

《4.13조치》이후 《호헌철폐》와 《직선제개헌》을 위한 인민들의 줄기찬 투쟁을 무시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은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차기 괴뢰대통령후보로 극악한 친미군사파쑈분자이며 광주대학살의 공범자인 로태우역도를 내세웠다. 이에 격분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군부독재자들의 장기집권책동에 일제히 반기를 들고 《직선제개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전인민적인 항쟁에 궐기하였다.

인민항쟁의 불길은 서울에서 먼저 타올랐다. 6월 10일 저녁 서울의 한 성당에 들어간 1,000여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포위진을 겹겹이 치고있는 괴뢰기동경찰대와 대치하여 15일까지 롱성투쟁을 완강히 벌리였다. 16일, 17일에 이어 18일에는 최루탄추방을 위한 공청회를 폭력으로 막아나선 군사파쑈분자들의 횡포에 항거하여 남조선전역의 78개 대학에서 14만여명의 학생들이 《군사파쑈독재타도》를 웨치며 시위투쟁에 떨쳐나섰다.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렬하여졌다. 20일과 21일 이틀동안에만도 분노한 시위자들은 폭압에 동원된 차량 70여대와 괴뢰경찰지서, 파출소를 비롯한 놈들의 공공건물 40여개소를 불태우거나 파괴해버렸다.

항쟁의 불길은 재야단체들, 학계, 종교계, 문화계, 언론계 등을 망라하면서 급속히 확대되였다. 26일에는 남조선전역의 37개 도, 시, 군에서 광범한 군중들이 참가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진행되였다. 서울에서는 80여만의 시민들이 평화대행진을 위한 집회를 가지고 거리에 떨쳐나섰으며 항쟁의 도시 광주에서는 10여만의 각계층 인민들이 거리로 달려나왔다.

6월 10일부터 시작되여 근 3주일동안이나 계속된 남조선인민들의 6월항쟁은 1960년 4.19인민봉기와 1979년 10월의 부마산폭동 그리고 1980년 5월의 영웅적 광주인민봉기의 직접적인 계승이였으며 그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발전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그것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커다란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고있습니다.》

(《꾸바 쁘렌싸 라띠나통신사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단행본, 9페지)

6월인민항쟁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그것은 이 항쟁이 지난날 남조선에서 벌어진 일련의 투쟁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6월인민항쟁의 특징은 우선 그것이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반미자주화투쟁이 밀접히 결합된 항쟁이라는데 있다.

미제의 군사적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에서는 전후에 인민들의 투쟁이 끊임없이 전개되여왔으며 큰 규모의 항쟁들도 여러번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투쟁들은 반파쑈민주화투쟁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4월인민봉기와 부마산폭동이 그러하였으며 1980년 5월의 광주인민봉기도 그러하였다. 당시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리승만독재와 박정희《유신》독재 그리고 친미사대매국노들을 반대하는 반파쑈민주화구호를 전면에 제기하였을뿐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구호를 옳게 제기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인민항쟁에서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개헌》 등 반파쑈민주화구호와 함께 《미제축출》, 《미국의 간섭반대》 등 현군사파쑈독재정권의 비호자이며 배후조종자인 미제를 반대하는 구호들을 동시에 제기하였다.

항쟁참가자들은 《군사독재를 지지하고있는 미국인들을 몰아내자》, 《미국의 정치간섭 중단하라》,《양키 물러가라》 등의 반미구호를 강력히 추켜들고 미제에게 정면으로 항거하여나섰다. 항쟁용사들은 도처에서 전두환, 로태우 역도와 함께 미국대통령 레간의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화형식을 단행하였으며 뻐스와 택시들에 반미구호를 써붙이고 거리를 질주하였다. 부산에서는 5천여명의 항쟁자들이 미국령사관을 봉쇄하고 공격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사태수습을 위해 기여들었던 미국무성 차관보와 서울주재 미국대사가 탄 차를 거리에서 포위하고 군사파쑈독재를 부추기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반대하는 항의투쟁을 벌리였다.

이와 함께 항쟁참가자들은 《우리는 조국통일을 원한다》는 구호를 소리높이 웨치면서 항쟁 전기간에 교내와 가두, 성당들에서 조선민족의 애국적 기개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통일의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이것은 6월인민항쟁이 반미자주화투쟁과 밀접히 결합된 반파쑈민주화투쟁일뿐아니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치렬한 대중적 항쟁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바로 여기에 6월항쟁이 이전의 다른 투쟁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특징의 하나가 있으며 항쟁이 다름아닌 반미반파쑈인민항쟁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6월인민항쟁의 특징은 또한 그 규모와 지속성, 포괄범위에 있어서 전례없이 큰 투쟁이라는데 있다.

6월인민항쟁은 서울과 각 도소재지 그리고 남조선의 거의 모든 시를 포괄하는 40여개 도시에서 벌어졌으며 여기에 연 500만명에 달하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이 참가하였다.

6월 10일부터 시작된 항쟁은 근 20일동안이나 계속되였으며 이 항쟁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타번지였다.

지난날의 투쟁때와는 달리 6월인민항쟁은 그 첫시작부터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났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목포, 춘천, 충주는 물론 지난날 비교적 투쟁이 적게 일어나던 도시와 지역들에서도 완강하게 전개되였다.

그리고 항쟁에는 남조선의 모든 계급, 계층이 다 참가하였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로동자, 도시소시민, 일반사무원들과 대학교수들, 천주교신부들과 기독교신자들, 부녀자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군중이 대중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심지어 지금까지 투쟁에 적극적으로 합류하지 않던 불교승려들까지 모두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6월인민항쟁은 서울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전역을 포괄하고 각계각층을 광범히 망라한 전인민적인 항쟁으로 되였다.

6월인민항쟁은 운동의 격렬성에 있어서도 전례없는것이였다. 항쟁참가자들은 집회와 시위, 롱성뿐아니라 장갑차를 앞세우고 최루탄을 쏘아대며 류혈적인 탄압에 날뛰는 괴뢰경찰들의 파쑈적만행에 돌과 몽둥이로 대항하면서 낮과 밤이 따로없는 과감한 투쟁을 벌리였으며 억압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가하였다.

실로 6월인민항쟁은 그 지역적 범위에서나 참가범위와 인원수 그리고 그 격렬성에 있어서 남조선인민운동사에서 일찌기 찾아볼수 없는 전인민적인 항쟁이였다.

6월인민항쟁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항쟁의 나날에 신축성있는 투쟁전술을 구사하면서 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였다는데 있다.

지난날 남조선에서는 적지 않은 투쟁들이 옳은 투쟁전술에 기초하여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는 약점들을 가지고있었다.

준비된 핵심들에 의하여 투쟁이 옳은 구호를 제기하고 목적지향성있게 조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관계로 많은 경우에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좌절되군하였다. 그러나 올해의 6월인민항쟁은 종래의 이러한 부족점을 많은 면에서 극복함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

6월인민항쟁은 처음부터 광범한 대중이 쉽게 공감할수 있는 《호헌철페》와 《독재타도》의 구호를 내세우고 전두환괴뢰도당의 《4.13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면서 여기에 대중의 《직선제개헌》요구를 제때에 반영하여 민주쟁취의 구호를 명백히 제기하였으며 항쟁이 보다 대중화되고 적극화되여감에 따라 점차 높은 투쟁구호와 함께 여러가지 투쟁전술을 신축성있게 적용하였다. 다시말하여 항쟁에서는 《직선제개헌》을 위한 반파쑈민주화투쟁과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밀접히 결합시켰을뿐아니라 항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당면과업과 운동의 전망목표를 현실성있게 련결시켜나갔다.

이 모든 사실은 6월인민항쟁이 그 성격과 규모 그리고 조직화수준과 전술에 있어서 종전과는 다른 질적 변화를 가져온 투쟁으로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오늘 매우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6월인민항쟁은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와 전두환괴뢰도당의 파쑈독재통치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40여년동안이나 지속되고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식민지예속화정책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을 짓밟는 요인으로, 그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으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 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적 지배를 보장하는 남조선의 괴뢰군부독재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짓밟는 다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과 국내 반동세력이 유착되여 주종관계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을 유린말살하는 식민지파쑈학정하에서는 오직 빼앗긴 인간의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있을뿐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 식민지파쑈독재하에서 시달려왔으며 지쳐왔다. 그들은 8.15직후의 군사파쑈적인 미군정통치로부터 미제조종하의 리승만경찰파쑈통치를 거쳐 박정희군사파쑈독재와 오늘의 전두환군부독재에 이르기까지 실로 40여년의 긴긴 세월을 어느 한때도 주권자의 참된 지위를 차지해보지 못하였으며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유하여보지 못하였다. 도리여 남조선인민들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욱 참혹한 독재의 희생자로 되여야 할 운명이 강

요되고있을뿐이다.

전두환일당의 《4.13조치》와 《6.10대통령후보지명》놀음은 남조선에서 군부독재연장의 전주곡을 의미하는것이였으며 민주발전을 바라는 인민들의 앞길에 또다시 무거운 파쑈차단봉을 가로지른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이러한 참을수 없는 현실앞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이 반미반파쑈감정을 투쟁으로 폭발시키고 대중적인 항쟁의 길을 선택한것은 누구도 막을수 없는 그들의 권리인것이다.

6월인민항쟁은 남조선민주세력의 반파쑈투쟁사에 첫 승리를 기록한 의의있는 사변으로 되였다.

6월항쟁이 날로 격렬해지는데 겁을 먹은 남조선독재자들은 마침내 미제의 조종밑에 흰기를 들고 항쟁자들에게 투항굴복하였다. 남조선에서는 6월 29일에 있은 로태우의 《특별선언》에 이어 7월 1일에는 전두환괴뢰의 《특별담화》가 발표되였다. 독재자들은 여기에서 싫든좋든 항쟁자들앞에 무릎을 꿇고 《대통령직선제개헌》을 받아들이며 구속자들을 사면복권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일련의 민주화의 요구와 관련된 광고를 내들었다. 이것은 물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투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그처럼 민주세력의 요구를 총칼로 무자비하게 탄압하던 독재자들이 늦게나마 《호헌》으로부터 《개헌》으로 태도를 돌변하여 항쟁자들에게 굴복하여나온 사실은 자주, 민주, 통일에로 가는 길에서 남조선민주세력이 쟁취한 첫 승리로 되지 않을수 없다. 바로 여기에 6월인민항쟁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가 있는것이다.

6월인민항쟁은 또한 미제의 대남조선침략정책에 일대 혼란과 타격을 주고 괴뢰지배층의 위기를 가일층 심화시켰다는 점에서도 다른 하나의 의의를 찾아볼수 있다.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신식민주의통치방법에 의거하고있는 미제는 지금까지 뒤에서 은폐된 교활한 방법으로 괴뢰들을 쥐고놀면서 남조선을 식민지로 유지하여왔다. 그러나 미제는 6월인민항쟁을 계기로 남조선에 대한 이른바 《조용한 외교》로부터 공개적인 간섭과 지배방법으로 전환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항쟁에 불안을 느낀 미제는 사태수습에 직접 발벗고 나서서 남조선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으며 괴뢰들의 《시국수습각본》을 짜주는 놀음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6월인민항쟁이 미제의 대남조선침략정책에 얼마나 커다란 위협타격으로 되였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하여준다.

6월인민항쟁은 전두환, 로태우 일당을 우두머리로 하는 괴뢰집권층내부의 모순과 갈등도 더욱 심화시켰다.

참으로 6월인민항쟁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며 각계각층 군중이 련합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압제자도 타승할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남기였다.

6월인민항쟁의 불길이 타오르자 처음에 전두환군사파쑈도당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갑호비상근무령》을 내리고 12만명의 괴뢰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야만적인 탄압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태를 수습하여보려고 책동하였다. 그러나 항쟁용사들은 놈들의 그 어떤 파쑈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한 반격을 가하면서 도처에서 경찰파출소와 민정당사를 비롯한 괴뢰공공건물들과 방송국 등 모두 220여동의 괴뢰관공서들을 파괴하거나 소각하였으며 괴뢰경찰차량 100여대를 불태워버리고 6천여명의 괴뢰경찰들에게 중경상을 입히였다. 부산, 광주, 춘천을 비롯한 일부 도시들에서는 도시행정이 일시 마비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군사파쑈독재의 살벌한 폭압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인민대중의 단합된 힘은 독재자들의 총칼보다 강하다는것을 뚜렷이 시위하였다.

6월인민항쟁은 또한 인민대중이 조직

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할 때 그 어떤 파쑈아성도 능히 무너뜨릴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오랜 투쟁과정을 통하여 계급적 및 민족적으로 각성된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파쑈독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독재련합전선을 형성하여 조직적인 투쟁을 벌려야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이로부터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항쟁을 이끌어나갈 련합전선조직으로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내왔다. 6월인민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청년학생들과 재야민주세력, 통일민주당과 천주교, 기독교, 불교의 지도인물들, 로동자, 농민, 대학교수, 작가, 예술인 등 각계각층을 망라한 련합전선체이며 하부조직까지 가지고있는 상설조직이다. 이처럼 남조선의 모든 반독재세력이 하나의 련합전선체두리에 굳게 뭉쳐 공동행동으로 전두환, 로태우 일당에 대한 공세를 취함으로써 놈들을 굴복시킬수 있었다. 이것은 인민대중 투쟁조직에 굳게 뭉쳐 하나의 조직된 력량으로 단결하여 투쟁할 때 그 어떤 강적도 능히 타승할수 있다는 진리를 사실로써 증명한것이다.

6월인민항쟁은 또한 대중투쟁이 옳은 구호를 제기하고 옳게 지도될 때 어떤 어려운 조건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파쑈폭압이 살판치는 남조선에서와 같이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6월인민항쟁이 초보적인 승리를 달성할수 있은것은 운동세력들이 항쟁을 옳게 지도하고 투쟁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간데 있다.

운동세력들은 우선 6월인민항쟁의 계기를 옳게 설정하였다. 그들은 전두환 군사파쑈도당이 군사독재영구화를 위한 《대통령후보지명》놀음을 벌린 6월 10일에 항쟁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 군사파쑈독재에 불만을 품고있는 남조선의 각계각층의 군중을 투쟁에 보다 광범하게 동원할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항쟁이 고조되는데 따라 《명동성당지원집회 및 민주화대토론회》, 《최루탄추방공청회》, 《서울지역청년학도결의대회》,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 등을 조직하였으며 조성된 투쟁분위기에 맞게 각이한 명칭의 시위와 집회, 대행진 등을 련이어 조직하였다. 투쟁형식에서도 그들은 놈들의 파쑈폭압을 피하면서도 보다 큰 효과를 거둘수 있는 방법을 리용하였다.

6월인민항쟁의 전과정은 대중투쟁이 승리하자면 반드시 그것을 옳게 지도하고 이끌어나가는 운동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6월인민항쟁이 남긴 고귀한 경험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발전시키는데서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6월인민항쟁을 계기로 하여 로동운동이 급격히 앙양되고 있으며 사회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진리를 깊이 깨닫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교활한 책동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투쟁하고있다.

만약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인민대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를 거역하고 계속 파쑈적 폭압과 반민족적 책동에 매여달린다면 더욱 큰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정의와 진리를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대외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

김　　수　　용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죄악적인 후과를 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이 정의로운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인 략탈정책과 불공평한 현 국제경제체계로 하여 응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으며 이 나라들에는 새로운 경제적 난관이 날로 증대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감행하고있는 략탈적인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방대한 빚을 지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집단적인 채무국으로 전락되고있다.

대외채무문제는 새 사회 건설의 길에 들어선 발전도상나라들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에 있어서 대외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 단행본, 11페지)

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현시기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절박한 과업으로, 당면한 공동투쟁과업으로 나서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는 현시기 매우 위협한 단계에 들어서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는 지금 그 절대액에 있어서 천문학적 수자에 이르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총액은 1986년말에 1조 350억딸라에 달하였으며 올해말에는 1조 1,000억딸라에 이르게 될것으로 예견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제금융기관들, 민간은행들에 한해동안에 지불하여야 할 원금과 리자는 1982년말에 이미 1,000억딸라를 넘었으며 1985년에는 그것이 1,300억딸라에 달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전체 상품수출액이 1984년에 2,400억딸라 남짓했다는것을 고려할 때 오늘 이 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는 실로 심각한 형편에 놓여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는 증가속도가 비상히 빠르고 그에 대한 지불가능성이 날을 따라 희박해지고있다.

1970년대초까지만 하여도 약 1,000억딸라에 달하던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는 1986년에 1조딸라를 넘어섬으로써 10배나 늘어났다. 이 나라들의 대외채무총액은 1970년대에 년평균 20%씩 늘어났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그것이 년평균 10%로 늘어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있는 대외채무는 이 나라들이 수출에 의하여 번 돈을 몇해동안 고스란히 채무지불에 돌린다 해도 다 갚지 못할 형편에 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수출액전부를 채무지불에 돌린다는것은 리론실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국제적으로 년간 수출소득가운데서 20%를 채무상환에 돌린다면 《위험선》에 이른것으로 본다. 다시말하여 그러한 나라의 채무는 상환불가능한 채무로 취급되고있다. 그런데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이미 이 《위험선》을 훨씬 넘어섰다. 현

재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은 수출소득의 30~40%를 채무상환에 돌리고있으며 개별적인 해에는 60~70%까지 돌리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를 현재의 지불능력으로써는 도저히 상환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대외채무문제는 오늘 발전도상나라들의 사회경제생활과 국제정세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무엇보다도 발전도상나라의 대외채무는 이 나라들의 새 사회 건설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은 국내 자금과 외부자금의 형태로 동원된다. 여기에서 기본은 민족경제의 발전에 기초한 국내 자금원천이다.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국내 자금의 중요한 원천을 이루고있는것은 원료, 연료를 수출하는데서 얻어지는 소득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1차 산품수출소득은 나라의 공업화에 필요한 기계설비와 기술을 사오며 식량을 비롯하여 당면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비품을 수입하는데 써야 할 귀중한 밑천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이 푼푼이 모은 수출소득의 대부분이 루적 채무의 원금과 리자 상환의 명목으로 발전된 나라들에 흘러들어가고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것으로 하여 자체자금에 의한 축적이 제한되여있는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 치명적인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적지 않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자금이 부족하여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경제건설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시키고있다. 대부분의 발전도상나라들은 해마다 방대한 량의 원료, 연료 상품을 수출하지만 외화가 부족하여 필요한 생산수단과 소비품의 수입을 대폭 줄이지 않을수 없게 되였으며 결국 국내 생산이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는것과 같은 인민생활과 사회생활에 혼란을 주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날로 늘어나고있는 대외채무는 또한 국제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정의와 평화를 위협하는 하나의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되고 있다.

오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적 차이는 대외채무문제로 하여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있다. 얼마 안되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세계재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세계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재부의 극히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재부가 사장되고있지만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인민들이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빈부의 차이가 날을 따라 커가고 세계적 범위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한층더 심해지고있는것은 현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커다란 모순이며 정의와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유린으로 된다.

제반 사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채무문제가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 나라들의 사회경제생활전반과 국제정세발전에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문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해온 결과에 생긴 문제이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채무문제가 마치도 발전도상나라들의 정책적 《과실》과 《조급한 공업투자》에 의하여 생겨난것처럼 묘사하기 위하여 애쓰고있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채무문제를 발생시킨 책임을 발전도상나라들에 넘겨씌우면서 낡은 국제경제체계를 통한 저들의 신식민주의적 략탈과 그 후과를 가리워보려는 어리석은 책동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발전도상나라들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채무문제가 생길수 있는 조건이 있었으나 그것이 표

면화되기 시작한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대부분의 발전도상나라들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걸쳐 정치적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의 식민지적 락후성을 극복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오랜 기간 제국주의식민지로 있었던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적 자립과 공업화를 지향하는 경제건설계획들을 실현하는데 많은 자금이 요구되였다. 그런데 1970년대중엽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석유위기, 식량위기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자금형편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발전도상나라들이 겪고있는 바로 이러한 자금난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이 나라들을 금융적으로 예속시키고 신식민주의적 략탈을 더욱 강화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채무문제가 산생된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보다도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들에 대한 금융적 수탈을 강화한데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1960년대 후반기부터 이른바 《무상원조》정책을 《차관》정책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대부자본의 수출이였으며 채무국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한것이였다.

1973—1983년사이에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나라들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은 거의 6배로 늘어났다. 이 《차관》은 그대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국가《차관》에 대한 수요를 조장시켜놓은 다음 국가《차관》을 대폭 줄이고 민간은행자본을 대대적으로 침투시킴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의 자금난을 더욱 격화시켰다. 1971—1980년기간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구조에서 민간은행대부의 몫은 25%로부터 50%로 높아졌다. 리자률이 매우 높고 상환기간이 짧은 민간은행대부의 증대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를 더욱 빨리 루적시켰다.

제국주의자들은 리자률인상, 환자시세변동과 같은 통화금융적 조작을 끊임없이 감행함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금융적 수탈을 강화하고있다. 미국에서 은행리자률이 1%만 올라도 아프리카나라들은 15억딸라를,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은 40억딸라의 채무를 추가적으로 지게 된다. 미제의 반동적인 고금리정책으로 1979—1982년기간에만 하여도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는 무려 115억딸라나 추가적으로 늘어났다. 최근 연시세의 상승으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연채무도 늘어나고있다. 연시세가 급격히 증대됨으로써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의 연채무는 해마다 10억딸라씩 더 늘어났으며 타이의 연채무는 40～44%나 증대되였다.

이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기 위하여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문제가 발생된 요인은 또한 부등가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침투를 통한 제국주의나라들의 신식민주의적 착취와 략탈에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가격롱간책동에 의하여 1차 산품가격이 끊임없이 낮아짐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의 수출소득은 여지없이 떨어졌다. 1981—1984년기간에만 하여도 발전도상나라들이 수출하는 원료의 가격은 15% 떨어졌으며 1986년에는 그전해에 비하여 16.8%나 떨어졌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하는 부등가교환에 의해서만도 해마다 약 1,000억딸라이상의 손실을 당하고있다. 이와 함께 발전도상나라들에 기여든 《다국적 기업》들은 이 나라들의 중요경제부문과 자원개발부문에 침투하여 해마다 250억딸라의 리윤을 본국으로 빼돌리고있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은 불공평한 국제경제체계를 통하여 해마다 발전도상나라들의 국민소득의 4분의 1에 해당한 무려 4천억딸라어치의 재부를 빼앗아가고있다.

모든 사실들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채무문제가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통한 제국주의자들의 신식민주의적 략탈에 의하여 발생되고 오늘과 같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준다.

오늘날로 심각화되고있는 채무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노예의 처지에 굴러떨어지는가 하는 매우 심중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여러가지 제안과 요구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벌려왔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유엔총회 특별회의, 유엔무역개발회의와 남북수뇌자회의를 비롯한 여러 국제회의들을 통하여 채무문제해결을 위한 일련의 제안과 요구들을 채권국들에 들이대였으며 1985년 8월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와 까리브지역 나라대표들의 회의에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를 무효화할데 대한 문제까지 론의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제안들과 요구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의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는 더욱 늘어나고 채무국과 채권국사이의 대립도 더 첨예화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6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도가 있을수 있습니다. 우리는 채무국과 채권국들사이의 쌍무적 또는 다무적 협상을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능력이 조성될 때까지 채무상환기일을 연기하며 그 기간에 리자를 동결시키는 방향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도라고 생각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채무문제해결의 이 방안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외채무문제를 가장 옳바르게 해결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채권국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리해관계도 다같이 반영한것으로 하여 모든 나라들이 능히 받아들일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교시하신바와 같이 발전도상나라들이 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대외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자체의 능력을 조성하는것이 중요하다.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는 채무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환능력을 조성함이 없이는 해결될수 없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하자면 반드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것은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묵은 빚이 끊임없이 새끼를 치는것과 함께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새 빚을 지는것과 관련된다.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생산수단과 소비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상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수출을 늘여 외화를 더 많이 축적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결국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발전도상나라들로 하여금 채무적 예속에서 벗어날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해준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조성하는 사

업은 낡은 국제경제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

채권국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도 지금처럼 불공평한 국제경제체계를 통하여 략탈을 계속 감행하여 가지고서는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방대한 채무를 상환받을수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채무를 상환받자면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조성하는데 응당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국제경제체계를 세울데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해나서야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현재 루적되여있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현시기 채무상환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상환기일을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상환능력이 조성될 때까지 연기하는것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이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대외채무를 상환할수 있는 능력을 조성할 때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기간에 지금처럼 발전도상나라들이 원금과 리자 지불을 계속한다면 채무는 더욱더 루적될것이며 채무상환능력도 점점 줄어들게 될것이다.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상환능력이 없어 원금과 리자 상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으며 채권국들에 상환기일을 연기해줄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은 채무상환연기에 대한 발전도상나라들의 요구에 대해 외면하거나 여러가지 부대조건을 내걸고있으며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채권국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지로 관심을 돌리려면 이러한 부대조건과 차별조치를 없애고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상환능력이 조성될 때까지 원리금의 상환기일을 연기하여야 한다.

채무상환기간을 연기하는것과 함께 이 기간 리자를 동결시키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문제를 옳게 해결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비록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하여도 리자를 동결시키지 않는다면 빚은 계속 늘어나게 될것이다.

현재 제국주의자들은 일부 발전도상나라들에 채무상환을 연기해주면서도 그 원금의 리자를 현행채무에 루적시키고있다. 이러한 방법으로써는 계속 루적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문제를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채무상환기일을 연기하는것과 함께 리자를 동결시켜야 빚이 불어나지 않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은 채무상환능력이 조성되는데 따라 채무를 청산할수 있을것이다.

채무상환기일을 연기하고 이 기간 리자를 동결시키는 방향에서 상환조건을 개선하는것은 채권국들에도 능히 접수될수 있는 합리적인 방도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의 루적채무는 채무국의 경제는 물론 채권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있는것만큼 채무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채권국도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것이다. 또한 채권국인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이미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채무의 몇배에 해당한 재부를 빼앗아간 조건에서 발전도상나라들의 채무상환조건을 완화시켜야 할 응당한 의무를 지니고있다.

현실은 채무국과 채권국들사이의 쌍무적 혹은 다무적 협상을 통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지불능력이 조성될 때까지 상환기일을 연기하고 리자를 동결시키는 등 채무문제해결의 현실적 방도들을 합의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협조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낡은 국제경제체계를 허물어버리고 채무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낡은 국제경제체계를 허물어버리고 채무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지성원할것이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위기

원 정 표

오늘 제국주의는 전례없이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겪고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부르죠아대변자들은 제국주의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변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이고 궤변적인 사상리론을 널리 퍼뜨리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에게 자기들의 부패한 사상을 침투시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7권, 424페지)

제국주의자들은 반동적이고 부패한 사상리론들을 인민대중속에 널리 침투시켜 죽어가는 자본주의를 변호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한다. 부르죠아경제학을 비롯한 온갖 부르죠아《학문》들은 그들의 이러한 책동의 수단으로 철저히 복무하고있다.

원래 부르죠아경제학은 자본가들의 경제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하고 자본주의, 제국주의를 옹호하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이고 비과학적인 《학문》이다. 부르죠아경제학은 발생 이후 낡은《리론》의 《새로운 리론》에로의 부단한 교체, 각양각색의 개별적 조류와 류파들의 파산으로 인한 위기를 거듭하면서 오늘의 현대부르죠아경제학에 이르렀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에서는 반동성과 기만성이 극치를 이루고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변호론적 성격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은 오늘 리론적으로 심한 침체상태에 빠져있으며 실천적으로도 제국주의를 변호하는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강한 《진통》을 겪고있는것으로 하여 파국적인 위기상태에 놓여있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위기는 사멸의 운명을 지닌 제국주의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 파멸적인 위기이며 개별적 조류나 류파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부르죠아경제학계 전반을 포괄하는 심각한 위기이다. 영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로빈손은 미국에서 진행된 세계부르죠아경제학자들의 모임에서 《경제학의 제2위기》라는 제목으로 발언하면서 부르죠아경제학이 1930년대에 《첫 위기》를 겪었다면 1970년대부터 《두번째 위기》에 빠졌다고 개탄하였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위기는 1930년대에 《조절적 자본주의론》이 조작된 때로부터 1950년대까지 학계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였던 케인즈주의가 현대제국주의의 날로 첨예화되는 경제적 파국을 더는 변호할수 없게 되여 파산당하게 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여있다.

케인즈는 경제공황과 실업의 원인이 마치도 《유효수요》부족에 있는듯이 묘사하면서 그것을 제국주의국가의 경제에 대한 《조절》에 의하여 《극복》할수 있는것처럼 떠벌였다. 케인즈의 궤변적인 경제리론은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한센, 할리스 등을 대표자로 하는 신케인즈주의자들에 의하여 더욱 개악되였다. 신케인즈주의는 안전한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독점적 《조절》문제에 매여달리면서 세금과 국채를 늘이고 통화를 란발하여 국가예산수입을 대폭 증대시키며 경기변동《조절》을 위한 국가예산의 직접적 지출을 늘일데 대하여 설교하였다.

케인즈주의의 이러한 주장들은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덕이는 제국주의경제

를 더는 합리화할수 없게 되면서 파산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에 경제에 대한 제국주의국가의 《조절》이 더욱 강화되는 조건에서도 공황이 계속 일어나고 그 파국적 후과가 커졌으며 재정지출을 늘여 경제에 대한 자극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자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더우기 1960년대말에 제국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이 정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것과 함께 인플레도 다그쳐지는 《침체성 인플레》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모순들을 더는 변호할수 없게 된 케인즈주의는 심한 위기에 처하게 되였으며 1974년～1975년 경제공황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파산되였다.

케인즈주의의 파산으로 하여 현대부르죠아경제학에서 《새로운》 조류들과 류파들이 널리 류포되게 되였으며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이 강화되고 국가독점적 《조절》문제를 둘러싼 《론쟁》이 더욱 격화되게 되였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각이한 조류와 류파의 대표자들은 현대제국주의경제체제자체에 근원을 두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케인즈주의의 리론적 부당성과 그에 기초한 경제《정책》의 후과인듯이 보면서 그에 대한 《비판》을 전례없이 강화하여왔다.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있는 대표적인 부르죠아경제학조류들로서는 신보수주의와 사회제도주의, 급진주의적 경제학들을 들수 있다.

신보수주의적 견해의 주장자들은 경제에 대한 제국주의국가의 《과도한 간섭》이 자본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개인주의, 시장, 사적 기업활동을 파괴한다고 떠벌이고있으며 재생산과정에 대한 국가의 《조절》을 설교한 케인즈주의를 전면적으로 공격하고있다.

사회제도주의의 제창자들은 케인즈주의가 공황과 실업을 《유효수요》와 련관시키고 시장의 총수요를 인위적으로 높이려는 목적밑에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대하여 《비판》하면서 케인즈주의를 반대하였다. 사회제도주의는 현대사회의 모든 사회경제적 현상들과 체계가 현대과학기술발전의 《자동적 작용》의 결과이고 그 단순한 반영인듯이 묘사하며 제국주의의 《변생》을 제창하는 반동적 조류이다. 이 조류의 대표적인 류파는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갈브레이스가 조작한 《새로운 산업사회론》이다.

급진주의적 경제학의 대표자들은 케인즈주의의 경제원리들이 경제현상들의 순수한 론리적 련관에 의거하여 끌어낸 추상적 결론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비난하면서 국가독점적 《조절》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비판》하고있다.

이와 같이 케인즈주의의 파산은 신보수주의, 사회제도주의, 급진주의적 경제학 등이 부르죠아경제학의 중요한 조류로 널리 류포되게 하였으며 그들사이에서 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과 《론쟁》이 강화되게 하였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위기는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가 심화되는데 따라 더욱더 강화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의 전반적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제국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진출을 가혹하게 탄압할뿐아니라 〈반공〉의 간판밑에 사회주의나라들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반대하는 침략과 파괴 행위를 더욱 강화하고있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31페지)

제국주의자들은 종국적으로 멸망하여가는 처지에서 벗어나보려는 발악적 책동의 고리로서 부르죠아반동사상들을 변호론적 무기로 널리 리용한다. 그러나 반동사상을 류포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 사상리론의 위기는 더욱 격화될뿐이다.

오늘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이 겪고있는

심각한 위기는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이 심한 리론적 혼란과 절충상태에 빠져있는데서 표현된다.

반동적 착취계급인 자본가계급의 경제적 리해관계가 사회발전의 요구와 항상 모순되고 대립되는것만큼 그것을 반영한 부르죠아경제학은 리론적 혼란을 면할수 없는것이다. 부르죠아경제학에서 리론적 혼란은 항시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위기시기에 중요 조류들과 류파들사이에서 벌어지는 《론쟁》으로 하여 더욱 심하여진다.

오늘 자본주의나라 경제학계에서는 국가독점적 《조절》문제와 현실적으로 첨예하게 나서는 실업, 인플레 등 문제를 둘러싸고 후기케인즈주의와 신보수주의, 《새로운 산업사회론》, 급진주의적 경제학조류들사이에 《론쟁》과 《비판》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국민소득분배에 관한 《리론》을 보충하여 이미 파산당한 케인즈의 경제《리론》을 《재건》할것을 주장하는 후기케인즈주의와 신보수주의적 류파들사이의 《론쟁》과 《비판》이 치렬하게 전개되였다. 현시기 각이한 조류와 류파들사이에 벌어지고있는 《론쟁》과 《비판》은 학계에서 《공인》된 주되는 조류와 《리론적 원리》가 없이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리론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있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이러한 리론적 혼란속에서 각이한 조류들과 류파들사이의 절충현상이 강화되였다.

신보수주의와 사회제도주의는 다같이 케인즈주의를 적극 《비판》하고 반대하면서도 《제한된 범위》에서의 경제에 대한 제국주의국가의 《간섭》을 주장하고있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중요조류들사이의 종합절충은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샤뮤엘쏜이 조작한 궤변적인 《신고전주의적 종합론》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신고전주의적 종합론》은 제국주의국가에 의한 경제《조절》리론을 지도《리론》으로 삼고 케인즈주의의 《원칙》과 《시장기구》의 자연발생적인 작용에 대한 견해들을 결합시킨 전형적인 절충론이다.

이와 같이 오늘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은 리론적인 혼란과 오가잡탕의 조류들과 류파들의 절충종합에 의하여 간신히 유지되는 형편에 놓여있다.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위기는 리론적으로 혼란되여있을뿐아니라 심한 침체상태에 빠져있는데서 나타난다.

부르죠아경제학의 리론적 침체는 《새로운 리론》에 의한 《보충》과 리론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계에서 이미 버림받은 《낡은》것들을 《새롭게》 변형한 《리론》들이 널리 류포되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부르죠아경제학의 리론적 침체는 그 위기시기에 특징적인 현상으로 된다.

오늘 현대부르죠아경제학에서는 《새로운 리론》이 없고 《낡은》 리론에 새로운 색채를 씌운 《리론》들이 판을 치고있다. 현대제국주의나라들에서 널리 류포되고있는 후기케인즈주의와 통화주의, 《공급경제론》, 《새로운 산업사회론》, 《혼합경제론》 등은 지난날의 낡은 《리론》보따리에서 끄집어낸 케케묵은 궤변적인 리론들의 현대판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후기케인즈주의는 리론실천적으로 파산되였고 학계에서 버림받은 반동적인 케인즈의 경제리론을 《침체성 인플레》를 비롯하여 경제적 모순이 가일층 첨예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적응시키려는 궤변적인 주장이다. 통화주의는 19세기 40년대에 영국의 은행업자인 로이드와 영국 경제학자들인 토랜즈, 노맨 등이 내놓은 구통화주의를 현대제국주의에 맞게 변형시킨 반동적인 것이다. 《공급경제론》은 19세기 전반기에 프랑스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쎄이가 상품류통에서 노는 화폐의 역할을 무시하고 상품류통과정을 상품과 상품사이의 직접적 교환과정으로 고찰한데 기초하여 상품의 공급이 그 수요를 자동적으

로 낳는다고 주장한 《실현론》을 국가독점자본주의에 상응하게 반동적으로 개악한 궤변이다.

《새로운 산업사회론》은 20세기초에 미국의 경제학자들인 웨브렌과 콤몬스 등이 사회적 《심리》와 법률이 경제발전의 기초이라고 주장한 제도주의와 1950년대에 미국 부르조아경제학자인 벌리 등이 조작한 《자본의 민주화》, 《관리혁명》, 《소득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용으로 한 《인민적 자본주의론》과 같은 제국주의의 《변생론》들을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초하여 더한층 반동적인것으로 변형시킨것이다. 미국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샤뮤엘손 등이 제국주의국가소유의 계급적 성격을 가리우고 마치도 그것을 《사회주의적 혹은 반사회주의적 소유》인듯이 묘사하면서 현대제국주의 경제를 《사회주의적》인 제국주의국가소유에 기초한 경제와 사적 소유에 토대한 경제의 《혼합》이라고 주장한 《혼합경제론》 역시 《새로운》것이 아니다. 《혼합경제론》은 19세기 후반기에 독일의 반동적인 경제학자 좀바르트가 자본주의의 태내에서 마치도 협동적 경제, 혼합적 및 공동적 기업, 사회적 경제와 같은 《사회주의적 경리》가 발생하고 《사회다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주의적 경리》와 사적 소유에 기초한 경리가 공존하는듯이 설교한 《사회다원론》을 현대제국주의를 변호하기 위한 목적에 맞게 개악한것이다.

이와 같이 현대제국주의나라들에 널리 류포되고있는 현대부르조아경제학의 조류들과 류파들은 결코 새로운것이 아니며 리론적으로 이미 비판되고 버림받은 선행한 부르조아리론들을 더욱 반동적으로 변형시킨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대부르조아경제학의 위기는 또한 그것이 변호론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있는데서 나타난다.

현대부르조아경제학은 독점자본가들의 요구에 맞게 제국주의를 변호하며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다. 현대부르조아경제학이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현실적으로 첨예하게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모순들을 합리화하고 그 《해결방도》를 《해명》하는것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날로 격화되고있는 현대제국주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에 대한 변호론들이 수많이 조작되여 류포되였으나 그것들 모두가 파산당하고있다. 케인즈의 경제 《리론》으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현대부르조아경제학에서 요란스럽게 떠들던 《완전고용》리론은 완전히 파산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성인주민의 4% 범위에서의 실업자의 존재를 《완전고용》으로 묘사하는 견해가 그대로 통용되고있다.

현대제국주의나라들에서 널리 류포되고있던 《경제성장》의 《안전한》 속도를 위한 《리상적 모형》에 대한 《리론》들이 여지없이 파산되였다. 이것은 최근시기에 경제발전속도의 저하와 생산의 감퇴 및 침체를 합리화하려는 목적밑에 높은 《경제성장》속도가 주위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불행과 사회악을 낳는다고 하면서 생산증대가 이룩되지 않는 《령적인 성장속도》를 주장하는 견해들이 널리 성행하고있는데서 명백히 나타나고있다.

현대제국주의나라들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인플레를 방지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제창한 통화주의도 파산을 면치 못하고있다. 세금을 줄여 상품의 공급을 늘임으로써 재생산의 심각한 모순과 재정금융위기를 《극복》할수 있는듯이 주장한 《공급경제론》도 파산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 이것은 레간놈이 1981년 2월 미국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심화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한다는 구실밑에 통화주의와 《공급경제론》에 기초하여 조작한 악명높은 《신경제정책》이 위기와 파산의 일로를 걷고있는데서 표현되고있다.

레간이 집권한후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신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1981년에 통화주의에 기초한 통화량의

《조절》정책을 실시하였다. 미국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이 정책이 인플레를 막지 못하고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자 1982년 8월에 정책을 변경시켜 통화량을 늘이고 《경제적 적극성》을 《자극》하기 위한 정책을 쓰게 되였다. 이것은 사실상 통화주의에 기초한 정책의 포기이며 통화주의의 파산을 의미하는것이다.

오늘 미국경제는 끊임없이 쇠퇴되고있으며 최근 5년동안에 미국의 경제장성률은 전후 전기간의 평균수준보다 30% 떨어졌다. 1987년 현재 미국의 실업자수는 800만명이나 되며 3,300만명의 미국인민들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있다. 레간행정부가 1982년까지 《모든 적자를 말끔히》 가시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오늘까지 적자를 없애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욱 늘어났으며 1986회계년도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2,206억 9,800만딸라로서 최고수준을 기록하게 되였다. 미국경제의 이러한 파국적 상태를 개탄하여 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는 미국경제를 《방향을 잃고 진탕길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자동차에 비유하면서 통화주의와 《공급경제론》에 기초한 레간의 《신경제정책》을 비난하고 그 파탄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제국주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여보려는 목적밑에 조작된 모든 《리론》들이 련이어 파산됨으로써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은 쇠퇴몰락하고있는 현대제국주의를 변호하는데서 무력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최근시기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이 겪고있는 위기는 결코 우연적인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료, 원료 위기가 공황과 재정금융위기와 겹친 현대제국주의의 류례없이 심각한 경제적 파국의 직접적 반영이며 그 필연적 산물이다.

현대제국주의는 주기적으로 공황과 위기를 겪어왔으며 지금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위기,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위기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현대제국주의나라들의 현실에서는 경제위기의 전망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숙명적인 경제위기로부터 벗어나보려는 발악적 책동의 한 고리로서 사이비경제《리론》들을 조작해낸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세계에서는 각양각색의 리론 아닌 경제《리론》들이 대두하여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지난날 부르죠아경제학이 거듭하여온 위기를 더욱 더 심화시키게 되였다.

지금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은 파멸적인 위기에 처하여있으나 현대제국주의에 대한 변호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로동계급의 경제리론을 외곡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비방중상하는 《반공》리론을 적극 류포시키고있다.

우리들은 현대부르죠아경제학의 위기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비과학성과 기만성, 반동성을 전면적으로 폭로비판함으로써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현대제국주의의 변호론에 결정적 타격을 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적 공세를 철저히 분쇄하여야 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10호(루계 546호)

편 집 위 원 회

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1987년 10월 1일 발 행•1987년 10월 3일

ㄱ—6514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1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11호(547)

차 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오늘 우리 당은 전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보다 높은 수준에서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이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로 이루어진다. 혁명의 주체는 혁명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인민대중을 주체의 원리와 함께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더욱 강화되게 된다. 로동계급은 가장 자주적인 계급으로서 혁명의 주체에서 핵심적 력량이며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룬다.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사상의식이다. 인민대중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무장하고 로동계급의 령도를 받아야 혁명의 주체로 일심단결될수 있으며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우리는 계급교양사업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로동계급적 립장이 확고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적아를 옳게 구별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을 견결히 고수할수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3페지)

사람들은 로동계급적 립장이 확고해야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될수 있다.

공산주의자는 철저한 로동계급적 립장을 지니고 적과 자기편을 옳게 구별하며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때려부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한생을 바쳐싸우는 참다운 혁명가이다. 공산주의자들이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한생을 바쳐싸우게 되는것은 중요하게 그들이 투철한 로동계급적 립장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로동계급적 립장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물현상을 보고 분석판단하며 처리해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립장이다. 로동계급적 립장이 확고히 선 사람들은 언제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비관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자기의 공산주의적 신념과 혁명적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모든 문제를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분석판단하고 처리해나가게 된다. 그러나 로동계급적 립장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혁명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과 반공선전이 강화되고 주변의 정세가 변하는데 따라 동요하면서 로동계급의 리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로동계급적 립장으로 무장하는것이 참다운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

적 풍모를 갖추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로동계급적 립장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확고히 서게 된다.

계급교양은 사람들속에 계급의 본질과 계급투쟁의 합법칙성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인식시키며 착취제도와 착취계급의 반동적 본질을 똑똑히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제국주의와 착취제도를 끝없이 미워하고 그것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려는 각오를 가지게 한다. 그것은 또한 혁명의 길은 간고하지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알게 함으로써 어떤 역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게 한다.

이처럼 계급교양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언제나 확고한 로동계급적 관점과 립장에서 모든것을 보고 판단하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싸우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울수 있게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또한 우리 혁명이 전진하고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절실한 요구로 나선다.

우리 혁명위업은 멀리 전진하였다.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은 그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투쟁일뿐아니라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놈들의 반동적인 사상공세를 물리치면서 수행해야 하는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는 과정이다.

계급투쟁은 총포탄이 쏟아지는 준엄한 격전의 시기만이 아니라 평화적 건설 시기에도 늦임없이 진행된다. 조국이 해방된지도 40여년이나 되고 전쟁의 포화가 멎고 평화적 건설이 계속된지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세월이 가고 혁명이 전진해오는 과정에 사람들의 생활은 유족해졌으며 세대도 바뀌고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것은 더욱 악랄해지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만약 사람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오늘의 행복한 생활에 물젖어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과 계급적 원쑤들의 본성을 잊고 생활을 혁명적으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특히 주체위업을 떠메고나갈 새세대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야수적 만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착취와 압박도 받아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 아무런 근심걱정을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났다. 때문에 새세대들은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들이며 지난날 놈들이 자기 부모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착취하였는가를 잘 모를뿐아니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어떤 피어린 대가로 마련된것인가를 똑똑히 알지 못할수 있다. 새세대들이 살아온 경위와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으로부터 그들을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야수적 만행을 직접 체험하고 착취와 압박을 받아왔으며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처럼 계급적 립장이 확고한 혁명가로 준비시키는것은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새세대들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해야 그들이 준엄한 나날에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 불굴의 투사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지니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수령과 자기 당, 자기 조국과 자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혁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키울수 있다.

이것은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새

세대들로 하여금 확고한 로동계급적 립장을 지니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쑤들과 직접 맞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우리의 현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와 맞서있는 미제는 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이며 전쟁의 광신자이다. 그리고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전쟁하수인이며 동족살륙에 이골이 난 인간백정이고 매국노들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있으며 전쟁의 검은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도는 엄혹한 정세속에서 살며 일하고있다. 미제는 오늘 남조선의 군사전략적 지위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군축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제안들을 받아들일 대신 그에 핵전쟁준비를 더욱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하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해놓았으며 해마다 핵전쟁준비를 완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다. 놈들은 오늘 남조선에서 핵전쟁준비를 다그치는 한편 반동적인 사상공세로써 어리석게도 우리 당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을 파괴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전쟁책동과 반공소동은 오늘에만 있는것이 아니며 그것은 놈들이 종국적으로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성취하자면 당원들과 근로자들,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계급교양사업을 심화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침략전쟁책동과 온갖 반동적인 사상의 침투를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계급교양사업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여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보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이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계급교양사업이 우리 혁명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 풍모와 생활기풍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과정과 계급적 원쑤들의 침략책동과 반동사상을 반대하는 첨예한 투쟁속에서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비상히 강화되였으며 온 사회에는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계급적 원쑤들의 그 어떤 발악적인 침략책동과 모략적인 사상공세에도 끄떡하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확고한 결의에 충만되여있다. 새세대청년들도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지니고 굴함없이 싸워온 혁명의 선행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청춘의 영웅적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이것은 지난 기간 우리 당이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벌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온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이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혁명의 내외환경이 복잡하고 계급적 원쑤들과 첨예하게 대치하고있는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대중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진행하는것이다.

계급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진행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계급교양사업을 벌려나간다는것이다.

사람중심의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주며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준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의 원리와 결부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어떤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도 로동계급적 립장과 혁명적 원칙을 견결히 지켜싸울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하여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그들이 주체사상을 확고부동한 혁명적 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되여 치렬한 계급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착취적, 침략적 본성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는것은 계급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쑤들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을 똑똑히 알아야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고 생활이 유족해져도 놈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싸워나갈수 있다.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은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놈들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지난날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당하여왔으며 오늘도 항시적인 전쟁위험과 민족분렬의 불행을 겪고있다.

우리는 생동한 자료와 사실을 가지고 미제와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이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야수적 만행과 범죄행위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야 하며 오늘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벌리고있는 침략전쟁도발책동과 반공선전의 반동적 본질을 발가놓기 위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의 침략적이며 반동적인 본질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게 함으로써 확고한 로동계급적 립장을 가지고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로 하여금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착취받고 압박받던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다.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는것은 그들이 자기의 계급적 근본을 자각하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 속에서 나라잃고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오던 우리 인민의 피눈물나는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하는 교양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새세대들을 착취받고 압박받던 부모들의 지난날을 잊지 않도록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것은 과거의 착취제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근본적 차이가 무엇인가를 똑똑히 인식시키는것이다.

새세대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착취제도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차이를 똑똑히 알아야 착취제도를 끝없이 증오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빛내이기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수 있다.

사회제도의 우월성을 똑똑히 알자면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제도를 보아야 한다.

사회주의제도는 사람,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시켜주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사람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영생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나가고있다. 특히 우리 인민들은 누구나 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쓰고살 걱정, 자식공부시킬 걱정, 병치료할 걱정을 모르며 유족하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이와는 달리 착취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사회제도로서 한줌도 못되는 착취계급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때문에 이 사회제도에서는 소수 착취계급은 《자유》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탕진하면서 호화롭게 살지만 인민대중에게 차례지는것은 오직 빈궁과 무권리, 천대와 멸시뿐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이러한 몹쓸 사회인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상가집 개만도 못하게 살아왔다.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인 통치제도에서 정치적 무권리와 경제적 빈궁 속에서 신음하고있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착취제도와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근본적 차이를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주체적립장에서 원리적으로, 대비적으로 생동한 자료를 가지고 실속있게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 고마운 제도를 해치려는 온갖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속에서 착취계급의 반동사상과 놈들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는것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교양사업은 사상분야에서의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은 놈들의 반동사상과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우리는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무디게 하며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는 부르죠아사상과 교조주의, 사대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며 부르죠아적 생활양식이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근로자들과 새세대들을 교양하여야 한다.

계급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다양하게 벌리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이다. 우리는 계급교양사업을 원리적으로 하는것과 함께 영화를 비롯한 모든 선전선동수단들과 형식들을 동원하여 격식과 틀이 없이 제기된 정황과 조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들 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심화시켜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적 수령관의 확립

우 달 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교양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교양이라는것을 천명하시고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진행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으며 주체사상교양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이번 문헌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적 수령관에 관한 리론을 완벽하게 밝혀주시고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라는 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사상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문제와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사업의 호상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에서 밝히신 주체사상교양과 관련한 사상리론에 의하여 주체사상교양이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명백히 해명되게 되였으며 주체사상교양을 그 목적과 사명에 맞게 실속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는 문헌에 담겨진 심원한 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혁명발전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 *

주체사상교양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입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7페지)

주체사상교양은 사람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시대의 로동계급의 자주적인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움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 이것이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이다. 그렇기때문에 주체사상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교양은 자기의 이러한 목적과 사명으로부터 사람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것을 요구한다.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

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수령이 혁명의 최고뇌수로서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받들어나가는 자세와 립장이다.

사람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주체적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요구이다. 그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문제가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밀접히 련관되여있기때문이다.

혁명의 주체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강화되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게 한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통일체로 될 때 이루어지고 강화발전되게 된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참다운 주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그것은 혁명운동이 수령의 령도밑에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혁명운동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인 혁명사상을 주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조직동원하는 당과 수령의 령도와 수령의 령도를 받들고 싸워나가는 인민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수령을 떠나서는 혁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고 수령의 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없이는 혁명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갈수 없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혁명의 주체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된 통일체이라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수령이 이 통일체에서 핵을 이루기때문이다. 모든 사물이 핵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는것과 같이 혁명의 주체도 핵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구성요소들이 결합되여 하나의 전일체를 이루게 된다. 혁명의 주체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인민의 수령이다. 인민의 수령은 자주적인 당을 건설하고 자주적인 인민을 키울수 있는 모든것을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있다. 수령에 의하여 위대한 당이 마련되고 위대한 인민이 탄생한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이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그 두리에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될 때 비로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끝없이 강화발전되게 된다.

인민대중이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속되여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게 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람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수령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과 자세를 가지게 함으로써 인민대중이 수령을 혁명의 최고령도자, 단결의 중심으로 내세우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그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한다. 이렇게 될 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이 확고히 이루어지게 되며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것은 또한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 지휘를 확고히 보장하게 한다.

혁명운동은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의하여 추동되고 전진하게 된다. 여기에

서 혁명의 주체의 활동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 지휘를 보장하는것은 그 역할을 높여 혁명운동을 힘있게 밀고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 혁명운동을 끊임없이 벌려나가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 혁명의 주체는 이러한 생명의 중심의 역할에 의해서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게 되며 혁명운동을 추동하고 전진시키는 참다운 력사의 주체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벌려나갈수 있게 된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의 최고뇌수인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 지휘가 확고히 보장되게 될 때 혁명의 주체가 강화되게 되고 그 역할이 높아지게 되며 혁명운동이 힘있게 전진하게 된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에 대한 수령의 통일적 지휘는 그 집단의 매개 성원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만 확고히 보장될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만이 그들이 수령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에 기초하여 수령을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내세우게 되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높이 받들어 나가게 된다. 이것은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은 또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인민대중을 굳게 결합시킬수 있게 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이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인것만큼 그 사이에서는 가장 숭고한 관계인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비할바없이 더 귀중히 여기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으며 그것은 매개인이 자기자신보다도 동지와 집단을 존중하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공고성을 확고히 담보해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작용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물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개별적 사람들사이에서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사람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그들사이에 작용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인것으로 될수 없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된다.

이렇듯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굳게 결합시키는 근본요인으로서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로 표현되게 된다. 따라서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이 충성의 관계를 공고발전시켜나가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다.

사람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는 그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그들이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깊이 간직하고 그에 기초하여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할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문제는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문제와 밀접한 련관을 가지고있으며 혁명의 주체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만 강화발전될수 있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을 자기의 목적과 사명으로 하고있는 주체사상교양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게 되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번 문헌에서 밝히신 주체사상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이라는 사상은 혁명의 주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합법칙성, 그 존재와 결합 방식,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수령, 당, 대중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근본요인 등 혁명의 주체에 관한 전일적이고도 체계화된 과학리론적 해명에 기초하고있는 위대한 사상이다.

이 위대한 사상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깊이있게 벌려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주체의 당건설사상, 당사업리론이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로 더욱 풍부화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교양을 보다 깊이있게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여기에 주체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26페지)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이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기본방도로 되기때문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인것만큼 그에 대하여 과학적 인식을 가져야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수 있다. 그런데 혁명과 건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옳바로 인식할수 있다.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은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담보되게 된다. 위대성으로 하여 수령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이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확고한 중심, 최고뇌수로 되게 된다. 그러므로 수령의 위대성을 알아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세울수 있으며 이렇게 확립된 수령관만이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으로 될수 있다.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깊은 인식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한다.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의 근본요구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기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 때 자기 운명을 건져주고 사회적 인간의 제일생명인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준 수령을 생명의 위대한 은인으로, 스승으로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게 되며 수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것을 혁명적 의리로 여기고 살며 투쟁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수령의 위대성 교양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수령의 위대성 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시키는것이다.

수령은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을 지니고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한데 기초하여 새로운 혁명 사상과 리론을 내놓음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다. 수령은 혁명사상을 창시하여 혁명의 앞길을 밝혀줄뿐아니라 세련된 령도적 수완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지니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함으로써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하시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탁월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다.

우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숭고한 인민적 풍모와 공산주의적 덕성을 깊이 체득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해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그것을 풀기 위한 구체적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그뿐아니라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총화되여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는 그들이 언제나 수령관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실천에서 표현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실성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행동에서 나타난다. 당정책은 우리 인민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의 자주적인 생활을 가장 훌륭히 보장하여주려는 당과 수령의 웅대한 구상이 구현된것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워진 우리 식의 전략전술이다. 그러므로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은 곧 당과 수령의 웅대한 구상을 꽃피워나가려는 높은 충성심,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의 숭고한 발현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당과 수령이 베풀어주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이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의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패배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그릇된 현상들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이다.

패배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는 모두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서지 못한 표현들이다.

혁명의 길은 순탄하지 않으며 그 길에서는 난관과 시련에 부닥칠수 있다. 이때 패배주의에 빠져 동요하는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우리는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면 나설수록 수령, 당, 대중이 통일될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용감히 뚫고나가야 한다.

형식주의, 요령주의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고용살이근성의 표현이다.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그와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실속있고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남을 쳐다보거나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에 대하여 절대로 환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주체적 립장에 확고히 서서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지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만이 우리 혁명의 실정에 맞는 가장 정확한 지침이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데서나 모든 사물현상을 수령관의 견지에서 보고 대하여야 하며 혁명적 수령관이 투철한 참된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번 문헌에서 밝혀주신 주체사상교양과 관련한 심오한 사상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주체사상교양을 깊이있게 벌림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워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력사적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 것은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김 종 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완벽한 혁명학설로서의 주체사상의 진리성과 위대성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하게 론증하시고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대하여 새로운 해명을 주시였으며 혁명적 수령관의 본질적 요구와 그 확립에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문헌에는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이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것이라는것이 밝혀져 있다.

우리는 문헌에서 밝혀진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데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인식이 가지는 의의와 그것이 충실성형성에서 노는 역할 그리고 위대성교양의 기본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철저히 준비시켜야 한다.

⁂ ⁂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공동의 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된다. 그런것만큼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 당, 대중사이에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 서로 믿고 도와주며 그에 보답하는 참다운 인간관계, 사랑과 의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인 수령은 사회정치적 집단의 매개 성원들을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로 여기면서 보살피고 사랑하며 매개 성원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중심인 수령을 정치적 생명의 은인으로 대하면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을 혁명적 의리로, 가장 영광스러운 본분으로 여기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것을 요구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가장 진실하고 순결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동요와 변심을 모르는 영원한것으로 되여야 한다. 겉으로만 수령을 받드는척하거나 추세에 따라 행동하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이 서지 않은 표현이며 충실하지 못한 태도이다.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수령을 높이 모시고 받들어나갈 때 비로소 혁명적 수령관이 섰다고 말할수 있다.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체득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

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6페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다는것은 자기 수령, 자기 당에 영원히 충성다하려는 확고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며 그것을 어길수 없는 혁명적 신조로, 도덕적 의무로 지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 중요한것은 자기 령도자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체득은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수령의 령도를 직접 받으면서 력사적 체험을 통하여 인식하는 과정에 이루어지게 된다.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은 서로 밀접히 련관되고 통일적 과정으로 작용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한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체험과 하나로 결합되여야만 더욱 폭넓고 생동하고 구체적인것으로 될수 있으며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은 그것이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결합될 때 깊이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인식하는것은 수령을 가장 위대한분으로 절대화하고 수령에게 충성다하겠다는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게 한다. 그것은 또한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최고령도자인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수령이 이끄는 혁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싸워나가야 하겠다는 옳바른 자세와 립장을 가지게 한다.

이처럼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과학적 인식은 수령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을 세우고 수령을 진심으로 모시는 자세와 립장을 가지게 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확립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한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수령을 진심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된다.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이 신념으로 간직되고 의리로 발현되는 충성심을 낳는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령도자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자신의 실천투쟁을 통하여 직접 보고 생활적으로 느끼게 함으로써 수령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절대적인 신뢰의 감정이 형성되게 하며 신념과 의리로 수령을 받들고 충성다하려는 각오와 결심이 생기게 한다.

사람들은 수령의 령도따라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 인민대중을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령도의 현명성을 전면적으로 체득하게 된다.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이러한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은 곧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것을 굳게 믿게 하며 수령과 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자각하게 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이룩되는 불멸의 업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혁명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자각과 혁명업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혁명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은 수령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혁명을 끝까지 하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혁명의 수령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전사들을 키워주고 이끌어주는 위대

한 스승이며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이다. 인민대중은 자기들에게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서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보살펴주는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을 통하여 수령의 고매한 덕성을 심장깊이 새기게 되며 그에 보답하려는 도덕의리적 감정과 혁명적 량심을 간직하게 된다. 력사적 체험은 수령의 은덕을 생활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식시켜주며 수령의 은덕에 충성으로 보답할 때만이 인간의 도리가 지켜지고 전사의 영예와 행복이 고수된다는것을 간직하게 해준다.

수령을 모시고 혁명하는 인민들이 체험하게 되는 이 모든 구체적인 사상감정들은 수령을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지닌 위대한분으로 높이 우러르는 끝없는 흠모와 존경심, 수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서는 못해낼 일이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 일편단심 수령만을 믿고 따르려는 절대적인 신뢰심, 수령의 은덕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도덕의리적인 자각을 가지게 한다.

이것으로 하여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력사적 체험은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과학적 인식과 력사적 체험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게 함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구로 되는것이다.

우리 인민이 지니고있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기초하고있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한것이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6페지)

일반적으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높이와 열도는 신념의 확고성과 의리의 숭고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것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이 충실한 인민을 가질수 있고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한 인민만이 자기 령도자를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끝까지 충성다할수 있다.

수령의 위대성은 중요하게 위대한 지도사상, 과학적인 전략전술로 혁명의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고 탁월한 령도로 인민대중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며 당을 위대한 향도자로, 인민을 위대한 존재로 키우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발로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우리 혁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으며 조선로동당을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가장 포악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이 땅우에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건설해주시였으며 오늘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전인미답의 길로 우리 인민을 혁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능숙한 조직적 수완과 세련된 령도로 나라의 만년대계를 마련하고 혁명의 미래를 앞당기면서 우리 혁명을 자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인류사상발전에

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진하는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끊임없이 발전풍부화하면서 그로부터 력사발전의 모든 단계, 혁명발전의 모든 분야에 걸친 백전백승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완벽하게 밝혀놓은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은 또한 어떤 화도 복으로 전환시키고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변화시키면서 가장 뒤떨어지고 가난한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가장 발전되고 문명부강한 사회주의나라로 비약시킨 령도의 위대성이며 인간이 지닐수 있는 모든 고매한 풍격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베풀수 없었던 가장 숭고하고 은혜로운 사랑을 만사람에게 안겨주신 덕성의 위대성이다.

실로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인류의 현대력사가 알고있는 위대한분들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분이시며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웅,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이시야말로 위대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시라는것을 심장속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인민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야말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바른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영명한 지도자, 위대한 향도자이시라는것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자기의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로,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로 높이 추대하게 됨으로써 조국의 운명과 혁명의 전도, 자신들의 끝없는 행복과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지게 되였다. 이러한 확신, 드팀없는 신념은 당과 수령에 의하여 혁명의 시련들이 성과적으로 극복되고 빛나는 승리가 이룩될 때마다 더욱 굳세여졌으며 당과 수령의 은덕으로 받아안은 행복이 커질수록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였다.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는 당과 수령과 함께 시련의 길을 헤치며 고락을 같이해왔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백전백승하는 투쟁의 보람과 영광을 체험하였으며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끝없는 사랑과 행복을 받아안은 나날에 신념으로 되고 의지로 된것이다. 때문에 우리 인민은 자기들에게 고귀한 삶과 행복한 생활,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어나가며 그 두리에 굳게 뭉쳐 일편단심 충성다하는것을 자기 삶의 요구로, 숭고한 혁명적 의리로 간직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신념과 의리에 기초하여 우리 인민이 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굳게 결속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마련되게 되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에 대한 체득에 기초하여 형성된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의리는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고 승리하며 전진해나가는 전력사적 행정에서 언제나 높이 발현되여왔으며 또 발현되고 있다.

조선혁명이 개척되던 시기에 자기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투사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 모시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간직하였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들에게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된 충실성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발휘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빛나는 모범이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창조한 충실성의 빛

나는 모범은 우리 혁명의 각이한 단계들에서 령도자에게 끝없이 충실한 수천수만의 전사들을 낳게 한 참다운 본보기로 되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진두에 모시고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굴함없이 투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기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광복된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필승의 신념과 자기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혁명적 의리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였다.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창조되고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서 높이 발휘된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은 조국해방전쟁과 전후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간고한 투쟁의 나날 영웅적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준엄한 나날에도 경애하는 수령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전세의 애국자로,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 어버이로 굳게 믿고 따랐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한목숨 다 바쳐 싸웠다.

불타는 고지에서 《**김일성**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육탄이 되여 적의 땅크를 까부시고 애젊은 나이에 피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은 영웅전사들이 그러하였으며 수령의 안녕과 조국의 번영을 바라며 결사전에로 나간 월미도의 용사들이 그러하였다.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에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던 어려운 시기에 강철증산으로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한 강선의 로동계급과 위대한 수령님만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당과 수령을 신념과 의리로 받들고 옹호보위한 충직한 우리 인민이 바로 그러하였다.

혁명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풍모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 진군속에서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깊이 체득한 우리 인민은 모두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드는 하나의 흐름에 충성의 마음을 합치고있다. 그리하여 항일혁명의 로투사들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싸운 영웅전사들도 다같이 주체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옹호보위하고 받드는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있으며 로동당시대에 태여난 새세대들도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자기 령도자에게 충성다하고있다.

실로 우리 혁명의 승리가 이룩된 성스러운 그길에는 비발치는 탄우속에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신변을 보위한 지휘관도 있었고 사령부의 안전과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혀까지 끊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투사도 있었다. 그길에는 가렬처절한 격전장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안녕을 바라고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면서 결사전에로 나간 영웅전사들도 있었으며 가장 준엄한 시기에 신념의 웨침으로 당과 수령을 받들고 지지옹호한 소박한 인민들도 있었다. 그길에는 20리 날바다우에 최상의 서해갑문을 건설하여 수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고 당의 권위를 옹호보위한 80년대의 영웅건설자들도 있었다. 참으로 그것은 혁명의 령도자와 전사, 수령과 인민과의 참다운 관계를 보여준 빛나는 모범이였으며 혁명승리의 사상정신적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확증한 자랑찬 력사였다.

위대한 수령, 탁월한 지도자의 세련된 령도와 충직한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이 하나로 합쳐져 주체의 혁명위업은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서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확고히 간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켜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풍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어야 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26페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이 명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에서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을 새롭게 명시한것이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의 기본내용을 새롭게 밝혀준 이 사상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당조직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확고한 지도적 지침으로 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기본은 당과 수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것이다.

수령의 위대성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이다. 수령의 위대성은 사상리론의 위대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수령의 위대한 혁명사상에서 바로 리론도 나오고 방법도 나오며 수령이 지닌 고매한 덕성과 인민적 풍모도 혁명사상에 기초하고있다.

그러므로 수령의 위대성을 인식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잘 아는것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의 위대성을 잘 알아야 리론과 방법의 위대성, 령도와 덕성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을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당문헌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과 그것을 풀어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명백히 밝혀져있다. 로작과 당문헌에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모든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총화되여있으며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근본원칙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우리 당에 있어서 고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고있는 더없이 귀중한 고전이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진리를 집대성한 백과전서이며 심오한 사상과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주체사상의 총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학습은 철저히 원문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로작과 당문헌 원문을 되새겨가며 읽어야 거기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을 옳게 체득할수 있으며 당과 수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과 정당성, 그 빛나는 생활력에 대하여 깊이 체득할수 있다.

우리는 로작원문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원칙들을 철저히 인식시켜 그들이 확고한 주체적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당과 수령의 사상리론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로작학습을 실속있게 하자면 학습을 대상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하여야 하며 여기

에서 각급 당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지난 기간 평성시당위원회는 우리 당이 밝혀준대로 로작원문학습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일정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로작과 당문헌 원문학습을 조직진행함에 있어서 시당위원회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된 로작부터 잘 학습하여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는데 선차적 관심을 돌리였다. 이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의 사적이 깃든 덕산리 삼화작업반에서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전반적 단위들에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로작원문학습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도록 짜고들었다.

평성시당위원회는 사람들의 인식과정의 합법칙성과 사고발전의 순차성에 맞게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 몇가지 단계를 설정하고 학습을 점차적으로 심화시켜나가도록 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보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로작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가지게 하였고 2단계에서는 연구발취를 통하여 로작의 체계와 내용을 기본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로작에 대한 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로작의 내용을 완전히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로작의 내용을 완전히 인식시킨 다음 우리는 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론쟁의 방법으로 광범히 조직진행하였다. 우리는 연구토론회를 통하여 자체학습과정에 습득한 내용을 더욱 공고화해나가도록 하였으며 그것을 실천활동에 구현해나가기 위한 대책과 방도도 옳게 세워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과 수자 그리고 대기념비적 창조물에 대한 참관과 견학을 통하여 인식시키는데도 커다란 힘을 넣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우리는 시안의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로작원문학습을 실속있게 하는 기풍을 확고히 세워놓았으며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사상리론과 령도의 위대성을 더 잘 체득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철저히 인식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숭고한 공산주의적 덕성과 소박하고 인자하신 인민적 품성,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배려, 혁명적 동지애와 고결한 혁명적 의리, 넓은 도량과 포옹력, 위대한 감화력과 인간적 견인력,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고계시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생동안 혁명의 길에서 보람있게 살며 투쟁하도록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를 돌려주고 계신다.

당과 수령의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우리 인민모두는 가장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혁명의 한길에서 인간의 존엄을 빛내이고 참된 삶을 누리고있다.

우리는 당과 수령의 사랑과 은덕에 대하여 우리 조국과 우리 인민의 과거와 오늘의 처지와 생활을 대비하면서 잘 깨우쳐주어 모든 사람들이 당과 수령의 은덕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하며 당과 수령을 영원히 변함없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받들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혁명의 길우에 있으며 그길에는 영광도 있고 시련도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풍파와 시련이 닥쳐오고 아무리 험한 산악과 진펄이 앞길을 막아나서도 영광의 날에나 준엄한 날에나 일편단심 당과 수령께 끝까지 충성다하려는것은 령도자의 위대성을 체득한 우리 인민의 심장속깊이 간직되여있는 철석같은 신념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 신념과 의리를 가지고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밝혀주는 원리

박 승 덕

오늘 주체사상은 새세계를 창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의 기치로서 시대의 전진운동과 인류력사의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력사와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주체사상의 불패의 생활력은 더욱 더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혁명운동이 심화됨에 따라 주체사상의 변혁적 의의는 보다 더 커가고있다. 주체사상의 비상한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 그 거대한 변혁적 의의는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 원리에 원천을 두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바로 이러한 사람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혁명적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의 참된 진리로 파악되고있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원리라는것이 심오하게 론증되였다. 문헌에 의하여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구현하여 나온 가장 혁명적인 원리이며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옳바로 밝힌 가장 과학적인 원리라는것이 전면적으로 해명되였다.

* *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에 대한 심오한 리해에 기초하여 나왔으며 그것은 사람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독창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무엇보다먼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에 대한 새로운 리해에 기초하여 제기된 철학의 근본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줌으로써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4페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에 대한 리해를 확립하는것은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해답을 주는 철학적 원리를 밝히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철학의 근본문제를 비롯한 철학상의 모든 문제들이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에 맞게 제기되고 해명되여야 한다. 그래야 철학의 원리와 명제, 리론들이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다하는데 이바지하게 된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다는 고전적 정식화가 처음으로 주어졌다. 이것은 철학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가장 심오한 리해를 확립한것으로 된다.

철학은 세계관을 주는것만큼 세계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며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벌리는 사람들의 실천활동의 지침이다. 로동계급의 철학은 세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주는 보편적인 과

학이며 인민대중의 혁명실천을 규정하는 사회적 의식의 형태이다.

사람의 모든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의 근본목적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다.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사람의 가장 절실한 리해관계와 근본요구는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사회적 처지와 전도이다. 사람은 현재의 사회적 처지를 보다 훌륭한것으로 개변하며 미래에로 전진하기 위하여 생활하고 투쟁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인간의 모든 활동의 근본목적은 자신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하는데 있다.

철학의 사명과 목적도 인간활동의 근본목적과 결합되여있다. 철학이 세계를 해석하고 평가하며 현실을 개변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밝히는것은 결국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명을 주려는데 있다.

철학은 그 발전의 전기간에 걸쳐 세계와 인간에 대하여 탐구해왔다. 세계란 무엇이며 만물은 어떻게 운동발전하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 생활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등은 철학의 영원한 문제로 불리우고있다. 사람이 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해명하며 자신과 생활에 대하여 파악하는 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길을 알자는데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사람의 운명문제는 철학상의 모든 문제가 설정되고 해결되여나가는 목적을 규정하는 문제로 된다.

인민대중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우리 시대에 이르러 사람의 운명문제를 원칙적인 세계관적인 문제로 전면에 내세우는것은 절박한 요구로 되였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사람의 운명문제는 시대의 주인으로 등장한 인민대중의 운명에 대한 문제로, 그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드는 문제로 되였으며 그에 옳바른 해답을 주는것은 로동계급의 철학앞에 나선 중대한 력사적 과제로 되였다.

철학이 그 근본사명에 맞게 인간의 운명문제에 직접적인 해명을 주려면 철학의 근본문제를 옳게 제기하여야 한다. 철학의 근본문제는 모든 철학문제들의 기초에 놓여있으며 다른 철학문제들에 비하여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다. 철학체계의 근본원리는 바로 철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사람의 운명문제와 직접 결부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내세워야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 옳바른 철학적 원리를 밝힐수 있고 그에 기초하여 모든 명제와 원리, 리론들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방도를 명시하는데로 지향되는 철학체계를 건설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철학의 근본사명에 대한 심오한 리해를 확립한데 기초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와의 직접적인 련관속에서 철학의 근본문제를 제기하였다.

인간의 운명문제와 직접 결부하여 철학의 근본문제를 내세우려면 사람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인 사람을 첫자리에 놓고 철학의 근본문제를 내세워야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전체로서의 세계를 리해하며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함으로써 인간의 운명문제와 직접 결부된 철학의 새로운 근본문제를 발견하였다.

사람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지난 시기에 철학의 근본문제로 삼아온 물질과 의식의 관계문제가 과학적으로 해결된 조건에서 나서는 철학적 인식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는 또한 력사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앞길을 밝혀야 할 시대적 요구를 구현하여 나왔다.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운명을 개척

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된다.

인간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가는데는 사람자신과 그를 둘러싼 주위세계가 작용한다. 사람자신이 자기 운명을 지배하는가 아니면 외부세계가 지배하는가, 인간의 운명이 개척되어나가는데서 결정적 작용을 하는것이 인간자신인가, 주위세계인가, 간단히 말하여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가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로 된다. 사람의 운명이 세계와의 관계속에서 개척되기때문에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는 곧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문제로 된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며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우리 시대 철학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한것이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문제에 옳바른 해답을 준것이며 인간이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세계에서의 사람의 역할문제에 정확한 해명을 준것이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인 세계에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 문제에 가장 옳바른 해답을 준것으로 하여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앞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또한 그 내용에서 인간의운명을 개척하는 옳바른 방도를 밝혀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규정되기때문에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원리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됩니다.》(우와 같은 문헌, 4페지)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앞길을 밝히려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심오하게 론증하는 동시에 인간의 운명 개척의 합법칙성과 방법론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근본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혔다고 말할수 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깊이있게 해명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천명하였을뿐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주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방법론을 창조적으로 해명하였다.

사람은 물질세계에서 자주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때문에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다. 자주성은 온갖 예속과 구속을 반대하고 자유롭게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다. 사람은 자주성을 가진것으로 하여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을 반대하며 모든것을 자신에게 복무하도록 한다.

인간은 자주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외부세계를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자기 운명의 지배자로 된다. 세계에 자주성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므로 인간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유일한 주인으로 된다.

동물은 자연에 순응하는 방법으로만 생존할수 있기때문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될수 없다. 동물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에 의하여 그 운명이 규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연을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자기 운명의 힘있는 주인이다.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에 복종되여 자연과 운명을 같이하는 존재인것이 아니라 인간사회에 고유한 사회적 운

동법칙에 따라 자기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존재인것으로 하여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끊임없이 높여나간다. 외부세계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이 커질수록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인간밖에 있는 물질세계는 더욱더 사람의 운명 개척에 복무하는 환경으로 개변되여나가는것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가 높아져나가는 합법칙성이다.

사람은 창조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때문에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은 창조성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객관사물을 변형하고 새로운 대상을 창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세계에 창조성을 가진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므로 인간은 자기 운명의 유일한 개척자로 된다.

동물은 환경에 맹목적으로 적응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때문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 될수 없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연환경의 변화과정을 자신의 발전에 리롭게 개변시키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간다.

인간은 환경에 예속되여사는 존재인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는 지위를 차지하고있기때문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부단히 높여나간다.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가 강화되고 그 힘이 커질수록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인간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며 외부세계가 사람의 운명 개척에 더욱더 리로운것으로 변혁되여나가는것이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인간의 역할이 강화되여나가는 합법칙성이다.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은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옳바른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은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것을 요구한다.

인간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의 자주적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에 대하여야 세계를 인간의 운명 개척에 복무하는 대상으로 전변시켜나갈수 있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는 방법론적 원칙을 견지할 때 모든 활동에서 사람의 자주적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내세우고 세계의 모든것을 인간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는데 복종시켜나감으로써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여 그 운명을 주동적으로 개척할수 있다.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하게 하여야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고 변화발전하는 현실에 튼튼히 의거하여 세계를 사람의 운명 개척에 리롭게 변혁해나갈수 있다.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방법론적 원칙을 견지하면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활동에서 사람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것을 첫공정으로 삼고 인식과 개조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감으로써 인간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이처럼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하고 적극 실현하게 하며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게 한다. 여기에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이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는 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으로, 가장 옳바른 방법론으로 되는 근거가 있다.

이와 같이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심오하게 해명함으로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투쟁과 생활의 가장 옳바른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다.

* *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이며 완벽한 원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의 철학적세계관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도 바로 그것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근본방도를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준다는데 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4~5폐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문제를 해명하는데 있는것만큼 세계관의 진보성과 생활력은 결국 그것이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얼마나 정확하게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인간과 세계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리해에 기초하고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근본요구를 구현하여 사람의 운명문제에 해답을 주는 세계관이라야 사회적 진보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무엇보다먼저 사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독창적 해명에 기초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 원리이다.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밝히려면 운명개척의 담당자인 사회적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야 한다.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할수 없다고 보면 사람의 운명문제에 옳바른 대답을 줄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인간이 사회관계에 제약되여있다는 리해에만 머물러서는 사람의 운명 개척의 방도를 심오하게 해명할수 없다. 물론 인간이 사회관계에 제약되여있고 자기 활동에서 사회와 자연의 객관적 법칙에 의거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정하는것은 운명개척의 길을 밝히기 위한 전제로 된다.

사람의 운명이 세계를 지배하고 개조하여야 개척되기때문에 인간에게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본질적 속성이 있다는것이 발견되여야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방도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된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에게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있다는것을 해명하였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본질적 속성에 대한 새로운 해명에 기초함으로써 사회적 인간이 자기를 제약하는 사회관계와 자연을 지배하면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며 자신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객관적 조건을 개조하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는것을 심오하게 밝혀준다. 이리하여 인간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가장 옳바른 길이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다음으로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세기적 숙망과 숭고한 리상을 구현하여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 원리이다.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옳바른 길을 밝히려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온갖 예속과 구속이 없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에 틀어쥐며 자기 힘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최고의 리상이며 력사적 숙망이다. 이러한 리상과 숙망을 구현한 철학적 원리라야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지배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투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기 위한 혁명적 의지를 가지게 할수 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혀줄뿐아니라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려는 근로인민대중의 념원과 요구를 구현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

라는데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려는 인민대중의 지향이 반영되여있으며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데는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가 구현되여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념원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혁명적 자각을 가지게 하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적인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한다. 여기에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앞길을 밝혀주는 혁명적 원리로 되는 리유가 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또한 사람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완벽한 원리이다.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완벽하게 밝혀주려면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객관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리해에 다같이 근거하여야 한다. 사람의 운명이 사람과 세계의 호상작용속에서 개척되는것만큼 사람과 세계의 특성을 통일적으로 고려하여야 인간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관한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말하여 세계가 물질로 되여있으며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원리를 전제로 하고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과 세계의 관계를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와 덜 발전된 물질적 존재의 관계로 보고 가장 발전된 존재인 인간이 덜 발전된 존재에 대하여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며 가장 고급한 물질의 운동인 인간의 운동이 저급한 물질의 운동보다 더 큰 역할을 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밝혀주는 원리에 의하여 안받침되고있다. 인간의 본질적 특성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며 그것은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리해에 다같이 근거하고있기때문에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에 기초하는 문제와 객관세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게 한다. 이것으로 하여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히는 완벽한 원리로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라는것을 해명하신것은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빛나게 확증하고 그 변혁적 역할을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라는데 대한 창조적 해명에 의하여 주체사상이 세계관의 근본사명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위대한 철학이며 주체의 철학적 원리가 사람의 운명문제에 가장 완성된 해답을 주는 세계관의 옳바른 기초라는것이 힘있게 론증되였다. 또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불멸의 기치인 주체사상의 위력과 혁명적 작용을 보다 더 강화해나갈수 있는 넓은 앞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담겨진 심원한 진리를 깊이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

로 두 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강령적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을 새롭게 심화발전시키고 더욱 완성하시였다.

문헌에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주체사상교양에서 차지하는 지위, 그 사명과 기본내용 등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 해명이 주어져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강령적 문헌에 의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들이 새롭게 해명됨으로써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을 더욱 륭성발전시켜나가는 가장 정확한 목표와 방도들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화시킬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교양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차지하는 지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이 주체사상원리교양의 내용과 꼭같은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2페지)

사상교양에 관한 리론에서 매개 사상교양의 형태들의 지위를 정확히 밝히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상교양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어렵고 복잡한 사업이며 이것은 사람들의 각이한 특성과 준비정도, 사상사업의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지위를 정확히 밝히고 매개 형태의 사상교양과 당의 유일사상교양과의 호상관계를 옳게 규정해야 당사상교양을 그 총적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이라는것을 밝히심으로써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주체사상교양의 요구에 맞게 진행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형태의 사상교양처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 하는것과 관련된다.

당사상교양사업을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의 근본요구이다. 당의 유일사상과 동떨어진 당사상사업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당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이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사상, 리론, 방법론적 기초이며

우리 당 활동의 진로를 밝혀주는 유일한 지도적 지침이다.

주체사상이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것만큼 당안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따라서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수 없다.

모든 사상교양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내용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사람들을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열렬한 애국자로 교양개조하며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민족의 참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게 하는 사상교양사업이다. 이러한 사상교양사업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되여야만 옳게 수행될수 있다.

원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기초적인 원리들은 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로부터 흘러나온것들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방향과 원칙, 방도 등을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세우며 그 모든 내용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전개하여야만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요구에 맞게 진행될수 있으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근본목적이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과 일치하기때문이다.

주체사상교양의 근본목적은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혁명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대오의 사상의지적 통일을 보장하며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의 지위를 지키고 주인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주체사상교양의 이 근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형태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비록 주체사상원리교양의 내용과 꼭같은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우리의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역할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굽임없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민족자주정신을 가지고 주체를 철저히 세우며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여나갈수 있게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근본목적이 주체사상교양의 목적과 일치한다는것을 말해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된다는것이 밝혀짐으로써 그것이 당사상교양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명백히 규정되게 되였으며 이 교양사업과 주체사상교양과의 호상관계가 명철하게 해명되였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주체사상교양의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정확히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사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다.

당사상교양의 사명을 정확히 밝히는것은 사상교양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당사상교양사업의 사명을 정확히 규정하여야 사상교양의 과녁을 옳게 설정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

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독창적 사상을 제시하심으로써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사명을 새롭게 해명하시였다.

혁명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진 참된 애국자로 만드는것은 결국 혁명의 주체로서의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이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도록 함으로써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것이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진행되는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다.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사람들이 민족별로 살아나가는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것은 필연적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으며 사회주의조국과 민족의 륭성번영이 확고히 담보될수 있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또한 세계혁명앞에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임무를 다할수 있다.

조선혁명은 세계혁명의 한 고리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첫째가는 임무는 조선혁명을 잘하는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할수 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닌 민족적 임무인 조선혁명을 잘하자면 혁명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지위와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하는것은 특히 복잡하고 어려운 임무가 나서고있는 현시기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와도 관련된다.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된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였지만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앞에는 의연히 복잡하고 어려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 인민은 미제가 조국의 절반땅을 강점하고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벅찬 혁명임무를 수행하고있다. 그리고 우리 혁명의 세대는 바뀌여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혁명의 주역을 담당하고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리며 그 모든 내용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로 지향할것을 절실한 문제로 제기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 그 어떤 어려운 임무가 나서도,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혁명의 주체를 강화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가 있고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의 끝없는 번영과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사상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사명을 새롭게 해명한 독창적 사상이다.

이 독창적인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혁명의 주체와의 관계가 명백히 해명되게 되였으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통하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할수 있는 획기적 전환의 길이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기본내용에 관한 독창적 사상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기 나라 혁명에 충실하자면 무엇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를 주장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14페지)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그 기본내용을 정확히 규정하는것이다.

사상교양의 사명은 사상교양의 내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것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때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사명을 성과적으로 이룩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참다운 본질과 의미, 그 정당성과 요구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할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여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기본내용을 새롭게 밝히시였다.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세계관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자기 계급과 인민에 대한 사랑, 혁명에 대한 충실성도 어머니조국,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에서 싹트고 발현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은 민족수난의 시기에 자기 조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였기때문에 민족자주의 길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억세게 싸워나갈수 있었던것이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령도밑에 날이 갈수록 더욱 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며 빛내여나가는 숭고한 애국주의이며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을 견결히 옹호하는 민족자주정신이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져야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면서 자기나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수 있으며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결코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면서 다른 민족을 깔보는 민족주의와는 인연이 없다.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참다운 애국주의사상인 동시에 국제주의사상이다.

민족주의가 자기 민족의 우월성만을 내세우며 다른 민족을 깔보고 배척하는 반동사상이라면 우리 민족제일주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우리 혁명을 잘함으로써 세계혁명에도 이바지하며 다른 민족을 존중히 하고 참다운 친선을 도모하는 혁명적인 사상의 발현이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지는것은 자기 민족을 깔보고 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 사상과도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민족허무주의, 사대주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존엄과 자부심이 없고 자기 혁명에 대한 신심이 없이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는데로부터 생기는 반동사상이다.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에 빠지면 민족적 존엄을 잃어버리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면서 자기 혁명위업 수행에 커다란 해독을 주게 된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져야 자기 민족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지닐수 있고 자기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확고히 견지할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의 기본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조국애, 민족애는 자기 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에 기초하고있다.

민족의 위대성은 결코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 아니다. 사람의 가치가 사상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민족의 위대성도 그 민족의 지도사상의 위대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되며 따라서 민족의 위대성은 곧 그 지도사상의 위대성인 동시에 수령의 위대성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형의 혁명적 당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륭성번영하는 새 력사를 창조하시였으며 인류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면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계시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하기에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시대의 탁월한 령도자로 끝없이 존경하며 우리 나라를 《주체사상의 조국》으로 높이 찬양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수천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높은 긍지이다.

바로 여기에 그 어느 민족에 비할바 없는 우리 인민의 높은 민족적 자부심이 있으며 우리 민족제일주의의 근본핵이 있다.

이러한 우리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무장할 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조국과 우리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게 되며 또한 큰 나라,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여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민족제일주의에 관한 사상을 밝혀주심으로써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기본내용이 어떤것으로 되여야 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해명을 주시였으며 자기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 문헌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의 교과서로 될뿐아니라 사회주의애국주의 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오늘 우리앞에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강화하는 문제가 절신하게 제기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당과 수령,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는 열렬한 애국자,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려는것, 바로 이것이 현시기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이다.

우리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주체사상교양의 한 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의 모든 내용이 주체사상으로 일관되게 하여야 하며 그것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강령적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모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의 조국에서 태여나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영원히 당을 따라 조국의 륭성발전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견해

김 창 하

민주주의에 대한 옳바른 과학적 견해를 확립하는것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대한 인민대중의 근본요구에 맞게 사회를 건설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가가 발생하여 발전해오는 일정한 시기에 합법칙적으로 제창되게 된 정치적 리념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수천년의 력사가 흘러갔지만 옳바른 리해가 주어져있지 못하였다. 력대 착취계급들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리념을 인민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저들의 반인민적 정치를 미화분식하는데 리용하여왔다.

지난날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리해가 확립되지 못한데는 두가지 주되는 원인이 있다. 그 하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구호가 주로는 착취계급에 의하여 제창되였던 사정과 관련되는 계급적 근원이며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참다운 의미를 밝히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력사적 제한성으로 하여 사회적 현상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보지 못하였던 사정과 관련되는 인식론적 근원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사람,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정치적 리념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본질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라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김일성저작집》 제32권, 532페지)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라는것은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며 창조적 역할을 보장하는 정치라는것을 의미한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려는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창조적 역할에 의하여 력사가 전진하고 사회가 발전한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개조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며 사회의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을 떠나서는 국가사회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를 론할수 없고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인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 민주주의는 응당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인 인민대중을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민주주의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 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인 민주주의는 어떤 사회제도하에서나 실현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사회경제적 조건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쥐여야만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될수 있으며 정치생활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조직하고 운영해나갈수 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저들의 《의회정치제도》와 《공화제》를 《민주주의의 표본》이라고 요란스럽게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자본가들의 손에 쥐여져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어떤 형태의 정권에 의하여 그 어떤 방식의 정치가 실시되든간에 그것은 참다운 민주주의,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 될수 없다. 자본가들과 근로인민대중의 리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대립되여있는 조건에서 자본가들에 의하여 실시되는 정치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실시될수 없는것은 명백한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자유》와 《평등》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 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실시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틀어쥠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사회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정치의 주인도 근로인민대중으로 된다. 그리하여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생활이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손에 의하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것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것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본질적 우월성을 새롭게 밝혀준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어떤것인가에 해답을 주는것으로서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관한 독창적 리론을 가일층 심화발전시키시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그 우월성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리해하였으며 이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되여있었다. 이 개념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소수 착취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특히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 구별하여 씌여온 개념이다.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란 다름아닌 어느 사회에서나 주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라는것을 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다수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리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계급적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는 의미에서 옳은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리해만 가지고서는 력대 착취계급들이 들고나온 민주주의와 구별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그 본질적 우월성을 완전히 해명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본질적 우월성을 옳게 리해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것인가 하는것과 함께 보다 중요하게는 그것이 어떤 원칙에 기초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생활을 마련해주는가를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

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인것만큼 정치의 실현방식인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종국적으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근본리익을 어떻게 실현해주는가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을 새롭게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결국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개인주의에 비한 집단주의의 우월성, 개인의 육체적 생명에 비한 사회적 집단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의 절대적 우월성으로 리해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민주주의이며 개인의 육체적 생명을 보장하는데 복무하는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적 집단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장하는데 복무하는 민주주의이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비할바없는 우월성이 여기에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은 그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 부르죠아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력사에 있은 모든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있다. 이것은 착취사회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 현상이다. 국가주권이 소수 착취계급에게 장악되여있고 생산수단이 사적 소유로 되여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여있는 조건에서 정치가 개인주의에 기초하게 되는것은 불가피하다. 그리하여 부르죠아민주주의를 포함하여 착취계급들에 의해 제창된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가 아니라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정치로, 가짜《민주주의》로 되는것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의거하고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일치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동지적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게 되며 따라서 집단주의적 생활원칙이 지배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는 결국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인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집단주의에 기초하게 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집단주의적 성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 현상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비할바없이 거대한 우월성을 가진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을 최고리상으로 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이른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리상으로 내세운다. 개인주의적 생활원칙으로부터는 필연적으로 약육강식의 법칙이 지배하게 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으로 실현될수 없으며 설사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에 맞는 생활을 보장해줄수 없다. 그것은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될수 없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존엄있는 인간으로 살아갈수 없기때문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아무리 생산력이 발전하고 물질적 재부가 늘어나도 사람들은 한갖 개인의 육체적 생명만을 가지고 값없이 살아갈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자신의 손으로 거대한 물질적 부를 창조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남의 노예로 살아

가는 한 아무리 물질생활수준이 높아져도 그러한 생활은 존엄있는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닌 존엄있는 사회적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된다.

자주성을 본성적 요구로 하는 사회적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귀중한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이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부분으로 그와 혈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게 되며 또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더불어 그것을 영원히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람들은 또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한 성원으로 될 때 혁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연과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념원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보람찬 혁명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다.

사람들사이에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사회성원들이 수령, 당, 대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결합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집단의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옹호하는것을 최고목적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가장 우월한 정치의 실현방식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우월성은 또한 그것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완전히 실현해주는 정치라는데 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다.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기 위한 그들의 반공선전의 주되는 초점의 하나도 사회주의사회가 마치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무시하는 사회인것처럼 묘사하는데 돌려지고있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가 란폭하게 유린되고 사람들사이에 평등이 아니라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는 다름아닌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실시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이 최고목적으로 되여있기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평등은 언제나 갈등과 호상견제를 동반하게 된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내세우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사람들사이의 갈등과 호상견제를 동반하게 되는것은 그것이 서로 대립되여있는 개인들의 리해관계를 옹호하고있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자본주의는 주권이 소수 자본가들에게 쥐여져있는 사회이며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만큼 사회공동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일치될수 없을뿐아니라 계급들사이, 개별적 사람들사이의 리익도 일치할수 없다. 로동자들과 자본가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것은 물론 개개의 자본가들사이의 리해관계도 일치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에 리해관계의 공통성이 아니라 대립이 존재할뿐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한사람의 리익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이처럼 사람들사이의 리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여있는 조건에서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사람들사이에 갈등과 호상견제를 낳게 한다. 개인의 생명, 개인의 리익을 위한 치렬한 《경쟁》속에서 《강자》는 《승자》로 되고 《약자》는 《패자》로 되며 이에 따라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확대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는 유린되고 사람들사이의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더 심화된다. 결국 개인주의에 기

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그것을 유린말살한다. 부르죠아민주주의가 제창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와 예속, 온갖 불평등이 존재하고있는 자본주의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너울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는 결코 개인의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란 실현될수 없다.

개인의 참다운 자유와 평등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의해서만이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게 하는것은 그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기때문이다.

집단주의는 결코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다. 집단주의의 본질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서로 돕고 이끌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데 있다. 이것은 집단주의가 사회적 집단의 공동의 리익을 존중할뿐아니라 집단에 속한 모든성원들의 리익을 다 귀중히 여길것을 요구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생활원칙으로서의 집단주의의 이러한 요구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적 집단과 개인의 호상관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사회적 집단은 매개 사회성원들이 공통된 목적과 리해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사회적 유기체이며 매개인은 그 구성부분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적 집단의 리익과 매개인의 리익이 뗄수 없이 련결되게 되며 그것들은 언제나 일치한다. 사회적 집단의 리익이 옹호되여야 매개인의 리익도 옹호되게 되며 사회적 집단의 리익은 개인의 리익을 전제로 한다. 개인을 떠난 사회적 집단을 생각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리익을 떠난 집단의 리익이란 있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집단주의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 가운데서 집단의 리익을 언제나 첫자리에 놓을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집단의 리익이 보장되여야 그 성원인 개인의 리익도 보장된다는 사정으로부터 제기되는 요구이지 개인의 리익을 무시하는데로부터 제기되는 요구가 아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바로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회적 집단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사회의 공동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최고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사회정치적 생명과 리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통일되고 일치되여있기때문에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부르죠아민주주의에서와 같이 사람들사이에 갈등과 호상견제의 관계가 아니라 동지적 사랑과 호상협조의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그리하여 집단을 이루는 매 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최대한으로 옹호되고 발양되게 되며 따라서 사람들사이에 자유와 평등이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실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그 거대한 우월성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견해가 확립된것은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견해가 확립됨으로써 무엇보다도 국가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민주주의의 본질,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우월성이 전면적으로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지금까지 공백으로 남아있던 민주주의에 관한 리론이 옳바로 해명되고 그것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게 되였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국가건설리론발전과 혁명리론발전에 기여한 거대한 력사적 공헌으로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견해가 확립됨으로써 또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로 하여금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국가를 관리운영하며 그들의 창조적 힘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옳바른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근본특징과 본질적 우월성이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됨으로써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편향을 미리 막고 집단주의적 원칙, 공산주의적 원칙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관한 부르죠아리론을 비롯한 온갖 반동적, 반인민적 리론들을 폭로분쇄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국가활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여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그것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아무리 큰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절로 발양되지 않으며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이 없는 조건에서는 하나의 가능성, 잠재력으로 남아있게 된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과학적 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주체사상이 가르치고있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면 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시키고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힘있게 벌려야 하며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고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로서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생활을 최고리상으로 하고있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시켜야 모든 정책과 로선을 그들의 자주적 요구에 맞게 세우고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에 의거하여 그것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으며 경제문화건설을 잘해야 국가활동의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힘있는 존재로 키워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현할수 있다. 또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일군들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의 발현인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분야에서 민주주의를 높이 발양시킬수 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이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것만큼 일군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할 때에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과학적 학설인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과학적 해답을 주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

장 선 강

오늘 우리 당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자라나는 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더욱 튼튼히 키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을 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어렵고 장기적인 사업이다. 공산주의사회는 여러 세대에 걸치는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된다. 공산주의사회건설의 장기성과 복잡성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믿음직하게 키워낼것을 요구한다.

새세대들은 혁명의 교대자들이며 앞날의 주인공들이다. 세월이 흐르면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조건에서 혁명의 명맥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에 의하여 이어지며 조국과 민족의 장래는 그들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로 키워 혁명의 명맥을 굿굿이 이어나가자면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자라나는 시절 특히 청년시절은 그들의 세계관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청년시절에 어떤 교양을 받는가에 따라 사람들은 혁명적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교대자로 자라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수도 있다.

새세대들은 혁명의 간고한 시련을 겪어보지 못하였으며 투쟁속에서 단련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므로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에서 그 계승자, 교대자들을 튼튼히 준비시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할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계승성과 일관성을 옳게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새세대들은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의 선봉대, 돌격대들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인 청년들은 생기발랄하고 원기왕성하며 용감하고 두려움과 피곤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하여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 특히 로력전선에서 가장 힘있는 부대로, 그 선봉대, 돌격대로 된다.

새세대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려면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새세대들에 대한 실속있는 교양사업은 그들로 하여금 시대와 력사 앞에서 지닌 자기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각적으로 진출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한 보람찬 사업에 청춘의 힘과 지혜와 열정을 남김없이 바치도록 적극 고무추동한다.

이 모든것은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문제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문제의 하나로 나서며 따라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립장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청년들은 새 사회 건설의 위력한 력량이며 혁명의 계승자들인것만큼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로청사업을 강화하여 광범한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돌격대적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단행본, 27페지)

우리 당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분석한데 기초하여 일찍부터 그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여왔다. 우리 당은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키우는것을 사로청의 중심과업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혁명위업의 계승자,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곧 수령의 혁명위업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면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과 수령의 위업을 이어나가는 당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이끎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워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켜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적극화하고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과 같은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새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실효성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고 있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강화됨으로써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주체의 세계관과 혁명적 수령관이 튼튼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훌륭히 준비되고 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에서 핵을 이루고있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영원히 당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을 자기들의 혁명적 신념으로, 삶의 보람으로 간직하고있다.

우리의 새세대들의 일본새와 생활기풍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새세대청년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앞장에서 수행하고있으며 혁명하는 시대의 청년답게 생활을 전투적으로 검박하게 하면서 언제나 혁명적 열정과 랑만에 넘쳐 살며 일하고있다.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청년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 땅우에는 주체시대를 빛나게 장식하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서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는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이것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서 새세대들을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키우는 문제가 훌륭히 해결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평안북도의 청소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력사의 땅에서 자라나고있는 영광스러운 새세대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신의주시와 창성군, 삭주군과 벽동군을 비롯한 도안의 많은 시, 군들과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비단섬갈종합농장지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제시하시고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표시하시였다.

평안북도당위원회는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음으로써 최근년간 여기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로청조직들에서 새세대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로 튼튼히 키우는 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청소년들이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빨리 자라나고있으며 그들속에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아름다운 미풍들이 높이 발양되고있다. 도안의 새세대들 가운데는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남아있는 가마포의 영웅부선장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하여 《**김일성**청년영예상》을 받은 철산수산사업소의 청년어로공도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지지도사적이 깃들어있는 학교를 높은 수준에서 정성껏 관리하면서 교수교양사업과 학과학습에서 모범을 보이고있는 창성군 약수고등중학교의 교직원, 학생들도 있다.

도안의 젊은 세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의 앞장에 서서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락원기계련합기업소의 청년들은 산소분리기생산공정을 모두 자신들이 담당수행하고있는 모범을 보이였으며 동림군 룡천협동농장의 청년작업반원들은 해마다 국가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자기들의 일터를 전국의 본보기로 훌륭히 꾸리였다. 청년들의 열의와 적극성이 날로 높이 발휘되고있는 가운데 태천언제건설장에서는 하루 7천립방메터의 언제타입을 정상화하는 최고기록이 창조되였으며 구성방직공장의 처녀사로청원들은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을 1년반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앞장에서 나가는 모범을 보이였다.

우리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미풍은 우리의 새세대들이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훌륭히 자라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들에 기초하여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우리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중요한 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청소년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은 멀리 전진하여왔으나 우리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해놓은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사회

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나가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이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을 미제와 직접 맞서있고 정세가 매우 복잡한 환경에서 완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며 그 종국적 승리를 다그치기 위해서는 혁명의 미래이며 계승자들인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 특히 사상교양사업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여야 한다.

사상교양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결코 한자리에 머물러있을수 없다. 시대가 전진하고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요구성은 계속 높아지며 이 요구성을 어떻게 실현해나가는가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새세대들속에서 더욱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되고 경제문화건설이 진척되여 생활이 넉넉해지면 사람들속에서 혁명적 열의가 식어지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다. 특히 혁명과 건설의 담당자로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부모들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지난날을 잊어버리고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마련된 행복을 응당한것으로 여기면서 혁명을 계속하려는 각오와 투지가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날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자면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적인 사상교양사업을 긇임없이 강화하여야 한다. 새세대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지 않으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한 과업들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빚어낼수 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사람들 특히 새세대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바로 여기에 혁명위업의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세대들속에서 교양사업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 교대자로 더욱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하며 청년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거창한 력사적 과업들을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한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그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는데 계속 커다란 힘을 넣는것이다.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인생관의 핵을 이룬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위업에 몸바쳐 투쟁하는데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혁명적 인생관을 가질수 있으며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답게 영원히 당과 수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면서 혁명의 한길을 따라 억세게 전진할수 있는것이다.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어떻게 세우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어떻게 키우는가에 따라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고수하여나가는가 못나가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결정된다.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사업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새세대들속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교양사업을 긇임없이 심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워야 하며 청소년들모두가 대를 이어 계속되는 절대적이며 무조건

적인 충실성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그것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 때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양된다. 우리는 새세대들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과 우리 당의 위대성과 은덕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투쟁한 청년공산주의자들과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싸운 혁명선렬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전사들과 사회주의건설시기의 로력혁신자들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의 모범을 본받기 위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그들모두가 언제 어떤 환경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게 하여야 하며 실천활동에서 자기의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밀접히 결부시켜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심화시키는것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로 튼튼히 준비시키려면 혁명전통과 당정책으로 무장시키고 높은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애국주의사상을 철저히 소유하게 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은 새세대들로 하여금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관철하며 언제나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고수하고 자기 나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자신을 믿음직하게 준비하여 혁명의 교대자,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도록 확고히 담보하여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력사적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실속있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는 그것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는데 있다.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와 결부시켜 혁명전통교양과 당정책교양,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사상교양사업을 주체사상으로 일관시킬수 있으며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일수 있다.

우리는 혁명의 주체가 자라나고 강화발전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인 혁명전통으로 새세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당정책교양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새세대들이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을 비롯한 계급적 원쑤들과 직접 맞서 혁명을 하고있는 현실에 맞게 계급교양에 커다란 힘을 넣어 새세대들모두가 부모들의 쓰라린 지난날을 잊지 말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언제나 견결히 고수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우리 민족제일주의교양을 심화시켜 새세대들이 우리 민족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정신과 높은 혁명적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야 하며 그들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주어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땅과 조국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심화하는데서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번영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력사적 로정에서 높이 발휘된 영웅적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도록 힘있게 이끌어주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항일의 혁명정신을 빛나게 계승하여 40년대와 50년대에 결

쌓인 난관과 엄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조국당우에 오늘과 같이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벌리였다. 해방후 새 조국 건설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무비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조국의 운명을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의 부강발전을 이룩한 우리 인민의 혁명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고귀한 투쟁정신이다. 지난날 투쟁의 앞장에 섰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일선의 위치를 넘겨받은 우리의 새세대들은 이러한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야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가는 혁명의 참된 교대자가 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는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이 우리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혁명선배들, 자기 부모와 형들이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어떻게 살며 싸워왔는가를 잊지말고 그들의 투쟁정신과 모범을 적극 따라배우며 더욱 빛내여나가도록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새세대들모두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 길에서 섬새가 되고 방패가 된 리수복, 조군실 영웅과 같은 혁명전사로 키워내야 하며 전시와 전후시기의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강선로동계급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불굴의 투지와 필승의 신념,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선봉투사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는데 있다.

당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사로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열의와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킬수 있다.

당조직들은 사로청일군들로 하여금 청소년교양에 주되는 관심을 돌리고 사상교양사업을 계속 심화시키도록 당적 지도를 강화하며 그들모두가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생기발랄하고 패기있게 일해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일군들을 적극 내세워주고 사업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줌으로써 그들이 사로청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들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청춘의 정열과 혁명적 랑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장들은 청춘의 포부와 정열을 남김없이 발양할수 있는 보람찬 활무대이다. 당조직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수행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들끓는 전투장들,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광복거리를 비롯한 만년대계의 기념물들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건설장들에 적극 진출하여 용감하고 슬기로운 조선청년들의 영웅적 기상을 높이 발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이룩해나가야 한다.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교대자, 사회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워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계속 힘있게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진군속도를 높이고 이 땅우에 인류의 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할것이다.

혁명가의 한생은 투쟁속에서 빛난다

김　　기　　반

혁명가의 사업과 생활은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는것이 혁명가의 한생이다.

공산주의혁명가가 혁명의 길을 끗끗이 걸어가기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선구자가 되여야 하며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이 전에없이 심화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혁명을 위하여 더욱 보람있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혁명가답게 싸워나감으로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　　⁂

사람이 세상에 출현하여 자연을 길들이고 력사를 창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백만년을 헤아리지만 오래동안 그들은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옳바로 자각하지 못하였다. 특히 적대계급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의 대상으로만 되여왔으며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다.

노예의 쇠사슬에 얽매여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인민대중이 절절하게 념원한것은 어떻게 하면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바로 인간의 세기적 념원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존엄과 가치를 옳바로 자각하고 혁명투쟁에 떨쳐나설 때 비로소 실현되게 되는것이다.

혁명투쟁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력사상 자주성을 위한 피착취대중의 첫 진출이라고 말할수 있었던 노예폭동과 중세기의 반봉건투쟁으로 말미암아 노예제도와 봉건제도가 붕괴되였으나 계급적 지배와 압박을 없애지는 못하였다.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으로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주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게 되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결국 근로인민대중이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투쟁이며 인민들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이처럼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세기적 념원을 실현하며 계급적 착취와 압박을 청산하고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보람차고 성스러운 사업이다.

혁명가는 혁명위업에 한생을 바쳐 싸우는 자각적인 투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의 일생은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야 하며 혁명은 대를 이어 계속되여야 합니다. 중도반단함이 없이 투쟁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전진하는것은 혁명의 요구이며 혁명가의 인생행로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63페지)

혁명가는 한생을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선 자각적

인 투사이며 혁명의 선구자들이다.

혁명가들은 혁명투쟁에 참가하는것을 가장 보람있고 성스러운 일로 여긴다. 때문에 혁명가들은 자신이 걸어온 혁명투쟁로정에 대하여 언제나 떳떳하게 생각하며 혁명사업에 몸바쳐 싸우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혁명가가 혁명의 길에 한생을 바쳐가는것을 더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그들이 참다운 주체의 인생관을 지니고있기때문이다.

주체의 인생관은 개인의 리익보다도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더 귀중히 여기며 혁명의 길에 한생을 바쳐싸우는것이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 생이라는것을 밝혀주고있다. 그러기에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육체적 생명의 요구나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생활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없으며 수령, 당, 대중과 떨어져 혁명도 하지 않고 고립적으로 사는 생활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배치되는 값없는 생활이라고 본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오직 사람의 가치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찾으며 삶의 보람을 수령이 개척하고 이끄는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데 있다고 보는것이다.

이러한 인생관을 지녔기때문에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하더라도 그 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며 당과 수령을 위한 길이라는것을 자각하고 자기 개인의 리익을 혁명의 리익에 서슴없이 복종시키며 혁명의 요구라면 목숨까지도 바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고있는것이다.

혁명가의 한생이 투쟁속에서 빛나는 것은 우선 혁명투쟁이 혁명가들로 하여금 수령께 충성다할수 있게 하는 성스러운 사업이라는데 있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기본품성이며 제일생명이다.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때 수령의 유일적 령도가 확고히 실현되며 혁명과 건설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된다.

혁명가들의 모든 활동은 수령의 교시와 명령지시를 옹호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며 그것으로 빛나는것이다.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떠나서는 혁명가라는 고귀한 칭호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삶의 보람과 가치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혁명가가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그가 수령의 품속에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은 인생이기때문이다. 혁명가는 수령의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높은 계급적 의식과 정치적 안목을 가지게 되고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받아안게 되며 그것을 혁명의 한길에서 빛내이게 된다. 참으로 수령은 혁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혁명가로 키워주고 그들을 영웅적 위훈에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스승이며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수령에게 충성다하는것은 응당한 도리이다.

조선혁명의 장구한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끝없는 충실성의 숭고한 모범으로 빛나고있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믿고 따라야 혁명의 승리를 이룩할수 있고 전사의 도리를 다할수 있다는 하나의 신념과 자각이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서 살며 싸우는것을 자기들의 변함없는 인생행로로 택하였고 그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워왔다. 혁명이 언제 승리할지 기약할수 없었던 그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면서 온갖 곤난을 뚫고 혁명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온 여기에 불굴의 혁명전사의 량심이 있고 숭고한 혁명가의 풍모가 있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은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과 미제를 쳐

부시는 가렬한 조국해방진쟁마당에서, 전후의 어려운 복구건설장에서 사람들의 심장속에 면면히 이어져 수많은 혁명가들을 낳았고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보람있게 걸어가게 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첫 시기에 싸운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대로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성다하고있다. 이것은 조선의 혁명가, 주체형의 혁명가의 한생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하는데서 빛난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혁명가의 한생이 투쟁속에서 빛나는 것은 또한 혁명투쟁이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게 하는 보람찬 사업이라는데 있다.

원래 혁명가들은 혁명하기를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한다. 운동이 물질의 속성인것처럼 투쟁은 혁명가의 본성이다. 투쟁을 떠난 혁명가는 혁명가가 아니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이 투쟁하기를 좋아하고 굽힘없이 새것을 창조하기를 좋아하는것은 그들이 지닌 숭고한 사명과 관련된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는 인류의 최고리상사회이며 인류의 이 세기적 념원을 현실로 전환시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 바로 공산주의혁명가들에게 지워져있다. 그렇기때문에 투쟁에 나선 혁명가들은 자기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순간도 투쟁을 멈출수 없다.

혁명투쟁에서 거둔 승리는 아무리 큰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승리를 위한 밑천에 불과하며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혁명가들에게는 오직 투쟁과 창조, 혁신만이 있을뿐이다.

혁명위업이 완성되기도전에 승리에 도취하여 투쟁기세를 늦추거나 사소한 난관앞에 동요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자세가 아니다. 투쟁목표를 될수록 낮추 세우려 하며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지 않는 현상, 왕성한 사업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패기있게 진공적으로 벌리지 않는 현상 그리고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 소극과 보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지 않는 현상은 다 혁명가의 일본새와는 인연이 없다.

주체형의 혁명가들에게는 오직 답보와 침체를 모르고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기풍만이 있는것이다. 혁명적 기백과 열정을 가지고 부단히 새것을 창조하고 건설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바로 여기에 혁명가의 사상정신적 특질이 있으며 참된 삶의 보람이 있는것이다.

혁명가의 한생은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는데서 빛난다.

투쟁으로 시작되고 투쟁으로 끝나는 혁명가의 한생은 간고한 투쟁로정이다.

혁명은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조롭게만 전진하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앞길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혁명가의 한생은 혁명의 길에서 중도반단함이 없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깨끗이 살아야 빛나는것이다.

화분에 곱게 핀 꽃도 계속 피여야지 꽃이 떨어져 볼모양이 없게 되면 비록 어제는 고운 꽃이 피였다고 하더라도 쓸모없는것으로 되여버리는것처럼 혁명가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야 혁명하는 보람이 있는것이다. 어제는 비록 혁명을 잘하였다 하더라도 오늘은 혁명의 길에서 물러선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것으로 된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바쳐 싸운 참다운 혁명가의 고귀한 한생은 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 빛나는것이다.

이렇듯 혁명가의 한생은 혁명의 령도자에게 끝까지 충성다할 때 가장 숭고

한것이며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않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때 가장 값있고 보람있는것으로 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일찌기 백두밀림에서 시작된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멀리 앞으로 전진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우리 인민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땅우에 공산주의락원을 건설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우리 인민앞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제3차 7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거창하고 방대한 설계도이다.

우리는 이처럼 방대한 과업을 긴장되고 동원된 환경속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들의 발광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오늘 우리앞에 제기된 혁명과업과 조성된 정세는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보다 더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자신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타고난 혁명가란 있을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생활과 투쟁 속에서 점차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혁명가로 자라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제21권, 15페지)

오늘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모든 정신도덕적 풍모와 품격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주체형의 혁명가가 지니고있는 혁명적 세계관과 품성, 그 가치와 존엄은 결국 충실성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되게 되며 거기에서 나타나게 된다. 때문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는 투철한 혁명적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 모든 운명을 그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당의 령도따라 끝까지 혁명해나가는 영원한 동행자, 불굴의 혁명전사가 되여야 한다.

혁명가의 한생을 빛내여나가기 위해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불굴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는것이 중요하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녔던 불굴의 혁명정신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혁명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영원히 간직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로 된다.

우리는 80년대에 사는 혁명전사의 불굴의 혁명정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그 요구대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80년대 혁명전사의 불굴의 혁명정신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높이 받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적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의 마당에서는 혁명을 보위하기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는데서 나타났다면 오늘과 같은 환경속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건설,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과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력량을 집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이 준 과업을 무조건 수행하는 사람이 당에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이다. 특히 혁명의 지휘성원인 간부들이 대중의 앞장에서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일하는것이 중요하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에서 당의 정책적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언제나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

다. 당의 요구를 지상의 과업으로 여기고 자나깨나 오직 그 실현을 위하여 생각하고 남보다 새벽이슬도 먼저 밟고 힘든 일도 도맡아 수행하면서 정력적으로 일해나가는 일군이 새로운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투쟁의 기수, 혁명가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을 본받아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며 당과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생산성과와 사업성과로 보답하여야 한다.

혁명가로서의 한생을 빛내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조직생활과 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

혁명가의 투쟁과 생활은 혁명적 수양과 뗄수 없다. 혁명은 결코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심화된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환경은 언제나 그에 맞는 준비된 혁명가들을 요구한다.

혁명가들은 자신을 보다 훌륭한 혁명가로 완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생활은 누구를 막론하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신의 수준을 따라세우기 위하여 의식적으로 단련하고 수양하지 않는다면 시대의 락오자로 되고 혁명을 끝까지 해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적 단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혁명적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는것이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모든 투쟁과 생활은 조직생활과정이다. 사람들은 혁명조직과 집단속에서만 사상정신적 풍모를 개변하고 혁명가로 자라나게 된다.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이 조직생활을 통하여 계속 단련해나가는 사람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강한 사상투쟁의 불길속에서 자신을 부단히 단련함으로써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준비해나가야 한다.

혁명적 수양과 단련의 위력한 방도는 혁명실천이다.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투쟁과 생활의 매 순간순간이 곧 혁명실천이며 수양과정이다. 때문에 혁명가들은 일상적인 혁명임무수행에 의식적으로 뛰여들어 투신하여야 하며 혁명실천을 통하여 자신을 부단히 혁명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과 혁명에 리익이 되는 일이라면 누가 보건말건 성심성의로 일해나가는 혁명가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참으로 혁명적 수양과 단련을 강화하는것은 발전하는 혁명의 높은 요구를 감당할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는 중요한 방도이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형의 혁명가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는것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주체형의 혁명가, 이것은 우리 시대 혁명하는 사람만이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칭호이다. 이 칭호속에는 우리 혁명의 개척기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혁명의 길을 곳곳이 걸어온 수많은 혁명가들의 숭고한 념원과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우리는 자신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의 대오의 한 성원이라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

—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50돐에 즈음하여 —

박 인 근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길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준 력사적인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가 발표된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나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혈전속에서 집필하시여 1937년 11월 10일 조선인민혁명군 대내기관지 《서광》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자주시대 식민지피압박인민들의 해방의 넓은 길을 열어놓고 우리 혁명과 전반적 세계혁명의 발전을 추동한 고전적 문헌이다. 여기에 담겨진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은 그 과학성과 원칙성, 독창성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였으며 그것은 오늘도 우리 인민과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위한 수억만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커다란 사상정신적 재부로 빛나고있다.

*　　　*

불후의 고전적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인민과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명시해준 휘황한 등대이다.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옳게 밝히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그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관건적 문제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혁명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혁명리론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전략전술을 바로 가짐으로써만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옳바른 투쟁방법에 의하여 혁명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다.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옳바른 전략전술을 확립하는것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근본문제로 나서지만 사회적 변혁과정이 심각해지고 혁명투쟁에 인민대중이 더 많이 참가하면 할수록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시대를 향도하고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이끌어나가는 수령의 위대성은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그 실현을 위한 령도의 위대성에 크게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밑에서 오래동안 자주권을 유린당하여온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 력사무대에 등장하기 시작한 우리 시대에 정력적이고도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실천으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인류사회발전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집필하신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데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 불멸의 총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무엇보다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여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뚜

렷이 밝혀주시였다.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길을 옳게 밝히는것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선혁명의 실천적 요구였으며 자주시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앙양에로 이끌기 위한 시대적 과업이였다.

민족적 해방을 위한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투쟁이 벌어진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였으나 그것이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식민지민족해방혁명의 면모를 가지고 력사무대에 나타난것은 자주시대에 이르러서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세계혁명에는 자본의 억압과 지배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로동계급의 민족해방운동이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새롭게 포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의 혁명의 기본임무와 조성된 사회계급적 제관계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이미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내놓으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심화발전시키시여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위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명하고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적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지배하고있는 식민지반봉건사회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현단계에 있어서의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을 광복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봉건적인 제관계를 청산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발전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것이다.》(《김일성저작집》 제1권, 151페지)

로작에서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에서의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밝히고 그것은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와 결탁한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반동관료배들을 투쟁대상으로 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및 민족자본가와 량심적인 종교인 등 모든 반제력량을 동력으로 하여 진행된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제시하였다. 그리고 침략자들과 그에 충실한 앞잡이로 복무하는 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등 모든 반동세력을 타도하고 민주주의적인 정권을 세우며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실시하는것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통하여 수행해야 할 과업으로, 무장투쟁과 민족통일전선운동,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당창건준비사업을 다그치는것을 조선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면임무로 밝혔다. 이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위업을 옳바로 실현할수 있는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을 집대성한것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을 독창적으로 명시한 지침이였다.

로작에 천명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로선의 위대성과 독창성은 우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발견하신 주체사상의 원리에 그 사상리론적 원천을 두고있는데 있다.

어떠한 리론과 전략전술이든지 그것은 일정한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고있다. 혁명투쟁의 합법칙성과 그 실현방도를 밝힌 혁명로선도 결국은 그것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 원리에 의하여 혁명리론의 전개원칙과 전략전술작성의 기초가 규정되며 이에 따라 그 내용의 폭과 심도가 규정된다.

로작에 제시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 원리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원리, 다시말하

여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해명하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고 그 수행방도도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가장 명백히 밝힐수 있게 한 무기로 되였다.

선행시대에 일정하게 관심이 돌려졌던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해방에 관한 문제는 리론적으로는 사회주의혁명의 한 전략적 문제로 취급되어있었으며 실천적으로는 종주국 로동계급의 프로레타리아혁명과 련결됨으로써만 해결될수 있는 문제로 되어있었다. 이렇게 취급된 주되는 리유는 경제관계를 중심에 놓고 물질적 요인의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투쟁의 합법칙성을 해명함으로써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에서의 혁명의 근본원인과 주체적 력량을 보지 못한데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선행한 혁명리론의 시대적 제한성을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꿰뚫으시고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등장하기 시작한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그것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을 해명하시고 혁명의 전략전술을 고찰하심으로써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로선을 독창적으로 새롭게 밝히시였다.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위대성은 그것이 기초한 철학적 원리와 함께 시대와 혁명실천의 요구를 얼마나 높이 구현하고있는가에 크게 달려있다. 자연과학적 발견과 발명이 자연을 자기의 의사에 맞게 개조하려는 사람들의 실천적 요구로부터 나오고 또 실천적 경험을 반영한것처럼 혁명리론과 전략전술도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인민대중의 혁명실천이 도달한 수준을 반영한다. 이러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그 내용의 폭과 심도에 있어서나 또한 과학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로작에 집대성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제시되고 우리 시대 혁명의 실천적 경험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과학적으로 일반화한 위대한 혁명리론이며 전략전술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세력을 타도하고 그의 식민지적 착취의 지반인 봉건적 제관계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처지에서 벗어날수 없었으며 조선혁명의 자주적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었다.

조선혁명의 실천은 사회계급적 제관계의 특성의 견지에서 보나 혁명의 기본임무의 견지에서 보나 부르죠아혁명도 사회주의혁명도 아닌 새로운 류형의 혁명에 관한 문제에 과학적인 해답을 줄것을 절실히 요구하였다.

세계적 범위에서 놓고볼 때에도 이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적 예속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이 제국주의침략자들과 끝까지 맞서 싸워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히는것이 초미의 문제로 나섰다.

세계적 규모에서 대두하기 시작한 파시스트들은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독일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반공협정》체결로 국제적인 반공련합을 형성하고 자국내에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은 물론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에 대한 살인적인 반동공세를 감행하는 동시에 침략전쟁확대에 미쳐날뛰고있었다. 이와 같은 력사적 환경에서 세계각국에서는 반파쑈인민전선운동과 반제민족통일전선운동을 벌리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반대하는 각계각층 광범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데 대한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그러나 사회의 광범한 계층을 혁명의 편에 전취

하기 위한 정확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밝혀지지 못함으로써 제국주의파쑈들의 반동공세와 침략의 촉수를 단호히 꺾어버리는 성과적인 투쟁을 벌리지 못하고 있었다. 조성된 국제정세는 련합된 파쑈세력을 약화시키고 전반적인 국제민주력량의 승리를 촉진하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범위를 벗어나 모든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을 포괄하는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과학적인 지도리론과 전략전술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바로 로작에 천명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적 방침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통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진로를 밝히시고 그것을 구현하시는 과정에 그 진리성을 실천적으로 검증하고 과학리론적으로 발전풍부화시키신 고귀한 결실이였다. 그것은 또한 사회주의력량과 함께 세계혁명의 2대력량으로 새롭게 등장한 식민지민족해방운동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절박하게 해답을 기다리는 모든 문제들을 반영하여 해명한 위대한 혁명리론이였다.

로작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체계화되고 집대성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투쟁로정과 과학적인 투쟁방도를 알고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갈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다음으로 혁명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지켜야 할 혁명적 립장, 자주적 립장에 대하여 명백히 제시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자기앞에 나선 혁명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자주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자주적립장은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 혁명을 책임적으로 끝까지 수행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근본립장이다.》(우와 같은 문헌, 183페지)

로작에 제시된 자주적 립장을 견지할데 대한 사상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혁명운동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근본립장을 밝힌 위대한 사상이다.

자주적 립장을 견지하는 문제는 항일혁명의 첫 시기부터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섰지만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더욱더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을 주류로 한 전반적 조선혁명에서 일대 앙양이 이룩되자 이에 겁을 먹은 일제는 우리 인민의 자주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며 자주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조선혁명의 앞길에 일대 난국을 조성하였다. 포악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은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인민에게 《일본정신》을 불어넣으며 전례없는 폭압과 강도적 략탈로 조선을 하나의 인간생지옥으로 전변시켰다. 특히 일제는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후방의 안전》을 공고히 한다는 미명아래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공세를 미친듯이 감행하면서 조선인민의 모든 혁명적 진출을 말살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37년 여름, 류혈적인 《혜산사건》을 조작하고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파괴하였으며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학살한것은 그 대표적 실례의 하나이다.

강도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밑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민족정신은 여지없이 짓밟히우고 온 나라는 피바다, 불바다 속에 잠기였으며 조선공산주의운동은 일대 시련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 준엄한 민족수난의 시기 민족개량주의자, 좌우경기회주의자, 종파사대주의자 등 온갖 혁명의 배

신자들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일제와 공공연히 결탁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조선독립》이요, 《세계혁명》이요 하면서 제노라고 행세하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동요하거나 투쟁을 포기하고 시정배로 전락되였다.

이무렵 세계혁명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립장에 서있지 못한 사람들은 매개 나라 혁명과 세계혁명을 분리시켜 생각하면서 민족혁명의 구호를 버리고 세계혁명의 기치만을 들어야 한다고 하였는가 하면 민족혁명만을 수행하고 세계혁명에는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 그릇된 《견해》와 《주장》들을 류포시켰다. 이것은 각국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단합된 력량으로 국제적으로 련합된 제국주의침략자들의 반혁명적 책동을 짓부시고 매개 나라의 혁명과 세계혁명을 자주적으로 전진시키는데서 커다란 장애를 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 인민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자주적 립장에 관한 심오한 사상리론적 해명을 주신것은 조선혁명의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이 세계혁명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속에서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되였다.

자주적 립장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사대와 교조의 울타리를 벗어나 민족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은 남의것을 쳐다보기전에 독자적인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우리 식의 혁명로선과 방침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할수 있게 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세계혁명 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와 국제주의적 의무를 다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이와 같이 로작에서 제시된 자주적 립장에 관한 사상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사대주의를 하거나 조국과 민족을 배반함이 없이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조선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전진시키고 자주독립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과 세계공동의 자주위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대한 사상으로 빛나게 되였다.

자주성과 독창성으로 일관된 이 로작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새로운 길을 뚜렷이 밝히고 로동계급의 혁명 사상과 리론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키는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리론은 발표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50년간 조선혁명의 로정우에서 빛나게 구현되였으며 자랑찬 결실을 가져왔다.

이 력사의 나날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조국의 광복과 우리 인민의 창조와 건설을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을 로작에서 제시된 사상과 로선 관철에로 힘차게 일떠세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과 로선을 높이 받든 항일유격대원들은 그처럼 준엄하였던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무산지구전투와 대부대선회작전 등 수많은 작전, 전투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쏘일중립조약》체결을 기회로 적들이 혁명대오를 와해시키기 위해 발악하던 때에도 항일유격대원들은 패배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등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에 물들지 않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선혁명의 주체적 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였으며 마침내 조국광복의 승리를 이룩하는 영웅적 위훈을 세웠다. 이 로정우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의 위대한 승리와 함께 민족통일전선사업과 당창건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

하고 새 조선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는 력사적 공적을 이룩하였다. 항일대전의 간고한 투쟁속에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국제혁명력량과의 전투적 뉴대를 강화하고 세계혁명적 인민들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고 아세아를 제패하려는 놈들의 야망을 분쇄하였을뿐아니라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함으로써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 의무에 대한 성실성을 높이 보여주었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위대한 로선이 있음으로 하여 해방후 우리 인민은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주의적 개혁들을 훌륭히 수행하고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축성할수 있었다. 주체형의 당 창건위업과 인민정권건설사업의 성과적인 수행과 토지개혁, 중요산업국유화를 비롯한 민주주의적 개혁의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가져다준 고귀한 결실로 된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된 결과 사회주의를 위한 유리한 토대가 마련되였으며 이 커다란 성과에 기초하여 거창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락후와 빈궁만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사회주의 모범의 나라》가 일떠섰다.

로작에 담겨진 위대한 사상과 리론은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다그치고 반제자주를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을 앙양시키는데서도 적극 작용하였으며 이 과정에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리론이 있음으로 하여 조선혁명은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었으며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은 존엄있고 긍지높은 자주적인 나라로 그 이름을 높이 떨치고있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지닌 위대성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업적의 위대성에 그 근본원천이 있으며 여기에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예와 크나큰 자랑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의 업적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발전풍부화되고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 진군길은 힘있게 다그쳐지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위대성은 영원불변의것으로 더욱 높아지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조선혁명앞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의연히 남아있다.

해방후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국토의 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은 계속되고있으며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고 조선에 대한 재침의 마수를 깊숙이 뻗치고있다.

우리는 조국땅 남반부에서 미제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하며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속히 앞당기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여야 한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억세게 싸워나갈 때 백전백승한다는것은 항일혁명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선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 가슴속에 굳게 자리잡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항일의 불길속에서 참다운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그 고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 할것이다.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는 언제나 확정적이다.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는것은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한 근본요구

신 용 수

군중관점을 바로 가지고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풍모이며 참다운 혁명가의 중요한 사상정신적 특질이다.

일반적으로 관점은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짓는 출발점으로 된다. 그러므로 군중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그들을 멸시하고 지배하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아니면 인민대중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것이 규정된다.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는것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창조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로 여기고 언제나 군중속에서 배우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옳은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군중관점이란 사회 생활과 발전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견해와 관점이며 군중을 대하는 태도와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혁명적 군중관점은 인민대중을 력사발전의 담당자로, 추동력으로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 모든 문제를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며 인민대중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는 립장과 태도이다.

혁명적 군중관점은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대하게 함으로써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게 한다.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정신은 혁명적 세계관의 직접적 표현이며 그것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에 기초하여 발현되게 된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얼마나 높이 지니고 발휘하는가 하는것은 세계관 문제이며 관점문제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은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게 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지니게 한다.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은 사람,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데 기초하여 확립된다. 자연과 사회의 주인인 사람, 인민대중을 귀중한 존재로 보고 대하는것은 혁명적 군중관점의 중요한 내용이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게 하는 사상정신적 바탕이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대하는 혁명적 관점을 가질 때에는 인민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려는 충복다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게 되며 반대로 인민대중을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낡은 사상 관점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욕설과 추궁으로 군중을 대하고 지위와 간판을 가지고 군중에게 명령하고 호령하는것과 같은 그릇된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엄있게 대하는 관점을 가져야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견지에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겠다는 각오

와 결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일할수 있다.

혁명적 군중관점은 또한 일군들에게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립장과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인민의 충복이 되게 한다.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은 혁명적 군중관점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이다.

근로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직접적 담당자이다. 근로인민대중에게는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할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과 지혜가 있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 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변혁과 진보가 이룩된다.

일군들의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 관점은 바로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이러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을 력사의 창조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로 여기고 언제나 군중에게서 배우며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립장과 태도를 가져야 인민의 충복이 되여 헌신적으로 일할수 있다.

만일 일군들이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군중의 창발적 의견을 들을수 없게 되며 그리하여 독단과 주관주의에 빠지게 되고 관료주의와 전횡을 부리게 된다. 독단과 주관주의, 관료주의와 전횡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발성을 마비시키며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생활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지 않으며 독단과 전횡을 부리기 좋아하는 일군은 례외없이 당과 혁명도, 인민의 리익도 안중에 없고 제멋대로 행동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민대중의 힘과 지혜를 믿지 않고 그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며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기면서 인민대중의 의견을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지 않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관점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이러한 그릇된 사상관점을 가진 일군은 결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할수 없는것이다. 오직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힘에 의거하여 사업을 해나가는 일군만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다.

혁명적 군중관점은 또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종시킬것을 요구하는 관점인것으로 하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다운 자세와 립장을 가지게 한다.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것은 주체적 군중관점의 중요한 요구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은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고 인민을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복종시켜나가는 철저한 혁명적 관점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주체적 군중관점을 가져야 인민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기 활동의 목적과 방향을 세우게 되고 그들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으며 일군들의 모든 사업과 활동이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게 할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지난 기간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절실히 체험하게 되였다.

우리 허천군은 전형적인 산간군이다. 이것으로 하여 한때 군안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경제적 조건의 불리성만 운운하면서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이악한 투쟁을 벌리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었다. 이것은 당정책에 대한

전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부족한 표현이였으며 군중관점이 바로서지 않은 현상이였다. 일군들속에서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그들이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게 하는것이 중요하였다.

우리는 일군들에게 군중관점이란 무엇이며 군중관점을 세워야 할 필요성,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방도를 인식시키는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였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이 모든 타산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늘 일깨워주면서 군에 집을 한채 짓고 공장을 하나 세워도 그리고 강하천을 정리하고 소형발전소를 하나 건설하여도 언제나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사업을 조직전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었다.

군중에 대한 그릇된 관점은 낡은 사상에 뿌리를 두고있기때문에 일반적인 강조와 호소나 하고 단순한 실무적 조치만 취해가지고서는 근본적으로 없앨수 없었다. 이로부터 군당위원회는 일부 일군들속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지 않으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릇된 표현들을 바로잡기 위한 사상투쟁을 강하게 벌리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일군들속에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는데서 긍정적 작용을 하였으며 커다란 실효를 나타내였다.

군중에 대한 일군들의 관점문제가 해결되니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창발적 의견들과 혁신적 발기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석탄생산지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는 군의 실정에서 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석탄보이라대신 전기보이라를 도입하자는 발기가 나왔고 원료기지를 조성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를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였다. 우리는 이러한 발기들을 적극 지지해주면서 지체없이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고 행정경제일군들과 기술자들을 적극 인입하여 소형발전소건설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갔으며 가파로운 산발을 오르내리면서 원료기지개간적지도 탐사하였다. 군안의 책임일군들이 이신작칙의 실천적 모범을 보이면서 소형발전소건설과 원료기지개간 전투의 앞장에 섰다. 책임일군들의 이신작칙에 고무되여 온군이 호응해나섰다. 난관도 많았고 애로도 적지 않았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업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려는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이악하게 달라붙었다. 이리하여 우리는 짧은 기간에 2개의 소형발전소를 건설하고 300여정보의 원료기지를 조성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전력과 원료를 가지고 장공장과 군목욕탕을 전기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사업을 더 잘할수 있게 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군중관점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충복이 된 자세와 립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며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일한다면 어떤 불리한 조건도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시키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로 탐구동원하여 인민들에게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다는 귀중한 경험을 체득하게 되였다. 실천적 경험은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져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당은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군중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군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속에는 혁명적 군중관점이 확고히 섰으며 그들은 인민

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더욱 철저히 세우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여 더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높은 충성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단행본, 25페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일군들이 군중관점을 바로 가지고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다.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은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사상, 혁명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확립되게 된다.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학설이다. 주체사상은 사람, 인민대중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과 태도를 밝혀주는것으로 하여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정신을 체현할수 있는 세계관적 기초를 준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주체의 세계관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질수 있으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될수 있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사상의 원리들과 지도원칙들을 깊이 연구체득하여 주체사상의 원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들을 실천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체현하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의 충복이 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들과 함께 한평생을 바쳐오고 계신다.

공산주의적 덕성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수천수만리를 이어가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나 인민들의 살림집과 로동자들의 합숙과 식당에 먼저 들리시여 그들의 살림살이형편에 대하여 알아보시며 인민들의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더욱 륭성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울 원대한 구상을 지니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투쟁을 벌리시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없이 넓은 포용력과 대해같은 아량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굳게 믿고 묶어세워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으며 그들에게 행복한 삶의 보람과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계신다. 우리 당은 하나의 공장을 건설하거나 하나의 도시를 일떠세울 때에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인민들에게 최상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진정 우리 당은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그들의 존엄과 영예, 행복을 최상의 높이에서 꽃피워나가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체현하신 인

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위대한 모범은 인민대중에 대한 관점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세우고 언제나 인민들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나가는 자애로운 인민적 수령, 탁월한 인민의 지도자만이 창조할수 있는 모범으로 빛나고 있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체현하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빛나는 모범을 그대로 따라배우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임무와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한다.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군중속에 들어가는것이다.

혁명적 군중관점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광범한 대중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더욱 튼튼히 확립되게 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군중을 알수 있고 그들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제때에 알고 풀어줄수 있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군중과 리탈되면 당이 군중과 떨어지게 된다. 군중과 혼연일체가 되는것은 우리 당의 생명선이며 당이 군중과 혼연일체가 되자면 당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이 어디에 가건 군중과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우리 당의 존재방식이다. 당과 대중과의 혼연일체를 자기의 생리로, 생존방식으로, 힘의 원천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의 일군들은 언제나 군중과 같이 살고 일하여야 하며 군중과 같이 숨쉬면서 현실속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있으며 인민을 위하여 더 잘 복무하겠다는 각오와 결심도 가질수 있다.

대중이 있는곳에는 어디에나 지도일군들이 내려가고 일군들이 움직이는곳에서는 언제나 당의 숨결이 맥박치게 하려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며 의도이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기고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며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귀담아듣고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특혜와 특전을 바라지 않고 소박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것은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겸손성과 소박성은 대중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어깨를 낮추고 소탈하게 행동하며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지 않고 사업과 생활을 검소하게 해나가는 인민적 품성이다. 틀을 차리거나 세도를 쓰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일군들의 품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으며 량립될수 없다. 우리 일군들은 인민의 참된 충복, 성실한 심부름군으로서의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지고 절대로 세도를 쓰거나 틀을 차리지 말아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소박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지니는데서 중요한것은 사업과 생활에서 가식이 없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것이다.

사람들호상간의 참다운 관계는 허식과 겉치레가 아니라 그 진실한 마음에 있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을 대하는데서 대가나 리해관계에 대한 타산을 앞세우면서 리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가까이 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멀리하고 외면하는것과 같은 량면적이고 위선적인 조그마한 요소도 발로시키지 말아야 한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 그 어떤 보수와 대가를 바라거나 리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며 자기 낯을 내는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혁명전사의 립장과 태도가 아니며 인민의 충복다운 자세가 아니다. 만일 당일군들이 실속있게 일하지 않고 발라맞추면서 자기 낯을 내기 위하여 평가나 받을수 있는 일을 만들어 공명

이나 세우려 하거나 혁명의 리익, 인민의 리익은 어떻게 되든지간에 그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요술을 피우고 허물이나 감추려 한다면 그것은 곧 당과 외교를 하고 대중을 기만하며 자기 량심을 속이는것으로 된다.

우리 일군들은 사람들을 대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 량심을 속이거나 진실성이 없이 행동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항상 가식이 없고 정직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특전과 특혜를 요구하거나 공짜를 바라지 말고 청백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사생활, 경제생활에서 청백하지 못한 사람은 사업을 대담하게 내밀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요술을 피우게 되며 날을 세우지 못하고 원칙을 지킬수 없게 된다.

원래 먹고입는 문제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맡겨진 혁명과업을 제대로 수행할수 없으며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혁명가의 보람은 결코 잘 먹고 잘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가들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가장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일군들은 모든것을 혁명에 바쳐나선 혁명가답게 사생활, 경제생활에서 청백하여야 하며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수수하고 평범하게 살아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것은 혁명적 군중관점을 세우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인민의 충복인 우리 일군들의 본분이다.

오늘 우리 당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최대의 관심을 돌리고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여 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자세와 립장을 바로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군중관점이 바로선 일군들의 충복다운 자세와 립장은 인민생활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책임적으로 돌봐주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인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보고도 안타까와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지 않는 일군은 군중관점이 바로 섰다고 볼수 없으며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난날 항일유격대지휘관들은 자신은 덥고 배부를 때에도 대원들은 춥고 배고플수 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라고 하신 경애하는 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언제나 대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극진히 보살펴주고 따뜻이 위해주었다.

우리 일군들이 이러한 뜨거운 심정으로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준다면 그들은 사소한 불편도 모르고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며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려는 당의 의도와 구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은 인민생활을 일상적으로 돌보는것을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것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써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 군중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그들이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되게 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이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적 군중관점을 철저히 확립하고 인민의 참다운 충복이 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것이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원칙

김 재 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령도하는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의 하나는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는것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는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조직지휘하여 자연을 정복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관리는 원래 사람들의 공동로동이 진행되는 조건에서는 어느 사회에서나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된다. 사회적 집단이 있는곳에 지휘가 필요한것처럼 공동로동이 진행되는곳에 경제관리가 요구되는것은 필연적이다.

경제관리는 모든 사회에서 다 필요하지만 특히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건설이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이 목적의식성을 가질뿐아니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공동로동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며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사이의 기술경제적, 생산소비적 련계가 매우 복잡해지고 긴밀해지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경제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제건설도 매개 나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국가적 범위에서 통일적인 계획밑에 진행되여야 하며 사회주의 분배원칙도 국가를 단위로 하여 통일적으로 적용되여야 합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경제를 관리운영한다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의 모든 경영활동이 국가의 유일계획에 따라 중앙집권적으로 진행되고 국가계획수행에 복종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매개 기업소들이 절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업을 운영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오직 국가적인 지도와 통제 밑에서만 움직일것을 요구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조직과 자재보장, 수입분배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국가계획에 따라 진행하며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복종되도록 하는것이 바로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의 기본내용으로 된다.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실현하여야 대규모사회주의경제를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나라의 경제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훌륭히 복무하게 할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기업소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문제와 통일되여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실현

하는 문제가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맞게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것이라면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발양시키는 문제는 경영활동을 적극 개선하여 국가로부터 받은 경제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것이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은 다같이 사회주의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여 경제건설을 빨리 다그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책임지고있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국가앞에 지닌 의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사이에는 자그마한 모순도 없으며 본질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원칙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 요구와 관련되여있다.

집단주의를 생명으로 하며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제도도 역시 집단주의를 구현하고있다. 사회주의경제제도에서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있으며 그것을 보장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제도하에서는 응당 사회적 집단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경제관리를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제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사이에는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 사회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회제도에 의하여 규정되며 동시에 그것은 사회제도의 변화발전에 중대한 작용을 한다. 사회를 관리하는 방법은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에 맞아야 사회발전을 추동할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관리도 그것이 의거하고있는 경제제도에 맞게 진행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제도에 어긋나게 경제를 관리운영할 때에는 경제제도에 이질적인 변화가 생길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원칙과 혁명의 근본리익을 확고히 고수하지 못하게 되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여야 사회주의경제를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개인이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매개 공장, 기업소 종업원들의 소집단도 력사의 주체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이 매개 나라를 단위로 하여 주체를 이루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것이 오늘의 력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집단주의의 요구는 전사회적, 전국가적 범위에서만 가장 훌륭히 실현되게 된다. 경제건설도 국가적 범위에서 통일적인 계획밑에 진행되여야 그것이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원만히 추진되게 된다. 그러므로 집단주의를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오직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서만 옳게 관리운영될수 있으며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원칙으로 되는것은 또한 사회주의경제가 계획경제, 균형경제라는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사회주의경제는 전사회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적인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계획경제, 균형경제이며 인민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고유한 법칙이다. 사회주의경제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속도로 발전할수 있는것도 그것이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기때문이다. 계획성과 균형성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경제에 비한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인 우월성이며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도 바로 경제가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한다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제를 그 특성에 맞게 옳게 관리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국가가 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의 경영활동과 생산, 분배, 교환, 소비의 사회적 재생산고리들을 철저히 장악하고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합리적으로 맞물려주어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이 중요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국가가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경제생활 전반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사회적 로동의 랑비를 미리 막고 전사회적 범위에서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할수 있으며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균형을 주동적으로 유지하여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경제건설에서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의 요소를 철저히 극복할수 없으며 사회주의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관리운영하는 기본방법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 있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원칙으로 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에 기초하고있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은 경제관리권을 규정하며 소유의 단위는 경제관리의 단위를 규정한다.

사회주의국영경리에서는 기본생산수단이 전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되여있으며 국가를 단위로 하여 소유의 사회화가 실현되여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가지고있는 국가가 절대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경제관리의 단위도 바로 소유의 단위인 사회주의국가로 된다.

경제관리의 단위인 사회주의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인민경제를 전망성있게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사회의 통일적 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영기업소의 독립채산제도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서 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독립채산제기업소들은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자체로 채산을 맞추면서 기업을 운영하고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사회에서 국영기업소는 독자적인 소유의 단위가 아니며 어데까지나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의 테두리안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진행할뿐이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공장,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 사회주의경제를 더 잘 관리운영하자는데 있다. 독립채산제기업소들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정치도덕적, 물질적 자극을 주는것도 국가계획실행정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기업관리에 상품화폐관계를 리용하는것도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인 협동적 소유에서도 국가적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협동적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에로 발전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협동경리가 국영경리보다 사회화수준이 낮다고 하여 자연발생성에 내맡긴다면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과정을 다그칠수 없으며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빨리 없앨수 없다. 때문에 협동경리도 그 특성에 맞게 국가적 지도밑에 발전하여야 한다.

이 모든것은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원

칙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원칙이 시종일관 철저히 관철되여왔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공장, 기업소들의 독자성과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면서도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경제관리 체계와 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체계가 확립되여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원칙이 철저히 관철되고있으며 국영기업소의 독립채산제도 국가의 계획적 지도밑에 실시되고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기간 우리 나라 인민경제가 그 어떤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경제법칙에 맞게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빨리 발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원칙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것을 경제관리에 빛나게 구현해온 자랑찬 결실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적 경험은 우리 당이 제시하고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원칙이야말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정확한 경제관리원칙이며 이 원칙을 계속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는 바로 여기에 혁명의 근본리익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곧바른 길이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원칙을 철저히 견지하고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의 인민경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 우리 인민의 지향과 리익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현시기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경제를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우리 당이 창조한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생활력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84페지)

경제에 대한 지도관리는 경제관리체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확고히 옹호고수하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본으로 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고 경제지도와 기업관리에서 통일성과 계획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참으로 위력한 경제관리체계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지난 기간 우리는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실현할수 있었으며 사소한 편향도 없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전진시켜올수 있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혁명적 본질과 그 우월성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당정책의 본질과 그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는것은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

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당정책의 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끝까지 옹호고수할수 있으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경제관리리론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와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정당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경제관리체계이며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서도 비할바없이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라는것을 더욱 깊이 체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생산소비적 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우리 나라 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는 바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관철하는데 있다는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어느때나 그것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힘과 지혜를 다 바쳐야 한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련합기업소들을 잘 관리운영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나라 련합기업소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는 기업소조직형태이며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밑에 기업소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기업관리를 과학화, 합리화할수 있게 하는 우월한 기업형태이다. 련합기업소를 잘 관리운영하여야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련합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개선하여야 하며 련합기업소들에서는 계획단위, 생산단위, 집행단위로서의 위치에 맞게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밑에 경영활동의 전반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련합기업소의 생활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한다.

국가계획규률을 강화하며 경제지도일군들이 사업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는 것은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국가계획은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누구도 국가계획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오직 그것을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 국가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관리의 필수적 요구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국가계획을 정확히 수행할 때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더욱 원만히 실현되게 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장, 기업소에 맡겨진 국가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는 혁명적 규률을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휘하여야 한다.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와 기업소의 창발성이 통일되여있는것만큼 기업소들에서 일을 창발적으로 벌려나가야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더 잘 관리운영할수 있다. 련합기업소를 조직한 목적의 하나도 기업소들의 창발성을 적극 발양시키자는데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조건이 저절로 갖추어지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여 자체의 실정에 맞게 경영활동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한다.

오늘 우리 당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강화하여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가야 할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절박한 과업

리 학 철

오늘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전투적 과업을 내세우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전투적 과업은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지고있는 현실적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며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종국적으로 실현하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농촌기술혁명의 중심과업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여야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6권, 65페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농업생산에서 순차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작업공정을 기계로 수행하는 기계화의 높은 단계를 말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일관하게 힘을 넣고있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내용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가 이미 실현된 조건에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화학화와 함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킬수 있으며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하고 협동적 소유의 전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을 다그칠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가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켜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에 기초하고 높은 물질기술적 토대에 의거하는 선진적인 농촌경리제도이다.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대규모협동경리에 대한 관리운영방법을 옳게 해결하는것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새로운 농업지도체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가 실시됨으로써 대규모협동경리를 관리운영하는 문제가 이미 빛나게 해결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수단에 대한 집단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협동경리를 그 본성적 요구에 맞게 철저히 집단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하고있으며 이 집단주의적 방법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대규모협동경리의 관리운영방법이 빛

나지 해결된 오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의 하나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뜨락또르와 자동차를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면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며 나아가서 농업의 공업화가 적극 다그쳐지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영농준비로부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농공정을 공업에서와 같이 기술공정으로 확고히 전환시킬수 있으며 농업에서의 로동생산능률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가 추진될수록 소규모적인 개인경리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높은 생산력발전을 이룩하여 농업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이 더욱 높이 발양되게 된다.

이것은 현시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 바로 여기에 농업을 고도로 공업화, 현대화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우월성을 적극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절박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빨리 해방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한 다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비할바없이 강화하고 농민들의 힘든 로동을 훨씬 줄이였다. 그러나 농촌에는 아직도 공업로동보다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로동이 적지 않게 남아있으며 로동조건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차이도 일정하게 남아있다.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결정적 수단은 기계이며 생산력의 빠른 발전도 기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진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는 수공업적인 로동도구를 현대적 기계기술로 교체하여 농업의 기술장비수준을 공업의 수준에로 끌어올림으로써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영농작업들을 모두 기계로 하고 한사람이 다루는 경지면적을 늘일수 있게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가 실현될 때 농민들의 힘든 로동은 기계나 조종하는 홍겹고 헐한 로동으로 전변되게 되며 로동강도와 로동시간, 로동조건에서의 농업과 공업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농민들에게도 로동자들과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게 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절박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가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제를 마련할수 있게 한다는것과도 관련되여있다.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는 다같이 사회주의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이루는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낮은 형태인 협동적 소유는 그 사회화수준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하며 결국에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높은 형태인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여야 한다. 협동적 소유가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되여야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 차이가 없어지고 무계급사회가 실현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기 위한 방도의 하나는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방향에서 두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 있다. 협동적 소유와 전인민적 소유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를 강화하는것이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면 전인민적 소유의 현대적인 기계기술수단들이 협동농장들의 농업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것들이 노는 역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전인민적 소유의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농업생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록 두 소유의 직접적인 생산적 련계가 강화되고 협동적 소유에 대한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이 끊임없이 높아져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넘길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전제가 마련되게 된다.

이 모든것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절박한 과업으로 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 기간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기계화할수 있는 질이 높고 능률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들이 대대적으로 생산공급되여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농촌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주체농법에 맞는 씨뿌리는 기계, 모뜨는 기계, 모내는 기계, 논두렁을 깎고 매질하는 기계, 김매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영농준비로부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이르는 농사일의 모든 공정을 기계로 할수 있는 농기계들이 마련되여있다.

농촌경리부문에서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들은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기간에 1,5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완전히 해방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하루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모든 농사일을 기계로 할수 있는 기계수단들이 연구되고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공장, 기업소들의 물질기술적 토대가 강화되였으며 농작물재배에서의 경종체계도 기계화에 유리하게 더욱 개선되고있는 조건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적극 투쟁하면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짧은 기간에 완성할수 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현대적인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주는것이다.

농업은 공업과는 달리 필요한 기계수단들을 자체로 다 만들어내지 못하며 농촌경리부문에서 리용하는 농기계들은 거의다 일정한 영농시기와 영농공정에만 집중적으로 쓰이는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와 함께 령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는 비탈진 밭과 뙈기밭이 많고 벌방지대의 땅인 경우에도 주로 논으로 되여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빨리 실현하려면 각이한 영농시기와 영농공정,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농법에 맞는 현대적인 뜨락또르와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이 많아야 한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농기계생산분담을 더욱 짜고들고 그것을 맡은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농기계는 질이 높고 능률적이여야 현대적인것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 농기계생산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기계들을 보다 간편하고 견고하면서도 그 작용의 정확성과 정밀도가 높게 더 잘 만들어내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미 있는 농기계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이다.

우리 당의 옳바른 농업정책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는 농기계들이 대단히 많다. 지금 있는 농기계들만 효과있게 리용하여도 농촌경리부문의 어렵고 힘든 일을 거의다 기계로 할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다.

농촌경리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뜨락또르운전수들을 비롯한 농기계운전공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농촌기계화초병이 된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게 하며 긴장한 모내기철이나 가을걷이시기에 작업조건들을 더 잘 보장해주어 모든 농기계들을 만가동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부속품생산기지와 수리기지들을 더욱 강화하고 협동농장들이 복잡하지 않은 수리는 자체로 할수 있도록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여 모든 농기계들을 제때에 수리정비하며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관관리사업을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정리사업을 잘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은 포전을 따라 움직이는것만큼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자면 토지정리를 잘하여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구체적인 토지정리계획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토지건설사업소와 협동농장들과의 배합작전을 잘하여 당면한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에 토지정리사업을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 그리하여 불필요한 밭최뚝, 논두렁, 돌각담들을 없애고 토지를 잘 정리함으로써 모든 논밭을 규격포전으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촌경리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당과 국가 앞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을 책임진 혁명의 지휘성원이며 그들이 조직사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가 크게 좌우되게 된다.

농업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이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정치적 과업이며 그것을 빨리 완성하여야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는 옳은 관점을 가지고 높은 혁명성, 당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조건을 튼튼히 갖추는것과 함께 농기계기능공양성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어떤 복잡한 농기계도 능숙히 다룰수 있는 운전수, 운전공들을 많이 키워내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는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수 있다. 일군들은 이런 때일수록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걸린 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는 혁명적 기풍으로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빛나게 관철하여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다.

우리는 농촌경리를 종합적으로 기계화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현대적 기술로 더욱 튼튼히 장비하며 제3차 7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리 령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연극예술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신 불후의 고전적 로작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가 발표된 때로부터 열다섯해가 된다.

이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연극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새형의 《성황당》식 혁명연극이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을 다시 무대에 올린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개화발전하고있는 《성황당》식 혁명연극들은 주체예술의 대전성기를 더욱 빛내이고 있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이것은 우리 연극예술이 사상예술적으로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을 말해주고있으며 우리 당이 제시한 연극혁명방침의 정당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준다.

(1)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로작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할데 대하여》에서 주체적인 연극혁명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연극혁명위업을 완성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며 연극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시대와 연극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종래 연극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우리 식의 새로운 연극을 창작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였다.

새형의 혁명연극을 창작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할것을 요구한다.

연극예술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자면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과 요구를 구현하여야 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틀을 마스고 그 형식을 우리 시대 근로자들의 지향과 정서에 맞게 변혁하여야 한다. 그래야 연극이 관중들의 사상미학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하는데 실속있게 이바지하는 새로운 혁명연극으로 될수 있다.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을 창작하는것은 또한 연극예술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이기도 하였다.

진보적 문학예술은 계승과 혁신의 합법칙적 로정을 거쳐 끊임없이 발전한다.

시대와 생활의 변화발전은 예술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요구한다. 예술이 시대와 생활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미 만

틀어진 틀에만 매여달린다면 시대와 함께 전진할수 없으며 나중에는 사람들의 버림을 받게 된다.

18～19세기에 고착된 낡은 연극의 틀은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연극을 혁신하는것을 저애하고 새형의 혁명연극을 개척하는데 제동기적 작용을 하였다.

평면적인 극구성과 고정적인 무대미술, 사건조직과 행동위주의 연출과 연기, 극적 감흥을 동강나게 하는 무대전환과 막간조성 등 낡은 틀과 잔재로 하여 종래의 연극예술은 오늘의 시대적 미감에 맞지 않았고 관중의 사랑을 받을수 없었으며 기울어져가는 운명의 기로에 놓이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연극실태를 심오히 분석하시고 연극혁명의 필연성을 밝히시였을뿐아니라 연극혁명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심오한 해명을 주시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새로운 혁명연극의 성격과 우리의 시대극의 본질과 요구,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리론이다.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은 혁명하는 시대 인민들에게 복무하며 혁명적 군중의 지향과 정서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연극으로 되여야 한다.

주체시대에 맞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성격의 연극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시대극을 창조하는 문제가 나선다.

우리의 시대극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의 인간과 생활을 그대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반영한 연극이다. 우리의 시대극의 본질과 요구를 떠나서는 혁명하는 시대의 인민들에게 복무하며 혁명적 군중의 사상미학적 요구에 맞는 새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연극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우리의 시대극의 본질과 요구를 구현한 연극예술을 창조하자면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중요한 형상적 요구로 제기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연극창작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연극에서 립체성이 보장되여야 관중이 극장에 와서 무대에서 배우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산 인간의 움직임을 볼수 있으며 현실을 그자체의 모습대로 립체적으로 볼수 있다.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극작품에서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 그리고 사회관계의 본질적 측면들을 체현한 다양한 인간성격들을 생동하게 그리는것이 중요하다. 현실반영과 성격창조에서 이러한 사실주의적 요구를 충분히 구현하여야 관중이 무대에서 당대 현실과 산 인간을 립체적으로 볼수 있는 사상예술적 기초가 믿음직하게 마련될수 있다.

연극에서 립체성을 보장하자면 또한 립체적인 극구성법과 립체적인 무대미술형상을 개척하여야 하며, 감정조직과 화술형상을 위주로 하는 새로운 연출, 연기 체계와 방법을 세워야 하며, 음악을 연극의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받아들여 종합예술로서의 연극의 립체적 면모를 완전히 갖추어야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명연극 창작에서 나서는 근본적인 사상미학적 문제들에 가장 과학적이며 독창적인 해명을 주심으로써 연극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강령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극예술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연극혁명 사상과 리론을 밝혀주시였을

뿐아니라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연극혁명수행에서 본보기작품이 가지는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다시 형상하여 무대에 올리도록 하시고 그 창작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이 과정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작품의 양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문제를 비롯하여 인물의 성격을 잘 살리며 극조직과 대사조직을 잘할데 대한 문제, 진실한 화술형상을 창조하며 연극에 음악을 잘 배합하고 흐름식립체무대미술을 완성할데 대한 문제, 연극창조에 현대과학기술수단들을 잘 리용할데 대한 문제 등 실로 혁명연극 창작실천에서 나서는 크고작은 모든 문제들에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을 연극혁명수행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다.

국립연극단 창조집단은 우리 당의 독창적인 연극혁명방침과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연극 《성황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훌륭히 무대에 올림으로써 마침내 연극혁명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으며 기울어져가던 연극의 운명을 구원하고 인류연극사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새로운 장을 장식하게 되였다.

(2)

《성황당》식 혁명연극은 연극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혁신한 우리 식의 주체적인 연극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국립연극단 창조집단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성황당〉을 무대에 옮기는 과정에 연극예술부문에서 지난날의 낡은 형식을 대담하게 버리고 새로운 연극형식과 형상방법을 창조하였습니다.》

《성황당》식 연극은 종래의 연극과는 다른 일련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먼저 연극의 사상예술적 기초인 희곡문학의 내용과 형식을 혁신한것이다.

《성황당》식 연극은 우선 작품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줌으로써 공산주의인간학의 본질적 요구를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다.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의 인간학은 응당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좌우하는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에 맞게 예술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야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진 참다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하며 그들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혁명연극 《성황당》은 종교와 미신의 허위성과 반동성을 폭로하는것을 주제로 한 계몽적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그러나 연극은 사람들을 종교와 미신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쳐주는데 그치지 않고 없는 귀신을 믿을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는 철학적 종자를 밝히는데로 주제를 심화시켜 그들에게 주체시대의 인간이 지녀야 할 자주의식을 심어주고있다. 이것은 우리 혁명연극이 공산주의인간학의 요구를 구현하여 자주성에 대한 문제,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고 있다는것을 확증하는 하나의 실례이다.

《성황당》식 연극의 희곡문학은 또한 종래 연극의 막구성법과는 다른 립체적인 여러장 구성법을 개척하였다.

종래의 장막극에서는 대체로 기승전결의 사건체계에 따라 극을 3~5막으로 구성하고 거기에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내용을 무리하게 집중시킨것으로 하여 생활을 현실에서처럼 립체적으로 실감

있게 펼쳐보여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그러나 《성황당》식 연극의 여러장 구성법은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는 극조직에 의하여 생활을 여러장에 걸쳐 현실에서처럼 다양하고 생동하게 감동적으로 펼쳐보여주면서도 극적 집중화와 집약화의 요구를 생활의 론리에 맞게 무리없이 해결하여 현실을 매우 깊이있고 립체감이 나게 재현하고있다.

《성황당》식 연극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배우연기에서 형식주의적 요소들을 가시고 산 인간성격을 창조할수 있는 참된 사실주의연기형상체계를 완성한것이다.

《성황당》식 연극에 의하여 역인물의 성격과 생활에 대한 깊은 파악과 체험에 기초한 연기형상창조체계가 더욱 철저히 다져지고 화술형상을 위주로 하는 연기형상창조 체계와 방법이 확립된것은 배우연기에서 일어난 새로운 전환으로 된다. 이것은 진실한 연기형상을 창조할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고 대사를 기본형상수단으로 하는 연극의 형태상 특성을 충분히 살릴수 있는 가장 옳바른 형상방도가 탐구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황당》식 연극에서의 연기형상 체계와 방법의 이러한 특성들은 관중들로 하여금 무대에 나오는 인물들이 배우와 역인물의 형상적 통일에 의하여 완성된 《실제적인 산 인물》로 느껴질수 있게 하려는 사실주의적 연기의 본성적 요구를 높은 경지에서 해결할수 있게 하였다.

《성황당》식 연극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종래의 평면적이며 고정적인 무대미술의 낡은 틀을 마스고 흐름식 립체무대미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이다.

흐름식 립체무대미술은 무대 구성과 장치물의 배치에서 최대의 립체성을 보장하여 생활을 현실에서처럼 폭넓고 깊이있게 보여줄뿐아니라 흐름식 무대전환방법을 새롭게 창조하여 생활을 현실 그대로의 지속적인 운동과정에서 립체적으로 볼수 있게 하였다.

《성황당》식 연극에서는 흐름막과 환등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무대전환을 비롯하여 회전식 전환과 류동식 전환, 교차식 전환과 국부조명에 의한 전환 등 실로 다양한 방법으로 무대를 신속하게 전환시켜 연극의 모든 장면들이 영화의 화폭과 같이 하나의 흐름속에 생동하게 펼쳐지게 하고있다.

특히 한 장면이 끝나면서 무대앞으로 환등이 비친 흐름막이 서서히 흐르는 가운데 다음장면으로 넘어가는 방법은 《성황당》식 연극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매우 독특한 무대전환방법이다.

흐름식 립체무대미술은 이러한 특성들로 하여 무대우에 펼쳐지는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리고 지속적인 흐름속에서 립체적으로 보고싶어하는 우리 시대 관중의 미학정서적 요구를 훌륭히 해결하였으며 앞장면에서 일어난 극적감흥을 중단함이 없이 다음장면에로 지속시켜주면서 관중들을 극의 심오한 세계에로 깊이 끌어들일수 있게 하였다.

《성황당》식 연극의 중요한 특징은 다음으로 음악을 연극의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형상적 기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킨것이다.

《성황당》식 연극음악의 혁신적 특성은 음악의 형상적 기능을 연극의 형태상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양시킬수 있는 방창형식과 련결음악형식을 새롭게 개척한데 있다. 여기에서 방창은 대체로 한절로 구성된 독창형식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많은 경우에 연기자의 무언동작과 배합되여 불리운다. 방창은 작품의 주제사상적 알맹이를 제시하고 등장인물들의 처지와 사상정서적 및 개성적 특성을 부각하며 극의 양상을 특징지어주는 등 실로 다방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성황당》식 연극음악에서 련결음악은 흐름식 무대전환과 배합되여 장과 장사이를 사상정서적으로 이어주고 다음장에서 벌어질 사건을 암시함으로써 관중들로 하여금 지속되는 극적 감흥과 기대를 가지고 극세계에 깊이 끌려들어가

게 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있다.

이러한 중요한 특징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연극혁명방침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 탄생한 《성황당》식 연극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혁신한 새로운 형의 시대극이라는것을 남김없이 확증하고있다.

（3）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은 그 정당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창작실천에서와 사람들의 사상정서적 교양에서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성황당》이 새롭게 형상되여 무대에 올라서 10년도 못되는사이에 이미 100여만의 관중을 대상하여 1,500여회나 공연한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미감에 맞게 형상된 이 새로운 형의 혁명연극이 광범한 관중들에게 커다란 사상정서적 감화력을 가지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이 이 연극을 얼마나 열렬히 사랑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실례이다.

연극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사랑과 지지를 받자면 시대가 제기하는 절박한 사회적 문제에 옳바른 예술적 해답을 주어야 하며 특히 시대적 미감에 맞는 참신하고 매혹적인 형상세계를 펼쳐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은 무대에서 벌어지는 생활에 미적감흥을 가지고 사상정서적으로 끌려들어가 거기에서 삶과 투쟁의 진리를 심장깊이 체득할수 있다.

《성황당》식 연극은 연극창작에서 나서는 이러한 원칙적 요구를 높은 경지에서 해결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연극사에 길이 빛날 창조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당의 령도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공연된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롭게 형상하여 다시 무대에 올린것이다.

최근 몇해사이에 우리 연극예술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지도와 육친적인 배려에 의하여 혁명연극들인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을 《성황당》식으로 형상하여 무대에 올림으로써 인민들로부터 열화같은 환호와 아낌없는 찬사를 받고있으며 전례없는 연극의 대륭성기를 맞이하고있다.

이 혁명연극들은 그 주체사상의 철학적 심오성과 예술적 형상의 완벽성으로 하여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명작으로서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며 그 빛을 찬연히 뿌리고있다.

이 혁명연극들이 이룩한 귀중한 성과들은 불후의 고전적 명작을 다시 무대에 올리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들을 훌륭히 해결한것과 관련되여있다. 혁명연극들에서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들을 다시 형상하는데서 원작에 무조건 충실하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생활의 폭을 넓히며 예술형태의 특성에 맞게 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문예방침이 철저히 구현되고있다.

이 혁명연극들은 무엇보다먼저 원작의 철학적인 종자와 주체사상을 철저히 살리고 그것을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폭넓게 심화함으로써 우리 시대 인간들이 체득하여야 할 참된 삶과 투쟁의 진리를 설득력있게 밝혀주고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큰 나라를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피의 교훈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자주의식을 깨우쳐주고있으며,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문맹퇴치문제를 취급하면서 사람은 알아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었으며, 혁명연극 《3인1당》은 파쟁과 분렬은 망국의 길이라는 력사의 교훈을 통하여 단결의 진리를 안겨주고있다.

이것은 이 혁명연극들이 력사적 주제와 계몽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그 주제사상을 철학적으로 심화하여 근로자들의 주체사상교양에 이리모로 매우 심도있고 폭넓게 이바지하고있다는것을 잘

시사해준다.

이 혁명연극들은 또한 원작에 튼튼히 의거하여 생활의 폭을 알맞춤하게 넓히고 그것을 력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성의 견지에서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리는데서도 빛나는 창조적 모범을 보여주었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에서는 혁명전통물과 일반력사물의 계선을 똑바로 긋고 력사적 인물들의 진보성과 제한성을 정확히 밝혔으며 애국지사의 성격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인정선을 안은 구체적인 생활과정속에서 산 인간으로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하였다.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원작이 담은 생활의 시대적 및 지대적 특성에 맞게 소박하고 아담한 극형상을 추구하면서 배우기 싫어하는 주인공의 개변과정을 생활의 론리에 맞게 설득력있게 밝혔으며 생활과 성격에서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오도록 극조직을 짜고드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혁명연극 《3인1당》은 환상적인 나라 송도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리조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생활의 론리에 맞게 전개하여 현실감이 나고 믿음이 가게 형상하였으며 특히 인물들의 개성을 뚜렷이 살리는 창조적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혁명연극들은 또한 원작의 양상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게 훌륭히 살려내는데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혁명연극 《혈분만국회》는 비극적인 요소가 진한 혁명적 정극으로, 혁명연극 《딸에게서 온 편지》는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호상관계, 극조직과 전개 등에서 정극적인것과 희극적인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양상의 연극으로 그리고 혁명연극 《3인1당》은 부정인물만으로 웃음속에서 교훈을 주는 혁명적 풍자희극으로 각각 독특한 사상예술적 면모를 과시하고있다.

또한 이 혁명연극들은 연출, 연기, 무대미술, 연극음악 등 모든 형상요소들에서 《성황당》식 연극의 창작 원칙과 요구를 양상적 특성에 맞게 보다 높은 경지에서 구현하는 창조적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은 최근년간에 나온 다양한 현실주제의 연극들에 의해서도 그 생활력을 과시하고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감명깊게 구가한 《조국의 품을 찾아서》, 당과 수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참신한 극형상속에 생동하게 보여준 《초석》, 《맑은 하늘아래 비낀 아침노을》, 군민일치사상을 흥미있게 형상한 《어머니와 아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감동적으로 밝혀준 《이 길을 간다》 등 연극들은 《성황당》식 연극의 창작 원칙과 요구를 작품의 주체사상적 내용과 형식의 특성에 맞게 잘 구현하여 만든 대표적인 성과작들이다.

우리 나라에서 연극혁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연극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연극혁명방침이 가장 정당하며 그 구현을 위한 당의 령도가 현명하였기때문이다. 정녕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는 지칠줄 모르는 정력적인 문예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기울어져가는 연극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이 땅우에 《성황당》식 혁명연극의 새시대를 펼쳐놓으신 예술의 걸출한 영재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시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면서 창작사업을 하는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다.

오늘 우리 연극예술앞에는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주제의 《성황당》식 연극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더 왕성하게 창작해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연극부문 창작가, 예술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우리 당의 문예방침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창작예술적 기량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창작임무를 더욱 빛나게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

량 인 환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 사업방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지난 기간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이 전진시켜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일정한 단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단행본, 101페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한다는것은 중요한 한 단위를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모범이 될수 있는 경험을 창조하고 그것을 모든 단위들이 본받게 함으로써 전반사업을 추켜세운다는것을 말한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실물을 통하여 일군들을 실속있게 가르쳐주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방법이다. 이 방법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을 통하여 일군들로 하여금 풍부한 경험을 체득하게 하며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는 과정에 많은 일군들을 실물로 교양함으로써 그들이 확고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것은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지도방법이다. 이 방법은 생동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도하는것이기때문에 일군들속에서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없애고 지도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그것은 또한 구체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타산하여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조직하고 지도함으로써 사업에서 과학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중요한 사업방법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항일혁명의 나날 항일유격대안에서와 유격근거지들에 빛나게 구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당 및 국가 건설, 경제건설의 모든 분야에 이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구현하시여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본보기로 하여 전반사업을 추켜세울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 령도방법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구현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더욱 힘있게 추진되여나가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이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본보기단위대상을 옳게 선정하며 선정된 단위에서 혁신이 일어날 때까지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근기있게 지도할데 대한 문제, 창조된 모범을 제때에 모든 단위에 일반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방법을 옳게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구체적

으로 밝혀주시였으며 몸소 그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실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의 력사, 그것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일반화하여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온 자랑찬 투쟁과정으로 빛나고 있다.

강동군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내세우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모범단위를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과정에는 예상치 않던 애로와 난관도 있었고 부족점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는 편향을 바로잡으면서 일정한 경험을 얻게 되였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우리가 얻은 중요한 경험은 우선 본보기대상을 옳게 선정한것이다.

본보기대상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따라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의 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본보기단위를 옳게 선정하여야 짧은 기간내에 력량을 집중하여 전형적인 모범단위를 창조할수 있으며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도 제때에 벌려나갈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 군당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이 일반적으로 포치하다나니 위원회의 거의 모든 부서들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내려가 저마다 본보기단위를 선정하고 도와주는 사업을 벌려나갔다. 결과 본보기라고 내세운 단위가 수십개씩 되고 모범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린지도 여러해가 지났으나 어느 하나 똑똑한 모범단위는 없었다.

본보기단위를 창조하는 목적은 한 단위의 사업을 최단기간에 최상의 수준에 끌어올려 다른 단위들이 따라배우게 함으로써 전반사업을 빨리 추켜세우자는데 있다. 그런것만큼 본보기단위는 응당 력량을 집중하여 최대한 짧은 기간에 그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선정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의 력량에 대한 구체적 타산도 없이 무턱대고 많은 단위를 설정하여 력량을 분산시켰으므로 이 사업이 잘될수 없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농촌부문에서는 봉화협동농장, 공장부문에서는 강동다이야공장을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모범단위를 정하게 된것은 봉화협동농장이 유서깊은 혁명사적지에 자리잡고있으며 군농업생산의 많은 몫을 차지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농장을 잘 꾸리고 추켜세운다면 전반적 군의 농업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줄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강동다이야공장은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일군들의 기업관리운영수준이 낮은 형편에서 이 단위를 모범단위로 끌어올린다면 다른 단위들에 주는 영향도 좋고 동시에 농촌기계화를 다그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정치경제적으로 의의가 있는 몇개 단위를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거기에 군당위원회적인 력량을 집중하여 모범을 창조하도록 하였다.

본보기단위를 옳게 정하고 력량편성을 바로한 결과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에서는 유리한 점이 많았다. 그것은 우선 책임일군들의 지도가 더 잘 미치게 되여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을 보다 강력히 추진시킬수 있었다. 위원회의 부서와 과별로 력량을 분산해놓고 어느 한 단위에도 똑똑히 힘을 넣을수 없었던 지난 기간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책임일군들을 비롯한 강력한 지도력량이 공장, 기업소와 협동농장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그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하나의 부서나 과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려웠던 문제들도 제때에 풀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경험은 정치경제적으로 의의가 있고 제기된 과업의 특성과 구체적 력량에 맞게 본보기단위를 선정할 때만이 모범

단위를 창조하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위원회안의 부서들과 과들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하여 선정된 단위에 대한 모범창조사업을 실속있게 지도한것이다.

배합 및 협동 작전은 당위원회의 부서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보조를 같이하여 위원회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가게 하는 당조직들의 중요한 활동형식이다.

당위원회앞에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제기되여 어느 한 부서의 힘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과업들이 련이어 나서게 된다. 군당위원회가 자기앞에 제기된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자면 모든 부서들을 다 발동하여야 하며 그 력량을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도 바로 어느 하나의 부서나 과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위원회안의 모든 부서와 과들의 긴밀한 배합 및 협동 작전을 벌리나갈 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배합 및 협동 작전의 위력을 강동다이야공장을 본보기단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통하여 실지 체험하게 되였다.

강동다이야공장은 농촌기계화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륜전기재들의 다이야를 생산보장할 목적으로 1970년대에 건설되였다. 그러나 원료와 자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다나니 이 공장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었으며 그 은을 나타내지 못하고있었다.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공장안에 행정규률과 로동규률이 잘 서있지 못하고 일부 로동자들속에서는 주인다운 기풍이 없이 다른 공장으로 뜰 생각만 하고있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군당집행위원회에서는 생산과 기업관리에서 가장 뒤떨어진 단위인 다이야공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본보기단위로 끌어올리고 그 모범을 온 군안에 일반화할데 대하여 토의하고 집행계획을 세웠으며 단계별 목표에 따르는 면밀한 조직사업을 따라세웠다.

군당위원회가 내세운 과업을 실현하는 과정에 우리는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것보다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고있다는것을 알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았다. 원인은 군당위원회의 부서들이 서로 합심하고 보조를 같이하는 배합 및 협동 작전이 잘되지 않은데 있었다. 군당의 많은 일군들이 공장에 나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걸린 고리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맞물리는 사업이 잘되지 않아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이 저마끔 진행되였다. 결과 공장로동자들은 들볶이우고 생산은 올라가지 못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우선 당내부사업을 맡아보는 기본부서들인 조직부와 선전부가 배합작전을 잘 벌려나가도록 하였다.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은 서로 분리할수 없는 당내부사업의 두 구성부문인것만큼 조직부와 선전부가 배합작전을 잘하면 당사업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고 제기된 혁명과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조직부와 선전부 일군들은 서로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 밀접한 련계를 보장하면서 당원들의 당생활을 전면적으로,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장악된 자료를 서로 통보하면서 당생활에서 나타나는 결함들을 바로잡기 위한 협의를 정상화하였다. 그리하여 실정에 맞는 옳은 교양대책을 세우며 모든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질서를 세워나갔다. 배합작전으로 지도사업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국가에서 원료를 대주기전에는 생산을 정상화할수 없다는 관점을 가지고 예비를 동원하고 창발성을 발휘하면 자체로도 능히 할수 있는 일마저 하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우리는 공장의 일이 잘되지 않고있는

걸린 고리가 일군들의 사상관점에 있다는것을 포착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데 모를 박고 조직정치사업을 벌려나갔다. 이때에도 우리는 배합작전의 방법으로 부서들에 분공을 철저히 주어 선전부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제힘을 믿고 제발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립장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벌리도록 하고 조직부는 충실하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장지휘성원들을 꾸려주며 당원들의 당생활지도를 통하여 혁명과업수행을 지도방조하도록 하였다.

공장에 나간 군당일군들은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혁명초소를 사랑하며 경제과업수행에서 주인다운 기풍을 발휘하도록 사상동원부터 하였다. 특히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오늘의 조건에서 가장 긴요한 문제는 국내산자재로 생산을 보장하는것이며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벌리고 그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하여주었다. 이것은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고 기술혁신에서 제기되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낡은 고무를 되살려내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재를 탐구해냄으로써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게 되였다.

오늘 강동다이야공장은 매해, 매달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수행하며 로동자들속에서 주인다운 기풍이 높이 발휘되여 두번이나 26호모범기대공장칭호를 수여받은 공장으로 되였으며 생산과 생산문화, 기업관리에서 모범단위의 면모를 원만히 갖추게 되였다.

이 모든 사실은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은 당위원회의 력량을 집중하여 배합 및 협동작전의 방법으로 풀어나갈 때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얻은 중요한 경험은 또한 창조된 본보기단위의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간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벌려만 놓을것이 아니라 한가지 사업을 포치하여도 끝장을 내며 모든 사업을 섬멸전의 방법으로 모가 나게 해제낌으로써 끊임없이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는것은 우리 당 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혁명가적 기풍의 하나이다. 사업을 벌려만 놓고 이 과업을 받으면 저 일을 그만두고 저 과업이 제기되면 이 일을 내버리는 식으로 어느 하나의 과업도 마무리 하지 못하게 되면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할수 없는것이다.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는 사업도 일단 시작한 일인것만큼 다른 단위에 일반화할 때까지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는 과정에는 여러가지 과업들이 제기되며 예상치 않았던 애로와 난관들이 조성될수 있다. 더구나 당의 로선과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우리 당의 말단지도기관이며 집행단위인 군당위원회들앞에는 새롭고 중요한 과업들이 련이어 제기된다. 그 모든 과업들을 놓치지 않고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면서도 창조된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자면 하나씩 모가 나게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려야 한다.

강동군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나라받건설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우리 군을 여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하시면서 하리협동농장의 100정보다락밭을 본보기단위로 내세워주시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강동군이 전국의 모범이 될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군당위원회앞에 많은 과업들이 제기되였으나 우리는 농사철전으로 다락밭건설공사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끼기로 결심하고 군안의 모든 력량과 수단들을 총동원하였다.

우리 군당위원회와 군안의 인민들은 자기의 힘과 지혜로 불과 두달도 못되는 기간에 또다시 100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하여 강동군이 다락밭건설을 잘한다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게 되였다. 실천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상 가르치신바와 같이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섬멸전을 벌리는것이 모든 사업에서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방향에서 일을 조직한다고 하여도 거기에 그친다면 시작한 일을 똑똑히 끝맺지 못할뿐아니라 사업에서 성과를 바랄수 없다. 한 단위의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은 한두번의 섬멸전을 벌리는것으로 끝낼수 없으며 끊임없이 재포치하고 근기있게 내밀어야 한다. 아무리 력량을 집중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더라도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은 항구적인 사업으로 나서며 현실은 보다 새로운 모범을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다락밭건설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밀고나가기 위하여 계속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근기있게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경사지의 지역적 특성에 따르는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을 동원하여 다락밭건설에서 발휘된 모범적인 사실들을 널리 소개선전하였으며 본보기단위에서 체계적으로 키운 후비간부들을 다른 단위에 파견하여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락밭건설을 위한 강습과 경험교환회, 참관조직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계속 모범을 일반화하여나갔다.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신 하리 100정보다락밭 건설경험을 온 군안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근기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오늘은 화강리, 란산리를 비롯하여 여러 리들에서 소출이 높지 못하던 많은 경사지밭을 다락밭으로 전변시켰으며 해마다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는 알곡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게 되였다.

실천적 경험은 당이 의도하는대로 한 단위에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훌륭히 구현할 때 당사업과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는 끊임없는 앙양을 가져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모범단위들이 계속 빛을 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내세워줌으로써 그것을 일반화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것을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창조하신 본보기단위를 계속 빛내여나가는것을 자기의 신성한 본분으로, 당사업에서 반드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커다란 힘을 집중해나갈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을 확고히 틀어쥐고 나감으로써 군을 더 잘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여나갈데 대한 당의 의도를 더욱 철저히 관철해나갈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

리 창 선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미제의 모험적인 《힘》의 정책과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여있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 새 전쟁위험이 가장 큰 지역으로 되여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시기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또다시 성명을 발표하여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남조선주둔 미군도 이에 병행하여 철수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았다.

이 새로운 군축제안은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과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을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제안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금 이 중대한 제안을 실현함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1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된 강토에서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려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 당은 우리 민족의 이 절박한 숙원을 풀어주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의무로 간주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방침입니다.》(《사회주의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132페지)

우리 나라에서 첨예한 정세를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우리 당의 이와 같은 평화애호적 립장은 무엇보다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반전, 평화에 관한 우리 당의 로선과 방침의 정당성과 견인력도 주체사상에 원천을 두고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앞길을 휘황히 밝힌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인류력사에서 침략과 략탈,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인민대중의 세기적 숙망과 최고의 리상을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한 길을 밝힌것이 바로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그 혁명적 본성으로부터 온갖 침략전쟁에 근본적으로 대립한다. 반침략과 평화는 자주적인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의 필수적 요구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해명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의 길을 밝힌 혁명사상이다. 민족에 의한 민족의 압박, 국가에 의한 국가의 지배를 영원히 종식시키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요구와 지향이 주체사상에 구현되여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발전을 지향하고 요구하는 그 특성으로부터 평화애호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평화는 나라와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륭성번영의 중요한 담보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삼고있기때문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은 또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야 할 력사적 사명과도 관련된다.

주체위업을 수행하는데서 오늘 우리 당앞에 나서고있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이다.

우리 당은 지금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는것을 당면한 중요임무로 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고있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이 력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래야 인민대중은 자기의 창조적 지혜와 재능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정세가 항시적으로 긴장되여있고 전쟁위험이 떠도는 환경속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려나갈수 없으며 더우기 전쟁은 사회주의건설을 지연시키고 저애한다. 평화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된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임무의 하나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며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재통합하여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조국통일문제의 이와 같은 본질로부터 우리 당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데 대한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이와 같은 립장은 조국통일문제가 끊어진 민족적 뉴대를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며 그렇게 하는것이 전체 조선인민의 념원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문제가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민족내부문제인것만큼 그것을 해결하는데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해야 할 아무런 근거도 리유도 있을수 없다.

북과 남사이에 비록 사상과 제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것이 결코 같은 민족끼리 싸울 근원으로 될수 없다. 제도와 리념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들사이에도 전쟁이 반드시 일어나는것이 아닌데 하물며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킬 근거가 있을수 없는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조성되여있는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은 미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조성된것이며 이것은 우리 인민의 의사와 념원과는 어긋나는것이다.

민족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제거한다면 나라의 통일문제는 전쟁이 없이 우리 민족자체로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당은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미제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와 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립장은 또한 세계평화위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세계평화의 한 부

분이며 조선에서 평화가 보장되여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도 유지될수 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수많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륙무기가 배비되여있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민족뿐아니라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에게도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초래하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직접 잇닿아있는것만큼 우리 당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우리 당은 이와 같은 평화애호적 립장으로부터 지난 기간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왔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길이 꺼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로 수많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다.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우리는 우리와 미국, 남조선사이의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평화제안을 내놓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한것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3자회담을 제의한것은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측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아무런 호응도 보이지 않았을뿐아니라 판문점총격사건을 도발하고 사상 류례없는 대규모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등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데로 나아갔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는 1985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4차회의에서 다시 북남국회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민족적 화해와 신뢰를 도모하며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 조치로서 쌍방사이에 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할것을 제의하였다. 이것은 비록 3자회담이 실현되기 이전이라도 나라의 평화문제를 가능한한 북과 남이 할수 있는데까지 풀어나가려는 진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우리는 《국제평화의 해》인 지난해에도 극도로 첨예화되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어떻게 하나 완화의 방향으로 돌려세우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는 지난해 6월에 북과 남에 있는 군실권자들로서 군사당국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9월에는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력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을 가질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이 제안은 우리 나라에서 날로 격화되는 정치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민족내부에 진정한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중단된 여러 갈래의 대화를 다시 잇고 나아가서 최고위급회담을 열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통일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킬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구국대책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수많은 평화제안들을 내놓았을뿐아니라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함으로써 사기의 진지한 평화애호적 립장을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우리는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직후에 벌써 북과 남의 무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일

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주동적으로 8만명의 인민군대무력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합리적인 평화조치들을 취하였다.

지난해초에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팀 스피리트 86》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할것을 예견한 조건에서도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에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일방적으로 중지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였고 뒤이어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전쟁위협이 떠도는 긴장한 정세에서도 15만명의 병력을 전연과 초소에서 철수시켜 평화적 건설에 돌리는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에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위정자들은 우리의 평화제안들이 나갈 때마다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을 떠들며 우리의 평화적 발기들을 덮어놓고 《위장평화공세》라고 비난하면서 어느 하나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뿐아니라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모든 사실은 누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누가 분렬과 대결, 전쟁 정책을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2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이며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문헌, 123페지)

우리 당과 정부는 최근에도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이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공화국정부는 지난 7월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조선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서 북과 남사이에 단계적인 무력축감을 실시할데 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성명에는 북과 남의 무력을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축소하여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며 북과 남의 병력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여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할데 대한 제안이 들어있다.

성명에서는 또한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무력철수정형을 호상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할데 대한 문제, 무력축소정형과 철수정형을 단계별로 검증할데 대한 문제,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킬데 대한 문제 그리고 이 모든것을 토의하기 위한 다국적 군축협상을 래년 3월에 진행할데 대한 문제 등이 담겨져있다. 이와 함께 공화국정부는 성명에서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어놓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축소할데 대하여 천명하였다.

공화국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군축제안은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의 기본요인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도를 밝혀준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이 제안은 무엇보다도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축소하는 방법으로 군사적 균형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전쟁위협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제안이다.

군비경쟁과 무력증강의 길은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을 유발하는 결과밖에 가져올것이 없으며 그와 같은 방법으로

는 아무리 《힘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막을 길이 없다.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북과 남이 서로 대치되여있는 조건에서 일방의 무력증강은 대방의 무력증강을 가져오게 되며 결국은 더 높은 단계에로의 군비경쟁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므로 군사적균형은 오직 무력을 호상 축소하는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가 10만명의 병력을 호상 유지하자고 한것은 현대전의 견지에서 보나 조선반도의 실정에서 보나 어느 일방도 대방을 공격할수 없고 자체방위에만 필요한 최저수준의 병력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와 같은 최저수준에서 북과 남이 균형있게 병력을 유지하고 외국군대도 외국군사기지도 없게 되면 쌍방이 다 같이 침략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것이며 그 어떤 무력충돌도 없게 될것이다.

이번 군축제안은 또한 어느 일방의 립장이나 요구만이 아니라 유관측 모두의 립장과 요구도 고려하여 내놓은 공명정대한 제안이다.

조선반도에서의 군축은 어느 일방이 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무력을 축감할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실현될수 없으며 서로 다른 리해관계로 하여 어느 일방에게 손해와 피해를 주는 방법으로도 이루어질수 없다.

이 제안은 북과 남이 다 함께 오해와 불신을 가지지 않고 그 어떤 위협도 받음이 없이 온 민족이 단합하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촉진하고 민족의 륭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미국도 남조선에서 자기 체면을 손상당함이 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자기의 모든 무력을 철수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이 제안은 북과 남의 무력축소와 미군철수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진행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킬데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단계적인 군축사업을 철저히 공정하게 추진시킬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된 이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군축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지난 7월말 조선인민군 각 군종, 병종들에서 1987년 12월말까지 10만명의 장병들을 제대시켜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진출시킬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이번 제안이 그 어떤 선전적 목적이 아니라 실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우리의 이번 군축제안과 실천적 조치는 그 공명정대성과 현실성으로 하여 세상에 발표되자부터 전체 해내외동포들은 물론 평화애호적인 세계 여러 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반향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의 수많은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 개별적 인사들은 공화국정부의 성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여 성명과 호소문, 담화 등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이번 군축제안을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노력의 산물》, 《조선의 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정한 념원의 표시》, 《새시대의 정신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제안》,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강조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측이 이 제안에 응해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군축협상제의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미국은 군축문제는 《남북당사자들》이 마주앉아 론의하여야 한다는 구실을 들고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였다.

《남북당사자들》이 군축문제를 토론하여야 한다는것은 침략자의 궤변이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조성하고있는 당사자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미국이 그 첫째가는 당사자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4만여명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들을 전개하고있으며 군 100만에 달하는 남조선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해마다 핵전쟁준비를 위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들을 벌리면서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보장하는 문제에서 제3자처럼 행세하려고 하는것은 참으로 철면피하기 그지없는것이다.

남조선당국도 우리의 제안을 외면하면서 지난 8월 3일 《외무부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기존대화》의 재개와 이른바 《수자원문제》, 남북의 《유엔가입》 및 4강에 의한 《교차승인》문제, 군축을 포함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문제, 총리회담실현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외무부장관회담》을 진행할것을 제기하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들고나온 《남북외무부장관회담》제안은 결국 《두개 조선》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을 추구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제의한 군축제안과는 인연이 먼것이다. 더우기 그들이 미국을 참가시킴이 없이 《군축문제》를 토의하자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군축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성된 난관을 타개하려는 립장으로부터 다시금 신축성있는 새 제안을 내놓았다.

지난 8월 6일 우리 외교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하여 군축문제를 비롯한 긴장완화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미국무장관도 참가하는 북남외교부장회담을 진행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8월 13일 《외무부대변인성명》에서 《민족자결》이니, 《제3자의 개입》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도 참가하는 북남외교부장회담을 반대하고 《유엔동시가입》과 《교차승인》 문제들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외무부장관회담》을 개최할것을 다시 되풀이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군축협상에서 미국을 배제하여 군축문제토의를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바와 같이 통일문제해결에서 구현하여야 할 원칙이지 결코 군축문제해결에서 그대로 구현하여야 할 원칙은 아니다.

군축문제는 순수 민족내부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주되는 책임있는 당사자인것만큼 군축회담에 미국이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회담은 탁상공론으로 될수밖에 없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8월 28일 외교부대변인성명에서 미국무장관도 함께 참가하는 북남외교부장회담을 열것을 다시 주장하면서 이를 위한 부부장급 예비회담을 지체없이 개최할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다면 북과 남사이의 예비회담이라도 먼저 시작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새로운 군축협상제의에 아직 긍정적인 호응을 보이지 않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는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대책을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는데 관심이 있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생각이 있다면 하루빨리 우리의 새로운 군축제안에 긍정적인 호응을 보여야 할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계속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의 위업은 정당하며 반드시 이룩되고야말것이다.

10월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권 민 준

레닌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철쇄를 끊어버리고 사회주의10월혁명을 수행한 때로부터 70년이 된다. 력사적으로 길지 않은 이 기간에 지구상에는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혁명적 변혁이 일어났으며 세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지구의 동반구와 서반구를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에 확고히 뿌리를 내리고 날을 따라 승승장구하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더욱더 많은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위대한 력사적 전환이다.

나라와 민족들이 사회주의에로 나아가고 사회주의가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며 전세계에서 승리하고있는것은 우리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고있다.

* *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로씨야인민의 생활과 세계혁명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 사변이였다.

19세기말～20세기초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단계에로 넘어가면서 로씨야에서는 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였으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짜리전제제도를 전복하고 자기의 계급적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레닌은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기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았다. 레닌주의에 의하여 자본주의의 최후단계인 제국주의의 력사적 지위가 해명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이 론증되였으며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혁명승리에 관한 리론이 밝혀졌다. 레닌주의는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 시기의 맑스주의이며 프로레타리아혁명의 리론과 전략전술이다. 레닌주의가 창시됨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해방투쟁의 위력한 사상리론적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레닌은 로씨야로동계급의 전위당, 볼쉐위크당을 창건하고 그 두리에 로동자, 농민을 묶어세웠으며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조직동원하였다. 레닌과 볼쉐위크당은 혁명의 주객관적 정세가 조성되자 제때에 무장폭동으로 정권을 쟁취할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제시하고 로동자, 농민, 병사들을 결정적인 무장투쟁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사회주의10월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로씨야로동계급이 수행한 사회주의10월혁명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위대한 전환의 새시대를 열어놓고 인류의 광명한 앞길을 처음으로 밝혀준 력사적 사변이였습니다.》

10월혁명이 승리함으로써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로씨야에 사회주의국가가 출

현하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지주, 자본가의 예속과 억압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섰다.

사회주의10월혁명은 한 착취제도를 다른 착취제도로 바꾸어놓은데 불과하였던 종래의 모든 혁명과는 달리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영원히 근절한 세계에서의 첫 사회주의혁명이였다. 10월혁명의 승리로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상으로부터 산 현실로 전환되였고 자본주의의 《영원성》에 대한 신화가 깨여졌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넘어가는 력사적 전환의 새 기원이 열리였다.

10월혁명의 승리는 자본의 철쇄와 식민주의의 예속에 얽매여 신음하던 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을 각성시키고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다.

사회주의10월혁명의 승리는 레닌의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였다. 10월혁명에 의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운동에서 수령은 결정적 역할을 하며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탁월한 수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가 확증되였다.

10월혁명이후 쏘련인민은 쏘련공산당의 령도밑에 10월의 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렸다.

쏘련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침략과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고 10월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쏘련의 존재자체를 극도로 증오하고 두려워하면서 청소한 쏘베트국가를 요람기에 압살함으로써 지구우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없애고 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혁명운동을 가로막아보려고 책동하였다. 10월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은 쏘련인민의 생사존망을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였을뿐아니라 세계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쏘련인민은 레닌과 볼쉐위크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련합세력들과 국내반혁명도당의 무력침공을 격파함으로써 쏘베트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였으며 세계혁명발전을 크게 추동하였다. 10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는데서 쏘련인민이 이룩한 승리는 그 어떤 힘으로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인민들을 정복할수 없으며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쏘련인민은 또한 제국주의의 포위속에서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를 선참으로 건설하고 자기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쏘련의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쏘련공산당의 령도밑에 단독으로 안팎의 계급적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레닌이 제시한 길을 따라 사회주의공업화와 농업집단화의 력사적 과업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쏘련인민이 이룩한 성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할수 있게 한 중요한 밑천으로 되였다. 쏘련인민은 전후 사회주의의 생활력에 튼튼히 의거하여 파괴된 인민경제를 빨리 복구하고 자기 조국을 발전된 경제력과 위력한 국방력, 현대적 과학기술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쏘련에서 사회주의의 성과적 건설과 위력의 장성은 세계의 면전에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였으며 세계 수억만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고무하였다.

오늘 형제적 쏘련인민은 당 제27차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고 나라의 전반적 위력을 강화하며 사회주의를 전면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공동의 국제적 위업이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나라

들은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한 나라들이 세계혁명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세계에서 첫 사회주의나라였던 쏘련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특히 쏘련인민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전쟁의 중하를 걸머지고 파쑈독일과 제국주의일본을 격멸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류는 파시즘의 위협으로부터 구원되였으며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자유로운 새생활을 창조할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세아와 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가 세계적인 체계로 전환된것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직접적인 계속이였으며 국제로동계급과 세계피압박인민들이 쟁취한 위대한 전취물이였다. 사회주의가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를 이루게 됨으로써 세계적 범위에서 제국주의의 멸망과 사회주의의 승리가 더욱 촉진되게 되였다.

오늘 쏘련 당과 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려는 책임적인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제국주의자들의 군비증강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우주의 군사화를 막으며 현세기말까지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완전히 페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평화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여러 력사적 시대에 걸쳐 수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시대적 조건과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용하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혁명리론을 발전시켜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조선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개척되였다.

일찌기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 과정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공산주의혁명학설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창조적 학설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발전은 선행한 혁명사상을 계승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그에 따라 새로운 혁명사상의 력사적 지위가 규정된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력사적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천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새롭게 밝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가지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입니다. 주체사상에 의거함으로써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하신 조선혁명위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나가는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이다.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전인미답의 생소한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류례없이 간고한 혁명이였다. 우리 인민은 식민지반봉건사회의 조건에서 출발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해결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여야 하였으며 제국주의강적들의 침략책동과 계급적 원쑤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전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겹쌓인 난관과 엄혹한 시련을 뚫고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의 과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인간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높은 단계에 올라서게 되였으며 지난날 락후한 식민지반봉건국가였던 우리 나라를 륭성번영하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킬수 있었다. 이 행정에서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세기적인 모범과 고귀한 경험들을 창조하였다. 조선혁명에 의하여 식민지민족해방의 가장 정확한 길이 개척되고 사회주의에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였으며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새생활이 창조되고 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튼튼히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하여야 할 력사적 과업이 나서고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주체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의 강력한 주체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서 근본요인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의 강력한 주체가 마련되여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있으며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당과 수령과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에 넘쳐있다. 이 강위력한 혁명의 주체는 우리 혁명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이며 그 종국적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우리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따라 확고부동하게 전진해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은 혁명실천에서 그 진리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투쟁방침을 제시하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 우리 당이 이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따라 곳곳이 전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곧바른 길이 있다.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사회주의제도는 모든 사람들이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벗어나 공생하는 하나

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무궁무진한 힘과 그 불패의 견인력은 사회주의제도의 이 참다운 우월성에 기초하고있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혁명의 객관적 환경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석간이 뭉쳐 주체사상의 기치,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는것과 함께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밑에 공산당 및 로동당들,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전세계적 범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조쏘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기치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하고 협조하여왔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일찌기 우리 혁명의 개척기에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자!》라는 구호를 추켜들었으며 10월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쏘련인민의 투쟁을 일관하게 지지성원하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의견상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단결을 위한 부채질만 하였지 단결에 해를 주는 부채질은 조금도 하지 않았으며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형제적 쏘련인민은 숭고한 국제주의정신을 발휘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광복위업을 도와주었으며 어려운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는 물심량면의 지지성원을 보내주었다. 오늘도 쏘련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협조하고있다.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발전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1984년과 1986년 쏘련방문과 존경하는 미하일 고르바쵸브동지와의 상봉은 획기적인 사변이였다. 지금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두 나라 최고위급지도자들사이에 합의된 정신에 따라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고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장기간의 공동투쟁에서 맺어지고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하여 법적으로 고착된 조쏘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계급적 동맹과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혁명위업수행에서뿐아니라 사회주의의 전반적 리익과 세계평화위업에도 진실으로 부합된다.

전통적인 조쏘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며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쏘련당, 쏘련인민과 굳게 단결하여 함께 싸워나갈것이며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하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집단적 자력갱생은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원칙

우 명 수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공동의 투쟁원칙을 옳바로 내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남남협조는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독립을 쟁취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경제적 해방을 이룩하고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운동이다.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언제나 견지하여야 할 공동의 투쟁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남협조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고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6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남협조에 관한 쁠럭불가담나라 상급특별회의에서 하신 연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에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이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 략탈책동을 물리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에 대하여 또다시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집단적 자력갱생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위업수행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의 하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집단적자력갱생은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해나가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리념이며 투쟁원칙입니다.》(《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자》, 단행본, 6페지)

자력갱생은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주체적 력량과 자기 인민의 창조적 로동, 자기 나라의 부원으로 진행하려는 자주적이며 혁명적인 립장이다. 다시말하여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일떠서며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는것이 바로 자력갱생이다.

자력갱생이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라면 집단적 자력갱생은 이 나라 인민들이 남남협조를 실현하는데서 견지하여야 할 공동의 투쟁원칙이다.

집단적 자력갱생은 바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주성과 련대성의 정신에서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기의 힘으로 자립경제를 건설하며 자체의 힘으로 살아나가려는 혁명정신이다.

그러므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남남협조의 실현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반드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공동의 투쟁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자력갱생하여야만

자기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매개 발전도상나라들에서 인민들의 운명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며 그것을 개척하는 결정적 요인도 그 나라자체의 내부력량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제적 규모에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운명의 주인도, 그것을 개척하는 결정적 력량도 그들자신이다. 제국주의자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운명을 개척하여줄수는 없는것이다.

오늘 정치적 독립을 이룩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운명 개척에서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중요한 문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악독한 후과를 가시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적 예속과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 해방을 실현하는것이다. 이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운명 개척과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에서 기본목표로 되고있다.

그런데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은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경제와 기술의 락후성을 청산하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성을 물질기술적으로 안받침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나가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그자체가 담당자이며 주인인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에게 외세의존사상을 버리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을 가지며 전진도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온갖 애로와 난관을 대담하게 극복하여나갈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국제적 규모에서 자기의 창조적 로동과 자기가 가지고있는 부원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여 제국주의자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 대한 예속과 의존관계를 없애버리는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가 하는것과 관련되는 원칙적 문제이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운명 개척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은 민족적인것인 동시에 국제적인것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국제정치관계에서뿐아니라 국제경제관계에서도 지배와 예속, 불평등에 기초한 낡은 제도와 체계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평등과 호혜,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제도와 체계를 세우기 위한 투쟁인것으로 하여 그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국제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낡은 질서를 유지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적인 반항에 부닥치게 된다.

그러므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체로 개척하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민족적 범위에서뿐아니라 국제적 범위에서도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공동의 투쟁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립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대외적 요구들을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발전도상나라들은 대부분 공업발전이 미약한 뒤떨어진 농업국가들이며 공업을 가지고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주로 제국주의자들이 이 나라들의 풍부한 자원을 략탈할 목적으로 건설한 기형적이며 편파적인 공업들이 있을뿐이다. 게다가 매개 나라들은 자연경제적 조건도 다르고 소여단계에서의 생산력발전수준과 과학기술발전수준도 다르며 따라서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과 량도 다르다. 이들에게는 공업화를 비롯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모자라며 기술인재도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매개 나라는 자체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거나 만들수는 없다. 매개 나라는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결하면서 적게 요구되거나 모자라는것, 자기 나라에서 생산할

수 없는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유무상통과 협조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뿔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바로 이러한 대외경제적 요구를 집단적 자력갱생에 의거하여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국제적인 경제적 련계를 맺는데서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관계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 비하여 결정적으로 우월하다.

발전도상나라들과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경제적 관계가 부등가교환과 뒤떨어진 나라에 대한 발전된 나라의 략탈로 특징지어진다면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관계는 처지의 공통성, 새 사회건설에 대한 지향과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평등하고 호혜적인 교류와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게 한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에는 자본주의나라들사이에 존재하는 불상용적인 경제적 모순이나 알륵, 첨예한 대결과 경쟁, 최대한의 독점적 고률리윤을 추구하는 독선적인 대외경제적 조치와 같은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모든 문제를 친선과 신뢰에 기초하여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다.

발전도상나라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대외경제적 요구들을 훌륭히 풀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100여개 나라들을 포괄하고있는 발전도상나라들은 세계인구의 3분의 1, 세계자원의 4분의 3을 차지하고있으며 서로 교류할수 있는 좋은 경험과 기술도 적지 않게 가지고있다.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민족적 범위에서 자기 나라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것과 함께 국제적 범위에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간다면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자금과 기술, 원료와 자재 등 여러가지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할수 있으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과의 경제관계에서 예속과 의존 관계를 청산할수 있다.

뿔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공동의 투쟁원칙으로 삼아야 하는것은 또한 그것이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착취와 략탈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속성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는 《협조》, 대외《원조》의 증가는 변함없이 대독점자본가들에게 새로운 투자와 상품시장의 확장을 보장해주기 위한것으로서 언제나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리해관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세계에서 저들이 차지하고있는 유리한 조건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겪고있는 일시적인 애로와 난관을 리용하여 《협조》와 《원조》의 허울좋은 간판을 들고 신식민주의적 수법으로 경제적 침략을 강화하여 다시금 이 나라들에 예속의 올가미를 들씌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국제경제관계에서 저들이 차지하고있는 독점적 지위를 리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의 풍요한 자연부원과 인민들의 로력의 열매를 헐값으로 가혹하게 략탈해가고있다. 최근 4년동안에만 하여도 제국주의자들이 발전도상나라들로부터 리윤의 형태로 긁어간 재부만 하여도 무려 1조 1,460억딸라에 달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금융적 수탈책동에 의하여 많은 발전도상나라들에서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인민들의 생활처지는 더욱더 어렵게 되였다. 1980년부터 1985년사이에 발전도상나라들의 년평균경제장성률은 1.95%로서 1960년부터 1980년사이의 년평균 경제장성률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일부 나라들에서는 경제가 감퇴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특히 엄중한것은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 경제적 예속화책동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낡은 국제경제

관계의 유지공고화를 완고하게 고집하면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의 합리적인 건설적 제안들에 대하여 외면하고있을뿐아니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기 위한 책동을 서로 련합하여 공동으로 감행해나서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책동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위한 발전도상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사이의 《남북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말았으며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경제적 예속화책동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은 마땅히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며 행동통일을 보장하는것이 필요하다.

바로 집단적 자력갱생에 기초한 남남협조는 발전도상나라들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여 정치경제적 위력을 강화하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략탈과 경제적 예속화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이 오늘의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 새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가장 옳바른 길로 된다.

그것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이 시대와 진보적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가장 정당한 원칙으로 되기때문이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은 매개 나라 인민들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데 대한 우리 시대의 요구와 온갖 사회경제적 예속과 불평등을 제거하며 자주성에 기초하여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체의 힘으로 일떠서려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의지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요구와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새 사회 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한다.

모든 사실은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신세를 지지 않고 제힘으로 살아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길은 민족적 범위에서뿐아니라 국제적 범위에서도 집단적으로 자력갱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앞에는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더욱 원만하게 구현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은 집단적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할 때 발전된 나라들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주성과 련대성의 정신에서 남남협조를 옳게 발전시켜나갈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매개 나라와 민족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공동의 투쟁원칙으로 삼는 목적은 남남협조를 통하여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성의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자는데 있다. 자주성을 견지하지 않고서는 집단적 자력갱생을 할수 없고 나아가서 경제적 자립을 이룩할수 없다.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정책적 문제들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민족의 리익에 맞게 세우고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건이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매개 발전도상나라들이 어떻게 기여

하겠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다. 여기에서 자주적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남이 하는대로 움직인다면 남남협조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가질수 없게 되며 외부세력의 내정간섭을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남남협조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도 실현할수 없게 된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매개 발전도상나라들이 자주적 립장을 견지하는것은 국제적 단결과 협조의 전제로, 기초로 된다. 남남협조를 발전시키는데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굳은 단결과 협조는 진실로 자원적이고 동지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명령과 지시, 맹종맹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단결과 협조는 공고한것으로 될수 없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 기초한 남남협조는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유무상통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자면 나라와 민족들사이에 자원성과 동지적 관계가 보장되는것과 함께 평등과 호혜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남협조에 참가하는 모든 나라들은 크기와 자연부원, 사회경제발전수준에서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고있으나 다같이 평등하고 독자적인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발전도상나라들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는데서 평등과 호혜, 호상존중의 정신에서 기술있는 나라는 기술을 가지고, 자금이 있는 나라는 자금을 가지고, 자원이 있는 나라는 자원을 가지고 서로 적극 도와주며 활발히 교류하고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사이에 련대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성과여부는 그의 직접적인 담당자이며 집행자인 매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련대성과 협조의 정신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된다.

련대성과 협조의 정신을 떠난 집단적 자력갱생이란 생각할수 없다. 매개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이 집단적 자력갱생에 참가하는것을 자기의 의무로 받아들이고 나라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련대성과 협조를 강화한다면 집단적 자력갱생의 위력과 생활력은 그만큼 더 높이 발휘되게 된다.

집단적 자력갱생의 정신에서 남남협조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자주력량인 쁠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하며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다그치는데도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쁠럭불가담나라, 발전도상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계속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정신에서 남남협조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11호(루계 547호)

편 집 위 원 회

편곳• 근 로 자 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7년 11월 1일　　발 행• 1987년 11월 3일

ㄱ—75211 주소•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12 호

평 양 근로자사 1987

제 12 호 (548)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차 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로동계급의 당안에 옳은 당풍을 세우는것은 혁명적 당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이다.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은 당이 존재하는 전기간 끊임없이 계속되며 당건설위업이 심화되고 정세가 복잡할수록 더욱 전투적으로 전개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당일군들과 당원들속에서 낡은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극복하고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리 당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불길속에서 창조된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전통적인 당풍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전진하는 혁명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킴으로써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확립할수 있었다. 특히 1970년대에 이르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일군들과 당원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사업기풍, 생활기풍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전당에 혁명적 기백이 약동하며 당사업이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는것이 우리 당의 오늘의 면모이며 기풍이다.

최근에 우리 당은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여기에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당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은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로동계급의 당의 참다운 당생활기풍, 당사업기풍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풍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당생활기풍, 당사업기풍입니다.

당풍을 바로세워야 당을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당풍을 바로세운다는것은 당안에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사업기풍을 확립하며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이 혁명가적인 생활기풍과 인민적인 품성을 가지도록 한다는것을 말한다. 당풍을 바로세워야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철저히 고수하고 정치적 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의 당풍은 주체적인 당풍이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안에는 마땅히 주체적인 당풍만이 있을수 있다. 우리 당의 당풍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에 기초하고있는 당풍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들을 철저히 실현할수 있게 하는 당풍이다. 주체적인 당풍인 우리 당의 당풍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자각적이며 의식적인 당생활기풍이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인민대중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당사업기풍이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제기되는 본성적 요구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당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혁명적 성격을 튼튼히 고수하고 그 사명을 빛나게 실현하려면 당조직을 강화하고 모든 당원들이 사업과 생활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벌려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당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기 위한 위력한 방도로 된다. 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상 수령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모든 당원들이 당의 의도대로 생활하고 활동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당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규률에 따라 움직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의 면모는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의하여 담보된다.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이 서게 되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도 발붙일수 없으며 불건전한 생활기풍이 침습해들어올수 없다. 그리고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이 서게 되면 모든 당원들이 건전한 당생활과정을 통하여 높은 당성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서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게 된다.

당풍을 바로세우는것은 당의 령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는 각급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당원들의 활동을 통하여 관철된다.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가 옳게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그 정당성에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며 어떤 기풍을 가지고 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당풍을 바로세워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 사업기풍으로 사업을 조직하고 전개해나가며 모든 당원들이 혁명적인 생활기풍으로 자기가 맡은 혁명과업을 수행해나간다면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가 우로부터 아래에 거침없이 내려가게 되며 전당이 당의 의도와 요구대로 사업하고 움직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것이 어김없이 관철되게 된다. 그러므로 당풍을 바로세우지 않고서는 당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옳게 이끌어나갈수 없으며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일수 없다.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 앞에 나서고있는 방대한 과업으로부터 매우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은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고 우리 나라를 경제발전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하기 위한 매우 방대하고 거창한 설계도이다.

당면하여 우리앞에는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건설과 광복거리 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들을 하루빨리 끝내며 갖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야 할 영예롭고 보람찬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이 웅대한 과업들을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고 안팎의 혁명정세가 복잡한 환경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혁명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해야 할 이 력사적인 과업들은 우리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당원들이 사상정신상태와 활동방식, 일본새와 사업기풍에서 새로운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강화함으로써만 빛나게 수행될수 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우리 당을 더욱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당풍을 바로세워야 당의 조직사상적 기초가 더욱 확고히 다져지고 전당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과 풍모를 계속

고수하고 끊임없이 계승해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전당이 하나의 중심, 하나의 사상과 혁명적 의리에 기초하여 일심단결되였으며 당대렬이 정예화되고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강철의 대오로,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련결된 불패의 당으로 되였다. 우리 당이야말로 혁명의 주체의 핵심력량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그 핵심력량인 당을 강화하는 사업은 여기에 머물러있을수 없으며 끊임없이 계속되여야 한다. 전당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이 철저히 확립되여야 우리 당을 참말로 수령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서의 본성, 풍모를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빛내여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을 사상과 리론에서뿐아니라 당풍에서까지 가장 완벽하고 강위력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더 큰 비약을 이룩하려는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기 위하여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당원들 앞에 나서고있는 영예로운 임무이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원들속에서 당성을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안에 옳은 당풍을 세우자면 무엇보다도 당원들에게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도록 당성을 높여야 합니다.

당성은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며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정신이다. 당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당원들이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실하고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며 언제 어데서나 당적인 원칙을 고수하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굳게 다져나갈수 있다. 당원들을 당성이 강한 당원들로 준비시킬 때 당안에는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튼튼히 서게 되는것이다.

높은 당성을 지니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수령은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것은 뇌수가 인간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과 다름없다. 수령은 당과 인민대중의 생명의 중심인 것만큼 당에 대한 충실성과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는것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고 자신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당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의 결정지시에 따라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당은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를 통하여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며 전당을 움직여나간다. 따라서 당성은 모든 당조직들과 당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대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데서 나타나야 한다.

우리는 전당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규률에 따라 움직이는 강철같은 조직규률을 확립하며 당사업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은 모두 당의 결론에 따라 집행하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는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교시를 구현한것이며 그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강령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당과 수령의 의도에 맞게 한치의 드팀도 없이 풀어나가자면 언제나 당의 로선과 정책, 결정지시에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한다.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자면 작전을 바로하고 옳은 방법론을 세워야 한다. 당정책이 새로 나오면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대책과 방법론을 세우지 않고 되받아 아래에 넘기거나 그 관철을 위해 머리를 쓰지 않는것은 사실상 당성이 없는 태도이다. 당정책을 진실로 받들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자면 사색하고 또 사색하여 그 집행을 위한 묘술과 방도를 찾아내야 하며 그러한 기풍이 언제나 몸에 푹 배야 한다. 길을 걸을 때나 밥을 먹으면서도 오직 하나의 생각, 어떻게 하면 당정책을 당이 요구하는대로 관철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군, 이런 사람이 당과 수령께 진실로 충실한 사람이며 당성이 높은 일군이다.

당성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기풍을 세우며 소박하고 겸손한 인민적 품성을 지니는것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인민에 대한 충실성은 하나로 통일되여있다.

로동계급의 당은 인민대중우에 군림하는 관료기관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다. 우리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일군답게 인민의 충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대중속에서 살며 인민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들을 너그럽고 아량있게 대하여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의 요구와 애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

겸손하고 소박한 품성을 가지는것은 당성, 인민성을 높이고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겸손하고 소박하며 청렴하고 결백한 품성을 가져야 하며 어떤 직위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절대로 세도를 쓰지 말고 틀을 차리지 말며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이 생활하는대로 검박하게 생활하며 겸손하고 례절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겸손하고 소박하다고 하여 결코 무맥한 호인이 되여서는 당적 원칙을 지켜나갈수 없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사업과 생활에서 언제나 당적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모든 문제를 높은 계급적 안목에서 보고 판단하며 온갖 그릇된 현상에 대하여서는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는 혁명적 기풍을 지녀야 한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언제나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높이며 그들을 혁신과 위훈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 돌격선의 맨앞장에 선 혁명군대의 지휘관처럼 돌파구를 선참으로 열어나가며 사선의 고비도 맨먼저 헤쳐나가야 한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다.

당원은 당조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수 없으며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수 없다. 당조직을 어머니품과 같이 여기고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은 당원들의 고상한 품성이다. 당원들속에서 당조직관념을 끊임없이 높여나갈 때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풍이 더욱 철저히 확립되게 된다.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당조직은 당원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 당조직은 당원들을 당과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워주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드팀없이 걸어나가도록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어머니품이며 당원들이 일생동안 거기에 모든것을 의탁하고 혁명을 해나가는 사업과 생활의 거점이다.

모든 당원들은 우리 당은 곧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며 당의 품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품으로 알고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당에 의탁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당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당조직을 존엄있게 대하고 귀중히 여기며 당조직에 철저히 의거하여 사업하고 생활하여야 한다. 당조직관념이 바로 선 당원은 자각성과 의식성을 가지고 당생활에 성실히 참가하며 당생활규범을 사업과 생활의 철칙으로 삼는다.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회의와 당학습, 강연회와 당생활총화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것을 당조직에 철저히 보고하며 비판과 자기비판, 사상투쟁에 성실히 참가하여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야 한다.

모든 당일군들과 당원들은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이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당안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당풍을 세워나가는 주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당조직관념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세우는데서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당풍확립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당풍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는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풍을 세우는 사업은 어디까지나 당안에서 제기되는 사업인것만큼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이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이 서있지 않으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옳게 조직동원할수 없으며 당앞에 나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다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당풍을 세우는 사업에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속에 당을 진심으로 받들고 따르며 당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도록 당성과 당조직관념을 높여주며 그들속에서 자각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풍을 바로세우는데서 각급 당위원회들의 조직부는 선전부와 협동하여 배합작전을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당의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은 서로 분리할수 없는 당내부사업의 두 구성부분인것만큼 조직부와 선전부가 배합작전을 잘하여야 당풍을 세우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다.

각급 당위원회들의 조직부와 선전부 일군들은 서로 긴밀한 련계밑에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전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나타난 결함을 제때에 바로잡아나가며 실정에 맞는 교양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전당에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만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당안에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는 사업, 이것은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완성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를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보람차고 성스러운 사업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당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 당의 전통적인 당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당을 강화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보다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할것이다.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

김 창 원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사상리론적 재부들로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력사적 공헌을 한 대기념비적 문헌이다.

언제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이라는것을 독창적인 명제와 철의 론리, 심오한 원리들로 빛나게 천명하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영원히 틀어쥐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리론적 초석을 마련하여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본성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철저히 개조하여 사람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만들며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페지)

문헌은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벽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이 사상의 근본 성격과 특징으로부터 출발하여 뚜렷이 명시하였다.

사상의 혁명성은 그것이 무엇을 투쟁목적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방도를 어떻게 밝혀주는가 하는데 의하여 규정된다. 다시말하여 사상의 혁명성은 그것이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얼마나 견결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데 따라 규정된다.

문헌은 사상의 혁명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을 밝힌데 기초하여 주체사상이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완벽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을 힘있게 론증하고있다.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이라는것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혁명학설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이며 따라서 인간을 해방한다는것은 곧 사람들의 자주성을 구속하는 온갖 요인을 없애며 그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한다는것을 말한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은 노예와 같은 예속상태에서는 살수 없는 존재이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의 성질인 자주성은 예속과 상극관계에 있으므로 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억제하는 온갖 구속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합법칙적 현상이다.

인간의 자주성을 실현한다는것은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요구를 실현한다는것이다. 자주적으

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요구는 자연의 구속과 사회적 예속, 낡은 사상과 문화의 구속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완전한 주인으로 되려는데 있다.

주체사상은 바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맞게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목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끝까지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철저한 혁명성이 있으며 그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여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가장 완벽한 혁명학설로 되는 근거가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데 있다는것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에 기초하고있기때문입니다.》(우와 같은 문헌, 2페지)

혁명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얼마나 과학적으로 밝혀주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어떤 세계관에 기초하고있는가 하는데 의하여 중요하게 규정된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관점, 립장을 가져야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방법 등 인간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정확히 풀어나갈수 있기때문이다.

세계관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되려면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개조자인 사람을 세계의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세계에 대한 견해와 관점, 립장을 밝혀야 한다. 다시말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다.

주체사상이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라는것은 결코 그것이 객관세계를 무시하고 인간의 주관적 념원을 일방적으로 내세운다는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본다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아야 하는것은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동물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에 의하여 그 운명이 규정되는 자연의 한 부분이지만 인간은 자연의 변화발전법칙을 인식한데 기초하여 자연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무하도록 만들어나가는 유일한 자주적 존재이며 세계의 힘있는 주인이다. 자연을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역할이 커질수록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게 되며 인간밖에 있는 물질세계는 인간에게 더욱더 복무하는 세계로 개변되여간다.

인간은 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목적의식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유일한 창조적 존재인것만큼 세계에서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뿐아니라 세계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처럼 사람이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로서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만큼 마땅히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아야 한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세계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주체적 견해를 확립하였다.

종래에는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물현상들에 공통적인 일반적 운동법칙 즉 자기 원인에 의하여 끊임없이 운동변화하고 발전하는 법칙이 밝혀졌을뿐이며 사람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세계가 전체로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나가는가 하는 운동법칙은 해명되지 못하였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 세계에 대한 주체적 견해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전체로서의 세계의 운동법칙, 사람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노는 세계의 발전 수준과 방향이 사람과의 관계속에서 과학적으로 천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주체의 세계관은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더 높이고 세계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게 하는 참다운 인간해방의 세계관으로 되게 되였다.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줌으로써 인간해방의 과학적인 혁명학설로 된다.

철학적 원리가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의 세계관적 기초로 되려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되여야 한다. 그것은 철학적 세계관의 근본사명이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데 있기때문이다. 사람들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것도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알기 위한데 있다.

인간의 운명은 세계와의 관계에서 규정되는것만큼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곧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는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 원리로 된다. 주체의 철학적 원리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연과 사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게 됨으로써 그 주인으로서의 높은 책임감과 긍지, 자체의 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인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세계관으로서 담아야 할 원리들을 모두다 포괄하고있다.

종래의 철학적 세계관은 세계가 물질로 이루어져있다는 유물론의 원리와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 변증법의 원리를 밝히였다. 다시말하여 거기에서는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만이 밝혀졌으며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그가 노는 역할은 해명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유물론과 변증법이 세계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세계가 물질로 되여있고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는것을 해명하는데 머무를것이 아니라 가장 발전된 물질인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는데까지 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은 바로 철학발전의 이 합법칙적 요구를 반영하여 가장 발전된 물질인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밝히고 그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은 물질세계의 일반적 특징을 밝혀주는 원리와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밝혀주는 원리 그리고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지위와 인간이 노는 역할을 밝혀주는 원리를 다같이 포괄하게 되였다.

문헌은 이처럼 주체의 세계관이 포괄하고있는 3개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주체의 세계관이 지난 시기의 철학적 세계관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완성된 철학적 세계관이라는것을 뚜렷이 천명

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인간이 세계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철학적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이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으로 된다는것을 천명하시였다.

철학적 세계관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의 기초로 되려면 사람을 주인의 자리에 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계에 대하는 견해를 밝혀줄뿐아니라 세계에 대하는 근본립장, 근본방법을 해명하여야 한다. 세계를 대하는 근본립장, 근본방법이 옳게 세워져야 인민대중의 운명 개척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편향이 없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인식과 실천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것으로 되려면 언제나 인식과 실천의 주체인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에 자주적으로 대하며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하는 옳은 립장을 세워야 한다.

자주적 립장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인간의 자주적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실현하는 견지에서 모든것을 보고 대하며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창조적 립장은 사람이 세계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데로부터 출발하여 언제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도록 창조적으로 활동할것을 요구하는 립장이다.

자주적 립장과 창조적 립장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벌리며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옳바른 근본립장, 근본방법이다.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에 의하여 모든 인식과 실천활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근본방법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 인간자신을 인간의 본성에 맞게 개조하여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서만 옳게 파악할수 있다는것을 심오하게 천명하심으로써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로 되는 근거를 힘있게 론증하시였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히고 과학적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는것은 인간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바로세우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문헌에서는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으며 여기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라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였다. 이것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를 그 구성요소와 그것들사이의 결합방식으로 새롭게 밝힌 창조적 사상이다.

사회에서의 주인은 사람이다.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 사람이 창조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여나가는것은 합법칙적 현상이다.

사회적 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인것만큼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도 인간에게 있고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간에게 있다.

사회적 운동은 인간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발전해나간다.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데 따라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여나가며 사회적 운동의 원인과 그 추동력이 인간에게 있다는것은 주체사관이 새롭게 밝힌 사회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사회적 운동의 이러한 합법칙성이 밝혀짐으로써 력사발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주체사관의 진리가 원리적으로 론증되고 인간개조, 사상개조를 앞세워 사회발전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데 대한 주체의 원칙의 정당성이 리론적으로 확증되였다. 이것은 사회발전에 대한 인류의 리해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게 한 위대한 발견으로 된다.

참으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이 밝혀짐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을 위한 투쟁에서 가장 옳바른 세계관적 기초가 확립될수 있었으며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벽한 혁명학설이 마련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에서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완벽한 혁명학설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의 특징은 혁명의 주체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되고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하여 세워진데 있다.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하는것은 혁명운동의 본성에 맞게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개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모든 혁명투쟁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고 그들자신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인것만큼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어떻게 옹호하는가에 따라 혁명리론의 가치가 규정되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어떻게 높이는가에 따라 전략전술의 위력이 결정된다.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리론을 전개한다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원리와 합법칙성을 밝힌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리론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해명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을 포괄하는 완벽한 리론으로,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으로 되게 하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면서 해결해나가는 전략과 전술이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전략전술이 밝혀짐으로써 혁명발전의 합법칙성에 맞는 옳바른 투쟁목표와 주공방향을 규정하고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각오정도를 옳게 타산하여 혁명력량을 편성하며 시기적절한 혁명의 시기를 선택하고 가장 합리적인 투쟁방법을 세우는 문제 등 모든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새롭게 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고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게 하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완성된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준다.

주체의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고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주동적으로 앞당기는 가장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령도리론, 령도방법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구체적 실정

에 맞게 해결해나가는 가장 현실적이며 창조적인 령도리론, 령도방법이다. 그것은 혁명적 령도의 본질과 근본방향, 원칙과 방법 등을 과학리론적으로 가장 정확히 전면적으로 밝혀주며 특히 수령과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주체적 립장에서 고찰하고 혁명적 수령관에 기초한 당과 수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주체의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 우리 당의 혁명적 군중로선을 사회주의건설에 빛나게 구현한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지도적 지침을 안겨준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은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으로서 그것을 틀어쥐고나갈 때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단계, 모든 형태의 투쟁을 편향없이 곧바로 전진시켜나갈수 있으며 인간해방의 력사적 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바로 주체사상이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주는 여기에 그것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가리켜주는 완벽한 혁명학설로 되는 다른 하나의 근거가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처럼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이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완벽한 세계관인 사람중심의 세계관과 그에 기초하여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가르쳐주고있음으로 하여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학설로 된다는것을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하게 천명하시였다.

그리하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독창적인 사상과 명제, 원리들로 더한층 발전풍부화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 불멸의 력사적 공헌이 이룩되였다.

문헌에서 주체사상이 인간해방의 길을 가장 과학적으로 밝힌 완벽한 혁명학설이라는것이 전면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의 력사적 지위가 과학적으로 더욱 힘있게 론증되게 되였으며 우리 시대 혁명의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지도사상이며 백전백승의 혁명적 기치인 주체사상의 위대성이 빛나게 확증되게 되였다. 그리고 주체사상의 견인력과 불패의 생활력은 더한층 강화되고 그것은 세계 혁명적 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억세게 틀어잡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고 인류의 영원한 행복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담보가 보다 확고히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중대한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심오한 과학적 해답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한 탁월한 문헌이다.

그것은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과 연구, 선전과 교양을 위한 참된 교과서, 백과전서이며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기념비적 문헌이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불멸의 전투적 기치이다.

오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앞에는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심화시켜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주체위업을 앞당겨 수행하여야 할 보람찬 임무가 나서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옹호하는것이 곧 주체혁명위업을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사업이라는 높은 자각과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사상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며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하며 주체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구현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김 학 봉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여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형성되고 공고발전되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전도는 결국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고 그 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되게 된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특성과 그 생명력,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공고화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옳바로 밝히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발전시키고 혁명위업의 승리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과학적 리론이 밝혀져야 로동계급의 당은 혁명의 주체적 력량을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전략과 전술을 옳바로 작성할수 있으며 수령, 당, 대중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다그쳐 나갈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며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룬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천명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나서는 이 중대한 문제가 빛나게 해결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때문에 그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9페지)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일심동체를 이루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혼연일체의 관계에 있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특성과 그 생명력의 원천을 밝혀준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것은 무엇보다도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결합되여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투쟁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자기의 요구와 리해관계,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있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려면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공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로 창조적 능력을 한결같이 발양시켜나가야 한다.

인민대중은 당의 령도밑에 수령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 당, 대중

으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그들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야 자주적인 생명력을 가진 위력한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된다.

생명유기체에서 여러 기관들의 위치와 기능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생명활동을 보장하는데로 지향해나가야 생명유기체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발전해나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도 수령, 당, 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로 결합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로 그 창조적 능력이 발양될 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보장되고 발전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생명의 중심은 수령이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요구와 리해관계를 분석종합하여 하나로 통일시키는 중심인 동시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다.

수령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가 분석종합되여 옳바른 혁명사상이 제시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목표와 그 수행방도가 밝혀진다. 수령은 또한 당을 비롯한 혁명조직을 결성하고 여기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며 그들의 창조적 힘을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데로 조직동원한다. 수령의 이와 같은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활동이 보장되며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이 더욱 강화발전하게 된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룬다. 수령과 대중을 혈연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은 당에 의하여 수행된다. 당은 수령의 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혁명조직에 묶어세움으로써 그들을 수령의 두리에 튼튼히 결속시킨다. 당은 또한 대중을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로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조직동원한다.

당의 이와 같은 중추적 역할에 의하여 수령의 사상이 영양소로서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흘러지고 대중이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혈맥을 잇게 되며 수령의 의도대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움직이게 됨으로써 그 생명활동이 원만히 보장되게 된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담당자이다. 대중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수령이 제시한 사상과 로선, 정책 관철에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고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함으로써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자주적 생명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그 생명활동을 강화한다.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이와 같이 수령, 당, 대중은 서로 다른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달리하고있지만 다같이 자신의 창조적 능력으로 자주적 요구와 리해관계를 실현하는데서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있으며 서로 불가분리적으로 통일되여있다. 그러므로 수령, 당, 대중은 하나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는것만큼 그들을 서로 분리시키거나 대치시켜서는 안된다. 당과 수령의 령도를 떠난 대중은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될수 없으며 대중과 떨어진 수령과 당도 정치적 령도자로서의 생명을 가질수 없다. 대중과 떨어진 수령은 수령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이며 대중과 떨어진 당은 당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적 집단에 지나지 않는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통일체를 이루고 다같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며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번영하고 발전해나가는 근본담

보가 있는것이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것은 또한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의하여 결합되여있다는것을 말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 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혁명동지들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에 보답하는 원리이다. 혁명동지들은 자기 동지를 자신처럼 믿을뿐아니라 동지를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성을 다 발휘하여 도와준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믿음과 도움을 줌으로써 개별적 사람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서와 전사와 전사들사이에서 작용한다.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된다.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육친적인 사랑과 배려를 안겨주며 전사들은 수령을 충성과 신뢰를 가지고 받들어나간다. 그것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생명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명전사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어버이이고 스승이며 은인이기때문이다.

사람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을 저절로 지니는것이 아니라 수령으로부터 받아안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수령이 창건하고 령도하는 당조직과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 됨으로써만 수령과 혈연적인 련계를 맺고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되며 수령의 품속에서 그것을 빛내여나가게 된다. 수령은 혁명전사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명의 어버이이고 스승이며 은인이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전사의 충성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성, 스승에 대한 제자의 존경, 은인에 대한 사람들의 감사의 정을 다 합한것보다도 숭고한것이다.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자주위업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 혁명전사들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수령의 숭고한 풍모이며 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는 수령을 높이 모시는 혁명전사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과 전사들사이를 혈연적 뉴대로 련결시킴으로써 그들을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켜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개인들사이에서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작용한다.

혁명적 동지애는 여러가지 사랑들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사랑이다. 부자간의 사랑, 모자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친우간의 사랑도 귀중하지만 동지간의 사랑은 그보다 더욱 귀중한것이다. 혁명가들은 부모나 처자, 형제와 친척친우와는 떨어져서도 혁명을 할수 있지만 혁명동지들과 떨어져서는 혁명을 할수 없으며 혁명가로서는 한순간도 살아나갈수 없다.

개별적 사람들은 이처럼 귀중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서로 결합되게 된다. 그러나 그 어느 개별적인 성원도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될수 없기때문에 그들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도 절대적인것으로는 될수 없다. 혁명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야 비로소 공고하고 생활력있는것으로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개인의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을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데서 더욱 힘있게 작용한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개인과 집단, 육체적 생명과 사회정치적 생명가운데서 집단,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 귀중한것으로 내세우는 생명관이다. 집단주의

적 생명관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되여야 사람들은 개인의 생명의 모체인 수령, 당, 대중에게 충성다하는것을 자기의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 당, 대중을 사회정치적 생명을 통하여 한줄기로 결합시키며 수령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하여 개별적 사람들사이에 혈연적 련계를 이어줌으로써 수령, 당, 대중을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되게 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심오한 리론적 재부로 발전풍부화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다그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한 빛나는 사상리론이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사상이 천명됨으로써 무엇보다도 혁명의 주체에 대한 심오한 과학적 리해가 확립되게 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단순한 결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이라는것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그리하여 혁명의 주체가 혁명투쟁을 주동적으로 일으키고 능동적으로 떠밀고나가는 혁명의 담당자, 동력으로 되는 근거가 심오하게 밝혀졌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의 주체,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를 파악하게 되였으며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발생발전하는 합법칙적 과정을 원리적으로 인식하게 되였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리론이 제시됨으로써 또한 혁명적 수령관의 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생명의 중심이라는것이 독창적으로 밝혀짐으로써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에 대한 리해가 더욱 심화되였으며 수령을 높이 모시는것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존재와 발전을 위한 근본요구로 된다는것이 심오하게 해명되였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충실성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가 전면적으로 론증되게 되였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리론이 밝혀짐으로써 또한 혁명의 주체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고 그 위력을 더욱더 높여나갈수 있는 사상리론적 무기가 마련되였다.

수령을 최고뇌수로 하고 당을 중추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조와 기능이 새롭게 밝혀짐으로써 사회정치적 집단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도가 원리적으로 해명되였다. 그리하여 수령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고 당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수령, 당, 대중의 결합된 힘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추진시켜나갈수 있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우리의 혁명실천에 의하여 그 정당성이 빛나게 확증되였다.

주체의 혁명위업이 개척된 때로부터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혁명의 전로정은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그것이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온 행정이며 그 불패의 힘에 의거하여 승리하여온 자랑찬 력사이다. 우리의 혁명투쟁력사는 수령의 위대성에 당과 인민의 위대성이 달려있으며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에만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서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혁

명루쟁을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일찌기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원형이 마련되고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의 빛나는 전통이 이룩되였다.

혁명의 주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오랜 력사적 과정을 통하여 강화발전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후 주체형의 혁명적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고 그 두리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묶어세우심으로써 우리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로 통일된 완전한 면모를 갖추게 되였으며 영생하는 자주적 생명력을 더욱 힘있게 발휘하게 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은 가장 생활력있고 공고한것으로 되였으며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위력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수령, 당, 대중은 조직사상적으로나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단합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수행하기 위한 길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는 가장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있다.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충실성은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련계를 강화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생활과 투쟁의 산 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길에 조선혁명의 찬란한 미래와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 드팀없는 신념으로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고있으며 당과 수령께 자신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단결과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싸워나간 청년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이어받아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하여 이루어진 공고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장기간의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쟁취한 가장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불패의것이며 그 어떤 현대적 무기나 경제력보다도 비할바없이 위력한것이다. 이 강위력한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있음으로 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혁명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견이 간직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움으로써 그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밖에 모른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쳐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

박 춘 근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옳바른 사회력사관을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이 자기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근본방도와 전략전술을 바로 가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인민대중은 사회가 무엇을 중심으로하여 어떻게 이루어져있으며 그 변화발전이 무엇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사회와 그 운동발전의 전과정을 틀어쥐고 사회개조를 위한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힘있게 벌려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할수 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천명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밝힌것이다.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해명에 기초하여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의 본질과 사회를 이루고있는 구성부분들의 호상관계를 사람을 중심에 놓고 그와의 관계속에서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관계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7페지)

사회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하자면 그 본질을 옳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사회는 사람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사회는 자연과 구별되는 물질세계의 특수한 령역이다. 사회도 물론 자연과 함께 물질세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자연과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자연은 사람과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물질세계의 한 령역이지만 사회는 사람을 떠나서는 존재할수 없다. 자연은 사람이 생겨나기전에도 존재하였지만 사회는 사람이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 물질세계의 특수한 령역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를 사람이 살며 활동하는 집단이라고 하는것이다.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집단인 사회는 자기의 구성요소들로 결합되여있다.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전일체들은 일정한 구성요소들과 그것들의 결합방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전일체의 특성은 바로 그 구성요소들과 결합방식의 특성과 관련되여있다. 사회도 하나의 전일체인것만큼 그 구성요소들과 결합방식의 특성에 대한 옳바른 해명에 기초해서만 사회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할수 있다.

사회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하고있다.

사람은 사회를 이루고 사는 유일한 존재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사회를 이루고 집단적으로 살며 활동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 사람을 떠나서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사회적 존재인 사람외의 그 어떠한 존재도 사회를 이루는 기본요소로 될수 없다.

사회적 재부는 사회를 이루고있는 다른 하나의 구성요소이다.

사회에는 사람과 함께 사회적 재부가 있다. 사회적 재부는 사람의 생활과 뗄수 없이 련결되여있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사회적 재부가 없이는 사람이 살아나갈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자체도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자기의 창조적인 활동을 통하여 마련한 물질문화적 및 사상정신적 재부, 다시말하여 사회적 재부를 가지고 그것을 리용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유지하고 개척해나간다. 그런것만큼 사회적 재부의 소유정도는 사회의 면모를 특징짓는 중요한 요소로 된다.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부분들인 사람과 사회적 재부는 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결합되여있다.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이 자기의 운명 개척을 위한 투쟁과정에 맺게 되는 목적의식적인 관계이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사회적 집단을 이룰수 없고 사회적 존재로 살며 활동할수 없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일정한 질서에 따라 행동하여야 자연을 정복하고 생활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집단적 활동을 벌릴수 있으며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여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관계가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활과 활동의 필수적인 결합방식이며 그것이 없이는 사회자체가 존재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처럼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부분으로 하는 하나의 전일체이다.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사람과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에서 주인은 어디까지나 사람이다.

사람과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는 다같이 사회라는 전일체의 중요한 구성부분들이지만 그것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꼭 같은것은 아니다. 사회를 이루는 구성요소가운데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사람이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의 존재와 발전을 지배하며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재부나 사회적 관계는 사람이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창조하는것이며 주동적으로 맺는 관계이다. 사람에 의하여 사회적 재부가 창조되며 사회적 관계가 맺어지고 발전한다.

사람은 우선 사회적 재부의 창조자이며 주인이다.

사람은 세계에서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지고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사람은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실현해나간다. 사람은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통하여 주위세계의 사물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목적의식적으로 개조변혁해나감으로써 자기의 운명 개척에 필요한 사상문화적 및 물질적 재부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사회적 재부를 이루는 사상리론이나 문화적 재부는 다 사람이 창조한것이며 발전된 현대적 기계나 기술수단들도 다 사람의 창조적인 활동결과에 만들어진것들이다. 사람의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을 떠나서 사회를 구성하고있는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재부의 창조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회적 존재인 사람만이 가치있고 귀중한 모든 사회적 재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유일한 존재로 된다.

사람은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고 발전시킬뿐아니라 그것을 장악하고 향유함으로써 그 주인으로 된다.

사람이 자연을 대상으로 창조적 활동을 벌려 사회적 재부를 만들어내는것은 그자체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그

것을 향유함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자는데 있다. 사람이 사회적 재부를 창조만 하고 참답게 향유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발전시킬수 없으며 그 주인으로 될수 없다.

사람이 사회적 재부의 향유자라는것은 사회적 재부가 사람을 위해서 복무하는 조건에서만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데서 표현된다. 어떠한 사상리론이나 물질문화적 재부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며 사람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리용될 때에만 가치를 가지게 된다. 사람이 장악하고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데 리용하기때문에 사상문화적 재부나 물질적 재부가 자기의 존재가치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 재부를 향유하는데서도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사람은 또한 사회적 관계의 주인이다. 사회적 관계의 주인이 사람이라는것은 사회관계를 이루는 모든 내용들이 사람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맺어지고 사람의 발전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계가 개변되여나간다는것이다.

사회적 관계는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맺는 관계이므로 사람이 없이는 사회적 관계가 맺어질수도 없으며 그것이 유지되고 개변되여나갈수도 없다.

물론 사람들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표현하는 정치제도나 경제적 관계를 표현하는 경제제도가 어떠한가 하는데 따라 사람자신과 자연과 사회를 개조발전시키기 위한 사람들의 활동에는 유리한 조건이 지어질수도 있고 그것이 제약되고 구속당할수도 있다. 그것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에 따라 모든 사회관계가 규정되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이 규제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의 정치제도나 경제제도에 맹목적으로 순응하지 않는다. 사람,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는 사회제도는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지만 그에 배치되는 사회제도, 사회적 조건은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보다 높은 단계에서 실현시켜줄수 있는 사회제도로 바꾸면서 그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대한다.

이것은 사회관계를 목적의식적으로 맺고 발전시켜나가는 주인도 다름아닌 사람, 인민대중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것은 사회를 이루는 사람과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 사이에서 사회적 재부나 사회적 관계가 주인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는 사람과 사회적 재부와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주인이 사람이라는 사상리론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 기초하여 사회의 본질을 그 구조의 측면에서 새롭게 밝힌 위대한 사상리론이다.

주체사상은 다음으로 사회적 운동의 원인과 추동력, 사회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해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입니다. 사회적운동을 일으키는 원인도 인간에게 있고 이 운동을 추동하는 힘도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전수준에 상응하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창조적운동을 벌려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떠밀고나갑니다.》
(우와 같은 문헌, 7페지)

주체사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그것을 떠밀고나가는 동력이 인간에게 있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과 동력에 대한 리해를 옳바로 가지는것은 사회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모든 사물현상의 변화발전의 근저에

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과 힘이 작용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운동에도 그것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근본원인과 추동력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러한 근본원인과 추동력을 무엇으로 보는가 하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운동은 인간이 일으키고 인간이 떠밀고나가는 인간의 운동이라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이 운동의 원인과 동력이 인간에게 있다는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물질의 운동은 물질이 체현하고있는 속성의 발현이다. 사회는 사람들의 집단인것만큼 사회적 운동은 바로 사람자신의 본질적 속성인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의 발현으로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사회적 운동은 인간의 자주적 요구에 의하여 일어나고 인간의 창조적 힘에 의하여 추동되는 인간의 의식적인 운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람의 요구와 힘이 사회발전의 원인과 추동력으로 된다는것은 결코 자연적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을 무시해도 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연적 환경이나 사회적 조건과 같은 객관적 조건도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인간은 사회를 발전시키는데서 객관적 조건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데서 작용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될뿐이다. 객관적 조건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변되여나갈수 있는것이다.

사회적 운동의 특수한 형태인 혁명운동에서도 인민대중이 착취와 압박을 비롯한 여러가지 구속을 받는다는것이 객관적 조건으로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착취와 압박을 받는다고 하여 반드시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떨쳐나서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은 착취와 압박을 받아도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혁명투쟁에 일떠설수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기의 자주적 요구와 힘을 깨달아야 혁명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설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운동을 일으키는 근본원인이 객관적 조건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주적 요구에 있으며 사회발전을 추동하는 힘이 그 어떤 외부적 힘에 있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력에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운동의 원인과 동력이 인간에게 있다는데 기초하여 사회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밝혀준다.

사회가 발전한다는것은 사람이 발전하고 사회적 재부가 늘어나며 사회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은 사회발전을 보여주는 이 세가지 내용가운데서 어느것의 발전에 기초하여 어느것이 개변되여나가는 과정인가를 표현한다. 인간이 발전한다는것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한다는것이며 사회적 재부가 늘어난다는것은 주로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한다는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발전한다는것은 사회개조사업이 발전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재부를 창조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주인이 인간인것만큼 인간이 먼저 발전하고 그에 따라서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며 인간의 발전과 자연개조사업이 발전하는데 기초하여 사회개조사업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다시말하여 사람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적 능력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적 재부가 늘어나고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여나간다는것이 사람을 중심에 놓고 밝힌 사회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인간이 사회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사회발전, 혁명운동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면 객관적 대상의 운동법칙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세워진 옳은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 사회발전과정이 인간이 객관적 대상을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

는 창조적 활동과정이라는것과 관련된다. 그러므로 사회를 발전시키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어나가자면 언제나 사람, 인민대중을 각성시키고 발동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동시에 그것을 반드시 객관적 대상과 조건에 맞는 옳바른 전략전술과 결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해명한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물질적 존재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의 본질과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심오히 해명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사회력사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키고 완성하는 력사적 공적을 이룩하였다.

주체사상은 사회는 사람들과 그들이 창조한 사회적 재부와 그것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관계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주인이 사람이라는것을 심오히 밝힘으로써 사회의 본질을 그 구성부분들과의 호상관계속에서 깊이 리해할수 있게 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사회적 운동의 원인과 동력이 사람에게 있다는것을 밝히고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이 발전하는데 상응하게 사회의 변화발전이 이루어진다는것을 해명함으로써 사회력사발전이 그 어떤 정신적인 힘이나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던 종래의 관점이 극복되고 사람을 중심으로 사회발전을 대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견해와 관점, 립장이 확립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은 가장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의 리론적 기초로 되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회력사관을 가지고 혁명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의 지위를 자각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도록 하는것이다.

사회를 전진시키고 혁명운동을 다그쳐나가는 결정적 힘은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에 있으며 그것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될 때 더욱 강화된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기 위하여서는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수령이 노는 역할을 똑똑히 인식하고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워야 한다.

우리는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사상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데 기본을 두고 주체사상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밝혀진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사상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주체적 견해

손 영 규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문헌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심오히 밝히시면서 주체사상의 원리에 기초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 리해를 확립하시였다.

문헌에는 무엇보다먼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노는 중요한 역할이 새롭게 해명되여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집단이다.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 당, 대중사이에는 참다운 인간관계,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노는 역할은 그것이 이 생명체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작용에서 나타나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사람들을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19페지)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져있는것만큼 그것이 유지되고 강화발전되려면 개별적 사람들사이에 공고한 결합을 담보하는 관계가 형성되여야 한다. 그래야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된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존재를 유지할수 있으며 통일적인 생명활동을 끊임없이 벌려나갈수 있다.

사람들사이의 진정한 결합과 공고한 단합의 관계는 그 어떤 강요나 의무감에 의해서 이루어질수 없다. 행정적 강요나 단순한 의무감에 의한 결합은 실무적이며 일시적인 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결합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와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룰수 있는 진정한 결합, 가장 생활력있는 단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는것은 오직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이다.

혁명적 동지애는 혁명동지를 믿고 사랑하며 동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품성이며 혁명적 의리는 혁명동지의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는 품성이다. 원래 동지란 혁명을 하려는 같은 사상을 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생사운명을 같이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동지들사이에는 서로 사랑하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는 사상감정이 지배하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개별적 사람들을 호상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킨다. 사람들사이의 믿음과 신뢰는 그들을 서로 접근시키고 굳게 결합시키는 결정적 요

언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사람들이 같은 목적과 리상을 가지고 서로 도와주고 보답하는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들속에 믿음과 신뢰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심어준다. 혁명하는 사람들은 동지적 사랑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사상과 목적의 공통성에 대한 믿음, 숭고한 목적실현을 위하여 생사를 함께 할수 있다는 믿음을 깊이 간직하게 되며 그것은 동지적 사랑에 보답하는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확고해진다. 사람들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맺고 서로 신뢰함으로써 결국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여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또한 개별적 사람들을 동지적 헌신성에 기초하여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킨다.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려면 그들이 서로 신뢰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가져야 할뿐아니라 남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바치는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사람들속에 남을 위해 헌신하는 숭고한 사상감정을 형성시키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하는것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이다. 남을 위해 바치는 헌신성은 혁명적 동지관계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뚜렷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맺고 혁명투쟁을 함께 하는 과정에 동지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방조를 숭고한 의무로 여기게 되고 동지들의 사랑과 도움에 헌신적으로 보답하는 고상한 사상감정을 지니게 되며 그에 기초하여 생사를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되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람들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작용을 할뿐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힘있는 작용을 한다.

물론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는 사람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뿐아니라 자유와 평등의 원리도 작용한다. 원래 자유와 평등은 봉건시기말에 부르죠아지가 봉건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처음으로 들고나온 구호이다. 로동계급의 선행한 혁명리론도 부르죠아지가 들고나온 《자유》와 《평등》의 기만성을 폭로하면서 로동계급을 예속과 불평등에서 해방하기 위한 문제를 론의하였다. 지난 시기에 론의한 자유와 평등문제는 계급적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특성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지만 주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것이였다. 주체사상도 자유와 평등이 귀중하다는것을 인정한다. 주체사상이 밝히고있는바와 같이 사람은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그 누구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는 자주적인 존재이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인간의 본성이라는데로부터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이 귀중하다고 본다. 자유와 평등을 중요시하는것은 인간해방의 위대한 학설로서의 주체사상의 근본특성의 하나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이처럼 귀중하고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일정한 작용을 하지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노는 역할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원칙적으로 구별된다.

사회정치적 생명체가 공고한 집단으로 강화발전되려면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이 없어야 할뿐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사회적 집단전체의 자주성이 옹호되여야 한다. 하나의 사회적 집단을 단위로 하여볼 때 평등의 원리가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개인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한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작용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철두철미 사회적 집단, 사회정치적 생명체 전반의 자주성을 옹호하는것으로 하여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자유와 평등의 원리보다 높은 차원의 원

체로 되며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서 평등의 원리보다 비할바없이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된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자유와 평등의 원리와는 달리 사람들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힘있는 작용을 하게 되는것은 그 사상적 기초와 관련되여있다.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개인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하고있다.

개인주의적 생명관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안에서 그것을 이루는 개별적인 성원들의 생명을 귀중한것으로 여기는 생명관이다. 이 생명관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시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착취계급의 생존방식인 개인리기주의와 구별된다. 개인리기주의는 한 사회적 집단안에서뿐아니라 집단밖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오직 개인의 생명만을 위하고 개인의 리해관계 하나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 집단전체의 생명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사상이다. 사회적 집단을 단위로 하여볼때 개인리기주의는 결국 개인의 자주성을 침해하는데로 나간다면 개인주의적 생명관은 개인적 불평등을 없애고 개인의 자주성을 보장하는데로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집단주의적 생명관은 인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모체를 사회정치적 집단으로 보는데로부터 개인의 생명보다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생명관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집단주의적 생명관을 사상적 기초로 하고있기때문에 사람들을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고 이 생명체의 자주성을 옹호실현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게 된다.

문헌에는 다음으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는것이 사회적 집단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로 된다는 사상이 심오히 천명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적집단의 통일은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안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이것은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문제와 집단의 통일을 강화하는 문제를 다같이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줍니다.》(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발양하는 문제와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문제의 호상관계를 옳게 해결하는것은 집단의 공고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대한 문제이다.

사회적 집단이 공고발전되려면 집단이 통일되고 단합되여야 하며 집단을 이루는 개인들이 집단의 통일과 공고발전에 사활적인 리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사회적 집단이 자주적 집단으로 되는것은 그 통일단결의 기초이며 집단의 자주적 발전에 대한 리해관계와 개인들의 자주성을 실현할데 대한 리해관계가 일치하는것은 집단의 성원들이 집단전체의 통일적 발전에 절실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근본조건이다. 여기로부터 사회적 집단의 자주성과 개인들의 자주성, 창발성이 통일적으로 보장되여야 집단의 공고발전이 이룩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사회정치적 집단안에서 개인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이며 집단의 자주성을 옹호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공고발전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가 차

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여 이 두 원리가 통일적으로 구현되여야 사회정치적 집단의 공고발전이 이룩된다는 진리를 독창적으로 밝혀준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도 개인들사이의 평등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전제로 된다는것과 관련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개인들사이의 평등은 그들사이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모순되지 않는다.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이 근절되고 사람들사이의 평등이 보장된 조건에서만 참다운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이루어질수 있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하여야 하는것은 또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더 잘 실현해주기때문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보장하고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개인의 자주성과 창발성은 집단의 자주성과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다. 집단의 자주성은 개인의 자주성, 창발성 보장의 근본조건이며 집단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집단을 이루고있는 성원들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된다.

이처럼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자유와 평등의 원리와 밀접히 련관되여 작용하며 따라서 이 두 원리는 언제나 통일적으로 구현되여야 한다. 만일 이 두 원리가운데서 어느 하나만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하나를 소홀히 한다면 집단의 자주성은 물론 집단에 속한 개인의 자주성도 원만히 보장할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사회정치적 집단자체를 유지할수 없게 된다. 오직 평등의 원리와 동지애의 원리를 통일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사회적 집단의 통일이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이루어지게 할수 있으며 사람의 자주성과 창발성이 어디까지나 집단의 통일을 보장하는 테두리안에서 실현되게 할수 있다.

문헌에는 또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이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은 사회정치적집단의 생명의 중심인것만큼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도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와 같은 문헌, 21페지)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를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 하는것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노는 역할을 응당한 수준에서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이 사회정치적 집단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는가 못나가는가를 좌우하는 중대한 원칙적인 문제이다.

주체사상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과학적 분석에 기초하여 이 생명체안에서 이루어지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밝혀준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가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것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기때문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한다. 수령은 또한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함으로써 그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간다. 이것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안에서 수령과 대중, 수령과 전사들사이의 관계는 결코 개인들사이의 관계로 될수 없으며 수령

은 곧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속해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모체로,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이기때문에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관계에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되게 된다. 수령에 대한 전사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자기에게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이게 하여주는 수령의 은덕에 보답하려는 숭고한 정신과 수령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 고상한 사상감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오직 사회정치적 생명체에 자주적인 생명력을 부여하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활동을 유일적으로 령도하는 수령에 대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수령에 대한 충실성만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되게 된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주체적 리해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신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진다.

이번 문헌에 의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굳임없이 공고발전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된다는것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지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공고한 통일단결을 보장하는 문제와 개인의 자주성, 창발성을 발양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와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결합시켜야 한다는 진리가 새롭게 천명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오랜 기간 인류의 사색과 탐구의 초점으로 되였던 자유와 평등의 원리의 지위와 역할이 명백히 규정되고 사회정치적 집단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차원의 원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독자적인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게 되였다.

이번 문헌에 의하여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가 수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수령에 대한 혁명전사들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과학리론적으로 심오히 론증됨으로써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의 단합을 공고히 하고 그 위력을 굳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는 가장 올바른 지도적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문헌에서 천명된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자유와 평등에 대한 주체적 리해의 진리성과 정당성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 실천에 의하여 빛나게 확증되였으며 그 불패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커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우리 혁명이 개척되던 시기에 마련된 혁명의 주체가 항일혁명투쟁과 해방후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거창한 위업을 힘있게 떠밀면서 굳임없이 발전공고화되여온 력사적 로정은 수령과 혁명전사들사이의 가장 숭고하고 감동깊은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로 아로새겨진 영광스러운 행로이다.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에 관한 주체의 리론이 훌륭히 구현됨으로써 우리 나라에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로서의 혁명의 주체가 그 어느때보다도 튼튼히 마련되게 되였다. 이 혁명의 주체는 그 무엇으로써도 굳을수 없는 하나의 혈맥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우리 사회, 우리 혁명발전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번 문헌에서 독창적으로 밝혀진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원리에 담겨진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깊이 체득하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침으로써 우리 혁명의 주체를 보다 강력한 자주적인 주체로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

박 충 배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를 어떻게 보고 해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원칙적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가 정확히 해결되여야 인민대중은 옳바른 자세와 립장, 전략전술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 요인의 역할을 응당하게 보지 못하고 객관적 조건의 의의와 역할을 과대평가한다면 혁명실천에서 자연생장론에 빠져 추미주의와 소극성을 면할수 없으며 반대로 주체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하여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다면 주관주의와 모험주의의 오유를 범하게 된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간고하고도 복잡한 혁명과 건설을 언제나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이끌어왔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이 밝힌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에 대한 옳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혁명의 끊임없는 전진과 그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확고한 담보의 하나로 된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이 객관적 물질세계를 자기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창조적 활동이다.

사람은 혁명과 건설의 주체이며 객관적 물질세계는 혁명과 건설의 대상이고 조건이다. 주체를 떠난 혁명과 건설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는것처럼 객관적 대상과 조건을 떠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도 있을수 없다.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주체적 요인인 사람과 객관적 조건인 자연과 사회의 호상 작용속에서 진행되게 된다. 이것은 사람과 객관적 물질세계가 혁명과 건설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이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는것은 결코 이 량자가 꼭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은 모든 혁명투쟁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이지만 그것들이 노는 역할은 다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물론 인간은 객관적조건을 무시하고 력사를 창조할수는 없지만 객관적조건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며 인간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변될수 있는것입니다. 력사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것은 객관적조건이 아니라 인간입니다.》(《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7페지)

혁명과 건설은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저절로 수행되는것이 아니라 사람, 인민대중에 의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수행된다.

혁명과 건설을 요구하는것도 사람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사람에게 있다. 사람,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그 담당자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목적의식적으로 일으키고 추진시켜나가는 주체적 운동

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조건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 사람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객관적 조건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수행하는데서 이러저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주위환경이다.

이것은 객관적 조건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그 의의를 거부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객관적 조건은 비록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필수적인 요소로 된다. 주체적 요인이 있어도 객관적 조건이 없으면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없다. 만일 혁명과 건설에서 객관적 조건을 무시한다면 맹목적인 행동밖에 있을수 없으며 투쟁에서 실패를 면할수 없는것이다. 문제는 객관적 조건을 주체적 요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떻게 결합시키는가 하는데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조건이란 일정한 원인이 일정한 결과를 산생시키는데 필요한 환경의 총체이다. 조건은 그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조건은 일정한 원인이 일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에 원인에 종속되여 작용한다. 때문에 조건의 역할은 원인이 결과를 산생시키는데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데 따라 평가되게 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은 일정한 객관적 조건속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간다. 혁명의 원인과 동력은 주체자체에 있으며 객관적 조건은 주체의 활동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작용하는 요인으로 된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이 객관적 조건에 대하여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며 객관적 조건은 주체적 요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와 역할을 한다. 이것이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이다.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체적 요인의 지배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 주체적 요인에 대한 객관적 조건의 종속적인 지위와 역할은 객관적 조건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 요인의 주동적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인간에게 유리하게 개변될수 있다는데 있다.

객관적 조건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동적이고 적극적인 작용을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 주체적 요인의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작용에 의하여 사람에게 유익하게 개변될수 있다.

례컨대 농업생산에서 토지는 필수적인 객관적 조건이다. 토지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것이 농업생산에 일정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것은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 주어진 토지를 어떻게 개량하며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의하여 농업생산의 성과가 결정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조건타발을 철저히 배격하고 필요한 조건을 자신의 투쟁으로써 쟁취하고 주동적으로 조성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시종일관한 원칙이다. 우리 당의 이러한 립장은 객관적 조건이 주체적 요인의 주동적 역할에 의하여 사람에게 유리하게 개변될수 있다는 진리를 구현하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적 리해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력사관에 그 사상리론적 기초를 두고있는 독창적인 사상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하며 객관적 조건은 그에 대하여 종속적 지위와 역할을 한다는 견해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로부터 직접적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활동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는 사람과 그를 둘러싼 객관세계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세계관적 성격을 띤다.

종래의 철학적 세계관에서는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가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되였으며 이에 따라 그것은 유물론과 관념론의 2대 진영으로 갈라졌다.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는 본질상 세계의 시원에 관한 문제로서 직접적으로는 세계의 개조발전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유물론과 관념론도 일정한 세계관을 주는것만큼 세계의 개조발전과 인간의 운명 개척을 위한 활동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문제와 무관계할수는 없다.

유물론은 세계의 물질성을 주장하면서 의식을 그 반영으로 보는 근본전제로부터 객관적 조건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사람의 활동은 그에 종속시켜 설명할수밖에 없었다.

유물론과는 반대로 관념론은 의식을 1차적인것으로 보는 그 근본전제로부터 인간의 의식적 활동의 역할을 절대화하였으며 그 역할을 물질세계와 동떨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활동을 순수 주관적, 정신적 활동으로만 보았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실천활동에 대하여 리해할수 없었다.

맑스주의는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간의 물질적 활동, 실천의 역할을 밝혔으며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온갖 자연생장론을 반대하고 혁명운동의 목적의식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물질과 의식의 호상관계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사람과 세계의 호상관계,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문제를 철학의 근본문제로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중심의 철학적 세계관과 사회력사관을 확립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세계관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는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문제에 완전한 철학적 해명을 주었다.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세계의 변화발전에서 주체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을 세계관적으로 기초지어주고 있으며 객관적 조건의 역할도 사람의 활동, 주체적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는것을 철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주체사상은 특히 사람의 본질적 특성과 세계에서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데 기초하여 모든것이 사람들의 의식적 활동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회력사적 운동의 고유한 합법칙성을 밝힘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과 그에 대한 객관적 조건의 종속적 역할을 사상리론적으로 확고히 근거지어주고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의 리론은 그 심오한 철학적 내용으로 하여, 그 과학성과 독창성, 진리성과 혁명성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참으로 커다란 리론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적 리해는 무엇보다도먼저 혁명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옳바른 자세와 태도를 밝혀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사업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은 주체에서 찾고 일감은 객관에서 찾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계십니다.》(우와 같은 문헌, 7페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것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가 혁

명의 주인인 사람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으며 그것은 혁명하는 사람에게 어떤 조건하에서나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자세와 태도를 가질것을 요구한다.

사업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을 주체에서 찾는다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언제 어떤 경우에나 객관적 조건에 빙자할것이 아니라 모든것을 자신이 책임지는 주인다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인것만큼 혁명과 건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기본원인은 그 주인인 사람에게 있는것이다. 오직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높은 책임성을 가진 사람만이 혁명의 참다운 주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확고히 견지할 때에만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는것이다.

일감을 찾는다는것은 자기앞에 투쟁과업을 제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어떤 과업을 어떻게 제기하는가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혁명과 건설이 객관적 물질세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이라는 주체의 리론은 혁명하는 사람들에게 객관적 물질세계, 자연과 사회에서 사람의 리익과 배치되는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개조하는것을 투쟁과업으로 제기한다. 일감을 객관에서 찾는다는것은 바로 자연과 사회에서 사람의 리익에 배치되는 모든것을 사람에게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일감을 객관에서 찾는 태도는 자연과 사회의 모든것을 사람에게 복무하도록 개조하기 위하여 주동적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과업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데서 표현된다. 혁명하는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자세와 태도를 견지할 때에만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끊임없이 전진시킬수 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에 관한 주체적 리해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견지하여야 할 자세와 태도뿐아니라 혁명수행의 근본방도도 밝혀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그것을 반드시 객관적 대상과 조건에 맞는 옳바른 전략전술과 결부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우와 같은 문헌, 8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옳바른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것과 함께 과학적인 투쟁방도를 세우고 관철하는것은 그 성과적 수행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은 과학적인 투쟁방도에 의해서만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다.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그것을 객관적 대상과 조건에 맞는 과학적인 전략전술과 결합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로부터 직접적으로 흘러나오는 혁명수행의 가장 옳바른 근본방도로 된다.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의 결정적 역할로부터 필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사람, 인민대중인것만큼 사람,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이 혁명수행의 근본방도로 된다.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으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대중이 자절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

기의 위력을 다 발휘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은 오직 혁명적으로 각성되고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자각할 때에만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창조적 역할을 다할수 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의 창조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사업을 확고히 앞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인민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는 근본방도는 사상개조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있다. 사상개조를 앞세워 인민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이고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높이 발양하도록 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방법인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이 하는 사업이지만 그 대상은 어디까지나 객관적 물질세계, 자연과 사회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대상인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현상들은 사람의 의식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은 자체의 고유한 특성과 객관적 합법칙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객관적 대상의 특성과 그 합법칙성을 무시하고서는 그것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없다. 사람은 오직 객관적 대상의 특성과 그 운동법칙을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그것을 지배, 통제하고 리용하는 방법으로만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기자신에게 복종시킬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객관적 대상의 특성과 그 운동법칙을 지배, 통제, 리용하는 방도는 물론 대상자체의 운동법칙에 의하여 제약되지만 반면에 사람은 객관적 대상의 특성과 그 운동법칙을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지배, 통제하고 리용할수 있는 방도와 묘술을 자신이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활동의 방도는 객관적 대상의 운동법칙과 구별하여 전략전술이라고 한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객관적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그것을 주체적 요인에 복종시킨데 대한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 때에만 참으로 위력한것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객관적 대상의 특성과 그 운동법칙에 맞는 옳바른 전략전술을 세우고 관철한다는것은 바로 모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구체적 실정에 맞게 한다는것이다.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방법인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이 모든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를 정확히 해결하는것이 옳바른 자세와 방법을 견지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참으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주체적 요인에 달려있다. 그리고 혁명과 건설이 전진할수록 주체적 요인의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는것은 완전히 합법칙적이다.

우리는 혁명발전의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주체를 더욱 강화하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객관적 물질세계,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지배하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것이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기풍

리 성 린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전기간에 걸쳐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기풍이다.

혁명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지닐데 대한 요구는 특히 조성된 혁명정세가 긴장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일군들이 순간이나마 자기의 책임적인 임무를 잊어버리고 안일해이해지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한다는것은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혁명하는 사람답게 사업과 생활을 긴장하고 전투적으로 해나간다는것을 말한다. 그것은 당과 수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어떻게 하나 기어이 수행하고야마는 높은 충실성을 지닌 일군들의 정신상태를 구현하고있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는 굳은 각오를 반영한것이다.

혁명적 사업기풍, 생활기풍은 공산주의혁명가들의 고유한 기풍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하였던것처럼 혁명적으로 사업하고 혁명적으로 생활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사업태도, 생활태도입니다.》

공산주의혁명가는 혁명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한몸바쳐나가는 사람이다. 혁명가의 생활은 투쟁으로 시작되며 투쟁으로 끝나는것이다. 꺾을수 없는것이 공산주의자의 의지이고 멈춰세울수 없는것이 혁명가의 생활이다. 혁명가는 깊은 산속이나 외진 섬에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도 결코 헛되이 나날을 보내지 않는다. 그들은 혁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가장 큰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공산주의혁명가들은 이러한 강의한 의지와 불굴의 혁명정신을 지니였기에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에서 순간의 안일과 해이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싸워나간다.

혁명은 유리한 환경속에서만 진행되는것이 아니다. 혁명투쟁과정에는 험한 가시덤불과 파란곡절도 있을수 있으며 일시적인 실패와 가슴아픈 희생도 있을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희생이 두려워 투쟁하기를 주저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태도라고 말할수 없다. 그러므로 혁명의 길에 나선 혁명가들은 한생을 전투적으로 살며 싸워나가는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는것이다.

참다운 혁명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혁명적 사업기풍, 생활기풍은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 혁명관에 기초하고있다.

사람들의 사업태도, 생활태도는 그들의 사상의 구체적 발현이며 정신도덕적 풍모의 반영인것이다. 계급투쟁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 립장이 계급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처럼 사람들의 의지와 투쟁기풍도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람들이 얼마나 강의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사상문제이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고상한 공산주의혁명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혁명투쟁에서 견결한 립장과 태도를 취할수 있으며 강의한 의지를 가지고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혁명투쟁을 끝까지 벌려나갈수 있다. 주체의 혁명관이 똑바로 서야 당과 수령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끝없는 헌신성을 지닐수 있으며 사소한 안일과 해이, 순간의 답보와 침체도 허용하지 않고 언제나 긴장하게 전투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완강한 투쟁정신을 가질수 있다.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는 전기간에 걸쳐 마련하여주신 전투적 기풍의 중요한 내용을 이룬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항일혁명투사들이 한순간을 살아도 혁명을 위하여 살며 그것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여기고 온갖 간난신고를 무릅쓰면서 싸워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한 항일혁명투사들은 그 누구도 개인의 공명과 출세, 일신의 부귀영화에 대하여 생각한적이 없었다. 그들은 오직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언제나 혁명적이며 전투적으로 생활하고 싸웠던것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이 불굴의 혁명정신과 혁명적 사업기풍, 생활기풍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해방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순결하게 고수되고 끊임없이 발전풍부화되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시기에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 구호를 제시하시고 우리 일군들이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전면적으로 계승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오랜 투쟁행정에 마련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을 오늘의 정세의 요구에 맞게 드팀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무거운 임무가 우리 일군들에게 맡겨져있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따사로운 품에 안기여 비로소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혁명의 중요한 초소를 맡게 되였다. 당의 높은 정치적 신임에 의하여 책임적인 사업을 맡아 수행하는 커다란 영예를 안게 된 우리 일군들이 당과 수령이 마련해준 전통적인 사업기풍, 생활기풍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것은 혁명전사로서의 마땅한 도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숭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일군들은 항일혁명선렬들처럼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할 때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 이 땅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광명한 미래를 앞당겨올수 있는것이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지도일군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있는 투철한 혁명전위들이 패기에 넘쳐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곳에서는 언제나 전투적인 기백과 기상이 나래치게 된다.

평안남도 맹산군당위원회와 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일군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로부터 한결같이 존경을 받는 리유도 바로 혁명적인 사업태도, 생활태도에 있다. 맹산군당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립장에서 일을 설계하고 결실을 볼 때까지 적극적으로

밀고나갔으며 순천지구 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일군들은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고 모든 정력을 오직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는데 바쳤다. 그리하여 이름없던 맹산땅에 훌륭한 본보기군이 일떠서게 되였으며 2.8직동청년탄광을 비롯한 순천지구의 여러 탄광들에 자체의 힘으로 앞선 기술장비들이 꾸려지게 되였다. 평원군당위원회 일군들은 혁명적 일본새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난해 11월에 주신 현지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함으로써 올해농사에서 빛나는 결실을 보게 되였다.

이처럼 당과 수령의 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받들고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사고히 의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는 일군들이 사업하는곳에서는 아무리 방대한 과업이 제기되여도 반드시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일군들의 사업기풍, 생활기풍에 대한 요구는 혁명이 심화되고 전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높아진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우리 일군들이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울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속에서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기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일군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혁명의 간우에 있다. 미제가 조국의 남반부를 강점하고있고 공화국 북반부를 반대하는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놈들의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모험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언제 전쟁이 다시 터질지 모를 매우 위험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조건은 평화적 건설만을 위주로 해나가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구별된다. 그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철저히 견지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욱 절박하게 제기된다. 오늘의 정세는 전후복구건설시기나 제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던 때에 못지 않게 복잡하며 긴장되여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제3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앞당겨 수행하고 이 땅에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주체조선의 위력과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한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고있는 혁명임무는 우리들에게 이미 거둔 성과에 만족하여 전진속도를 늦잡거나 안일하게 살것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일군들은 단 한시도 전투적 태세를 늦추지 말고 혁명하는 시대에 사는 혁명전위답게 언제 어디서나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투신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이다.

당과 수령에게 충실한 일군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가장 정당한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더 철저히 관철하겠는가에 대하여 늘 머리를 쓰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기 위하여 대중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완강하게 투쟁한다. 일군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투신하여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갈 때 대중들도 높은 신심과 열의를 가지고 제기된 과업을 힘있게 해제끼며 생산과 건설에서는 훌륭한 성과가 이룩된다. 그렇지 않고 일군들이 소극성과 보수주의, 형식주의, 요령주의에 사로잡히고 애로와 난관앞에서 주저하면서 투신하지 않는데서는

결코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될수 없으며 모든 사업이 제대로 해결될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저하고 투신하지 않는것은 혁명가의 기질이 없고 당과 수령과 생사고락을 같이해나가려는 혁명적 신념이 확고하지 못한 표현이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기전에 먼저 그것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어머니당과 어버이수령님께서 베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신임이라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고 적극 투신하는 혁명적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새로운 당정책을 접수하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며 모든 사색과 정열을 깡그리 바쳐 당이 맡겨준 혁명과업을 철저히 완수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자력갱생, 간고분투는 혁명과 건설을 자체로 끝까지 해나가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정신이며 그 어떤 난관도 뚫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변혁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다.

당의 로선,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과정에는 여러가지 난관과 애로가 조성될수 있다. 오직 이러한 난관과 애로, 시련을 뚫고나가는 완강한 투쟁을 통해서만 혁명은 전진하며 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이 선 일군들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해나간다는 혁명적 립장과 투쟁정신을 가지고 완강히 투쟁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언제나 위훈을 창조해나간다.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자기의 힘과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 기술로 현대적인 대형산소분리기와 1만톤프레스 그리고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운 사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그 무엇이든지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은 항일혁명선렬들이 지니였던 그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전후의 어려운 시기 천리마대고조의 불길을 일으켜 이 땅우에 위대한 변혁과 비약의 력사를 창조하던 그 기백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용감히 뚫고 쉬임없는 새로운 창조적 위훈을 떨쳐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또한 언제나 사생활, 경제생활을 청렴하고 결백하게 하는 고상한 도덕품성을 소유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자는 인민대중의 리익의 옹호자이며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이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며 그들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는 생활에서 언제나 소박하고 청렴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생활에서 겸허하고 결백하며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고 그들의 사랑을 받는 혁명전사가 될데 대하여 언제나 간곡히 가르치고계신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견결한 투사로 될뿐아니라 생활에서 무한히 소박하고 겸손하며 청렴한 인민적 품성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은 안일과 해이를 모르는 혁명가의 열정과 패기가 온몸에 차넘치고 생활에서 끝없이 겸허하고 결백한 일군들을 따르며 존경한다. 일군들이 안일해이하게 생활하면 대중의 신망을 얻을수 없고 혁명가의 고상한 풍격을 지닐수 없게 되며 나아가서 당의 높은 령도

적 권위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일군들은 안팎의 정세가 복잡한 오늘의 환경에서 안일과 해이를 배격하고 생활을 검박하고 긴장하게 하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또 투쟁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고상한 기풍을 지니고 당의 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기 위하여서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것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것을 혁명의 근본임무로 내세우고 그것을 완전히 실현할 때까지 혁명을 계속할것을 요구하는 철저한 혁명사상이다. 그것은 험난한 시련의 고비를 뚫고온 조선혁명의 전행정에서 우리 당과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끈 필승불패의 혁명적 기치이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주체의 혁명적 세계관과 수령관을 확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갈수 있다.

조성된 안팎의 복잡한 정세와 우리앞에 나서는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는 투철한 립장을 견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체의 혁명적 신념이 확고한 사람은 자기 당과 수령의 위대성, 자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심장으로 깊이 간직하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남을 쳐다보거나 넘겨다보는 일이 없으며 제 정신을 가지고 당의 위업을 지켜 견결히 싸워나간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여기에 우리 일군들이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모든 일군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을 우리 식대로 힘있게 전진시키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이 혁명적인 투쟁기풍과 생활기풍을 지니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우리 인민이 지난날 간고한 조건에서 높이 발휘하였던 숭고한 투쟁정신을 그대로 받아안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는 길에서 영웅적 투쟁전통을 창조하였으며 그것을 빛나게 이어나가고있다.

모든 일군들은 나라의 해방과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 건설의 길에서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고결한 투쟁정신을 적극 본받고 사업과 생활에서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일군들은 특히 이러한 전통적인 투쟁기풍이 전사회적인 기풍으로 되게 하며 그것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위대한 변혁과 비약을 안아오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와 투쟁기풍의 높이에는 한계가 없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에 대한 요구성을 높여 그들이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결한 풍모와 투쟁기풍을 지니고 자기의 혁명적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실속있게 이끌어주어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언제나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사업에서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함으로써 고귀한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이며 혁명전사로서의 숭고한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 것은 청년교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현 석

청년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것은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력량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에 청년들속에서 혁명의 간고한 시기에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어떻게 싸워왔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을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을 굳게 믿고 받들어나가는 참된 혁명가들로,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우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깊은 뜻이 깃들어있다.

수령관에 관한 문제는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어떻게 보며 수령을 어떻게 모시고 받들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원칙적인 문제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 수령관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입니다.》

혁명적 수령관은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진심으로 높이 모시는 립장과 자세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수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의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력사발전과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견해와 관점이며 수령을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자세와 립장이다.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청년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나서게 된다.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는것이 청년교양에서 근본적 의의를 가지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로부터 제기되는 절박한 문제이기때문이다.

청년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의 계승자, 교대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 계승자들을 끊임없이 교양육성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청년들은 혁명의 새세대이며 자라나

는 세대이다. 그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실현의 믿음직한 혁명력량이며 민족의 장래와 사회의 앞날을 대표하는 주인공들이다. 이로부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갈 담당자인 청년들을 훌륭하게 교양하지 않고서는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할수 없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해나가는 거창하고 간고한 혁명투쟁이다. 그러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선봉대, 돌격대로서 진취성이 강하고 왕성한 정력을 소유한 청년들을 요구한다.

청년들은 건장하고 혈기왕성하며 용감한것으로 하여 로력전선의 주력군으로 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기술발전의 선봉투사, 문화건설의 선도자로 된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청년들은 자연과 사회, 인간개조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담당수행하는 위력한 력량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아무리 훌륭한 기질을 지니고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스스로 발휘되는것은 아니며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수행할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력사무대의 주인공으로 되지는 않는다. 청년들이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고하게 믿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믿음직한 계승자, 선봉대가 되도록 하자면 그들을 부단히 교양하며 이끌어주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나서게 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가지는 정당성과 위대성을 인식하자면 혁명적 수령관을 세워야 한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실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수령에게 충실할 때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충실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에게 충실할수 있다. 그런것만큼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워야 그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킬수 있으며 혁명위업의 계승성과 일관성을 옳게 보장하고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이처럼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것은 청년들을 혁명위업의 계승자, 믿음직한 담당자로 키우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이 청년교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이 류례없이 방대하고 긴장하게 진행된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중요대상건설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는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 긴장한 전투가 벌어지고있다. 거창하고 방대한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청년들이 지난날에도 그러하였던것처럼 오늘도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서 당과 수령의 의도와 구상을 앞장에서 관철해나가는 혁명적 기풍을 더욱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지난날 우리의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당과 수령의 구상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관철해나갔으며 자기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 재능을 발휘하여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청년들은 어제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변함없이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주도적 력량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수령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체득하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 때 최상의 높이에서 발휘되게 되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성과가 창조되게 된다. 청년들은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움으로써만 당의 로선과 정책을 그 어떤 명령이나 의무로 받아들이

기전에 그것을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로 깊이 간직하고 끝까지 관철해나가게 되며 따라서 보람찬 사회주의건설전투장마다에서 자기의 훌륭한 기질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된다.

이것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것이 그들을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력량으로, 당의 적극적인 방조자로 준비하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이 청년교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나라에 조성된 긴박한 정세의 요구로부터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는 해방을 맞은지 40여년,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한지 34년이 되였다. 항일혁명의 혈로를 헤쳐온 혁명투사들의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리였으며 전화의 언덕을 넘어온 전사들도 중년기를 넘어 로년기에 들어서고있다.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청년들이 이제는 혁명과 건설의 기본력량으로 등장하고있다.

세대는 교체되여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우리 나라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앞길에는 의연히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와 그 주구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은 더욱 악랄해지고있으며 조선반도에서의 열핵전쟁의 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우리는 침략의 원흉이며 가장 악랄한 평화의 교란자인 미제와 직접 맞서서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으며 민족적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혁명의 객관적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단계에 있어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력량으로, 담당자로 나선 새세대청년들이 어데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추호의 동요없이 로동계급의 혁명적 립장을 견결히 고수하고 높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자면 반드시 그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청년들이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울 때만이 아무리 어려운 정세가 조성되고 일시적인 난관에 부닥쳐도 추호의 동요없이 드놀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세울수 있으며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당과 수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걸어갈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것은 안팎의 혁명정세가 복잡하고 긴장할수록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문제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들이 신념과 의리로 당과 수령을 받들어 나가도록 하는 사업을 절대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우리 당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충실성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혁명적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한 단련을 심화시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고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왔다.

오늘 청년들속에서는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적 조직생활이 강화되고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는 운동이 힘있게 조직전개되고있으며 김혁, 차광수를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살며 투쟁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 과정에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모든 남녀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밖에는 모른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숨을 쉬여도 당과 함께 숨을 쉬고 말을 하여도 당의 목소리로만 말

하고 걸음을 걸어도 당이 가리키는 길로만 걸어나가는것을 투쟁과 생활의 어길수 없는 원칙으로, 삶의 보람으로 여기고있다.

청년들의 이 자랑찬 모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영원히 한길을 따라나가려는 투철한 신념의 발현이며 자기들을 키워준 당과 수령의 은덕에 충성다해 보답하려는 고상한 혁명적 의리와 뜨거운 마음의 표현이다.

우리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이러한 혁명적 풍모는 그들을 혁명의 후비대,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보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청년들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 청년들앞에는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할 중요한 문제가 나서고있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는것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우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 과업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수령관을 튼튼히 세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의리로 간직하기 위하여서는 수령과 자기 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합니다.》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단행본, 26페지)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청년들이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여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할수 있으며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위대성교양은 청년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개척되고 전진하는 혁명위업의 정당성을 깊이 간직하게 하고 당과 수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한다. 이 과정에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수령을 가장 위대한분으로 절대화하게 되며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하겠다는 옳바른 자세와 견결한 립장을 가지게 된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서 기본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인식시키는것이다. 사상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이야말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위대성을 특징짓는 3대풍모라고 말할수 있다.

청년들속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하여서는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업적이 폭넓고 깊이있게 총화되여있다.

모든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에 대한 원문학습을 실속있게 벌려 로작과 당문헌에서 제시된 사상과 리론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로작과 당문헌을 학습하는 목적은 거기에 담겨진 사상리론적 내용을 깊이 파악하자는데도 있지만 중요하게는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자는데 있다.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에서 자기 부문 사업과 관련된것부터 하여야 하며 거기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찾고 실

지 사업에 구현하여 실천투쟁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더욱 튼튼히 세워나가야 한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한 충실성의 산 모범으로 교양하는것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청년들에게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을 가지고 교양하여야 그들이 큰 감동과 충동을 받고 실천활동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으며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울수 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우리 청년들이 따라배워야 할 빛나는 모범이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그 어떤 명예와 보수가 약속된것도 아니고 더우기는 조선이 언제 독립될지 기약할수 없었던 조건에서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였으며 그이의 품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였다. 그들은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목숨으로 헤쳐나가면서 수령님을 견결히 옹호보위하였으며 그 길에서 자기의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였다.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지니였던 투철한 혁명적 수령관은 령도자에게 충직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빛나는 모범으로 되며 우리 인민들을 충성의 한길로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대한 사상정신적 원천으로 된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본받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시기에 우리 인민과 청년들 속에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생동한 모범들이 수많이 창조되였다.

우리는 청년들속에서 지난날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하여 항일혁명선렬들과 우리 인민들이 발휘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청년들을 혁명적 수령관이 확고히 선 충성의 전위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 청년들의 대부분은 사로청조직생활을 하고있다.

사로청조직은 청년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리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사상교양의 거점이며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주는 친정한 보호자이다. 그런것만큼 사로청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자기가 지닌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사업을 제일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로청원들이 높은 조직관념을 가지고 혁명적으로 살며 전투적으로 투쟁해나가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과 의리로 간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여야 한다.

청년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혁명의 승패와 조국의 앞날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모든 청년들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울데 대한 당의 의도와 구상을 철저히 실현해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우리 혁명의 주력군으로 더 잘 준비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녀성혁명가의 빛나는 생애

허 정 숙

오늘 우리 인민은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탄생 7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우리 나라에 망국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1917년 12월 24일에 함경북도 회령군 회령읍 오산덕의 가난한 농가에서 탄생하신 김정숙동지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온 생애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다 바치신 참다운 공산주의녀성혁명가이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피어린 항일성전의 그날부터 민주조선건설의 어려운 나날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성다하는것을 가장 숭고한 의무로, 최대의 행복으로 여기시고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과 혁명의 후비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싸우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그렇듯 고결한 삶을 빛내이며 충성다해오신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적 생애는 조선혁명의 길우에 영원히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1)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성다하신 친위전사의 빛나는 생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자기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견결한 공산주의자들이였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30권, 27페지)

로동계급의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서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결합시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이 나날에 수령은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혁명전사들을 키워주며 수령의 손길밑에 자라난 전사들은 수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에 충성을 다해나간다. 사상과 신념, 운명을 같이하는 수령과 전사와의 이러한 관계속에서 수령께 충직한 혁명가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남기며 죽어서도 영생하는 가장 값높은 생명을 지니게 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생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고 발휘한 투쟁으로 일관되여있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혁명투쟁의 길에서 수령의 사상과 리론의 위대성, 령도의 위대성, 사상정신적 풍모의 위대성을 체득하고 스스로 마음속깊이 간직하게 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의 발현이다. 력사발전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자기 수령의 위대성을 체험한 혁명전사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충실성을 가지고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게 된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 지니셨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웅적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일편단심 수령님께 충성다할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간직하신데 기초하여나온 가장 고결한 충실성이다.

강도 일제의 식민지파쑈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이 당하는 쓰라린 고통과 모진 불행은 대대로 근면하게 살아온 김정숙동지의 가정에도 그대로 미치였다. 나서 자란 고향에서는 물론 살길을 찾아 이주해간 이국땅에서도 김정숙동지는 조선사람이 당하는 가난과 천대, 빈궁과 무권리를 뼈저리게 체험하시였다. 이로부터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린 시절에 벌써 저주로운 당대 사회를 끝없이 증오하고 계급적 원쑤들을 반대하여 싸우려는 각오가 남다르시였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줄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의 길에 나설 불같은 신념을 지니시였다.

주체사상의 기치로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히시고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품은 김정숙동지께 있어서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모두 맡기고 싸워나갈수 있는 혁명의 품이였다.

항일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순간부터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령도, 고매한 덕성에 감동되시였으며 수령님께 끝까지 충성다하는것을 신념과 의리로 굳게 간직해나가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주체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신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티없이 맑고 깨끗하며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것이였으며 전생애에 일관된 가장 고결한것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 사상과 로선을 신념으로 삼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먹는것보다 배우는것이 더 귀중한 량식이라고 하시면서 간고한 행군길에서와 밀영지의 우등불가에서, 지하공작임무수행의 간고한 나날과 가렬한 전투의 나날에 그 어데서 그 어떤 과업을 수행하든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 사상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학습을 중단하지 않으시였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 전략전술적 방침과 명령지시들은 김정숙동지의 뼈가 되고 살이 되였으며 녀사께서 활동하시는 모든곳에서는 그것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되여나가는 혁명적 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조국광복회10대강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 로작들이 광범한 인민대중속에 깊이 침투되고 항일무장투쟁로선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주체형의 당 창건방침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것은 김정숙동지의 정력적인 활동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투쟁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관철해나가신 김정숙동지의 신념과 의지는 항일혁명의 간고한 나날에나 해방후 새조선 건설을 위한 벅찬 나날에나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또한 온갖 원쑤들의 반혁명적 책동으로부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적 권위를 견결히 옹호보위하기 위한 투쟁에서 높이 발휘되였다.

혁명투쟁의 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옹호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보위하고 완성해나가는 길임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자각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생명의 위험속에서도 수령님의 권위와 위신을 견결히 지켜내며 혁명전사의 정치적 생명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였다.

종파사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으로 벌어져 혁명앞에 난국이 조성되였을 때나 고난의 행군시기와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둔 시기 대오안에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고있을 때 생명을 서슴없이 내대고 혁명의 배신자들

과 견결히 투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권위를 옹호보위하고 혁명의 기치를 끝까지 사수하신 김정숙동지의 투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있다. 해방직후 온갖 어중이떠중이들과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여나가는 과정에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적 권위가 철저히 보장된데도 김정숙동지의 견결한 투쟁이 깃들어있다. 엄혹한 시련과 생사를 판가리하는속에서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령도적 권위를 철옹성같이 지켜내신 김정숙동지의 투쟁이야기는 인민들속에 영원불멸의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안녕과 만수무강을 위하여 한몸 다 바쳐 나가신것은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끝없는 충실성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숭고한 풍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조선혁명의 밝은 미래가 있고 수령님께서 안녕하실 때 조국과 민족이 소생할수 있다는것은 김정숙동지의 신념이며 의지였다. 그러기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전생애에 걸쳐 경애하는 수령님을 보위하는 교대없는 보초병이 되고 경위대원이 되시였다.

1940년, 홍기하전투와 대사하치기전투에서 온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변을 보위하시였으며 반동들이 날치던 해방직후의 삼엄한 나날에 친위전사의 모습 그대로 새 조선 건설위업을 이끌고 계시는 수령님의 집무실을 지켜선 초병이 되시고 수령님의 현지지도의 길에 이상이 있을세라 필요한 대책까지 세워 수령님의 활동을 보좌해드리시는 등 김정숙동지의 충성에는 끝이 없으시였다. 해방된 고향의 일가친척들도 만나뵙고싶었고 금강산에 오르시였을 때는 구룡연의 절경도 부감하고싶었지만 그 모든 소원을 뒤로 미루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업을 도우시였으며 수령님의 사업에 걱정을 끼칠수 있는 문제들이 생기면 직접 맡아수행하면서 수령님의 혁명활동을 적극 받들어주신 분도 김정숙동지이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김정숙동지의 충실성은 참다운 공산주의자는 자기의 수령, 자기의 령도자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 모셔야 하며 수령께 충직한 혁명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위대한 구감으로 된다.

(2)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녀성운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혁명적 생애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 특히 항일유격대의 녀성대원들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선녀성들을 해방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접 손에 총을 잡고 싸웠으며 이 투쟁에서 녀성해방운동의 훌륭한 모범을 창조하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2권, 207페지)

녀성운동은 녀성들자신이 주인이 되여 자기들의 자주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그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녀성들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는 거대한 사회적 력량이다. 그러나 녀성들의 모든 권리는 누가 가져다줄수는 없으며 녀성들자신이 노력하고 투쟁할 때에만 행사할수 있다. 녀성들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온갖 착취와 압박, 구속을 반대하는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만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 자기의 해방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 여기에 수령의 위업에 충실한 녀

성혁명가들의 보람찬 투쟁이 있고 빛나는 생애가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녀성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의 주인으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의 역군으로 되게 하는 문제로 된다는것을 밝히시고 녀성운동에 대한 위대한 령도의 력사를 펼치시였다. 이 위대한 사상과 령도 밑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1926년 12월에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를 회장으로 모신 첫 혁명적 녀성정치조직인 반일부녀회가 조직되였으며 그 활동에 의하여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가 열리고 녀성해방운동의 발전과 그 승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강반석녀사께서 닦으신 조선공산주의 녀성운동의 귀중한 터전을 튼튼히 다지시고 녀성해방에 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였다. 이 나날에 김정숙동지께서는 조선녀성운동의 지도자로서 식민지녀성들의 해방에 관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들을 훌륭히 수행하시면서 녀성운동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광범한 조선녀성들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자주의식을 깊이 간직하도록 한것은 녀성운동발전에 기여한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대로 늘 녀성대중속에 깊이 들어가시여 봉건관념과 유교도덕, 낡은 생활유습을 타파하기 위한 대중정치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사업부터 시작하시였다. 이러한 과정에 무지와 몽매에서 허덕이던 광범한 녀성들이 자기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그 어떤 《필자》것이 아니라 일제와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친일관료배들때문이라는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으며 자체의 힘으로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워나갈 의지를 굳게 가지게 되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속에서 자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시면서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중심에 놓으시였다.

항일의 그날에는 녀성들모두가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되자는 구호를 들고나가게 하시고 해방후에는 민주주의기발아래 굳게 뭉쳐 새 민주조선 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밑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령도에 충실하도록 하신것은 녀성들을 충성의 길로 이끌어주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풍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녀사의 정력적인 지도밑에서 교양육성된 반일부녀회원들을 비롯한 애국적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무한히 신뢰하고 따랐으며 해방된 조국의 민주녀성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일념으로 가슴불태웠다.

무지와 몽매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녀성들속에 자기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는 높은 자주의식, 자기의 령도자를 충성으로 받들어 모시고 투쟁해야 한다는 투철한 자각과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준 여기에 녀성해방위업에 이바지하신 김정숙동지의 커다란 업적의 하나가 있다.

광범한 녀성들을 조직적으로 굳게 결속시켜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키워나가신것은 녀성운동발전에 이바지하신 김정숙동지의 활동에서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선혁명의 개척과 전진과정에는 녀성대중을 조직화하여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 내세워야 할 절실한 문제가 제기되고있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대중단체조직건설 사상과 방침을 높이 받들고 신파와 도천리를 비롯한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서 반일부녀회

를 조직확대하시여 광범한 녀성들을 조직에 묶게 결속시키고 혁명의 길에 내세워주시였다. 그리하여 수많은 녀성들이 혁명조직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조직생활을 통하여 자기의 해방위업에 떨쳐나서게 되었다.

녀성들을 조직적으로 결속시키기 위한 김정숙동지의 활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성해주신 조선민주녀성동맹을 전투적인 대중단체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1946년 어느날에는 평양시 동구 선교리를 찾으시여 녀맹의 초급단체조직을 내오도록 지도하시고 1947년에는 함경북도 경성군녀맹을 비롯하여 청진시, 라남시 녀맹의 사업을 지도하시였으며 1948년에는 강원도 고성일대의 녀맹사업을 지도하시는 등 녀성조직을 녀성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정치조직으로 꾸리기 위한 김정숙동지의 활동은 끝이 없이 진행되였다. 이것은 조선녀성운동을 수령의 위업에 충실한 조직적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투쟁의 련속이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의식화, 조직화하였을뿐아니라 조국의 광복과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이끄시여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위업을 힘있게 전진시키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 조선녀성운동의 주되는 과업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녀성들을 민족적 억압과 착취에서 해방하는것이였다. 이 투쟁의 진두에는 언제나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김정숙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처창즈유격근거지방어전투, 무송현성진공전투들에서와 대부대선회작전을 앞두고 600벌의 겨울군복을 열흘 앞당겨 만들어낸 영웅적 투쟁들에는 김정숙동지께서 녀성들을 혁명가로 키워준 불멸의 이야기들로 수놓아져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맡겨주신 전투임무는 물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참군사업과 원호사업을 비롯하여 적정정찰과 통신련락 임무들을 수행하는데서 무비의 헌신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녀성들을 혁명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새 조국 건설사업에 녀성들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녀성들의 사회적 해방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해방직후 녀성들의 사회적 진출에 대한 반동분자들의 방해책동과 녀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으로 하여 녀성운동앞에는 적지 않은 난관들이 조성되고있었다.

그러나 김정숙동지께서는 녀성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녀성해방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시면서 그들이 사회건설의 모든 령역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히 보살펴주시였다.

이 나날에 김정숙동지께서는 녀맹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주시고 대중을 능숙히 조직동원할줄 아는 정치활동가로 키워주시였으며 녀성들의 초소마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새조선 건설로선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따뜻이 이끌어주시였다. 때로는 평양제사공장과 경성도자기공장 로동자들속에 계시고 보통강개수공사장에도 계시였으며 때로는 애국적 농민들과 무릎을 같이하기도 하시고 머나먼 바다가의 어로공들속에도 계시면서 나라의 주인으로 된 녀성들이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고 민주조선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안겨주시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는 조선녀성운동의 강화발전과 녀성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한생을 다바치신 참다운 공산주의녀성혁명가이시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녀사의 혁명적생애는 주체혁명위업의 길우에 찬란한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3)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후대들을 튼튼히 키워오신 고결한 생애로 빛나고있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 오늘뿐아니라 래일에도 계속되는 혁명위업을 수령이 개척한 길로 곧곧이 전진시키고 그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워야 한다. 하기에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미래를 귀중히 여기며 혁명의 계승자대오를 굳건히 마련하는것을 자기의 마땅한 의무로, 혁명적 본분으로 여긴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서 혁명의 계승자대오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모든 힘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숙동무는 생전에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였소.

산에서 싸울 때나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서나 그는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살았소.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 각오를 가지고 싸워온 동무였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삼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새세대들을 키우는데서도 그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는데 언제나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시였다.

김정숙동지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아동단지도자로서, 새 조국 건설시기에는 새세대들의 어머니로서 후대들을 충성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아끼지 않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언제나 아동단원들속에 계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신출귀몰하는 유격전법으로 왜놈들을 때려부시는 수령님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자주 들려주시였으며 수령님께서 계시여 조국과 혁명의 밝은 미래가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시였다. 후대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방침을 해설해주거나 그들에게 연예대공연을 준비시키고 통신련락임무를 하나 주어도 수령님에 대한 신뢰와 흠모의 마음을 깊이 간직해나가도록 힘쓰시였다.

1934년 봄, 연길현에서 아동단연예대의 공연준비를 최상의 수준으로 지도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왕청에 가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치하의 말씀과 붉은넥타이를 선물로 받아안고 돌아온 아동단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혁명의 후비대로 더욱 억세게 자라라고 우리들에게 이 붉은넥타이를 보내주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내주신 붉은넥타이를 맨 동무들의 가슴은 언제나 장군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붉게 타야 합니다.》

이렇게 김정숙동지께서는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도록 교양하시는 한편 조국땅을 암흑의 생지옥으로 전변시킨 일제를 끝없이 미워하고 나서 자란 고향과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는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는데도 큰 힘을 넣으시였다. 이 모든 교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갈수 있게 한 힘있는 수단으로 되였다.

동지적 의리와 미래에 대한 사랑을 한몸에 체현하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해방이 되자 혁명가유자녀들을 만경대혁명학원으로 불러주시고 그들이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충성의 한마음으로 살도록 학원마당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을 모실수 있게 하여주시였다. 그리고 인민의 첫 대학으로 창립된 김일성종합대학에 나가시여서는 《혁명전통연구실》을 잘 꾸리도록 하시고 그 운영사업에 대해서까

치 세심히 보살피시여 충실성교양의 거점을 튼튼히 마련해주시였다. 민청을 위대한 수령님의 새 조국 건설로선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받들어나가는 청년조직으로 이끌어주시고 조선소년단의 구호와 서약문의 내용을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할수 있게 만들도록 하신것도 후대들을 충직한 전사로 키워주신 김정숙동지의 은정깊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김정숙동지의 투쟁은 다음으로 그들을 혁명적 조직생활과 실천투쟁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직성과 규률성, 실천능력을 소유하는것은 혁명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새세대들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에 기초하여 조직성과 규률성, 실천능력을 겸비하여야 사회정치적 집단의 통일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수령의 위업을 힘있게 전진시켜나가는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새세대들이 일생동안 혁명을 위해 충직하게 싸워나갈수 있게 그들의 조직생활과 실천투쟁을 세심히 보살피시고 이끌어주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혁명의 나날에 소년선봉대와 공산주의아동단,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청소년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시면서 새세대들이 조직을 귀중히 여기고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게 하시였으며 그들에게 부과된 전투임무와 조직의 결정과 위임분공을 훌륭히 집행하도록 하시여 어린 시절부터 혁명가의 자질과 풍격을 갖추어나가게 하시였다.

온갖 반당반혁명분자들이 청소년운동을 분렬, 파괴하기 위하여 날뛰던 해방후의 복잡한 시기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모든 청소년조직들이 당의 령도에 충실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조직으로 되도록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였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민청조직들과 청년들이 떨쳐나 민주조선건설의 주력을 담당하게 된것도 그리고 《모범소년단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소년단원들이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고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학습을 강화하여 새 조선의 역군으로 자라나게 된것도 김정숙동지의 지도를 떼여놓고 말할수 없다.

이렇듯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 확고하고 조직성이 강하며 실천능력이 높은 혁명의 후비대, 계승자대오를 튼튼히 마련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대를 굳건히 이어놓는데 크게 기여하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성을 보장할수 있게 한것으로 하여 녀사의 혁명적 생애는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사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김정숙동지께서 충직하게 받들어오신 조선혁명위업은 오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시며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이 땅에서 살며 혁명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며 커다란 긍지이다.

우리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아직도 많은 일을 하여야 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주체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녀성혁명가이신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혁명업적을 따라배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에 충성다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이며 우리 인민의 가장 영예로운 임무이다.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 충성다함으로써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새 전망계획 수행과 경제 조직사업의 개선

홍 성 남

지금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드높은 혁명적 열의를 가지고 제3차 7개년계획을 1년반이상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기세가 비상히 높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 고조가 일어나고있는 오늘 우리 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행정경제일군들이 생산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경제조직사업을 따라세우면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전진시킬수 있습니다.》

경제조직사업은 근로자들의 생산활동을 조직지휘하며 생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적 생산을 진행하는데는 로력과 설비, 자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인적, 물적 요소들이 많이 참가한다. 이 요소들을 잘 보장하고 옳게 결합시켜 사회적 생산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내용을 이루며 그것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언제나 힘을 넣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정치사업이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높여 그들모두가 맡은바 혁명과업수행에서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게 하는 사람과의 사업이라면 경제조직사업은 근로자들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제기술적인 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자각적으로 성실히 일하게 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서는 그들에게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자각을 튼튼히 키워주는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정치사업에 의하여 발양되는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은 그들의 생산활동을 옳게 조직하며 생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보장해주는 경제조직사업에 의하여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되게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고 경제활동이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진행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조직사업을 적극 개선하여야 객관적인 경제법칙의 요구에 맞게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제3차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건적인 고리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 인민이 수행하고있는 제3

차 7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이다. 생산의 높은 장성을 예견하고있는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당 제6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실현하며 총체적으로 공업생산은 1.9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1.9배, 소비재생산은 1.8배로 늘이고 농업생산은 1.4배이상 장성시켜야 한다. 특히 인민들의 식의주문제를 푸는데서 결정적 고리이며 생명선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내며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모든 방대한 과업들은 인민경제의 전반적 범위에서 생산소비적 련계를 정확히 맞물려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의 생산을 계속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무엇보다도 전반적 인민경제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밀접히 맞물려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사회주의경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이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있는 고도로 조직화된 경제이며 나라의 경제생활전반이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계획경제이다. 조직화, 계획화된 대규모사회주의경제에서는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 전반적인 인민경제적 범위에서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잘 맞물려야만 생산유기체가 제대로 움직일수 있으며 확대재생산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다.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는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부문구조가 완비됨에 따라 변하게 된다. 더우기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인민경제 매개 부문들과 단위들의 생산기술적 특성과 여러가지 조건으로 하여 그것들사이의 생산소비적 련계에서 변화가 생길수 있다.

새 전망계획 수행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경제실무적 문제들과 있을수 있는 정황들을 예견성있게 포착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을 다같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는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는데 있다.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에 맞게 공장, 기업소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전반적인 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수시로 변화되는 정황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제때에 기동적인 대책을 옳게 세워야 자재와 자금, 로력의 랑비를 미리 막고 인민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합리적인 생산소비적 련계를 주동적으로 맞물려줄수 있다.

현시기 나라의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에서 관건적인 고리로 되는 석탄과 철강재 생산을 더욱 늘이는 문제와 수송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의 성과적인 해결여부도 구경에는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드는가에 많이 달려있다. 경제지도기관들이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국가의 유일적인 계획에 따라 생산과 분배, 류통과 소비 등 재생산의 모든 고리들을 밀접히 맞물릴때 새 전망계획의 전기간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과 단위들 사이의 합리적인 생산소비적 련계를 확고히 보장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킬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또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새 전망계획 기간에 맡겨진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한다.

생산의 정상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 국가계획과제를 완수 및 초과완수할수 있으며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 생산의 빠른 장성을 예견하고있는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도 바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다면 이미 마련된 경제적 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리용하여 전반적인 인민경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을 앞당겨 수행할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여러가지 조건들을 잘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조건을 보장하는데서 현시기 특별히 중요한것은 자재보장과 기술준비, 설비관리와 같은 문제들이다.

공장, 기업소의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여 생산정형과 자재실태를 환히 꿰뚫고 당의 경제정책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자재보장의 선후차를 옳게 규정하며 가장 긴요한 자재부터 먼저 보장해주고 모든 자재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 보장해주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계설비를 만부하로 돌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게 된다. 기술준비와 로력관리, 설비관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업도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더욱 개선해나갈수 있다.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수록 생산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의 작용을 더욱 원활히 하여 그 어떤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으며 새 전망계획 기간에 맡겨진 국가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현물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다.

이처럼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는것은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의 생산소비적 련계를 강화하고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새 전망계획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의 하나로 된다.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할 때 새 전망계획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생산적 앙양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은 올해 전투에서 거둔 성과가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내민 결과 웅대한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 들어선 올해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으며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특히 전력공업과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생산을 부쩍 추켜세움으로써 전반적 인민경제를 더욱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이것은 새 전망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고리가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데 있으며 정치사업을 통하여 앙양된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실질적인 생산성과로 전환시키는것도 치밀한 경제조직사업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어 전체 근로자들을 제3차 7개년계획수행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여 자재와 설비, 로동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줌으로써 대중의 앙양된 혁명적 열의가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하

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당의 경제정책은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정확한 경제건설정책이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유일하게 정당한 지도적 지침이다.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해나갈수 있으며 맡겨진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이 가장 숭고한 삶의 요구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그것을 끝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안아야 하며 당의 경제정책을 확고한 혁명적 신념으로 간직하여야 한다.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신념화할뿐아니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여러차례의 인민경제발전계획들을 수행하는 과정이 보여준바와 같이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설수 있다. 새 전망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조건이 불리하게 제기될수도 있고 예견치 않았던 새로운 난관들이 조성될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지도일군들은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기를 기다릴것이 아니라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야 하며 솔선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함으로써 제기된 애로와 난관을 주동적으로 극복해나가야 한다. 경제지도일군들은 특히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현시기 당이 내세우고있는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그것을 빨리 끝낼수 있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기동성있게 짜고들며 패배주의와 형식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고 일단 포치한 사업은 끝까지 내밀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의 경제정책이 훌륭한 결실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현시기 경제조직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경제관리에서 엄격한 혁명적 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것이 중요하다.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다른 모든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관리에서도 규률과 질서가 있어야 높은 생산적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특히 오늘 련합기업소들이 널리 조직되고 거기에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조건과 전인민경제적 범위에서 생산과 류통이 매우 복잡해진 사정은 그 어느때보다도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우지 않고서는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수 없으며 인민경제의 통일적인 계획적 발전을 보장할수 없다.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대안의 사업체계를 비롯한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를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그 요구에 맞게 모든 경제 부문들과 단위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한결같이 움직이도록 하는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진행할 때 경제지도기관들과 일군들이 주관주의를 극복하고 생산자대중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으며 계획화사업으로부터 생산지

휘, 자재공급, 로동행정, 후방공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사업에서 정연한 규률과 질서를 세울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규률과 질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행정 명령과 지시를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행정 명령과 지시는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것이며 그것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여야 치밀하게 조직한 경제조직사업이 실질적으로 은을 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다.

행정적인 명령과 지시 집행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국가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이다. 국가계획은 바로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한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이다. 누구도 그것을 어길 권리가 없으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그것을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국가계획을 법적의무로 여기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맡겨진 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계속 무조건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드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오늘 우리 나라 인민경제에는 내부예비가 매우 많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 지금 있는 로력과 설비, 자재로 생산을 더욱 늘이거나 적은 추가적 투자로 생산을 훨씬 더 늘여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성과여부는 경제지도일군들이 경제조직사업을 어떻게 짜고들고 그들의 조직적 수완이 얼마나 능숙한가 하는데 따라 크게 좌우되게 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자면 경제지도일군들이 기술혁신에 힘을 넣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발전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있는 오늘 기술혁신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경제지도일군들은 기술혁신에로 과학자, 기술자들과 광범한 근로자들의 창조력을 적극 조직동원하며 기술혁신 성과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가 높아지는 현실에 맞게 기술경제적 지표들을 더욱 갱신하여야 한다.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잘하자면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도 중요하다. 인민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원료와 연료를 비롯한 소비하는 생산요소들이 대단히 많은 오늘 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는 바로 절약투쟁을 강화하는데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경제지도일군들은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한방울의 연유, 한그람의 강재라도 극력 아껴쓰도록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기술혁신과 절약투쟁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를 동원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다. 내부예비는 다름아닌 대중의 머리속에 있다. 대중이 발동될 때 그 어떤 형태의 내부예비도 모조리 찾아내고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을 내부예비동원을 위한 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제조직사업은 인민경제를 옳게 관리운영하여 생산을 빨리 장성시키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사업이다.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은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 요구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자원개발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보람찬 사업

김 세 영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이다.

자연에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비롯한 여러가지 자원들이 많다. 이 자원들을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리용될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기초하여 개발해나가는 사업이 바로 자원개발사업이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이 사회적소유로 되여있고 자원개발사업이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지도밑에 통일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전면적으로 찾아내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로동계급의 당의 경제건설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원개발사업은 경제건설을 다그쳐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만년대계의 보람찬 사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풍부한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나라의 경제력을 더욱 튼튼히 하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여야 하며 後代들에게 더 많은 재부를 넘겨주어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5권, 111페지)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과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을 위한 밑천을 마련하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이룩해나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나라와 민족의 륭성번영과 인민생활의 끊임없는 향상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의하여 실현된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로서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물질적 부를 창조하고 리용하는 생활분야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경제건설을 잘하여야 인민들의 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킬수 있으며 후대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릴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줄수 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원료와 연료, 동력문제를 기본적으로 자체의 자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자기 나라의 자원에 의거하는 경제만이 자주적으로, 안전하게 발전할수 있으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요구되는 물질적 수요의 대부분을 자체의 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경제건설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원료, 연료, 동력을 자체로 해결하는 문제는 자원개발사업에 의하여 해결되게 된다.

물론 나라들마다 자연지리적 조건이 다르고 생산력과 과학기술 발전에서 차이가 있는것만큼 경제건설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찾아낼수는 없다. 그러나 자기 나라에 있는 자연부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각오를 가지고 자원개발사업을 강화하여 하나의 자원이라도 더 찾아내고 그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린다면 원

료, 연료, 동력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다. 특히 경제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원료와 연료, 동력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는 현시기 인민경제의 선행공정인 자원개발사업을 적극 벌려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할 때 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자기 나라 혁명과 건설의 리익에 맞게 주동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자원개발은 원료와 연료, 동력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뿐아니라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서도 큰 의의를 가진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필수적인 요구이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하여야 민족경제를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요구되는 물질적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자원개발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것을 적극 개발해내면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는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많이 창설할수 있으며 수입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을 자체의 원료와 연료를 쓰는 공업으로 점차 개편할수 있다. 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부문구조를 더욱 완비할 때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게 된다.

나라의 경제를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기 위하여서도 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현대적인 기계와 설비들을 만들자면 여러가지 기술공학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특수한 성질을 가진 희유금속, 비금속이 들어있는 광물들을 많이 찾아내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자원을 찾아내고 적극 개발할수록 금속공업의 발전을 더욱 다그쳐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만드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자재들을 보장할수 있으며 자기 나라 자원에 의거하는 기술을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처럼 지하자원,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보람찬 사업으로, 후손만대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나가는 항구적인 사업, 만년대계의 사업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자원개발사업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자원개발사업을 인민경제발전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정책을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원개발정책은 나라의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여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견지하고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위한 튼튼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자원개발정책이다. 우리 당과 인민은 지난 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원개발정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자원들을 많이 찾아내고 그에 기초하여 튼튼한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 기지를 마련해놓았다. 오늘 우리 나라 자원개발부문은 사회적 생산의 장성과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축성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부문으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나가는 강력한 부문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자원개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오늘 우리앞에 나선 제3차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제3차 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우리는 인민경제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튼튼히 장비하며 생산을 높은 속도로 장성시켜야 한다. 특히 당면하게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결정적 고리이며 생명선인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석탄과 철광석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 이미 알려지고 널리 리용되고 있는 자원들을 더 많이 찾아내며 새로운 자원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요구하는 원료, 연료, 동력 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할수 있다.

모든 자원개발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개발하는 영예로운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지하자원, 산림자원, 바다자원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전망성있게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여 나라의 지하자원을 모조리 찾아내는것이다.

지하자원을 적극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중요광종과 대상 탐사에 력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요광종과 대상 탐사에 력량을 집중한다는것은 필요하면서도 파악있고 유망한 지구들에 설비, 자재, 로력을 유심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중요광종과 대상 탐사에 력량을 집중해야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광물들을 찾아낼수 있으며 나아가서 채취공업을 자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고 전반적인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을 튼튼히 담보할수 있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탐사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파악이 있고 전망이 좋은 중요지구들과 인민경제발전에 긴요한 중요광종탐사에 설비, 자재, 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줌으로써 새로운 광물매장지들을 더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전망탐사부문을 비롯한 모든 탐사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아직 부족하거나 찾아내지 못한 광물들의 탐사전제와 징후를 적극 찾아내고 탐사대상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의 탐사경험은 흔히 스쳐지날수 있는 자그마한 징후라도 놓치지 않는다면 전망이 큰 광상과 광체들을 발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모든 탐사일군들은 사소한 징후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깐지게 조사등록하며 집단의 힘과 지혜를 모아 깊이 연구하여 탐사작업을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지하자원을 적극 찾아내기 위하여서는 중요광종과 대상 탐사에 력량을 집중할뿐아니라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한다.

탐사 속도와 효률을 높이자면 지질탐사장비를 현대화하고 선진적인 탐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탐사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여야 한다. 지질탐사부문에서는 현대화된 여러가지 시추설비들과 물리탐사설비들, 탐사구역의 지질구성에 알맞는 새로운 탐사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탐사방법을 끊임없이 혁신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지질구조가 복잡한 지대와 땅속 깊은곳에 묻혀있는 여러가지 광물자원들을 빠른 시일안에 더 많이 찾아낼수 있다.

산림자원과 바다자원을 적극 찾아내

고 개발하는것도 나라의 전반적인 자원개발사업에서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나라에는 지하자원이 많을뿐아니라 산림자원과 바다자원도 매우 풍부하다. 이 모든 자원들을 충분히 리용하면 나라의 만년대계를 더욱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우리는 산림자원을 더 많이 개발하는 한편 산림을 전망성있게 개조하고 산을 종합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며 바다자원에 대한 탐사도 강화하여 바다에 무진장한 광물자원, 동식물자원, 동력자원을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일군들이 조직지도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자원개발사업은 여러가지 탐사 수단과 방법을 리용하여 분산된 각이한 조건에서 자연부원을 찾아내는 복잡하고 힘든 사업이다.

자원개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자원개발을 인민경제발전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자원개발정책을 깊이 연구하며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야 한다.

자원개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광종을 무조건 첫자리에 놓고 당의 전략적 요구에 맞게 집중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나라의 경제발전전망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아직 부족하거나 새로운 광종탐사대상들을 더 많이, 더 빨리 찾아내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원개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또한 일단 집중탐사대상이 정해진 다음에는 지체하지 말고 거기에 지도력량, 기술력량, 탐사력량들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해당 대상의 자원매장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자원개발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조직지도사업을 잘할뿐아니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자체로 풀며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한다.

현대적인 시추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탐사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자원개발사업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탐사설비생산을 맡은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탐사부문에 필요한 여러가지 설비들을 어김없이 생산보장하며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탐사설비를 더욱 경량화, 고속도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고심도시추기를 비롯한 새로운 현대적인 탐사설비를 만들어내기 위한 기술경제적 대책을 바로세우고 그 생산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탐사부문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지질탐사사업을 벌려 찾아낸 자연부원은 채취공업에 의하여 인민경제발전에 리용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에 의하여 확정된 탄광, 광산개발후보지들에 대한 개발사업을 제때에 따라세우며 채취설비의 대형화, 현대화를 실현하고 운반을 다양화하여 원료와 연료를 남김없이 모조리 캐내야 한다.

자원개발사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중요한 정책이며 나라의 장래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보람찬 사업이다.

자원개발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연부원을 모조리 찾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3차 7개년계획수행과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장 응 길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빨리 향상시켜 나라의 전반적인 인민생활수준을 고르롭게 높이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산간지대농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적극 다그쳐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단행본, 29폐지)

사회주의건설시기에는 일정한 기간 낡은 사회가 남긴 유물로 하여 농촌이 도시에 비하여 뒤떨어져있게 되며 나라의 여러 지역들사이에도 생산력발전수준과 인민생활수준에서 차이가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차이를 없애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할수 없으며 전체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없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애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다같이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향상시키려면 농촌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특히 산간지대와 같이 지난날 자연경제적 조건이 불리하여 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던 지대들을 더 빨리 추켜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부터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문제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산간지대 군들에서 인민생활을 자체의 힘으로 높여나갈데 대하여 교시하시였으며 창성군에서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다.

산간지대에서 경제발전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군을 잘 꾸리고 군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군은 도시와 농촌을 련결시키는 지역적 거점이며 군당위원회는 군안의 모든 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참모부이다. 군을 잘 꾸리고 군당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그 어떤 불리한 자연경제적 조건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지방경제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산간지대들에서는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이후 군들이 지방경제발전의 종합적 단위로,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련계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군당위원회들의 역할이 높아져 경제문화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벽동군은 비래봉과 단풍덕산, 천봉산과 조풀령을 비롯한 높은 산과 령들로 둘러싸여있는 산간군이다. 군면적의 90%이상이 험준한 산지인 이곳에서 얼마 안되는 부침땅은 거의다 돌밭이 아니면 메마른 땅으로 되여있고 그것마저 골짜기밭이거나 물매가 심한 비탈밭으로 되여있다. 원래 부침땅이 적은 이곳에서 비교적 좋다는 땅은 다 수풍발전소를 건설할 때 물에 잠기다보니 해방전에 벽동인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였다. 먹을 걱정, 입을 걱정에 부대낄뿐아니라 어디에 다니기조차 불편한

심산유곡이다보니 사람들은 벌방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하도 그리워 자기의 자식들만이라도 문지령너머에 가서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해방후 벽동군인민들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났다. 벽동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아로새겨져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벽동군을 몸소 수십차례나 찾으시고 산간지대의 지역적 특성에 맞게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으며 군안의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기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1964년 7월 12일 친히 벽동군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벽동군당위원회는 지난기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의도에 맞게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소형발전소와 화학공장을 새로 건설하고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려 지방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지방산업공장들의 기술장비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전진을 이룩하였다. 또한 흙산을 새로 조성하고 농산과 축산을 밀접히 결합시켜 뙈짜기밭들에까지 자급비료를 많이 냄으로써 알곡생산을 늘이였으며 축산물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밑천을 마련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현대적인 려객선 《은정 7.12》호가 무어지고 도로정리사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교통문제를 풀데 대한 벽동사람들의 오랜 소원이 성취되고있다.

벽동인민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커다란 전변의 하나는 도시부럽지 않게 문화생활을 할수 있게 된것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텔레비존중계소들이 곳곳에 건설되여 군안의 그 어느 리, 어느 뙈짜기마을에서나 다 밝은 텔레비존까지 볼수 있게 되였으며 불과 7명의 학생밖에 없는 송련리 창주부락 같은데도 학교가 건설되여 아들딸들을 공부시키는데서 아무런 불편도 없게 되였다.

벽동군에서 이룩된 이러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돌려주신 크나큰 배려와 인민들의 높아가는 기대에 비하여볼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앞으로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켜나가는데서 귀중한 경험을 얻었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무엇보다도 군일군들이 당과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일할 때 산간지대에서도 불리한 자연경제적 조건을 이겨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켜나갈수 있다는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절대로 공명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당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참다운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산간지대에서 인민생활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것은 군책임일군들이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당은 산간지대의 군일군들을 믿고 그들에게 어려운 혁명초소를 맡겨주었으며 인민들은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군일군들이 더욱 책임적으로 일해나갈것을 기대하고있다. 그러므로 산간지

대의 군일군들은 마땅히 당과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한마음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하며 자신의 명예나 공명을 바라지 않고 맡은 임무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야 산간지대의 불리한 자연조건들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대중과 합심하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킬수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받들고 벽동군에서 칡산을 새로 조성할 때에 있은 일이다. 칡산을 조성하면 알곡을 절약하면서 집짐승먹이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문제이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서는 난관과 애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자연적으로 칡이 많이 자라고있는 산에서는 잡관목을 제거하고 김매기를 잘하면 비교적 쉽게 칡산을 조성할수 있지만 칡이 없는 산에서는 저절로 그것이 퍼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인공적으로 칡을 번식시키는 방법으로 2,200정보의 칡산을 새로 조성할것을 결정한 다음 분공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칡을 번식시켜본 경험이 없는 조건에서 일은 잘 진척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신심을 잃고 동요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군당책임일군들은 걸린 고리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칡에 관한 책들을 모조리 탐독해보았으나 거기에도 칡의 번식과 재배 방법에 대하여 쓴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기어이 칡산을 많이 조성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보탬을 주려는 한마음으로 칡씨를 가지고 영양단지도 해보고 칡뿌리를 잘라 삽목도 해보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칡의 인공번식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대중을 이끌어나갔다. 실패에서 교훈을 찾으면서 이악하게 투쟁하는 과정에 우리 군에서는 칡을 짧은 기간에 대대적으로 인공번식시킬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냈으며 송이리에 새로 조성한 칡산에서 군적인 견학 및 방식상학까지 진행할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이에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면서 군중적 운동을 힘있게 벌려 3년만에 계획대로 칡산을 새로 조성하였으며 칡산 관리와 리용에서도 정연한 질서를 세워놓았다. 이것은 군당일군들자신이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투철한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는데 문제해결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군당일군들이 당과 인민의 높은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면 인민들이 절실하게 바라는 문제를 포착하고 행정경제일군들과 힘을 합쳐 그것을 풀어나가야 한다. 인민들이 해결을 바라는 문제를 풀지 않는 일군은 인민의 충복이라고 말할수 없다.

철도로부터 200여리나 떨어져있는 벽동에서 사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문제의 하나는 교통문제를 더욱 원만히 푸는것이였다. 교통문제를 더욱 원만히 풀어야 벽동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해줄수 있었으며 그들속에서 향토를 사랑하는 정신도 높여줄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현대적인 려객선을 뭇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큰 려객선을 무어본 경험은커녕 현대적인 기계공장도 없는 실정에서 일은 결코 헐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려객선을 과연 무어낼수 있겠는가 하면서 선뜻 나서지 않는것이였다.

여기에서 우리가 큰 힘을 넣은것은 행정경제일군들과 합심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였다. 독불장군이라고 군당책임일군혼자서는 그 어떤 일에서나 용빼는 재간이 없다.

군당위원회는 배뭇는 일자체가 어디까지나 행정실무적인 문제인것만큼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일군들에게 대담하게 분공을 준 다음 그들이 책임지고

이 사업을 전개해나가도록 당적으로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결과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그들의 사업상 권위도 서갔으며 군에서 처음하는 일이여서 걸린 고리들이 많았지만 그것들도 하나하나 풀려나가게 되였다.

군적인 관심사로 된 현대적인 려객선을 수풍호에 띄울무렵이였다. 우리는 군안의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청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벽동군에 돌려주신 사랑과 배려를 길이 전하기 위하여 려객선의 이름을 《은정 7.12》호로 부르기로 하였다. 현대적인 려객선 《은정 7.12》호 진수식에 모인 군안의 수많은 인민들은 로동당시대에 와서 또하나의 세기적인 념원이 실현된것이 너무도 고마와 목청껏 만세를 부르면서 감격의 눈물을 짓는것이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당과 인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군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심장으로 체득하였으며 당과 인민의 신임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한마음으로 합심하여 일해나간다면 당의 의도에 맞게 산간지대에서도 능히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군자체의 힘을 믿고 당적 방법으로 대중을 이끌고 나간다면 산간지대에서도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밑천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는것이다.

지방경제는 지방자체의 로력과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주로 지방적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킬것을 목적으로 하는만큼 어디까지나 군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우리 나라의 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지방경제를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가지고있다.

그러나 산간지대 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연경제적 조건이 불리할뿐아니라 현대적인 공업이 집중된 도시주변의 군들에 비하여 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 수단들이 부족하다. 산간지대에서는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중앙공업의 힘있는 지원을 받기 힘들며 따라서 지방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필요한 조건도 자체의 힘으로 조성하고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산간지대군들에서는 자체의 힘을 믿고 당적 방법으로 대중을 떠밀고나가는것이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80년 6월 전국지방산업일군대회에서 하신 교시를 받들고 우리 군에서 지방산업을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자체로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해내는것이였다. 기초화학제품에 대한 군의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지 않고서는 장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여러 지방산업공장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없었으며 나아가서 인민생활필수품생산도 더욱 늘일수 없었다.

군당위원회는 중소화학공장건설이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대담하게 군자체의 힘으로 해낼것을 결정하고 기술자들을 선발하는데 달라붙었다. 일반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기술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지만 우리 군에서 화학공장을 건설할 때에는 그것이 건설의 성과여부를 결정하는 근본문제로 나섰다. 도안의 다른 시, 군들에는 화학공장이 있고 기술자도 많지만 그렇다고 하여 다른데 가서 기술자를 데려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수는 없었다. 기술문제를 자체로 풀어야 군의 실정에 맞게 화학공장을 건설할수 있고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어떤 문제든지 군에서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된다는 신심을 안겨줄수 있었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직접 각계각층 군중속에 들어가 화학공장을 건설할수 있는 기술자들을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면서 군중에게도 호소하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유능한 기술자들을 선발해내였으며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과업을 맡기였다. 군당일군들은 기

술자들과 침식을 같이하면서 결린 문제도 풀고 사업조건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주었다.

그런데 기술자들이 여러 지방의 화학공장들을 돌아보고 만들어낸 설계는 우리 군의 실정에서는 지내 큰것이였다. 우리는 군의 실정에 맞게 생산량을 규정하고 설계부터 다시하도록 기술자들을 이끌어나갔다. 이 사업자체도 힘든 일이였지만 당의 믿음에 고무된 기술자들의 높은 열의와 광범한 대중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해도 발생시키지 않고 아담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화학공장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우리가 얻은 경험은 또한 군의 책임일군들이 작전을 바로하고 추적전을 벌리면서 이신작칙하여야 지방의 생산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보탬을 줄수 있다는것이다.

산간지대 인민들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를 포착한 다음에는 일군들이 구체적으로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추적전을 벌리면서 이신작칙하여야 제기한 과업수행에로 대중을 힘있게 떠밀고 나갈수 있으며 실질적인 물질적 성과로서 인민생활향상에 보탬을 줄수 있다. 올해에 우리 군에서 산열매를 따들인 과정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산간지대에서는 산을 뜯어먹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우리 군에서는 해마다 산열매를 따는 사업을 조직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을 총화한 때에 보면 응당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군당위원회는 지난기간의 사업에서 교훈을 찾고 올해에는 일군들을 파견하여 산열매가 열린 정형을 료해하는 《정찰》부터 진행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갔다온 일군들의 의견은 서로 달랐다. 올해에 산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하는 일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일군도 있었다. 군책임일군들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료해하는 한편 자신들이 산열매를 따보면서 한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딸수 있는가를 가늠해보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매 사람들에게 알맞는 분공을 주었다. 이처럼 작전을 구체적으로 하니 실적은 쑥쑥 올라갔다.

군당책임일군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남먼저 책임량을 수행함으로써 누구나 다 자기가 맡은 과제를 능히 수행할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

사업에서 아무리 구체적으로 세운 작전이라도 추적전이 안받침되지 않고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군당위원회는 군행정 및 경제지도위원회에서 산열매를 따는 기간에는 3~4일에 한번씩 중간총화를 철저히 하고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따놓은 산열매의 수송과 처리 대책을 잘 세우도록 당적 지도를 심화시켰으며 대중의 열의와 리해관계를 고려하면서 목표도 갱신하게 하였다.

군책임일군들이 이와 같이 작전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신작칙하면서 추적전을 벌린 결과 우리 군에서는 올해에 산열매를 따는데서 최고기록을 창조할수 있었으며 지방산업공장에 원료를 충분히 대주어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킬수 있는 밑천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기풍으로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함으로써 당조직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고 학교와 살림집 건설, 도로확장과 지방산업공장의 재배원료기지조성, 이동식 집짐승우리 건설과 리용을 비롯한 여러가지 경제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에 맞게 산간지대인 벽동군에서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해놓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

우리는 앞으로 당이 맡겨준 산간지대 혁명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면서 인민의 충복답게 일을 잘해나감으로써 인민생활수준을 더욱 높이고 자기 고장을 보다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리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일군들의 군중관점과 사람과의 사업

홍 진 남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 요구이며 일군들의 본분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조직이다. 정치적 령도기관인 당에 있어서 사람들을 교양하고 이끌어주기 위한 사업을 떠나서는 당사업이 이루어질수 없다. 당사업과 당활동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시키는것은 당의 본성적 요구이며 그것은 당일군들에 의하여 실현된다. 당일군은 당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이며 사람들을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주는것은 그들의 기본임무이다.

사람과의 사업은 일군들이 옳바른 군중관점을 가질 때 잘해나갈수 있으며 혁명적 군중관점을 바로세우는것은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간부들과 당원들이 혁명적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모두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0권, 411페지)

군중관점은 대중을 보고 대하는 립장과 태도이며 혁명적 군중관점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인민대중의 결정적 역할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적 관점이다.

이 관점은 일군들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군중속에 들어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군중이 옳은 길로 나가도록 이끌어주게 한다. 따라서 혁명적 군중관점을 확립하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 요인이며 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이다. 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지만 언제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로 되는것은 아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여야 한다. 조직사상적으로 통일단결된 인민대중만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생명을 빛내여나갈수 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인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일군들에게 부과된 임무는 매우 무겁다. 당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보좌하여 그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함으로써 지도와 대중의 밀접한 결합을 실현하게 한다.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 때 가장 밀접한것으로 되고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혁명의 힘있는 동력으로 되는것이다.

일군들이 군중관점을 바로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데 대한 요구는 혁명과 건설이 심화되고 무거운 혁명과업이 제기될수록 더욱 중요하게 나선다.

오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매우 높은 단계에 올라섰으며 우리앞에는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이 나서고있다.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대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힘있게 불러일으킨 때 아무리 어렵고 방대한 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으로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된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관점을 옳바로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고계신다. 그리하여 각급 당조직들의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일대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우리 신의주방직공장 초급당위원회는 지난 기간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속에서 주체적인 군중관점을 확립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투쟁을 굽임없이 심화시켜왔다.

이 과정에 군중과의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 온 공장이 혁명적인 기백과 정열로 들끓게 되였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혁명적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정한 경험과 교훈을 얻게 되였다.

우리의 경험은 무엇보다도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것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군중에 대한 견해와 관점은 사상의식의 반영이며 혁명적 군중관점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바른 견해와 태도를 가지게 하는 사상의식에 의해서 확립되게 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혁명적 군중관점 확립의 사상리론적 기초로 되는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로부터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힘으로써 사고와 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견해와 관점을 확립할수 있게 한다. 따라서 주체사상의 원리로 철저히 무장시키는것은 일군들속에서 군중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로 된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을 주체사상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이 사업을 짜고들어 힘있게 내밀었다.

주체사상원리학습은 당의 의도대로 주체사상의 총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과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학습을 기본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와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반복하여 정독하게 하였으며 학습강사들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생동한 실례와 결부시키며 직관물을 리용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알기 쉽게 해설하고 문답식 학습경연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초급당위원회는 일군들에게 매달, 매주 학습할 로작과 당문헌 제목들을 제시해주고 그 수행정형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공장책임일군들로부터 모범을 보이게 하였으며 월혹은

주 사업총화때마다 일군들의 학습정형을 알아보고 학습담화도 하면서 요구성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 일군들속에서는 주체사상의 원리학습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심화시켜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적 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공장초급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군중사업리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도 힘있게 벌렸다.

우리 당은 군중과의 사업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왔으며 이 행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우리 당의 군중사업리론에는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군들이 가져야 할 자세와 립장에 대한 문제로부터 군중을 대담하게 믿고 포섭하여 교양할데 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밝혀져있다.

공장당위원회는 우리 당의 군중사업경험과 리론을 공장실정과 밀접히 결부하여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해설담화자료를 만들어 일군들속에 침투시켰으며 당조직들이 지난 기간 군중과의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을 철저히 극복해나가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공장안의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옳게 인식하게 되였으며 군중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벌려나가게 되였다.

일군들이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해나가도록 하기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이룩한 다른 하나의 경험은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혁명적 군중관점은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에 더욱 튼튼히 확립되게 된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야 대중의 힘과 지혜를 알수 있고 군중의 목소리를 들을수 있으며 모든 사업을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현실을 떠나 책상머리에 앉아서는 군중의 요구를 옳게 포착할수 없으며 대중과의 사업을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벌려나갈수 없다.

지난 시기 사업을 통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커다란 영향력을 줄수 없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게 된 공장당위원회는 모든 일군들이 대중이 활동하는 생산현장에 들어가 로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짜고들었다. 우리는 또한 책임일군이건, 지도원이건, 당일군이건, 행정경제일군이건 할것없이 모든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면 선전원, 선동원이 되여 참신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게 하였다.

당위원회책임일군들이 기술자들속에 들어가 걸린 문제를 정확히 료해하고 기술혁신을 대담하게 벌려나가게 한것은 경험적이였다.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은 기술자들의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해주고 창발성을 조장시켜줄 대신에 책임한계를 따지면서 기술자들의 창발성을 억제하고 그들이 기술혁신에 적극 떨쳐나서수 없게 하는 편향을 나타내였다. 이것은 과학과 기술발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데로부터 나온것이였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순탄하게 되는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는 거듭되는 실패가 있기마련이다. 이러한 실패를 절대화하면서 기술자들의 기술혁신사업을 적극 밀어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신심을 잃고 보신주의와 소극성에 사로잡혀 대담하게 기술혁신에 달라붙지 못하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기술혁신과정에 있을수 있는 일시적인 실패와 난관을 제때에 료해하고 기술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신심을 안겨주어 그들이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결과 우리 공장

에서는 최근년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술혁신운동에 참가함으로써 염색기궁형학포로라를 비롯한 수백건에 달하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이 생산에 도입될수 있었던것이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중을 대하고 이끌어주도록 하였다.

사람들에 대한 어머니다운 심정은 어머니당의 당일군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고유한 품성의 하나이며 그러한 심정으로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것은 당일군들의 응당한 직분으로 된다.

우리 당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을 책임적으로 보살펴주고 그들의 생활을 돌봐주지 못하고서는 그 누구도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떳떳이 말할수 없다.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가르쳐주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는 자식이란 없는것처럼 일군들이 군중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알아보고 그것을 제때에 실현해줄 때 광범한 군중이 당을 어머니품으로 여기고 당을 따라 영원히 혁명의 한길로 굳세게 걸어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군들이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군중을 대하고 이끌어주는 고상한 혁명적 사업기풍을 가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다양하게 벌렸다. 여기서 특히 일군들이 예술영화 《보증》을 빠짐없이 보게 하고 실효투쟁을 벌린것은 매우 효과적이였다. 영화실효투쟁을 통하여 모든 일군들이 지난 기간 군중과의 사업에서 자신이 범한 결함이 무엇이였는가를 심각히 뉘우치고 영화의 주인공 박신혁이처럼 대중을 참답게 믿으며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일하는 기풍을 확립할수 있게 되였다.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일부 사람들의 가슴속깊이에 맺혀있던 남모르는 사연과 말못할 문제도 제때에 알아내고 책임적으로 풀어줄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래일에 대한 희망을 안고 활기에 넘쳐 일할수 있게 되였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아래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사람들에 대한 료해평가사업도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책임적으로 잘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사람들에 대한 료해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사람들에 대한 료해평가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볼수도 있고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볼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군중과의 사업에서 이러저러한 편향을 범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일군들은 군중과의 사업에서 사람들에 대한 료해평가사업을 잘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하며 본인의 현재의 정치사상생활정형을 기본으로 보고 평가해주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우리의 일부 일군들속에서는 사람들의 가정주위환경이나 사회정치생활경위만을 따져가면서 혁명과업수행에 성실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의문시하고 응당한 평가를 하여주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부분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현재생활을 자기가 직접 깊이 료해하고 분석하여 평가하는것이 아니라 보고자료와 남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사업을 잘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료해하는 과정에 우리 공장안에도 그 어떤 명예나 보수도 바라지 않고 오직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누가 보건말건 20년, 30년을 자기의 모든것을 고스란히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하여온 숨은 공로자, 애국자들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우리 공장의 한 오랜 기술자는 공장이 창설될 때부터 근 30년이 가까와오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을 위

하여 묵묵히 일하여왔으며 그가 기술혁신을 한것만 하여도 무려 70여건에 달하고 그것으로 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것만 하여도 수백만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지난 시기 일부 일군들의 옹졸하고 편협한 사업태도로 하여 그는 응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있었다. 공장당위원회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당을 따라 오랜 기간 충실하게 일해온 이런 사람들에게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하고 당적 믿음을 안겨주었으며 숨은 공로자, 숨은 영웅, 애국자로 높이 평가해주었다. 이렇게 되자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과 당의 높은 신임을 받게 된 사람들은 물론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 친척들 모두가 희망과 기쁨에 넘쳐 더욱 분발하여 일하게 되였다.

일군들속에서 군중관점을 바로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사업에서 이룩한 중요한 경험은 또한 일군들의 사업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주고 그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람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의 직접적 담당자인 당일군이 당의 군중로선을 어떻게 관철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의 수준과 능력에 크게 달려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고 일하게 된다. 일군들이 정치실무수준이 낮으면 사람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당정책적 선에서 가려보지 못하게 되고 군중과의 사업도 당의 의도에 맞게 제대로 해나갈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각이한 계층과의 사업을 잘해나가자면 일군들이 높은 계급적 안목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우리는 아래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일군들이 직접 맡아가지고 진행하였으며 특히 일군들속에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하여 그것을 사업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고있는 단위를 시범단위로 정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수준을 높여주었다.

공장당위원회는 또한 일군들이 높은 인간성을 가지도록 하는데도 응당한 관심을 돌렸다.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관점은 고상한 인간성에서 표현된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졌다고 할수 없다.

우리는 일군들이 인민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려는 고상한 혁명정신을 소유하도록 교양하고 이끌어주었으며 특히 일군들이 인민의 심부름군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게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도록 하였다.

참으로 우리의 실천적 경험은 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적 군중관점을 확고히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갈 때 광범한 군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장초급당위원회가 일군들속에서 주체적인 군중관점을 세우고 사람과의 사업, 대중지도에서 이룩한 성과는 당의 요구에 비해볼 때 극히 초보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주신 말씀을 높이 받들고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가일층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공장안의 모든 당원들과 로동자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키워나갈것이다.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교양과 영화예술

최 영 화

주체사상교양이 더욱 심화되고있는 오늘 우리 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영화를 가지고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교양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적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주자면 예술영화 《도라지꽃》과 같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제로 하는 영화를 많이 만들어 돌리는것이 좋습니다.

향토애, 조국애는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땅과 은혜로운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는 고상한 인민적 사상감정이다.

자기 향토, 사회주의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그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 풍모이다.

자기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 복무의 정신을 가져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당의 령도밑에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된 자기 향토와 조국에 대한 높은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제힘으로 자기 향토를 더 잘 꾸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수 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깊이 심어주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필수적 요구이다.

혁명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에서 매개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이다. 그러므로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서 인민들이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겠다는 높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민족자주의식은 자기의 고향산천과 조국강토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해서만 확고히 간직되게 된다. 자기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할 때만이 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을 승리와 번영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다. 이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교양사업이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교양을 강화하는것은 또한 우리앞에 나선 혁명임무와 조성된 정세로 하여 더욱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오늘 우리앞에는 제3차 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고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할 무겁고도 어려운 과업이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혁명투쟁은 매우 복잡한 환경속에서 진행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하여 조국땅우에는 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정세가 조성되여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토를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

시키지 않고서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을뿐아니라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삶의 보금자리이며 행복의 원천인 자기의 향토와 사회주의조국을 목숨바쳐 지켜낼수 없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토애, 조국애로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 특히 영화예술은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영화예술은 대중을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의 그 어느 형태보다도 가장 힘있는 수단이다.

그것은 영화예술이 직관적인 종합예술이라는것과 관련되여있다. 영화는 문학, 음악, 미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을 포괄하고있으며 다양한 형상 수단들과 수법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간들의 산 생활을 하나의 완결된 형상으로 창조한다. 화면을 기본표현수단으로 하는 영화는 시청각적 형상수단을 종합적으로 동원리용하기때문에 그 어느 예술형태보다도 다양한 인간의 성격과 복잡한 생활전모를 생활 그자체의 형식으로 진실하게 형상할수 있으며 그것을 직관적으로 세부에 이르기까지 생동하게 보여줄수 있다.

영화가 거대한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가슴에 파고드는것도 사람들에게 생활의 진리를 깨우쳐주며 그들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그처럼 큰 힘을 나타내는것도 영화예술이 다른 문학예술형태에 비하여 커다란 형상적 우월성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영화는 그 보급에서도 다른 문학예술형태들에 비하여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영화는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곳이면 어디서나 돌릴수 있을뿐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상하여 여러곳에서 제때에 빨리 보급할수 있다.

영화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는데서 문학예술의 다른 형태들보다도 우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영화를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깊이 심어줄데 대한 당의 방침은 현시기 당사상사업의 요구와 대중교양에서 영화가 노는 커다란 역할을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찌기 향토애와 조국애를 주제로 한 작품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향토와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 부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이 주제분야의 영화들이 훌륭히 창작완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도라지꽃》, 《월미도》, 《이름없는 영웅들》, 《추억의 노래》, 《숲은 설레인다》, 《등대》, 《운행길에서 만난 처녀》, 《참된 심정》 등 향토애, 조국애를 주제로 한 수많은 영화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완성되게 되였다.

당의 지도밑에 빛나게 창작완성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주제의 이 모든 영화들은 오늘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향토애, 조국애로 교양하는 귀중한 사상정신적 량식으로, 훌륭한 교과서로 되고있다. 이 영화들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애국심은 어떤 사상감정이며 그러한 사상감정을 변함없이 지니고 빛내이려면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 그리고 고향산천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사람은 얼마나 거대한 힘을 발휘할수 있는가 하는 생활의 물음에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향토애, 조국애를 주제로 한 영화들은 무엇보다먼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참다운 조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이 깨우쳐주고있다. 예술영화 《월미도》는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영화에서 대대장은 월미도 해안포중대장인 주인공 리태운에게 조국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하여준다. 대대장이 전쟁전에 본 어떤 책에는 아득한 옛적부터 선조들이 살아오던곳, 아버지의 뼈가 묻혀있고 들판에서 종달새가

우짖는곳, 그 정든 고향산천이 바로 조국이라고 씌여져있었다. 그러나 대대장이 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깨달은 조국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그런것만이 아니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선조들도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서 살았고 그때도 종달새는 울었소. 하지만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기전에야 그게 무슨 의의가 있었단 말이요? 난 그 종달새가 우짖는곳에서 왜놈의 채찍밑에 뼈가 휘도록 고역살이를 했소. 동무도 그랬지? 그러니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군님이시오.》

오늘 사람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있는 이 명대사는 참다운 조국에 대한 개념이 우리 인민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형성되고 공고화되였는가 하는것을 웅변적으로 시사해주고있다.

지난날 우리 인민은 나라없는 식민지노예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뼈저리게 느끼였다. 그렇기때문에 곡절많던 지난날의 생활이 끝장나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다운 삶을 누리게 되자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품,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해주는 위대한 품은 오직 어버이수령님의 품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게 되였으며 조국은 곧 경애하는 수령님이시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공고한것으로, 우리 인민의 자랑높은 민족적 긍지와 철석같은 신념의 원천으로 되였다.

이처럼 예술영화 《월미도》는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어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다함없는 흠모의 정과 하나로 융합되여있으며 그것이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가장 주도적인 흐름을 이루고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확인하였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이 영화는 오늘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주는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다.

향토애와 조국애에 대한 주제의 영화들은 다음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인간과 향토, 조국은 하나의 피줄기로 이어져있으며 조국을 위하여 바친 생은 끝없이 아름답게 빛난다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밝혀주고있다.

우리의 전쟁물영화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것은 인민군전사들이 발휘한 무비의 희생성과 대중적 영웅주의 정신이다. 이 숭고한 사상감정의 바탕에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삶의 보금자리이며 행복의 품인 자기 고향과 조국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놓여있다.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의 주인공 유림의 형상은 이것을 설득력있게 확인하고있다.

그는 이국살이의 오랜 세월에 어머니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사무치게 느껴온 사람이였다. 그러나 그는 한달음에 달려가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애써 누르며 적후에 남아 어려운 싸움의 길을 헤쳐나간다. 이 길에서 유림은 생사를 가늠하기 어려운 고비를 수없이 넘어야 하였으며 귀중한 전우들을 잃고 적들속에 홀로 남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본부에서는 그의 안전을 념려하여 그를 조국의 품으로 불렀으며 일시적으로 잠복기에 들어가라는 따뜻한 권고의 전파도 날리였다. 하지만 조국의 부름에 목이 메여 어린 시절 순진한 가슴에 새겨넣은 대동강과 모란봉을 절절히 그리면서도 사랑하는 고향땅, 평양을 폭격하고 무고한 인민을 살해하는 미제원쑤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로 하여 위험한 적후초소를 떠나지 못하며 정찰활동을 결연히 계속해나가는것이다.

영화는 유림의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애국심은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자기 고향과 이웃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 표현된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또한 조국에 대한 사랑이 혈육과 고향에 대한 사랑, 혁명동지와 후대, 혁명의 미래에 대한 사랑, 청춘의 참다운 사랑과 혈연적으

로 잇닿아있는 바로 여기에 애국심의 마를줄 모르는 원천이 있으며 조국을 위해 한몸 바쳐 나서는 삶보다 더 값높고 빛나는 삶은 없다는 진리를 설득력있게 밝혀주고있다.

이와 함께 오늘의 번영하는 사회주의 조국, 인민의 락원이 어떤 비싼 희생의 대가로 이루어졌는가를 사람들에게 똑똑히 깨우쳐주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영화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워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향토애와 조국애에 대한 주제의 영화들은 다음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자기의 향토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을 가질뿐아니라 그 륭성번영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깨우쳐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과 모든 청년들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자기의 향토를 사랑하여야 하며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락원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김일성저작집》 제12권, 197페지)

향토애, 조국애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실천행동에서 표현된다. 그러므로 향토애, 조국애는 당과 수령의 의도대로 자기 향토와 조국강산을 더욱더 살기 좋고 아름답게 꾸리기 위하여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청년들을 바로 이러한 정신으로 교양하는데서 예술영화 《도라지꽃》은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영화는 무엇보다도 조국에 대한 참다운 사랑은 향토에 대한 사랑에 뿌리를 두고있다는 사상을 밝혀주고있다.

주인공 송림은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우는 우리 시대 참다운 애국자의 빛나는 전형이다. 그는 외지고 궁벽하지만 자기 고향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한다. 그것은 고향이 그저 태를 묻은 땅이여서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불멸의 사적이 깃든고장이며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와 념원이 스민 조국땅의 한 부분이라는 높은 자각을 지니였기때문이다.

이처럼 송림은 인생의 참된 보람도 행복도 고향을 지켜가고 조국을 빛내이는데서 찾는 고결한 혁명적 인생관을 지니였기에 강냉이밥에 토장국을 먹어도 제 고향을 그 어떤 행운과도 바꿀수 없었으며 남이 무어라 하든지 고향을 뜨지 않고 그것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릴수 있었던것이다.

영화는 주인공 송림의 형상을 통하여 향토애가 있어야 조국을 사랑할수 있으며 자기의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 향토를 꾸리고 조국을 빛내이는 사람만이 참다운 애국자로 될수 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이 영화는 또한 자기 고향을 사랑하지 않고 저버린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도 잘 싸울수 없으며 참다운 조국의 아들이라고 할수 없다는 심각한 생활의 교훈을 밝혀주고있다. 주인공 송림의 애인이였던 원봉은 저를 낳아키워준 고향과 조국의 은덕도 생각할줄 모르고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도 볼줄 모르며 한때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

영화는 송림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원봉의 형상을 통하여서는 일신의 안락과 인생의 절호의 기회만 노리면서 고향과 조국을 위하여 이바지하는것이 없이 한생을 덧없이 살아가는 인간이야말로 얼마나 가련하고 루추한 존재인가를 까밝히고있다.

이처럼 영화는 개인주의적 생명관의 정체를 예리하게 해부하여 대담하게 드러내놓음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새세대청년들에게 생활의 심각한 교훈을 일깨워주고있으며 그들로 하여

금 정다운 고향과 은혜로운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이 영화는 또한 제가 나서 자란 고향을 제 힘으로 꾸려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을 깊이있게 그려내고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과 조국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고향과 조국을 위하여 그 사랑을 다 바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고향마을을 세상에 부럽지 않은 살기 좋은고장으로 전변시킨 송림을 비롯한 벽계리청년들이 발휘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정신은 우리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어제나 오늘은 물론 래일에도 반드시 지녀야 할 고상한 혁명정신이다.

오늘 예술영화 《도라지꽃》은 그 커다란 인식교양적 의의와 원숙한 예술적 품격으로 하여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외적으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청년들을 자기 고향과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정신으로 힘있게 교양하는 참된 생활의 길동무로, 교과서로 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영화를 가지고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하고 생활력있고 현명한 방침인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는 영화를 가지고 향토애, 조국애에 대한 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애국자, 주체형의 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켜 우리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깊이 심어줄수 있는 교과서적인 영화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

우리의 생활에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피흘려싸운 혁명선렬들과 애국선렬들,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켜싸운 영웅전사들의 숭고한 애국의 넋이 력력히 어리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우리 당이 빛내여주고있는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성실하게 일한 숱은 애국자들이 수없이 많다. 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우리의 향토와 조국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꽃피났으며 날을 따라 더욱 륭성번영하고있다.

우리 창작가, 예술인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리론, 방침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생활을 깊이 파고듦으로써 그들의 사상정신적 풍모와 실천적 모범을 감동적으로 형상한 새롭고 특색있는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창작된 영화들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실효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조직들과 이 부문 일군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는 당면하여 예술영화 《도라지꽃》에 대한 실효투쟁을 짜고들어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화의 주인공 송림이처럼 자기 향토와 조국을 귀중히 여기고 그와 운명을 같이하며 그것을 목숨바쳐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영화를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향토애, 조국애를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은 실로 의의깊고 중요한 사업이다.

당조직들과 일군들, 영화예술인들은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이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정의의 투쟁

김 봉 주

오늘 남조선에서는 6월인민항쟁이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울산, 부산의 기간산업부문 로동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시작된 로동자들의 투쟁은 남조선의 전지역을 휩쓸었으며 그것은 금속, 기계, 탄광, 광산, 운수, 항공, 화학, 조선, 섬유, 봉사 부문 등 거의 모든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4천개의 기업체에서 련일 과감하게 벌어졌으며 여기에는 연 200여만의 로동자들이 참가하였다.

남조선전역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진 로동자들의 투쟁은 하루동안에 무려 수백개의 기업체에서 벌어졌으며 투쟁에 떨쳐나선 수많은 로동자들은 집회를 열었으며 파업과 태업을 일으키고 철야롱성과 가두시위를 단행하였다.

남조선로동운동에서는 현대, 대우, 럭키, 효성, 국제상사 등 큰 《자본》의 계렬회사로동자들이 대중적으로 진출하여 투쟁의 앞장에 서고있으며 그들은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련대투쟁을 활발히 벌리면서 다른 기간산업부문은 물론 중소기업체 로동자들에게도 커다란 고무적 영향을 주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수일간 또는 10여일간, 지어 근 한달씩 지구적으로 완강하게 투쟁하였다.

급속히 앙양되는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규모와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나 조직성과 완강성, 지구성에 있어서 전례없는 새로운 발전추세를 보이였다.

일본의 한 출판물이 《남조선에서는 파업이 전지역에서 다발하여 심각한 정치문제로 되고있다. 파업은 재벌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이르러 벌써 수출의존형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있다. 로사분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정치동향에 또다시 암운이 드리워질 우려도 있다. 이번과 같은 전지역적인 파업은 남조선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일이다.》라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오늘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고있는 남조선로동운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로동자들의 투쟁이 목적의식적인 조직화된 투쟁으로 전환되여가고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확대되고있으며 조직화되여가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집》 제19권, 513페지)

일반적으로 모든 대중투쟁은 국부적인 투쟁으로부터 포괄적인 투쟁으로, 소극적인 투쟁으로부터 적극적인 투쟁으로, 자연발생적인 투쟁으로부터 목적의식적인 조직화된 투쟁으로 발전하여 최후승리를 쟁취하게 되는것이다.

로동운동에서 목적의식적인 투쟁은 사회의 선진적인 계급인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이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자각적으로 떨쳐나설 때, 자주적인 사상과 리념에 기초하고 옳바른 지도핵심의 지도를 받을 때 성과적으로 벌어질수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짓밟는 파쑈통치에 항거하여 굽임없는 투쟁을 벌려오는 과정에 자기의 사회계급적 처지를 자각하고 보다 의식화, 조직화되였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하

기 위한 투쟁무대에 적극 떨쳐나서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급격히 앙양되고있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그 뚜렷한 증거로 된다.

아직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남조선로동자들은 자주사상에 기초하고있는 민주쟁취, 민중해방, 민족통일의 《삼민주의》를 운동의 지도리념으로 삼고 그에 따라 로조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있으며 신축자재한 전술로써 운동을 목적의식적으로 이끌어나가고있다.

투쟁에 나선 남조선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조직에 의거하여 행동의 통일성을 보장해나가는 한편 자주적인 새 로조의 결성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7월중순에 70여개의 기업단위 로조대표들이 새로운 《로동조합민주화실천위원회》(로민위)를 결성하고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로동법제정을 요구하여 강력한 투쟁을 벌린것은 비록 여기에 일부 어용로조대표들이 개입되고 통일적인 로조의 지도는 보장되지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 조직적 성격을 띠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의 모든 지역, 모든 단위에서 로동자들은 공통적인 요구조건과 동일한 구호를 들고 투쟁을 벌릴뿐아니라 기업주들과 타협된 요구조건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일단 멈추었던 투쟁도 다시 벌려나가고있다. 이것은 지난 시기의 투쟁과 구별되는 새로운 측면이라고 볼수 있으며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이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새롭게 방향전환되고있다는것을 실증하여준다.

새롭게 발전하고있는 남조선로동운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로동자들이 투쟁구호를 경제적인것과 함께 정치적인것을 적절히 배합하여 들고나오고있으며 로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것이다.

투쟁구호는 투쟁의 성격과 운동의 방향을 규제하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로동자대중에게 옳은 투쟁목표와 활동방향을 제시해주어야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울수 있고 정권전취를 위한 투쟁에로까지 힘있게 이끌어갈수 있다.

로동계급이 순 경제적인 요구만 제기하거나 개량주의적인 구호만을 들고나가서는 노예적 순종과 무권리에서 벗어날수 없고 자기들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할수 없다.

남조선사회발전의 주체적인 력량이며 핵심력량인 남조선로동자들이 자주적인 존재로 되고 령도계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면 경제적 요구와 함께 정치적 요구를 제기해야 하며 운동의 정치적 성격을 높여나가야 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과 같은 문제들만을 내세우던 종래의 제한성에서 벗어나 오늘 경제적 요구와 함께 8시간로동제의 실시, 로동관계《법》과 어용로조의 철폐, 자주적인 로조결성과 같은 정치적 요구를 적극 내세우고있다.

울산의 1만 2천명의 로동자들은 20%의 임금인상과 함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보장과 8시간로동제실시, 어용로조의 철폐와 자주적 로조의 결성 등 정치적 요구를 들고나와 생존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남조선로동자들이 이번에 들고나온 투쟁구호에는 사실상 미제의 식민지적 예속화정책과 그 주구들의 반동적인 로동정책에 항거하여 남조선사회를 자주화, 민주화하려는 그들의 의지와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세계의 광범한 사회계, 언론계, 출판계가 남조선의 로동운동에 대해 대서특필하면서 로동자들의 요구는 《임금인상보다 공평한 분배 등 경제적인것이지만 자주와 민주가 주요사항》이라고 평한것은 정당한것이다.

남조선로동운동이 더욱더 정치적 성격을 띠고있는것은 그것이 반미투쟁과 결합되고있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광주의 피의 교훈을 통하여 미제야말

로《해방자》,《원조자》가 아니라 침략자, 략탈자이며 광주학살의 공범자라는것을 똑똑히 인식한 남조선로동계급속에서는 오늘 반미투쟁의 기운이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지난 5월 반미투쟁의 봉화를 들고 용감하게 진출하였던 남조선로동자들은 전두환, 로태우일당의 기만적인《6.29특별선언》이후 미국인 직접 투자가 집중되여있는 공업단지들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권획득을 위한 투쟁을 련이어 힘있게 벌리였다.

이것은 남조선로동자들속에서 자주의식과 계급적 자각이 높아가고 로동운동의 정치적 성격이 점차 강화되여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로동운동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항쟁자들이 주동을 쥐고 파쑈도당과 기업주들을 피동에 몰아넣으면서 투쟁을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는것이다.

투쟁에서 누가 주동을 장악하는가 하는것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로동자들은 굽임없이 투쟁하여왔지만 그것이 중도에서 좌절되고 많은 경우 실패하고말았다.

그런데 오늘의 남조선로동운동은 이 점에서 본질적인 전진을 보이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거리에서 강력한 실력투쟁을 벌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악질기업주들과 괴뢰당국을 피고석에 앉히고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들이대며 그것을 관철해나가고있다.

지난 8월 울산의 태광산업주식회사, 현대중공업회사조선소, 부산의 조선공사와 청주계전공장, 현대정공창원공장을 포함한 20여개의 회사로동자들은 완전히 주동을 쥐고 투쟁을 벌려 기업주를 굴복시켰으며 제주도내 뻐스운전수들은 운행거부투쟁으로 임금인상을 실현한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요구조건을 회사측에 들이대면서 격렬한 시위와 롱성파업투쟁을 벌려나갔다.

남조선로동자들은 6월인민항쟁을 계기로 투쟁에 궐기한 이후 이미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적지 않게 관철하였으나 그에 멈추지 않고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실력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독재와 억압에 항거하여 일떠선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이른바《시국수습안》을 내놓고《민주발전》을 운운하면서《민정당》의 장기집권을 꾀하는 전두환, 로태우일당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 놈들로 하여금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있으며 그러지 않아도 빚더미우에서 허덕이는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빨리 발전하고있는 로동자들의 투쟁은 괴뢰도당의 군사파쑈독재밑에서 쌓이고쌓인 사회정치적 및 경제적 모순의 폭발이며 압제자들을 반대하고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이다.

로동자대중은 력사의 주인, 사회적부의 창조자로서 응당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있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에서는 전두환, 로태우일당의 반인민적인 로동시책과 매판자본가들의 악랄한 리윤추구책동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이 가장 무권리한 존재로 되고있으며 최악의 비참한 생활처지에 놓여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무엇보다도 가혹한 저임금정책과 세계에서 제일 긴 로동시간, 류혈적인 로동강도에 의하여 마소처럼 혹사당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하루 보통 12～16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으며 특히 외국인 기업체에 고용된 로동자들의 하루 로동시간은 18시간이상에 달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로동조건은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저의 상태에 있다. 남조선에서는 1986년 한해동안에만 하여도 로동재해로 14만 2천 4백여명이 죽거나 불구로 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출판물들까지도 로동재해를

가리켜 《제3의 전쟁》이라고 개탄하고있는 형편이다.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있는것도 남조선로동계급이다. 남조선의 어용로조가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남조선로동자들이 받고있는 평균임금은 최저생계비의 4분의 1도 못되는 기아임금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준비책동으로 말미암아 《방위비》를 비롯한 각종 명목의 세금때문에 큰 부담을 걸머지고있다.

더우기 미제가 강요하는 경제의 군사화정책과 《수입개방》책동으로 인한 남조선경제의 위기가 심화됨으로써 로동자들의 실질수입은 계속 떨어지고 집단해고와 실업사태가 날로 증대되고있다. 실로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은 일할래야 일할곳이 없고 더이상 살래야 살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일자리를 빼앗기고 가족들을 먹여살릴수 없게 된 로동자들속에서는 생활고를 견딜수 없어 목숨을 끊어버리는 참극이 수없이 빚어지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생존권을 완전히 빼앗겼을뿐아니라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마저 깡그리 유린당하고있다.

전두환괴뢰도당은 로동관계악법들을 조작하고 파쑈적 폭압체제를 구축하여 남조선로동자들의 모든 권리와 자유를 제도적으로 철저히 유린말살하고있다.

전두환일당은 세계적으로 공인되고있는 로동계급의 기본권리인 로조결성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마저 보장해주지 않고있다.

놈들은 로동운동에 공권력을 사용할수 있다는것을 법적으로 규정해놓음으로써 남조선로동운동에 대한 저들의 로골적인 개입과 탄압을 합법화하였으며 로동단체들을 마음대로 강제해산시킬수 있게 만들어놓았다.

《정권》유지를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두환일당은 로조의 어용화를 《법제화》하여 제반 로조조직들을 더욱 철저히 관제어용조직으로 만들어 남조선로동운동을 전면적으로 말살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로동자들을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이른바《민주화공약》에서도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보장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약》후에도 생존과 민주주의를 위한 로동자들의 의로운 진출을 총칼로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놈들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투쟁의 거리에 나섰던 대우조선소의 청년로동자 리석규를 야만적인 최루탄공격으로 무참히 학살하였으며 그의 장례식행렬에마저 폭행을 가했을뿐아니라 추모집회에 참가했던 로동자들을 련행하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전두환, 로태우일당이 《민주화공약》을 한 이후에 죄없이 구속된 로동자들만 해도 무려 수천명이나 된다.

이것은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떠들던 그들의 《민주화공약》이 군부독재를 유지연장하기 위한 뒤집어놓은 파쑈체제유지선언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말로는 민주정치를 운운하면서 실제행동에서는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고있는것은 전두환, 로태우일당이 표방하는 민주주의가 하나의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것을 말해주고 있다.

죽도록 일하고도 최악의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으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빼앗기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는 남조선로동자들이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거족적인 투쟁의 광장에 분연이 떨쳐나선것은 지극히 정당하며 필연적인것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생활체험을 통하여 식민지군사파쑈독재를 그대로 두고서는 자기들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생존권도 보장받을수 없다는것을 깊이 절감하고있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자주화, 민주화를 지향하면서 전체

없이 높은 차원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6월반미반파쑈항쟁이후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그것을 반《정부》투쟁으로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독재타도와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는 각계각층의 민주세력과 공동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날로 확대발전하고있는 남조선로동계급의 완강한 투쟁앞에서 극도로 당황한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지금 그것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놈들은 의로운 투쟁에 나선 로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며 위협공갈하는 한편 《로사간의 교섭》을 설교하면서 그들의 투쟁을 무마시켜보려고 온갖 회유, 기만술책을 다 쓰고있다.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이처럼 날을 따라 강화되고있는 남조선로동운동으로 하여 더욱 심각해진 위기로부터의 출로를 대대적인 폭압소동과 회유기만책동에서 찾으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남조선로동자들은 결코 괴뢰들의 그 어떤 파쑈폭압에도 굴하지 않을것이며 회유기만술책에도 넘어가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로동운동의 주역들은 각성되지 못하였던 어제날의 근로자들이 아니며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오늘의 로동자대중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로동자들은 독재자들의 파쑈적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있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도 점차 높은 요구조건을 내걸면서 완강하게 싸우고있는것이다.

실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해 떨쳐나선 남조선로동자들의 힘찬 진출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전두환군사파쑈독재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고있으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남조선사회의 주인으로서, 력사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으로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공화국북반부 전체 로동계급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힘찬 투쟁에 굳은 련대성과 뜨거운 지지성원을 보내고있다.

남조선로동운동은 시작에 불과하며 남조선로동자들은 더욱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앞으로 더 많은것을 쟁취하여야 한다.

남조선로동계급은 오늘의 투쟁을 광주대학살의 장본인인 전두환과 로태우일당의 군사파쑈통치를 끝장내고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세우며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계속 힘있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전두환, 로태우일당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철저한 매국노이며 미제의 충실한 하수인이며 남조선로동계급과 청년학생들을 무참히 학살한 살인귀들이다. 전두환, 로태우일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결코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원할수 없고 짓밟힌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옹호실현할수 없다.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전두환, 로태우일당이 떠드는 《공약》의 반동적 내막을 똑똑히 알고 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오늘의 성스러운 투쟁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단결하며 이여의 계급, 계층, 운동과의 련대성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단결을 강화하며 련대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로동운동발전의 근본요구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단결하면 승리하고 분렬하면 실패를 면치 못한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투쟁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남조선 로동계급과 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거족적인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저주로운 군사파쑈독재는 종말을 고하고야말것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미국식 생활양식의 해독적 후과

서 치 련

미국식 생활양식은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투의 기본방식이며 그의 주되는 내용이다. 미제는 사상문화적 침략을 식민지통치의 기본수단의 하나로 리용하고 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신식민주의통치이며 여기에서 사상문화적 침투는 그의 길잡이, 선행공정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양식을 광범히 퍼뜨리는것을 통하여 인민들을 저들의 식민지통치에 순순히 응하는 노예로 만들고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는 저들의 반동적이고 퇴페적인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남조선에 광범히 류포시키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숭미사대주의를 부식시키기 위하여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렸습니다.》

미국식 생활양식은 극단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에 기초한 황금만능주의이며 일신의 향락과 부화방탕, 패륜패덕으로 일관된 썩을대로 썩은 생활양식이다. 그렇기때문에 미국식 생활양식이 미치는 모든곳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불구자로 되고있으며 사회는 말세가적인 풍조로 만연되고있다. 미제의 식민지인 남조선이 그 대표적 실례로 된다.

미제는 저들의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남조선에 퍼뜨림으로써 한편으로는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다른 편으로는 숭미, 공미 사상을 불어넣어 남조선에 대한 지배와 략탈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그를 위해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부패타락한 생활양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우선 미제는 남조선에 방대한 사상문화기구들을 꾸리고 여기에 많은 전문가들을 배치하였다.

남조선에 기어든 미제는 군정시기 군정청에 공보담당 기구를 두었으며 괴뢰정부를 조작한 이후에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 《공정과》를 두었다. 그리고 미국공보원의 직속으로 남조선주재 미공보원을 두었다.

미제는 이 기구들을 통하여 남조선의 사상문화분야를 장악통제하고 제놈들이 직접 남조선인민들속에 양풍을 체계적으로 퍼뜨렸다.

미제는 남조선에 있는 문화원에 저들의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전문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수많은 부서들을 두었으며 여기에 적지 않은 전문일군들을 배치하였다.

뿐만아니라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맺은 각종 《조약》, 《협정》 그리고 《원조》를 통해서도 저들의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양풍을 집요하게 주입시키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맺은 《행정협정》에서 주파수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관한 문제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정부의 《지정통신당국의 약정에 따라 최대의 조정과 협력의 정신으로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남조선

《법》의 그 어떤 제한이나 구속도 받음이 없이 방송, 통신 분야에서 치외법권적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최근에도 미제는 남조선시장개방압력의 일환으로 괴뢰정부에 《영화법시행령》을 개정하게 하고 여기에서 미국영화업체의 남조선내 영업과 지점설치를 허용하게 함으로써 세력이 크고 자금이 많으며 영향력이 큰 미국영화업체들이 남조선영화부문을 완전히 틀어쥐게 하였다.

미제가 사상문화분야에 들이민 《원조》도 남조선에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리고 사상문화의 모든 부문을 지배하기 위한 침략의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교육과 문화 분야에 경제《원조》와 기술《원조》를 주고 이것을 미끼로 하여 괴뢰정부의 사상문화분야의 정책과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고 있다.

미제는 또한 남조선괴뢰들을 내세워 미국식 생활양식을 남조선에 광범히 류포시키고있다.

괴뢰들을 전면에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상투적인 수법이다. 바로 미제가 남조선에서 괴뢰들을 내세워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고있으며 저들의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퍼뜨리고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문화교류위원회》, 《교육합동위원회》 등을 만들고 여기에 사상문화분야의 관계자들을 넣고 제놈들의 앞잡이로 리용하고있다.

미제는 이 《위원회》들을 통하여 문화교류, 인사교류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고있다. 즉 미제는 신문, 방송, 문학예술, 교육 정책을 저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우도록 하고있으며 그 관계자들을 앞잡이로 키워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리는 매개자로 리용하고있다.

이처럼 미제는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저들의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남조선에 부식시키기 위한 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사상문화부문의 지배체계를 세운데 기초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미국식 생활양식을 주입시키고있다. 신문, 잡지, 단행본, 연극, 영화, 노래, 춤, 방송, 텔레비죤은 그 주요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우선 량적으로 많은 출판물과 예술작품을 남조선에 들이밀고있으며 방송시간도 길게 하고있다.

1981년에 남조선에서 불리운 퇴폐적인 미국가요는 남조선가요보다 590곡이나 더 많았으며 미국의 소리방송시간도 남조선괴뢰방송시간보다 하루에 평균 9시간이나 더 길었다. 그리고 놈들이 1982년에 남조선에 들이민 정기간행물은 200여만부, 단행본은 무려 400여만부에 달한다.

미제는 이와 같이 방대한 량의 사상문화수단들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극도의 개인주의와 리기주의,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를 고취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을 남조선인민들속에 주입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말하여준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책동과 부패타락한 미국식 생활양식의 류포로 말미암아 남조선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매우 엄중한 후과가 빚어지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빠진 말세기적인 미국식생활양식이 사회생활에서 건전한 모든것을 좀먹고있다.》
(《김일성저작집》 제19권, 320페지)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양식의 침투로 하여 오늘 남조선에서 민족문화와 고유한 미풍량

속은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있다.

남조선에서는 민족문화예술작품들이 서양화되고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모든것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다. 민족고전들은 완전히 모독되고있으며 진보적인 영화예술은 말세기적인 풍조로 일관된 미국의 깽영화에 눌리여 시들어가고있다. 그리고 무대예술과 미술도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와 특징이 흔적마저 사라지고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도저히 상상할수도 없는 한심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또한 광증과 비애, 절망과 고뇌로 가득찬 쟈즈나 류행가따위로 일관되여있는 미국의 음악과 동물적인 광증을 일으키는 미치광이양춤이 남조선에 쓸어들어와 우리의 노래와 춤은 서양화되여가고있다. 민족의 슬기와 기상, 재능이 담겨져있으며 우리 나라 력사의 유구성과 문화발전의 높이를 보여주는 민족문화유산은 무참히 파괴유린되고있다.

민족적 량심과 자존심이라고는 털끝만치도 없는 남조선괴뢰들이 영어를 마구 끌어들임으로써 민족의 자랑이며 긍지인 조선말은 짓밟히고있다.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이다. 언어는 민족과 함께 형성되고 발전되여왔기때문에 언어의 순수성이 보장되지 못하면 민족의 동질성에 금이 가게 된다.

그렇지만 민족도 모르고 민족의 순수성도 안중에 없는 남조선괴뢰들은 영어가 사회생활전반에서 판을 치게 하고 조상전래로 발전풍부화시켜온 우리 말을 영어가 섞인 잡탕말로 변색시키는 참을수 없는 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영어가 얼마나 성행하는지 학교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기관과 회사들에서도 영어를 모르면 《공무원》이나 기타 요직에서 일할수 없으며 사회에서 활동하기조차 곤난한 형편이다.

남조선에서 신문, 잡지, 영화, 노래는 물론 상점광고와 상품이름에서까지 영어가 판을 치고있다.

남조선출판물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번화가인 《중앙동》에 있는 상점간판의 13.2%, 《고상동》의 간판의 6.3%, 《경원동》의 간판의 7.4%만이 조선말이였고 나머지는 다 영어이거나 영어와 조선말이 섞인 잡탕간판이였다.

지금 남조선신문광고에 나오는 상품이름의 99%는 영어를 기본으로 한 외래어로 되여있다.

특히 과학, 문화, 체육 용어에는 영어가 섞이지 않은 말이 없어 영어를 모르고서는 물건도 제대로 살수 없고 체육경기관람과 문화예술도 감상할수 없는 형편이다.

지어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영어를 알고 미국에 가서 류학을 하고 돌아오면 인간생활에서 가장 장한것을 한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 남조선괴뢰상층부속에서 우심한데 그들가운데는 미국에 가서 각이한 명목으로 일정한 기간 체류하지 않은자가 없으며 자기 자식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은자가 없다. 이들은 원래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이 강한데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식 생활양식에 물젖어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있다. 이 과정에 민족적인것은 점차 사라지고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사회생활관계에서조차 미국식 생활양식이 지배하게 되는것이다.

남조선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의복, 몸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상때부터 내려오던 고유한 미풍량속이 심히 어지럽혀지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생활규범, 행동준칙, 륜리도덕규범 등에서 개인주의와 향락주의를 그 기초에 놓이게 함으로써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있다.

우선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게 하고있다.

사람들을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시키려면 그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높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은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적 자각이 높아야 형성될수 있으며 민족적

자부심과 계급적 자각은 민족성과 계급성에 기초하고있다.

미국에 대한 숭배와 우상화에 빠져 미국식 생활양식대로 살고 미국사람이 되지 못한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인간들속에서는 계급적 자각은 고사하고 그 어떤 민족적 자부심도 있을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식 생활양식이 널리 퍼진 결과 그에 물젖은 사람들속에서는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계급적, 민족적으로 각성하는것을 저애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는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일제시기에는 광주에서 일본인 남학생이 우리 녀학생을 모욕한 하나의 사건만 가지고도 전민족적인 반일투쟁이 벌어졌는데 오늘은 미제가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불행과 재난을 들씌우고 우리 녀성들을 마음대로 희롱하며 지어 정의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들쥐》, 《망나니》라고 모독하는 발언을 함부로 줴쳐도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하고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서지 않는것은 다 미제에 대한 환상과 미국식 생활양식이 빚어낸 후과라고 말할수 있다.

미국식 생활양식은 황금만능주의와 향락주의를 조장하고 돈과 향락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기때문에 그에 물젖으면 계급도 민족도 지어 인간의 존엄마저 버리는 무골충으로 되고만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 미국식 생활양식에 물젖은 일부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일신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을 경원시하고 랭대하고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의 리익보다도 개인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정신적 불구자들이며 종당에는 민족반역의 길로 떨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미국식 생활양식은 사람들을 돈과 향락만을 추구하도록 하기때문에 이에 깊이 물젖은자들은 돈과 향락을 위해 사기와 협잡, 패륜과 패덕을 서슴지 않게 된다. 이런 인간추물들은 자기와 리해관계가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들을 증오하고 타승하기 위한 야수적이고 야만적인 행동을 서슴없이 감행한다.

오늘 남조선사회에는 미국식 생활양식이 널리 퍼져 자신의 안일과 향락만을 추구하여 행동하는 현상이 수없이 나타나고있다.

사람들을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야 할 인간생명의 기사들인 의사들이 돈을 낼 힘이 없다고 하여 죽어가는 사람에게 꽂았던 주사바늘을 그냥 뽑고 수술대우에서 신음하는 생명을 보고도 수술칼을 대지 않는 현상, 사람들에게 지식과 도덕을 가르쳐 그들이 사회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도록 해야 할 교수와 교원들이 돈을 위해 학교를 모리화하는 행위, 인간이 고상한 문화와 정서를 가지도록 해야 할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을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 등은 다 미국식 생활양식이 빚어낸 악독한 후과들이다. 이로부터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아름다운 미풍은 찾아볼수 없고 남이 잘되는것을 시기질투하는 비인간적 현상이 사회전체에 만연되여있다.

남조선에서 미국식 생활양식의 악독한 후과는 또한 극도로 부화타락하고 추잡한 퇴폐적인 현상이 사회에 퍼지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남조선의 일부 사람들은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양식에 물젖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없이 되는대로 살아가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젊은 녀성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양춤장》과 《유흥가》에서 추태를 부리고있으며 많은 녀성들이 양키놈들의 희생물로, 롱락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이 모든 사실은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을 마구 끌어들여 남조선사회를 병들게 만든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 죄행이 얼마나 엄중한 매국적

후과를 가져왔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사회가 오늘과 같이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이 유린말살되고 온갖 사회악이 지배하는 썩고 병든 사회로 굴러떨어진것은 전적으로 40년이 넘도록 남조선을 강점하고 저들의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상문화와 양풍을 악랄하게 고취하고있는 미제와 그에 굴종하고있는 전두환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 책동의 결과이다.

전두환악당놈은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고 제놈의 일신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매국역적이며 파쑈폭압에 이골이 난 군사불한당이며 동물적인 색정과 부화방탕을 업으로 삼고있는 인간쓰레기이다. 바로 이러한놈이기에 이 역적놈은 총칼로 《정권》을 가로챈 첫날부터 미국상전의 품에 안겨 남조선사회의 《양키화》에 광분하여왔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남조선에서 아름다운 민족문화와 민족의 미풍량속이 여지없이 유린말살되고 패륜패덕이 지배하는 사회로 전락된것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고 미국식 생활양식을 뿌리뽑는것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미국식 생활양식이 사회에 미치는 엄중한 후과와 그 해독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

지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온갖 부패한 사상문화와 미국식 생활양식을 퍼뜨려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켜 남조선을 영원히 제놈들의 식민지로 틀어쥐려 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제가 제아무리 저들의 퇴폐적인 사상과 생활양식을 부식시켜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성과 계급성을 말살하려고 해도 그렇게는 절대로 되지 않을것이다. 지난날과 같이 미제가 《원조자》, 《벗》으로 가장하여 남조선인민들을 기만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으며 남조선인민들은 더는 미제의 피임수에 속아넘어가지 않을것이다. 특히 광주인민봉기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적으로, 계급적으로 각성되고있으며 드디여 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이 엄연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온갖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사상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진보적인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되고야말것이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

김 용 순

오늘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을 방지하고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시대의 엄숙한 과제이다.

새 전쟁의 위험이 짙어지고 거대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들이 지구상에 수많이 축적되여있는 조건에서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세계도처에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여야 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의 모든 지역들에서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을 위한 투쟁이 급속히 확대되고있다.

세계적 판도에서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고 확대하는데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비핵, 평화 지대화는 현시기 국제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전반적 국제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오늘 인류앞에 나선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현시기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드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이 지역에서 미제의 핵전쟁책동이 더욱더 로골화되고 있는것과 관련되여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매우 중시하고있으며 이 지역을 틀어쥐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미제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는것을 저들의 세계전략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있는것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지위문제와 관련된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지구의 거의 절반과 세계해양면적의 70%를 차지하고있으며 여기에는 세계인구의 3분의 2이상이 살고있다. 이 지역에는 자연부원 특히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수행에 절실히 필요되는 전략자원이 풍부하다. 미제는 이 지역을 저들의 군수공업의 값싼 원료원천지로, 다국적 회사들의 방대한 투자원천지로 리용하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자연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 여기에는 군사전략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국제수로들과 해협들, 요충지들이 적지 않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이 가지고있는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으로 하여 미제는 이 지역을 저들의 리익을 위한 《사활적인 지역》으로 선포하고 《21세기는 태평양시대》이며 《미국의 장래는 아세아에 있다》고 떠벌이면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는것을 세계전략의 근본요구로 내세우고있는것이다.

현시기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추구하는 기본목적은 《힘》으로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 력량을 견제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확립하자는것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돌리고있으며 여기에서도 동북아세아를 중시하고있다. 미제는 동북아세아지역에 나토형의 군사쁠럭인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을 조작하고 그것을 중추세력으로 하여 전아세아를 포괄하는 군사기구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

들을 포위하는 《태평양환》을 형성하려 하고있다.

또한 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핵무기를 비롯한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배치하여 이 지역을 핵대결장으로, 핵선제타격을 위한 전쟁기지로 만들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는 350여개의 미군사기지들과 군사대상들이 있으며 거기에는 약 50만명의 미제침략군이 배치되여있고 수천개의 핵무기들이 저장되여있다. 이와 함께 핵무기를 적재한 미군 함선들과 잠수함들이 이 지역의 광대한 수역을 싸다니고있으며 핵무기를 운반할수 있는 비행기들과 미싸일들이 계속 배비되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특히 조선반도에서 집중적으로 강화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식민지군사전략기지로 영구히 틀어쥐고 그곳을 발판으로 하여 전조선과 사회주의나라들을 침략하며 나아가서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이러한 목적밑에 미제는 남조선에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그곳을 위험한 전쟁화약고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새로운 여러가지 핵무기들을 련속 투입하고 대규모의 핵지장고들을 건설하고있다. 그리고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계획을 짜놓고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있다. 미제가 해마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벌리고있는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과 사회주의나라들을 선제공격하기 위한 핵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이 전쟁연습의 위험성은 올해에 있은 《팀 스피리트 87》합동군사연습에 《이씨 135》핵공격지휘기와 전면핵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대통령과 미군부우두머리들이 공중에서 핵전쟁을 지휘하는 사령기인 《이-4비》까지 동원된 사실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미국반동지배층들이 조선반도 《유사시》에 《핵무기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것이라고 공언한것처럼 미제는 실지로 조선에서 핵전쟁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이다.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세아는 물론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급속히 타번질것이며 인류는 무서운 핵참화를 입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증대되는 핵전쟁의 위협은 곧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되며 조선의 평화문제는 조선민족의 운명뿐아니라 아세아인민들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현시기 조선문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문제가 곧 아세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은 조성된 정세의 위험성과 세계평화위업앞에 지닌 중대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평화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에 의하여 수많은 인민들이 참화를 입은 지역이다. 때문에 이 지역 인민들은 핵무기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으며 평화에 대한 열망도 높다. 이 지역 인민들은 핵무기에 의한 재난이 다시는 빚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투쟁은 핵참화로부터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구원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인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새 사회,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이 투쟁에서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은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이다.

비핵, 평화 지대창설을 위한 투쟁은 핵전쟁의 실제적 요인과 위험을 제거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평화옹호운동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고 그것을 넓혀나가는것은 핵군축을 실현하고 핵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9권, 497페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 비핵, 평화지대를 창설하는것은 이 지역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비핵, 평화 지대는 일체 핵요소들과 전쟁근원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비핵, 평화 지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소유, 배비 및 사용, 핵무기를 장비한 비행기와 함선들의 령공, 령해의 통과가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의 전쟁수단과 군사기지들, 군사인원이 없는 지역이다. 그러므로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는것은 곧 핵전쟁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것으로 된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을 비핵, 평화지대로 만들면 여기에 있는 모든 핵무기들과 핵운반수단들, 핵기지들이 철페되여 핵전쟁의 온상이 없어지게 되며 이와 함께 다른 나라 땅에 있는 외국의 군사기지들과 군사인원들이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게 될것이며 이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오늘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투쟁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전쟁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일본사회당과 함께 1981년 3월 동북아세아지역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조선과 일본 및 그 주변 지역에 전개되여있는 모든 핵무기들을 파괴하고 이 지역에서 핵무기의 개발과 시험, 생산과 배치, 반입과 저장, 소유를 금지하며 외국군대와 외국군사기지의 철거 등을 주장한 공동선언의 발표는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를 다그치며 평화를 수호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또한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해에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은데 이어 올해 7월에는 대규모적인 단계별 무력축감제안을 내놓고 올해말까지 10만명의 인민군무력을 일방적으로 줄일데 대한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의 평화제안들과 조치들은 어떻게 하나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치상태와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핵전쟁의 근본요인을 제거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과 확고한 의지의 뚜렷한 표시이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성의있는 노력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로부터 커다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것은 하나의 세계적 흐름으로 되고있다.

오늘 남조선인민들도 반미자주화, 반파쑈민주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배치되여있는 미제침략군과 미국의 핵무기들, 핵기지들을 철거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이 투쟁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비핵, 평화 지대창설투쟁과 밀접히 이어져있다.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은 일본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일본의 진보

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 사회정치활동가들, 각계각층 인민들은 《비핵3원칙》을 철저히 지킬것을 일본반동정부에 요구하고있으며 일본령토에 있는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철폐하고 미군의 핵함선들의 기항을 반대하며 도시와 마을들을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일본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이미 1,100여개의 지역과 도시, 마을들이 비핵지대로 선포되였다.

동남아세아나라들도 이 지역을 핵무기가 없는 평화로운 지대로 만들것을 주장하고있으며 남태평양나라들은 남태평양을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라로통가조약》을 체결하였다. 뉴질렌드정부는 자기 나라 해안으로부터 200마일까지의 수역을 비핵지대로 선포하고 외국의 핵잠수함, 핵무기들을 적재한 함선들이 뉴질랜드에 들어오는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모든것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이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힘으로 장성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은 핵무기가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주적으로 살려는 이 지역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는 진보적 운동이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핵전쟁수단인 핵무기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철폐할것을 절절히 바라고있으며 또 그것을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인민들은 장구한 기간 인류가 쌓아놓은 물질문화적 재부가 전쟁으로 파괴되는것을 절대로 원치 않고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현대과학과 문명을 핵무기의 제조가 아니라 인류의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리용하며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있다.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은 인민들의 이러한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매개 나라의 자주적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과 잇닿아있다. 이 운동은 단순한 평화만을 목적하고있는것이 아니다.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은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이 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려는 인민들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평화에 대한 인류의 념원,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있고 그 실현을 위한 강력한 대중적 운동이라는 여기에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의 진보성이 있으며 이 운동이 커다란 견인력을 가지고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근본요인이 있는것이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에는 수억만을 헤아리는 이 지역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참가하고있다. 여기에는 국적과 당파, 신앙과 정견, 사상과 제도에 관계없이 여러 나라 정부들과 수많은 정당, 사회단체, 정계, 사회계, 과학계, 언론계, 종교계의 인사들, 로동자, 농민, 사무원 등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들이 망라되고있다. 또 이 운동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광활한 이 지역을 다 포괄하고있으며 국제적 련대성의 긴밀한 뉴대속에서 발전하고있다. 지난해 9월 《조선반도에서의 비핵, 평화를 위한 평양국제회의》와 올해 9월 평양에서 있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비핵, 평화와 반제련대성을 위한 국제회의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세계의 수많은 나라 정부들과 정당들, 국제기구들과 단체들, 사회정치활동가들과 인민들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있으며 조선반도를 비롯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비핵화를 견결히 요구하고있다.

국제적인 반제, 반전, 반핵 평화옹호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을 핵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이룩하며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려는 인민들의 사활적인 리해관계에 토대하여 하나의 사회적 운

동, 대중적 운동으로 굽임없이 확대발전하고있는 여기에 이 운동의 위력이 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은 반제반미투쟁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룬다. 비핵, 평화지대창설을 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제국주의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평화의 주되는 원쑤이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정책을 추구하고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제국주의자들이다. 비핵, 평화 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투쟁은 바로 미제의 핵전쟁정책을 반대하고 그들이 이 지역에 전개한 핵무기와 핵군사기지를 철페하는것을 기본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이 강화될수록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핵전쟁정책은 더욱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될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세계평화 위업수행에서는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오늘 평화를 수호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을 보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현실은 이 지역 인민들로 하여금 평화옹호투쟁,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의 문명과 전도에 대하여 념려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이며 성스러운 위업이다.

다른 모든 사회적 운동과 마찬가지로 평화옹호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다. 평화에 대한 공통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이 적극 떨쳐나서야 인류공동의 평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는 이 지역 인민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투쟁에서 힘의 원천은 단결에 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은 서로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에 공동으로 맞서야 하며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침략의 마수가 뻗쳐있는 모든곳에서 제국주의자들에게 집단적 반격을 가하여야 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강권과 식량, 무기, 재정 등 여러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반핵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여 이 나라들을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에서 떼내려 하고있다. 그러나 이 지역 인민들이 호상 련대성을 강화하고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의 위협공갈과 압력을 물리치고 반핵, 평화옹호 립장을 튼튼히 지켜나갈수 있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은 이 지역에 있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기지들과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핵무기를 철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비핵, 평화 지대를 계속 넓혀나가며 이미 선포된 비핵지대들을 튼튼히 지켜나가기 위한 투쟁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립장이다.

평화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은 앞으로도 반제, 반전, 반핵, 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조선반도와 아세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비핵, 평화지대창설을 위하여,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 나갈것이다.

아세아, 태평양 지역 인민들의 정의의 평화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근로자 1987년 제12호(루계 548호)

편집위원회

번곳• 근 로 자 사 인쇄소•평양종합인쇄공장
인쇄• 1987년 12월 1일 발 행•1987년 12월 3일

ㄱ—75219 주소• 평양시 동대원구역 문신1동 값 70전

1987년도 《근로자》 차례묶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헌

호수 페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헌

편집국론설

혁명전통론설

당건설론설

정치사상론설

경제건설론설

과학문화론설

경험론설

조국통일 및 남조선 론설

국 제 론 설

반동리론비판론설

방 문 기